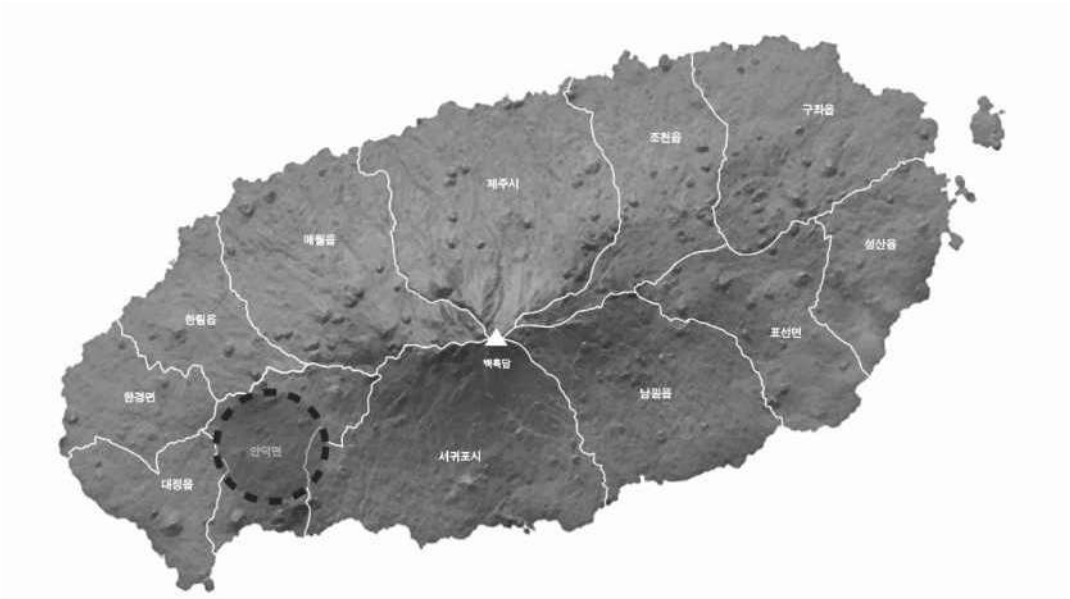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46-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2
-안덕면 덕수리

구술: 양기옥, 김동권
채록·전사: 김순자
표준어 대역: 최연미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2
안덕면 덕수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연구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8

Ⅱ. 구술 자료 ····· 11
1. 조사 마을 ····· 11
2. 제보자 일생 ····· 38
3. 밭일 ····· 105
4. 들일 ····· 186
5. 바다일 ····· 245
6. 의생활 ····· 256
7. 식생활 ····· 306
연구 참여자 ····· 44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억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Ⅱ. 구술 자료

(@ 김순자, #1 양기옥, #2 김동권)

1. 조사 마을

101001 @1 그 삼춘 그 이 마을 그 형성. 아, 그 전에 삼춘 성함이 어떵뒈마씨?(그 삼촌 그 이 마을 그 형성. 아, 그 전에 삼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101001 #2 김동권입니다.(김동권입니다.)
101001 @1 몃 년생이우꽈?(몇 년생입니까?)
101001 #2 삼팔년 십일월 십팔일.(삼십팔 년 십일월 십팔일.)
101001 @1 삼팔년 십일월 십팔일예?(삼십팔 년 십일월 십팔일이요?)
101001 #2 예.(예.)
101001 @1 그 여기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그 여기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
101001 #2 여기에서 나고.(여기에서 나고.)
101001 @ 예, 알앗수다. 이 마을 형성은 어떵 뒛덴 헤마씨?(예. 알았습니다. 이 마을 형성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01001 #2 이 마을 형성은 지금부터 혼 사백년 전.(이 마을 형성은 한 사백년 전.)
101001 @ 예.(예.)
101001 #2 어, 문씨 강씨 김씨.(어, 문씨 강씨 김씨.)
101001 @ 예.(예.)
101001 #2 이렇게 형성이 뒈엇다고 하는데. 문씨 강씨는 엇고. 우리만 김씨만 남아 있고, 이 마을에.(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씨 강씨는 없고. 우리만 김씨만 남아 있고, 이 마을에.)
101002 @ 음. 그렇게 하고예? 그러면 그 아까 문씨 강씨 김씨. 여기 보난 송칩도 한게예?(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아까 문씨 강씨 김씨. 여기 보니까 송씨집도 많던데요?)
101002 #2 송칩은 나중에 들어오고.(송씨집은 나중에 들어오고.)
101002 @ 아, 나중에 들어오고예?(아, 나중에 들어오고요?)
101002 #2 마을이 형성뒌 후에.(마을이 형성된 후에.)
101002 @ 지금 현재는 이 마을 성씨들은 어떻게 구성뒌 거라마씨?(지금 현재는 이 마을 성씨들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101002 #2 이 마을에 지금은 젤 송씨가 많고.(이 마을에 지금은 젤 송씨가 많고.)

101002 @ 아.(아.)
101002 #2 송씨가 많고 그 다음은 김씨, 김해 김씨. 윤씨 박씨 이씨. 뭐 그 종류 그렇게.(송씨가 많고 그 다음은 김씨, 김해 김씨. 윤씨 박씨 이씨. 뭐 그 종류 그렇게.)
101003 @ 이 마을 사름들은 무신 일들 헹 살암신고예?(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들 해서 살고 있나요?)
101003 #2 지금은 과수원이 팔십 프로.(지금은 과수원이 팔십 퍼센트.)
101003 @ 예.(예.)
101003 #2 근데 옛날에는 뭐 다 밧농사.(근데 옛날에는 뭐 다 밭농사.)
101003 @ 예. 밧농사는 어떤 농사들마씨?(예. 밭농사는 어떤 농사들이예요?)
101003 #2 밧농산 그 전인 고구마 광작허기 전에는 겨울엔 보리.(밭농산 그 전에는 고구마 광작하기 전에는 겨울엔 보리.)
101003 @ 예.(예.)
101003 #2 여름엔 조, 콩 그 다음 그 메밀도 허고.(여름엔 조, 콩 그 다음 그 메밀도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2 또 산듸.(또 밭벼.)
101003 @ 예.(예.)
101003 #2 밧벼.(밭벼.)
101003 @ 예.(예.)
101003 #2 산듸 그거 허고. 팥 ᄀᆞ튼 건 저 뭐 크게 많이 아녀고 자기 소비량 정도 쪼꼬맣게 헤서, 쪼꼼 남게 헤서 남으믄 풀고.(밭벼 그거 하고. 팥 같은 건 저 뭐 크게 많이 아녀고 자기 소비량 정도 쪼그맣게 해서, 쪼금 남게 해서 남으면 팔고.)
101003 @ 예.(예.)
101003 #2 참깨도 허고.(참깨도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2 녹두 허고. 또 오곡은 다 헷어요.(녹두 하고. 또 오곡은 다 했어요.)
101003 @ 예.(예.)
101003 #2 그 전에는.(그 전에는.)
101003 @ 우리 제주도말로 ᄀᆞᆯ아줍서예.(우리 제주도말로 말해주세요.)
101003 #2 예.(예.)
101003 @ 이 동네 평소에 ᄀᆞᆯ앗던예.(이 동네 평소에 말했던.)
101003 #2 예, 예.(예, 예.)
101003 #2 경허고 이제 그때는 뭐 농한지 잇엇죠. 그때는.(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농한기 있었죠. 그때는.)
101003 @ 예.(예.)
101003 #2 완전히 밧농사 헐 때는 농한지 있어가지고 보리 갈아둰은에 시월에

보리 싹 갈아뒁은에 시월 중 보리 갈아뒁은에 그 다음에 동짓둘 초ᄒᆞ룻날 새 해경[1]을 헤여.(완전히 밭농사 할 때는 농한기 있어가지고 보리 갈아두고 시월에 보리 싹 갈아두고 시월 중 보리 갈아두고 그 다음에 동짓달 초하룻날 띠 '해경'을 해.)

101003 @ 예.(예.)

101003 #2 새 해경엔 헌 건 그날은. 딱 금헷다가 그날부떤 누구든지 새를 비거든. 그 전에 새를 운반허민 걸려.(띠 '해경'이라고 한 건 그날은. 딱 금했다가 그날부턴 누구든지 띠를 베거든. 그 전에 띠를 운반하면 잡혀.)

101003 @ 아아.(아아.)

101003 #2 옛날 광업법[2]에 의하면. 게서 동짓둘 초ᄒᆞ룻날 새 해경을 허면은.(옛날 광업법에 의하면. 그래서 동짓달 초하룻날 띠 '해경'을 하면.)

101003 @ 예.(예.)

101003 #2 해경엔도 허고 해치엔도 허는디.('해경'이라고도 하고 '허체'라고도 하는데.)

101003 @ 해치엔도 ᄀᆞᆯ고예?('허체'라고도 말하고요?)

101003 #2 새 해경을 허면은 그땐 너나없이 집 일 새 다 비여당은에.(띠 '해경'을 하면 그땐 너나없이 집 일 띠 다 베어다가.)

101003 @ 예.(예.)

101003 #2 이제. 거 헤 오민 거 이제 농한기난 뭐 계속 놀곡 허는데 그 다음 언제부떠 일허냐 허민 봄 정월 나서 줄 놔가지고.(이제. 거 해서 오면 거 이제 농한기니까 뭐 계속 놀고 하는데 그 다음 언제부터 일하냐 하면 봄 정월 나서 줄 놓아가지고.)

101003 @ 예.(예.)

101003 #2 집 일어불민 또 한창 놀아.(집 이어버리면 또 한참 놀아.)

101003 @ 예.(예.)

101003 #2 경허당은에 멘네, 목화.(그러다가 면화, 목화.)

101003 @ 예.(예.)

101003 #2 멘네 갈 때는 뒈면은 이월달에 멘네 갈거든. 이월 달엔 멘넨 갈 때엔 그때부떤 쟁기 들런 가끔 하나씩 나상 뎅기멍 일험 시작허민 그 다음 ᄒᆞ꼼 이시민 산뒤왓을 번허야 뒈여.(면화 갈 때는 되면 이월 달에 면화 갈거든. 이월 달엔 면화 갈 때엔 그때부턴 쟁기 들고 가끔 하나씩 나서서 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밭벼밭을 애벌갈이해야 돼.)

101003 @ 예.(예.)

101003 #2 산듸 갈젠 허민 미리 번허영. 산듸왓 번헐 때 뒈민 밧듸선 쉐 저 쟁기

---

1) '해경'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대ᄌᆞ문'을 말한다. 달리 '허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띠를 베는 시기에도 '해경'을 한다고 말한다.

2) 여기서 광업법이라고 하는 건 허채(許採)가 광석을 캐는 일에 대한 승낙, 또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어서 '해경'과 '허채'를 광업법에 의한다고 말한 듯하다.

일 허는 소리가 나거든.(밭벼 갈려고 하면 미리 애벌갈이해서. 밭벼밭 애벌갈이할 때 되면 밭에서는 소 저 쟁기 일 하는 소리가 나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쉐, 밧 번허는 소리. 밧가는 소리가 나면은 경허민 그때부터 아 일헐 때 뒈엿구나. 게연 그 다음 산듸 갈앙.(소, 밭 '번하는' 소리. 밭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아 일할 때 되였구나. 그러면 그 다음 밭벼 갈아서.)
101003 @ 예.(예.)
101003 #2 산듸 갈곡 허영 그 다음엔 오월 중 뒈민 박전 농사를 허여. 박전.(밭벼 갈고 해서 그 다음엔 오월 중순 되면 박전 농사를 해. 박전.)
101003 @ 박전.(박전.)
101003 #2 박전이엔 헌 건 밧이 아주 나쁜.(박전이라고 한 건 밭이 아주 나쁜.)
101003 @ 예.(예.)
101003 #2 박헌 땅에 가는데, 오월 중순 뒈면은 하지 오월 중 뒈민은 박전 밧듸 농사를 지어. 조 같은 거 갈곡 허영. 그 다음 쪼끔 이시민 콩도 갈고. 게영 또 유월절 뒈민은 이 거스름팟[3]이라고 헤서.(박한 땅에 가는데, 오월 중순 되면 하지 오월 중순 되면 박전 밭에 농사를 지어. 조 같은 거 갈고 해. 그 다음 쪼금 있으면 콩도 갈고. 그러고 또 유월절 되면 이 '거스름팟'이라고 해서.)
101003 @ 예.(예.)
101003 #2 보릿그르[4]에 그 조를 갈아가지고 이제. 걸 물로 불리거든.('보릿그르'에 그 조를 갈아가지고 이제. 걸 말로 밟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물로 불리는디 우리 할아버지가 물을 오십 필 육십 필 항상 보유해 잇으니까. 게믄 뭐 이 화순, 사계, 덕수[5] 야튼 그 유월절 뒈민 그냥 바빠요.(말로 밟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을 오십 필 육십 필 항상 보유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 화순, 사계, 덕수 아무튼 그 유월절 되면 그냥 바빠요.)
101003 @ 예.(예.)
101003 #2 말 ᄒᆞ루에 ᄒᆞᆫ 시간 풀 못 먹게 헤가지고 낮에는 그 농사철이니까 단기간 일주일 안네거든.(말 하루에 한 시간 풀 못 먹게 해가지고 낮에는 그 농사철이니까 단기간 일주일 안이거든.)
101003 @ 음.(음.)
101003 #2 저 밧 거스름팟을 다 조허민은 그게 그렇게 오월 중광 한 십오일 이상 이십일 차이가 나도 자라는 게 일주일이믄 이만큼 커불어.(저 밭 '거스름팟'을 다 조하면 그게 그렇게 오월 중순과 한 십오일 이상 이십일 차이가 나도 자라는 게 일주일이면 이만큼 커버려.)
101003 @ 아, 여름이난예?(아, 여름이니까요?)

3) '거스름팟'은 파종하기 전에 미리 애벌갈이를 한 밭을 말하는데, 달리 '거시림팟'이라고도 한다.
4) '보릿그르'는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5) '화순, 사계,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이다.

101003 #2 거스름조[6]는 거스름조는.(‘거스름조’는 ‘거스름조’는.)
101003 @ 예.(예.)
101003 #2 박전 농사는 뭐 크지 아녀고. 막 ᄀᆞ만이 앚앙 허고.(박전 농사는 뭐 크지 않고. 막 가만히 앉아서 하고.)
101003 @ 음.(음.)
101003 #2 게영 조 갈면 여름은 나민 검질 보통 삼십일. 안 메는 사름이 삼십일 많이 메는 사름은 사십일 오십일. 산듸 검질ᄁᆞ지 저 맨네 검질, 산듸 검질ᄁᆞ지 시작허민 두 둘까지 메는 사름이 잇고.(그렇게 해서 조 갈면 여름은 되면 김 보통 삼십일. 안 매는 사람이 삼십일 많이 매는 사람은 사십일 오십일. 밭벼 김까지 저 면화 김, 밭벼 김까지 시작하면 두 달까지 매는 사람이 있고.)
101003 @ 음.(음.)
101003 #2 경 여름에 한기나 아녀면은 산뒤 헤먹곡. 한기 허민 산뒨 뭐 완전히 손들어부는 거.(그렇게 여름에 한기나 않으면 밭벼 해먹고. 한기 하면 밭벼는 뭐 완전히 손들어버리는 거.)
101003 @ 음.(음.)
101003 #2 이삭이 그냥 그 고고리가 헤영케 그냥 고고리가 피여도 헤영케 아무 것도 열매 없어.(이삭이 그냥 그 이삭이 허옇게 그냥 이삭이 펴도 허옇게 아무 것도 열매 없어.)
101003 @ 예, 예예.(예, 예예.)
101003 #2 수량이 안 뒈여가지고. 경허영 허곡 또 비가 좋앙은에 물이 좋으면은 산듸 허민 산뒤는 제일 단위 면적당 수확이 많이 나는 거주.(수량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또 비가 좋아서 물이 좋으면 밭벼 하면 밭벼는 제일 단위 면적당 수확이 많이 나는 거지.)
101003 @ 아, 그러우꽈?(아, 그렇습니까?)
101003 #2 도껫줄레[7] 혼 섬 난덴 허주게.(‘도껫줄레’ 한 섬 난다고 하지.)
101003 @ 아, 뭐 아까?(아, 뭐 아까?)
101003 #2 도껫줄레.(‘도껫줄레’.)
101003 @ 도껫줄레?(‘도껫줄레’?)
101003 #2 도껫줄레는 그 이 타작허는 도께.(‘도껫줄레’는 그 이 타작하는 도리깨.)
101003 @ 예.(예.)
101003 #2 도께를 쫙 펴가지고 사름이 사서 이렇게 혼번 뺑 돌민 그 수확이 혼 섬 난덴 허곡.(도리깨를 쫙 펴가지고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한번 뺑 돌면 그 수확이 한 섬 난다고 하고.)
101003 @ 게난 그 줄레?(그러니 그 ‘줄레’?)

---

6) ‘거스름조’는 ‘거스름팟’에 파종한 조를 말한다.
7) ‘도껫줄레’는 도리깨 막대기를 길게 펴서 한 바퀴 빙 돈 마름의 크기를 말한다.

101003 #2 도께, 도께아들ᄁᆞ지. 도께어시 도께아덜허거든.(도리깨, 도리깻열까지. 도리깻장부 도리깻열하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도께아덜ᄁᆞ지 딱 펴가지고서 혼번 팍 돌면은 혼 섬 난덴 허고.(도리깻열까지 딱 펴가지고서 한번 팍 돌면 한 섬 난다고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2 옛날 소두 혼 섬이지 뭐.(옛날 소두 한 섬이지 뭐.)
101003 @ 예.(예.)
101003 #2 메밀도 잘 뒈민 그렇게 뒈고.(메밀도 잘 되면 그렇게 되고.)
101003 @ 예.(예.)
101003 #2 그렇게 궹장히 수확이 많이 나는 작물인데. 안 뒈게 뒈면은 이것도 번찍[8]. 혼 말도.(그렇게 굉장히 수확이 많이 나는 작물인데.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번찍'. 한 말도.)
101003 @ 음.(음.)
101003 #2 ᄇᆞ름 안 불면 조 ᄀᆞ뜬 거 허민 그자 영 이제 가을 나민 탁베기[9] 담당은에. 이제 오메기[10], 오메기 헌디. 지금 이만이 헌 오메기떡은 오메기떡이 아니고.(바람 안 불면 조 같은 거 하면 그저 이렇게 이제 가을 되면 '탁베기' 담다가. 이제 '오메기', '오메기' 하는데. 지금 이만 한 '오메기떡'은 '오메기떡'이 아니고.)
101003 @ 예.(예.)
101003 #2 통사발오메기[11]라고 헤서 이만이 헌 거.('통사발오메기'라고 해서 이만큼 한 거.)
101003 @ 아, 통사발오메기?(아, '통사발오메기'?)
101003 #2 예. 통사발만이 허영. 게영 가운디로 고망 딱 뚤앙 허영.(예. '통사발'만큼 해서. 그렇게 해서 가운데로 구멍 딱 뚫어서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2 허민 잘 먹는 사름이라야 두 개.(하면 잘 먹는 사람이라야 두 개.)
101003 @ 음.(음.)
101003 #2 두 개 먹는 사름은 거 식량 아주 좋은 사름이고. 보통 하나 먹으민 다 자빠지고.(두 개 먹는 사람은 거 식량 아주 좋은 사람이고. 보통 하나 먹으면 다 자빠지고.)
101003 @ 음.(음.)
101003 #2 통사발[12] 이만이 헌 거.('통사발' 이만한 거.)
101003 @ 그 오메기는 조오메기 헤마씨?(그 '오메기'는 '조오메기'해요?)

---

8) '번찍'은 아주 의심할 것 없이 말갛게,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9) '탁베기'는 걸러내지 않은 그대로의 된 술을 말하며, 달리 '탁바기'라고도 한다.
10)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한 후 가운데 큰 구멍이 뚫어지게 만든 고리 모양의 떡을 말한다.
11) '통사발오메기'는 통이 깊은 사발인 '통사발' 만큼 큰 '오메기'를 말한다.
12) '통사발'은 통이 깊은 사발을 말한다.

101003 #2 조오메기.(‘조오메기’.)
101003 @ 조오메기예?(‘조오메기’예?)
10103 #2 조오메기 그거 허영 청주 담앙은에 허민 이제 또 겨울에 일헐 때도 먹곡. 또 제사도 지내곡 그걸로.(‘조오메기’ 그거 해서 청주 담아서 하면 이제 또 겨울에 일할 때도 먹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걸로.)
101003 @ 예.(예.)
101003 #2 경허영 그런 땐 그렇게 헷는데 이제 쪼끔씩 쪼끔씩 헤서 고구마가 이제 절간이니 뭐니 헤가지고 뭰 광작을 허게 뒈니까 이젠 여름엔 고구마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허거든. 게서 전분 공장에 문 시껑 날르고 다 허다가 절간헤서 뭐 절간 공판도 허곡.(그렇게 해서 그런 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쪼끔씩 쪼끔씩 해서 고구마가 이제 절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된 광작을 하게 되니까 이젠 여름엔 고구마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전분 공장에 모두 실어 나르고 다 하다가 절간해서 뭐 절간 공판도 하고.)
101003 @ 음.(음.)
101003 #2 경허다간 이젠 또 유채가 생겨낫어요.(그러다가 이젠 또 유채가 생겨났어요.)
101003 @ 예.(예.)
101003 #2 육십 년도, 육십 년대에 들어서. 유채 생기니까 유채허곡 헤여서 우리 마을에 유채를 퀭장히 많이 갈앗어.(육십 년도, 육십 년대에 들어서. 유채 생기니까 유채하고 해서 우리 마을에 유채를 굉장히 많이 갈았어.)
101003 @ 음.(음.)
101003 #2 유채를 광작으로 재배허다가 그것이 거의 육십 년대 말 칠십 년대 초 뒈가니까 그때부떤 이제 감귤 붐이 일기 시작헷거든.(유채를 광작으로 재배하다가 그것이 거의 육십 년대 말 칠십 년대 초 되가니까 그때부턴 이제 감귤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게영 그때부터 감귤 헤여서 그땐 처음엔 춤 재력 잇는 사름덜이 묘목 귀허니까 사다 심곡 허다가 칠십 년대 중반 되니까 뭐 너나없이.(그렇게 그때부터 감귤 하여서 그땐 처음엔 참 재력 있는 사람들이 묘목 귀하니까 사다 심고 하다가 칠십 년대 중반 되니까 뭐 너나없이.)
101003 @ 음.(음.)
101003 #2 다 감귤 시작헷거든. 지금은 아마 감귤 안 허는 사름 하나도 없고, 벨로 없고.(다 감귤 시작했거든. 지금은 아마 감귤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별로 없고.)
101003 @ 예.(예.)
101003 #2 겐디 그것에 주 생산허는 사름 팔십 프로 이상.(그런데 그것에 주 생산하는 사람 팔십 퍼센트 이상.)

101003 @ 아아.(아아.)
101003 #2 겨고 옛날은 쉐를 집마다 다 잇엇거든.(그리고 옛날은 소를 집마다 다 있었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집마다 잇어근엥에 농사 크게 지는 사름은 부룽이 밧갈쉐[13].(집마다 있어서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은 부룩소 '밧갈쉐'.)
101003 @ 예.(예.)
101003 #2 밧갈쉐 혜영은에 그거 뭐 흔 십 년 이십 년썩 질황은에 허면은 거세 헤가지고 춤, 중성귀엔 헤근에.('밧갈쉐' 해서 그거 뭐 한 십 년 이십 년씩 길러서 하면은 거세해가지고 참, 불친소라고 해서.)
101003 @ 예.(예.)
101003 #2 중성귀 헤근에 흔 이십 년 쓰무 살꺼지 질루는 사름도 잇고.(불친소 해서 한 이십 년 스무 살까지 기르는 사람도 있고.)
101003 @ 예.(예.)
101003 #2 경허곡 집마다 쉐허영 여름에는 한라산에 가곡.(그렇게 하고 집마다 소해서 여름에는 한라산에 가고.)
101003 @ 예.(예.)
101003 #2 야우. 야우엔 드릇쉐[14]거든.(야우. 야우에는 '드릇쉐'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드르에서 키우는 소 헤영 한라산에 보내곡 저 겨울에는 이제 이 목장에 가근에 허영 촐 좀 헤당 눈 푸끄면은 촐도 주곡.(들에서 키우는 소 해서 한라산에 보내고 저 겨울에는 이제 이 목장에 가서 해서 꼴 좀 해다가 눈 휘날리면 꼴도 주고.)
101003 @ 음.(음.)
101003 #2 안 그러면 내불민 나무 가지 ᄀᆞ튼 것도 다 먹으멍 살아, 그 소.(안 그러면 내버리면 나무 가지 같은 것도 다 먹으면서 살아, 그 소.)
101003 @ 예.(예.)
101003 #2 게영 살다가 이제 그것도 이젠 감귤 버슨덴 헤가니까 조금씩. 우리 사촌 어떵허연 야우허연.(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것도 이젠 감귤이 번다고 해가니까 조금씩. 우리 사촌 어떡하다가 야우해서.)
101003 @ 음.(음.)
101003 #2 보존 경 헷는데. 물도 물 헌 사름도 흔 오륙 명 잇엇는데 크게 많이 헌 사름은 우리 하르버지허고 여기 우리 마을에 이장도 지내고 면의원도 헷던 분인데 아주 유명허신 분 그 박경수 씨라고 그분허곡 물들도 많이 허고. 경허다가 우리 또 우리 하르버지 동서 뒈는 어른도 흔 이삼십 필.(보존 그렇게 했는데. 말도 말 한

13) '밧갈쉐'는 밭가는 수소를 말한다.
14) '드릇쉐'는 들에 방목하여 키우는 소를 말한다.

사람도 한 오륙 명 있었는데 크게 많이 한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여기 우리 마을에 이장도 지내고 면의원도 했던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 그 박경수 씨라고 그 분하고 말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또 우리 할아버지 동서 되는 어른도 한 이삼십 필.)

101003 @ 음.(음.)

101003 #2 말 허다가 이제 지금은 뭐 덕수[15]에 말 혼 마리 쯤 이신가. 한 한두 마리 정도 잇고.(말 키우다가 이제 지금은 뭐 덕수에 말 한 마리 쯤 있는가. 한 한두 마리 정도 있고.)

101003 @ 음.(음.)

101003 #2 또 그때는 집마다 도새기가 뭐 안 질룬 집 셔?(또 그때는 집마다 돼지가 뭐 안 기르는 집 있어?)

101003 @ 예.(예.)

101003 #2 뭐 도새기 다 질뢍은에 허면은 쉐걸름을 돗통에 담거든.(뭐 돼지 다 길러서 하면은 소두엄을 돼지우리에 담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쉐걸름을 돗통에 담아가지고서 뒈지가 밟히고 뒈지 똥 싸고 오줌 싸곡 허면서 그것이 부식 되고 부식 되고 허영 그것이 완전히 썩으면은 건 흑이 뒈불고.(소두엄을 돼지우리에 담아가지고서 돼지가 밟히고 돼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그것이 부식 되고 부식 되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썩으면 그건 흙이 돼버리고.)

101003 @ 음.(음.)

101003 #2 흑이 안 뒈영 걸름이 완전히 뒈게 허면은 후제 가을 뒈영 보리 갈게 뒈민 걸 걸름을 내는 거라.(흙이 안 돼서 거름이 완전히 되게 하면은 후에 가을 돼서 보리 갈게 되면 것을 거름을 내는 거야.)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이제 쉐에 저기 쉐 헤서 쉐 우막, 쉐막에서 걸름 돗통데레 내는 건 걸름 낸덴 허곡.(이제 소에 저기 소 해서 소 외양간, 외양간에서 거름 돼지우리에 내는 건 거름 낸다고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2 걸름 저 걸름 들인덴 허곡. 돗통디레 들인덴 허곡.(거름 저 거름 들인다고 하고. 돼지우리로 들인다고 하고.)

101003 @ 아, 들이는 거고.(아, 들이는 거고.)

101003 #2 그 다음 또 또 보리 갈젠 허민 걸름 내는 건 걸름 내는 거, 걸름 낸덴.(그 다음 또 또 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 내는 건 거름 내는 거, 거름 낸다고.)

101003 @ 음.(음.)

101003 #2 걸름내서 허민 다 그 통허는디. 걸름 내민 그걸 걸름헤영은에 이젠 마당 신, 마당 좋은 집은 마당. 마당 없는 집은 질레.(거름내서 하면 다 그 통하는데.

15)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거름 내면 그걸 거름해서 이젠 마당 있는, 마당 좋은 집은 마당. 마당 없는 집은 길에.)
101003 @ 예.(예.)
101003 #2 헤영은에 그땐 차도 하나도 기껏헤야 우마차 멧 개벳긔 엇인 때. 게영 그걸 보리씨 삐영은에 걸 불려.(해서 그땐 차도 하나도 기껏해야 우마차 몇 개밖에 없을 때. 그렇게 그걸 보리씨 뿌려서 걸 밟아.)
101003 @ 음.(음.)
101003 #2 쉐허곡 사름허곡 허영. 어디 장화가 셔? 다 맨발. 맨발에 보리씨 삐영은에 그걸 잘 경 딱 허영 그 밧듸 멧 말지기 멧 바리 들 걸. 바리엔 헌 건 걸름착[16]에 그 저 찍으로 멩근.(소하고 사람하고 해서. 어디 장화가 있어? 다 맨발. 맨발에 보리씨 뿌려서 그걸 잘 그렇게 딱 해서 그 밭에 몇 마지기 몇 바리 들 걸. 바리라고 한 건 '걸름착'에 그 저 짚으로 만든.)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걸름착에 두 개.('걸름착'에 두 개.)
101003 @ 두 개.(두 개.)
101003 #2 두 개 담알 가지고 딱 시끄면은 흔 바리거든.(두 개 담아 가지고 딱 실으면 한 바리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그 밧듸 멧 바리 들 거. 씨는 얼마 들 거.(그 밭에 몇 바리 들 거. 씨는 얼마 들 거.)
101003 @ 음.(음.)
101003 #2 딱허게 허민 닷 말지기 닷 말 씨 허민 씨 닷 말 걸로 말헨. 흔 말지기 서 서말 싀 바리 든덴 허민 닷 말지기 삼오 십오 열다섯 바리.(딱하게 하면 닷 마지기 닷 말 씨 하면 씨 닷 말 걸로 말해. 한 마지기 서 서 말 세 바리 든다고 하면 닷 마지기 삼오 십오 열다섯 바리.)
101003 @ 음.(음.)
101003 #2 게근에 열다섯 번 쉐 실러야 뒈거든. 게영 그걸 이 밧 갈 때마다 쪼끔씩 쪼끔씩 내는 거라.(그렇게 해서 열다섯 번 소에 실어야 되거든. 그렇게 그걸 이 밭 갈 때마다 쪼끔씩 쪼끔씩 내는 거야.)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경헤영은에 다령은에 경허영 그걸 탁, 허게 이제 노적봉처럼 데며근에 경허영 그날 못허민 다음 날부떠 걸로 쉐스렁으로 담으멍 쉐에 씨껑 강 밧듸 강 뿌려. 그땐 질도 뭐 좁고 허니까.(그렇게 해서 다뤄서 그렇게 해서 그걸 탁, 하게 이제 노적봉처럼 가려서 그렇게 해서 그날 못하면 다음 날부터 걸로 쇠스랑으로 담으면서 소에 실어서 가서 밭에 가서 뿌려. 그땐 길도 뭐 좁고 하니까.)
101003 @ 음.(음.)

16) '걸름착'은 퇴비 따위의 거름을 담고서 나르는 멱둥구미를 말한다.

101003 #2 낭 트멍으로 어떵 어떵 가멍 밧듸 강 펑, 겡헹 이제 그걸 놓민. 걸름 놓는 것도 여자들이 놓거든. 걸름덜 여자들이 골체 앞이 탁 차가지고 골체 높이 탁 허게 메어가지고.(나무 틈으로 어찌 어찌 가면서 밭에 가서 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놓으면. 거름 놓는 것도 여자들이 놓거든. 거름들 여자들이 삼태기 앞에 탁 차가지고 삼태기 높이 탁 하게 매어가지고.)

101003 @ 음.(음.)

101003 #2 걸름 담아두서 이제 손으로 다 부지데경[17] 뿌리는 거라. 찢으면서.(거름 담아둬서 이제 손으로 다 '부지데경' 뿌리는 거야. 찢으면서.)

101003 @ 예.(예.)

101003 #2 뿌리민 걸름에 다 보리씨가 묻어 잇거든. 그것이 기비가 뒈엇거든.(뿌리면 거름에 다 보리씨가 묻어 있거든.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거든.)

101003 @ 음.(음.)

101003 #2 게영 이젠 보리 갈앙은에. 또 그 여름에 조 갈면서 질 때 물로 불려 불면은 벙에가 나거든. 벙에.(그렇게 해서 이젠 보리 갈아서. 또 그 여름에 조 갈면서 질 때 말로 밟아 버리면은 볏밥이 나거든. 볏밥.)

101003 @ 예.(예.)

101003 #2 벙에 나민 곰베엔 헌 거 헤가지고 이제 밧 간 다음엔 곰베로 다 그 흑을 부숴야 뒈여.(볏밥 나면 곰방메라고 한 거 해가지고 이제 밭 간 다음엔 곰방메로 다 그 흙을 부숴야 돼.)

101003 @ 음.(음.)

101003 #2 경허곡 골 막은덴 허민 고랑에 또 주젱이만 썩 똑똑 끊어놩 보리씰 놓거든.(그렇게 하고 골 막는다고 하면 고랑에 또 주저리만 씩 똑똑 끊어놓아 보리씰 놓거든.)

101003 @ 음.(음.)

101003 #2 게믄 걸 발로 막아야 뒈.(그러면 걸 발로 막아야 돼.)

101003 @ 아 아.(아 아.)

101003 #2 골 막곡 헤영. 경허영은에 보리 갈앙 허민 그땐 그 해방 직전에는 뭐 비료가 엇엇주게. 일제시대 뭐 유산암모니아라고 헤서 요새 요소 헌 말이주만는.(골 막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리 갈아서 하면 그땐 그 해방 직전에는 뭐 비료가 없었지. 일제강점기 때 뭐 유산암모니아라고 해서 요새 요소라고 한 말이지만.)

101003 @ 음.(음.)

101003 #2 그 황산암모니아 유산암모니아라고 암모니아라 헤서 나오는디 그거 어떵 허영 배급 타근에 것도 뭐 ᄆᆞ음대로 살 수 엇엉, 배급 타가지고 경헹 뿌리민 거 비료주민 잘 뒈고 허단. 그 다음 초산이엔 허영도 나와 나고. 그 다음 말짼 요소 나와나고 요소 유한. 유한 요소 이렇게.(그 황산암모니아 유산암모니아라고 암모니

17) '부지데경'은 '흙 같은 것을 던져서 벽에 붙여.'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거름에 보리씨앗이 서로 섞이게 손으로 으깬다는 뜻으로 쓰였다.

아라 해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헤서 배급 타서 것도 뭐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배급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뿌리면 거 비료주면 잘 되고 하다가. 그 다음 초산이라고 해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 말쩬 요소 나왔었고 요소 유한. 유한 요소 이렇게.)

101003 @ 음.(음.)

101003 #2 그 비료 종류 나완. 일제시대 흥남질소비료 공장에서 나온 비료라고 예기헤낫어.(그 비료 종류 나왔어. 일제강점기 때 흥남질소비료 공장에서 나온 비료라고 얘기했었어.)

101003 @ 음.(음.)

101003 #2 해방 후엔 처음에 츰 기가 멕혀낫주. 비료 사기가 힘들어가지고덜. 그 비료 주니까 츰 진짠 요만씩 나던 것이 이만씩 나 곱빼기 자라거든.(해방 후엔 처음에 참 기가 막혔었지. 비료 사기가 힘들어가지고들. 그 비료 주니까 참 진짠 요만씩 나던 것이 이만씩 나 곱빼기 자라거든.)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2 수확도 많이 나고. 경허면서 그때, 그때부떠 이제 쪼끔씩 이, 저 비료 나옴 시작허니깐 식량 자급이 뒛주게.(수확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쪼끔씩 이, 저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깐 식량 자급이 됐지.)

101003 @ 음.(음.)

101003 #2 그 전엔 식량 자급이 츰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항상 밀체 먹는 소릴 허는디 밀속에 체가 아니고 밀 껍데기 초벌을 벳긴 거.(그 전엔 식량 자급이 참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항상 밀겨 먹는 소릴 하는데 밀속에 겨가 아니고 밀 껍데기 초벌을 벗긴 거.)

101003 @ 예.(예.)

101003 #2 그걸 저 소 사료도 안 먹어. 소가. 그것이 사름이 다 먹엇거든.(그걸 저 소 사료도 안 먹어. 소가. 그것을 사람이 다 먹었거든.)

101003 @ 음, 게 그걸 뭘 헹 먹은 거라마씨?(음, 그럼 그걸 뭘 해서 먹은 건가요?)

101003 #2 그걸로 헤영 범벅도 헹 먹고.(그걸로 해서 범벅도 해서 먹고.)

101003 @ 음.(음.)

101003 #2 또 그것만 주식이 아니고. 그것에 그것이 하나민 또 좁쌀 같은 거.(또 그것만 주식이 아니고. 그것에 그것이 하나면 또 좁쌀 같은 거.)

101003 @ 예.(예.)

101003 #2 보리쏠 같은 거 하나 허영 서꺼가지고 경헤영 우선 그 저 뭐야 포만감을.(보리쌀 같은 거 하나 해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저 뭐야 포만감을.)

101003 @ 예.(예.)

101003 #2 느끼는 거고게. 뭐 영양분 잇건 말건 사름이 먹으니까.(느끼는 거고. 뭐 영양분 있건 말건 사람이 먹으니까.)

101003 @ 음.(음.)
101003 #2 우리 마을에도 뭐 밀체 아이 먹는 집의 흔 삼십 분.(우리 마을에도 뭐 밀겨 아니 먹는 집이 한 서른 분.)
101003 @ 음.(음.)
101003 #2 나머진 다 밀체 먹엇주. 쪼꼼 먹엇든, 만이 먹엇든.(나머진 다 밀겨 먹었지. 쪼끔 먹었든, 많이 먹었든.)
101003 @ 이 동네도 밀체를, 밀을 간 거네예? 옛날에.(이 동네도 밀겨를, 밀을 간 거네요? 옛날에.)
101003 #2 밀 간 게 아니고.(밀 간 게 아니고.)
101003 @ 예.(예.)
101003 #2 그 웨국에서 밀 수입헤가지고.(그 외국에서 밀 수입해가지고.)
101003 @ 아.(아.)
101003 #2 제분허고 남은 이 그 껍데기 그것을 상인이 사다가 걸 풀앗주게.(제분하고 남은 이 그 껍데기 그것을 상인이 사다가 걸 팔았지.)
101003 @ 으음.(으음.)
101003 #2 그걸 풀민 그걸 사다가 거를 주로 밀체죽 먹엇주.(그걸 팔면 그걸 사다가 거를 주로 밀겨죽 먹었지.)
101003 @ 예.(예.)
101003 #2 밀체죽.(밀겨죽.)
101003 #2 그 다음에 전분공장에 전분, 전분주시.(그 다음에 전분공장에 전분, 전분찌꺼기.)
101003 @ 음.(음.)
101003 #2 거 사다가 말려서 분쉐헤가지고 그것도 먹고. 흉년 때는.(거 사다가 말려서 분쇄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흉년 때는.)
101003 @ 예.(예.)
101003 #2 게 허다가 비료 나옴 시작허난 비료로 헤서 그때부떤 보리 수확이 많이 나거든.(그렇게 하다가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 비료로 해서 그때부턴 보리 수확이 많이 나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옛날엔 보리 일곱 바리 흔 착이민. 뭐 아 싀 바리 흔 착.(옛날엔 보리 일곱 바리 한 짝이면. 뭐 아 세 바리 한 짝.)
101003 @ 무신거마씨?(무엇이요?)
101003 #2 보리.(보리.)
101003 @ 으.(으.)
101003 #2 보리도 싀 바리, 흔 바리가 흔 바리가 멧 뭇이야. 서 뭇씩이믄 열 뭇. 쓰무 뭇. 쓰무 뭇이 흔 바리거든.(보리도 세 바리, 한 바리가 한 바리가 몇 뭇이야. 세 뭇씩이면 열 뭇. 스무 뭇. 스무 뭇이 한 바리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싀 바리 흔 착, 일곱 뭇이야 일곱 뭇.(세 바리 한 짝, 일곱 뭇이야 일곱 뭇.)
101003 @ 음.(음.)
101003 #2 이른 뭇. 이른 뭇이믄 흔 사름 먹넨 헷거든 옛날.(일흔 뭇. 일흔 뭇이면 한 사람 먹는다고 했거든 옛날.)
101003 @ 싀 바리 흔 착이면예?(세 바리 한 짝이면요?)
101003 #2 싀 바리 흔 착이믄.(세 바리 한 짝이면.)
101003 @ 예.(예.)
101003 #2 싀 바리 흔 착이민 흔 사름 베 들어 먹어 저 그런 소리 허는디. 뭐 그땐 싀 바리 흔 착. 그루후제 보리가 잘 뒈고 농사가 잘 뒈고 비료 덕택에 뭐 흔 집의 보통 보리가 스무 섬 서른 섬 마은 섬ᄁᆞ지. 거 백 석 백오십 썩 짜리도.(세 바리 한 짝이면 한 사람 배 들어 먹어 저 그런 소리 하는데. 뭐 그땐 세 바리 한 짝. 그 후 보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비료 덕택에 뭐 한 집에 보통 보리가 스무 섬 서른 섬 마흔 섬까지. 거 백 석 백오십 석 짜리도.)
101003 @ 음.(음.)
101003 #2 그 다음엔 고구마를 많이 광작허고 유채 광작허고 허니까 보리 백 석 자랑이 안 뒛거든.(그 다음엔 고구마를 많이 광작하고 유채 광작하고 하니까 보리 백 석 자랑이 안 됐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돈 잘 주는 건 유채가 낫고. 경 살다가 이제 그 또 농사짓젠 허민 쉐를 손을 잘 봐사 뒈여.(돈 잘 주는 건 유채가 낫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또 농사지으려고 하면 소를 손을 잘 봐야 돼.)
101003 @ 음.(음.)
101003 #2 게난 쉔 ᄀᆞ리치젠 허민 사릅에 ᄀᆞ르치거든.(겨난 소는 가르치려고 하면 사릅에 가르치거든.)
101003 @ 예.(예.)
101003 #2 나릅도 간 ᄀᆞ리치주마는 보통 사릅에 ᄀᆞ리쳐. 춤 다간도 아주 훌륭헌 건 다간도 좀 저 돌 끗언 ᄀᆞ르치는디 다간은 거의 안 ᄀᆞ르치고.(나릅도 가서 가르치지만 보통 사릅에 가르쳐. 참 다간도 아주 훌륭한 건 다간도 좀 저 돌 끌어서 가르치는데 다간은 거의 안 가르치고.)
101003 @ 음.(음.)
101003 #2 사릅 뒈민 ᄀᆞ리쳔. 나도 쉐 대ᄋᆞ섯 개 ᄀᆞ리쳐 봣는데. 쉐가 아주 좋은 놈은 한두 번 이껑 허민.(사릅 되면 가르쳤어. 나도 소 대여섯 마리 가르쳐 봤는데. 소가 아주 좋은 놈은 한두 번 이끌어서 하면.)
101003 @ 음.(음.)
101003 #2 밧을 갈 수 잇는디. 페라운[18] 건 뭐 드러눵은에 불로 지져도 안 일어

나.(밭을 갈 수 있는데. '페라운' 건 뭐 드러누워서 불로 지져도 안 일어나.)
101003 @ 음.(음.)
101003 #2 그런 식으로 야튼 소도 춤 질긴 놈 질기고. 게 소 잘 ᄀᆞ르쳥 놔두민 그땐 사릅 부렝이 잘 ᄀᆞ리쳥 놔두민 닷 말지기 밧 ᄒᆞ나 삿어.(그런 식으로 아무튼 소도 참 질긴 놈 질기고. 그게 소 잘 가르쳐서 놔두면 그땐 사릅 부룩소 잘 가르쳐서 놔두면 닷 마지기 밭 하나 샀어.)
101003 @ 음.(음.)
101003 #2 그때는 그렇게 밧 사기가 좋앗엇는디 이젠 아마 쉐 열 머리 풀아도 밧 사기가 힘들어.(그때는 그렇게 밭 사기가 좋았었는데 이젠 아마 소 열 마리 팔아도 밭 사기가 힘들어.)
101004 @ 알아수다. 이 동네 오름도 신가마씨?(알았습니다. 이 동네 오름도 있는가요?)
101004 #2 이 동네 오름. 우리 덕수리[19] 지경 안넨 오름은 엇고.(이 동네 오름. 우리 덕수리 지경 안엔 오름은 없고.)
101004 @ 내는마씨?(내는요?)
101004 #2 내도 엇고.(내도 없고.)
101004 @ 아.(아.)
101004 #2 내도 저 이디 냇ᄀᆞ량, 냇ᄀᆞ량 헤도 옛날 아, 팔십오 년도에 글로 혼번 물이 한번 터졍 지적도 다 엇어질 정도로. 밧 경계가 다 헐어져.(내도 저 여기 내고랑, 내고랑 해도 옛날 아, 팔십오 년도에 거기로 한번 물이 한번 터져서 지적도 다 없어질 정도로. 밭 경계가 다 허물어졌어.)
101004 @ 음.(음.)
101004 #2 다 파 버려가지고 잇는디. 나 이장 때 옛날에 복구허면서 나 춤 혼 사십 일간 그것에 ᄒᆞ루 종일 자기 일 못허멍 다녓는데.(다 파 버려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장 때 옛날에 복구하면서 나 참 한 사십 일간 그것에 하루 종일 자기 일 못하면서 다녔는데.)
101004 @ 음.(음.)
101004 #2 그땐 내엿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갑오 생 이젠 벡수물 멧이여, ᄋᆞ덥 술 때 글로 항상 물이 내려가지고 게서 그 저 냇ᄀᆞ랑에 목욕을 헷다는디 이제는, 지금은 그 내 흔적이 엇고. 대충 그자 영 이거 냇ᄀᆞ량이다 허는 흔적만 보이고 이 저 저 홈 져가지고.(그땐 내였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갑오 생 이젠 백스물 몇이야, 여덟 살 때 거기로 항상 물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저 개울에 목욕을 했다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 내 흔적이 없고. 대충 그저 이렇게 이거 개울이다 하는 흔적만 보이고 이 저 저 홈 져가지고.)
101004 @ 그거 하나?(그거 하나?)

---

18) '페랍다'는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달리 '페까랍다'라고도 한다.
19) '덕수리'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다.

101004 #2 그거 지금, 지금 저 없어진 내 그거 하나 뿐.(그거 지금, 지금 저 없어진 내 그거 하나 뿐.)
101004 @ 바위, 혹시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여기.(바위, 혹시 큰 바위 같은 것도 있나요? 여기.)
101004 #2 큰 바위도, 큰 동산은 엇고 이긴. 저 그 옛날 지금도 뭐 당이엔 허주만 당.(큰 바위도, 큰 동산은 없고 여기는. 저 그 옛날 지금도 뭐 당이라고 하지만 만 당.)
101004 @ 예.(예.)
101004 #2 당 ᄀᆞ뜬 디 허면은 큰 바위 큰 나무들이 잇는 듸 보통 허거든.(당 같은 데 하면 큰 바위 큰 나무들이 있는 데 보통 하거든.)
101004 @ 예.(예.)
101004 #2 큰 바위 엉커지고 이런 저 덤벌도 잇곡 큰 나무도 잇고 헌 디 그런 디 강 허는디. 저 웃숭물[20]엔 헌 디 가면은 큰 돌덜 얽혀진 디 알숭물[21]은 마을 포제지내는 딘디 거기도 암석으로 뭰 지반 우에 높은 쪼금 동산 잇는디 그런 디 허고.(큰 바위 엉켜지고 이런 저 덤불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한 데 그런 데 가서 하는데. 저 '웃숭물'이라고 한 데 가면은 큰 돌들 얽혀진 데 '알숭물'은 마을 포제지내는 곳인데 거기도 암석으로 된 지반 위에 높은 쪼금 동산 있는데 그런 데 하고.)
101004 @ 웃송ᄆᆞ르마씨?('웃송ᄆᆞ르'요?)
101004 #2 웃숭물. 숭물. 왜 흉물이라고 헷는지 모르겟어.('웃숭물'. 흉물. 왜 흉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101004 @ 숭물?(흉물?)
101004 #2 숭물.(흉물.)
101004 @ 아.(아.)
101004 #2 저 알숭물 웃숭물 헤가지고.(저 '알숭물' '웃숭물' 해가지고.)
101004 @ 거기 혹시 물 잇어나신가마씨?(거기 혹시 물 있었는가요?)
101004 #2 아니, 엇어낫어.(아니, 없었어.)
101004 @ 물은 엇고. 웃숭물 알숭물예? 굴 같은 거는마씨?(물은 없고. '웃숭물' '알숭물'이요? 굴 같은 거는요?)
101004 #2 굴, 여기 자연굴은 엇고.(굴, 여기 자연굴은 없고.)
101004 @ 자연굴은 없고예? 예. 여기 덕수.(자연굴은 없고요? 예. 여기 덕수.)
101004 #2 저 그.(저 그.)
101004 @ 음.(음.)
101004 #2 천구벡 천팔벡 년대에 뭣고? 토기.(천구백 천팔백 년대에 뭣인가? 토기.)
101004 @ 예. 가마.(예. 가마.)

20) '웃숭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21) '알숭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101004 #2 저기 가마 굴. 굴 헌 거 요디도 잇다가 우리 어린 때꺼지 우리 놀이터엔디 없어져불고. 저 새동네[22]엔 헌 디 지금 하나 흔적만 남아 잇는디.(저기 가마 굴. 굴 한 거 요기도 있다가 우리 어릴 때까지 우리 놀이터였는데 없어져버리고. 저 '새동네'라고 한 데 지금 하나 흔적만 남아 있는데.)

101004 @ 게민? 옛날에 여기는 게믄 이 불미만 헌 게 아니라 가마도 잇엇어예?(그러면? 옛날에 여기는 그러면 이 풀무만 한 게 아니라 가마도 있었군요?)

101004 #2 예, 예.(예, 예.)

101004 @ 황 굽는.(황 굽는.)

101004 #2 예, 황 굽는. 가마에서 여기 흑이.(예, 황 굽는. 가마에서 여기 흙이.)

101004 @ 예.(예.)

101004 #2 가마에 적합지 않으니까 옹기에 적합허지 아녀니까 신평[23] 가서 그걸 사오거든.(가마에 적합지 않으니까 옹기에 적합하지 아녀니까 '신평' 가서 그걸 사오거든.)

101004 @ 예.(예.)

101004 #2 신평 그쪽에서 사오는데. 옛날 토구루마라고 헤서 나무로만 만들아가지고.('신평' 그쪽에서 사오는데. 옛날 토수레라고 해서 나무로만 만들어가지고.)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2 그 저 바퀴야 철로 만들엇지마는.(그 저 바퀴야 철로 만들었지마는.)

101004 @ 그 이만큼 헌 거예?(그 이만큼 한 거요?)

101004 #2 예. 이만이. 그걸로 헨 흑을 실어오는디 흑 실러다가 씨아버지 메누리광 오는디 메누리 것만 자빠젼, 발 차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냥 사름 우의로 구루마 넘어가버려 가지고.(예. 이만큼. 그걸로 해서 흙을 실어오는데 흙 실어다가 시아버지 며느리와 오는데 며느리 것만 자빠져서, '발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냥 사람 위로 수레가 넘어가버려 가지고.)

101004 @ 음.(음.)

101004 #2 현장 즉사혜연 헌 그런 사고꺼지 나낫주.(현장 즉사해서 한 그런 사고까지 났었지.)

101005 @ 음. 이 기관예, 이 마을에 기관들은 어떤 거 이시코예?(음. 이 기관이요, 이 마을에 기관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101006 #2 우리 마을에 기관은 엿날은 우리 저 서** 보면 계도 뭐 ᄆᆞ을 자체도 계가 잇엇는디.(우리 마을에 기관은 옛날은 우리 저 서** 보면 계도 뭐 마을 자체도 계가 있었는데.)

101006 @ 음.(음.)

101006 #2 그 서류가 명확허질 못헤갖고 판독을 못허고 잇는디. 그런 계는 잇엇는디 중간엔 우리 마을에 계가 자생 계가 궹장히 많앗주.(그 서류가 명확하질 못해

22) '새동네'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다.
23)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갖고 판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계는 있었는데 중간엔 우리 마을에 계가 자생 계가 굉장히 많았지.)
101006 @ 어떤 계덜 잇엇수가?(어떤 계들 있었습니까?)
101006 #2 보통 애향친목회도 잇엇고. 그다음 뭐 육십 년대 거 개발위원회 건 행정에서 헌 지시헌 개발위원회 그런 것도 허고. 그 다음 친목계 형식으로 헤서 계가 그 뒈게 많앗주.(보통 애향친목회도 있었고. 그다음 뭐 육십 년대 거 개발위원회 건 행정에서 한 지시한 개발위원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친목계 형식으로 해서 계가 그 되게 많았지.)
101006 @ 예.(예.)
101006 #2 밧, 밧 그 연자매.(밭, 밭 그 연자매.)
101006 @ 예.(예.)
101006 #2 방앗돌도 그 계로 만들어서 계원들만 쓰는 방아도 만들어 나고.(맷돌 그 계로 만들어서 계원들만 쓰는 방아도 만들어 나고.)
101006 @ 음.(음.)
101006 #2 그 그런 식으로.(그 그런 식으로.)
101006 @ 그 거 허여나고 화단제 같은 것덜은?(그 거 했었고 '화단계' 같은 것들은?)
101006 #2 화단제[24]도.('화단계'도.)
101006 @ 음.(음.)
101006 #2 화단제 춤 거 사라진 지 뭐 흔 이십년 삼십년 이상 뒛주.('화단계' 참 거 사라진 지 뭐 한 이십년 삼십년 이상 됐지.)
101006 @ 그것도 그 골에서만 허는 거우꽈?(그것도 그 골에서만 허는 겁니까?)
101006 #2 것도 제에서.(것도 계에서.)
101006 @ 제예서예?(제에서요?)
101006 #2 제에서 허는 것도 잇고 골[25]에서 허는 거. 우리 저 동부락[26]은 동골에서만.('제'에서 하는 것도 잇고 '골'에서 하는 거. 우리 저 동부락은 '동골'에서만.)
101006 @ 음, 동골에서만.(음, '동골'에서만.)
101006 #2 또 겨고 그때 옛날은 그 관복 같은 것도.(또 그리고 그때 옛날은 그 관복 같은 것도.)
101006 @ 예.(예.)
101006 #2 개인이 소지 아니영. 어디 갑장훼민 갑장훼 ᄀᆞ뜬 디 그 관복 ᄀᆞ뜬 거 다 일괄 준비헹 가지고 헷다가 결혼식 허는 디 빌려주고.(개인이 소지 않아서. 어디 갑장회면 갑장회 같은 데 그 관복 같은 거 다 일괄 준비해서 가지고 했다가 결혼식 하는 데 빌려주고.)

24) '화단제'에서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를 말하며 '제'는 계를 말한다.
25) '골'은 동네에 장사가 났을 때 남정들이 의무적으로 장지에 나가서 외를 쓰는 역사를 번갈아 가며 돕는, 동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말한다.
26) '동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101006 @ 음.(음.)
101006 #2 함 ᄀᆞ뜬 거 다 ᄎᆞ려놧다가.(함 같은 거 다 차려놨다가.)
101006 @ 음.(음.)
101006 #2 그렇게 허고. 우리 마을에서 젤 잘허는 것이 불무는 뭐.(그렇게 허고. 우리 마을에서 젤 잘하는 것이 풀무는 뭐.)
101006 @ 음.(음.)
101006 #2 저 그 송씨 시조 여기 저 우리 마을에 입도헌 분이 원래 진도 쪽으로 내려왓는디.(저 그 송씨 시조 여기 저 우리 마을에 입도한 분이 원래 진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101006 @ 예.(예.)
101006 #2 그 육지에서 그 불무허는 걸 그 기능을 가져가지고 저기 청수엔 헌디 거기서 와서 사는데 흑이 안 맞아.(그 육지에서 그 풀무질하는 걸 그 기능을 가져가지고 저기 청수라고 한데 거기서 와서 사는데 흙이 안 맞아.)
101006 @ 예.(예.)
101006 #2 흑이 안 맞아서 이쪽에 와서 시험허니 흑이 아주 맞거든. 아무리 천도에 가도 흑이 녹지 않에.(흙이 안 맞아서 이쪽에 와서 시험하니 흙이 아주 맞거든. 아무리 천도에 가도 흙이 녹지 않아.)
101006 @ 음.(음.)
101006 #2 겨곡 그게 부수민 부서지고. 그게 다른 흑은 보통 그것이 저 뭐야, 사기가 뒈여부는디.(그리고 그게 부수면 부서지고. 그게 다른 흙은 보통 그것이 저 뭐야, 사기가 되어버리는데.)
101006 @ 예.(예.)
101006 #2 사기가 안 뒈여. 게연 그것이 그 틀.(사기가 안 돼. 그래서 그것이 그 틀.)
101006 @ 예.(예.)
101006 #2 뎅이[27] 만드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게서 우리 마을에서 불미를 허고.('덩이' 만드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풀무를 하고.)
101006 @ 게믄 그 흑을 무신 흑이렌 헙니까? 이 동네서는.(그러면 그 흙을 무슨 흙이라고 합니까? 이 동네서는.)
101006 #2 츤흑, 츤흑.(찰흙, 찰흙.)
101006 @ 츤흑예. 신평도 츤흑 아니우꽈예?(찰흙이요. '신평'도 찰흙 아닙니까?)
101006 #2 신평[28]은 질흑인디.('신평'은 질흙인데.)
101006 @ 아, 거는 질헉?(아, 그거는 질흙?)
101006 #2 우리가 말 헐 때 질흑.(우리가 말 헐 때 질흙.)
101006 @ 여기에서 말헐 때 거긴 질흑예.(여기에서 말할 때 거긴 질흙이요.)

27) '뎅이'는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솥 · 볏 · 보습 · 등을 만드는 주형을 말한다.
28) '신평'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를 말한다.

101006 #2 질흑.(질흙.)
101006 @ 아 질흑. 음. 여기는 츤흑이 이제 끈기가 없구나예?(아 질흙. 음. 여기는 찰흙이 이제 끈기가 없군요?)
101006 #2 무사 끈기 엇어?(왜 끈기가 없어?)
101006 @ 아, 끈기는 잇어도?(아, 끈기는 있어도?)
101006 #2 끈기는 잇는데.(끈기는 있는데.)
101006 @ 으음.(으음.)
101006 #2 불에 타면은 그것이 옹기가 뒈야 뒈는디.(불에 타면은 그것이 옹기가 돼야 되는데.)
101006 @ 예.(예.)
101006 #2 사기가 뒈는디 사기가 안 뒈고.(사기가 되는데 사기가 안 되고.)
102006 @ 예.(예.)
102006 #2 그냥 그 형태로 잇다가.(그냥 그 형태로 있다가.)
102006 @ 음.(음.)
102006 #2 딱 부서져 그것이. 가루가 안 뒈여가지고.(딱 부서져 그것이. 가루가 안 되어가지고.)
101006 @ 예.(예.)
101006 #2 겐디 그것을 뿌시면은 또 부서져.(그런데 그것을 부수면 또 부서져.)
101006 @ 음, 게믄 그 재활용헐 수 잇어?(음, 그러면 그 재활용할 수 있어?)
101006 #2 재활용도 뒈고, 재활용 헤가지고 허고. 겐디 재활용이 뎅이는 못 멘들고 다른 뭔 용처론 뒈고.(재활용도 되고, 재활용 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재활용이 '뎅이'는 못 만들고 다른 뭔 용처로는 되고.)
101006 @ 음.(음.)
101006 #2 보섭 알로도 뭐허고.(보섭 알로도 뭐하고.)
101006 @ 음. 예전에 보면 뭐 고넹이흑이여 뭐여 이런 말도 허는데 이런.(음. 예전에 보면 뭐 고양이흙이여 뭐여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101006 #2 이딘 그런 고넹이흑[29]덜 엇고.(여긴 그런 고양이흙들 없고.)
101006 @ 그건 엇고예. 그냥 무조건 츤흑.(그건 없고요. 그냥 무조건 찰흙.)
101006 #2 무조건 츤흑허고. 츤흑으로 불미 만들고.(무조건 찰흙하고. 찰흙으로 풀무 만들고.)
101006 @ 예.(예.)
101006 #2 겐디 여기 땅은 거의 다 검은 땅이고.(그런데 여기 땅은 거의 다 검은 땅이고.)
101006 @ 검은 땅이고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이런?(검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101006 #2 새마을금고는 잇고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있고 새마을금고.)

29) '고넹이흑'은 색깔이 고양이처럼 희끄무레한 찰흙을 말한다.

101006 @ 그런 기관은 어떤 거 잇수가?(그런 기관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1006 #2 우리 마을에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이젠 원랜 우리 마을 자생. 동부락새마을금고 서부락새마을금고 두 갤 잇엇는데.(우리 마을에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이젠 원랜 우리 마을 자생. 동부락새마을금고 서부락새마을금고 두 갤 있었는데.)
101006 @ 음.(음.)
101006 #2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쳐 잇다가 칠십 년대 그 새마을사업 한창 헐 때.(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쳐 있다가 칠십 년대 그 새마을사업 한창 할 때.)
101006 @ 음.(음.)
101006 #2 그때 새마을금골 두 개 만들엇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병허여서, 그 다음 또 구십일 년돈가 하여튼 그 새마을금골 정비할 때 모슬포서 새마을금고가 쫌 부실해가지고.(그때 새마을금골 두 개 만들었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병하여서, 그 다음 또 구십일 년돈가 하여튼 그 새마을금골 정비할 때 모슬포서 새마을금고가 좀 부실해가지고.)
101006 @ 음.(음.)
101006 #2 모슬포[30]허고 덕수가 합쳐져가지고 남제주새마을금고로.(모슬포허고 덕수가 합쳐져가지고 남제주새마을금고로.)
101006 @ 아, 이제는 남제주새마을금고예?(아, 이제는 남제주새마을금고요?)
101006 #2 합쳐지면서 대정읍허고 안덕면.(합쳐지면서 대정읍하고 안덕면.)
101006 @ 예.(예.)
101006 #2 헤서 그 이름은 그렇게 뒛는디. 겐디 가입은 아무 디 사름이나 다 새마을금고 이용할 수도 잇고 가입할 수도 잇고.(해서 그 이름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입은 아무 데 사람이나 다 새마을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101006 @ 예. 또 학교 잇고.(예. 또 학교 있고.)
101006 #2 학교는 우리 마을이 뭐 아주 저 향학열이 아주 높아가지고.(학교는 우리 마을이 뭐 아주 저 향학열이 아주 높아가지고.)
101006 @ 예.(예.)
101006 #2 일제시대에 일진의숙[31].(일제강점기 때에 '일진의숙'.)
101006 @ 음.(음.)
101006 #2 일제시대에 일진의숙을 설립헤가지고 허다가 해방 후에 바로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개편헨 허고 그때는 구월 학기엿거든. 해방 후.(일제강점기에 '일진의숙'을 설립해가지고 하다가 해방 후에 바로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개편해서 하고 그때는 구월 학기였거든. 해방 후.)
101006 @ 예.(예.)

30) '모슬포'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를 말한다.
31) '일진의숙'은 1929년 9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덕수리 2330번지에 설립 된 덕수초등학교 전신을 말한다.

101006 #2 구월 학기 일본식으로 구월 학기 허다가 멧 년 안 뒈가지고 삼월 학기로 바꿔가지고.(구월 학기 일본식으로 구월 학기 하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삼월 학기로 바꿔가지고.)

101006 @ 아까 일진의숙은 무슨 말이우꽈?(아까 '일진의숙'은 무슨 말입니까?)

101006 #2 일진의숙이라고 해서 학교 이름이지.('일진의숙'이라고 해서 학교 이름이지.)

101006 @ 아, 일진유숙?(아, 일진유숙?)

101006 #2 의숙 의숙.(의숙 의숙.)

101007 @ 아, 의숙.(아, 의숙.)

101007 #2 의숙.(의숙.)

101007 @ 예, 예, 예. 그 다음에 삼춘, 이 동네 고유한 풍습 같은 거는 어떤 거 잇인고예?(예, 예, 예. 그 다음에 삼촌, 이 동네 고유한 풍습 같은 거는 어떤 거 있는가요?)

101007 #2 풍습. 고유한 풍습은 그 옛날에는 거의 집마다 그 당을 모시거든, 당.(풍습. 고유한 풍습은 그 옛날에는 거의 집마다 그 당을 모시거든, 당.)

101007 @ 예.(예.)

101007 #2 당 모셔가지고. 우리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 축일 본향이라고 축일당[32]이라고 헤가지고 여기는 입춘 후 첫 축일 날. 경헹 강 제 지내고 고사헤근에 헌 비념허곡 다 헷는디. 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잇고 엉[33], 엉덕[34] 잇곡 헌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듸가 없어.(당 모셔가지고. 우리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 축일 본향이라고 축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입춘 후 첫 축일 날. 그렇게 해서 가서 제 지내고 고사해서 한 기원하고 다 했는데. 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그 아주 그 큰 나무 있고 '엉', '엉덕' 있고 한 데는 거의 다 흉물 없는 데가 없어.)

101007 @ 음.(음.)

101007 #2 돌아가면서 다 이 앞에서 흔 일곱 밧디나 잇엇고.(돌아가면서 다 이 앞에서 한 일곱 군데나 있었고.)

101007 @ 아아.(아아.)

101007 #2 저 웃동네도 잇엇고. 또 자기만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디 잇고 흔 밧디라도.(저 윗동네도 있었고. 또 자기만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데 있고 한 군데라도.)

101007 @ 예.(예.)

101007 #2 자기 혼자만 다니는, 계산해서 다니는 디 잇고 그렇게 헤서, 건.(자기 혼자만 다니는, 계산해서 다니는 데 있고 그렇게 했어, 그건.)

101007 @ 몇 개나 그런 당이 잇어신고예?(몇 개나 그런 당이 있었는가요?)

---

32) '축일당'은 제일이 축일인 당을 말한다.
33) '엉'은 낭떠러지 비슷한 암석을 말한다.
34) '엉덕'은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하는데, 달리 '덕'이라고도 한다.

101007 #2 흔 삼십 개쯤 뒛을 걸.(함 삼십 개쯤 됐을 걸.)
101007 @ 이 마을에 당이 잇는 거만?(이 마을에 당이 있는 거만?)
101007 #2 이삼십 개, 개인 당. 개인당이 많앗주.(이삼십 개, 개인 당. 개인당이 많았지.)
101007 @ 예. 게민 그 당이 지금도 이시카마씨?(예. 그러면 그 당이 지금도 있을까요?)
101007 #2 지금도 삼년 전이 꺼진 잇엇는데 지금은 하나토 없어.(지금도 삼년 전에 까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101007 @ 본향은?(본향은?)
101007 #2 본향당[35]이 지금.('본향당'이 지금.)
101007 @ 본향당도 안 헙니까? 이제는.('본향당'도 안 합니까? 이제는.)
101007 #2 으, 아녀.(으, 않아.)
101007 @ 게믄 마을제는 어떤 걸로 헤마씨?(그러면 마을제는 어떤 걸로 하나요?)
101007 #2 마을젠 우리 마을에 특이헌 게 우리 마을이 형성뒈고 이제 마을이 구성이 뒈니까.(마을젠 우리 마을이 특이한 게 우리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마을이 구성이 되니까.)
101007 @ 예.(예.)
101007 #2 그때부터 이제 이제 흔 삼백 년 이상, 삼백오십 년 이상 뒈고 잇는디. 그때는 뭐 뭣이 없이 그냥 마을에서 모영 제만 지냉 쭉 허게 내려오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잡기 시작헌 게 천팔백 년대 후반.(그때부터 이제 이제 한 삼백 년 이상, 삼백오십 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때는 뭐 뭣이 없이 그냥 마을에서 모여서 제만 지내서 쭉 하게 내려오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잡기 시작한 게 천팔백 년대 후반.)
101007 @ 음.(음.)
101007 #2 그때부떤 이젠 이 제 지내는 디도 잘 만들고 게서 그 전에꺼지는 일 년 두 번 헷거든. 여름엔 농포제[36]라고 헤서.(그때부턴 이젠 이 제 지내는 데도 잘 만들고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일 년 두 번 했거든. 여름엔 '농포제'라고 해서.)
101007 @ 음.(음.)
101007 #2 농사 잘 뒈게 헤줍센 헤서 제 지내고 봄엔. 또 겨울에는 입춘, 입춘 후 첫 정일이나 해일 이럴 때는 일 년 대운 다 뭐 국태민안 아니고 리태민안[37] 허게끔 허영 지냇고. 뭐 오곡 다 풍성허게 지내고. 여름에는 그 제 지내곡. 그 다음 가끔 또 그 유행병이 걸리게 뒈면 그땐 말을 잡아가지고 방역제를 지냇어.(농사 잘 되게 해주십사고 해서 제 지내고 봄엔. 또 겨울에는 입춘, 입춘 후 첫 정일이나 해

35) '본향당'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인 '본향'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36) '농포제'는 즉 '포제'가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므로, '농포제'는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제사를 말한다.
37) '리태민안'은 국태민안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이어서, 비교하여 마을 리(里)를 써서 '리태민안'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일 이럴 때는 일 년 대운 다 뭐 국태민안 아니고 '리태민안' 하게끔 해서 지냈고. 뭐 오곡 다 풍성하게 지내고. 여름에는 그 제 지내고. 그 다음 가끔 또 그 유행병이 걸리게 되면 그땐 말을 잡아가지고 방역제를 지냈어.)
101007 @ 방역제.(방역제.)
101007 #2 방역제라고 헤야 될까 방, 방쉬제[38]라고 헤야 될까 방병제라고 헤야 될까.(방역제라고 해야 될까 방, '방쉬제'라고 해야 될까 방병제라고 해야 될까.)
101007 @ 예, 예.(예, 예.)
101007 #2 그렇게 해서 제를 지냇엇고.(그렇게 해서 제를 지냈었고.)
101007 @2 말을 잡아서예?(말을 잡아서요?)
101007 #2 예, 말로. 그건 우리가 들음만 허고.(예, 말로. 그건 우리가 듣기만 하고.)
101007 @ 음.(음.)
101007 #2 할아버지 할머니네 지내나니까 들음만 허고 그 직접 헌 건 우린 안 보고. 그런 건 안 보고. 우린 포젠 봣는디 포제는 그때 시작헌 것이 사삼사건 때 그렇게 일본 일제시대 그렇게 그런 거 막아도 한 번도 끊이지 않고.(할아버지 할머니네 지냈었으니까 듣기만 하고 그 직접 한 건 우린 안 보고. 그런 건 안 보고. 우린 포젠 봤는데 포제는 그때 시작한 것이 사삼사건 때, 그렇게 일본 일제강점기 그렇게 그런 거 막아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101007 @ 음.(음.)
101007 #2 쭉 이어왓고.(쭉 이어왔고.)
101007 @ 으음.(으음.)
101007 #2 사삼사건 때도 그렇게 위험헐 때도 어쨋든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를 지냇고.(사삼사건 때도 그렇게 위험할 때도 어쨌든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를 지냈고.)
101007 @ 아아.(아아.)
101007 #2 게서 이 오널까지 시작허니까 오늘까지 제는 끊어보진 안허고.(그래서 이 오늘까지 시작하니까 오늘까지 제는 끊어보진 안하고.)
101007 @ 그 제를 무신 제렌 헤마씨?(그 제를 무슨 제라고 하나요?)
101007 #2 포제, 포제.(포제, 포제.)
101007 @ 포제. 게믄 포젯단이 아니예?(포제. 그러면 포젯단이 아닙니까?)
101007 #2 포젯단이주.(포젯단이지.)
101008 @ 특산물은 어떤 거 잇인고예? 이 마을에.(특산물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이 마을에.)
101008 #2 특산물?(특산물?)
101008 @ 예, 특산물.(예, 특산물.)

38) '방쉬제'는 '방쉬'가 '비밀스런 방식이나 수단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뜻하므로 '방쉬제'는 '방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제사를 말한다. '방쉬'는 표준어 '비방'에 대응한다.

101008 #2 아, 특산물?(아, 특산물?)
101008 @ 음.(음.)
101008 #2 특산물이 뭐 옛날엔 보섭. 뭐 아주 거 유명헌 거. 보섭, 제주도에 덕수[39] 보섭, 벳 아니라시민 제주도 안네 농사를 못 지엇거든.(특산물이 뭐 옛날엔 보습. 뭐 아주 거 유명한 거. 보습, 제주도에 덕수 보습, 볏 아니었으면 제주도 안에 농사를 못 지었거든.)
101008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1008 #2 쟁기, 갈 게 없으니까. 게고 솟 만드니까 솟 아니민 밥헤 먹을 수 없엇고.(쟁기, 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솥 만드니까 솥 아니면 밥해 먹을 수 없었고.)
101008 @ 예.(예.)
101008 #2 나중에 뭐 해웨 물량이 문물이 뒈니까 그 전의야 뭐 덕수 소 솟 오직 그 물량 그 솟덜 아니면.(나중에 뭐 해외 물량이 문물이 되니까 그 전에야 뭐 덕수 소 솥 오직 그 물량 그 솥들 아니면.)
101008 @ 게난 그 보섭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지역 보섭하고 멘드는 게 또 틋나지 않아양?(그러니까 그 보습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지역 보습하고 만드는 게 또 다르지 않아요?)
101008 #2 틀리지. 육지서 여깃 걸 아, 육지 원래 보섭 헌디. 그것광 여깃광 모양이 틀려.(다르지. 육지서 여기 걸 아, 육지 원래 보습 하는데. 그것과 여기와 모양이 달라.)
101008 @ 예.(예.)
101008 #2 게믄 육지는 땅 밧용이고.(그러면 육지는 땅 밭용이고.)
101008 @ 음.(음.)
101008 #2 제주도는 땅 밧보다는 칠십 퍼센트가 자갈밧이거든. 자갈밧이, 자갈 없는 밧이 거의 드물어. 고산 한장드르[40] ᄀᆞ뜬 디 그런 디나 가민 뭐허주마는 경 아녀민 다 자갈밧이라.(제주도는 땅 밭보다는 칠십 퍼센트가 자갈밭이거든. 자갈밭이, 자갈 없는 밭이 거의 드물어. 고산 '한장드르' 같은 데 그런 데나 가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자갈밭이야.)
101008 @ 예.(예.)
101008 #2 자갈밧듸는 제주도 보섭 아니민 갈 수가 없어.(자갈밭에는 제주도 보습 아니면 갈 수가 없어.)
101008 @ 음. 맞수다. 그 다음 솟 같은 경우는?(음. 맞습니다. 그 다음 솥 같은 경우는?)
101008 #2 솟도 다 만들어서 제주도에 여기서 일제 때 츰, 우리가 흔 이십 대. 이십 대 후반ᄁᆞ진 솟 만들어서 저 제주도에 풀고 헤난디 벳, 보섭 만들기는 육십 년대 중반.(솥도 다 만들어서 제주도에 여기서 일제 때 참, 우리가 흔 이십 대. 이

39)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이다.
40) '한장드르'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십 대 후반까진 솥 만들어서 저 제주도에 팔고 했었는데 볏, 보습 만들기는 육십 년대 중반.)
101008 @ 예.(예.)
101008 #2 아, 칠십 년대 초반.(아, 칠십 년대 초반.)
101008 @ 칠십 년대 초반. 경운기 나오기 전이.(칠십 년대 초반. 경운기 나오기 전에.)
101008 #2 칠십 년대 초중반끄지도 보섭은 계속 만들엇주.(칠십 년대 초중반까지도 보습은 계속 만들었지.)
101008 @ 음.(음.)
101008 #2 밧 갈기 경운기 트랙타 나오기 전인 계속 보섭 썻으니까, 경운기로 밧 얼마 못 갈주게.(밭 갈기 경운기 트랙터 나오기 전엔 계속 보습 썼으니까, 경운기로 밭 얼마 못 갈지.)
101008 @ 예.(예.)
101008 #2 경운기 솔직히 저 자갈밧듸 강 어디.(경운기 솔직히 저 자갈밭에 가서 어디.)
101008 @ 예 맞수다, 맞수다.(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1008 #2 못 쓰주, 못 써. 게난 경운기 트랙타 나오니까 헷주. 경 아녀민 계속 쟁기로.(못 쓰지, 못 써. 그러니까 경운기 트랙터 나오니까 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쟁기로.)
101008 @ 게믄 솟도 큰 것부터 족은솟까지 이름들.(그러면 솥도 큰 것부터 작은 솥까지 이름들.)
101008 #2 경허난.(그러니까.)
101008 @ 이름덜 잇일 거 아니우꽈?(이름들 있을 거 아닙니까?)
101008 #2 젤 족은 것이 옹지리.(젤 작은 것이 옹달솥.)
101008 @ 예.(예.)
101008 #2 그 다음 저 아, 질 적은 게 잔철[41].(그 다음 저 아, 젤 작은 게 '잔철'.)
101008 @ 잔철?('잔철'?)
101008 #2 잔철.('잔철'.)
101008 @ 음.(음.)
101008 #2 잔철엔 헌 건 웨냐면 잔철. 저 쒜 물 주다가 저 조금 남으면 물이.('잔철'이라고 한 건 왜냐면 '잔철'. 저 쇠 물 주다가 저 조금 남으면 물이.)
101008 @ 예.(예)
101008 #2 쒯물이 좀 남으면 질 작은 것에 쒤 질어서 잔철이거든. 남은 쒜를 가서 쏟앗다고 헤서 잔철.(쇳물이 좀 남으면 젤 작은 것에 쇠를 부어서 '잔철'이거든. 남은 쇠를 가서 쏟았다고 해서 '잔철'.)

41) '잔철'은 무쇠 솥 중에서 가장 자그마한 솥을 말한다.

101008 @ 음.(음.)
101008 #2 그 다음 옹지리. 그 다음 서두, 저 다두테기[42].(그 다음 옹달솥. 그 다음 세되, 저 '다두테기'.)
101008 @ 음.(음.)
101008 #2 두 뒈들이 서두테기[43] 석 뒈들이. 말치[44] 흔 말. 흔 말들이. 그 다음 두말떼기.(두 되들이 '서두테기' 석 되들이. '말치' 한 말. 한 말들이. 그 다음 두 말들이.)
101008 @ 음.(음.)
101008 #2 흔 말은 말치 두말띄긴 두 말. 그런 식으로 헤엿주.(한 말은 '말치' 두 말들인 두 말. 그런 식으로 했지.)
101008 @ 예.(예.)
101008 #2 것도 여러 가지.(것도 여러 가지.)
101008 @ 예. 게난 그 잔철로도 뭐 헤먹고?(예. 그러니까 그 '잔철'로도 뭐 해먹고?)
101008 #2 예, 잔철로도 즉 말허면 자리 ᄀᆞ뜬 거 흔 ᄋᆞ남은 개 놩 보깡 지졍 먹고게. 조그만 거 작은 거.(예, '잔철'로도 즉 말하면 자리돔 같은 거 한 여남은 개 넣어 볶아서 지져서 먹고. 조그만 거 작은 거.)
101008 @ 저쪽, 저거는 옹지리우꽈?(저쪽, 저거는 옹달솥입니까?)
101008 #2 옹지리.(옹달솥.)
101010 @ 저건 옹지리예.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마을과 관련헤서 덧붙이고 싶은 이런 얘긴 이시카마씨?(저건 옹달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마을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이런 얘긴 있을까요?)
101010 #2 이 우리 마을에는 그 옛날부떠 그 방화, 이 저 불밀 허기 때문에 다 불에 그 기능이 잇어가지고, 방화허면 그 우리 마을 사름덜은 다 소방대원이거든. 과거에는.(이 우리 마을에는 그 옛날부터 그 방화, 이 저 풀무를 하기 때문에 다 불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방화하면 그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소방대원이거든. 과거에는.)
101010 @ 음.(음.)
101010 #2 마을에 우리 마을에서 화제가 낭은에 전소시긴 일이 없어. 마을에 화제가 낫다 들리면은 너나엇이 다 소방대원이라.(마을에 우리 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시킨 일이 없어. 마을에 화재가 났다 들리면 너나없이 다 소방대원이야.)
101010 @ 음.(음.)
101010 #2 그리고 옆집의 물 오줌통 다 이런 거 다 갖당.(그리고 옆집의 물 오줌통 다 이런 거 다 갖다가.)
101010 @ 뿌려.(뿌려.)

42) '다두테기'는 용적이 식되로 쌀 두 되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43) '서두테기'는 용적이 식되로 쌀 석 되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하는데, 달리 '서도테기'라고 한다.
44) '말치'는 한 말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하며, 달리 '웨말띄기'라고 한다.

101010 #2 뿌려.(뿌려.)
101010 @ 음.(음.)
101010 #2 그래서 야튼 우리 마을에는 야튼 그 방화는 아주 철저히 헷는데, 이젠 뭐 그런 기능도 다 엇어지고 다 헷주마는. 그게 딴 마을엔 우리 저 옛날 말로 속담으로, 감산리 양반, 양반 허면서 엂집 불 불나민 확 허게 두루막, 멩지 두루막 입엉은에 턱 나강 '허, 거 안 뒈엇고.'(그래서 아무튼 우리 마을에는 아무튼 그 방화는 아주 철저히 했는데, 이젠 뭐 그런 기능도 다 없어지고 다 했지만. 그게 딴 마을엔 우리 저 옛날 말로 속담으로, 감산리 양반, 양반 하면서 옆집 불 불나면 확 하게 두루마기, 명주 두루마기 입어서 턱 나가서 '허, 거 안 되었고.')
101010 @2 웃음.(웃음.)
101010 #2 경헌덴 허멍 우리 조롱덜 헤낫는디.(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조롱들 했었는데.)
101010 @ 음.(음.)
101010 #2 그런 식으로 허고. 여기서는 벨 걸 입엇다 헤도 확 벗엉 갈중이[45] 확 입엉 강 다 자기 친척이건 놈의건 관계없이 그자 마을에 불만 낫덴 허면 너나없이 기자 선착순 다 일어낭.(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별 걸 입었다 해도 확 벗어서 '갈중이' 확 입어서 가서 다 자기 친척이건 남이건 관계없이 그저 마을에 불만 났다고 하면 너나없이 그저 선착순 다 일어나서.)
101010 @ 음.(음.)
101010 #2 경 헤낫어.(그렇게 했었어.)
101010 @ 역시 불에 대한.(역시 불에 대한.)
101010 #2 으, 그런.(으, 그런.)
101010 @ 이런 거는 예, 예.(이런 거는 예, 예.)
101010 #2 그런 기능이 잇어. 불에 겁나지 안허고.(그런 기능이 있어. 불에 겁나지 안하고.)
101010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삼춘, 언제 낳고 어떵 컷수가? 어렷을 때.(삼촌, 언제 낳고 어떻게 컸습니까? 어렸을 때.)
102001 #1 아이고, 우리 너무 너무 고셍헤수다.(아이고, 우리 너무 너무 고생했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삼월 십칠일 날 나고.(삼월 십칠일 날 나고.)

45)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었다.

102001 @ 예.(예.)
102001 #1 난 다섯 설 나난에 다섯 설 나난 성질이 너미 저 바쁘고 너미 저 키도 크고.(난 다섯 살 나니까 다섯 살 나니까 성질이 너무 저 바쁘고 너무 저 키도 크고.)
102001 @ 음.(음.)
102001 #1 열다섯에 큰 키라마씸게, 나가.(열다섯에 큰 키였습니다, 내가.)
102001 @ 음.(음.)
102001 #1 견디 키도 크고 아버지가 막 대키우다게.(그런데 키도 크고 아버지가 막 큰키입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아버지는 대키고 어머니는 보통이고 허난에. 그 저 옛날은 그 몰방에 알아집니까?(아버지는 대키고 어머니는 보통이고 하니까. 그 저 옛날은 그 연자매 알아집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몰방에 저 소 메왕근에엥 뱅뱅 돌멍 그 조코고리도 뭐 저 그 무시거.(연자매 저 소 매어서 뱅뱅 돌면서 그 조이삭도 뭐 저 그 무엇.)
102001 @2 뭇곡.(무수고.)
102001 #1 그 놔근에엥 영영 올리멍 다 그걸 저 문 그것에 문 삐져내곡 허는 거. 거 솔 몰앗수다. 다섯 설 나난.(그 넣어서 이렇게이렇게 올리면서 다 그걸 저 모두 그것에 모두 빻아내고 하는 거. 거 솔 몰았습니다. 다섯 설 나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솔 몰멍 소 몰곡 뚜시 쪼끄만 헌 두 벵들이 알아집니까?(솔 몰면서 소 몰고 또 쪼끄만 한 두 병들이 알아집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두 벵들이 져근엥에 물 져오곡 동셍덜 아래 동셍덜이 다섯 개마씨.(두 병들이 져서 물 져오고 동생들 아래 동생들이 다섯 개예요.)
102001 @ 음.(음.)
102001 #1 다섯 성제. 저 아덜, 아덜덜만 다섯 성제난에 농장은 너미 널러마씸게. 친, 저 친 저 우리 저.(다섯 형제. 저 아들, 아들들만 다섯 형제니까 농장은 너무 넓습니다. 친, 저 친 저 우리 저.)
102001 @ 친정이?(친정이?)
102001 #1 친정이도 농장이 너미 널르난에, 아부지 어머니는 매날 밧듸 가고 그자 그 농장은 널러 놓난 조 보리 엿날가 조 보리 더 헤엿수가게. 돈 날 것도 뭐 엇고 겨난.(친정에도 농장이 너무 넓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밭에 가고 그저 그 농장은 넓어 놓으니까 조 보리 옛날이야 조 보리 더 하였습니까. 돈 날 것도 뭐 없고 그러니.)
102001 @ 음.(음.)

102001 #1 그 어린 때부터 그추룩 나가 경 부지런헹. 부지런허영은에게 말정을 아녀마씨. 나냥으로도 예게 알아집니다, 견디. 우리 아버지가, 나 쓰물에 결혼허영 왓수다게.(그 어린 때부터 그처럼 내가 그렇게 부지런해서. 부지런해서 말썽을 않았습니다. 나대로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 스물에 결혼해서 왔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쓰물에 결혼헤영 와신디 아부지가 와근에 엿말 삼아 야이 닮은 아인 엇어. 야의 닮은 아이는 하나도 엇다. 사위신디레 허는 말이.(스물에 결혼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와서는 옛말 삼아 애 닮은 아인 없어. 애 닮은 아이는 하나도 없다. 사위에게 하는 말이.)

102001 @ 예.(예.)

102001 #1 야이 닮은 아이. 야이는 너무 저 뭐 그 밧 막아진 밧도, 질 막아진 밧도 엿날은 많이 잇지 아녀우꽈양?(애 닮은 아이. 애는 너무 저 뭐 그 밭 막힌 밭도, 길 막힌 밭도 옛날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허민양 우리 성님이 하나 잇수다.(그러면요 우리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우에 성님이 잇인디, 저 큰어머니에 저 성님이난에.(위에 형님이 있는데, 저 큰어머니에 저 형님이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저 큰어머닌, 엿날에 들은 말인디. 너미 키가 적고 너미 황당허난에 우리 아버지가 저 싫어헷젠 마씸게.(저 큰어머닌, 옛날에 들은 말인데. 너무 키가 작고 너무 황당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싫어했다고 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싫어허연. 할머니도 깔깔헤 놓고 또 우리 아버지도 너무 깔깔헤 놓난에 그 저 큰어머닌, 우리 성님은 쪼꼬만 헙니다게.(싫어해서. 할머니도 깔깔해 놓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도 너무 깔깔해 놓으니까 그 저 큰어머닌, 우리 형님은 쪼끄만 합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키가 쪼고만 허고 황당허여 게난. 오꼿 아버지가 오꼿 일본 가부난에.(키가 쪼그만 하고 황당해서 그러니. 그만 아버지가 그만 일본 가버리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큰어머닌 가불어마씸게.(큰어머닌 가버렸어요.)

102001 @ 아아.(아아.)

102001 #1 가부난. 양, 저 시에 이 군수 큰 누님이우다게. 우리 큰 어머니가.(가버리니까. 예, 저 시에 이 군수 큰 누님입니다. 우리 큰 어머니가.)

102001 @ 으음.(으음.)
102001 #1 경허여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 황당헤 놓난에.(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 황당해 놓으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그걸 저 안 살안 일본 가부니까 일본서 우리 어머니를 뚜시.(그걸 저 안 살아서 일본 가버리니까 일본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102001 @ 음.(음.)
102001 #1 저 이제 만난 데령 오란에 이 초원에 완 살안 나가 첫, 첫뚤이우다. 큰뚤.(저 이제 만나서 데려서 와서 이 촌에 와서 살아서 내가 첫, 첫딸입니다. 큰딸.)
102001 @ 음.(음.)
102001 #1 큰뚤로 나신디. 아래 동셍들이 다섯 개라 놓난양, 학교 뎅기젠 허난 일을 헤졋수가게. 일을 못허난 난 공부도 못허고 학교 저 학교 보냅센, 허영 선생덜이 가민 우리 아버지네도 너미 어두운 거 아니우과?(큰딸로 낳는데. 아래 동생들이 다섯 개라 놓으니까, 학교 다니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난 공부도 못하고 학교 저 학교 보내십시오, 해서 선생들이 가면 우리 아버지도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게도 국민학교라도 시겨주주.(그래도 초등학교라도 시켜주지.)
102001 @ 게난.(그러니까.)
102001 #1 하나도 안 시겨근엥에 일, 일이나 허곡 애기나 보렌 허곡 경허여 놓난양, 일만 허멍 살앗수다. 겨곡 일을 싫어허질 아녀마씨. 성질이.(하나도 안 시켜서 일, 일이나 하고 아기나 보라고 하고 그래 놓으니까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싫어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질이.)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허난 이제는 아판에 경헴주마는. 산에 강양, 그자 낭 그 쓰물 안네양 산에 저 한라산에 간 남을 헤 왓수다. 우리도.(그러니 이제는 아파서 그렇게 하지만. 산에 가서요, 그저 나무 그 스물 안에요 산에 저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왔습니다. 우리도.)
102001 @ 음.(음.)
102001 #1 나가.(내가.)
102001 @ 음.(음.)
102001 #1 아버지는 물구루마 끗고 난 소구루말 끗고 경헤영 강 남을 헹 오곡허난, 우리 아버지가 막 와근에 자랑삼아 그 저 사위신디레 이야길 헤마씸. 가민 저 나대[46] 차곡 준둥이에 확 베 감아근엥에 들어가근엥에 낭을 헤도 경 빠르게 허곡 경 어린 땝주게. 쓰물에 씨집을 오난.(아버지는 말수레 끌고 난 소달구지 끌고 그렇

46) '나대'는 찍어서 나무를 자르는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게 해서 가서 나무를 해서 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와서 자랑삼아 그 저 사위에게 이야길 해요. 가면 저 '나대' 차고 잔등이에 확 참바 감아서 들어가서 나무를 해도 그렇게 빠르게 하고 그렇게 어린 뗍지요. 스물에 시집을 오니까.)

102001 @ 음.(음.)

102001 #1 쓰물 아주 전엡주게. 경헨에 허여난 거양 어이엇읍니다. 경허난 나가 빙신 뒝 영 아팜심가. 경 셍각헤져마씸게. 겨난 이 집에도 저 완전히 소문난 집이우다게.(스물 아주 전입지요.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 어이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신 되어 이렇게 아픈가,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그러니 이 집에도 저 완전히 소문난 집입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저 우리 씨아바님 돌아간 씨아바님 저 이제 저 뭐 이름을 불러야 뒈쿠다. 송○○이 허민 저 섯동네[47] 송○○이 허민 완전 저 소문난 집이우다게.(저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신 시아버님 저 이제 저 뭐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송○○이 하면 저 '섯동네' 송○○이 하면 완전 저 소문난 집입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겐디 아덜이 또 다섯 개라마씸.(그런데 아들이 또 다섯 개입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ᄋᆞ답 오누이마씸. 뚤 세 개 허고.(여덟 오누입니다. 딸 세 개 하고.)

102001 @ 음.(음.)

102001 #1 씨집을 오란 보난 ᄯᅳ시 우리 집보단 더헌 집의가 와진 거라마씸게. 완 보난 다 아래. 나가 우의가 우리가 종손이고게 질 우의우다게. 우리가.(시집을 와서 보니 또 우리 집보단 더한 집이 와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다 아래. 내가 위가 우리가 종손이고 젤 위입니다. 우리가.)

102001 @ 아.(아.)

102001 #1 우리가 질 믄이라 놓난양. 아이고, 집은 믄딱 멜라진 집 케케묵은 집. 그 저 무시 걸로 인 거 알아집니까?(우리가 젤 맏이라 놓으니까요. 아이고, 집은 모두 찌그러뜨려진 집 케케묵은 집. 그 저 무슨 걸로 인 거 알아집니까?)

102002 @2 새로?(띠로?)

102002 #1 새로 일엉 이만이 뚜꺼와마씨. 이만인 뚜꺼와.(띠로 이어서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

102002 @2 예, 예, 예.(예, 예, 예.)

102002 #1 경허난 그것이양 종손 칩이라 놓난 우리 저 씨아버님은 제ᄉᆞ 돌아가민 벡 멩 벡 멩 벡 명을 모인 거라마씨. 제삿날 ᄎᆞ낙.(그렇게 하니까 그것이요 종손집이라 놓으니까 우리 저 시아버님은 제사 돌아와 가면 백 명 백 명 백 명이 모인 겁니다. 제삿날 저녁.)

102002 @ 음.(음.)

47) '섯동네'는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를 이르며, 달리 '서카름'이라고 한다.

10202 #1 부억도 ᄒᆞ꼼은 허곡 집도 ᄒᆞ꼬만 허곡, 이 자린 이 자린디 쪼꼬만 허게 헤여 놓난 이디 영만 데민 다 버물어마씸게. 다 버물엉 살 수가 엇읍디다게.(부엌도 자그만 하고 집도 자그만 하고, 이 자린 이 자린데 쪼끄만 하게 해 놓으니까 여기 이렇게만 대면 다 더러워져요. 다 더러워져 살 수가 없었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살 수가 엇으난에, 아이고양, 서른 우리 나가 서른다섯에 이거 집 짓엇수다게. 이 집.(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서른 우리 내가 서른다섯에 이거 집 지었습니다. 이 집.)

102002 @ 음.(음.)

102002 #1 서른다섯에. 돈도 엇고양. 돈도 어떵 허영 돈이 이십니까게.(서른다섯에. 돈도 없고요. 돈도 어떻게 해서 돈이 있겠습니까.)

102002 @ 음.(음.)

102002 #1 서른다섯 나난에 춤 밧 하나, 밧 단지 하나 물련 살앗수다게.(서른다섯 나니까 참 밭 하나, 밭 단지 하나 물려서 살았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어쩔 수가 엇은 거라마씸. 게난 뭣 나도 ᄒᆞ꼼 장ᄉᆞ도 ᄒᆞ꼼 헤봣수다.(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뭣 나도 조금 장사도 조금 해봤습니다.)

102002 @2 아아.(아아.)

102002 #1 예, 저 뭐 혀뜩헌 장ᄉᆞ마씸게. 이제 저 이젠 아저씬 군인 가불고, 군인 어린 때 갓수다게.(예, 저 뭐 어지러운 장사요. 이제 저 이젠 아저씬 군인 가버리고, 군인 어린 때 갔습니다.)

102002 @ 음, 음.(음, 음.)

102002 #1 군인도 저 헤병대로 갓수다. 헤병대로.(군인도 저 해병대로 갔습니다. 해병대로.)

102002 @ 음.(음.)

102002 #1 헤병대로 아무디나 가지 안 허영 헤병대로 가 놓난.(해병대로 아무데나 가지 안 해서 해병대로 가 놓으니까.)

102002 @2 웃음.(웃음.)

102002 #1 아이고, 진짜양 그땐 베고프곡양 베고프곡 헤신디 나 술도 사단 저 술도 사단 풀아보고 자리 장시도 허여보고.(아이고, 진짜요 그땐 배고프고요 배고프고 했는데 내가 술도 사다가 저 술도 사다가 팔아보고 자리돔 장사도 해보고.)

102002 @ 음.(음.)

102002 #1 웃음. 장ᄉᆞ 헤여봣수다게. 뭐 날, 돈 날 것이 엇입디다게.(웃음. 장사 해봤습니다. 뭐 날, 돈 날 것이 없었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원, 돈 날 것이 엇언. 게난 그, 그거 저거 헤여봣수다. 헤여보멍 농사도 지고. 그자 농사지젠 허난 농장은 잇수가? 농장은 저 이거 부자칩이난 농장은

잇입니다. 잇인디 그 저 식구덜 하 노난양 살기가 힘들어마씸게. 완전 부자엔 헤도, 그 부자엔 허민 더 힘들어마씸게. 초원 부자는, 돈 없는 부자.(원, 돈 날 것이 없어서. 그러니 그, 그거 저거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농사도 짓고. 그저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장은 있습니까? 농장은 저 이거 부잣집이니까 농장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저 식구들 많아 놓으니까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완전 부자라고 해도, 그 부자라고 하면 더 힘들었습니다. 촌부자는, 돈 없는 부자.)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저 일부자, 일부자.(저 일부자, 일부자.)

102002 @ 맞아.(맞아.)

102002 #1 일 부자마씸게. 일부자. 게난 양 집의 다 일부자우다.(일부자입니다. 일부자. 그러니까 양쪽 집이 다 일부자입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저 친정에도 일부자 씨집이도 일부자 경허멍.(저 친정에도 일부자 시집도 일부자 그렇게 하면서.)

102002 @ 고셍헨에예?(고생했지요?)

102002 #1 고셍만 고셍만 허당 보난 병신 됏수다게.(고생만 고생만 하다 보니까 병신 됐습니다.)

102002 @ 그 삼춘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란마씨?(그 삼촌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102002 #1 아, 키가 우리 아부지는 키가 커 놓난 그 저 거 양복엔 허지 아념니까? 엿날은 양복.(아, 키가 우리 아버지는 키가 커 놓으니까 그 저 거 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은 양복.)

102002 @ 예.(예.)

102002 #1 그거 입으민 우리 저 메누리가 다섯 개라마씨.(그거 입으면 우리 저 며느리가 다섯 명입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아덜 다섯 개난에.(아들 다섯 명이니까.)

102002 @ 음.(음.)

102002 #1 막 그 저 메누리신디레 욕을 아녀근엥에 허여 놓난 메누리덜이 우리 아버지는 저 영국신사.(막 그 저 며느리에게 욕을 않아서 해 놓으니까 며느리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 영국신사.)

102002 @ 음.(음.)

102002 #1 영국신사라고 저 메누리, 씨아버님신디레.(영국신사라고 저 며느리, 시아버님한테.)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영국신사, 영국신사 막 그치룩 경헙니다게. 경허곡 또 어머니는 뚜시 돈 날 거 뭐 잇수가?(우리 아버지는 영국신사, 영국신사 막 그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또 돈 날 거 뭐 있습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고사리 거꺼근엥에양. 아기덜이양 아기덜 문 유아원 할망이엔 골읍니다.(고사리 꺾어서. 아기들이요 아기들 모두 유아원 할머니라고 말합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애기덜게. 그 손지덜.(그 아기들. 그 손주들.)
102002 @ 예.(예.)
102002 #1 옷 헤영 입지곡. 미승 놔근엥에.(옷 해서 입히고. 재봉틀 놓아서.)
102002 @ 음.(음.)
102002 #1 옷 헤영 입지곡 거 어린 아기덜은게 오줌 싸불민 오줌 젖으민 나신디 오라근엥게 저 옷 ᄒᆞ쏠 몰라 ᄃᆞ렌. 저 아기 입지켄 허민. 양, 어멍 엇수가? 가네 어멍아방 엇수가? 어멍아방 이신 디 날ᄀᆞ라 옷 몰라 ᄃᆞ렘 헴수과? 드르쌍 네붑서게. 그거 허젠 말앙. 나가 그치룩 골읍주게.(옷 해서 입히고 거 어린 아기들은 오줌 싸버리면 오줌 젖으면 나에게 와서 저 옷 조금 마름질해 달라고. 저 아기 입히겠다고 하면. 예, 엄마 없습니까? 얘네 엄마아빠 없습니까? 엄마아빠 있는데 날보고 옷 마름질해 달라고 하십니까? 팽개쳐 내버리세요. 그거 하려 말고. 내가 그처럼 말합지요.)
102002 @ 음.(음.)
102002 #1 나도 저 너무 지나치게 힘들고게 못 전디난 그 옷 아졍은에 몰르젠을 아녀근엥에 어멍신더레 경헤마씨.(나도 저 너무 지나치게 힘들고 못 견디니까 그 옷 가져서 마름질하려고 않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어요.)
102002 @ 음.(음.)
102002 #1 저 어멍아방 신 걸 ᄀᆞ만이 내불민. 오줌 싸난 옷 젖으난에 저 옷 ᄋᆞ라개 아니난에 궂덴. 경허여, 경헤도 몰라드려마씨.(저 어머니아버지 있는 걸 가만히 내버리면. 오줌 싸니까 옷 젖으니까 저 옷 여러 개 아니니까 궂다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해도 마름질해 드립니다.)
102002 @ 예, 예.(예, 예.)
102002 #1 몰라 드련, 강알 영 터진 거.(마름질해 드렸어, 샅 이렇게 터진 거.)
102002 @ 음.(음.)
102002 #1 강알 영 터져근엥에 그자 뎅이멍 그자 오줌 싸곡 똥 싸곡 허게.(샅 이렇게 터져서 그저 다니면서 그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게.)
102002 @ 음.(음.)
102002 #1 겨민 ᄆᆞᆼ코실낭이 올레[48]에 막 큰 거 잇어마씸게.(그러면 멀구슬나무 '올레'에 막 큰 거 있어요.)
102002 @ 음.(음.)
102002 #1 그난 그 나무 아래 아기덜 다 뭣 ᄀᆞᆯ앙 앚저근에 뭣 허영 멕이곡. 허

48)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을 말한다.

영, 어멍은 ᄒᆞ쏠 통통헌 게.(그러니 그 나무 아래 아기들 다 뭣 깔아서 앉혀서 뭣 해서 먹이고. 해서, 어머니는 조금 통통한 게.)
102002 @ 음.(음.)
102002 #1 보통 키.(보통 키.)
102002 @ 예.(예.)
102002 #1 보통키벳기 안 뒈여마씨.(보통키밖에 안 됩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어머니는 크지 아녀마씨, 크지 아녀고. 아버지는 크고. 일본서 어머니도 동부락[49] 동부락 살아나고.(어머니는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아버지는 크고. 일본서 어머니도 동부락 동부락 살아나고.)
102002 @ 음.(음.)
102002 #1 동부락 살단에 저 결혼을 허난 어머니도 ᄒᆞ쏠 저 그 아저씰 나무련.(동부락 살다가 저 결혼을 하니까 어머니도 조금 저 그 아저씰 나무라서.)
102002 @ 음.(음.)
102002 #1 나무련 일본 나간 거라마씸게.(나무라서 일본 나간 거예요.)
102002 @ 아아.(아아.)
102002 #1 일본 나가고 ᄯᅳ시 우리 아버지는 ᄯᅳ시 저 나무련게 저 큰어멍을 나무련게 ᄯᅳ시 일본 가불고.(일본 나가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저 나무라서 저 큰어머니를 나무라서 다시 일본 가버리고.)
102002 @ 음.(음.)
102002 #1 경혜연 일본서 만난에 오고렌 헙디다게.(그렇게 일본서 만나서 왔다고 합디다.)
102002 @ 음.(음.)
102002 #1 일본서 만난 오란에 이디 오란게 나 첫뚤로 낳고게 살앗수다게. 산디 에이그, 잘도 고셍헷수다. 잘도 고셍, 나도양 양 집의 ᄆᆞᆫ딱 식구 하고 농장 널르고 헤 놓난.(일본서 만나서 와서 여기 와서는 나를 첫딸로 낳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에이고, 잘도 고생했습니다. 잘도 고생, 나도요 양 집이 모두 식구 많고 농장 넓고 해 놓으니까.)
102002 @ (음.)
102002 #1 그자 일만 일만 드러 허단보난, 이치록 경 늙어지카부넨 안 헷수다게.(그저 일만 일만 들이 하다보니까, 이처럼 그렇게 늙어질까봐 안 했습니다.)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그자 뭔 나무에 올라도양, 어디 뭐 저 도리못[50] 큰 폭낭 엿날 폭낭 그른, 저 그른 폭낭엔 헌 거 이신디양. 그 폭낭 우의서 빙빙 발아[51]마씸게.(그저 뭔 나무에 올라도요, 어디 뭐 저 '도리못' 큰 팽나무 옛날 팽나무 그런, 저 그런 팽나무

49) '동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50) '도리못'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의 덕수리 상동을 말한다.
51) '발다'는 좁고 높은 데를 걸어가거나 기어 다니다는 뜻을 지닌 어휘다.

라고 한 거 있는데요. 그 팽나무 위에서 빙빙 발아요.)
102002 @ 음.(음.)
102002 #1 막 놀크레기[52] 놀크레기 완전.(막 '놀크레기' '놀크레기' 완전.)
102002 @ 음.(음.)
102002 #1 결혼허연에 산방산에 이디 우리 아저씨영 가난 산방산[53] 저 구질러레 저레 ᄂᆞ려가난 막 욕허멍 이레 당장 올라오렌. 어디레, 어디레 ᄂᆞ려감시넨 허멍. 저 꼬리볼레 타 먹으레 간 거라마씸. 꼬리볼레 타레.(결혼해서 산방산에 여기 우리 아저씨하고 가니까 산방산 저 구길에 저리로 내려가니까 막 욕하면서 이리 당장 올라오라고. 어디로, 어디로 내려가느냐고 하면서. 저 보리장나무열매 따 먹으러 간 겁니다. 보리장나무열매 따러.)
102002 @ 음.(음.)
102002 #1 꼬리볼레 알아집니까?(보리장나무열매 알아집니까?)
102002 @ 그 저 막 큰 거?(그 저 막 큰 거?)
102002 #1 꼬리볼레 저 요만씩 요만씩 진 거.(보리장나무열매 저 요만씩 요만씩 긴 거.)
102002 @ 예, 예, 예, 예. 줄 벋엉 헌 그 낭예?(예, 예, 예, 예. 줄 벋어서 한 그 나무요?)
102002 #1 줄 벋는 낭 그 꼬리볼레를 그치록 잘 읍디다게.(줄 벋는 나무 그 보리장나무열매가 그처럼 잘 열립디다.)
102002 @ 음.(음.)
102002 #1 저거 산방산에 게난.(저거 산방산에 그러니까.)
102002 @ 음.(음.)
102002 #1 그걸 산방산에 간 그 알러레 시난에 그걸 잘잘잘잘 ᄂᆞ려강 그거 타레 가난 당장 올라오렌 헹 막 용심내멍 막 저 막 독허여낫수다게.(그걸 산방산에 가서 그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잘잘잘잘 내려가서 그거 따러 가니까 당장 올라오라고 해서 막 화내면서 막 저 막 독했었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우리 아저씨가 막 독허여. 잘도 독허영 덕수[54] 사름 이길 사름 엇어.(우리 아저씨가 아주 독해. 잘도 독해서 덕수 사람 이길 사람 없어.)
102002 @ 음.(음.)
102002 #1 이길 사름 엇고. 또 저 일도 많이 허고마씸게.(이길 사람 없고. 또 저 일도 많이 하고요.)
102002 @ 예.(예.)
102002 #1 이디 덕수 일은 저 ᄆᆞᆫ딱 허연에 나오는 사름이우다.(여기 덕수 일은 저 모두 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52) '놀크레기'는 동작이 날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곧 날쌘돌이라는 말이다.
53) '산방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화순리 경계에 걸쳐진 오름 이름이다.
54) '덕수'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102002 @ 예.(예.)
102002 #1 덕수, 경 못 살아도 밧도 사가멍.(덕수, 그렇게 못 살아도 밭도 사가면서.)
102002 @ 예.(예.)
102002 #1 밧도 사가멍 또 그 저 처음엔 젊은 땐 소대장을 헵디다.(밭도 사가면서 또 그 저 처음엔 젊은 땐 소대장을 합디다.)
102002 @ 음.(음.)
102002 #1 소대장을 허영, 양 이제 그 불미허는 거 이제 한라문화제 잇지양?(소대장을 해서, 예 이제 그 풀무질하는 거 이제 한라문화제 있지요?)
102002 @ 예.(예.)
102002 #1 그것이 그걸로 줄이 저 올라온 거라마씸게.(그것이 그걸로 줄이 저 올라온 겁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저 그 소대장 헹은엥에 벡오십 멩 그 엿날은 경 합디다게.(그 저 그 소대장 해서 백오십 명 그 옛날은 그렇게 많습디다.)
102002 @ 음.(음.)
102002 #1 경 청년덜이 하근에 군인 가 온 사름덜이영 경 하난. 소대장 허연 그 훈련을 흔 둘을 ᄀᆞ리쳐마씨.(그렇게 청년들이 많아서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으니까. 소대장 해서 그 훈련을 한 달을 가르쳤습니다.)
102002 @ 예, 예.(예, 예.)
102002 #1 흔 둘을 ᄀᆞ리쳔 목이 바짝 쉬고. 그 저 과수원은 그땐 쪼고만 헌 때마씸게.(한 달을 가르쳐서 목이 바짝 쉬고. 그 저 과수원은 그땐 쪼고만 한 때였습니다.)
102002 @ 예, 예.(예, 예.)
102002 #1 쪼고만 헌 땐디 약을 못허난, 약을 못허난 어짜피 저 나는 매날 정심 허레 가고.(쪼고만 한 땐데 약을 못하니까, 약을 못하니까 어차피 저 나는 맨날 점심하러 가고.)
102002 @ 음.(음.)
102002 #1 소 보고.(소 보고.)
102002 @ 음.(음.)
102002 #1 소, 소는 물 져당 주고.(소, 소는 물 져다가 주고.)
102002 @ 음.(음.)
102002 #1 저 그 어디 메여두서. 메여두서 소 하나 키왓수다게.(저 그 어디 매어두고. 매어두고 소 한 마리 키웠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처음엔 하나 키왕. 소 붸곡 소대장을 헤 놓민 딴 사름덜은 훈련받는 사름덜은 시간 뒈면은 집의 가는디.(그 처음엔 하나 키워서. 소 돌보고 소대장을

해 놓으면 딴 사람들은 훈련받는 사람들은 시간 되면 집에 가는데.)
102002 @ 음.(음.)
102002 #1 이 소대장허고 저 이장은 ᄀᆞ찌 앚아근엥에 그 저 토론허곡 뭐허곡 헤여가민.(이 소대장하고 저 이장은 같이 앉아서 그 저 토론하고 뭐하고 해가면.)
102002 @ 음.(음.)
102002 #1 집의 들어오질 못헤여마씸게.(집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제 시간에 못 들어왕 밤의사 들어와. 밤이야.(제 시간에 못 들어와서 밤에야 들어와. 밤이야.)
102002 @ 음.(음.)
102002 #1 들어왕 흔 둘을 훈련을 받으난 일등을 헨마씸게, 저 저 서귀 간.(들어와서 한 달을 훈련을 받으니까 일등을 했습니다, 저 저 서귀 가서.)
102002 @ 방앗돌굴리는노래[55]예?(방앗돌굴리는노래요?)
102002 #1 서귀포에 간. 저 소대장, 저 소대장 소대장.(서귀포에 가서. 저 소대장, 저 소대장 소대장.)
102002 @ 소대장?(소대장?)
102002 #1 소대장 허연에.(소대장 해서요?)
102002 @ 음.(음.)
102002 #1 서귀포 간 일등 허연. 일등 허난 이젠 또 저 시에 그 저 그 어디우꽈? 저. 것도.(서귀포 가서 일등 해서. 일등 하니까 이젠 또 저 시에 그 저 그 어딥니까? 저. 것도.)
102002 @ 운동장?(운동장?)
102002 #1 운동장이 아니고. 저 워이 워이 월드컵, 워이 월드컵인가?(운동장이 아니고. 저 워이 워이 월드컵, 워이 월드컵인가?)
102002 @ 월드컵 경기장 허는 디? 으으.(월드컵 경기장 하는 데? 으으.)
102002 #1 그디 가난 오꼿허게게 아침부떠 저 재수가 글런마씸게.(거기 가니까 그만 아침부터 저 재수가 글렀어요.)
102002 @ 음.(음.)
102002 #1 이장네 집의서 저 아침을 먹는디 암턱이 장팡뒤[56] 알아집니까?(이장네 집에서 저 아침을 먹는데 암탉이 '장팡뒤' 아십니까?)
102002 @ 예. 장팡뒤.(예. '장팡뒤'.)
102002 #1 장팡뒤로 암턱이 파드득허게 놀아완 국데레, 저 어느 어른 국데레 탁 허게 털어진 거라마씸게.('장팡뒤'로 암탉이 파드득하게 날아와서 국에, 저 어느 어른 국에 탁 하게 떨어진 겁니다.)
102002 @ 음.(음.)

55) '방앗돌굴리는노래'는 제주도 민요의 하나로, 연자방아에 쓸 돌을 산에서 마을까지 굴려올 때에 부르던 노동요로 선후창(先後唱) 형식으로 되어 있다.
56) '장팡뒤'는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장항뒤', '잔황뒤'라고도 한다.

102002 #1 게난 기분이 막 나쁩디다게. 나빤게마는양 우리 가단양 다쳔마씸게. (그러니 기분이 막 나쁩디다. 나쁘더니만요. 우리 가다가요 다쳤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우리, 우리 가는 차가 틀리고 그 훈련허영 훈련헌 사름 가는 차가 틀령은에게, 차가 두 개 갓수다게, 우리. 게난 나는 소 보곡 가지, 저 안 가쿠덴 허난에 우읫 어른덜이 느가 아이 가민 누게 갈 사름 시니? 느네가 가야 뒌덴 경허멍 허연, 나도 막 집의 헐 일도 하고 경 아저씬 나산 뎅겨부난.(우리, 우리 가는 차가 다르고 그 훈련해서 훈련한 사람 가는 차가 달라서, 차가 두 대 갔습니다, 우리. 그러니 나는 소 돌보고 가지, 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위 어른들이 네가 아니 가면 누가 갈 사람 있니? 너희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나도 막 집에 할 일도 하고 그렇게 아저씬 나서서 다녀버리니까.)
102002 @ 음.(음.)
102002 #1 막 헐 일이 하신디 가지 말젠 헤가난에게 이젠 저 느네 아이 강, 느네 아이 강 안 뒌덴 허멍 허난 가단에양, 저 영 알로 영 돌앙갈 때 그때는.(막 할 일이 많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젠 저 너희 아니 가면, 너희 아니 가면 안 된다 하면서 하니까 가다가, 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갈 때 그때는.)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여기 질이 엇어낫수다.(그 여기 길이 없었었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견디, 가단 저 어디, 어디 가난양, 차가 그자 난 저 두 번채 앚아신디 차가 화물차가 완게 탁 받으난게 이 동더레 저 영 가는디 절로 완 찰 탁 받으난에 동더레 확 돕디다게. 그 저 버스가. 확 도난 그디 간 탁 걸어젼마씸게.(그런데, 가다가 저 어디, 어디 가니까요, 차가 그저 난 저 두 번째 앉았는데 차가 화물차가 오더니 탁 받으니까 이 동쪽으로 저 이렇게 가는데 저쪽으로 와서 차를 탁 받으니까 동쪽으로 확 돕디다. 그 저 버스가. 확 도니까 거기 가서 탁 걸어졌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그 유리창 부서지멍 그디 간 걸어젼마씸게. 튀언에. 그디 간 걸어진난 복삭[57] 아픈 거라마씸게. 복삭 아프난, 아이고, 이젠양, 저 그 어디 간 눗수다게. 거 저 훈련허는 것도 안 보고.(그 유리창 부서지면서 거기 가서 걸어졌어요. 튀어서. 거기 가서 걸어지니까 '복삭' 아픈 겁니다. '복삭' 아프니까, 아이고, 이젠요, 저 그 어디 간 누웠습니다. 거 저 훈련하는 것도 안 보고.)
102002 @ 예.(예.)
102002 #1 ᄀᆞ만히 수건 더껀 ᄀᆞ만히 그 저 헷빗 나는 디 강 눗단에 집의, 집의 들어와 가난, 말을 들어신ᄀᆞ라. 오널 무신 사고 나시넨 허멍. 어떠난, 어떠난 어떠난 어떵 헤시넨 허멍 들읍디다게. 들언허난 양, 어디 안 거멍헌 디가 엇입디다게.(가만히 수건 덮어서 가만히 그 저 햇빛 나는 데 가서 누었다가 집에, 집에 들어와 가니

57) '복삭'은 몸이 노곤한 상태를 뜻하나 여기서는 표준어 '박산'에 가깝게 많이 다치고 아픈 상태를 말한다.

까, 말을 들었는지. 오늘 무슨 사고 났느냐고 하면서. 어떠니, 어떠니 어떠니 어떻게 했느냐며 하면서 듣습디다. 들으니까 어디 안 검은 데가 없습디다.)

102002 #1 문짝 몸이 다 거멍 헤부런마씸게. 막 문딱 저 문 멍들엉 문딱 거멍허연 완 눴수다게. 방에 완 누난에, 족은아덜신디레 파스, 파스 강 상오렌마씸게. 그 아방[58]이 파스 상오렌 허난에. 나 허는 말은 파스도 약이라? 웃음.(몽땅 몸이 다 검게 돼버렸어요. 막 모두 저 모두 멍들어서 모두 검게 돼버려서 와서 누웠습니다. 방에 와서 누우니까, 작은아들에게 파스, 파스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파스 사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파스도 약이야? 웃음.)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그 말을 언제나 곧는 거라마씨.(그 말을 언제나 말하는 거예요.)

102002 @ 어.(어.)

102002 #1 파스 말 골아가민 파스도 약이라. 그거 사오렌 헴쩬. 파스도 약이라.(파스 말 말해가면 파스도 약이야. 그거 사오라고 한다고. 파스도 약이야.)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게난 딴 사름덜은 다 병원에 가신디 나만 안 간 거라마씸게.(그러니 딴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갔는데 나만 안 간 거였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나만 안 간에 그냥 경기장엘 가서마씸게. 간에 어두완 돌아오난에 경 소문 들어신ᄀᆞ라 경 완 경헙디다게. 게멍, 아이고양, 차에 저 두 번을 크게 사고 낫수다게.(나만 안 가서 그냥 경기장엘 갔습니다. 가서 어두워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소문 들었는지 그렇게 와서는 그럽디다. 그러면서, 아이고, 차에 저 두 번을 크게 사고 났습니다.)

102002 @ 으.(으.)

102002 #1 또 서귀포 저 아판에 서귀포 또 저, 이 저 맹장 수술을 헤십주게. 맹장 수술을 허여신디 맹장 수술을 허단 보난 또 담석도 잇젠 허멍 저 담석 수술도 허여야쿠다. 허여야주. 원장님 허는 말이 허여야주 이제 저 언젠가는 이젠 혼 번 저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게 뒙니덴. 경허멍 허난 담석 수술이영 맹장 수술이영 저 서귀포의료원에서 허여신디.(또 서귀포 저 아파서 서귀포 또 저, 이 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또 담석도 있다고 하면서 저 담석 수술도 해야겠습니다. 해야지. 원장님 하는 말이 해야지 이제 저 언젠가는 이젠 한 번 저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담석 수술이랑 맹장 수술이랑 저 서귀포의료원에서 했는데.)

102002 @ 음.(음.)

102002 #1 그걸 이제 그 알, 어느 날은 막 아픈 거 아니우꽈? 집의서 막 아프난에, 하르방은 또 저 따시 요디 잔치허난 놀레 가부런 엇어십주. 경 아판에 완 보난 아판 헴시난에 둣날 아칙이게 응급실로 가켄 허멍 어두룩헌디 저 서귀포 일호광장

58)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가난에 어두룩헙디다게. 어두룩헨 일호광장 영 허영 돌안 다 가는디 저 동으로 완에 버스로 탁 받아부난게 차가, 차가 오꼿 폐차 허여부럿수게.(그걸 이제 그 알, 어느 날은 막 아픈 거 아닙니까? 집에서 막 아프니까, 남편은 또 저 다시 요기 잔치하니까 놀러 가버려서 없었습지요. 그렇게 아파서 와서 보니까 아파서 하고 있으니까 뒷날 아침에 응급실로 가겠다고 하면서 어스름한데 저 서귀포 일호광장 가니까 어스름합디다. 어스름해서 일호광장 이렇게 해서 돌아서 다 가는데 저 동쪽으로 와서 버스로 탁 받아버리니까 차가, 차가 그만 폐차 해버렸습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게난 폐차헤연에 게난 이디 일로 탁 받으난 이 저 그땐 겨울입주게. 겨울인디 이 겨울옷 잠바도 다 끊어져십디다게. 게난, 양, 순경덜은 어디 잇단산디 순경이 확 모여듭디다. 확 모여들언에 순경은 나 시꺼가고 그 사름은 또 체포허고. 경 헨에 헤신디 거 막 어린 아입디다게. 어린 아이난에 우리가 봐줜 내불엇수다게. 봐줜 내불고.(그러니 폐차해서 그러니 여기 이리로 탁 받으니까 이 저 그땐 겨울입지요. 겨울인데 이 겨울옷 잠바도 다 끊어져있습디다. 그러니, 예, 순경들은 어디 있었는지 순경이 확 모여듭디다. 확 모여들어서 순경은 나 실어가고 그 사람은 또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 막 어린 아입디다. 어린 아이니까 우리가 봐줘서 내버렸습니다. 봐줘서 내버리고.)

102002 #1 저 무신거 이제 뭐 가근에 물리치료라도 헙센, 물리치료라도 허민 저 물리치료 이제 헌 거 이제 저 보험 치료 허여주쿠덴. 경허연에, 양 사십만 원 ᄀᆞ져오난 즘즘허연 거 받안 설러불엇수다게. 영 빙신 뭘 중은 몰르고마씨.(저 무엇 이제 뭐 가서 물리치료라도 하십사고, 물리치료라도 하면 저 물리치료 이제 한 거 이제 저 보험 치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 사십만 원 가져오니까 조용하게 거 받아서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병신 될 줄은 모르고요.)

102002 @ (웃음.)

102002 #1 아이고, 경허멍양, 어린 때부터 고셍허단 보난 또 결혼헹도 그치록 또 경, 경 사골 납디다게. 그치룩허멍 막 경. 이것도 사고 난 이치룩 뭔 거우다게.(아이고, 그렇게 하면서요, 어린 때부터 고생하다가 보니까 또 결혼해서도 그처럼 또 그렇게, 그렇게 사고를 납디다. 그처럼 하면서 마구 그렇게. 이것도 사고 나서 이처럼 된 겁니다.)

102002 @ 음.(음.)

102002 #1 이디 나완에 이거 이건 오도바이에.(여기 나와서 이거 이건 오토바이에.)

102002 @ 음.(음.)

102002 #1 오도바이 팔년 탓수다. 팔년. 팔년.(오토바이 팔년 탔습니다. 팔년. 팔년.)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저 아버지 돌아가난에게 잘 걷지도 못허고 어멍이 걷는 거에 힘드난

작은아덜이 저것도 사오고마씸게.(저 아버지 돌아가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어머니 걷는 거에 힘드니까 작은아들이 저것도 사오고요.)
102002 @ 음, 음.(음, 음.)
102002 #1 저, 저.(저, 저.)
102002 @ 으. 안마기.(으. 안마기.)
102002 #1 저, 저 저 안마기. 저것도 저 비싼 거주게.(저, 저 저 안마기. 저것도 비싼 거지.)
102002 @ 저거 완전 비싼 거 우린 못 삽니께.(저거 완전 비싼 거 우린 못 삽니다.)
102002 #1 이벡육십만 원 줭 사고렌 헙디다게.(이백육십만 원 줘서 샀다고 합디다.)
102002 @ 음.(음.)
102002 #1 겨고 오도바이도 이벡만 원 줜 사오고렌 허멍 족은아덜이 사다주난 그거 끗엉은엥게 농장디레 막 듣단에양. 살아나질 안 헙디다게. 것이 안 살아나난 카부 확 허게 도난게 저레 간 착 부지데겨부난[59].(그리고 오토바이도 이백만 원 줘서 사왔다고 하면서 작은아들이 사다주니까 그거 끌고 농장으로 막 달리다가요. 살아나질 안 합디다. 것이 안 살아나니까 커브 확 하게 도니까 저리로 가서 착 '부지데겨부난'.)
102002 @ 웃음.(웃음.)
102002 #1 그 저 무시거게 그 농장이 널러 놓난게 사름이 사근엥에 그 저 작업을 허난.(그 저 무엇 그 농장이 넓어 놓으니까 사람을 사서 그 저 작업을 하니까.)
102002 @ 음.(음.)
102002 #1 산 작업을 허난 강 아침 허곡 그 아덜네 저 줘분 후에난. 아방[60] 돌아가분 후에. 상 작업을 허고 뚜시 가근에 아침허곡, 뚜시 정심허곡 삼 시. 세 시 뒈믄 뚜시 먹을 거 허곡.(사서 작업을 하니까 가서 아침 하고 그 아들네 저 줘버린 후니까. '남편' 돌아가셔버린 후에. 사서 작업을 하고 다시 가서 아침하고, 다시 점심하고 삼 시. 세 시 되면 다시 먹을 거 하고.)
102002 @ 음.(음.)
102002 #1 경허멍 그 미깡 타고 경헷수다게. 경허당 보난 다 병신 뒈연.(그렇게 하면서 그 감귤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병신 돼서.)
102004 @ 음, 알아수다. 삼춘 그 어린 때는.(음, 알았습니다. 삼촌 그 어린 때는.)
102004 #1 예.(예.)
102004 @ 게도 막 놀레도 뎅겨실 거 아니라예?(그래도 막 놀러도 다녔을 거 아닙니까?)
102004 #1 아이고, 놀레 일등으로 잘 뎅겻수다게.(아이고, 놀러 일등으로 잘 다녔

59) '부지데기다'는 부닥치다는 의미다.
60)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습니다.)
102004 @ 어떤 놀, 강 놀레 가민 무신 놀이 허멍 놀앗수가?(어떤 놀, 가서 놀러 가면 무슨 놀이 하면서 놀았습니까?)
102004 #1 옛날은 화토 치고.(옛날은 화투 치고.)
102004 @ 으.(으.)
102004 #1 화토 치곡 또 큰일 칩인 가민 ᄃᆞ시 노래 불르곡.(화투 치고 또 큰일 집에 가면 다시 노래 부르고.)
102004 @ 으.(으.)
102004 #1 저, 누게 불르라, 누게 불르라 허영 노레 불르곡.(저, 누구 불러라, 누구 불러라 해서 노래 부르고.)
102004 @ 음.(음.)
102004 #1 이 잔치집의 가면은.(이 잔치집에 가면은.)
102004 @ 음.(음.)
102004 #1 잔치집의 가민 옛날이사 오죽 놀앗수가? 잔칫집의 가민 ᄆᆞᆫ딱덜 모여 앚아근에 방이 ᄁᆞ뜩허게 앚아근엥에 ᄆᆞᆫ 노래 불르멍 놀앗수게게.(잔칫집에 가면 옛날에야 오죽 놀았습니까? 잔칫집에 가면 모두들 모여앉아서 방이 가득하게 앉아서 모두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102004 @ 음, 그땐 어떤 노래덜 불러마씨?(음, 그땐 어떤 노래들 불렀습니까?)
102004 #1 어떤 노래 뭐. 저 무시 거 뭐 엿날 노래난에 이제, 이제 유행가가 아니고.(어떤 노래 뭐. 저 무슨 거 뭐 옛날 노래니까 이제, 이제 유행가가 아니고.)
102004 @ 음.(음.)
102004 #1 추는 그런 옛날 노래 그자 춤 노래 불럿수다게.(추는 그런 옛날 노래 그저 춤 노래 불렀습니다.)
102004 @ 음.(음.)
102004 #1 그 엿날이난, 엿날이난 그런 노랠 잔치집읜 가민 불르곡, 경 아녀민 또 진똘이 알아집니까? 진또리[61].(그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그런 노랠 잔칫집에 가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진또리 알아집니까? 진또리.)
102004 @ 아니, 몰릅니다.(아니, 모릅니다.)
102004 #1 진또리 몰라마씸? 그 저 진또리엔 헌 건 잘 ᄃᆞᆫ는 사름은 일등 허는 거.('진또리' 몰라요? 그 저 '진또리'라고 한 건 잘 달리는 사람은 일등 하는 거.)
102004 @ 으.(으.)
102004 #1 게민 학교, 학교 마당 강 돌앙은에게 오는 거 그 진또리 그거, 그거 주로 그거 헷수다. 그런 거.(그러면 학교, 학교 마당 가서 돌아서 오는 거 그 '진또리' 그거, 그거 주로 그거 했습니다. 그런 거.)
102004 @ 아, 진또리?(아, '진또리'?)

61) '진또리'는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 시작!'의 구령에 맞춰 출발하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말한다.

102004 #1 예, 진또리.(예, '진또리'.)
102004 @ 빨리 달려왕은에 오는 거를 진또리엔 헤예? 예.(빨리 달려와서 오는 거를 '진똘이'라고 해요? 예.)
102004 #1 예, 진또리 허곡 그자 막을락[62]허고.(예, '진또리' 하고 그저 '막을락' 하고.)
102004 @ 막을락?(막을락?)
102004 #1 막을락.(막을락.)
102004 @ 음.(음.)
102004 #1 이거 영 허영 질 영영 긋어근엥에 일로 이건 이짝허곡 저건 저짝허곡 헤근에.(이거 이렇게 해서 길 이렇게이렇게 그어서 이리로 이건 이쪽하고 저건 저쪽하고 해서.)
102004 @ 으.(으.)
102004 #1 이제 이레 들어오민, 들어오민 지는 거난 들어오지 못허게. 일로 막곡 일로 막곡 허멍.(이제 이리 들어오면, 들어오면 지는 거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이리로 막고 이리로 막고 하면서.)
102004 @ 음.(음.)
102004 #1 그치룩 헌 거 그런 거 허멍 놀앗수다게.(그처럼 한 거 그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102004 @ 막을락허고?('막을락' 하고.)
102004 #1 막을락허고 진또리 허고.('막을락' 하고 '진또리' 하고.)
102004 @ 진또리허곡.('진또리'하고.)
102004 #1 화토 치고.(화투 치고.)
102004 @ 으.(으.)
102004 #1 그자 그런 거마씸게.(그저 그런 겁니다.)
102004 @ 게믄 어렷을 때 막 공기영 고무줄이영 이런 건 안 헤연마씨?(그러면 어렸을 때 막 공기랑 고무줄이랑 이런 건 안 했어요?)
102004 #1 그거 허연마씸게.(그거 했어요.)
102004 @ 예.(예.)
102004 #1 그거 드러 허연.(그거 들이 했어.)
102004 @ 으.(으.)
102004 #1 고무줄도 문딱 허곡.(고무줄도 몽땅 하고.)
102004 @ 음.(음.)
102004 #1 뚜씨 사까다리[63].(다시 물구나무서기.)
102004 @ 예,(예.)

62) '막을락'은 양쪽에 선을 긋고 경계선을 정한 다음, 경계선에 서로 손에 손을 잡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경계선을 넘는 놀이를 말한다.
63) '사까다리'는 일본어 '사까다찌(さかだち)'를 말하는데 그 발음을 사까다리라고 말한 것이다. 표준어로 '물구나무서기'에 대응한다.

102004 #1 사까다리 알아집니까?(물구나무서기 알아집니까?)
102004 @ 예, 꺼꿀로 헤영 허는 거?(예, 거꾸로 해서 하는 거?)
102004 #1 영 허영 저 줄 넘는 거.(이렇게 해서 저 줄 넘는 거.)
102004 @ 으.(으.)
102004 #1 줄. 발로 줄 넘는 거.(줄. 발로 줄 넘는 거.)
102004 @ 발로 줄 넘는 거.(발로 줄 넘는 거)
102004 #1 그거 믄딱 그거 허멍 놀앗수다게.(그거 몽땅 그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102004 @ 예.(예.)
102004 #1 그런 거나벳긔. 옛날은 텔레비전이 시카.(그런 거나밖에. 옛날은 텔레비전이 있을까.)
102004 @ 음.(음.)
102004 #1 저 매날 츠냑 놀레 강은에 허곡. 어무니는 뚜시 저 옛날은 그 미녕, 미녕.(저 맨날 저녁 놀러 가서 하고. 어머니는 다시 저 옛날은 그 무명, 무명.)
102004 @ 음.(음.)
102004 #1 그 저 멘네게 목화솜 헤근엥에 미녕 허민 그거 꼬리 감으렌 허민 거 감음이랑마랑 놀레 돌아나부렁.(그 저 면화 목화솜 해서 무명 하면 그거 꼬리 감으라고 하면 거 감기는커녕 놀러 달아나버려.)
102004 @ (웃음.)
102004 #1 막 욕도 먹곡마씸게.(막 욕도 먹고요.)
102004 @ 예에.(예예.)
102004 #1 어머니 저 무신 거. 날ᄀᆞ라 산데물[64]ᄀᆞ찌, 산데물ᄀᆞ찌 놀레만 감쩬. 웃음.(어머니 저 무슨 거. 날보고 '산데물'같이, '산데물'같이 놀러만 간다고. 웃음.)
102004 @ 산데물은 뭐우꽈? 삼춘.('산데물'은 뭡니까? 삼촌.)
102004 #1 산데물은 키가 커두서 놀레만 돌아남쩬.('산데물'은 키가 커가지고는 놀러만 달아난다고.)
102004 @ 으으.(으으.)
102004 #1 어머니가 곧는 말이.(어머니가 말하는 말이.)
102004 @ 으.(으.)
102004 #1 돗통에 난 도라지ᄀᆞ찌, 저 돗통에 난 저 대우리ᄀᆞ찌.(돼지우리에 난 도라지같이, 저 돼지우리에 난 저 귀리같이.)
102004 @ 음.(음.)
102004 #1 돗통에 난 저 대우리ᄀᆞ찌 키만 커근엥에 놀레만 돌아남쩬.(돼지우리에 난 저 귀리같이 키만 커서 놀러만 달아난다고.)
102004 @ 돗통에도 게난 대우리가 나마씨?(돼지우리에도 그러니까 귀리가 납니까?)
102004 #1 돗통에게 엿날은게 씨가 많으니까.(돼지우리에 옛날은 씨가 많으니까.)

64) '산데물'은 키가 큰 사람을 큰 말에 비유해서 쓴 말이다.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씨가 많으니까 옆으로 날 수도 잇어마씨.(씨가 많으니까 옆으로 날 수도 있어요.)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어머니 얘기가 경.(어머니 얘기가 그렇게.)
102004 @ 어.(어.)
102004 #1 나신디 그치룩 경 저 일만 일만 허곡 밤읜 놀레 돋곡.(나에게 그처럼 그렇게 저 일만 일만 하고 밤에는 놀러 달리고.)
102004 @ 어어. 밤의 놀레 돋곡.(어어. 밤에 놀러 달리고.)
102004 #1 아픈 중을 몰랏수다게. 아픈 중을 몰라서.(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아픈 줄을 몰랐어요.)
102004 @ 음.(음.)
102004 #1 경허멍 드러 돌아뎅견.(그렇게 하며 들이 돌아다녔어.)
102004 @ 경허곡 그 옛날 일제시대.(그리고 그 옛날 일제강점기 때.)
102004 #1 예.(예.)
102005 @ 여기도 막 공출도 헤신가마씨?(여기도 막 공출도 했었습니까?)
102005 #1 아이고, 일본 일제시대에?(아이고, 일본 일제강점기 때에?)
102005 @ 예.(예.)
102005 #1 공출은게 저 무시거게 그 이장, 이장 놓곡 또 저 반장 놔근엥에 저 계란덜 다 이제 계란덜.(공출은 저 무엇 그 이장, 이장 놓고 또 저 반장 놔서 저 달걀들 다 이제 달걀들.)
102005 @ 음.(음.)
102005 #1 다망고[65].(달걀.)
102005 @ 음.(음.)
102005 #1 다망고옌 헙니다. 일본말로.(다망고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102005 @ 일본말로 으.(일본말로 으.)
102005 #1 다망고 문딱 공출허렌 허영은에 그거 저 다망고 문딱 모여근에 집집마다 옛날은 그 저 토종듹덜 다 질루지 아녓수가. 집에.(달걀 몽땅 공출하라고 해서 그거 저 달걀 몽땅 모아서 집집마다 옛날은 그 저 토종닭들 다 기르지 않았습니까. 집에.)
102005 @ 예.(예.)
102005 #1 토종듹을 질루난 그거 다망고 문딱 모영당 자기네 먹고. 따시 제청국.(토종닭을 기르니까 그거 달걀 모두 모아다가 자기네 먹고. 다시 제충국.)
102005 @ 으.(으.)
102005 #1 제청국 알아집니까? 제청국.(제충국 알아집니까? 제충국.)
102005 @ 예, 꼿피는 거?(예, 꽃피는 거?)

65) '다망고'는 일본어 'けいらん'를 말하며 우리말 달걀을 말한다.

102005 #1 제청국 우리도 만히 갈아낫수다.(제충국 우리도 많이 갈았었습니다.)
102005 @ 아.(아.)
102005 #1 농장이 하난 그거 제청국 갈앙 그거 문딱 저 문 질에 첨 문 모이렌 허영 ᄀᆞ져오렌 헤영 다 받아갑디다게.(농장이 많으니까 그거 제충국 갈아서 그거 모두 저 모두 길에 참 모두 모으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다 받아갑디다.)
102005 @ 음.(음.)
102005 #1 경허멍 저 아이고, 일제시대 압주게. 알당도 버치곡게.(그렇게 하면서 저 아이고, 일제강점기 압지요. 알다가도 부치지.)
102005 @ 음.(음.)
102005 #1 우리 견디 호달매 타곡 헹은에 뎅이곡양.(우리 그런데 호마 타고 해서 다니고요.)
102005 @ 음.(음.)
102005 #1 막 ᄉᆞ뭇 오라근엥에 문 무신거 자기네 먹지 기룬 건 다 문딱 저 문 거두와들이렌 다 가져오렌 헤근엥에 다 먹곡 경헌 거 다 알아집니다게.(막 사뭇 와서는 모두 무엇 자기네 먹고 싶은 건 다 모두 저 모두 거둬들이라고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 먹고 그렇게 한 거 다 알아집니다.)
102005 @ 그 뭐 놋그릇 같은 것도 다 가져간마씨?(그 뭐 놋그릇 같은 것도 다 가져갔습니까?)
102005 #1 놋그릇은 놋그릇 놋그릇은 가져가긴 가져가십주.(놋그릇은 놋그릇 놋그릇은 가져가긴 가져갔습지요.)
102005 @ 예.(예.)
102005 #1 자기네 먹을 거산디 가져갓수다. 가져갓수다.(자기네 먹을 거였는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102005 @ 그런 식으로 이제. 공출헤부난 막 베고프고 영허지는 안 헷수가?(그런 식으로 이제. 공출해버려서 막 배고프고 이러지는 안 했습니까?)
102005 #1 아니, 우리는 저 너무 농장이 많으니까.(아니, 우리는 저 너무 농장이 많으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베고판은 안 살앗수다.(배고프게는 안 살았습니다.)
102005 @ 아, 삼춘네는?(아, 삼촌네는?)
102005 #1 우리는 저 농장이 하 놓난 옛날 돈 날 것이 엇엇주.(우리는 저 농장이 많아 놓으니까 옛날 돈 날 것이 없었지.)
102005 @ 음.(음.)
102005 #1 그 농장이게 흔 십오일 아버지가 밧을 갈아사 다 가니까.(그 농장이 한 십오일 아버지가 밭을 갈아야 다 가니까.)
102005 @ 음.(음.)
102005 #1 농장이 많으니까 베고파보진 아녓수다.(농장이 많으니까 배고파보진

않았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베고파보진 아녀고 다 보리밥은.(배고파보진 않고 다 보리밥은.)
102005 @ 음.(음.)
102005 #1 게난 씨집오랑도 저 막 아기덜ᄒᆞ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그러니 시집와서도 저 막 아기들보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102005 @ 음.(음.)
102005 #1 무쭈건 그자 먹으라 먹으라 허민 우리 집의 저 아저씬. 이 뒤칩인 요딘 영 못살아근에 여자가 막 간세허곡 못살앙 허민게 장, 장에 밥, 장에 밥 경 드러그치룩 허여낫수다게.(무조건 그저 먹어라 먹어라 하면 우리 집에 저 아저씬. 이 뒷집은 요긴 이렇게 못살아서 여자가 막 게으르고 못살아서 하면 장, 장에 밥, 장에 밥 그렇게 들이 그처럼 했었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경허난 우리 집의 아저씨 허는 말은, 앞집인 먹으라, 먹으라. 마당에 뎅이멍.(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아저씨 하는 말은, 앞집엔 먹어라, 먹어라. 마당에 다니면서.)
102005 @ 음.(음.)
102005 #1 앞집인 먹으라, 먹으라. 뒤칩인 먹지 말라, 먹지 말라.(앞집엔 먹어라, 먹어라. 뒷집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102005 @ 웃음.(웃음.)
102005 #1 우리 아저씨가 드러 경 ᄀᆞᆯ아마씨, 경 ᄀᆞᆯ아.(우리 아저씨가 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
102005 @ 으.(으.)
102005 #1 경 ᄀᆞᆯ으멍 살앗수다게.(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게난 뭐 보리밥이나 뭐 굶진 아녓수다게.(그러니 뭐 보리밥이나 뭐 굶진 않았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게난 저 뭐 나중에 이제 살아가난 그 노대통령[66], 그 대통령 헷지양?(그러니까 저 뭐 나중에 이제 살아가니까 그 노대통령, 그 대통령 했지요?)
102005 @ 예.(예.)
102005 #1 노 대통령 대통령헐 때 그 당시에 우리 집의 아저씨가 이장 헷수다게.(노 대통령 대통령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집의 아저씨가 이장 했습니다.)
102005 @ 으.(으.)
102005 #1 이장을 허난 알량미 막 줘나지 아녓수가?(이장을 하니까 안남미 막 줬었지 않았습니까?)

66) 여기서 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

102005 @ 음.(음.)
102005 #1 알량미 먹어납디가?(안남미 먹었었습니까?)
102005 @ 음.(음.)
102005 #1 견디 알량미가양 너미 많이 나온 거라마씸게. 나오난 우리 안 먹엇수다게. 그거를. 우린 안 먹언에 풀아불언 안 먹엇수다.(그런데 안남미가요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우리 안 먹었습니다. 그거를. 우린 안 먹어서 팔아버려 안 먹었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우린 저 밥 곶인 거는 아주 원 먹기가 싫어가지고.(우린 저 밥 곶은 거는 아주 원 먹기가 싫어가지고.)
102005 @ 음.(음.)
102005 #1 알량미 쏠 혼 집의 혼 두 개썩 나와낫수다.(안남미 쌀 한 집에 한 두 개씩 나왔었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나오난, 우린 풀아불언 안 먹엇수다게.(나오니까, 우린 팔아버려서 안 먹었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이 집에 막 데면.(이 집에 막 쟁여서.)
102005 @ 음.(음.)
102005 #1 집의 ᄋᆞ지단 막 데면에 허여 놓난에 풀안 안 먹엇수다. 안 먹언. 게난 그 저 싫어허영 밥.(집에 가져다가 막 쟁여서 해 놓으니까 팔아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 저 싫어해서 밥.)
102005 @ 밥맛이 엇엉양?(밥맛이 없어서요?)
102005 #1 나부떠 싫어허영양.(나부터 싫어해서요.)
102005 @ 음.(음.)
102005 #1 아저씨는 어떤 때는 어떵 미안헤벼근엥에 아이고, 무신거 반찬 엇수다, 허민. 경 매번 반찬 출려줘. 어디 요디 프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거라도 먹을 때도 잇어야주.(아저씨는 어떤 때는 어떻게 미안해보였는지 아이고, 무슨거 반찬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매번 반찬 차려져. 어디 요기 파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거라도 먹을 때도 있어야지.)
102005 @ 음.(음.)
102005 #1 경허멍 헙니다게.(그렇게 합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독허긴 허여도 그 음식에는 타발 안 헷수다게.(독하긴 해도 그 음식에는 타박 안 했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음식엔 타발 아년. 예, 타발 아녓수다.(음식엔 타박 않아. 예, 타박 않

았습니다.)
102006 @ 그러면은 그 사삼사건 때는 어떵 헨마씨?(그러면은 그 사삼사건 때는 어떻게 했나요?)
102006 #1 사삼사건 때는 이건 헐 말이 엇수다. 우리는양.(사삼사건 때는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는 저 도리못[67] 살아낫수다게.(우리는 저 '도리못' 살았었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도리못 알아지쿠과? 이보단 ᄒᆞ쏠 끈어진 디.('도리못' 알아지겠습니까? 이보단 조금 끊어진 데.)
102006 @ 예.(예.)
102006 #1 ᄒᆞᆫ ᄒᆞᆫ 삼백 메다 ᄒᆞᆫ 오벡 메다로 ᄒᆞᆫ ᄉᆞ벡 메다로 끈어진 그 동네가 잇어마씸.(한 한 삼백 미터 한 오백 미터로 한 사백 미터로 끊어진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5 #1 어딜로 옵디가? 우로 왓수가?(어디로 옵디까? 위로 왔습니까?)
102006 @ 들어온 입구, 동부락[68] 위 골목으로 완.(들어온 입구, '동부락' 위 골목으로 왔어요.)
102006 #1 아니 이 바로 우에. 이 바로 우에.(아니 이 바로 위에. 이 바로 위에.)
102006 @ 바로 우에.(바로 위에.)
102006 #1 바로 우에 ᄒᆞᆫ 사십 메다 짤라져낫수다. 그디 살아낫수다.(바로 위에 한 사십 미터 잘라졌었습니다. 거기 살았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그디 사난. 양, 이디 영허여근에 엿날은 담요벳긔 엇엇수다게. 겨민 방 하나에 담요 영 치는 거라마씨.(거기 사니까.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옛날은 담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 하나에 담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담요 치면은 나오랑 보면은 저 우틔레 보면은 그 산에양 봉활 비추와마씸게.(담요 치면 나와서 보면 저 위쪽으로 보면 그 산에요 봉활 비춥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봉활 비추민 아이고, 이 저냑은 폭도덜 들어오람직허다. 경헤근에 봉활 비추민 폭도 들어왐직허다 헹 담요 다 치곡 다 곱곡마씸게. 곱곡 허는디. 따시 나중에라 가난양 곱을 디도 엇어가난 우리가 내려왓수다게.(봉활 비추면 아이고, 이 저녁은 폭도들 들어옴직하다. 그렇게 해서 봉활 비추면 폭도 들어옴직하다 해서 담요 다 치고 다 숨고요. 숨고 하는데. 다시 나중에 가가니까 숨을 데도 없어가니까

67) '도리못'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의 덕수리 상동을 말한다.
68) '동부락'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 어머니 ᄉᆞ춘네 집이 내려와신디. 양, 불을 다 부쪄분 거라마씸. 집에.(우리 어머니 사촌네 집에 내려왔는데. 예, 불을 다 붙여버린 겁니다. 집에.)
102006 @ 음.(음.)
102006 #1 게난 옛날은 산듸벳긔 엇어근엥에 나록은 알러레사 허여산디 모른디 우리는 산듸허연에.(그러니까 옛날은 밭벼밖에 없어서 벼는 아래에야 했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밭벼해서.)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저 불부찔 중은 몰르곡 우리 어머니넨 그 저 ᄀᆞ스락 그 ᄀᆞ스락 소곱에.(그 저 불붙일 줄은 모르고 우리 어머니네는 그 저 까끄라기 그 까끄라기 속에.)
102006 @ 음.(음.)
102006 #1 ᄀᆞ스락 소곱에 산듸 저 ᄉᆞᆯ ᄆᆞᆫ딱 그 방에 영 헤여근에 져근에 어디게 공장이 잇어낫수가게. 공장이 엇으난에. 그 방에 저 소 메와근에 방에 졍 막 능거근엥에 그 ᄉᆞᆯ을 ᄀᆞ스락 ᄀᆞ스락 소곱에 묻은 거라마씨.(까끄라기 속에 밭벼 저 쌀 모두 그 방아 이렇게 해서 찧어서 어디 공장이 있었습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그 방아 찧어서 소 매어서 방아 찧어서 막 쓿어서 그 쌀을 까끄라기 까끄라기 속에 묻은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묻고 ᄯᅮ시 옛날은 솔 많이 질루난.(묻고 다시 옛날은 솔 많이 기르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아버지, 우리 아버지네가 ᄆᆞᆯ, ᄆᆞᆯ은 산에 놓곡 소는 ᄒᆞᆫ, ᄒᆞᆫ 대ᄋᆞ섯 개썩 질룹디다게.(아버지, 우리 아버지네가 말, 말은 산에 놓고 소는 한, 한 대여섯 개씩 기릅디다.)
102006 @ 음.(음.)
102006 #1 질루난 촐눌이 멧 개라마씨. 촐눌 그 촐눌 빠난 디 그 옷덜 애기덜 옷덜양.(기르니까 꼴가리가 몇 개입니다. 꼴가리 그 꼴가리 뽑았던 데 그 옷들 아기들 옷들이요.)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가 다섯 오누이난에 촐눌 소곱에 옷덜토 ᄆᆞᆫ딱 저 ᄆᆞᆫ딱 간에 묻은 거라마씨.(우리가 다섯 오누이니까 꼴가리 속에 옷들도 모두 저 모두 가서 묻은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묻언 놔두난 촐눌이고 뭣이고 문짝 다 부쪄불언.(묻어서 놔두니까 꼴가리고 뭣이고 문짝 다 붙여버렸어.)

102006 @ 음.(음.)
102006 #1 완전 다. 우린 내려와 불고.(완전 다. 우린 내려와 버리고.)
102006 @ 음.(음.)
102006 #1 다 불 부쪄부난, 이젠 또 아부진 우의 싯고 아부지는 젊어 놓니까.(다 불 붙여버리니까, 이젠 또 아버진 위에 있고 아버지는 젊어 놓으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저 순경 식으로 이제 저 순경 식으로게 영 저 포제 포젯단[69] 영 저 성을 이렇게 둘렁.(그 저 순경 식으로 이제 저 순경 식으로 이렇게 저 '포제 포젯단' 이렇게 저 성을 이렇게 둘러서.)
102006 @ 음.(음.)
102006 #1 성을 이만이 헤근에 이만이 넙어.(성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넓어.)
102006 @ 음.(음.)
102006 #1 그거를 막 싼에양, 이 동네를 다 싸근엥게 허민 그 저 포젯단 흔 멧 메다에 하나썩 포젯단 알아지쿠과?(그거를 막 쌓아서요, 이 동네를 다 쌓아서 하면 그 저 '포젯단' 한 몇 미터에 하나씩 '포젯단' 알아지겠습니까?)
102006 @2 예.(예.)
102006 #1 저 집을 짓어근엥에 그 밤에 그디 저 허민 그날, 그날 그 번호[70].(저 집을 지어서 그 밤에 거기 저 하면 그날, 그날 그 번호.)
102006 @ 음.(음.)
102006 #1 그 그 번호를 크게 들어집니다. 기냥 앚앙도 들을 수 잇게 이제 그날 츠냑 무시거 허민 저레 다 연결이 뒈는 거라마씨. 연결이 뒈여근엥에 무시 거 무시거 허영은에 그 저 그 번호 모른 사름은 폭도라마씸게.(그 그 번호를 크게 들어집니다. 그냥 앉아도 들을 수 있게 이제 그날 저녁 무엇 하면 저리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서 무엇 무엇 해서 그 저 그 번호 모른 사람은 폭도라고 합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여근엥에 허여신디 문딱 테와부난 우리 내려왓수다게. 내려오고. 나 아옵 설에 내려왓수다.(그렇게 해서 했는데 모두 태워버리니까 우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 아홉 살에 내려왔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아옵 설에. 아옵 설에 내려와신디 문딱 집 완 불부쪄부난 뭐 먹을 것도 그땐 엇, 오꼿 불부쪄부난 엇고.(아홉 살에. 아홉 살에 내려왔는데 모두 집에 와서 불붙여버리니까 뭐 먹을 것도 그땐 엇, 그만 불붙여버리니까 없고.)
102006 @ 음.(음.)
102006 #1 양, 쏠은 문딱 타부난에 저 그 속에 것만 헨에 밥헹 먹으난 내음살 납

69) '포제 포젯단'은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 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마을을 지키는 파수들이 보초를 서는 파수막을 말한다.
70) 여기서 '번호'는 암호를 말한다.

디다.(이보세요, 쌀은 모두 타버리니까 저 그 속에 것만 해서 밥해서 먹으니까 냄새 납디다.)
102006 @2 그끄렁내 나지예?(화독내 나지요?)
102006 #1 예, 그끄렁내 막 난에 허연에 그때 ᄒᆞ쏠 저 엇어나수다게.(예, 화독내 막 나서 해서 그때 조금 저 없었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도 쏠 테와부난에. 문딱 묻엉 놔둔 거 다 테와부난에. 경헨에 속에 거 판에 먹단에 어떵허연에 농사젼에 먹고 헤신디양, 그때는 너무 고셍헷수다, 우리. 그자양 집 문딱 테와부난게 집이 엇어 놓난에 어떵 말이우꽈게. 집이 엇어노난에. 요 저 ᄉᆞ무실 동녁 집 저 서녁 밧.(우리도 쌀 태워버려서. 모두 묻어서 놔둔 거 다 태워버려서. 그렇게 해서 속에 거 파내서 먹다가 어떡하다가 농사져서 먹고 했는데요, 그때는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그저요 집 모두 태워버리니까 집이 없어놓으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집이 없어 놓으니까. 요 저 사무실 동녘 집 저 서녘 밭.)
102006 @ 음.(음.)
102006 #1 서녁 밧을 하나 산거라마씨.(서녘 밭을 하나 산겁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하나 산에 그디 집을 짓언.(하나 사서 거기 집을 지었어.)
102006 @ 음.(음.)
102006 #1 집을 짓언 저 궨당네 집의 완에 처음에는 궨당네 집의 저 이제 요디 삼커림 저 동녁, 동녁 집이.(집을 지어서 저 권당네 집에 완서 처음에는 권당네 집에 저 이제 요기 삼거리 저 동녘, 동녘 집에.)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저 가까운 궨당 식구가 엇언마씸게 거기는.(그 저 가까운 권당 식구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102006 @ 음.(음.)
102006 #1 저 일본 간. 아덜은 하난 일본 가불고 족은아덜 하나 살앙근엥에 허여신디 식구가 엇입디다게. 젊은 때난. 식구가 엇어근에 결혼은 헤신디 엇으난 우리가 그디 밧거리 살앗수다게. 살단 보난에 또 폭도가 또 든 거라.(저 일본 갔어. 아들은 하난 일본 가버리고 작은아들 하나 살아서 했는데 식구가 없습디다. 젊은 때니까. 식구가 없어서 결혼은 했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바깥채 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또 폭도가 또 든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집의도 또 들언 허난 불 문딱 끼우곡 문 불부쪄부난. 불 문. 아버지가 막 신체도 좋고.(그 집에도 또 들어서 하니까 불 모두 끄고 모두 불붙여버리니까. 불 모두. 아버지가 막 신체도 좋고.)
102006 @ 음.(음.)

102006 #1 막 저 무시거 키도 크고 헤 놓난 웬만헌 건 다 이겨마씸게.(막 저 무슨 키도 크고 해 놓으니까 웬만한 건 다 이겨요.)
102006 @ 음.(음.)
102006 #1 어디 강 씨름을 헤도 다 이기곡 경허난 아버지가 다 불 끼완에 우리도 살앗수다게. 살안 허여신디 너무 너무 지나쳥마씸게. 너무 지나쳔.(어디 가서 씨름을 해도 다 이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다 불 끄고 우리도 살았습니다. 살아서 했는데 너무 너무 지나쳤습니다. 너무 지나쳤어.)
102006 @ 음.(음.)
102006 #1 너무 지나쳥 아이고, 폭도덜 진짜양, 겐디 덕수 사름덜토 폭도로 올라가근엥에 그 왓사, 왓사 불르는 사름덜은 다 읏망진 사름이라마씨.(너무 지나쳐서 아이고, 폭도들 진짜요, 그런데 덕수 사람들도 폭도로 올라가서 그 왓사, 왓사 부르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이 저, 우리 나 양씨우다. 양씬디. ○○○이마씸게. ○○○이가 성은 ○○○이는 성은 일본 가불고 저 자식도 그땐 저 젊은 때난 엇습디다게. 엇어신디 그 와싸부대[71]에 든 거라마씸.(이 저, 우리 나 양씨입니다. 양씬데. ○○○이요. ○○○이가 형은 ○○○이는 형은 일본 가버리고 저 자식도 그땐 저 젊은 때난 없습디다. 없었는데 그 '와싸부대'에 든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와싸부대에 들언에 문딱 누게 누게 다 알아집니다.('와싸부대'에 들어서 모두 누가 누가 다 알아집니다.)
102006 @ 음.(저.)
102006 #1 저 와싸부대에 들어근엥에 이제 저쪽인 거. 저쪽에서 죽엇다. 이 사름은 죽엇는데 웨 돈을 주냐, 나 속으로만 생각허는 겁주게.(저 '와싸부대'에 들어서 이제 저쪽인 거. 저쪽에서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는데 왜 돈을 주냐,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지요.)
102006 @ 음.(음.)
102006 #1 저 사름들은 나쁜 사름덜 저 사름덜은 안 줘야 뒈는디 다 지금 이제 뭐, 뭐 유가족으로 헤여근엥에 다 허는 거 보면은 이 사름은 이제 안 줄 사름이 줌다. 나 생각으로만 허는 거마씸게.(저 사람들은 나쁜 사름들 저 사람들은 안 줘야 되는데 다 지금 이제 뭐, 뭐 유가족으로 해서 다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안 줄 사람이 준다.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그거 뭐 저 놈신디레 곧곡, 아니 저 이웃집의 그 가까운 사름신디 골아집니다게.(그거 뭐 저 남에게 말하고, 아니 저 이웃집의 그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

71) '왓싸부대'는 제주 4·3당시 산사람들을 말하는데, 제주에서는 시위를 하 때 "왓샤! 왓샤!"하며 소리쳤다고 한다. 그래서 '왓사부대'라고 한 듯하다.

집니다.)
102006 @음.(음.)
102006 #1 저 누게 누겐양 저 이제 일름 골으멍 나가 저 와싸부대에 들엉은엥에 저 저짝으로 이제 허여신디 그치룩 저 돈 주곡 돈 타곡 경 허지 아녈 사름덜이 경 허염수덴. 경 골아집니다게.(저 누누 누구는요 저 이제 이름 말하면서 내가 저 '와싸부대'에 들어서 저 저쪽으로 이제 했는데 그처럼 저 돈 주고 돈 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곡 따시 혼 사름은 막 저 무시거 일름 오꼿 잘못 오꼿 호명혜부난에 아무 줴도 엇은 사름 죽엇수다게.(그렇게 하고 다시 한 사람은 막 저 무엇 이름 그만 잘못 그만 호명해버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죽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겨난 것도 알아지곡. 그런 거 문딱 알아져마씸게. 겨난 너무 고셍허게 살단도 돌아간 사름이 막 하마씸게.(그러니 것도 알아지고. 그런 거 모두 알아집니다. 그러니 너무 고생하며 살다가도 돌아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102006 @ 으.(으.)
102006 #1 겨난 읏망진 사름은 다 그쪽이라마씨. 이 덕수도. 읏망진 사름은.(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다 그쪽입니다. 이 덕수도. 똑똑한 사람은.)
102006 @ 읏망진 사름덜.(똑똑한 사람들.)
102006 #1 뭐 ○○○네. 뭐 저 누게네 일름덜 다 알아집니다게. ○○○네 문딱 읏망진 사름덜. 이 저 우리 저 ○○○이도게 막 똑똑헙니다게. 읏망지곡 그런 사름덜이 다 그런 부대에, 이 저 누게 ○○이, ○○○이네 문딱 그런 사름덜이 겨난 요집읫 오라방이우다마는 끗딱 안 골읍니다.(뭐 ○○○네. 뭐 저 누구네 이름들 다 알아집니다. ○○○네 모두 똑똑한 사람들. 이 저 우리 저 ○○○이도 막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대에, 이 저 누게 ○○이, ○○○이네 모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집의 오라버니입니다마는 까딱 안 말합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가 다 아난에.(우리가 다 아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그런 말 하나도 안 골아. 오라방, 오라방네 문딱 죽어불엇수다게.(그런 말 하나도 안 말해. 오라버니, 오라버니네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문딱 죽언 하나도 그디도 다섯 성젠디 다 죽언. 다 죽언. 아판도 죽고. 그치룩 헨에 왓싸 부대엔 들언에 이제 그 저 하나 ○○○인 키도 크고 얼굴도 잘 나고 혜신디게 그디 들어부난에 그 총으로, 총으로 마촨 죽엇수다.(모두 죽어서 하나도 거기도 다섯 형젠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파서도 죽고. 그처럼 해서 '왓싸' 부대라고 들어서 이제 그 저 하나 ○○○인 키도 크고 얼굴도 잘 나고 했는데 거기

들어버려서 그 총으로, 총으로 맞고 죽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저 알오름[72] 간에.(저 '알오름' 가서.)
102006 @ 음.(음.)
102006 #1 죽여 불언. 겨난 그런 사름덜은 ᄁᆞ닥 안 ᄀᆞᆯ읍니다. 무슨 말 어염에 사름이라도.(죽여 버렸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까딱 안 말합니다. 무슨 말 옆의 사람이이라도.)
102006 @ 음.(음.)
102006 #1 안 ᄀᆞᆯ아. 게난 불쌍허게 허게 죽은 사름도 다 알아지곡양, 다 알아집니다게. 너무 너무양 사는 게 춤 이 저 그냥 부대로 와마씨. 이 저 올 때는.(안 말해. 그러니 불쌍하게 하게 죽은 사람도 다 알아지고요, 다 알아집니다. 너무 너무요 사는 게 참 이 저 그냥 부대로 옵니다. 이 저 올 때는.)
102006 @ 음.(음.)
102006 #1 횃불 앞의 앞의는 훳불 들르고.(횃불 앞에 앞에는 훳불 들고.)
102006 @ 음.(음.)
102006 #1 그냥 부대로 내려와 가지고 소 그 저 쉐, 쉐막에 엿날은 쉐막, 쉐막잇지 아녀우꽈? 쉐막에 소 내쳐근엥에 그것에 그 양석 문딱 싸근엥에 훳불 들렁 올라가마씸게.(그냥 부대로 내려와 가지고 소 그 저 소, 외양간에 옛날은 외양간, 외양간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 내쳐서 그것에 그 양식 모두 싸서 횃불 들어서 올라갑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올라가민 다 곱앙 베림벳긘 ᄒᆞᆯ 수가 엇인 거 아니우꽈?(올라가면 다 숨어서 볼 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 곱앙 베림만 헷수다게. 경 훳불 들렁 경 ᄀᆞ경. 자기네 먹을 거 다 소도 강 문딱 잡아먹곡.(우리 숨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횃불 들어서 그렇게 가져서. 자기네 먹을 거 다 소도 가서 모두 잡아먹고.)
102006 @ 음.(음.)
102006 #1 게난 우리 아버지네도 그 저 ᄆᆞᆯ을, ᄆᆞᆯ을 ᄒᆞᆫ 오십 개썩 허영 산에 놩 질루난 하나, 하나 못 몰아와봣수다. 그 당시에는 산에 그 사름덜이 살아 놓난 산에서 다 잡아 먹어불엇수게.(그러니 우리 아버지네도 그 저 말을, 말을 한 오십 마리씩 해서 산에 놓아 기르니까 하나, 하나 못 몰아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에 그 사람들이 살아 놓으니까 산에서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1 게난 하나 못 몰아완양, 저 집의 소나 봣주, 하나 못 몰아와봣수다. 겨난 우리 아버지도 막 저 옛말을 ᄀᆞᆯ아낫수다게. 작산 ᄆᆞᆯ덜 다 하나 손에 잡아보지도

72) '알오름'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6번지에 위치한 '셋알오름'을 말한다.

못허고 다 이제 그 사름네 손에 다 버렷젠 허멍 드러 춤 아버지가 너무 그 소 ᄆᆞᆯ경 많이 키왓수다게.(그러니 하나 못 몰아왔어요, 저 집에 소나 봤지, 하나 못 몰아와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막 저 옛말을 말했었습니다. 많은 말들 다 하나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다 이제 그 사람들 손에 다 버렸다고 하면서 들이 참 아버지가 너무 그 소 말 그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102007 @ 알앗수다. 삼춘 결혼은 중매결혼 헷수과? 연예 결혼 헷수가?(알았습니다. 삼촌 결혼은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예 결혼 했습니까?)

102007 #1 연예, 연예, 연예허연. 연예로 허여신디.(연애, 연애, 연애해서. 연애로 했는데.)

102007 @ 으.(으.)

102007 #1 나는 싫어가지고.(나는 싫어가지고.)

102007 @ 으.(으.)

102007 #1 어리고 허니까 남ᄌᆞ 보면은 남ᄌᆞ를 따라뎅기기가 영 싫엉 허는디 이디 아저씨는 막 반허여근엥에 올레[73] 강 불르곡 뭐. 이디 앞집이도 저 육춘이우다게.(어리고 하니까 남자 보면 남자를 따라다니기가 이렇게 싫어서 하는데 여기 아저씨는 막 반해서 '올레' 가서 부르고 뭐. 여기 앞집도 저 육촌입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앞집의 육춘 육춘인디 나보다 나보다 세 설 우의.(앞집이 육촌 육촌인데 나보다 나보다 세 살 위.)

102007 @ 예.(예.)

102007 #1 정헌디 막 저 나영 혼듸 친구허영은에 춤 세 설 우의라도 그디 갓닥 저디 갓닥 허멍 드러 ᄀᆞ찌 노는 당시에서 그 앞집의 성님이 이제 저 느 이제 결혼허렌.(그랬는데 막 저 나하고 함께 친구해서 참 세 살 위여도 거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들이 같이 노는 당시에서 그 앞집의 형님이 이제 저 너 이제 결혼하라고.)

102007 @ 음.(음.)

102007 #1 저 이제 ○○이 늘 막 좋아허염젠 허먼 허여도 그런 말 ᄀᆞᆫ지도 맙센. 나 이제 아직은 나이도 나양, 동네 결혼허기도 실프곡 남ᄌᆞ. 경헌디양 경허영 막 그치룩 경 날 꼬시단 꼬시단 버친 거라마씸게.(저 이제 ○○이 널 막 좋아한다고 하면서 해도 그런 말 말하지도 마시라고. 내가 이제 아직은 나이도 저요, 동네 결혼하기도 싫고 남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막 그처럼 그렇게 날 꾀다가 꾀다가 부친 겁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ᄁᆞ시단 ᄂᆞ시 버쳔. 어느 날 검질메레 간 보난 ᄀᆞ뜬 밧듸 간마씨게.(꾀다 도저히 부쳐서. 어느 날 김매러 가서 보니까 같은 밭에 간 겁니다.)

102007 @ 응.(응.)

---

73)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을 말한다.

102007 #1 검질메렐 이 알력밧듸 저 알녁집의 그 육춘이난에.(김매러 이 아랫밭에 저 아랫집의 그 육촌이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어머님이영 우리 씨어머님이영 육춘이난 검질매렌 간보난 ᄀᆞ뜬 밧듸 가진 거 아니우과? 게난 그냥 돌아와불언마씨. 집의.(어머님이랑 우리 시어머님이랑 육촌이니까 김매러 가서보니까 같은 밭에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집의 와불언. 와불엇수다게.(집에 와버렸어. 와버렸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와불어신디 허단 허단 버치난양 막 조름에 놀레 간 디 꼭 따라가는 거라마씸게.(와버렸는데 하다가 하다가 부치니까요 막 꽁무니에 놀러 간 데 꼭 따라가는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놀레 가는디 겨곡 우리 아저씨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친구덜.(놀러 가는데 그러고 우리 아저씨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
102007 @ 음.(음.)
102007 #1 친구덜 ᄀᆞ찌 문딱 저 친구덜이 그땐 합디다게.(친구들 같이 모두 저 친구들이 그땐 많습디다.)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막 하근엥에 헤신디 다 흔듸 강은에 어떵허영 흔듸 앚앙 또 화토를 치는 거라마씸게.(매우 많아서 했는데 다 함께 가서 어떻게 해서 함께 앉아서 또 화투를 치는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화토를 치는 게 나는 더 때려부는 거 아니우꽈?(화투를 치는 게 나는 더 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또. 더 막 아프게 더 때려불어. 딴 사름신디보단.(또. 더 막 아프게 더 때려버려. 딴 사람에게보다는.)
102007 @ 음.(음.)
102007 #1 나를 더 때려붑디다게.(나를 더 때려버립디다.)
102007 @ 음.(음.)
102007 #1 경 막 때려불고. 아이고, 벨 장난을 다 헷수다. 게난.(그렇게 막 때려버리고. 아이고, 별 장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어떵헨에 이 앞집의서 놀단에 저 유질 타먹으레 가겐?(어떻게 해서 이 앞집에서 놀다가 저 유자를 타먹으러 가자고?)

102007 @ 음.(음.)
102007 #1 그땐 유지엔 헌 건 엇어나십주게.(그땐 유자라고 한 건 없었습지요.)
102007 @ 예.(예.)
102007 #1 멧 집 엇고 또 감귤도 엇곡 먹을 것이 엇으난에, 누게사 꼬셔신디 어떵사 헤신디 유질 타먹으레 가겐 허난 막 ᄋᆞ라이 놉니다게. 놀아도 흔 ᄋᆞ남은 남자 여자 허영 ᄋᆞ남은 노는디, 여자 놀암 시민 남저덜이 다 가마씸게.(몇 집 없고 또 감귤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야 꾀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유자를 타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막 여럿이 놉디다. 놀아도 한 여남은 남자 여자 해서 여남은 노는데, 여자 놀고 있으면 남자들이 다 갑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다 총각덜이 다 가민게. 어떵 헤연 타 먹으렌 가겐 허멍 헹, 양, 이 집 읠 온 거라마씸게.(다 총각들이 다 가면. 어떻게 해서 따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해서, 예, 이 집에를 온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이 이 집의 뭣도 몰르고 온 거마씨.(이 이 집에 뭣도 모르고 온 겁니다.)
102007 @ 어, 어.(어, 어.)
102007 #1 완에 놀크레긴[74] 진짜 놀크레기우다게.(와서 날쌘돌이 진짜 날쌘돌이입니다.)
102007 @ 으.(으.)
102007 #1 저 이디 저 유지낭에 부떠낫수다, 집의.(저 여기 저 유자나무에 붙었었습니다, 집이.)
102007 @ 으.(으.)
102007 #1 엿날 초집이.(옛날 초가집이.)
102007 @ 음.(음.)
102007 #1 부떠신디. 초집 우의로 올란에 미깡을 유지를 타서마씨게.(붙었는데. 초가집 위로 올라가서 감귤을 유자를 땄습니다.)
102007 @ 삼춘이?(삼촌이?)
102007 #1 나가 탄 거라. 둘리 올란 누게하고 나하고 올란 타신디.(내가 딴 거야. 둘이 올라서 누구하고 나하고 올라서 땄는데.)
102007 @ 으.(으.)
102007 #1 저 우영으로덜 다 넘어완 남ᄌᆞ덜이 봔마씀게, 봔에. 아이고, 이젠 가단에 그 집안네 ᄋᆞ젼가진 아녀고. 도로물깡 마당 시난 그레 유지 놔불엇수다게.(저 텃밭으로 다 넘어와서 남자들이 봤습니다, 봐서. 아이고, 이젠 가다가 그 집안에 가져가진 않고. 드럼통 마당 있으니까 그리로 유자를 넣어버렸습니다.)
102007 @ 음.(음.)

74) '놀크레기'는 동작이 날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 곧 날쌘돌이라는 말이다.

102007 #1 놔둰 들어가신디 나중엔양 저 저, 나 일름 골으멍.(넣어두고 들어갔는데 나중에요 저 저, 내 이름 말하면서.)
102007 @ 으.(으.)
102007 #1 유지 탓젠 허멍. (유자 땄다고 하면서.)
102007 @ 음.(음.)
102007 #1 저 무시거 유지 탓젠 골아부난에 이디 아저씬 저 집 마트렌게.(저 무엇 유자 땄다고 말해버려서 여기 아저씬 저 집 맡으라고.)
102007 @ 으.(으.)
102007 #1 저 우리 집 마트라. 우리 집 마타야 뒌다. 경 곧는 거라마씸게.(저 우리 집 맡아라. 우리 집 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2007 @ 으으.(으으.)
102007 #1 경 골으멍 막 꼬셔 봐도 꼬시지 못허난에. 어짜피 우리 셋아부지 셋아부신딜로 간에 저 무시거 우리 아버지네신디 골으난. 우리 아버지넨 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디 씨어머니 씨아버지 너이가 갑장이우다게.(그렇게 말하면서 막 꾀어 봐도 꾀지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 둘째작은아버지 둘째작은아버지에게로 가서 저 무엇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넷이 갑장입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네 갑장. 네 갑장인디 우리 아버지네가 영 저 지나보난에 이제 ᄆᆞ음이 안 좋덴.(네 갑장. 네 갑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 지내보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다고.)
102007 @ 음.(음.)
102007 #1 ᄆᆞ음이 안 좋난에.(마음이 안 좋으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저 우리 셋아버지 와시난에 일로 이디 저 우리 셋하르방, 셋하르방 살아낫수다게.(저 우리 둘째작은아버지 오시니까 일로 여기 저 우리 둘째작은할아버지, 둘째작은할아버지 살았었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셋하르방신딜로 허연에 셋아부지신딜로 허연에 말 부찌고. 이디 알력집의 저 언니는 우리 어머니신디 강 드러 곧곡마씨.(둘째작은할아버지에게로 해서 둘째작은아버지에게로 해서 말 붙이고. 여기 아랫집의 저 언니는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들이 말하고요.)
102007 @ 음.(음.)
102007 #1 양, 삼춘 어떵 헙니까게. 저 막 이제 저 나를 이제 좋아헨에 이제 ○○일 좋아허난에 이제 저 어떵 저 자이ᄀᆞ라 골읍서. 자인 막 정 도망만 가멍 홈치말도 곧젱도 안 허곡 막 싫어헴수덴 경. 자이ᄀᆞ라 골앙게 무신 집도 황당헌 집도 아니고 이제 저 부자칩이곡 허난 줘 붑서게, 줘 붑서게. 막 골아도 아명 골아도 나

가 안 들은 거라마씸게.(예, 삼촌 어떻게 합니까. 저 막 이제 저 나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일 좋아하니까 이제 저 어떻게 저 재보고 말하세요. 잰 막 저렇게 도망만 가면서 함께 말도 말하려고도 안 하고 막 싫어한다고, 그렇게. 재보고 말해서 무슨 집도 황당한 집도 아니고 이제 저 부잣집이고 하니까 줘 버리세요, 줘 버리세요. 마구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들은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안 들엉은에게 막 도망가곡 놀레가도 막 피허젠만 헤여봐도 그치룩 쫓아뎅기는 거라마씸게. 게난 어느 가겟집의 가겟방에 저 불쌍헌 사름 완 살앗수다게.(안 들어서 막 도망가고 놀러가도 막 피하려고만 해봐도 그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겟집의 가겟방에 저 불쌍한 사람 와서 살았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사난에 그때는 보리 갈 때난 보리 저 그 애기를 키우는 거. 애기구덕에 보리낭 끌아낫수다게.(사니까 그때는 보리 갈 때니까 보리 저 그 아기를 키우는 거. 아기요람에 보릿대 깔았었습니다.)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보리낭을 혼 뭇 들런 비 축축축축 오는디 그 보리낭을 혼 뭇 들렁 가젠 허단 보난 이디 아저씨가 또 그 집의 가십디다게.(보릿대를 한 뭇 들어서 비 축축축축 오는데 그 보릿대를 한 뭇 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아저씨가 또 그 집에 가있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그 집의 간 허난, 양, 들어가질 못허게 허는 거라마씸게.(그 집에 가서 하니까, 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나를.(나를.)

102007 @ 음.(음.)

102007 #1 들어가질 못허게 허난. 비 오는디.(들어가질 못하게 하니까. 비 오는데.)

102007 @ 음.(음.)

102007 #1 아이고, 어떠난 웨 못 들어가게 허냐. 웨 나가 매날 뎅기는 집의 못 들어가게 허나 허난에.(아이고, 어때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내가 맨날 다니는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나가 장게 못 가라, 장게 못 가라 허멍 무신 걸로산디 때리난에.(내가 장가 못 가라, 장가 못 가라 하면서 무슨 거로인지 때리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아이고, 어이엇어근엥양, 진짜 나 장게 못 가라. 골아수다게.(아이고, 어이없어서요, 진짜 내가 장가 못 가라. 말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장게 못 가라. 저 말을 나낫수다게.(장가 못 가라. 저 말이 났었습니다.)
102007 @ 으.(으.)
102007 #1 저 동부락[75] 나이도 저 나영 동갑이고.(저 '동부락' 나이도 저 나랑 동갑이고.)
102007 @ 음.(음.)
102007 #1 그디 그 저 나영 동갑이고 연세[76]도, 연세 ᄋᆞ지레 가젠 허난에 옛날은 그 이수들이[77].(거기 그 저 나랑 동갑이고 '연세'도, '연세'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옛날은 그 '이수들이'.)
102007 @ 예.(예.)
102007 #1 요만이 큰 거 그거 그거 들렁은엥에.(요만큼 큰 거 그거 그거 들어서.)
102007 @ 으.(으.)
102007 #1 저 연세 ᄀᆞ지레 가젠 허난 그거를 벌러분 거라마씸. 이 아저씨가. 그 집의 안 가켄.(저 '연세'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깨버린 겁니다. 이 아저씨가. 그 집에 안 가겠다고.)
102007 @ 으.(으.)
102007 #1 안 가켄 허멍 벌러부런.(안 가겠다고 하면서 깨버렸어.)
102007 @ 예.(예.)
102007 #1 동네난 다 소문난에 막 저 아부지가 들런 나산걸 문 벌러불멍 그 집의 안 가켄 헨에.(동네니까 다 소문나서 막 저 아버지가 들고 나산걸 모두 깨버리면서 그 집에 안 가겠다고 해서.)
102007 @ 음.(음.)
102007 #1 그치룩 나신디만 들엉 경 못 살켄 헙디다게. 못살게 허연 그것도 다 께여불엇저 뭣 헤엿저 소문은 들어지는디 경 아이 간에 허엿수다게. 허여신디게. 어떵허연 완 이치룩 고셍헤여점수다게, 원.(그처럼 나에게만 들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합디다. 못살게 해서 그것도 다 깨버렸어 뭣 했어 소문은 들어지는데 그렇게 아니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어떡하다 와서 이처럼 고생해지고 있습니다, 원.)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아이고양, 진짜 나도 오지말젠 헷수다게. 우리 아버지네가 ᄆᆞ음이 안 좋덴.(아이고야, 진짜 나도 오지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네가 마음이 안 좋다고.)
102007 @ 어.(어.)
102007 #1 이 어머니 아버지가 ᄆᆞ음이 안 좋덴. ᄆᆞ음이 좋아야주. 우리 아버지넨 진짜 저 이디 우리 저 돌아간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네ᄀᆞ라 법 엇은 디 살 어른이엔

75) '동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76) '연세'는 사주단자를 말한다.
77) '이수들이'는 2홉짜리 다섯 병 들이인 1.8ℓ를 말한다. 1홉은 18ml이다.

골읍니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다고. 마음이 좋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저 여기 우리 저 돌아가신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네 보고 법 없는 데 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102007 @ 음, 음.(음, 음.)
102007 #1 절대 궂인소리 아녀곡. 자기신디레 궂은 소리 하나 안 허곡 저 살암시민 살아진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경허멍 드러 곧곡 허난. 우리 저 처가칩의 저 어머니 아버지는 법 엇은 디 살 어른이라고.(절대 궂은소리 않고. 자기에게 궂은 소리 하나 안 하고 저 살다보면 살아진다, 살다보면 살아진다 그러면서 들이 말하고 하니까. 우리 저 처갓집의 저 어머니 아버지는 법 없는 데 살 어른이라고.)
102007 @ 으.(으.)
102007 #1 드러 경 얘기 헤낫수다게. 견디 어머니 아버지는 좋지 아녀덴 막 골아낫수다.(들이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좋지 않다고 막 말했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경 골아낫수다.(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02007 @ 아까, 삼춘 이수들이?(아까, 삼촌, 이수들이'?)
102007 #1 이수들이.('이수들이'.)
102007 @ 이수들인 뭐우꽈?(이수들이 뭡니까?)
102007 #1 이수들이 술.('이수들이' 술.)
102007 @ 으.(으.)
102007 #1 술 이만이 헌 이수들이.(술 이만큼 한 '이수들이'.)
102007 @ 음.(음.)
102007 #1 옛날은 그거 가정 뎅겻수게. 옛날은.(옛날은 그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옛날은.)
102007 @ 으.(으.)
102007 #1 저 작은 병이 없고.(저 작은 병이 없고.)
102007 @ 으.(으.)
102007 #1 작은 병이 엇으니까 이수들이 거 이수들이로만 사용헷수다게.(작은 병이 없으니까 '이수들이' 거 '이수들이'로만 사용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거 이수들이 거 병.(거 '이수들이' 거 병.)
102007 @ 이수들이허게 뒈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마씨?('이수들이'하게 되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02007 #1 술이, 술이 그거 저 그 이제 저 이제 그 무시거 잇지양. 그 저 작은 병 이제 이 홉짜린가.(술이, 술이 그거 저 그 이제 저 이제 그 무슨 거 있지요. 그 저 작은 병 이제 이 홉짜리인가?)
102007 @ 으.(으.)

102007 #1 이 홉짜리. 이 홉 짜리로 다섯 개.(이 홉짜리. 이 홉짜리로 다섯 개.)
102007 @ 으.(으.)
102007 #1 다섯 개, 다섯 개 들어갑니다.(다섯 개, 다섯 개 들어갑니다.)
102007 @ 아, 이 홉짜리로 다섯 개예.(아, 이 홉짜리로 다섯 개요.)
102007 #1 이 홉 짜리로 다섯 개.(이 홉짜리로 다섯 개.)
102007 @ 음.(음.)
102007 #1 다섯 개 들어갑니다.(다섯 개 들어갑니다.)
102007 @ 예.(예.)
102007 @2 이수들이 뒛병 아니야?('이수들이' 됫병 아니야?)
102007 #1 그만인 안 컹 요만인. 이수들이 저디 하나 잇수다. 저 어디 담고망에 하나 보입디다.(그만큼은 안 크고 요만큼. '이수들이' 저기 하나 있습니다. 저 어디 담구멍에 하나 보입디다.)
102007 @ 예, 이 홉짜리로 다섯 개 들어가예?(예, 이 홉짜리로 다섯 개 들어가요?)
102007 #1 다섯 개.(다섯 게.)
102007 @ 나중에 한번 봐보쿠다.(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102007 #1 예.(예.)
102007 @ 아까 연세는 뭐?(아까 '연세'는 뭐?)
102007 #1 뭐?(뭐?)
102007 @ 연세 가졍간덴 헌 거? 연세.('연세' 가져간다고 한 거? '연세'.)
102007 #1 연세?('연세'?)
102007 @ 으.(으.)
102007 #1 연세 엿날은 아주 아멩이라도 허영 안 뒈여마씨.('연세' 옛날은 아주 아무렇게 해서 안 됩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엿날은 딱 허게 연세 ᄀᆞ정 가젠 허면은 그 저 무시거 그 글을 이제 어떵 저 나 연세 놓곡.(옛날은 딱 하게 '연세' 가져서 가려고 하면은 그 저 무엇 그 글을 이제 어떻게 저 내 '연세' 놓고.)
102007 @ 음.(음.)
102007 #1 문딱 연세를 놔근엥에 이제는 아멩이라도 허여마씸. 경헌디 그때는 차, 저 차롱.(모두 '연세'를 넣어서 이제는 아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 저 채롱.)
102007 @ 음.(음.)
102007 #1 차롱에 담아근엥에 무슨 그 저 홍씰. 홍씰 뭐 저 무신 씰 그거 놓곡 허여근엥에 또 저 뭐 미녕이나.(채롱에 담아서 무슨 그 저 홍실. 홍실 뭐 저 무슨 실 그거 놓고 해서 또 저 뭐 무명이나.)
102007 @ 예.(예.)

102007 #1 미녕이나 흔 빌 놓곡.(무명이나 한 필 넣고.)
102007 @ 음.(음.)
102007 #1 옛날은 뭐 간단허여베도 저 그 속에 담은 거는 이제는 돈 봠주게양.(옛날은 뭐 간단해보여도 저 그 속에 담은 거는 이제는 돈 넣지요.)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돈 놓주마는 그때는 돈을 안 놔근엥에 미녕 흔 빌. 전 빌. 건 전 빌이엔 헤여마씨.(돈 놓지만 그때는 돈을 안 넣어서 무명 한 필. 전 필. 건 전 필이라고 합니다.)
102007 @ 전 빌.(전 필.)
102007 #1 예, 전 빌.(예, 전 필.)
102007 @ 음.(음.)
102007 #1 흔 빌이 아니고 전 빌.(한 필이 아니고 전 필.)
102007 @ 음.(음.)
102007 #1 옛날은 전 빌 놓곡 거기 그 연세 쓴 거 그거 그거 놓곡 허영은에 그거 잘못뒈면은 가서 이거는 잘못 뒈엿다, 이거는 잘못 뒈엇다고 허는 따문 그거는 철저허게 잘 썽은에 놔야 뒈여마씨게.(옛날은 전 필 넣고 거기 그 '연세' 쓴 거 그거 그거 넣고 해서 그거 잘못되면 가서 이거는 잘못 되었다,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하는 때문 그거는 철저하게 잘 써서 넣어야 돼요.)
102007 @ 음. 연세렌 허는 거구나예?(음. '연세'라고 하는 거군요?)
102007 #1 예, 연세(예, '연세'.)
102007 @ 나이영 이름이영 썽 가져가는 것ᄀᆞ라예?(나이랑 이름이랑 써 가져가는 것보고요?)
102007 #1 예, 예예. 연세.(예, 예예. '연세'.)
102007 @ 연세예?('연세'요?)
102007 #1 예, 연세.(예, '연세'.)
102007 @ 게난 이제 연예 반 중매 반 헌 격이구나.(그러니 이제 연애 반 중매 반 한 격이구나.)
102007 #1 예, 예.(예, 예.)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허단 허단 버치난 디문 거라마씨.(하다가 하다가 부치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102007 @ 으.(으.)
102007 #1 허단 버치난 ᄂᆞ시 ᄂᆞ시 끗시지 못허난 디문 거라마씨.(하다가 부치니까 도저히 도저히 꾀지 못하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다 다른 디 다 문 날짜도 나낫수다게.(다 다른 데 다 모두 날짜도 났었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날짜 나난 나가 장게 못가라. 장난으로 그치룩 허난.(날짜 나니까 내가 장가 못가라. 장난으로 그처럼 하니까.)
102007 @ 진짜 못 가불어신게. 그 집인.(진짜 못 가버렸네요. 그 집에는.)
102007 #1 아이고, 게메마씨.(아이고, 그러게요.)
102007 @ 웃음.(웃음.)
102007 #1 경허난 우리 결혼허는 날이 눈이 눈이 폭 이만은 눈 묻고.(그렇게 하니까 우리 결혼하는 날이 눈이 눈이 폭 이만큼 눈 쌓이고.)
102007 @ 으.(으.)
102007 #1 양, 이 하큰[78] 동네 ᄋᆞ섯 밧디라마씸.(예, 이 '하큰' 동네 여섯 군데였습니다.)
102007 @ 으, 잔치가 ᄋᆞ섯 밧디.(으, 잔치가 여섯 군데.)
102007 #1 ᄋᆞ섯 밧디. 양, 게난 누게누겐고 허민 우리 나 나영 ᄒᆞᆫ디.(여섯 군데. 예, 그러니 누구누군가 하면 우리 나 나하고 함께.)
102007 @ 음.(음.)
102007 #1 저 나영 ᄒᆞᆫ디 그 세 사름.(저 나랑 함께 그 세 사람.)
102007 @ 음.(음.)
102007 #1 또 아저씨네 또 갑장 세 사름. 나 셋, 나 갑장 세 사름 경허난 ᄋᆞ섯 밧듸.(또 아저씨네 또 갑장 세 사람. 나 셋, 나 갑장 세 사람 그러니 여섯 군데.)
102007 @ 음.(음.)
102007 #1 게난 물은 어디 잇수가? 물은 옛날 물 엇으난 다 물 시꺼 왕 부주로 다 물을 시꺼옵니다게.(그러니 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옛날 물 없으니까 다 물 실어 와서 부주로 다 물을 실어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물 시끄레 갈 수가 엇은 거라마씨. 눈이 너무 묻어 놓난.(물 실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너무 쌓여 놓으니.)
102007 @ 음.(음.)
102007 #1 저 구눈[79]에 헌 딘 요 저 보성[80]디레 가는 디 허곡.(저 '구눈'이라고 한 데는 요 저 '보성'으로 가는 데 하고.)
102007 @ 음.(음.(음.)
102007 #1 다시 또 군물[81]. 군물.(다시 또 '군물'. '군물'.)
102007 @ 예.(예.)
102007 #1 요듸 군물.(요기 '군물'.)
102007 @ 음.(음.)

78) '하큰'은 '작은'을 빗대어 얕잡아 표현한 것이다.
79) '구눈'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80) '보성'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말한다.
81) '군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동쪽 지역인 662번지 '군물왓'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102007 #1 양쪽엣 물을 시꺼신디 ᄋᆞ섯 사름이 물을 시끄젠 허민 잘도 복잡헐 거 아니우과? 게난 물 ᄒᆞ꼼만 시껑 먹지도 못헤마씨.(양쪽엣 물을 실었는데 여섯 사람이 물을 실으려 하면 잘도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 조금만 실어서는 먹지도 못합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이 집이는 두부를 헷수다.(이 집에는 두부를 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둠비.(두부.)
102007 @ 음.(음.)
102007 #1 엿날은 둠비. 이젠 두부엔 허주마는 옛날은 둠비.(옛날은 '둠비'. 이젠 두부엔 하지마는 옛날은 '둠비'.)
102007 @ 음.(음.)
102007 #1 이 집의는 부자칩이라 놓난 둠비 헷수다. 손으로 이 집의서.(이 집은 부잣집이라 놓으니까 두부 했습니다. 손으로 이 집에서.)
102007 @ 예.(예.)
102007 #1 집의서 둠비를 헤여서마씸. 게난 물은 부주로 다 시꺼신디 삽재루로 눈을 다 치우고 다 치우고 물을 시껏수게게.(집에서 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물은 부조로 다 실었는데 삽자루로 눈을 다 치우고 다 치우고 물을 실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게난 나 모실포[82] 갓단 못 오란양, 저 아시날.(그러니까 내가 '모슬포' 갔다가 못 왔어요, 저 전날.)
102007 @ 음.(음.)
102007 #1 모실포 갓당 못 오란 막 그 뭐 전화가 잇수가? 뭣이 잇수가?('모슬포' 갔다가 못 와서 막 그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뭣이 있습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아무 것도 엇은 때라 놓난 못 오란에 걸어왓수게. 모실포서.(아무 것도 없는 때라 놓으니까 못 와서 걸어왔습니다. '모슬포'서.)
102007 @ 음.(음.)
102007 #1 모실포서 차가 차가 도저히 뎅기질 못헤부난.('모슬포'서 차가 차가 도저히 다니질 못해버려서.)
102007 @ 게니까 눈 너미 와부니까?(그러니까 눈 너무 와버리니까?)
102007 #1 예. 도저히 눈 묻언 다니질 못허난 걸어 왓수다. 걸어 왓수다.(예. 도저히 눈 묻어서 다니질 못하니까 걸어 왔습니다. 걸어 왔습니다.)
102007 @2 게난 둠빗물에 손 덴 메누린게마씨.(그러니까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네요.)
102007 #1 (웃음.)

82) '모실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달리 '모슬포'를 말한다.

102007 @ (웃음.)
102007 #1 글쎄. 아이고 춤. 예게, 아이고양, 엿날 헤난 셍각허민양 아이고, 골을 나위가 엇수다게. 게난 뒷날은 뚜시 막 눈이 뚜시 잔칫날은 눈이 녹지 아념니까? 잘잘잘잘 녹으난 이 집은 막 파져근엥에 알러레 ᄂᆞ려앚은 집의난.(글쎄. 아이고 참. 네, 아이고, 옛날 했던 생각하면요 아이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뒷날은 다시 막 눈이 다시 잔칫날은 눈이 녹지 않습니까? 잘잘잘잘 녹으니까 이 집은 막 파여서 아래로 내려앉은 집이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살 수가 엇인 거라마씀. 살 수가 엇으난 옛날은 고무신 신엉 결혼 헷수게.(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옛날은 고무신 신어서 결혼 했습니다.)
102007 @ 예.(예.)
102007 #1 고무신 신엉 결혼허난 무시거 무시거 놔십디다. 무시거 저 물 ᄂᆞ리민 이 저.(고무신 신어서 결혼하니까 무엇 무엇 놨습디다. 무엇 저 물 내리면 이 저.)
102007 @ 젖지 않게.(젖지 않게.)
102007 #1 젖지 아녀게. 무시거 요디 무시걸 놘에 이디서 사진 찍엇수게게. 옛날 경허지 아녓수가?(젖지 않게. 무엇 요기 무엇을 놓고 여기서 사진 찍었습니다. 옛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마당에서 사진 찍엇수다. 견디 식구가 너미 합니다게. 권당이 많아.(마당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권당이 많아.)
102007 @ 음.(음.)
102007 #1 권당이 잘도 많에 놓난게. 집은.(권당이 잘도 많아 놓으니까. 집은.)
102007 @2 게난 송칩이우꽈?(그러니 송씨집입니까?)
102007 #1 이거 송칩마씸게.(이거 송씨집입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송칩인 완전 울르는 송칩이우다, 옛날부터.(송씨집은 완전 큰소리치는 송씨집입니다, 옛날부터.)
102007 @ 음.(음.)
102007 #1 동부락[83]은 김칩이가 하고.('동부락'은 김씨집이 많고.)
102007 @ 음.(음.)
102007 #1 서부락[84]은 송칩이가 하고.('서부락'은 송씨집이 많고.)
102007 @ 음. 그다음에 사주는 보잖아예? 사주보난 어떵헷덴마씸?(음. 그다음에 사주는 보잖아요? 사주보니까 어떠했답니까?)
102007 #1 사주, 사주는 봔 경 헴수가게. 그놈으 아저씨가게 날만 따라뎅기난에

83) '동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84) '서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사주, 사주 본 거는 몰르쿠다.(사주, 사주는 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놈의 아저씨가 나만 따라다니니까 사주, 사주 본 거는 모르겠습니다.)
102007 @ 으.(으.)
102007 #1 거는 뭐 이디, 이디 어머니가 아버지가 본 거니까.(거는 뭐 여기, 여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본 거니까.)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어머니아버지가 보난 아메도게 적당허난에 난 결혼 저 결혼시기젠 헤신가 생각헴수다게.(어머니아버지가 보니까 아무래도 적당하니까 난 결혼 저 결혼시키려고 했는가 생각합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아덜이 당추 다른 듸는 원 영 홈치 이수 벵 그 술 신 거 다 벌러부리고게 안 가난게 어떵 홀 수가 엇는 거라마씸게.(아들이 당최 다른 데는 원 이렇게 한꺼번에 '이수들이' 병 그 술 있는 거 다 깨버리고 안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자식을 이기지 못헨에.(자식을 이기지 못해서.)
102007 @ 음.(음.)
102007 #1 나도 잘못 들어와졋수다게, 진짜.(나도 잘못 들어와졌습니다, 진짜.)
102007 @ 음.(음.)
102007 #1 잘못, 잘못 들어완. 딴 디서도 막 골아도양 막 잘도양 중맬 많이 들어와낫수다게.(잘못, 잘못 들어왔어. 딴 데서도 막 말해도요 막 잘도요 중맬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102007 @ 음.(음.)
102007 #1 막 들어와도 영 저 아부지네가 털언 안 보내신디게 아, 이디 아저씨가 딱 나를 심엉은엥에 나를 꼿딱을 못허게 헙디다게.(막 들어와도 이렇게 저 아버지네가 털어서 안 보냈는데 아, 여기 아저씨가 딱 나를 심어서 나를 까딱 못하게 합디다.)
102007 @ 음.(음.)
102007 #1 경 헤여 놓난게 어짜피 춤 강제로 왓수다. 강제로.(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차피 참 강제로 왔습니다. 강제로.)
102007 @ 강제로.(강제로.)
102007 #1 강제로.(강제로.)
102009 @ 그때 그 결혼헐 때 혼수품은 뭐헹 완마씨?(그때 그 결혼할 때 혼수품은 뭐해서 왔습니까?)
102009 #1 혼수품?(혼수품?)
102009 @ 예물 으.(예물 으.)
102009 #1 저 소곱에 궤 잇수다. 궤.(저 속에 궤 있습니다. 궤.)

102009 @ 으.(으.)
102009 #1 궤 저 오동나무.(궤 저 오동나무.)
102009 @ 예.(예.)
102009 #1 오동나무 알아지쿠과?(오동나무 알아지겠습니까?)
102009 @ 예.(예.)
102009 #1 저 오동나무 알아져마씨? 오동나무궤. 아이고, 무시거 옛날이사 무시 걸 헙니깡게.(저 오동나무 알아집니까? 오동나무궤. 아이고, 무엇 옛날에야 무슨 걸 합니까.)
102009 @ 음.(음.)
102009 #1 저 오동나무궤허곡 무슨 뭐 헌 것이 엇수다. 엿날은.(저 오동나무궤하고 무슨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은.)
102009 @ 음.(음.)
102009 #1 저 미승이나 하나허고.(저 재봉틀이나 하나하고.)
102009 @ 음.(음.)
102009 #1 미승, 미승 하나허고 이불.(재봉틀, 재봉틀 하나하고 이불.)
102009 @ 음.(음.)
102009 #1 이불허고 거벳긔 아년 왓수다.(이불하고 거밖에 안 하고 왔습니다.)
102009 @ 이불은 멧 개나 헹 완마씸?(이불은 몇 개나 해서 왔나요?)
102009 #1 이불, 이불 두 채썩 두 채썩 허곡. 또 부모님 거 무신 것사 헤져신디. 무스거 쫌 허고 헨에 이불 두 채썩 헹 왓수다게. 게난.(이불, 이불 두 채씩 두 채씩 하고. 또 부모님 거 무슨 거야 해졌는지. 무슨 거 좀 하고 해서 이불 두 채씩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02009 @ 오난 저 아저씨는 뭐 줍디가?(오니까 저 아저씨는 뭐 줍디까?)
102009 #1 아저씨, 아저씨.(아저씨, 아저씨.)
102009 @ 경 쫓아다니믄 뭔가 줘얄 거 아니?(그렇게 쫓아다니면 뭔가 줘야할 거 아니?)
102009 #1 아저씨 주는 건 하나도 엇고양?(아저씨 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102009 @ 예.(예.)
102009 #1 궤 하나 저 폭나무궤.(궤 하나 저 팽나무궤.)
102009 @ 음.(음.)
102009 #1 이디 궤 두 개 놔줫수다. 이 속에.(여기 궤 두 개 놓아주었습니다. 이 속에.)
102009 @ 아아.(아아.)
102009 #1 폭나무궤.(팽나무궤.)
102009 @ 음.(음.)
102009 #1 폭나무궤는게 거 거 쪼각 쪼각헌 거난게. 우린 오동나무라도 큰 거 그냥 저, 그냥 저 저거 저거 게메 이제 궤가 두 개난 이젠 문제우다, 이제.(팽나무궤

는 거 거 조각 조각한 거니까. 우린 오동나무라도 큰 거 그냥 저, 그냥 저 저거 저거 그러게 이제 궤가 두 개난 이젠 문제입니다, 이제.)
102009 @ 음.(음.)
102009 #1 하나는 좋고 하나는 궂어부난 아덜덜 하나썩 주젠 허난 이제 족은아덜은 전의부떠 이제 어머니 궤 하나 줍서양. 경 골아신디 이제 어느 아덜랑 좋은 거 주곡 어느 아덜랑 궂인 거 주곡 이제 어떵허코 생각 중이우다.(하나는 좋고 하나는 궂어버려서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 하니까 이제 작은아들은 전에부터 이제 어머니 궤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어느 아들은 좋은 거주고 어느 아들은 궂은 거주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102009 @ 웃음.(웃음.)
102009 #1 경허지 아녀우꽈양?(그렇지 않습니까?)
102009 @ 으.(으.)
102009 #1 양, 오동나무궤는 거 아주 그거 중요헌 겁주게.(이보세요, 오동나무궤는 거 아주 그거 중요한 거지요.)
102009 @ 귀헌 거예.(귀한 거요.)
102009 #1 중요헌 거. 그 저 올레[85]에양 너무 큰 이만은헌 그 저 무시거 나무가 셔낫수다게.(중요한 거. 그 저 '올레'에요 너무 큰 이만한 그 저 무엇 나무가 있었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저 그 나무가 시난, 그거 비연에 어디 간 짜완마씨게. 아버지가.(저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베다가 어디 가서 짜왔습니다. 아버지가.)
102009 @ 음.(음.)
102009 #1 짜단에 성제가 하나씩 줍디다게.(짜다가 자매에게 하나씩 줍디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거 뭐 허연 온 건 뭐 엿날은, 게난 이 거 집의는 궨당 하고 허여 놓난에 옷이 열다섯 불.(그러니까 거 뭐 해서 온 건 뭐 옛날은, 그러니까 이 거 집에는 권당 많고 해 놓으니까 옷이 열다섯 벌.)
102009 @ 음.(음.)
102009 #1 열다섯 불 허면은 줄을, 줄을 이렇게 메여근에 그레 문딱 걸칩디다.(열다섯 벌 하면은 줄을, 줄을 이렇게 매여서 그리로 모두 걸칩디다.)
102009 @ 예.(예.)
102009 #1 구경허렌 다.(구경하라고 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옷도 이제 ᄀᆞ뜨민 입지도 못 헐 옷마씨.(그러니 옷도 이제 같으면 입지도 못 할 옷입니다.)
102009 @ 음.(음.)

85)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길을 말한다.

102009 #1 인조, 고동인조[86]가 젤 좋은 거.(인조, '고동인조'가 젤 좋은 거.)
102009 @ 음.(음.)
102009 #1 경헌디 씨아바님이 돌아간에 저 칠월 열사흗 날, 칠월 열사흗 날 그땐 소상 대상 헐 때난에.(그런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 칠월 열사흘 날, 칠월 열사흘 날 그땐 소상 대상 할 때니까.)
102009 @ 음.(음.)
102009 #1 나 오란에 저 칠월 열사흗 날 대상 헷수다게.(내가 와서 저 칠월 열사흘 날 대상 했습니다.)
102009 @ 예.(예.)
102009 #1 게난 그 저 폭 갈라. 폭 갈랑 옛날 요 베개 껍데기 그 저 나 저 이 치마허연 놔둬십디다.(그러니 그 저 폭 갈라서. 폭 갈라서 옛날 요 베개 껍데기 그 저 나 저 이 치마해서 놔뒀습디다.)
102009 @ 예.(예.)
102009 #1 게난 옛날 거난 막 좋아마씨.(그러니 옛날 거니까 막 좋아요.)
102009 @ 음.(음.)
102009 #1 엿날 베난에 조난에 저 저거 베개 껍데기 헤두서 여름에 그 저 풀 허멍 두 개 헤근엥에 아저씨도 허여나고 허난 두 개 헤두서 골리멍 저 그거 허민 ᄉᆞ락허여근에[87] 좋곡.(옛날 베니까 좋으니까 저 저거 베개 껍데기 해두고 여름에 그 저 풀 하면서 두 개 해서 아저씨도 해나고 하니까 두 개 해두면서 번갈아가며 저 그거 하면 'ᄉᆞ락해서' 좋고.)
102009 @ 음.(음.)
102009 #1 문 폭알라 다 헤영 놔둬십디다게.(모두 폭도 다 해서 놔뒀습디다.)
102009 @ 음.(음.)
102009 #1 오란 복치메 입엇수다게.(와서는 복치마 입었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복치메 입언에 나 섣둘 섣둘 초열흘 날 결혼허난에.(복치마 입어서 내가 섣달 섣달 초열흘 날 결혼하니까.)
102009 @ 음.(음.)
102009 #1 그 눈 그치룩, 그치룩 묻엉 허난.(그 눈 그처럼, 그처럼 묻어서 하니까.)
102009 @ 음.(음.)
102009 #1 그 하인[88], 하인 알아집니까.(그 하인, 하인 알아집니까.)
102009 @ 음.(음.)
102009 #1 옛날은 하인이 그 저 그 다 모셔십궤양. 모셔신디 하인이 제와근엥에 이거는양 그 눈 우의 물은 잘잘잘잘 녹고. 눈 우의 하인이 홈치 원 생각치도 못헌

86) '고동인조'는 양단보다 헐겁게 직조된 비단을 말한다.
87) 'ᄉᆞ락ᄒᆞ다'는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모양을 말한다.
88) '하인'은 마을의 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라마씨. 게난 우리 저 오라바님네가 막 저 신체도 좋곡 막 실헤낫수다게.(옛날은 하인이 그 저 그 다 모셨잖아요. 모셨는데 하인이 힘겨워서 이거는요 그 눈 위의 물은 잘잘잘잘 녹고. 눈 위에 하인이 한꺼번에 원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저 오라버님들이 막 저 신체도 좋고 막 실했었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우리 ᄉᆞ춘오라방이 이제 돌아가불어수다마는 이제 ᄉᆞ춘오라방덜이 다 모셔왓수다게.(그러니 우리 사촌오라버니가 이제 돌아가셔버렸습니다만 이제 사촌오라버니들이 다 모셔왔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독궤에, 독궤에 저 먼 디도 아니우다. 요 저 어디 알아집니까? 요 저 ᄉᆞ무실.(독교에, 독교에 저 먼 데도 아닙니다. 요 저 어디 알아집니까? 요 저 사무실.)

102009 @ 예, 예.(예, 예.)

102009 #1 ᄉᆞ무실 그 저 서녁집[89]마씸게.(사무실 그 저 '서녁집'이요.)

102009 @ 음.(음.)

102009 #1 서녁집의서 이레 모셔왓수게.('서녁집'에서 이리 모셔왔습니다.)

102009 @ 예.(예.)

102009 #1 게난 오라바님네가 신체가 좋난 왓주양, 경 아녀민 하인이 홈치 원 오질 못허여마씨. 오질 못허여. 물 물 메왓지양, 엿날엔. 물 메와신디 우린 들러 왓수다.(그러니 오라버님들이 신체가 좋으니까 왔지요, 그렇게 안했으면 하인이 한꺼번에 원 오질 못합니다. 오질 못해. 말 말 매었지요, 옛날엔. 말 매었는데 우린 들고 왔습니다.)

102009 @2 독개로 들렁.(독교로 들고서.)

102009 #1 글로 후에 물 메왓주.(그로부터 후에 말 매었지.)

102009 @ 음.(음.)

102009 #1 글로 후에 물 메왓주. 우리는 저 사름덜이 따시 여기서 뚜시 저 간 사름덜.(그로부터 후에 말 매었지. 우리는 저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다시 저 간 사람들.)

102009 @ 음.(음.)

102009 #1 여기서 또 이제 뭐 무시거 무시거 허영 갑니다게. 문 강은에 허민게 절로 우시오곡 일로 우시가곡.(여기서 또 이제 뭐 무엇 무엇 거 해서 갑니다. 모두 가서 하면 저리로 위요오고 이리로 위요가고.)

102009 @ 으.(으.)

102009 #1 게믄 그 어른덜이 속아십주게.(그러면 그 어른들이 수고했지요.)

102009 @ 음.(음.)

102009 #1 그 우시덜 간 어른덜이 쏙안에 그 우시덜이 겨난 아무나 안 보냅니다.

89) '서녁집'은 서쪽 울타리 밖에 있는 남의 집을 말한다.

우시덜토. 든든헤근엥에 머리 츰 얼굴도 잘 나곡.(그 위요들 간 어른들이 수고해서 그 위요들이 그러니 아무나 안 보냅니다. 위요들도. 든든해서 머리 참 얼굴도 잘 나고.)
102009 @ 음.(음.)
102009 #1 신체도 좋곡 헤사 강 모셔올 거난에 우리 오라바님도 츰 잘도 얼굴도 잘 나고 막 저 든든헤낫수다게. 게난 오라바님네 성제가 저 오곡 이제 이디서도 뚜시 가고 허연에 믄 모셔왓수다게.(신체도 좋고 해야 가서 모셔올 거니까 우리 오라버님도 참 잘도 얼굴도 잘 나고 막 저 든든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님들 형제가 저 오고 이제 여기서도 다시 가고 해서 모두 모셔왔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아무나 저 그런 딘 저 놓지 아념니다게.(그러니 아무나 저 그런 덴 저 놓지 않습니다.)
102009 @ 음.(음.)
102009 #1 게난 아이고.(그러니 아이고.)
102010 @ 게난 결혼식은 어디서 헌 거라마씨?(그러니까 결혼식은 어디서 한 거예요?)
102010 #1 마당에서 헷수게.(마당에서 했습니다.)
102010 @ 마당에서?(마당에서?)
102010 #1 예. 이 마당에서.(예. 이 마당에서.)
102010 @ 마당에서 옛날식으로 이제.(마당에서 옛날식으로 이제.)
102010 #1 예게.(예.)
102010 @ 어떤 식으로 헙디가? 마당에서.(어떤 식으로 합디까? 마당에서.)
102010 #1 마당에서게 그 사진도 저 무신거 가족사진도 마당에서 찍고.(마당에서 그 사진도 저 무슨 가족사진도 마당에서 찍고.)
102010 @ 음.(음.)
102010 #1 가족이 너무 만허여 놓난양. 마당에서 찍엇수다게.(가족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요. 마당에서 찍었습니다.)
102010 @ 게난 그 결혼헐 때는 뭐 족두리 썽 헨마씨? 삼춘은 어떤 식으로?(그러니까 그 결혼할 때는 뭐 족두리 써서 했어요? 삼촌은 어떤 식으로?)
102010 #1 머리 옛전.(머리 얹어서.)
102010 @ 머리 옛전?(머리 얹어서?)
102010 #1 예. 머리 옛전.(예. 머리 얹어서.)
102010 @ 그런 식으로 하고.(그런 식으로 하고.)
102010 #1 족두리는 글루 후에 썻주.(족두리는 그리 후에 썼지.)
102010 @ 글루 후에예?(그리 후에요?)
102010 #1 글루 후예 썻주. 우리는 머리 옛져수게.(그리 후에 썼지. 우리는 머리 얹었습니다.)

102010 @ 으.(으.)
102010 #1 아, 멘사포 썬. 멘사포 썬.(아, 면사포 썼어. 면사포 썼어.)
102010 @ 멘사포 썬?(면사포 썼어요?)
102010 #1 맞아, 멘사포 썬.(맞아, 면사포 썼어.)
102011 @ 현대식으로 헤신게예?(현대식으로 했네요?)
102011 #1 예, 멘사포 썻수다.(예, 면사포 썼습니다.)
102011 @ 게믄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라마씸?(그러면 신혼살림은 어디서 한 거예요?)
102011 #1 신혼?(신혼?)
102011 @ 예.(예.)
102011 #1 신혼이 어디 이수가? 신혼 안 가완.(신혼이 어디 있습니까? 신혼 안 가왔어.)
102011 @ 아니, 게난 여행은 안 가왓주마는 결혼생활은 어디서 헌 거?(아니, 그러니까 여행은 안 가왔지만 결혼생활은 어디서 한 거?)
102011 #1 결혼 생활은 이것이 어머니네 살민 저 밧그레.(결혼 생활은 이것이 어머니네 살면 저 바깥채.)
102011 @ 밧그레서?(바깥채에서.)
102011 #1 밧그레, 밧그레도 초집 이만이 헌 거 쩨끄먼 헌 집의 살앗수다게.(바깥채, 바깥채도 초가집 이만큼 한 거 자그만 한 집에 살았습니다.)
102011 @ 음.(음.)
102011 #1 쩨그먼 헌 집의. 이 집이도 작은디게 저 집은 큼니까게. 게난게 우리 가게 아이고, 집 출리곡양. 집이 셍편 엇어낫수다. 그 저 떡만허곡게 제ᄉᆞ가게 ᄋᆞ남은 번 넘어가난게. 그 불 솜아근엥에 떡만 허곡 드러 허여 놓난 이런 디가 헹편엇어낫수덴 허난.(자그만 한 집에. 이 집도 작은데 저 집은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이고, 집 차리고요. 집이 형편 형편없었습니다. 그 저 떡만 하고 제사가 여남은 번 넘어가니까. 그 불 때서 떡만 하고 들이 해 놓으니까 이런 데가 형편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2011 @ 음.(음.)
102011 #1 살 수가 엇언, 엇어도 돌 엇어도 짓엇수다게.(살 수가 없어서, 없어도 돌 없어도 지었습니다.)
102011 @ 음.(음.)
102011 #1 우리, 우리 들어오멍서라 짓엇수다. 들어오멍서라.(우리, 우리 들어오면서 지었습니다. 들어오면서.)
102011 @ 들어오멍서라.(들어오면서.)
102011 #1 들어오멍서라. 이디 살단에 저 딴 디가 저 집의 간 살앗수다게. 저 집의 간 살단에 저 들어오멍서라 집을 짓엇수다. 돌 엇어도.(들어오면서. 여기 살다가 저 딴 데가 저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 집에 가서 살다가 저 들어오면서 집을 지

었습니다. 돌 없어도.)
102011 @ 음.(음.)
102011 #1 막 빗 삼벡만 원 빗도 경 크는 거라마씨.(막 빚 삼백만 원 빚도 경 크는 겁니다.)
102011 @ 예.(예.)
102011 #1 집 짓단보난 삼벡만원 빗 나난 것도 힘들어마씸, 거 물기가 엿날은.(집 짓다보니까 삼백만원 빚 나니까 것도 힘들어요, 거 물기가 옛날은.)
102011 @ 음.(음.)
102011 #1 겐 그거 나중에 물고 허난게 집도 또 잘못 짓어전양, 비 막 세는 거라마씸게. 비가 세여.(그래선 그거 나중에 물고 하니까 집도 또 잘못 지어져서요, 비 막 새는 겁니다. 비가 새.)
102011 @ 음.(음.)
102011 #1 이거 저 흑집 아니우꽈? 흑.(이거 저 흙집 아닙니까? 흙.)
102011 @ 음.(음.)
102011 #1 예, 흑 올려근에양, 고대[90].(예, 흙 올려서요, 산자.)
102011 @ 음.(음.)
102011 #1 고대엔 헙니다. 흑 올린 것ᄀᆞ라. 고대엔 허곡. 돌집이라마씨, 돌.(산자라고 합니다. 흙 올린 것보고. 산자라고 하고. 돌집입니다, 돌.)
102011 @ 음.(음.)
102011 #1 그때는 뭐 냉가[91]도 없고 브루코[92]도 엇고.(그때는 뭐 벽돌도 없고 블록도 없고.)
102011 @ 음.(음.)
102011 #1 경허난 돌 혼 뎅이에 언마. 경허연 깨여근엥에 저 세계[93]서 저 밧거리도 다 돌 아니우꽈?(그렇게 하니까 돌 한 덩이에 얼마. 그렇게 해서 깨서 저 '사계리'에서 저 바깥채도 다 돌 아닙니까?)
102011 @ 음.(음.)
102011 #1 저 밧거리 같이 짓은 거난에. 게난 돌 혼 뎅이에 얼마? 겨난 아이고, 말 헐 나우가 엇입디다. 너무 비싼.(저 바깥채 같이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돌 한 덩이에 얼마? 그러니 아이고, 말 할 나위가 없습디다. 너무 비싼.)
102011 @ 음.(음.)
102011 #1 돌이 혼 덩이에 얼마헤도. 돌이 돌이 늬개방장헤야 뒐 거 아니우꽈?(돌이 한 덩이에 얼마해도. 돌이 돌이 네모반듯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2011 @ 음.(음.)

90) '고대'는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를 엮은 것으로 표준어 '산자'를 말한다.
91) '냉가'는 일본어 'れんが'를 말하며 우리말로 '벽돌'을 뜻한다.
92) '부로끄'는 블록(block)의 일본어인 'ブロック'로 건축 재료의 하나다.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93)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02011 #1 늬개방장헤야 게난 ᄋᆞ섯 사름이 완 담을 답디다게.(네모반듯해야 그러니 여섯 사람이 와서 담을 쌓습디다.)
102011 @ 예.(예.)
102011 #1 ᄋᆞ섯 사름이 담을 다고. 집을 짓는디 쓰레뜰 ᄋᆞ라이 올라가 놓난 쓰레뜰 문딱 깨여부난 열다섯 장 빼연에 새로 허여도 비가 세연. 요디 비가 세연.(여섯 사람이 담을 쌓고. 집을 짓는데 슬레이트를 여럿이 올라가 놓으니까 슬레이트를 무두 깨여버리니 열다섯 장 빼서 새로 해도 비가 새서. 요기 비가 새서.)
102011 @ 음.(음.)
102011 #1 지금 요쪽으로 비 세연에 등긔난 이 도비를 못 헴수게. 저거를 튿엉은에게 새로.(지금 요쪽으로 비가 새서 늘어지니까 이 도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뜯어서 새로.)
102011 @ 음.(음.)
102011 #1 새로 저거를 저 방을 이쪽으로 일로 저 등겻수다게.(새로 저거를 저 방을 이쪽으로 이리로 저 늘어졌습니다.)
102011 @ 음.(음.)
102011 #1 이쪽으로 등긔난에 저걸 새로 이제 다 뜯어근엥에 팔십만 원 달랜 헙디다게. 저거.(이쪽으로 늘어지니까 저걸 새로 이제 다 뜯어서 팔십만 원 달라고 합디다. 저거.)
102011 @ 음.(음.)
102011 #1 저거 튿엉은엥에 저거 저 방 하나 우의 영 저 무시 거 다루끼 박곡, 튿엉 봐야 압주마는 저거 다 허여사 뒘직 허여. 다루끼[94] 박고 또 베니다 박고.(저거 뜯어서 저거 저 방 하나 위에 이렇게 저 무시 거 서까래 박고, 뜯어서 봐야 알지만 저거 다 해야 될 듯해요. 서까래 박고 또 베니어 박고.)
102011 @ 예.(예.)
102011 #1 게난 팔십만 원 달렌마씸게.(그러니까 팔십만 원 달래요.)
102011 @ 음.(음.)
102011 #1 게난에 저거 허여 놔사 멩질 전이 허젠 허난게 못허연 헤여주지 아년 못헨에 이제 그냥, 그냥 궂어도 그냥 멩질 헤 먹음벳긘 어쩔 수 엇수다. 이제.(그러니 저거 해 놓아야 명질 전에 하려고 하니까 못해서 해주지 않아 못해서 이제 그냥, 그냥 궂어도 그냥 명질 해 먹음밖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102011 @ 음. 웃음.(음, 웃음.)
102011 #1 게난 아덜, 아덜덜이 이거 큰아덜 집 난 아무 것도 엇수다. 단지 난 나 몸뗑이 하나마씸.(그러니 아들, 아들들이 이거 큰아들 집 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난 내 몸뚱이 하납니다.)
102011 @ 음.(음.)
102011 #1 다 이전허연 ᄋᆞ지렌 허연 다 줘부난에 엇수다.(다 이전해서 가지라고

94) '다루끼'는 일본어 'たるき'를 말하는데 우리말 '서까래'를 말한다.

해서 다 줘버리니까 없습니다.)
102011 @ 아.(아.)
102011 #1 이거 큰아덜 집이우다게.(이거 큰아들 집입니다.)
102011 @2 게난 큰아덜 왕 고치렌 헙서.(그러니 큰아들 와서 고치라고 하십시오.)
102011 #1 아이고양, 난 다 나냥으로 이제ᄁᆞ장. 문도 옛날이라 놓난양 문도 다 새로, 저 문도 다 떼여불엇수게게.(아이고, 난 다 나대로 이제까지. 문도 옛날이어 놓으니까요 문도 다 새로, 저 문도 다 떼버렸습니다.)
102011 @ 예.(예.)
102011 #1 여름엔 문 떼영 삽니다게. 아덜이 완 탁 완 뗍디다게. 저 문딱 새로 문 다 고쪗수다. 나 ᄒᆞᆫ 해는 문 고찌곡, ᄒᆞᆫ 해는 지붕 더끄곡, 비가 세여가니까.(여름엔 문 떼서 삽니다. 아들이 와서 탁 와서 뗍디다. 저 모두 새로 문 다 고쳤습니다. 내가 한 해는 문을 고치고, 한 해는 지붕 덮고, 비가 새어가니까.)
102011 @ 예.(예.)
102011 #1 ᄒᆞᆫ 해는 모뇨륨 ᄀᆞᆯ곡.(한 해는 모노륨 깔고.)
102011 @ 웃음.(웃음.)
102011 #1 ᄒᆞᆫ 해는 또 싱크대 놓곡. ᄒᆞᆫ 해는 또 저 안네 또 저 변기 놓곡 그치룩 허멍 이제ᄁᆞ장 그자 그럭저럭 그자 원 아덜 와도양 저 잔딜 ᄒᆞᆫ 번 안 까끕니다게.(한 해는 또 싱크대 놓고. 한 해는 또 저 안에 또 저 변기 놓고 그처럼 하면서 이제까지 그저 그럭저럭 그저 원 아들 와도요 저 잔딜 한 번 안 깎습니다.)
102011 @ 웃음.(웃음.)
102011 #1 이녁 자기 일도 못허니까마씸.(이녁 자기 일도 못하니까요.)
102011 @ 음.(음.)
102011 #1 자기 일도 다 못헤마씨.(자기 일도 다 못해요.)
102011 @ 음.(음.)
102011 #1 어멍이 강 같이 도와줘야 뒈여마씸. 건 농장 너른 것도 구찮은 거우다게, 거.(어머니가 가서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건 농장 너른 것도 귀찮은 겁니다, 거.)
102012 @2 게난 성안 살암수가?(그러니까 성안 삽니까?)
102012 #1 양?(예?)
102012 @2 아덜은 성안 살암수가?(아들은 성안 삽니까?)
102012 @ 시에 살멘? 아니 여기?(시에 사나요? 아니 여기?)
102012 #1 시에 살암시민 무사 못헙니까게. 서울 살암수게게.(시에 살고 있으면 왜 못합니까. 서울 살고 있습니다.)
102012 @ 으.(으.)
102012 #1 작은아들은.(작은아들은.)
102012 @ 여기 잇고.(여기 있고.)

102012 #1 여기 잇고마씸.(여기 있고요.)
102012 @ 음.(음.)
102012 #1 여기 잇고, 여기 잇어근엥에 작은아덜은 걱정이 엇읍니다. 원. 너무 저 춤.(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작은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원. 너무 저 참.)
102012 @ 너무 착헨.(너무 착해서.)
102012 #1 너미 착헤 놓난에 돈도 잘 버슬어마씨게. 초원에 살아도 지금 이제, 이제 아적은 이제 이제 마흔아옵이우다. 이제.(너무 착해 놓으니까 돈도 잘 벌어요. 촌에 살아도 지금 이제, 이제 아직은 이제 이제 마흔아홉 살입니다. 이제.)
102012 @ 음.(음.)
102012 #1 마은아옵인디 그 이제 집 짓은 밧도 사고, 또 동광 땅도 사고, 또시 십육억 줜 이제 이제사 시에 집을 사ᄀᆞ렌마씸게, 이제.(마흔아홉인데 그 이제 집 지은 밭도 사고, 또 동광 땅도 사고, 다시 십육억 줘서 이제 이제야 시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제.)
102012 @ 십육억 줜? 웃음.(십육억 줘서? 웃음.)
102012 #1 십육억 줜마씨. 게난 아이고야, 느 그거 어떵 허젠 헴디? 난 막 겁낸, 겁납디다게.(십육억 줘서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니? 난 막 겁나서, 겁납디다.)
102012 @ 으.(으.)
102012 #1 야, 십육억 난 세지도 못허는디 느 어떵허젠 헴디?(야, 십육억 난 세지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니?)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어떵허연 돈 물젠? 어머니 걱정 맙서. 나가 다 알앙 헙니다. 게난 집은 멧 개고 허난 집은 네 개엔 헙니다. 네 개.(어떻게 해서 돈 물래?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집은 몇 개니 하니까 집은 네 개라고 합니다. 네 개.)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네 개 저 그냥 저 통으로 다 사불엇수덴, 경 ᄀᆞᆯ읍디다게.(네 개 저 그냥 저 통으로 다 사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디다.)
102012 @ 으.(으.)
102012 #1 게난 아이고, 나 돈 엇다. 난 나 이제ᄁᆞ장 돈을 줫수다게.(그러니 아이고, 나 돈 없다. 난 내가 이제까지 돈을 줬습니다.)
102012 @ 예.(예.)
102012 #1 저 집 사도.(저 집 사도.)
102012 @ 으.(으.)
102012 #1 집을 빌언 살앗수다게.(집을 빌어서 살았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모실포[95] 빌언 살단에 요디 오란 간단허게 집을 짓어근엥에. 저 우읫

아이덜은 이디서 시시허덴 허멍 공불 안 허켄마씨게. 모실포서.(모슬포 빌어서 살다가 요기 와서 간단하게 집을 지어서. 저 위 아이들은 여기서 시시하다고 하면서 공불 안 하겠대요. 모슬포서.)

102012 @ 음.(음.)

102012 #1 모실포 살아낫수다게. 공불 안 허켄 허멍, 성젠 시[96]에 올라갓수다게, 이제예.(모슬포 살았었습니다. 공불 안 하겠다고 하면서, 형제는 시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102012 @ 음.(음.)

102012 #1 고등학교 저 삼학년에 따시 중학교 이학년에 가부난에게 ᄉᆞ나이 하나 마지막 깍[97]은 ᄯᅳ시 시에 아이 간에 따시 모실포 친구가 엇덴 허멍 모실포 이제 사학년이우다게 저. 족은아덜에 족은아덜이. 게난게 게난 메누리가 못전디고 아덜도 못 전뎜수다게. 그 하우슬 문 헤여 놓난양.(고등학교 저 삼학년에 다시 중학교 이학년에 가버리니까 사나이 하나 마지막 막내는 다시 시에 안 가서 다시 모슬포 친구가 없다고 하면서 모슬포 이제 사학년입니다 저. 작은아들에 작은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 며느리가 못 견디고 아들도 못 견딥니다. 그 비닐하우스 모두 해 놓으니까요.)

102012 @ 음.(음.)

102012 #1 하우스에서 고셍허지, 그 비온 날은 미깡 ᄃᆞᆯ아메곡 땀뿌차 끗어근엥에 일을 마타 놓난 매날 이제 매날 허여 놓난 돈 벗은덴 소문은 남수다게.(비닐하우스에서 고생하지, 그 비온 날은 감귤 달아매고 덤프트럭 끌어서 일을 맡아 놓으니까 맨날 이제 맨날 해 놓으니까 돈 번다고 소문은 납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저, ○○이 송○○이 날ᄀᆞ라도 막 저 아덜 너미 착허덴 ᄀᆞᆯ읍니다. 사름덜이. ᄀᆞᆫ곡 그자 아무가 봐도 차 우의서라도 웃으멍 끄딱허난에.(저, '○○이' '송○○'이 날보고도 막 저 아들 너무 착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저 아무가 봐도 차 위에서라도 웃으면서 끄덕하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게난 인ᄉᆞ 잘허곡게 소문은 납니다게. 헤끔은 헙니다.(그러니 인사 잘하고 소문은 납니다. 조끔은 합니다.)

102012 @ 예.(예.)

102012 #1 크지도 아녀마씸게. 성은 든직허고.(크지도 않아요. 형은 든직하고.)

102012 @2 어머니도 큰 데?(어머니도 큰 데?)

102012 #1 성은 든직허고 아덜은 저 ᄒᆞ꼼 저 족수다.(형은 든직하고 아들은 저 조끔 저 작습니다.)

102012 @ 음.(음.)

---

95) '모실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달리 '모슬포'라고도 한다.

96) 여기서 '시'는 제주시를 말한다.

97) '깍'은 '끝'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막내를 말한다.

102012 #1 ᄒᆞ꼼 아, 족진 아년디.(조끔 아, 작진 않는데.)
102012 @ 예.(예.)
102012 #1 신체가, 신체가 약헤여마씨. 약헤여.(신체가, 신체가 약합니다. 약해요.)
102012 @ 예.(예.)
102012 #1 약헤도 큰 사름 경 안 바꾸게 일은 헙니다. 시길 나가 엇입니다. 시길 나가 엇어.(약해도 큰 사람 그렇게 안 바꾸게 일은 합니다. 시킬 나위가 없습니다. 시킬 나위가 없어.)
102012 @ 음.(음.)
102012 #1 게난 어린 때부떠 아부지 산 때부터 총각인 때부떠 그 만 평을 버슬젠 허난게, 아덜 올 디만 기다령.(그러니 어린 때부터 아버지 산 때부터 총각인 때부터 그 만 평을 벌려고 하니까, 아들 올 때만 기다려서.)
102012 @ 음.(음.)
102012 #1 아덜은 일허레 가불민게. 저 레미콘.(아들은 일하러 가버리면. 저 레미콘.)
102012 @ 음.(음.)
102012 #1 놈의 찬 안 끗입니다게.(남의 차는 안 끗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레미콘 차 끗어근엥에 저 일허레 가민 요 서광[98] 일허레 가민 일요일 날이나 안 갑주게.(레미콘 차 끌어서 저 일하러 가면 요 '서광' 일하러 가면 일요일 날이나 안 가거든요.)
102012 @ 예.(예.)
102012 #1 안 가민 일요일 날은 약을 세 고지[99]로 허여마씸게.(안 가면 일요일 날은 약을 세 군데로 합니다.)
102012 @ 예.(예.)
102012 #1 이백 말 통더레 탕은에 세 고지로 허민. 아니 어느 헨 허단 보난 미깡을 자락[100] 올아부난에 허지 못허난에 나가 허는 말이. 야, 족은아덜신디레 야, 도저히 알로 못 허키여. 저 오라, 바꽝 허게. 경허난, 경협서게. 난 동으로 허곡 아방은 우로 허고. 삼거림이 잇수다.(이백 말 통에 타서 세 군데로 하면. 아니 어느 해는 하다보니까 감귤이 '자락' 열어버려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야, 작은아들에게 야, 도저히 알로 못 하겠어. 저 옳아, 바꿔서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난 동으로 하고 아버지는 위로 하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우리 밧 안네서도 삼거림이 이시난 그디서 차 돌리곡 그자 빼곡 허는디 시난에, 겨곡 다 쎄멘 헷수다.(우리 밭 안에서도 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차

98)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다.
99) '고지'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군데', 즉 '장소'를 말한다.
100) '자락'은 과일 따위가 많이 달리거나 김 따위가 무성하게 난 모양을 말한다.

돌리고 그저 빼고 하는 데 있으니까, 그리고 다 시멘트 했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작은아덜이 쎄멘 헤 놧수다게. 만 펭에 질 다 허난 발이나 버물지 아녑니다. 게난 친구덜이 들어가멍 허는 말이, 야, 느네 밧듸 가젠 허민 저 신발 벗엉 가사 켜이.(작은아들이 시멘트 해 놓았습니다. 만 평에 길 다 하니까 발이나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네 밭에 가려고 하면 저 신발 벗어서 가야 되겠네.)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그치룩 골으멍 막 저 웃기는 아이가 잇수다게. 경허멍 허는디.(그처럼 말하면서 막 저 웃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102021 @ 음.(음.)
102021 #1 이제는 곶밧[101] 뒈불엇수다. 큰아덜이 서월 살멍 오란에게.(이제는 '곶밭' 돼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서울 살면서 와서는.)
102021 @ 음.(음.)
102021 #1 허지 못헤 놓난에 족은아덜은 잘헙니다. 잘허곡 이제, 이제 저 천, 천오벡 평짜리. 집만 하나 덜렁 짓엉 앚안 작년에 나 저 꿰 아옵 말 그디서 허엿수다게. 게난 밧을 포크레인으로 완 확 허게 밧을 긋으난게 그레 간 꿰 뿌리난에, 양, 저 노인당에 밥을 허레 뎅겻수다게. 작년끄장. 멧 헤 밥을 사년을 헷수다. 사년을 허난게. 그디 강 꿰를 부리난, 양, 비온 날벳긔 못 갑디다게. 왕 밥허영 먹엉 오민 덥곡. 빗방울 허는 날 가민 비가 와부는 거라마씸게.(하지 못해 놓으니까 작은아들은 잘합니다. 잘하고 이제, 이제 저 천, 천오백 평짜리. 집만 하나 덜렁 지어 앉아서 작년에 내가 저 참깨 아홉 말 거기서 했습니다. 밭을 크레인으로 와서 확 하게 밭을 그으니까[가니까] 거기 가서 참깨 뿌리니까, 예, 저 노인당에 밥을 하러 다녔습니다. 작년까지. 몇 해 밥을 사년을 했습니다. 사년을 하니까. 거기 가서 깨를 뿌리니까, 예, 비온 날밖에 못 갑디다. 와서 밥해서 먹어서 오면 덥고. 빗방울 하는 날 가면 비가 와버리는 겁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게난 나신디레 막 준소리허연. 따시랑 허지 맙센. 저 아덜 메누리랑은 예 놀곡 어머니 일허는 거, 일허염젠 허멍 놈덜 욕허지 아녑니껜. 누게 욕헐 사름시냐? 이디 사름 뎅겸시냐?(그러니 나보고 막 잔소리해.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저 아들 며느리랑은요 놀고 어머니 일하는 거, 일한다고 하면서 남들 욕하지 않겠습니까고 누가 욕할 사람 있니? 여기 사람 다니고 있느냐?)
102012 #1 경허멍 헤연에 꿰도 으남은 말 허곡 콩도 검은콩, 검은콩헐 땐 저양, 차에서가 어디 강 부닥쳔에 이 갈빗대 나간마씨. 갈빗대 나가난 벵원에 셔낫수다게. 저 한라의료원에 시난에.(그렇게 하면서 해서 참깨도 여남은 말 하고 콩도 검은콩, 검은콩 할 땐 저기요, 차에서가 어디 가서 부닥쳐서 이 갈빗대 나갔습니다. 갈빗대

101) '곶밧'은 자연생 나무가 우거진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밭을 말한다.

나가니까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 한라의료원에 있으니까.)
102012 #1 메누리가 콩 알아근에 느 믄딱 장만헤영은엥에 읏지렌 허멍 허난 검은콩 꺼끄난 손도 다 북물고 저 흔 너 말은 못허곡 서 말, 서 말은 남으컵디덴. 게난 거 느 거 허라. 나 안 보켜 허연에 허곡 꿰 두 말 주고 지름 빠단 주곡 헷수다.(며느리가 콩 알아서 네가 모두 장만해서 가지라고 하면서 하니까. 검은콩 꺾으니까 손도 다 부르트고. 저 한 네 말은 못하고 서 말, 서 말은 남겠다고. 그러니 거 네 거 하라. 내가 안 보겠다 해서 하고. 참깨 두 말 주고 기름 빼다가 주고 했습니다.)
102012 #1 경 헨에 허난에 글로 헤연양 끄딱 못허게 헴수다. 그레 글로 흐연 홈치 밧 막 놀련 내불엄수게.(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리로 해서요 까딱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그리로 해서 한꺼번에 밭 막 놀려서 내버리고 있습니다.)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그디 천오벡 평 집만 하나 달랑 짓언 잇수다게, 게난.(거기 천오백 평에 집만 하나 달랑 지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밧 놀령 내벼도 나도 못헙니다게. 이제 허지도 못허곡 허난 그자 흐꼼썩 흔 뒈 헤영 이녁 먹을 거난 아이덜 줄 거난 둬 말헤근엥에.(밭 놀려서 내버려도 나도 못합니다. 이제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저 조끔씩 한 되 해서 이녁 먹을 거니까 아이들 줄 거니까 둬 말해서는.)
102012 @ 음.(음.)
102012 #1 저 지름 빵 먹곡 허젠 올히도 허엿수다. 게난, 이 저 작은아덜은 너미 착헤 놓난에 그 어린 때부떠 일을 허는디양, 드르쌍 내불어마씸게. 자기가 그자 우리 놉으로 사근엥에 놉을 사 나두서만 헤낫수다게. 그냥 하나썩 빌엉은 헐 수가 엇어마씸게.(저 기름 빼서 먹고 하려고 올해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저 작은아들은 너무 착해 놓으니까 그 어린 때부터 일을 하는데요, 팽개쳐 내버립니다. 자기가 그저 우리 놉으로 사서 놉을 사 놓아두어서만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씩 빌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그난 아저씨 아칙이 으섯 시 뒈민 밧듸 갑주게.(그러니 아저씨 아침 여섯 시 되면 밭에 갑지요.)
102012 @ 음.(음.)
102012 #1 난 불살르곡. 아저씬 시끄레 또시 모실포 시끄레 가곡 경허민. 또 아덜은 뚜시 어두와강 인칙 올 땐 와근에 허곡, 경 아녀근에 일요일 날은 오민 아방[102]은 빈 상자 시꺼 오곡 아덜은 뚜시 강 데미곡.(난 불사르고. 아저씬 실으러 다시 모슬포 실으러 가고 그러면. 또 아들은 다시 어두워오면 일찍 올 땐 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날은 오면 남편은 빈 상자 실어 오고 아들은 다시 가서 쌓고.)

102)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02012 @ 음.(음.)
102012 #1 미깡 ᄋᆞ져당 데미곡 경허멍 이제ᄁᆞ장 살단에 아저씨 돌아가부난에 따시 성은 서울 살아지난에 저, 느가 알아근엥에 과수원 다 저 허라. 저 난 저 이디 오랑 어디 허여지커냐? 헨에 아실 문딱 줘붑디다게. 줘부난, 양, 그거 오년 동안, 오년 동안 매날 강은에 저 삼시 허영 멕이곡. 작은아덜 허는 거마씨.(감귤 가져다가 쌓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다가 아저씨 돌아가셔버리니까 다시 형은 서울 살아지니까 저, 네가 알아서 과수원 다 저 하라. 저 난 저 이디 와서 어디 해지겠니?'해서 아우 모두 줘버립디다. 줘버리니까, 예, 그거 오년 동안, 오년 동안 맨날 가서 저 삼시 해서 먹이고. 작은아들 하는 겁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삼시 허명 멕이곡 따시 족은메누린 또 택배허곡.(삼시 하면서 먹이고 다시 작은며느린 또 택배하고.)
102012 @ 음.(음.)
102012 #1 택배 또시 이 욮의서 타멍 택배허곡 경 허여 놓난 막 복잡헙디다게. 복잡허연 허는디 흔 오년 허난에 큰아덜이 들어완에 어느 날 오란에 난, 어머니 나도 농사지쿠다. 그 아시헤에 미깡이 경 잘 달련에.(택배 다시 이 옆에서 따면서 택배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막 복잡합디다. 복잡해서 하는데 한 오년 하니까 큰아들이 들어와서 어느 날 와서는 난, 어머니 나도 농사짓겠습니다. 그 전해에 감귤이 그렇게 잘 달려서.)
102012 @ 음.(음.)
102012 #1 사천오벡 원씩 헨에 저 밧으로 막 타멍 풀앗수다게.(사천오백 원씩 해서 저 밭으로 막 타면서 팔았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픅난 친구덜이 저 아덜덜 친구덜이 막 하 놓난 작은아덜 친구고 큰아덜 친구고 하난 무신 말사 들어신디 농사지쿠덴 허멍 오난에, 야, 느 저 농사 어떵 헹 질디? 이디 오랑 살아사 농살 짓주. 어떵 어멍, 어멍이영 어멍 밥헤주민 먹젠 먹으멍 농살 질차? 어떵허영 농사질지? 경허멍 허난에, 아이 저 나 농사 져야쿠다. 경허멍. 저 훼사에 다념수다게. 훼사에 다니멍 허여 놓난 무신 낭밧 정체가 뒈염수과게?(파니까 친구들이 저 아들들 친구들이 막 많아 놓으니까 작은아들 친구고 큰아들 친구고 많아놓으니까 무슨 말이야 들었는지 농사짓겠다고 하면서 오니까, 야, 너 저 농사 어떻게 해서 질래? 여기 와서 살아야 농살 짓지.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랑 어머니 밥해주면 먹으려고 먹으면서 농살 질래? 어떻게 해서 농사 질래?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저 나 농사 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해 놓으니까 무슨 나무밭 정체가 됩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밧은 막 좋읍니다게. 밧은 좋은디게. ᄒᆞ쏠 궂은 디도 잇어마씸.(밭은 막 좋습니다. 밭은 좋은데. 조금 궂은 데도 있어요.)

102012@ 음, 웃음.(음, 웃음.)
102012 #1 궂은 디는. 오널 아칙이도 아이고, 어떵허영 약을 허코이. 약을 어제도 게 비 ᄒᆞ쏠 와부난게, 간보난에 나도 ᄒᆞ쏠 늦게 갓주게.(궂은 데는.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어떵게 해서 약을 할까. 약을 어제도 비 조금 와버리니까, 가보니까 나도 조금 늦게 갔지.)
102021 @ 음.(음.)
102021 #1 ᄒᆞ꼼 저 청소도 ᄒᆞ쏠 허곡 헤사 멩질을 허여먹을 거난에.(조금 저 청소도 조금 하고 해야 명질을 해먹을 거니까.)
102021 @ 음.(음.)
102021 #1 늦게 간, 전화로 전화 이신 때난 좋아마씸.(늦게 가서, 전화로 전화 있는 때니까 좋아요.)
102012@ 음.(음.)
102012 #1 야, 어디 뭣헴디? 허난, 난 약 헤염시카부덴 허난. 뭣헤염디? 허난에. 미깡 ᄉᆞ꾸단 앚앗수다. 허곤테나 아이고, 약 허라게. 약 허라게. 저 수요일 날 비 온덴 헴시녜.(야, 어디 뭣하니? 하니까, 난 약 하고 있을까봐 하니까. 뭣하니? 하니까. 감귤 솎다가 앉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농약 해라. 농약 해라. 저 수요일 날 비 온다고 하잖니.)
102012 @ 음.(음.)
102012 #1 약 허라게 약을. 이슬 젼마씨. 허난 이슬 이슬 궤차녀다게. 저 미깡 타보난. 나 밧듸 왓저. 이슬 궨차녀다게. 경허난에 겅 ᄀᆞᆯ안 내불엇수다게. 즘즘헹 내부난에 미깡 타단 보난 약을 오란 허여가. 어멍 밧부터 허여 가. 그 저 오벡 평짜리.(농약 치라 농약을. 이슬 져서요. 하니까 이슬 이슬 괜찮다. 저 감귤 타보니까. 나 밭에 왔어. 이슬 괜찮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해서 내버렸습니다. 입 닫고 내버리니까 감귤 따다 보니까 농약을 와서 쳐 가. 어머니 밭부터 쳐 가. 그 저 오백 평짜리.)
102012 @ 음.(음.)
102012 #1 허여가난, 줄 혼듸 ᄃᆞᆼ겨주고.(해 가니까, 줄 함께 당겨주고.)
102012 @ 음.(음.)
102012 #1 아칙인 아이고, 어떵허영 저 약을 다 허코이. 닐ᄁᆞ장, 닐 느만 가근엥에 우린 저 못 갈 거고 느넨 느만 가근엥에 오널 허당 남은 거 문 ᄆᆞ촤야 뒐 건디 널른 것도 저 우터. 저 밧 널른 것도 궂다이. 경 ᄀᆞᆯ으난에.(아침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 농약을 다 할까. 낼까지, 낼 너만 가서 우린 저 못 갈 거고 너네는 너만 가서 오늘 하다가 남은 거 모두 마쳐야 될 건데 너른 것도 저 위. 저 밭 너른 것도 궂다. 그렇게 말하니까.)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아니우다게. 저 궂은 디가 잇어부난에 궂은 디가 셔부난에 경 허지가 궂엇주, 저 큰 밧덜은 삭삭 잘 헤집니다. 경 ᄀᆞᆯ읍디다게.(아닙니다. 저 궂은 데가 있

어버려서 궂은 데가 있어버려서 그렇게 일하기 궂었지, 저 큰 밭들은 삭삭 잘 해집니다. 그렇게 말합디다.)
102012 @ 음.(음.)
102012 #1 경 글으멍 혜연 아칙이 메누리영 혜영 나갓수다. 아칙이 인칙 일어낭 밥혜영 나가 밥을 허여주민 문딱 챙겨근에 문 나갓수다. 물도 막 사당 저 부억에 데명 저 이 집읫 물 안 먹읍니다게.(그렇게 말하면서 해서 아침에 며느리랑 해서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해서 나가 밥을 해주면 모두 챙겨서 모두 나갔습니다. 물도 막 사다가 저 부엌에 쌓고 저 이 집엣 물 안 먹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안 먹어근에 육지 사는 아이라 놓곡 허난. 저 막 데면 놔두난에 저번에 문 먹으난 뚜시 뚜시 완 뚜시.(안 먹어서 육지사는 아이라 놓고 하니까. 저 막 쌓아 놓아두니까 저번에 모두 먹으니까 다시 다시 와서 다시.)
102012 @ 음.(음.)
102012 #1 요흑룩이 사단 뚜시 요 그지게.(요 하루는 사다가 다시 요 그저께.)
102012 @ 음.(음.)
102012 #1 사단 그지게.(사다가 그저께.)
102012 @ 음.(음.)
102012 #1 사단 그지게 왓수다. 그지게.(사다가 그저께 왔습니다. 그저께.)
102012 @ 음.(음.)
102012 #1 그지게 완 어제, 어제 아칙이 비 와부난게 간 무시거 미깡 타단에 앚구렌 허멍 허난게. 앚이민 뒈느냐게. 약을 허라게. 약을 허라.(그저께 와서 어제, 어제 아침에 비 와버리니까 가서 무엇 감귤 따다가 앉았다고 하면서 하니까. 앉으면 되니. 농약을 쳐라. 농약을 쳐라.)
102012 @ 웃음.(웃음.)
102012 #1 약을 오널 허곡 이제 수요일 날 비 온덴 헴쩌.(농약을 오늘 치고 이제 수요일 날 비 온다고 한다.)
102012 @ 예.(예.)
102012 #1 저 오널 허곡 닐 혜영 ᄆᆞ치라. 경허난 약 헙디다게.(저 오늘 치고 낼 쳐서 마치라. 그렇게 하니까 농약 칩디다.)
102012 @ 음.(음.)
102012 #1 약 허연 허난게 오널 다 못헐 거우다.(농약 쳐서 하니까 오늘 다 못할 겁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오널 다 못허여. 혼.(오늘 다 못해. 한.)
102012 @ 워낙 널러부난예?(워낙 널러버려서.)
102012 #1 예, 널러부난 다 못허여. 다 못허여.(예, 널러버려서 다 못해. 다 못해.)

102012 @ 게난 자식은 멧 명마씨? 아이들, 자식은?(그러니까 자식은 몇 명인가요? 아이들, 자식은?)
102012 #1 자식은?(자식은?)
102012 @ 예, 삼춘네.(예, 삼촌네.)
102012 #1 딸 두 개 아덜 두 개.(딸 두 개 아들 두 개.)
102012 @2 아.(아.)
102012 @ 네 명. 어 게민 뚤은 어디 살멘?(네 명. 어 그러면 딸은 어디 삽니까?)
102012 #1 다 서울 살암수다게.(다 서울 삽니다.)
102012 @ 아, 뚤들도?(아, 딸들도?)
102012 #1 예.(예.)
102012 @ 으음.(으음.)
102012 #1 경허난 잘도 궂수다게. 나 젊을 때는, 젊은 때는 아무 분시도 몰라신디 이제는 나이 들어가난 뚤덜이라도 어염에 셔시민 허여졈수다게.(그러니까 잘도 궂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젊은 때는 아무 분수도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가니까 딸들이라도 근처에 있었으면 해집니다.)
102012 @ 맞아.(맞아.)
102012 #1 예게. 겐디 이 작은아덜 혼 둘에 혼 번도 못 봅니다. 요디 살아도.(예. 그런데 이 작은아들 한 달에 한 번도 못 봅니다. 요기 살아도.)
102012 @ 음.(음.)
102012 #1 혼 번. 과수원이 가깝수다게. 요 저 탄산온천 알아집니꽝?(한 번. 과수원이 가깝습니다. 요 저 탄산온천 알아집니까?)
102012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2 #1 탄산온천 그 우쪽이우다게.(탄산온천 그 위쪽입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바로 바로 우쭉.(바로 바로 위쪽.)
102012 @ 음.(음.)
102012 #1 게난 요디 가민 기난에.(그러니까 요기 가면 기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그디도 못 걸어강 오도바이 타고 뎅겸수다게.(거기도 못 걸어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102012 @ 게난 뚤덜은 씨집이 다 여기 제주도꽈?(그러니까 딸들은 시집이 다 여기 제주돕니까?)
102012 #1 아니우다게, 서울마씸게. 아, 저 하난 하난 하난 이딧 사름. 저 족은뚤은 이딧 사름이우다.(아닙니다, 서울이요. 아, 저 하난 하난 저 하난 여기 사람. 저 작은딸은 여기 사람입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이딧 사름, 이딧 사름이고. 하난 저 공무원이라 놓난에. 경헤도 저 맞

벌이헤마씨.(여기 사람, 여기 사람이고. 하난 저 공무원이라 놓으니까. 그래도 저 맞벌이해요.)
102012 @ 음.(음.)
102012 #1 다 간호원덜. 저 무시거 간호원으로 그냥 들어간에 저 이제도록 이제도 허염수다게. 이제도.(다 간호사들. 저 무엇 간호사로 그냥 들어가서 저 이제도록 이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102012 @ 아.(아.)
102012 #1 뚤이 이제 이제 쉬은넷이우다. 이제.(딸이 이제 이제 쉰네 살입니다. 이제.)
102012 @ 음.(음.)
102012 #1 뚤이 쉬은넷이난에 쉬은넷 나도 이제도 그디서 잡앙은엥에 나오질 못헴젠 헴수게.(딸이 쉰넷이니까 쉰넷이 되도 이제도 거기서 붙잡아서 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102012 @ 예.(예.)
102012 #1 내치질 아념젠마씨. 게난 삭삭허곡양 뚤이.(내치질 않는대요. 그러니까 싹싹하고요 딸이.)
102012 @ 음.(음.)
102012 #1 큰뚤도 삭삭혜여 놓난에.(큰딸도 싹싹해 놓으니까.)
102012 @ 으.(으.)
102012 #1 홈치 원원 내치질 아녕 군인 갓수다게. 막 저 씨집도 결혼도 경 제게 아넷수다. 막 늦게 헷수다.(한꺼번에 원원 내치질 않아서 군인 갔습니다. 막 저 시집도 결혼도 그렇게 빨리 안했습니다. 막 늦게 했습니다.)
102012 @ 음.(음.)
102012 #1 늦게 헤 놓난에 아기도 이제사 군인 간에 일 년 살고, 일 년 살고 이제 뚤은 따시 이제 무신 이제 공무원, 공무원 시험 봠젠 헙니다. 이제.(늦게 해 놓으니까 아기도 이제야 군인 가서 일 년 살고, 일 년 살고 이제 딸은 다시 이제 무슨 이제 공무원,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합니다. 이제.)
102012 @ 음.(음.)
102012 #1 시험 봠젠 허고 막 늦게 갓수다게. 서른에 가난게.(시험 본다고 하고 막 늦게 갔습니다. 서른에 가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게난에 아이덜이 아직은 어련마씨게.(그러니 아이들이 아직은 어립니다.)
102013 @ 그치룩허고. 삼춘, 씨집살이도 헙디가? 씨어머니한테 구박도 받아봔? 웃음.(그렇고. 삼촌, 시집살이도 합디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도 받아봤어요? 웃음.)
102013 #1 우리 씨어머님 진짜 너무 구박헙디다. 너미 구박헤연.(우리 시어머님 진짜 너무 구박합디다. 너미 구박해서.)

102013 @ 으.(으.)
102013 #1 주는 게 엇어.(주는 게 없어.)
102013 @ 음.(음.)
102013 #1 주는 게 하나도 엇어. 셍전. 엿날에사게 돈 날 디 잇수가게? 아기덜 하 놓곡 허난. 아기덜 하 놓고 허난. 뒈지새끼도 다 돈 받고.(주는 게 하나도 없어. 생전. 옛날에야 돈 날 데 있습니까? 아기들 많아 놓고 하니까. 아기들 많아 놓고 하니까. 돼지새끼도 다 돈 받고.)
102013 @ 음.(음.)
102013 #1 솔입 헤당 저 엿날에사 솔입헤당 이디 눌어도.(솔잎 해다가 저 옛날에야 솔잎 해다가 여기 가려도.)
102013 @ 음.(음.)
102013 #1 그거 빵 짇으렌 아녀고. 나냥으로 나무.(그거 뽑아 때라고 않고. 나대로 나무.)
102013 @ 음.(음.)
102013 #1 나무가 드릇팟듸 얼마나 하낫수광게. 게난 나무 허여당 ᄒᆞ루 두 짐 썩.(나무가 들판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나무 해다가 하루 두 짐씩.)
102013 @ 음.(음.)
102013 #1 ᄒᆞ루 두 짐썩 나무 허여근엥에 이 집이, 이 집의 살민 앞의 저 과짝 세와근엥에.(하루 두 짐씩 나무 해다가 이 집에, 이 집에 살면 앞에 저 곧게 세워서.)
102013 @ 음.(음.)
102013 #1 나무도 저 난 젊은 때부터 난 나무만 헤연 살아 놓난 낭을 무꺼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아녀게 곱닥허게 확 허여도.(나무도 저 난 젊은 때부터 난 나무만 해서 살아 놓으니까 나무를 묶어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게 곱다랗게 확 해도.)
102013 @ 음.(음.)
102013 #1 곱닥허게 무껑은엥에 허민 야이 손재주가 너믜 좋덴.(곱다랗게 묶어서 하면 얘 손재주가 너무 좋다고.)
102013 @ 음.(음.)
102013 #1 아니 어린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 어디 강은에 어디 저 미승이나 상 줭 내불렌. 상 줭 내불민 저 손재주가 좋아 놓난 아무 디 강도 살켄.(아니 어린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 어디 가서 어디 저 재봉틀이나 사서 줘서 내버리라고. 사 줘서 내버리면 저 손재주가 좋아 놓으니 아무 데 가도 살겠다고.)
102013 @ 음.(음.)
102013 #1 경허멍 드러 굴아낫수다게. 어디 강 들으민 그치룩 경 손재주가 좋아 근엥에 아무 거라도 잘 헤여근엥에 옷이라도 허곡 벨거라도 허켄 허여신디 경 저 무시거 춤 저 무시거 그 옛날은게 그 광목으로양.(그러면서 들이 말했었습니다. 어디 가서 들면 그처럼 그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아무 거라도 잘 해서 옷이라도 하고

별거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 무엇 참 저 무엇 그 옛날은 그 광목으로요.)
102013 @ 예.(예.)
102013 #1 그 광목으로 씨어머님이 광목으로 허여근에 저 두루막도 광목으로.(그 광목으로 시어머님이 광목으로 해서 저 두루마기도 광목으로.)
102013 @ 예.(예.)
102013 #1 또 이디 저.(또 여기 저.)
102013 @2 점뱅이?(잠방이?)
102013 #1 바지저고리도 광목으로.(바지저고리도 광목으로.)
102013 @ 음.(음.)
102013 #1 거 아기 둘곡 헤도 손으로 문딱 멘들앙은에 신랑 입져나수다게.(거 아기 데리고 해도 손으로 모두 만들어서 신랑 입혔었습니다.)
102013 @ 음.(음.)
102013 #1 이 저 구정 정초 돌아오라 가민 거 문딱 만들앙. 다 만들아근엥에 손으로 다 만들곡. 첫 번에 오난에 저 씨할마님이 미녕 흔 빌 줍디다게.(이 저 구정 정초 돌아와 가면 거 모두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손으로 다 만들고. 첫 번에 오니까 저 시할머님이 무명 한 필 줍디다.)
102013 @ 음.(음.)
102013 #1 미녕 흔 빌주난에 그걸로 갈중의[103], 갈중의도 나냥으로 다 만들앙은에.(무명 한 필을 주니까 그걸로 '갈중의', '갈중의'도 나대로 다 만들어서.)
102013 @ 음.(음.)
102013 #1 만들앙 나냥으로 몰르곡 나냥으로 만들앙 다 갈중의도 나냥으로 만들앙. 엿날은 갈중의벳긔 더 입엇수가게.(만들어서 나대로 마르고 나대로 만들어서 다 '갈중의'도 나대로 만들었어. 옛날은 '갈중의'밖에 더 입었습니까.)
102013 @ 음.(음.)
102013 #1 게난 갈중의도 다 만들앙 입지곡. 우의 거. 우의 거는 뚜시 광목 짤라당은에 저 우의 거를 저 어디 간 가다[104] 떠다근에 가다 놩은에 몰라근엥에 그걸로 저 저 물 들여근엥에.(그러니 '갈중의'도 다 만들어서 입히고. 위엣 거. 위엣 거는 다시 광목 잘라다가 저 위엣 거를 저 어디 간 틀 떠다가 틀 놓아서 마르고 그걸로 저 저 물 들여서.)
102013 @ 음.(음.)
102013 #1 물 들여근에 우의 건 입곡. 경허멍 저 엿날은 프는 거 엇어낫수다게.(물 들여서 위엣 건 입고. 그렇게 하면서 저 옛날은 파는 거 없었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1 그 이제는 뭐 싼 것덜토 하곡 그 저 어디 농장에 입을 거 하주마는 옛날은양 그런 거 엇입디다게.(그 이제는 뭐 싼 것들도 많고 그 저 어디 농장에 입

103)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었다.
104) '가다'는 일본어 'かた' 에서 온 말이다. 표준어로는 틀의 의미다.

을 거 많지만 옛날은요 그런 거 없습디다.)
102013 @ 음.(음.)
102013 #1 엇으난 그 광목허고 미녕허곡 그런 걸로만 허여근엥에 저 옷 허멍 입정은에 입곡 나도 입곡 헷수다게. 경 감 들여근에양 감들영 입곡. 감 들영 풀 죽이젠 허민 저 마에 좀 입어사.(없으니까 그 광목하고 무명하곡 그런 걸로만 해서 저 옷 만들면서 입혀서 입고 나도 입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물 들여서 감물 들여서 입고. 감물 들여서 풀 죽이려고 하면 저 마에 좀 입어야.)
102013 @ 음.(음.)
102013 #1 ᄒᆞ꼼 풀어지곡 허여낫수다게. 게, 이 더운 때는 못 입어마씸. 더와근에.(조금 풀어지고 했었습니다. 게, 이 더운 때는 못 입어요. 더워서.)
102013 @ 음.(음.)
102013 #1 겐디.(그런데.)
102014 @ 겡헤근에 그 자식덜은 결혼 다 시킨 거고예?(그렇게 하고 그 자식들은 결혼 다 시킨 거고요?)
102014 #1 예게.(예.)
102014 @ 음.(음.)
102014 #1 결혼 다 시겨도 나는 자식덜 뭐 주는 걸 잘 헤여마씸. 잘 헤여.(결혼 다 시켜도 나는 자식들 뭐 주는 걸 잘 합니다. 잘 해요.)
102014 @ 음.(음.)
102014 #1 주는 것도 잘허곡 먹으라, 먹으라. 오늘 아척이도 계란 어제 아척인 계란을 ᄒᆞᆫ 열 갠 솖아신디 메누리가 안 ᄀᆞ정간 거라마씸게.(주는 것도 잘하고 먹으라, 먹으라. 오늘 아침에도 계란 어제 아침엔 계란을 한 열 갠 삶았는데 며느리가 안 가져간 겁니다.)
102014 @ 음.(음.)
102014 #1 아덜이 경 좋아험디다게.(아들이 그렇게 좋아합디다.)
102014 @ 음.(음.)
102014 #1 계란을 세 판일 상와서마씸게.(계란을 세 판을 사왔습니다.)
102014 @ 아.(아.)
102014 #1 그지게 온 때에.(그저께 온 때에.)
102014 @ 아.(아.)
102014 #1 그지게 저 장[105] 아니우꽈?(그저께 저 장 아닙니까?)
102014 @ 아.(아.)
102014 #1 모실포장이주게. 그지게 장이난에 십일일장.('모슬포'장이지. 그저께 장이니까 십일일 장.)
102014 @ 음.(음.)
102014 #1 게난 가네도 장 보레 왓주마는 나도 바빠근에 ᄀᆞ만이 앚아집니까? ᄀᆞ

105) 여기서 '장'은 오일장을 말한다.

만이 앚질 못허연 시에 저 병원에 약 받으레 갓당양, 초기여 뭐 옥돔이여 무시거영 산에 약 받으레 가난 또 비가 ᄒᆞ꼼씩 옵디다게. 오난에 또 그걸 또 무리카부덴 ᄃᆞ시 병원에 간에 저 ᄒᆞ꼼 오래 오꼿 시간이 두 밧듸 뎅기난에.(그러니까 걔네도 장보러 왔지만 나도 바빠서 가만히 앉아집니까? 가만히 앉질 못해서 제주시에 저 병원에 약 받으러 갔다가요, 버섯이여 뭐 옥돔이여 무엇이랑 사서 약 받으러 가니까 또 비가 조끔씩 옵디다. 오니까 또 그걸 또 무를까봐 다시 병원에 간에 저 조끔 오래 그만 시간이 두 군데 다니니까.)

102014 @ 음.(음.)

102014 #1 열흔 시 뒈난 간보난에 이빠이[106] 저 손님이 차부난. 아이고, 이거 큰일 낫저. 저 그 간호사보고 냉장고 저 시냐? 경허난 잇수덴. 허난. 이거, 이거 냉장고에 좀 놔주라. 이거 무시거 저 옥돔영 무신 거라부난 무렴직 허덴 경허멍 허연 냉장고에 봇단에 올 땐 줍디다게.(열한 시 되니까 가서보니까 가득 저 손님이 차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그 간호사보고 냉장고 저 있니? 그렇게 하니까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 달라. 이거 무엇 저 옥돔이랑 무슨 거라 버려서 무름직 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올 땐 줍디다.)

102014 @ 예.(예.)

102014 #1 주난에 ᄒᆞ젠 허난에 우리 메누린 어머니, 안 사도 뒈는디 웨 그렇게 저 삿어요. 느 어느제 올 덴 애기를 헤야 허주게 어느 때 올땐도 아녀난 어멍은 경ᄀᆞ만이 앚아지느냐? 경 저 무시건 뭣도 삿어요, 뭣도 삿어. 다 삿저게. 다 그런 거 준 것덜은 다 삿저게. 잡채에 놓을 거 무시거.(주니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린 어머니, 안 사도 되는데 웨 그렇게 저 샀어요. 네가 언제 올 때는 얘기를 해야 하지 어느 때 온다고도 않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지겠느냐? 그렇게 저 무엇 뭣도 샀어요, 뭣도 샀어. 다 샀지. 다 그런 거 잔 것들은 다 샀지. 잡채에 넣을 거 무엇.)

102014 @ 음.(음.)

102014 #1 초기도 삽디가? 허난 것도 삿저게. 것도 사고. 당근이영 뭐 허레 삽니까? 거기서.(버섯도 삽디까? 하니까 것도 샀지. 것도 사고. 당근이랑 뭐 하러 삽니까? 거기서.)

102014 @ 웃음.(웃음.)

102014 #1 당근이영 무슨 뭐뭐 저 동태포영 다 떠 놘에 문 ᄋᆞ져오젠 허난 초기도 ᄒᆞ꼼만이라도 사주, 막 하영 사난에.(당근이랑 무슨 뭐뭐 저 동태포랑 다 떠 놓아서 모두 가져오려고 하니까 버섯도 조끔만이라도 사지, 막 많이 사니까.)

102014 @ 웃음.(웃음.)

102014 #1 ᄋᆞ져단 냉장고에 막 담앙 지금 잇수다게. 게난.(가져다가 냉장고에 막 담아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014 @ 음.(음.)

---

106) '이빠이'는 일본어 'いっぱい'인데 우리말 '가득'을 말한다.

102014 #1 아이고, 장에 갈 중 알아시민 거 안 상와도 좋을 건디게 경 안 상와졋젠 허멍. 허연 장에 강 뭐뭐 나가 안 가민 사지 못헙니다게.(아이고, 장에 갈 줄 알았으면 거 안 사서와도 좋을 건데 그렇게 안 사와졌다고 하면서. 해서 장 장에 가서 뭐뭐 내가 안 가면 사지 못합니다.)
102014 @ 예.(예.)
102014 #1 나가 같이 가야. 같이 가민 뭐뭐 살 거만 알아근엥에 문 상옵니다게.(내가 같이 가야. 같이 가면 뭐뭐 살 거만 알아서 모두 사옵니다.)
102015 @ 메누리허고 사위들은 어떵헤마씨?(며느리하고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102015 #1 사위. 큰 사위는 막 좁니다게.(사위. 큰 사위는 막 좋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전화 잘 와. 이번에 와갓수다게.(전화 잘 와. 이번에 와갔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여름에 덥기 전에. 덥기 전에 완에 나도 흔듸 여행 가왓수다.(여름에 덥기 전에. 덥기 전에 와서 나도 함께 여행 가왔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저 차양, 저 그 여행사로만 이젠 전화가 좋곡 컴퓨터 셔놓난에 그 여행사 차에 와십디다.(저 차요, 저 그 여행사로만 이젠 전화가 좋고 컴퓨터 있어놓으니까 그 여행사 차에 왔습디다.)
102015 @ 음.(음.)
102015 #1 오난에 집의 오란에 ᄒᆞ룻밤 살고 뒷날은 어머니도 걸읍센 헨에 간보난에 첨 그 여행사 차 저 작은메누리가 어디 시꺼갑디다게. 저 동, 저 서광[107], 서광 ᄒᆞ쏠 서펜이 가난에 그 차가 이십디다게.(오니까 집에 와서 하룻밤 살고 뒷날은 어머니도 가십사고 해서 가보니까 참 그 여행사 차 저 작은며느리가 어디 실어갑디다. 저 동, 저 서광, 서광 조금 서쪽에 가니까 그 차가 있습디다.)
102015 @ 음.(음.)
102015 #1 게난 그 차로허연에 문 여행허고 헷수다게. 허연에 또 ᄯᅳ시 또 떨어젼에 따시 아덜이영 저 춤 뚤이영 그 사위영 이디 오란 또 살안 갓수다게.(그러니 그 차로해서 모두 여행하고 했습니다. 해서 또 다시 또 떨어져서 다시 아들이랑 저 참 딸이랑 그 사위랑 여기 와서 또 살다가 갔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살안 ᄒᆞᆫ 일주일 살안 갓수다게.(살다가 한 일주일 살다가 갔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살안 가고. 또 작은뚤은 또 훼산가 무시거 놔 놓난 또 바빠근엥에, 전화 어제도 왓길래. 오라게, 왕 ᄒᆞ쏠 살단 가라게. 허난에 바빤 못 감수게 바빤. 게난 야, 저 무시거 어디 옵디가? 경 허ᄀᆞ데, 야, 나 이제사 왓저마는 저 미깡 너미 올아

107)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이다.

놓난 미깡 탐쩌게, 미깡 맛은 들엇져마는 원 이치록 영 풀지 못허염쩌. 풀지 못허연에 이거 준 거 따불어사 픗나 무시거 허주. 약도 오빠 잘 아녀부난 막 궂고 허다. 경허멍 허난 오빠 올 때랑 흑쏠 보냅서. 먹어보게. 허난 손으로 다 무지렁 바빵 일도 못허염쩌.(살다가 가고. 또 작은딸은 또 회산가 무엇 놓아 놓으니까 또 바빠서, 전화 어제도 왔기에. 오렴, 와서 조금 살다가 가라. 하니까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야, 저 무엇 어디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야, 나 이제야 왔지만 저 감귤 너무 열어 놓으니 감귤 따고 있지, 감귤 맛은 들었다만 원 이처럼 이렇게 팔지 못하고 있지. 팔지 못해서 이거 잔 거 따버려야 파나 무엇 하지. 약도 오빠 잘 않아버려서 막 궂고 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오빠 올 때랑 조금 보내세요. 먹어보게. 하니까 손으로 다 무지르고 바빠서 일도 못하고 있어.)

102015 @ 웃음.(웃음.)

102015 #1 손으로 문딱 무지려 논 거 게난 읏져가지느냐? 그거 줏어와져? 줏어오지도 못허영.(손으로 모두 무지르고 놓은 거 그러니 가져가지겠니? 그거 주어와지겠어? 주어오지도 못해서.)

102015 @ 음. 그치룩 허여근에 헌 거예? 잠깐만예.(음. 그처럼 해서 한 거요? 잠깐만요.)

3. 밭일

103001 @ 옛날 밧일 하영 헷잖아야예, 어떤 일들 하영 헷수가?(옛날 밭일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일들 많이 했습니까?)

103001 #1 밭일.(밭일.)

103001 @ 예.(예.)

103001 #1 밧일 옛날은 그 조 갈곡 보리 갈곡 콩 갈곡 고구마 싱그곡 그 저 콩밧듸 그 꿰도 뜨로 갈 중 몰라근에 그 콩씨에 꿰 하나썩 영영 젓어근에 뿌렁 놔두민 꿰 하나썩 나민 그거 강 흑나씩 꿰가 믁녀 익읍주게. 콩보단. 그 꿰 헤여당은에 보깡 먹곡. 흑쏠 하영 나오민 옛날은 저 꿰지름이 어디 잇수강게. 저 유채지름.(밭일 옛날은 그 조 갈고 보리 갈고 콩 갈고 고구마 심고 그 저 콩밭에 그 참깨도 따로 갈 줄 몰라서 그 콩씨에 참깨 하나씩 이렇게이렇게 저어서 뿌려서 놔두면 참깨 하나씩 나면 그거 가서 하나씩 참깨가 먼저 익습지요. 콩보단. 그 참깨 해다가 볶아서 먹고. 조금 많이 나오면 옛날은 저 참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유채기름.)

103001 @ 예.(예.)

103001 #1 유채지름 먹곡 농장 한 사름은 꿰지름. 우리는 저 꿰지름 많이 먹엇수다게.(유채기름 먹고 농장 많은 사람은 참기름. 우리는 저 참기름 많이 먹었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경허영 허는디 그 검질을 제와근에양?(그렇게 하는데 그 잡초가 겨워

서요?)
103001 @ 예.(예.)
103001 #1 저 유채, 그 이제 제초제가 안 나 놓난.(저 유채, 그 이제 제초제가 안 나와 놓으니까.)
103001 @ 음.(음.)
103001 #1 옛날은 제초제가 안 나 노난 매 밧듸 강 검질메젠 허민 고구마 싱근 디는 질 깍에 메곡 콩 싱근 디는 질 깍에 메곡. 또 조팟듸는 빨리 메야 뒈여마씨.(옛날은 제초제가 안 나와 놓으니까 모든 밭에 가서 김매려고 하면 고구마 심은 데는 젤 끝에 매고 콩 심은 데는 젤 끝에 매고. 또 조밭에는 빨리 매야 됩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조는 소꽈줘야 뒈니까.(조는 솎아줘야 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이 사이로 이 사이로 하나씩 ᄉᆞ꽈줘야 뒈니까. 조팟은 안 메민 노랑허영 뒈질 아녑니다게.(이 사이로 이 사이로 하나씩 솎아줘야 되니까. 조밭은 안 매면 노래져 되질 않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뒈질 아녀난에 조컴질메당 보면은 콩 검질도 ᄀᆞ득고 ᄯᅳ시 고구마 싱근 디도 ᄀᆞ득고.(되질 않으니까 조 김매다가 보면 콩 김도 가득하고 다시 고구마 심은 데도 가득하고.)
103001 @ 으.(으.)
103001 #1 경허영은에 강, 또 그 고구마 밧듸 강 메가민 고구마가 드는 것이 나와마씨. 나와.(그렇게 해서 가서, 또 그 고구마 밭에 가서 매가면 고구마가 드는 것이 나옵니다. 나와요.)
103001 @ 예.(예.)
103001 #1 검질에 나와.(김에 나와요.)

보리농사

103002 @ 알아수다. 게믄, 게믄 하나씩 물어보쿠다예.(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03002 #1 예.(예.)
103002 @ 게믄 삼춘 그 옛날 여기도 보리 하영 갈앗수가?(그러면 삼촌 그 옛날 여기도 보리 많이 갈았습니까?)
103002 #1 아이고, 보리 하영 갈앙. 어느 집인 멧 바리. 엿날은 멧 바리, 멧 바리 허민게.(아이고, 보리 많이 갈아서. 어느 집엔 몇 바리. 옛날은 몇 바리, 몇 바리 하면은.)
103002 @ 에, 멧 바리예?(예, 몇 바리요?)
103002 #1 멧 바리.(몇 바리.)

103002 @ 게믄 그 보리용시 허젠 여기 용시, 농시? 용시렌 헤? 이 동네도.(그러면 그 보리농사 하려고 여기 용시, 농사? 용시라고 해? 이 동네도.)
103002 #1 보리, 보리농사.(보리, 보리농사.)
103002 @ 음, 보리농사. 그거 하젠 허면 준비 허는 거는 어떤 거 잇수가?(음, 보리농사. 그거 하려고 하면 준비 하는 거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3002 #1 준비?(준비?)
103002 @ 으.(으.)
103002 #1 그 뒈지.(그 돼지.)
103002 @ 으.(으.)
103002 #1 검은뒈지나 아무 뒈지라도 검은 뒈지주게. 주로.(검은돼지나 아무 돼지라도 검은 돼지지. 주로.)
103002 @ 예.(예.)
103002 #1 저 돗통.(저 돼지우리.)
103002 @ 예.(예.)
103002 #1 돗통 이렇게 담 다가지고 또 저 그 저 변 보는 딘, 돌 이렇게 돌 놔근에.(돼지우리 이렇게 담 쌓아가지고 또 저 그 저 변 보는 데는, 돌 이렇게 돌 놓아서.)
103002 @ 음.(음.)
103002 #1 이렇게 돌 놔근에 거기 앚앙 저 변 봐 가민 도새긴 들어올 거 아니우꽈?(이렇게 돌 놓아서 거기 앉아서 저 변 봐 가면 돼지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들어와 가민 막뎅이로 때리지 아녀민 그 똥 싸는 거 닥닥 털민 옷더레 다 가곡게.(들어와 가면 막대기로 때리지 않으면 그 똥 싸는 거 닥닥 털면 옷들에 다 가고요.)
103002 @ 음.(음.)
103002 #1 겨난 그디 저 막데기 하나 놔둠서 떼리멍 허여근에 저 소를 많이 질루난.(그러니 거기 저 막대기 하나 놔둠서 때리면서 해서 저 소를 많이 기르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그 소걸름을 그 저 뒈지 질루는 디레 다 들여마씨.(그 소두엄을 그 저 돼지 기르는 데 다 들입니다.)
103002 @ 음.(음.)
103002 #1 들여근엥에 그 저 뒈지걸름 마당에 내영.(들여서 그 저 돼지거름 마당에 내어서.)
103002 @ 음.(음.)
103002 #1 마당에 내여근엥에 보리씨.(마당에 내어서 보리씨.)
103002 @ 예.(예.)
103002 #1 보리씨 그레 다 삐영.(보리씨 그리로 다 뿌려서.)

103002 @ 예.(예.)
103002 #1 그 걸름더레 다 삐여근엥에, 저 물 좀 ᄆᆞᆯ르민 물 져당은에.(그 거름에 다 뿌려서, 저 물 좀 마르면 물 져다가.)
103002 @ 음.(음.)
103002 #1 물 져다근에 그거를 물 맞촹은에 물 맞촤근에 ᄆᆞᆫ 물도 어디 물이 셧수가게. 물이 엇엉 멀리 강 져 와야 뒈여마씨. 져당은에 그 걸름더레 물 ᄆᆞᆫ딱 뿌리멍 소로 ᄇᆞᆯ려마씨. ᄇᆞᆯ려.(물 져다가 그거를 물 맞춰서 물 맞춰서 모두 물도 어디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멀리 가서 져 와야 됩니다. 져다가 그 거름에 물 모두 뿌리면서 소로 밟아요. 밟아.)
103002 @ 예.(예.)
103002 #1 ᄇᆞᆯ려근엥에 그거를 또 데며 또.(밟아서 그거를 또 쌓아 또.)
103002 @ 음.(음.)
103002 #1 이렇게 데며 놔근에 소에 시끌라면은 걸름착[108]. 걸름착.(이렇게 쌓아 놔서 소에 실으려면 '걸름착'. '걸름착'.)
103002 @ 음.(음.)
103002 #1 그 이만, 이만씩 헌 걸름착에 담아근엥에 이 소가 이거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부쪄가지고 그 소 두 개민 두 개민 네 짝헤야 시끌 거 아니우꽈? 게난 그걸로 시꺼다근엥에 그 밧듸도 이만이 뿌리민 이만이 푸민 저만이 푸고 그 소로 ᄆᆞᆫ딱 시끄멍.(그 이만, 이만씩 한 '걸름착'에 담아서 이 소가 이거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소 두 마리면 두 마리면 네 짝해야 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로 실어다가 그 밭에도 이만큼 뿌리면 이만큼 푸면 저만이 푸고 그 소로 모두 실으면서.)
103002 #1 그 질도 막 적어 놓난 질도 적어 놓노난 족은 질로 막 훌터 뎅기멍 밧듸 강은에 영 손으로, 그 걸름을 손으로 놓젠 허민 눈 막, 눈 막 눈 많이 와도 얼류지 아넘니까.(그 길도 막 좁아 놓으니까 길도 좁아 놓으니까 작은 길로 막 홅어 다니면서 밭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그 거름을 손으로 놓으려 하면 눈 막, 눈 막 눈 많이 와도 얼지 않습니까.)
103002 @ 예예.(예예.)
103002 #1 얼류난양 기냥 장갑이 어디 잇수가? 엿날에. 그 손으로 영영 비벼야 뒈. 비벼. 비벼근에 ᄀᆞᆯ체.(얼리니까요 그냥 장갑이 어디 있습니까? 엿날에. 그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비벼야 돼. 비벼. 비벼서 삼태기.)
103002 @ 음.(음.)
103002 #1 ᄀᆞᆯ체 이렇게 이렇게 ᄀᆞᆯ체를 이렇게 창.(삼태기 이렇게 이렇게 삼태기를 이렇게 차서.)
103002 @ 아, 허리에 차, 골체를예?(아, 허리에 차, 삼태기를요?)
103002 #1 ᄀᆞᆯ체, ᄀᆞᆯ체 이만은헌 ᄀᆞᆯ체 이렇게 허리에 차근에 거 담젱 허민 영 허

108) '걸름착'은 거름을 담아 나르는 데 쓰는 멱둥구미를 말하는데, 달리 '거름착'이라고도 한다.

영 영 허영 이렇게 허영 담아마씨.(삼태기, 삼태기 이만한 삼태기 이렇게 허리에 차서 거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담아요.)
103002 @ 음.(음.)
103002 #1 담앙근에 일어사근에 골로로.(담아서 일어서서 골고루.)
103002 @ 예.(예.)
103002 #1 골로로 착착착착 착착착착 이거 영 줴영은에 비병 착착착착 헤근에. 경 아녀도 뒈는 건디 그치룩 경 고셍을 헷수다게.(골고루 착착착착 착착착착 이거 이렇게 쥐어서 비벼서 착착착착 해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103002 @ 예.(예.)
103002 #1 그치룩 헤근에 보리 갈앙근에 허민 이 집이, 이거, 이거 부젯집이라 놓난 이거 뭐 멧 바리, 멧 바리.(그처럼 해서 보리 갈아서 하면 이 집이, 이거, 이거 부잣집이라 놓으니까 이거 뭐 몇 바리, 몇 바리.)
103002 @ 예.(예.)
103002 #1 엿날은 멧 바리, 멧 바리.(옛날은 몇 바리, 몇 바리.)
103002 @ 게믄 멧 바리를 헨마씨?(그러면 몇 바리를 했습니까?)
103002 #1 경허민 흔 쉬은 바리 예순 바리 그치룩 허여마씨. 경허영 눌당은엥에 문딱 멜라지기 허곡양.(그렇게 하면 한 쉰 바리 예순 바리 그처럼 해요. 그렇게 해서 가리다가 모두 무너지기도 하고요.)
103002 @ 음.(음.)
103002 #1 지르르 허게시리 문 그 문 멜라지기도 허곡 허영은에, 허여당 놉 빌엉 홀타마씨, 놉 빌엉.(자르르하게끔 모두 그 모두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해다가 놉 빌어서 홅아요, 놉 빌어서.)
103002 @ 음.(음.)
103002 #1 놉 빌엉은에 먹을 건 잇수가? 옛날에 순다리[109].(놉 빌어서 먹은 건 있습니까? 옛날에 순다리.)
103002 @ 예.(예.)
103002 #1 순다리 헤 놔근엥에 저 그 밥헤영 순다리 헤여 놔근엥에, 순다리 안네멍 우리 보리 홀타수다게.('순다리' 해 놓아서 저 그 밥해서 '순다리' 해 놓고, '순다리' 드리면서 우리 보리 홅았습니다.)
103002 @ 예.(예.)
103002 #1 친정에도 보리 하고 이 시집이도 보리 하고 허민 나는 보리 줴는 사름.(친정에도 보리하고 이 시집에도 보리 하고 하면 나는 보리 쥐는 사람.)
103002 @ 음.(음.)
103002 #1 줴는 사름 허영 이 시집의 거 줴여나민 또 친정에 강 줴곡. 우리 씨아바님은 따시 메타로 허영.(쥐는 사람 해서 이 시집엣 거 쥐어나면 또 친정에 강 쥐

109)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하는데, 달리 '쉰다리'라고도 한다.

고. 우리 시아버님은 다시 탈곡기로 해서.)
103002 @ 음.(음.)
103002 #1 메타로 두드리고. 경허민 저 친정에도 또 저 우리 씨아바님 빌엉 두드리곡. 경허멍 저 살앗수다게.(탈곡기로 두드리고. 그러면 저 친정에도 또 저 우리 시아버님 빌어서 두드리고. 그러면서 저 살았습니다.)
103003 @ 예, 게믄 삼춘, 아까 이제 보리밧 걸름허게 뒈면 건 어떵 준비헌 거라 마씨? 걸름 멘들젠 허면 어떵 헷수가?(예, 그러면 삼춘, 아까 이제 보리밭 거름하게 되면 건 어떻게 준비한 건가요? 거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3003 #1 아까 얘기헷는데.(아까 얘기 했는데.)
103003 @ 게난 보리 짓 주고 허는 거. 이런 거 골아줍서? 짓 주는 건 뭘로?(그러니까 보리 깃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말해주세요? 깃 주는 건 뭘로?)
103003 #1 아, 소. 소는 소 멕이는 촐은 틀려마씨.(아, 소. 소는 소 먹이는 꼴은 달라요.)
103003 @ 아니, 아니. 그 걸름 멘들젠 허면 무신 걸로 주는 거?(아니, 아니. 그 거름 만들려고 하면 무슨 걸로 주는 거?)
103003 #1 그거 얘기헷는데.(그거 얘기했는데.)
103003 @ 아.(아.)
102003 #1 저 그 소, 소는 촐 뚜로 뚜로 헷당은에 촐 빠멍 주민 그것도 촐 빠멍 주민 촐은 먹곡 보리낭.(저 그 소, 소는 꼴 따로 따로 했다가 꼴 뽑으면서 주면 그것도 꼴 빼면서 주면 꼴은 먹고 보릿짚.)
103003 @ 음.(음.)
103003 #1 보리낭 눌엇다근에 보리낭은 그 오줌 싸곡 똥 싸곡 허민 소 누을 디가 엇이민 그걸 다 끌아 가민 그디가 막 이만이 노파 가민 그거를 저 그 저 돗통더레.(보릿대 가렸다가 보릿대는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소 누울 데가 없으면 그걸 다 깔아 가면 거기가 막 이만큼 높아 가면 그거를 저 그 저 돼지우리에.)
103003 @ 음.(음.)
103003 #1 돗통더레 그걸 담아다 놔마씸. 담아다 놓민 그거 그거 헤당 그 마당디레 문딱 내영은에 골체로 문딱 들러당은에 내영은에 물르민 물주멍.(돼지우리에 그걸 담아다 넣어요. 담아다 넣으면 그거 그거 해다가 그 마당에 몽땅 내어서 삼태기로 몽땅 들어다가 내어서 마르면 물주면서.)
103003 @ 음.(음.)
103003 #1 물주멍 경허영 만들앙은에 문딱 쌓아 놔근에 거 즌근즌근 밧듸 우져다근엥에.(물주면서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모두 쌓아 놓고 거 차근차근 밭에 가져다가.)
103003 @ 음.(음.)
103003 #1 그자 그레저레 저레 무딱 골로로 퍼 놩 그걸 이제 착착 허멍. 헌디 경 아녀도 뭴 건디 영 허영 갈르민 고장이, 고량이 셔마씨.(그저 그리저리 저리로 모두

골고루 퍼 놓고 그걸 이제 착착 하면서. 한데 그렇지 않아도 될 건데 이렇게 해서 가르면 고랑이, 고랑이 있습니다.)
103003 @ 예.(예.)
103003 #1 고랑더레 뚜시 그거를 톡톡 또 줍아놔마씨. 그걸.(고랑에다가 다시 그거를 톡톡 또 집어넣어요. 그걸.)
103003 @ 음.(음.)
103003 #1 아이고, 그치록 답답허게 살아수덴허난. 요만썩.(아이고, 그처럼 답답하게 살았다니까요. 요만씩.)
103003 @ 예.(예.)
103003 #1 요만썩 그 저 골체에 ᄋᆞ정 뒝기멍 톡톡톡톡 고량을 쭉 허게시리, 양고량을 헤여마씸. 이거 영 허영 이거 고량이민.(요만씩 그 저 삼태기에 가져와서 다니면서 톡톡톡톡 고랑을 쭉 하게끔, 양쪽 고랑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고랑이면.)
103003 @ 음.(음.)
103003 #1 이레 톡 놓곡 이레 톡 놓곡 이레 톡 놓곡 허멍 고량이난 골을 막아. 그거를.(이리로 톡 놓고 이리로 톡 놓고 이리로 톡 놓고 하면서 고랑이니까 골을 막아. 그거를.)
103003 @ 음.(음.)
102003 #1 발로양.(발로요.)
103003 @ 예예.(예예.)
103003 #1 발로, 발로 이렇게.(발로, 발로 이렇게.)
103003 @ 음.(음.)
103003 #1 이렇게 이렇게 그거 그거 거 하나썩 줍아 놓은 거를 골 막아마씨.(이렇게 이렇게 그거 그거 거 하나씩 집어 놓은 거를 골을 막아요.)
103003 @ 예.(예.)
103003 #1 경허민 보리가 좋아근에 거 어디 아이 난 디 엇이 전부 다 고량도 나곡.(그렇게 하면 보리가 좋아서 거 어디 아니 난 데 없이 전부 다 고랑도 나고.)
103003 @ 예.(예.)
103003 #1 보릴 많이 나렌 경 헌 거마씨.(보릴 많이 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3004 @ 게믄, 그 보리는 언제 가는 거마씨?(그러면, 그 보리는 언제 가는 건가요?)
103004 #1 보리는 혼 저 혼 시월 둘에.(보리는 한 저 한 시월 달에.)
103004 @ 시월 둘에.(시월 달에.)
103004 #1 시월 둘에 갈앙 막 추워마씨.(시월 달에 갈아서 매우 추워요.)
103004 @ 음.(음.)
103004 #1 시월 달에는 추워. 바짝 얼류곡.(시월 달에 추워. 바짝 얼리고.)
103004 @ 음, 게믄 밧가는 건 누게가 헙니까?(음, 그러면 밭가는 건 누가 합니

까?)
103004 #1 밧가는 건게 아버지가.(밭가는 건 아버지가.)
103004 @ 음.(음.)
103004 #1 아버지가.(아버지가.)
103005 @ 아버지가 갈곡? 음, 씨 뿌리는 거는 이제?(아버지가 갈고? 음, 씨 뿌리는 거는 이제?)
103005 #1 씨 뿌리는 거는 여자덜이, 여자덜이. 우리 뚤덜토 허고 어멍도 허고게.(씨 뿌리는 거는 여자들이, 여자들이. 우리 딸들도 하고 어머니도 하고요.)
103005 @ 음.(음.)
103005 #1 경 허는거 아니꽈게.(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3005 @ 음.(음.)
103005 #1 경허멍 살앗수다게.(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3005 @ 예.(예.)
103005 #1 고셍도 진짜 너미 너미 힘들게 살앗수다.(고생도 진짜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103006 @ 삼춘, 보리는 어떤 종류덜 갈아봔마씨?(삼촌, 보리는 어떤 종류들 갈아봤습니까?)
103006 #1 보리?(보리?)
103006 @ 으. 종류.(으. 종류.)
103006 #1 술우리, 술우리도 갈고 맥주보리도 갈고.(쌀보리, 쌀보리도 갈고 맥주보리도 갈고.)
103006 @ 예.(예.)
103006 #1 두 가지 갈아마씨.(두 가지 갈아요.)
103006 @ 것보리는 안 헤 봅디가?(겉보리는 안 해 봅디까?)
103006 #1 것보리는 잘 안 헤봣수다.(겉보리는 잘 안 해봤습니다.)
103006 @ 아 아.(아 아.)
103006 #1 맥주보리허고 술우리. 예, 주로 그거마씨.(맥주보리하고 쌀보리. 예, 주로 그겁니다.)
103007 @ 여기도 보리밧 붋는 것도 헤마씨? 보리밧 불르는 거?(여기도 보리밧밭 밟는 것도 하나요? 보리밭 밟는 거?)
103007 #1 저 불르는 거 잘 아넘니다.(저 밟는 거 잘 안합니다.)
103007 @ 아, 여기는예?(아, 여기는요?)
103007 #1 예, 불르는 거 어쩌다근엥에 저 불르레 가 봣수다. ᄒᆞ쏠.(예, 밟는 거 어쩌다가 저 밟으러 가 봤습니다. 조금.)
103007 @ 음.(음.)
103007 #1 불르레 가도 별로 원. 밧이 좋아야 보리가 좋는 거.(밟으러 가도 별로 원. 밭이 좋아야 보리가 좋은 거.)

103007 @ 음.(음.)
103007 #1 밧이 좋아야. 영 우리가 허여 보면은 밧 나쁜 디는 보리 안 뭽디다.(밭이 좋아야. 이렇게 우리가 해 보면 밭 나쁜 데는 보리 안 됩디다.)
103007 @ 어떤 밧이 좋은 밧이렌 골읍니까?(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까?)
103007 #1 좋은 밧은 이 토지에 대헤근에, 이 밧은 좋다 허영은엥에 저 술우릴 갈곡. 나쁜 밧은 뚜시 맥주보리 갈고.(좋은 밭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밭은 좋다 해서 저 쌀보리 갈고. 나쁜 밭은 다시 맥주보리 갈고.)
103007 @ 으음.(으음.)
103007 #1 경 헤수다게. 겨난.(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3007 @ 좋은 밧듸가 술우리예?(좋은 밭에는 쌀보리.)
103007 #1 예, 좋은 밧듸가 술우리.(예, 좋은 밭에는 쌀보리.)
103008 @ 검질은 멧 번 메마씨? 보리 검질은?(김은 몇 번 맵니까? 보리 김은?)
103008 #1 보리 검질은 혼번 메민 끗이라마씨.(보리 김은 한번 매면 끝입니다.)
103008 @ 음.(음.)
103008 #1 혼번 메민 끗.(한번 매면 끝.)
103009 @ 어떤 검질들 주로 멥니까? 보리?(어떤 김들 주로 맵니까? 보리?)
103009 #1 그 겨울에 나는 검질. 겨울에 나는 건 진풀 또 저 무신 거 사스락쿨.(그 겨울에 나는 김. 겨울에 나는 건 별꽃 또 저 무슨 거 맥문동.)
103009 @ 음.(음.)
103009 #1 주로 그거. 그거 납디다게. 그걸 그치룩 경 나민 바싹 추운 디 검질메야 뒈마씨.(주로 그거. 그거 납디다. 그걸 그처럼 그렇게 나면 바싹 추운 데 김매야 돼요.)
103009 @ 검질 멜 때는 무신 걸로 메마씨?(김 맬 때는 무슨 걸로 매요?)
103009 #1 골겡이.(호미.)
103009 @ 으.(으.)
103009 #1 골겡이로 앚앙 ᄌᆞ근ᄌᆞ근 혼 고지썩 앚앙은에.(호미로 앉아 차근차근 한 이랑씩 앉아서.)
103009 @ 예.(예.)
103009 #1 혼 고지썩 앚앙.(한 이랑씩 앉아서.)
103009 @ 게민 골겡이를 여기는 골게렌도 헙니까?(그러면 호미를 여기는 '골게'라고도 합니까?)
103009 #1 예, 골겡이.(예. 호미.)
103010 @ 음, 그 다음에 수확은 게믄 언, 보리를 어느 철에 보리는 비는 거라마씨?(음, 그 다음에 수확은 그러면 언, 보리를 어느 철에 보리는 베는 겁니까?)
103010 #1 보리?(보리?)
103010 @ 으.(으.)

103010 #1 보리, 오월돌에.(보리, 오월에.)
103010 @ 오월돌에.(오월에.)
103010 #1 예, 오월돌에, 오월돌에 빕니다.(예, 오월에, 오월에 빕니다.)
103010 @ 거는 무신 걸로 비여마씨?(거는 무슨 걸로 뱁니까?)
103010 #1 낫으로.(낫으로.)
103010 @ 낫.(앗.)
103010 #1 호미. 이제는 낫이옌 허주마는 그때는 호미.(낫. 이제는 낫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호미'.)
103010 @ 그땟 말로?(그때 말로.)
103010 #1 그땟 말로 호미.(그때 말로 '호미'.)
103010 @ 호미. 호미로 비젠 허면 거기 가졍 가야 뒈는 것덜도 막 이실 거 아니라예? 뭘 들렁 가야 뒈마씨?(낫. 낫으로 배려고 하면 거기 가져서 가야 되는 것들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들고 가야 돼요?)
103010 #1 신돌.(숫돌.)
103010 @ 예.(예.)
103010 #1 신돌 ᄀᆞ졍가근에 아이고 신돌 ᄀᆞ져강 ᄀᆞᆯ아도 그렇게 무졍 힘이 드는 거라마씨. 힘이 들어.(숫돌 가져가서 아이고 숫돌 가져가서 갈아도 그렇게 무뎌서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103010 @ 음.(음.)
103010 #1 경 힘이 들엉. 게난 우리도 저 이디 씨집인 춤 부자칩이난에 밧도 좋읍디다게. 저 큰물왓듸레[110] 가는디 그 옴탕헌[111] 밭 우녁 밧인디 우리 씨아바님이 보리 비여가민 일을 영 못헙디다게. 부자칩이라도 경 못허영 허난.(그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 우리도 저 여기 시집은 참 부잣집이니까 밭도 좋습디다. 저 '큰물왓듸레' 가는디 그 '옴탕헌' 밭 위쪽 밭인데 우리 시아버님이 보리 배가면 일을 그렇게 못합디다. 부잣집이라도 그렇게 못해서 하니까.)
103010 @ 음.(음.)
102010 #1 어머니가 일등에 앚고 나가 이등에 앚고.(어머니가 일등에 앉고 내가 이등에 앉고.)
103010 @ 음.(음.)
103010 #1 씨아바님은 멀리서 담베 피우멍 일어사근에 담베랑 피우멍 영영 영영 ᄉᆞ방만 베리멍, 우리 ᄌᆞ부 춤 보리 잘 비지. 그치룩 그런 말 들어수다.(시아버님은 멀리서 담배 피우면서 일어서서 담배랑 피우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사방만 바라보며, 우리 자부 참 보리 잘 베지. 그처럼 그런 말 들었습니다.)
103010 @ 아.(아.)
103010 #1 우리 ᄌᆞ부 춤 보리 잘 비지. 우리 아저씨도양.(우리 자부 참 보리 잘

110) '큰물왓듸'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
111) '옴탕하다'는 가운데가 둥글게 파여 깊숙이 오목하다는 뜻이다.

베지. 우리 아저씨도요.)
103010 @ 음.(음.)
103010 #1 저 어린 때난산디 일 못헙디다게.(저 어린 때여선지 일 못합디다.)
103010 @ 음.(음.)
103010 #1 그치룩. 일을 못 허영근에 둘이가 보리 비레 요 요디 요디 집 짓언 살암수다. 이제.(그처럼. 일을 못 해서 둘이가 보리 베러 요 요기 요기 집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3010 @ 예.(예.)
103010 #1 보리 비레 그디 저 혼 천이벡 펭인디 보리 비레 가신디 보리 혼 고질 비여가민 반 고지에 앚아마씨.(보리 베러 거기 저 한 천이백 평인데 보리 베러 갔는데 보리 한 이랑 베가면 반 이랑에 앉아요.)
103010 @ 예.(예.)
103010 #1 앚안 손을 끈엇어.(앉아서 손을 베었어.)
103010 @ 웃음.(웃음.)
103010 #1 손을 끈으난 그 손 끊으난 차멜 건 이수가? 차멜 건 어디 셔. 뭐 어떵사 혜연 차메져신디, 차메난 저 소낭 아래 간 눤 ᄀᆞ만히 눕디다게. 게난 일도 못허염젠 허멍 나 일도 그치록 저 부자칩의 아덜이 일도 못 헤염젠 허멍 난 그치룩 헹은에 저 곧곡 경허멍 살아수다게.(손을 베니까 그 손 베니까 처맬 건 있습니까? 처맬 건 어디 있어. 뭐 어떻게야 해서 처맸는지, 처매니까 저 소나무 아래 가서 누워서 가만히 눕디다. 그러니 일도 못한다고 하면서 내 일도 그처럼 저 부잣집의 아들이 일도 못 한다고 하면서 난 그처럼 해서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3010 @ 음, 게민 보리 허면은 옛날은 다 손으로 비난 거 무꺼야 뒐 꺼 아니라예?(음, 그러면 보리 하면 옛날은 다 손으로 베니까 거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3010 #1 예, 예. 거 무꺼야.(예, 예. 거 묶어야.)
103010 @ 게믄 무신 걸로 무꺼수가?(그러면 무슨 걸로 묶었습니까?)
103010 #1 보리.(보리.)
103010 @ 으.(으.)
102010 #1 보리 보리 줴영.(보리 보리 쥐어서.)
102010 @ 으.(으.)
102010 #1 보리 진 걸로 줴여가지고. 뭣이, 뭣이 잇어야 뒈는디.(보리 긴 걸로 쥐어가지고. 뭣이, 뭣이 있어야 되는데.)
102010 @ 으.(으.)
102010 #1 뭣이 진 거를 줴여가지고.(뭣이 긴 거를 쥐어가지고.)
103010 @ 음.(음.)
103010 #1 이거 보리낭이면.(이거 보릿대면.)
103010 @ 음.(음.)
103010 #1 이거를 이렇게다 놔서.(이거를 이렇게 놓아서.)

103010 @ 예.(예.)
103010 #1 이렇게 놩은에게.(이렇게 놓아서.)
103010 @ 무껑.(묶어서.)
103010 #1 이렇게 무끕니다. 이렇게 무꺼.(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
103010 @ 아, 보리고고리 두 개 영 헹은에.(아, 보리이삭 두 개 이렇게 해서.)
103010 #1 예, 예.(예, 예.)
103010 #1 게믄 그거를 무슨 무께엔 헙니까? 여기는 무셍이 이런 거 안 헙니까?(그러면 그거를 무슨 묶음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매끼 이런 거 안 헙니까?)
103010 #1 아니여, 그냥 그냥 그자 보리로. 보리로 무꺼마씸.(아냐, 그냥 그냥 그저 보리로. 보리로 묶어요.)
103010 @ 지께?(지께?)
103010 #1 예, 저 지께[112]. 지께로 무꺼마씸.(예, 저 '지께'. '지께'로 묶어요.)
103010 @ 으, 지께. 게믄 여기 께도 틀엉은에 허는 것도 이서?(으, '지께'. 그러면 여기 매끼도 틀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103010 #1 께 틀언은 우리 아녀봣수다.(매끼 틀어서는 우리 안 해봤습니다.)
103010 @ 한 번도 아녀봣수가? 보리 헐 때.(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보리 할 때.)
103010 #1 예, 보리 헐 때 보리 흔 줌은 너미 하고.(예, 보리 할 때 보리 한 줌은 너무 많고.)
103010 @ 음.(음.)
103010 #1 ᄒᆞ꼼만 줴여근에 이렇게 돌려다근에 영 놔근엥게 그거 이거 두 개민 짝 쩨여근엥에 보리 무꺼난.(조끔만 쥐어서 이렇게 돌려다가 이렇게 놓아서 그거 이거 두 개면 짝 째어서 보리 묶었었어.)
103010 @ 음, 게믄 거 지께로만예?(음, 그러면 거 '지께'로만요?)
103010 #1 음, 지께로만.(음, '지께'로만.)
103010 @ 촐 빌 때도 지께로 헤마씨?(꼴 벨 때도 '지께'로 합니까?)
103010 #1 촐 빌 때는.(꼴 벨 때는.)
103010 @ 으.(으.)
103010 #1 새 비여당은에 께 틀어.(띠 베다가 매끼 틀어.)
103010 @ 아아. 께 틀엉.(아아. 매끼 틀어서.)
103010 #1 밤의, 밤의 께 틀엉은에. 예, 밤의 께 틀엉은에 뒷날 무끄레 갑니다.(밤에, 밤에 매끼 틀어서. 예, 밤에 매끼 틀어서 뒷날 묶으러 갑니다.)
103010 @ 게믄 그치룩 허영은에 무꺼당.(그러면 그처럼 해서 묶어다가.)
103010 #1 예.(예.)
103010 @ 집의 왕은에 눌어마씨?(집에 와서 가려요?)

112) '지께'는 매끼를 만들 때 곡식 대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말한다. 보릿단 따위를 묶을 때 사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제께', '뭍께'라고도 한다.

103010 #1 집의 와근에 예, 집의 왕 눌어.(집에 와서 예, 집에 와서 가려.)
103010 @ 아아, 밧듸서 누는 건 아니고.(아아, 밭에서 가리는 건 아니고.)
103010 #1 밧듸 안 눕니다. 집의 와야 눌엉 솔 줄 거주. 거니까 빠멍 솔 줄 거니까.(밭에 안 가립니다. 집에 와야 가렸다가 소를 줄 거지. 그러니까 빼면서 소를 줄 거니까.)
103010 @ 예, 예. 게믄 아까 삼춘, 멧 바리헷저. 멧 바리 헷저, 헷잖아예?(예, 예. 그러면 아까 삼촌, 몇 바리 했지. 몇 바리 했지, 했잖아요?)
103010 #1 예, 예.(예, 예.)
103010 @ 혼 바리가 멧 뭇마씨?(한 바리가 몇 뭇인가요?)
103010 #1 마은, 마은 뭇이 혼 바리.(마흔, 마흔 뭇이 한 바리.)
103010 @ 아, 보리도?(아, 보리도?)
103010 #1 예, 마흔 뭇이 혼 바리.(예, 마흔 뭇이 한 바리.)
103010 @ 아, 게믄 보리 뭇이 크진 아녀켜예?(아, 그러면 보리 뭇이 크진 않겠네요?)
103010 #1 크지 아넘니다게.(크지 않습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크믄게 눌젠 허믄 궂. 눌질 못헤마씨.(크면 가리려고 하면 궂, 가리지를 못해요.)
103010 @ 음.(음.)
103010 #1 눌지 못허헤여.(가리지 못해.)
103010 @ 음.(음.)
103010 #1 마은 뭇이 혼 바리.(마흔 뭇이 한 바리.)
103010 @ 마은 뭇이 혼 바리예? 예. 아까 걸름착은 혼 바리허믄 멧 개?(마흔 뭇이 한 바리요? 예. 아까 '걸름착'은 한 바리하면 몇 개?)
103010 #1 걸름착은 나도 걸름착 그 어린 때도.('걸름착'은 나도 '걸름착' 그 어린 때도.)
103010 @ 으.(으.)
103010 #1 걸름착 그 소 우티레 부쪙은에게.('걸름착' 그 소 위에 붙여서.)
103010 @ 으.(으.)
103010 #1 부쪄낫수다게.(붙였었습니다.)
103010 @ 예.(예.)
103010 #1 걸름착은 그거 저 혼번 시꺼가믄 그저 혼 번.('걸름착'은 그거 저 한번 실어가면 그저 한 번.)
103010 @ 으.(으.)
103010 #1 혼 번 시꺼가믄 혼 번.(한 번 실어가면 한 번.)
103010 @ 두 개를?(두 개를?)
103010 #1 예, 두 개를. 양쪽에 하나썩.(예, 두 개를. 양쪽에 하나씩.)

103010 @ 하나썩 예, 예.(하나씩 예, 예.)
103010 #1 이 쪼끄믄 헙니다게. 하지도 아녀.(이 쪼끄만 합니다. 많지도 않아.)
103010 @ 음.(음.)
103010 #1 사름, 사름 들렁은엥에 우티레 부쪙. 소 우터레 부쪙. 게난 두 사름이 상 부쪄야 뒈여마씨.(사람, 사람이 들어서 위로 붙여서. 소 위에 붙여.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서 붙여야 됩니다.)
103010 @ 음.(음.)
103010 #1 양쪽으로.(양쪽으로.)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1 딱허게 맞게. 그 저 걸름도 딱 맞아야.(딱하게 맞게. 그 저 거름도 딱 맞아야.)
103010 @ 음.(음.)
103010 #1 그 중심이 바르니까.(중심이 바르니까.)
103010 @ 음.(음.)
103010 #1 중심을 발르게시리 허젠 허민 딱 맞게 걸름착에 그 걸름도 담앙은에 두 사름이 부쪄야 뒈여. 절로 아버지 부찌곡 나도 일로 부찌곡.(중심을 바르게끔 하려고 하면 딱 맞게 멱둥구미에 그 거름도 담아서 두 사람이 붙여야 돼. 저리로 아버지 붙이고 나도 이리로 붙이고.)
103010 @ 양쪽으로.(양쪽으로.)
103010 #1 음.(음.)
103010 @ 게믄 삼춘, 그거 그치룩 허영 집에 보리 헹 오면 눌 눌 거 아니라예?(그러면 삼촌, 그거 그처럼 해서 집에 보리 해서 오면 가리 가릴 거 아니에요?)
103010 #1 예예.(예예.)
103010 @ 삼춘네는 멧 눌이나 눌어봣수가?(삼촌네는 몇 가리나 가려보셨습니까?)
103010 #1 두 눌.(두 가리.)
103010 @ 두 눌. 보리 헹 오면.(두 가리. 보리 해서 오면.)
103010 #1 많이 눌어도 두 눌.(많이 가려도 두 가리.)
103010 @ 음.(음.)
103010 #1 막 크게 누니까.(막 크게 가리니까.)
103011 @ 예, 그거는 이젠 홀트젠 허믄 어떤 식으로 헨마씨?(예, 그거는 이젠 홅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나요?)
103011 #1 홀트젠 허민.(홅으려 하면.)
103011 @ 으.(으.)
103011 #1 우리 이디 어머니넨 클 두 개 놩 홀틉니다.(우리 여기 어머니넨 그네 두 개 놓아서 홅습니다.)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클 두 개 놓면은 장남 둘리 빌곡 줴는 사름 흔 사름이 뒤칩이 할머니가 줴곡.(그네 두 개 놓으면 장남 둘이 빌고 쥐는 사람 한 사람이 뒷집에 할머니가 쥐고.)
103011 @ 음.(음.)
103011 #1 나가 줴곡 또 그 홀타도 아니 홀타진 거 잇어마씨.(내가 쥐고 또 그 홅아도 아니 홅아진 거 있어요.)
103011 #1 예.(예.)
103011 #1 경허민 낭[113] ᄂᆞ이는[114] 사름.(그러면 보릿대 줍는 사람.)
103011 @ 음.(음.)
103011 #1 낭 그 저 영 보리 보리 홀튼 거 나오면은 낭 나오면은 고고리.(보릿대 그 저 이렇게 보리 보리 홅은 거 나오면 보릿대 나오면 이삭.)
103011 @ 예.(예.)
103011 #1 고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썩 줴여가지고.(이삭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쥐어가지고.)
103011 @ 음.(음.)
103011 #1 줴여가지고 그것도 저레 ᄄᆞ로 놧당 저레 홀트곡.(쥐어가지고 그것도 저리로 도로 놓았다가 저리로 홅고.)
103011 @ 음.(음.)
103011 #1 경허멍 거 낭 ᄂᆞ이멍 덜 그 덜 홀타지니까 낭 ᄂᆞ이멍 경헤수다게.(그렇게 하면서 거 보릿대 주우며 덜 그 덜 홅아지니까 보릿대 주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3011 @ 그걸 낭 ᄂᆞ이덴 ᄀᆞᆯ아예?(그걸 보릿대 줍는다고 말해요?)
103011 #1 예. 낭 ᄂᆞ이멍.(예, 보릿대 주우면서.)
103011 @ 안, 홀타지지 아녕 줏이는 거ᄀᆞ라 낭 ᄂᆞ인다.(안, 홅아지지 않아 줍는 거보고 보릿대 줍는다.)
103011 #1 낭 ᄂᆞ이는 거.(보릿대 줍는 거.)
103011 @ 예.(예.)
103011 #1 낭 ᄂᆞ이는 거.(보릿대 줍는 거.)
103011 @ 그렇게 헤서 낭 ᄂᆞ영은에 이제 홀트면, 아까 클은 보리클?(그렇게 해서 보릿대 주어서 이제 홅으면, 아까 그네는 보리그네?)
103011 #1 보리클.(보리그네.)
103011 @ 산듸클도 ᄄᆞ납니까?(밭벼그네도 다릅니까?)
103011 #1 산디클도 ᄄᆞ나곡 보리클도 ᄄᆞ나곡. 산듸클은 ᄒᆞ꼼, ᄒᆞ꼼 ᄌᆞᆷ질아야 뒈고.(밭벼그네도 다르고 보리그네도 다르고. 밭벼그네는 조끔, 조끔 가늘어야 되고.)
103011 @ 예.(예.)

113) '낭'은 나무를 뜻하나 여기서는 보릿대를 말한다.
114) 'ᄂᆞ이다'는 '놓아진 것, 즉 떨어진 것을 줍다.'의미로 쓰였다.

103011 #1 보리클은 ᄒᆞ꼼 홁어도 뒈곡.(보리그네는 조끔 굵어도 되고.)
103011 @ 음.(음.)
103011 #1 게난 이 클을 영허영 손ᄁᆞ락가찌 이런 딜로 멕영 영영 허니까.(그러니까 이 그네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같이 이런 데로 먹여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103011 @ 예.(예.)
103011 #1 영영 허니까.(이렇게이렇게 하니까.)
103011 @ 그걸 두 개씩 놩은에예?(그걸 두 개씩 놓아서요?)
103011 #1 예, 저 너무 보리가 많으니까.(예, 저 너무 보리가 많으니까.)
103011 @ 으음.(으음.)
103011 #1 그 날씨나 어떵 궂엄직 허민 여라 개 놔근에, 두 개 놩 허엿수다. 두 개 놘 허여봣수다.(그 날씨나 어떻게 궂음직 하면 여러 개 놓아서, 두 개 놓아서 하였습니다. 두 개 놓아서 하여봤습니다.)
103011 @ 예, 보리는 클로 말고 그 저기 도리깨 헤갖고 허지 아넘니까? 도께로?(예, 보리는 그네로 말고 그 저기 도리깨 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도리깨로?)
103011 #1 아, 그건 아녀봣수다.(아, 그건 안 해봤습니다.)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그건 쪼꼬만 헌 보리나 허주. 어디 그거 그거 헐 수가 잇수가?(그건 조끄만 한 보리나 하지. 어디 그거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103011 @ 음.(음.)
103011 #1 쪼꼬만 헌 보리나 허곡. 모멀이나 두드리곡.(조끄만 한 보리나 하고. 메밀이나 두드리고.)
103011 @ 도께로?(도리깨로?)
103011 #1 예, 콩이나 두드리곡 허주.(예, 콩이나 두드리고 하지.)
103011 @ 아아, 보리 헐 때는 도께?(아아, 보리 할 때는 도리께?)
103011 #1 보린 안 헤봣수다.(보린 안 해봤습니다.)
103011 @ 삼춘네는 이제 그 클로만예?(삼촌네는 이제 그네로만요?)
103011 #1 예, 우린 클로만 헷주.(예, 우린 그네로만 했지.)
103012 @ 경헤근에 그렇게 헹은에 보리허면, 쏠 멘들젠 허민 어떵 헷수가?(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리하면, 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3012 #1 쏠 멘들젠 허민?(쌀 만들려면?)
103012 @ 음.(음.)
103012 #1 보리 밀젠[115] 메탁기 불러근에.(보리 탈곡하려고 탈곡기 불러서.)
103012 @ 음.(음.)
103012 #1 메탁기 불렁은에 보리 저 보리 ᄆᆞᆫ딱 나와근엥에 보리 ᄆᆞᆫ딱 만들아 놩.(탈곡기 불러서 보리 저 보리 모두 나와서 보리 모두 만들어 놓고.)
103012 @ 음.(음.)

115) '밀다'는 '지우다', 혹은 '깎다'의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탈곡하다'의미로 쓰였다.

103012 #1 따시 이젠 그 기계가 저 무신거 엿날은게 어디 쏠 멘드는 기계가 잇엇수가게?(다시 이젠 그 기계가 저 무엇 옛날은 어디 쌀 만드는 기계가 있었습니까?)
102012 @ 음.(음.)
102012 #1 엇으난게 소 메왕은에게 이렇게 저 맷돌.(없으니까 소 매어서 이렇게 저 맷돌.)
102012 @ 예.(예.)
102012 #1 맷돌 이만이헌 맷돌 잇지 아녀우꽈?(맷돌 이만한 맷돌 있지 않습니까?)
103012 @ 예.(예.)
103012 #1 그걸로 뱅뱅 돌려근엥에 초불, 초불 져근에.(그걸로 뱅뱅 돌려서 초벌, 초벌 찧어서.)
103012 @ 예.(예.)
103012 #1 초불 물 서꺼근에 초불 졍 뚜시 물류왕.(초벌 물 섞어서 초벌 지어서 다시 말려서.)
103012 @ 음.(음.)
103012 #1 물류와근엥에 바싹 물류와근엥에 그거 문딱 퍼 뒁 푸는체로 문딱 퍼 뒁은엥에 뚜시 또 방에에 가근에 뚜시, 뚜시 그걸 실러마씨.(말려서 바싹 말려서 그거 모두 까불러 놓고 키로 모두 까불러 놓고 다시 또 방아에 가서 다시, 다시 그걸 쓿어요.)
103012 @ 음.(음.)
103012 #1 실르는 거 그건. 두 번허는 거.(쓿는 거 그건. 두 번하는 거.)
103012 @ 두 번 허는 거 실르는 거?(두 번하는 거 쓿는 거?)
103012 #1 실러근에, 실러근엥에 이제 그 쏠 곱닥ᄒᆞ게 만들앙은에 밥헤먹어수다게.(쓿어서, 쓿어서 이제 그 쌀 곱다랗게 만들어서 밥해먹었습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경허영 밥허영 먹어.(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었어.)
103012 @ 처음 허는 거는 맷돌로 지는 거렌 허고?(처음 하는 거는 맷돌로 찧는 거라고 하고?)
103012 #1 처음엔 초불.(처음엔 애벌.)
103012 @ 초불.(애벌.)
103012 #1 두불, 두불은 실르는 거.(두벌, 두벌은 쓿는 거.)
103012 @ 실르는 거. 세불은 아넘니까?(쓿는 거. 세벌은 안하나요?)
103012 #1 두불만 허민 깨끗허여.(두 벌만 하면 깨끗해.)
103012 @ 아아, 두벌 허민 실르는 거.(아아, 두벌하면 쓿는 거.)
103012 #1 세불은 아녑니다. 두벌 허민 곱닥허영은에 우린 경허영 밥헹 먹엇수다게.(세벌은 안합니다. 두벌 하면 곱다래서 우린 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103012 @ 예, 예. 여기는 방에들이 하낫지예? 여긴 방엣돌 노래[116]도 잇는 동네난.(예, 예. 여기는 방아들이 많았지요? 여긴 '방엣돌 노래'도 있는 동네니까.)

103012 #1 예게. 방에 요 안골목에서 셔나고. 하지도 아녓수다, 경.(예. 방아 요 안골목에도 있었고.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3012 @ 음.(음.)

103012 #1 요, 요 안골목에 셔근에 우리도 저 떡도 그디서 강 떡ᄀᆞ레도 강 그디 강 헤오곡. ᄒᆞ쏠 떨어졍은에 잇곡.(요, 요 안골목에 있어서 우리도 저 떡도 거기서 가서 떡맷돌도 가서 거기 가서 해오고. 조금 떨어져서 있고.)

102012 @ 음.(음.)

102012 #1 경 헷주. 경 많이 엇어낫수다.(그렇게 했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103012 @ 그 다음 경허영 방에지면 집에서 ᄀᆞ레로 헤갖고 또 쪼개기도 헤마씨?(그 다음 그렇게 해서 방아지면 집에서 맷돌로 해가지고 또 쪼개기도 합니까?)

103012 #1 예, 저 ᄀᆞ레로, ᄀᆞ레로 그거 거피는 거.(예, 저 맷돌로, 맷돌로 그거 거피는 거.)

103012 @ 음.(음.)

103012 #1 거펴. ᄀᆞ레로 저 살살허게 거평은엥에 그걸로 처음에 밥헹 먹엇수다.(거피 하지. 맷돌로 저 살살하게 거피해서 그걸로 처음에 밥해서 먹었습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처음에 밥헤 먹고. 그거 저 양, 잘 그거 잘 실렁 곱게 잘 실르난양.(처음에 밥해 먹고. 그거 저 예, 잘 그거 잘 쓿어 곱게 잘 쓿으니까요.)

103012 @ 음.(음.)

103012 #1 ᄀᆞᆯ지 아년, ᄀᆞᆯ지 아년 밥이 더 맛십디다.(갈지 않은, 갈지 않은 밥이 더 맛있습디다.)

103012 @ 으음.(으음.)

103012 #1 예, 우리가 저 어머니네 집의서 허영은에 저 먹어보난에 우린 어머니네 집의 살 땐 올레[117]에 방에가 시난, 올레에서 그 저 방에를 졍 그 소. 나 다섯 술 뒈난에 그 소 몰앗젠 헙니다게. 게난 그치룩 경게.(예, 우리가 저 어머니네 집에서 해서 저 먹어보니까 우린 어머니네 집에 살 땐 '올레'에 방아가 있으니까, '올레'에서 그 저 방아를 져서 그 소. 나 다섯 살 되니까 그 소 몰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처럼 그렇게.)

103012 @ 음.(음.)

103012 #1 어린 때부터 경 착헷젠마씸게. 어린 때부터 큰 지레고.(어린 때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합니다. 어린 때부터 큰 키고.)

103012 @ 음. 웃음.(음. 웃음.)

103012 #1 웃음. 지레가. 지레도 열다섯에 큰 지레고.(웃음. 키가. 키도 열다섯에

116) '방엣돌 노래'는 '방에 놀레'로 제주 특유의 절규인 '남방아'에서 곡식을 찧거나 가루를 빻을 때 부르는 노동요를 말한다. 달리 '방이 놀레', '남방에 짛는 소리'로도 불린다.

117)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길을 말한다.

큰 키고.)
103012 @ 게니까.(그러니까.)
103012 #1 게난 너미 착헤여근엥에 일만 일만 드러 허단 보난에 영 헷수다마는.(그러니 너무 착해서 일만 일만 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03012 @ 음.(음.)
103012 #1 그런 저 곱닥허게 실르난양.(그런 저 곱다랗게 쓿으니까요.)
103012 @ 예.(예.)
103012 #1 막 밥이 맛 좋아 잘도.(매우 밥이 맛 좋아 잘도.)
103012 @ 음.(음.)
103012 #1 풀풀헌 게 막 맛 좋안에 우리 안 골안에 기냥 막 잘 실런 기냥 먹어낫수다.(풀풀한 게 매우 맛 좋아서 우리 안 갈아서 그냥 매우 잘 쓿어서 그냥 먹었었습니다.)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소도 많이 질루고 물도 많이 질루난양.(소도 많이 기르고 말도 많이 기르니까요.)
103012 @ 아.(아.)
103012 #1 산에 간 놔근에 많이 질루단 이 저 그 사삼사건 일어나난게 산에서게, 산에서 내부난게.(산에 가서 놓아서 많이 기르다가 이 저 그 사삼사건 일어나니까 산에서, 산에서 내버리니까.)
103012 @ 아.(아.)
103012 #1 그 사름네 다 잡아먹어불언 하나 원.(그 사람들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하나 원.)
103012 @ 음.(음.)
103012 #1 물은 하나 못 봐나수다게.(말은 하나 못 봤었습니다.)
103012 @ 예, 예예.(예, 예예.)
103012 #1 많이 질롼. 혼 멧, 혼 삼십 ᄆᆞ리 이상.(많이 길렀어. 한 몇, 한 삼십 마리 이상.)
103012 @ 아.(아.)
103012 #1 저 산에서 질루단 내불어수게게. 게영 소도 하영 질롼마씸게.(저 산에서 기르다가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도 많이 길렀어요.)
103012 @ 으음.(으음.)
103012 #1 소도 다섯 개썩 옛날에 그 놈의 집인 엇어도.(소도 다섯 마리씩 옛날에 그 남의 집엔 없어도.)
103012 @ 예.(예.)
103012 #1 우린 다섯 개 댓 개 대ᄋᆞ섯 개썩 질롼 저 소막도 막 크게.(우린 다섯 마리 댓 마리 대여섯 마리씩 길러서 저 외양간도 막 크게.)
103012 @ 예.(예.)

103012 #1 쉐막엔 헙니다. 쉐막.(외양간이라 합니다. 외양간.)
103012 @ 쉐막.(외양간.)
103012 #1 옛날은 쉐막. 이젠 소막.(옛날은 외양간. 이젠 외양간.)
103012 @ 으.(으.)
103012 #1 저 소막허고 이젠 그 소 하영 질루주마는 옛날은 소 경 하영 안 질롸낫수다게.(저 외양간하고 이젠 그 소 많이 기르지만 옛날은 소 그렇게 많이 안 길렀었습니다.)
103012 @ 예예.(예예.)
103012 #1 우린 아버지가 저 소를 많이 질롸나수다게.(우린 아버지가 저 소를 많이 길렀었습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게난 걸름도 많아마씸.(그러니 거름도 많아요.)
103012 @ 예.(예.)
103012 #1 걸름도 만허고 밧도 하고.(거름도 많고 밭도 많고.)
103012 @ 음.(음.)
103012 #1 겨난 욕심이 쎄여가지고, 십오일을 갈아사 밧을 다 갈아마씸게.(그러니 욕심이 세어가지고, 십오일을 갈아야 밭을 다 갈았습니다.)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게난 아버지 밧 갈레 갑서. 우리 저, 저 기수엔 헌 건, 우리 저 우리 저 나 아래.(그러니까 아버지 밭 갈러 가세요. 우리 저, 저 기수라고 한 건, 우리 저 우리 저 나의 아래.)
103012 @ 음.(음.)
103012 #1 두 설 차이로.(두 살 차이로.)
103012 @ 예.(예.)
103012 #1 나 아랜디. 두 설 차이 남즈. 나 아래민 나보단 더 힘이 쎄고 더 잘 헐 거 아니우꽈? 경허민. 못허영.(나의 아랜데. 두 살 차이 남자. 나의 아래면 나보단 더 힘이 세고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해서.)
103012 @ 음.(음.)
103012 #1 못허영은에 뚜시 걸름 내여오는디. 돗통. 돗통으로 걸름 내여오는 딘 뚜시 요만은 이보단 더 크지 아녀주.(못해서 다시 거름 내어오는데. 돼지우리. 돼지우리로 거름 내어오는 덴 다시 요만큼 이보단 더 크지 않지.)
103012 @ 음.(음.)
103012 #1 경허여 놓난 양쪽으로 들러근에.(그렇게 해 놓으니까 양쪽으로 들어서.)
103012 @ 음.(음.)
103012 #1 저 혼쪽 동생 들르고 혼쪽 나 들르고 경허여근에 마당더레 내여왓수다게.(저 한쪽 동생 들고 한쪽 내가 들고 그렇게 해서 마당에 내어왔습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내여오민 막 ᄉᆞ뭇 우리 동생은 울멍, 이제 셍각허민 나가 무사 경헤져신고. 경 그것도 못헤염젠 허멍. 가근엥에 쉐스랑으로 저 그.(내어오면 마구 사뭇 우리 동생은 울면서, 이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졌는지. 그렇게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가서는 쇠스랑으로 저 그.)
103012 @ 으.(으.)
103012 #1저 어디 강은에 그 돗통에 강 쉐스랑으로 나가 골체레 떠 놩은엥에 그 동셍이 떠 놓을 거주마는.(저 어디 가서 그 돼지우리에 가서 쇠스랑으로 내가 삼태기에 떠 넣어서 그 동생이 떠 놓을 거지만.)
103012 @ 으.(으.)
103012 #1 나가 떠 놔근엥에 들르렌 흔착 들르렌 허영은에.(내가 떠 넣어서 들라고 한쪽 들라고 해서.)
103012 @ 음.(음.)
103012 #1 그 요만이 헌 딜로 나와근엥에 무사 그치룩 멀긴 험광게.(그 요만큼 한 데로 나와서 왜 그처럼 멀긴 한지.)
103012 @ 웃음.(웃음.)
103012 #1 옛날은 돗통을, 돗통광 칙간은 멀어사 좋덴마씨.(옛날은 돼지우리를, 돼지우리와 뒷간은 멀어야 좋답니다.)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그런 말 들어나 봅디가?(그런 말 들어나 봤습니까?)
103012 @ 예예.(예예.)
103012 #1 게난에게 돗통을 멀게 헤마씸.(그러니까 돼지우리를 멀게 합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멀게 헤근엥에 허민게 그거 문 들렁 아버지랑 밧 갈레 갑센. 밧을 제게 갈아둰 ᄒᆞ루라도 놀젠양.(멀게 해서 하면 그거 모두 들고서 아버지랑 밭 갈러 가세요. 밭을 빨리 갈아두고 하루라도 놀려고요.)
103012 @ 예.(예.)
103012 #1 노는 시간이 엇어 놓난. 놈 똥 줏으레 가는 것도 막 그치룩 부릅고.(노는 시간이 없어 놓으니까. 남 똥 주우러 가는 것도 매우 그처럼 부럽고.)
103012 @ 음.(음.)
103012 #1 낭 허는. 낭 강 허여봐시민 막 경도 허여나고.(나무 하는. 나무 가서 해보았으면 막 그렇게도 했었고.)
103012 @ 음.(음.)
103012 #1 게난 우린 그 소낭 밧이 잇어근에 소낭 헤당은에게 멧 눌 눌어근엥에 소낭 빠멍게 검질 저 그 밥을 헤 먹으난게. 그 강 낭이나 헤여봐시민 어린 땐 경헤 낫수다게.(그러니 우린 그 소나무 밭이 있어서 소나무 해다가 몇 가리 가려서 소나무 빼면서 잡초 저 그 밥을 해 먹으니까. 그 가서 나무나 해봤으면 어린 땐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13 @ 음, 게믄 삼춘, 그 보리쏠 헤여갖고는 무신거허영 먹엇수가? 주로 보리 허면은?(음, 그러면 삼촌, 그 보리쌀 해가지고는 무엇해서 먹었습니까? 주로 보리 하면은?)
103013 #1 보리 허민게 주로 밥게.(보리 하면 주로 밥.)
103013 @ 예.(예.)
103013 #1 주로 밥허곡 옛날은 제ᄉᆞ 때에 보리쏠 ᄀᆞᆯ앙근엥게 보리묵.(주로 밥하고 옛날은 제사 때에 보리쌀 갈아서 보리묵.)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보리묵 헷수게게. 보리묵. 보리쏠 ᄀᆞᆯ앙.(보리묵 했습니다. 보리묵. 보리쌀 갈아서.)
103013 @ 아, 보리쏠 ᄀᆞᆯ앙 보리묵 헨에.(아, 보리쌀 갈아서 보리묵 했다고.)
103013 #1 보리쏠 ᄀᆞᆯ앙 보리묵 헷수게게.(보리쌀 갈아서 보리묵 했습니다.)
103013 @ 보리묵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보리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13 #1 보리묵이나.(보리묵이나.)
103013 @ 음.(음.)
103013 #1 이제 저 무신 거 그게 ᄀᆞ르 카근에.(이제 저 무슨 거 그게 가루 타서.)
103013 @ 으.(으.)
103013 #1 저 물에 적당허게 이거 이거 뒈겟다 허게 저 다라에서.(저 물에 적당하게 이거 이거 되겠다 하게 저 다라에서.)
103013 @ 음.(음.)
103013 #1 카근엥게 지졍, 지졍.(타서 지져, 지져.)
103013 @ 음.(음.)
103013 #1 저 이젠 후라이판이주마는 엿날은 그 저 솟뚜껑.(저 이젠 프라이팬이지만 옛날은 그 저 솥뚜껑.)
103013 @ 으.(으.)
103013 #1 솟뚜껑 검은 솟뚜껑 그거 두집어 놩은에게 그거, 그것에 곱게 헤영은에.(솥뚜껑 검은 솥뚜껑 그거 뒤집어 놓아서 그거, 그것에 곱게 해서.)
103013 @ 음.(음.)
103013 #1 곱게 허영은엥에 ᄆᆞᆫ딱 짤라근엥에 겨영.(곱게 해서 모두 잘라서 그렇게 해서.)
103013 @ 으음.(으음.)
103013 #1 나가 제ᄉᆞ 많이 헷수다게.(내가 제사 많이 했습니다.)
103013 @ 경허니까?(그러니까.)
103013 #1 친정에서도 제ᄉᆞ 많이 헷수다게.(친정에서도 제사 많이 했습니다.)
103013 @ 으음.(으음.)

103013 #1 제ᄉᆞ가 너무 많아. 친정에도 제사 많이 헷수다게. 게연 허단 보난 제사 한 디 와졋수다게.(제사가 너무 많아. 친정에도 제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제사 많은 데 와졌습니다.)

103013 @ 게난 그 보리묵을, 여기는 모멀은 하영 안 갈앗수가? 이 동넨?(그러니까 그 보리묵을, 여기는 메밀은 많이 안 갈았습니까? 이 동넨?)

103013 #1 ᄆᆞ멀 허기 전에.(메밀 하기 전에.)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ᄆᆞ멀 허기 전의. ᄆᆞ멀 나가난에 ᄆᆞ멀 허영은엥에 저 묵허곡 허엿수다게. 게난 ᄆᆞ멀 나기 전에.(메밀 하기 전에. 메밀 나가니까 메밀 해서 저 묵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밀 나기 전에.)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그 옛날에. 어린 때에.(그 옛날에. 어린 때에.)

103013 @ 어린 때. 게난 그거를 보리 묵이렌 허는 거지예?(어린 때. 그러니 그거를 보리묵이라고 하는 거지요?)

103013 #1 보리묵.(보리묵.)

103013 @ 경허영은에 적고지에 이렇게 꿰영 허는 거.(그렇게 해서 적꼬치에 이렇게 꿰어서 하는 거.)

103013 #1 예게, 늬개방장허게 썰엉은에 적고지에 꿰영 저 아버지 어머니 저 밧듸 가불어도 나가 제사를 출려마씨.(예, 네모반듯하게 썰어서 적꼬치에 꿰어서 저 아버지 어머니 저 밭에 가버려도 제가 제사를 차려요.)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어린 때부터. 경헨게마는 종손칩의 와졋수다게.(어린 때부터. 그렇게 하더니만 종손집에 와졌습니다.)

103013 @ 게난 그때 배운 걸로 다 헨예?(그러니 그때 배운 걸로 다 했어요?)

103013 #1 나가 제사를 출려마씨.(나가 제사를 차려요.)

103013 @ 개역은 안 해마씨? 개역은 언제 허는 거우과?(미숫가루는 안 해요? 미수가루는 언제 하는 겁니까?)

103013 #1 무시거?(무엇?)

103013 @ 개역, 개역.(미숫가루, 미수가루.)

103013 #1 게영[118]?(갱?)

103013 @ 예, 개역.(예, 미숫가루.)

103013 #1 게영은게, 그때, 그때 무신 거 셧수가? 무신 거 엇어 놓민 뭐 놀궤기, 뭐 뒈지궤기도 게영 헤진 거 허연 기억도 나고. 이 갈치는 아년덴 헙니다게. 비늘 엇은 거난.(갱은, 그때, 그때 무슨 거 있습니까? 무슨 거 없어 놓으면 뭐 날고기, 뭐 돼지고기도 갱 해진 거 했던 기억도 나고. 이 갈치는 안 한다고 합니다. 비늘 없는

118) 여기서 '게영'은, 미숫가루의 제주어인 '개역'을 잘못 들어서 '갱'을 뜻하는 제주어 '게영'으로 말했음을 밝혀 둔다.

거니까.)
103013 @ 예.(예.)
103013 #1 비늘 잇어야 뒈여.(비늘 있어야 돼.)
103013 @ 음.(음.)
103013 #1 비늘 신 궤기 어쩌다근엥 사당도 허곡.(비늘 있는 고기는 어쩌다가 사다가도 하고.)
103013 @ 음.(음.)
103013 #1 주로 뒈지궤기 헷수다, 옛날에. 미역 놓고 뒈지궤기.(주로 돼지고기 했습니다, 옛날에. 미역 넣고 돼지고기.)
103013 @ 음.(음.)
103013 #1 주로 경헷수다게.(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103013 @ 게민 보리 헐 때 허면 그 보리 보깡은에?(그러면 보리 할 때 하면 그 보리 볶아서요?)
103013 #1 미숫가루?(미숫가루?)
103013 @ 예.(예.)
103013 #1 아이고, 그거 주로.(아이고, 그거 주로.)
103013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13 #1 그거 저 무시거 술우리.(그거 저 무엇 쌀보리.)
103013 @ 예.(예.)
103013 #1 것도 술우리라사. 술우리 그거 집의서 보깡. 집의서 보깡은엥에 골앙 저디 우리 좀진체 잇지 아녑디가?(것도 쌀보리라야. 쌀보리 그거 집에서 볶아서. 집에서 볶아서 갈아서 저기 우리 가는체 있지 않습디까?)
103013 @ 예예.(예예.)
103013 #1 그걸로 쳥은에.(그걸로 쳐서.)
103013 @ 음.(음.)
103013 #1 그걸로 쳐근엥에 그 아래 거 그거 홁은 거는 뚜시 골곡.(그걸로 쳐서 그 아래 거 그거 굵은 거는 다시 갈고.)
103013 @ 음.(음.)
103013 #1 또 아래 거 치멍 그거 먹어수다. 옛날은.(또 아래 거 치면서 그거 먹었습니다. 옛날은.)
103013 @ 옛날은 음.(옛날은 음.)
103013 #1 방엣공장 안 난 때.(방앗간 안 난 때.)
103013 @ 예.(예.)
103013 #1 안 난 땐 경헤수다게.(안 난 땐 그랬습니다.)
103013 @ 그걸 뭐렌 헤마씨? 요즘은 개역이렌 허주만, 요즘은 미숫가루주만 옛날은?(그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미숫가루라고 하지만, 요즘은 미숫가루지만 옛날은?)

103013 #1 개역.(미숫가루.)
103013 @ 개역, 음.(미숫가루, 음.)
103013 #1 게민게 보리 홀틀 때에.(그러면 보리 홅을 때.)
103013 @ 예.(예.)
103013 #1 순다리[119].('순다리')
103013 @ 예.(예.)
103013 #1 개역 그거벳긔 엇어수다.(미숫가루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103013 @ 음.(음.)
103013 #1 옛날은. 거벳긔 엇언. 먹을 것이 무신 간식이 뭐 잇수가?(옛날은. 그것밖에 없었어. 먹을 것이 무슨 간식이 뭐 있습니까?)
103013 @ 음.(음.)
103013 #1 뭐 아무 것도 엇주게.(뭐 아무 것도 없지.)
103014 @ 혹시 이제 그 보리 이제 수확 다 허면 타작 헤나면예?(혹시 이제 그 보리 이제 수확 다 하면 타작 하고나면요?)
103014 #1 예.(예.)
103014 @ 보리체도 잇일 거고, 보리찍도 잇어실 거고.(보릿겨도 있을 거고, 보릿짚도 있었을 거고.)
103014 #1 예.(예.)
103014 @ 이건 보리 ᄀᆞ스락이영 이런 건 다 버리진 아녓잖우꽈?(이건 보리 까끄라기랑 이런 건 다 버리진 않았잖습니까?)
103014 #1 아이고양, ᄀᆞ스락은 굴묵[120] 짇고.(아이고요, 까끄라기는 '굴묵' 때고.)
103014 @ 예.(예.)
103014 #1 ᄀᆞ스락은 저 어디 눌엇다근에, 어디 굴묵엔 딱 담곡. ᄃᆞ시 어디 눌엇당은엥에.(까끄라기는 저 어디 가렸다가, 어디 '굴묵'에 딱 담고. 다시 어디 가렸다가.)
103014 @ 음.(음.)
103014 #1 굴묵 짇고 ᄃᆞ시 소가 많이 질루난에 그 소똥.('굴묵' 때고 다시 소가 많이 기르니까 그 소똥.)
103014 @ 예.(예.)
103014 #1 소똥 저 내영은엥에 저 널른 디레 놔두민 ᄆᆞᆯ릅니다게. ᄆᆞᆯ르민 그거에 서꺼근에양.(소똥 저 내어서 저 널른 데에 놓아두면 마릅니다. 마르면 그거에 섞어서요.)
103014 @ 음.(음.)
103014 #1 서껑 굴묵 짇엇수다.(섞어서 '굴묵' 때었습니다.)
103014 @ 아아.(아아.)

119)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하는데, 달리 '쉰다리'라고도 한다.
120)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3014 #1 굴묵 짇으멍 살아수다.(‘굴묵’ 때면서 살았습니다.)
103014 @ 게난 보리체는 뭐 헷수가? 체. 보리 ᄀᆞᆯ아난 체?(그러니 보릿겨는 뭐 했습니까? 겨. 보리 갈았던 겨?)
103014 #1 보리 ᄀᆞᆯ아난 체?(보리 갈았던 겨?)
103014 @ 으.(으.)
103014 #1 보리 ᄀᆞᆯ아난 첸 그건 뒈지 주고게. 뒈지.(보리 갈았던 겨는 그건 돼지 주고. 돼지.)
103014 @ 으, 뒈지 주고.(으, 돼지 주고.)
103014 #1 예, 도새기.(예, 돼지.)
103014 @ 예, 도새기.(예, 돼지.)
103014 #1 도새기, 도새기 주고.(돼지, 돼지 주고.)
103014 @ 그 다음에 보리낭은?(그 다음에 보릿대는?)
103014 #1 보리낭은 눌엇당은엥에 소 또꼬망에 ᄀᆞᆯ아줘.(보릿대는 가렸다가 소 똥 구멍에 깔아주지.)
103014 @ 으.(으.)
103014 #1 소 멘 디 ᄀᆞᆯ아줘.(소 맨 데 깔아줘.)
103014 @ 소 멘 디 ᄀᆞᆯ아주곡예.(소 맨 데 깔아주고요.)
103014 #1 또 저 밥헤먹고 걸로.(또 저 밥해먹고 걸로.)
103014 @ 아, 보리낭으로?(아, 보릿대로?)
103014 #1 예, 보리낭으로 밥헹 먹고. 뭣으로 헙니까?(예, 보릿대로 밥해서 먹고. 뭣으로 헙니까?)
103014 @ 예.(예.)
103014 #1 보리낭으로 밥헤 먹단에 나중에 또 유채 나난에 또 유채낭 시꺼당 막 눌어근에.(보릿대로 밥해 먹다가 나중에 또 유채 나오니까 또 유채나무 실어다가 마구 가려서.)
103014 @ 음.(음.)
103014 #1 유채낭 시꺼당 막 눌어근에 그거 빠멍. 아이고, 불 불도 못헙니다. 유채낭은. 일어나지 아녀.(유채나무 실어다가 마구 가려서 그거 빼면서. 아이고, 불 불도 못합니다. 유채나무는. 일어나지 않아.)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일어나질 아녀, 잘.(일어나질 않아, 잘.)
103015 @ 음, 삼춘 이제 보리농사 지으멍 잊어불지 못허켜 헌 기억 잇어마씨?(음, 삼촌 이제 보리농사 지으면서 잊어버리지 못하겠다 한 기억 있어요?)
103015 #1 아이고, 잊어불지 못허켜 기억 그거, 그건.(아이고, 잊어버리지 못하겠다 기억 그거, 그건.)
103015 @ 하지예?(많지요?)
103015 #1 죽어야, 죽어야 잊어불주, 그거는 안 잊어불어.(죽어야, 죽어야 잊어버

리지, 그거는 안 잊어버려.)
103015 @ 어떤 거?(어떤 거?)
103015 #1 그 걸름. 걸름이.(그 거름. 거름이.)
103015 @ 음.(음.)
103015 #1 손 다 케여요. 손이 다 케여.(손 다 터요. 손이 다 터.)
103015 @ 예.(예.)
103015 #1 손이 피가 막 나. 다 케영.(손이 피가 막 나. 다 터서.)
103015 @ 음.(음.)
103015 #1 그 바짝 허영은에 얼롸불엉게.(그 바짝 해서 얼려버려서.)
103015 @ 예.(예.)
103015 #1 아척이 일어낭 얼민 바짝 허영 걸름을 못 놔마씨.(아침에 일어나서 얼면 바짝 해서 거름을 못 놓아요.)
103015 @ 음.(음.)
103015 #1 그것이 너무, 너무 지나치게 헤진 거 닮아.(그것이 너무, 너무 지나치게 해진 거 같아.)
103015 @ 게난 그 보리 걸름헹은에 뿌려난 거예?(그러니까 그 보리 거름해서 뿌렸던 거요?)
103015 #1 예, 예.(예, 예.)
103015 @ 보리씨 뿌릴 때에?(보리씨 뿌릴 때?)
103015 #1 그거 저 담젠 헤도 아멩이나 경 담아지카, 아래 땅에 놓은 거니까.(그거 저 담으려고 해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담아질까, 아래 땅에 놓은 거니까.)
103015 @ 예, 예.(예, 예.)
103015 #1 땅에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헤서 이렇게 담아.(땅에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
103015 @ 예.(예.)
103015 #1 영 앚앙, 영 앚앙은에 영 허영 담앙은엥에 일어성, 일어사근엥 그거를.(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담아서 일어서서, 일어서서 그거를.)
103015 @ 그 골체에예?(그 삼태기에요?)
103015 #1 예.(예.)
103015 @ 그땐 무신 골체마씨? 거는?(그땐 무슨 삼태기요? 거는?)
103015 #1 저 대골체.(저 대삼태기.)
103015 @ 대골체로?(대삼태기로?)
103015 #1 예, 골체, 대골체.(예, 삼태기, 대삼태기.)
103015 @ 으음.(으음.)
103015 #1 이제는 대골체 엇입니다. 잘.(이제는 대삼태기 없습니다. 잘.)
103015 @ 기지예?(그렇지요?)
103015 #1 이젠 쒜골체.(이젠 쇠삼태기.)

103015 @ 쒜골체.(쇠삼태기.)
103015 #1 쒜골체. 쒜골체덜 하영 나고 정동으로 줄앙 나곡 허주.(쇠삼태기. 쇠삼태기들 많이 나고 댕댕이덩굴로 결어서 나고 하지.)
103015 @ 음.(음.)
103015 #1 대골체 엿날은 그 대왓이 많으니까.(대산태기 옛날은 그 대밭이 많으니까.)
103015 @ 으음.(으음.)
103015 #1 대왓이 만허니까 그 옛날 하르방덜은게 구덕도 잘 준곡 대로 저 무신 거 아기구덕도 대로 준고.(대밭이 많으니까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바구니도 잘 겯고 대로 저 무슨 거 아기요람도 대로 겯고.)
103015 @ 예, 예.(예, 예.)
103015 #1 차롱 ᄀᆞ튼 거, 그 저 골체 ᄀᆞ튼 건 대로만 주로 줄읍디다.(채롱 같은 거, 그 저 삼태기 같은 건 대로만 주로 겯습디다.)
103015 @ 아아, 대로예?(아아, 대로요?)
103015 #1 예.(예.)
103015 @ 골체도예?(삼태기도요?)
103015 #1 예.(예.)
103015 @ 예, 기구나.(예, 그렇군요.)
103015 #1 우리 아버지도 다 골체도 준고 다 허난에 다.(우리 아버지도 다 삼태기도 겯고 다 하니까 다.)
103015 @ 게민 집에서 다 만들엉 쓰는 거구나예?(그러면 집에서 다 만들어서 쓰는 거군요?)
103015 #1 예, 집의서 만들앙마씨. 만들앙. 구덕도 집의서 만들고.(예, 집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바구니도 집에서 만들고.)
103015 @ 음.(음.)
103015 #1 엿날에. 그자 곱진 안 허고마씨.(옛날에. 그저 곱진 안 하고요.)
103015 @ 예예.(예예.)
103015 #1 곱진 아녀고게.(곱지는 않고.)

조농사

103016 @ 게믄, 경허영은에 보린 짓고, 그다음에 조도 하영 갈앗지예?(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린 짓고, 그다음에 조도 많이 갈았지요?)
103016 #1 조오?(조?)
103016 @ 으, 조 갈젠 허민 무신 게 필요허는 거우꽈?(으, 조 갈려고 하면 무슨 게 필요한 겁니까?)
103016 #1 조 갈젠 허민 저 물.(조 갈려고 하면 저 말.)
103016 @ 으.(으.)

103016 #1 그 곶인 밧듸는 그렇게 안 불려도 뒈는디 거시림조팟[121].(그 곶은 밭에는 그렇게 안 밟아도 되는데 '거시림조팟'.)
103016 @ 예.(예.)
103016 #1 거시림, 다른 디 어지렁허게 저 밧 곶인 디는.(애벌갈이, 다른 데 어지러이 저 밭 곶은 데는.)
103016 @ 으.(으.)
103016 #1 가근엥에 갈아근엥에 대강 불령 내부는디 거시림조팟은 이 마 넘어가사. 마 넘어 가사 나중에양.(가서 갈아서 대강 밟아 내버리는데 '거시림조팟'은 이 장마 넘어 가야. 장마 넘어 가야 나중에요.)
103016 @ 예.(예.)
103016 #1 나중에 마 나와 가면은 그 물 한 집의, 물 한 집의 그 텟물 물아당은 엥에 텟물 빌어당.(나중에 장마 와 가면 그 말 많은 집에, 말 많은 집의 그 뗏말 몰아다가 뗏말 빌려다가.)
103016 @ 예.(예.)
103016 #1 이제 ᄒᆞ루 불르믄 언마.(이제 하루 밟으면 얼마.)
103016 @ 음.(음.)
103016 #1 경 허영 빌어당은에 그 물 저 하나만 심으믄 뱅뱅 돌아마씸게.(그렇게 해서 빌려다가 그 말 저 하나만 잡으면 뱅뱅 돌아요.)
103016 @ 예.(예.)
103016 #1 돌믄, 벳겻딜로 ᄆᆞ는 사름. 안으로 안으로 저 물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러러 어러러 허믄 물들이 다 좇아가마씸게. 다 좇아강 그치룩 거시림조팟 허영은에게 허믄 조도 잘뒈곡 검질도 빨리 메여줘야 뒈곡.(돌면, 바깥으로 모는 사람. 안으로 안으로 저 말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러러 어러러 하면 말들이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가서 그처럼 '거시림조팟' 해서 하면 조도 잘되고 김도 빨리 매야 되고.)
103016 @ 음.(음.)
103016 #1 경 허영은엥에 허곡. 곶인 밧딘 그자 대강 불령 내불곡.(그렇게 해서 하고. 곶은 밭에는 그저 대강 밟아서 내버리고.)
103016 @ 음.(음.)
103016 #1 이녁 소로, 이녁 소 멧 개 허믄 영 연메영.(이녁 소로, 이녁 소 몇 마리 하면 이렇게 연이어 매어.)
103016 @ 음. 예, 예.(음. 예, 예.)
103016 #1 소도. 큰소 이디 메면은(소도. 큰소 여기 매면.)
103016 @ 음.(음.)
103016 #1 이쪽에 하나 이 모가지레 메곡 ᄃᆞ시 하나 또 모가지레 메곡 경헤근에.(이쪽에 하나 이 모가지에 매고 다시 하나 또 모가지에 매고 그렇게 해서.)

121) '거시림조팟'은 파종하기 전에 미리 애벌갈이를 한 조밭을 말한다.

103016 @ 게민 영 나란히?(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103016 #1 나란히 하나씩 영 나란히 허영 앞의 하나 이끄곡 뒤에서 몰곡.(나란히 하나씩 이렇게 나란히 해서 앞에 하나 이끌고 뒤에서 몰고.)
103016 @ 음.(음.)
103016 #1 경 헤여근엥에 저 곶인 밧은 경헤여근에 대강 볼립니다.(그렇게 해서 저 곶은 밭은 그러게 해서 대강 밟습니다.)
103016 @ 예.(예.)
103016 #1 대강 볼리곡 그 좋은 밧은 잘 볼리민 씨가 거슬엉 씨가 안 나마씨.(대강 밟고 그 좋은 밭은 잘 밟으면 씨가 거슬려서 씨가 안 나요.)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씨가 안 나근엥에 저 박 구장옌 헌 어른 이제 죽건 디 으라 헤 뒀주마는 그디가 막 물을 하난.(씨가 안 나서 저 박 구장이라고 한 어른 이제 죽은 지 여러 해 됐지마는 거기가 막 말이 많으니까.)
103016 @ 음.(음.)
103016 #1 우리 그딧 물 빌어단.(우리 거기 말 빌려다가.)
103016 @ 음.(음.)
103016 #1 거시림조팟 볼렷수다게.('거시림조팟' 밟았습니다.)
103016 @ 음.(음.)
103016 #1 게난 물덜토 경 볼려나난 말을 잘 들엉은엥에.(그러니 말들도 그렇게 밟았으니까 말을 잘 들어요.)
103016 @ 음.(음.)
103016 #1 그 소리 들으멍 다 그 저 갑니다게. 가.(그 소리 들면서 다 그 저 갑니다. 가.)
103016 @ 경허영 지깍[122] 볼려사마씸. 지깍 볼려.(그렇게 해서 '지깍' 밟아야 돼요. '지깍' 밟아.)
103016 @ 게믄 아까 거시림조팟이렌 헷잖아 삼춘예? 그 거시림조팟은 어떤 거를 거시림조팟이렌 허는 거마씨?(그러면 아까 '거시림조팟'이라고 했잖아 삼촌? 그 '거시림조팟'은 어떤 거를 '거시림조팟'이라고 하는 거예요?)
103016 #1 아, 거 좋은 밧듸 허는 거.(아, 거 좋은 밭에 하는 거.)
103016 @ 예.(예.)
103016 #1 좋은 밧듼 거시림조팟 허여야 뒌다.(좋은 밭엔 '거시림조팟' 해야 된다.)
103016 @ 음.(음.)
103016 #1 경 헤영 질 깍에사.(그렇게 해서 젤 끝에서야.)
103016 @ 음.(음.)

122) '지깍'은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 밭 전체를 '촘촘히' 밟은 상태를 말한다.

103016 #1 다른 디 농ᄉᆞ 조도 갈고 믄 뭐 콩도 갈곡 믄딱 헤둬근에 질 말쩨에.(다른 데 농사 조도 갈고 모두 뭐 콩도 갈고 모두 해두고 젤 마지막에.)
103016 @ 음.(음.)
103016 #1 질 말쩨에 헙디다. 질.(젤 말째에 합디다. 젤.)
103016 @ 게믄 그때는 밧을 흔번 갈앙 놔둬마씨?(그러면 그때는 밭을 한번 갈아서 놔둬요?)
103016 #1 갈앙은에.(갈아서.)
103016 @ 으, 나뒷당?(으, 놔뒀다가?)
103016 #1 갈앙은엥에 씨 삐영.(갈아서 씨 뿌려서.)
103016 @ 음.(음.)
103016 #1 저 그때 갈앙.(저 그때 갈아서.)
103016 @ 아, 그때?(아, 그때?)
103016 #1 아시날 갈앙은에.(전날 갈아서.)
103016 @ 예.(예.)
103016 #1 저 씨 삐멍 그날 불려마씨.(저 씨 뿌리면서 밟아요.)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그날 불려마씨?(그날 밟아요?)
103016 @ 전날, 이제.(전날, 이제.)
103016 #1 예, 예예.(예, 예예.)
103016 @ 아시날 헤갖고예?(전날 해가지고요?)
103016 #1 아시날 갈앙 밧이 크니까.(전날 갈아서 밭이 크니까.)
103017 @ 음, 조팟도 걸름헤야 뒈마씨?(음, 조밭도 거름해야 돼요?)
103017 #1 아니.(아니.)
103017 @ 아, 조팟은 걸름 안 헤예?(아, 조밭은 거름 안 해요?)
103017 #1 조팟은 걸름 아녓수다.(조밭은 거름 안 했습니다.)
103017 @ 예.(예.)
103017 #1 걸름 헐 게 어디 잇수가? 조팟딘 걸름 아넘니다.(거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조밭엔 거름 않습니다.)
103018 @ 음. 조는 언제 가는 거마씨? 게믄.(음. 조는 언제 가는 겁니까? 그러면.)
103018 #1 조?(조?)
103018 @ 예.(예.)
103018 #1 존, 존 어 존 삼월둘에.(존, 존 어 존 삼월에.)
103018 @ 음.(음.)
103018 #1 삼월둘에 조 갈아난 거 닮은디.(삼월에 조 갈았던 거 같은데.)
103018 @ 음력 삼월예?(음력 삼월에?)
103018 #1 예, 음력, 음력.(예, 음력, 음력.)

103018 @ 음.(음.)
103018 #1 언제나 음력에 그, 저 농사는 음력에 헤마씨.(언제나 음력에 그, 저 농사는 음력에 해요.)
103018 @ 음력에 허난예?(음력에 하니까요?)
103018 #1 삼월 둘에 저 문딱 갈아마씨. 삼월 둘에.(삼월 달에 저 모두 갈아요. 삼월 달에.)
103019 @ 게난 좁씨는 어떤 식으로 삐여마씨?(그러니까 좁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요?)
103019 #1 좁씨는 손으로.(좁씨는 손으로.)
103019 @ 아, 손으로.(아, 손으로.)
103019 #1 손으로 저 무시거 그 저 그 찍으로 줄은 그 망텡이.(손으로 저 무엇 그 저 그 짚으로 결은 그 망태기.)
103019 @ 예.(예.)
103019 #1 망텡이 쪼끄만헌 거 두러메여가지고 그 손으로 좁씨 삐여마씨.(망태기 쪼그마한 거 둘러매어가지고 그 손으로 좁씨 뿌려요.)
103019 @ 음.(음.)
103019 #1 좁씨 골로로. 영 저 눈으로 보멍.(좁씨 골고루. 이렇게 저 눈으로 보면서.)
103019 @ 예.(예.)
103019 #1 골로로 문딱 뿌려근에.(골고루 모두 뿌려서.)
103019 @ 망테기에 담앙?(망태기에 담아서?)
103019 #1 망텡이에 담앙.(망태기에 담아서.)
103019 @ 망텡이.(망태기.)
103019 #1 망텡이가 아니고 저 그 저 거 일름을 몰란 다 못 골암쩌. 것ᄀᆞ라 그 일름이 신디.(망태기가 아니고 저 그 저 거 이름을 몰라서 다 못 말하지. 것보고 그 이름이 있는데.)
103019 @ 밀망텡이?(밀망태기?)
103019 #1 멜망텡이[123]?('멜망텡이'?)
103019 @ 멜망텡이.('멜망텡이'.)
103019 #1 멜망텡이.('멜망텡이'.)
103019 @ 메는 거예?(매는 거요?)
103019 #1 메는 거. 쩨그만헌 거. 쩨끄만헌 거.(매는 거. 자그마한 거. 자그마한 거.)
103019 @ 예.(예.)
103019 #1 그런 거에.(그런 거에.)
103019 @ 거에 좁씨 놩은에 이제.(거에 좁씨 넣어서 이제.)

123) '멜망텡이'는 물건을 담아 어깨에 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망태기를 말한다.

103019 #1 좁씨 놩은에.(좁씨 넣어서.)
103019 @ 게믄 이렇게 삐여.(그러면 이렇게 뿌려.)
103019 #1 예예.(예예.)
103019 @ 건 누게가 보통 삐여마씨?(그건 누가 보통 뿌려요?)
103019 #1 예, 예. 그건 아버지가 삐고 어머니가 삐고, 어머니 잘 안 삐여마씨. 아버지가 잘 삐주.(예, 예. 그건 아버지가 뿌리고 어머니가 뿌리고, 어머니 잘 안 뿌려요. 아버지가 잘 뿌리지.)
103019 @ 아아, 아버지가예?(아아, 아버지가요?)
103019 #1 씨집은 오난 나가 다 씨 뿌리고.(시집은 오니까 내가 다 씨 뿌리고.)
103019 @ 씨집을 오니까 삼춘이 다 삐고.(시집을 오니까 삼촌이 다 뿌리고.)
103019 #1 나가 다 뿌리고. 아저씨는 일체 몰를고.(내가 다 뿌리고. 아저씨는 일체 모르고.)
103020 @ 음, 게믄 여기에 그 조팟 이제 불를 때에예, 조씨 삐영 불라얄 거 아니우꽈예? 게문 아까 이제 텟물 빌엉 허곡.(음, 그러면 여기에 그 조밭 이제 밟을 때에요, 좁씨 뿌려서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망아지 빌려서 하고.)
103020 #1 예.(예.)
103020 @ 텟물 말앙 여기 저기 남테 이런 것도 헤낫수가?(뗏말 말고 여기 저기 남태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103020 #1 낭으로, 저 섬비질, 섬비질.(나무로, 저 끙게질, 끙게질.)
103020 @ 섬비질?(끙게질?)
103020 #1 섬비질. 섬비.(끙게질. 끙게.)
103020 @ 여기는 섬비?(여기는 끙게?)
103020 #1 예, 섬비, 섬비는 조팟디 허질 아녀고.(예, 끙게, 끙게는 조밭에 하질 않고.)
103020 @ 예.(예.)
103020 #1 저 ᄆᆞ멀씨 뿌령은엥에.(저 메밀씨 뿌려서)
103020 @ 음.(음.)
103020 #1 ᄆᆞ멀씨 뿌령 걸로 끗읍니다.(메밀씨 뿌려서 걸로 끗습니다.)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예, 그런 걸로 저 끗으민 뒙니다.(예, 그런 걸로 저 끄으면 됩니다.)
103020 @ 여기는 텟물이나 그 저리 메왕은에 헷구나예?(여기는 뗏말이나 그 겨리 지워서 했군요?)
103020 #1 예, 예.(예, 예.)
103020 @ 게문 여기 혹시 그 나무에 헤갖고 영 쌀 박앙은에 허는 거는 안 봐봔 마씨?(그러면 여기 혹시 그 나무에 해가지고 이렇게 살 박아서 하는 거는 안 봐봤나요?)
103020 #1 나무에 허영 영 끗는 거?(나무에 해서 이렇게 끗는 거?)

103020 @ 으.(으.)
103020 #1 아, 그거는 아녀봣수다.(아,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103020 @ 여기는 안 헤봔옌?(여기는 안 해봤어요?)
103020 #1 예, 그건 안 헤봣수다.(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103020 @ 남테[124]여 돌태[125]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가?(남태여 돌태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3020 #1 아, 그건 안 들어 봣수다.(아, 그건 안 들어 봤습니다.)
103020 @ 그건 안 들어봔.(그건 안 들어봤어요.)
103020 #1 섬비. 주로 섬비.(끙게. 주로 끙게.)
103020 @ 섬비?(끙게?)
103020 #1 저 무신 거 그 고랑에, 고랑에 무시거 놔도.(저 무슨 거 그 고랑에, 고랑에 무엇 놔도.)
103020 @ 으.(으.)
103020 #1 저 섬비 그 저 개꽝낭 끊어당은엥에.(저 끙게 그 저 쥐똥나무 끊어다가.)
103020 @ 예.(예.)
103020 #1 나냥으로 이 줄마메여근에 졸졸졸졸 고랑으로 끗어마씸게.(나대로 이 졸라매서 졸졸졸졸 고랑으로 끄어요.)
103020 @ 음.(음.)
103020 #1 경허멍 살아수다게.(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3020 @ 삼춘이 직접 줄마멩은에?(삼촌이 직접 졸라매어서?)
103020 #1 예. 뭣으로 줄마메영은에 등뗑이로 영 헤근에.(예. 뭣으로 졸라매어서 등때기로 이렇게 해서.)
103020 @ 으.(으.)
103020 #1 저 뭣으로 영 끅, 끅 걷어당은에 믄 무껑은엥에 믄 두러메여근엥에.(저 뭣으로 이렇게 칡, 칡 걷어다가 모두 묶어서 모두 둘러매서.)
103020 @ 음.(음.)
103020 #1 끗으멍 살아수다.(끄으면서 살았습니다.)
103020 @ 게난 그 섬비에 영 돌도 영 올려놓고 허잖녑니까?(그러니까 그 끙게에 이렇게 돌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잖습니까?)
103020 #1 돌도 올려놓고.(돌도 올려놓고.)
103020 @ 올리는 거는 뭐렌 허여? 돌 지둘리는 거?(올리는 거는 뭐라고 해요? 돌 지지르는 거?)
103020 #1 돌, 돌. 돌멩이 그 세 밧듸 지둘라야 뒈여.(돌, 돌. 돌멩이 그 세 군데 지질러야 돼.)

---

124)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125) '돌태'는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103020 @ 예.(예.)
103020 #1 요만이 섬비가 크니까.(요만큼 끙게가 크니까.)
103020 @ 예예.(예예.)
103020 #1 두 고진 끗어. 그니까 이디 하나 이디 하나.(두 고진 끄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03020 @ 음.(음.)
103020 #1 영 딱허게 알러레 부뜨게.(이렇게 딱 하게 아래로 붙게.)
103020 @ 예.(예.)
103020 #1 부뜨게 끗어. 무그와마씨게 것도 무그와.(붙게 끄어. 무거워요 것도 무거워.)
103020 @ 개꽝낭이 좋아양?(쥐똥나무가 좋아요?)
103020 #1 개꽝낭.(쥐똥나무.)
103020 @ 음.(음.)
103020 #1 개꽝낭 저 놀 거 끈어당은에.(쥐똥나무 날 거 끊어다가.)
103021 @ 예, 조팟 검질은 젤 힘든 거 아니예?(예, 조밭 김은 젤 힘든 거 아닙니까?)
103021 #1 조팟 검질?(조밭 김?)
103021 @ 으.(으.)
103021 #1 조팟 검질이고 콩 검질이고 콩 검질은 나중에 메는 따문 질 힘듭니다. 콩 검질 감저 검질이 힘들주, 조팟 검질은.(조밭 김이고 콩밭 김이고 콩밭 김은 나중에 매는 때문에 젤 힘듭니다. 콩밭 김 고구마밭 김이 힘들지, 조밭 김은.)
103021 @ 으.(으.)
103021 #1 뜨거와, 뜨거와.(뜨거워, 뜨거워.)
103021 @ 뜨거와.(뜨거워.)
103021 #1 저 조팟이 조가 요만이 헤사사 메는 따문에 뜨거우민 그때 양발이 싯수가?(저 조밭에 조가 요만큼 해야 매는 때문에 뜨거우면 그때 양말이 있습니까?)
103021 @ 음.(음.)
103021 #1 양발이 없으니까 신을 신으면은 그 졸 다 불려지니까.(양말이 없으니까 신을 신으면 그 졸 다 밟아지니까.)
103021 @ 음.(음.)
103021 #1 맨발에 허민 뜨거와가지고 검질메영 흔 줌 놔근에 그레 디뎡은에 무너앚고.(맨발에 하면 뜨거워가지고 김매어서 한 줌 놓아서 그리로 디뎌서 물러앉고.)
103021 @ 음. 웃음.(음. 웃음.)
103021 #1 그치룩 헷수다게.(그처럼 했습니다.)
103021 @ 게믄 삼춘예? 조팟도 보면, 웨 좁씨 갈면 씨들 이렇게 나오지 아녕니까?(그러면 삼촌? 조밭도 보면, 왜 좁씨 갈면 씨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3021 #1 예.(예.)
103021 @ 하나만 허면 침 박앗져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하나만 하면 침 박았지 이런 말도 들어봅디까?)
103021 #1 그런 건 아니.(그런 건 아니.)
103021 @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03021 #1 예. 그런 건 안 들어봔.(예. 그런 건 안 들어봤어.)
103021 #1 게믄 조팟 검질은 멧 번 멥니까?(그러면 조밭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21 #1 싀 불도 메고 두 불도 메곡.(세벌도 매고 두벌도 매고.)
103021 @ 으. 맨 처음 헌 거는 ᄉᆞ끄는 거?(으. 맨 처음 한 거는 솎는 거?)
103021 #1 맨 처음 허는 건 초불.(맨 처음 허는 건 애벌.)
103021 @ 예.(예.)
103021 #1 두불, 두불. 두불 주로 두불 멧수다.(두벌, 두벌. 두벌 주로 두벌 맸습니다.)
103021 @ 초불검질 헐 때는 어떤 거 메는 거마씨?(애벌매기 할 때는 어떤 거 매는 거요?)
103021 #1 초불검질 허는 건 ᄉᆞ끄는 거.(애벌매기 하는 건 솎는 거.)
103021 @ 으.(으.)
103021 #1 요만썩 사이. 게난 그 영 허여근에 ᄒᆞ꼼만 헤영은에 손 들영 메면은.(요만큼 사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서 조끔만 해서 손 들여서 매면.)
103021 @ 음.(음.)
103021 #1 그놈으 조가 노랑헤근에 누게 멘 거 다 알아져마씨.(그놈의 조가 노랑해서 누가 맨 거 다 알아집니다.)
103021 @ 아아.(아아.)
103021 #1 게난 손으로 팍팍허게 이 골겡이 디밀앙 팍팍 멘 디는 그놈으 조가 거멍케, 다, 다. 누게 멘 거 다 알아집니다.(그러니 손으로 팍팍하게 이 호미 집어넣어서 팍팍 맨 데는 그놈의 조가 거멓게, 다, 다. 누가 맨 거 다 알아집니다.)
103021 @ 으으.(으으.)
103021 #1 저 팍팍허게 팍팍 메줘사 그게 ᄒᆞ꼼 흑도 올려주곡 허영은에 좋은 상이라마씨.(저 팍팍하게 팍팍 매줘야 그게 조끔 흙도 올려주고 해서 좋은 표본이에요.)
103021 @ 으.(으.)
103021 #1 우리가 헤여보면은.(우리가 해보면.)
103021 @ 으으.(으으.)
103021 #1 경헤근에 그 누게 멘 거 다 알아집니다. 우으로 영 허영 손으로 메는 체만 마는 체만 허영은에, 건양 노랑허영 헹 안 좋아마씸.(그렇게 해서 그 누게 맨 거 다 알아집니다. 위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매는 체만 마는 체만 해서, 건요 노랑허영 해서 안 좋아요.)

103021 @ 아아.(아아.)
103021 #1 예, 팍팍허게 그 우로 메어줘사.(예, 팍팍하게 그 위로 매줘야.)
103022 @ 게믄 그 조 헐 때는 검질은 또 어떤 거 나마씨? 그때는.(그러면 그 조 할 때는 김은 또 어떤 거 납니까? 그때는.)
103022 #1 조?(조?)
103022 @ 예.(예.)
103022 #1 조는 여름 검질.(조는 여름 김.)
103022 @ 음.(음.)
103022 #1 나 불럼시냐? 누게 불르는 소리 남시니? 저 여름 검질 그 엿날은 여름 검질은 또 이상헌 검질 이제, 이제보다는 아이 낫수다.(날 부르나? 누구 부르는 소리 나니? 저 여름 김 그 옛날은 여름 김은 또 이상한 김 이제, 이제보다는 아니 났습니다.)
103022 @ 음.(음.)
103022 #1 이제보다는 안 나고. 그 저 무슨. 으음.(이제보다는 안 나고. 그 저 무슨. 으음.)
103022 @ 검질 일름?(김 이름?)
103022 #1 여름 검질 일름 몰랑 이제.(여름 김 이름 몰라서 이제.)
103022 @ 이땅 튼내봅서. 게걸랑 걸랑. 웃음.(이따가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그걸랑. 웃음.)
103022 #1 이제, 이제 막 낫수다. 나신디 거 일름 몰랑은에.(이제, 이제 막 났습니다. 났는데 거 이름 몰라서.)
103022 @ 생각나지 안 허멘마씨?(생각나지 않나요?)
103022 #1 일름을 몰람신게.(이름을 모르겠네.)
103023 @ 예, 나중에 이제 생각헤보고예? 조 수확은 언제 허는 거마씨?(예,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고요? 조 수확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3023 #1 조 수확, 가을에.(조 수확, 가을에.)
103023 @ 아, 가을에.(아, 가을에.)
103023 #1 예.(예.)
103023 @ 그때는 어떵 수확허젠 허면 준비헹 가는 건 또 뭐? 또 호미도 가졍가야 뒈곡.(그때는 어떻게 수확하려고 하면 준비해서 가는 건 또 뭐? 또 낫도 가져가야 되고.)
103023 #1 호미. 호미. ᄒᆞ나만 ᄀᆞ지믄 뒈여.(낫. 낫. 하나만 가지면 돼.)
103023 @ 게믄 그거는 무신 걸로 무껏수강?(그러면 그거는 무슨 걸로 묶었습니까?)
103023 #1 그거는 께 털엉.(그거는 매끼 틀어서.)
103023 @ 으.(으.)
103023 #1 예, 저 그 새 비여당 께 털엉 무꺼야마씨.(예, 저 그 띠 베다가 매끼

틀어서 묶어야 됩니다.)
103023 @ 이거는 께 틀엉 무끄고예.(이거는 매끼 틀어서 묶고요.)
103023 #1 예, 께 털엉 무끄고예.(예, 매끼 틀어서 묶고요.)
103023 @ 무끄면 이거는 밧듸서 저기 타작을 허는 거우꽈? 아니면 집에 가져오는 거우꽈?(묶으면 이거는 밭에서 저기 타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가져오는 겁니까?)
103023 #1 집에 다 시꺼 와야 뒈마씨.(집에 다 실어 와야 돼요.)
103023 @ 이것도?(이것도?)
103023 #1 집의 다 시꺼당은에.(집에 다 실어다가.)
103023 @ 으.(으.)
103023 #1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줴영. 호미는, 호미는 이렇게 놔가지고 호미를 이렇게 놓면은 호미가 이렇게 올라오지 아녑니까?(하나하나 다 이렇게 쥐어서. 낫은, 낫은 이렇게 놔가지고 낫을 이렇게 놓으면 낫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103023 @ 예.(예.)
103023 #1 올라오민 영허민 하나썩 이렇게 혜영 짤라마씨. 짤라.(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잘라요. 잘라.)
103023 @ 음.(음.)
103023 #1 고고리만 다 짤라 놔.(이삭만 다 잘라 놓아.)
103023 @ 아아.(아아.)
103023 #1 이 남뎅이는 이레 두고. 남뎅이를 다 무꺼근에 이 거 소촐.(이 대는 이리 두고. 대를 다 묶어서 이 거 소꼴.)
103023 @ 으.(으.)
103023 #1 거 소촐로.(거 소꼴로.)
103024 @ 낭뎅이는예?(대는요?)
103024 #1 남뎅이로 소촐 허는 거마씨.(대는 소꼴 하는 거예요.)
103025 @ 조 테작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조 타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3025 #1 조 테작헐 때예?(조 타작할 때?)
103025 @ 예.(예.)
103025 #1 그 저 ᄒᆞ꼬만 헌 거는 이 저 도께로 허고.(그 저 조끔만 한 거는 이 저 도리깨로 하고.)
103025 @ 으.(으.)
103025 #1 볼려마씨. 주로 볼려.(밟아요. 주로 밟아.)
103025 @ 아, 뭘로?(아, 뭘로?)
103025 #1 소.(소.)
103025 @ 으.(으.)
103025 #1 소 메왕 볼리민 그 똥이나 오줌이나 싸젠 허민 솔빡[126].(소 매어 밟으

면 그 똥이나 오줌이나 싸려고 하면 '솔빡'.)
103025 @ 예.(예.)
103025 #1 솔빡 그 조름에 신 사름은 솔빡 확 받지 아녀민 솔빡 확 받지 아녀민 그레 오줌 싸 불 거 아니우꽈?('솔빡' 그 꽁무니에 있는 사람은 '솔빡' 확 받지 않으면 '솔빡' 확 받지 않으면 그리 오줌 싸 버릴 거 아닙니까?)
103025 @ 예.(예.)
103025 #1 경허영 허는 따문 그거 저 힘들어마씨.(그렇게 해서 하는 때문에 그거 저 힘들어요.)
103025 @ 예, 그치룩 볼린 다음에는?(예, 그처럼 밟은 다음에는?)
103025 #1 저, 저 나중에라 가난양?(저, 저 나중에 가니까요?)
103025 @ 예.(예.)
103025 #1 그 저 물뱅이.(그 저 연자매.)
103025 @ 음.(음.)
103025 #1 물벵이 이렇게 영 저 그 저 이 인칙 곧지 아녑디가?(연자매 이렇게 이렇게 저 그 저 이 아까 말하지 않습디까?)
103025 @ 예.(예.)
103025 #1 그디 강은에 솔빡에, 솔빡에 혼 고고리 혼 다섯 개만 놔근에 추지허영 자기가 허젠허민 강 미리 어펑 놔둬야 뒈마씨.(거기 가서 '솔빡'에, '솔빡'에 한 이삭 한 다섯 개만 넣고 차지해서 자기가 하려하면 가서 미리 엎어 놓아둬야 돼요.)
103025 @ 예.(예.)
103025 #1 미리 어펑 놔뒷다근에 그 물뱅이서, 나중에 물뱅이서양.(미리 엎어 놓았다가 그 연자매에서, 나중에 연자매에서요.)
103025 @ 음.(음.)
103025 #1 물뱅이서 뱅뱅 돌멍 손으로 영영 올리멍 골로로 저 안네 들어간 거 영 허곡 헤영 골로로 그 물뱅이서 뱅뱅 돌리멍 그거 문딱 그거 저 뭇아근에 그디서 뭇아근엥에 담아다근엥에 그거 저 얼멩이로, 얼멩이 이만인 얼멩이로 청. 따시 밤의 문딱 그 푸는체로 다 푸곡.(연자매에서 뱅뱅 돌면서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올리면서 골고루 저 안에 들어간 거 이렇게 하고 해서 골고루 그 연자매에서 뱅뱅 돌리면서 그거 모두 그거 저 무수어서 거기서 무수어서 담아다가 그거 저 어레미로, 어레미 이만큼인 어레미로 쳐서. 다시 밤에 모두 그 키로 다 까불고.)
103025 @ 으음.(으음.)
103025 #1 경헤수게.(그렇게 했습니다.)
103025 @ 예에. 그런 식으로 이제 헹은에 허고, 나중에 덩드렁마께[127]로도 뭐 헤신가마씨? 조 헐 때.(예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고, 나중에 '덩드렁마께'로도 뭐 했습니까? 조 할 때.)

126) '솔빡'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하게 만든 그릇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속박', '손박', '좀팍', '좀팍세기' 등으로 불린다.
127)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던드렁마께'라고도 한다.

103025 #1 덩드렁마께론 ᄒᆞ꼼씩 헌 거게.(‘덩드렁마께’론 조끔씩 한 거.)
103025 @ 아, 아.(아, 아.)
103025 #1 ᄒᆞ꼼씩 헌 거 ᄆᆞᆺ앗주 큰 건 못헙니다. 하영 헌 건 못헤.(조끔씩 한 거 무수지 큰 건 못합니다. 많이 한 건 못해.)
103025 @ 그거는 안 허고예? 조는 어떤 종류덜 잇어신고예?(그거는 안 하고요? 조는 어떤 종류들 있었습니까?)
103025 #1 존 모읜좁쏠.(존 메조.)
103025 @ 음.(음.)
103025 #1 엿날은 주로 모인좁쏠. 경허단 나중에라 가난 흐린좁쏠양.(옛날은 주로 메좁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차조요.)
103025 @ 음.(음.)
103025 #1 흐린좁쏠, 흐린좁쏠 허여근엥에 이 저 걸름 낼 때 ᄀᆞ뜬 때에 그 보리쏠 놓곡 그 흐린좁쏠 놔근엥에 밥허영은엥에 장남덜 안네수다게.(차조, 차조 해서 이 저 거름 낼 때 같은 때에 그 보리쌀 놓고 그 차조 넣어서 밥해서 장정들 드렸습니다.)
103025 @ 예.(예.)
103025 #1 장남덜 안넨. 그 곤쏠이 엇으난.(장정들 드렸어. 그 흰쌀이 없으니까.)
103025 @ 예.(예.)
103025 #1 나중에라 가난 또 곤쏠, 밧디 허연예양.(나중에 가니까 또 흰쌀, 밭에 했어요.)
103025 @ 으.(으.)
103025 #1 그 저 산듸. 나룩이 아니고 산듸. 산듸 희영은에 그 저 그츠룩 경 힘든 일 헐 때에 ᄆᆞᆫ딱 저 아버지 ᄆᆞᆫ 그츠룩 허여들입디다게.(그 저 밭벼. 벼가 아니고 밭벼. 밭벼 해서 그 저 그처럼 그렇게 힘든 일 할 때에 모두 저 아버지 모두 그처럼 해들입디다.)
103025 @ 으음.(으음.)
103025 #1 보리쏠 놓고 곤쏠 놓곡 흐린좁썰 놓곡 허영.(보리쌀 놓고 흰쌀 놓고 차조 놓고 해서.)
103025 @ 으.(으.)
103025 #1 경 허연 허여들입디다게.(그렇게 해서 해들입디다.)
103026 @ 게난 좁쏠 헌 걸로는 뭘 주로 허영 먹은 거라마씨? 좁쏠로 헹은?(그러니까 좁쌀 한 걸로는 뭘 주로 해서 먹은 거예요? 좁쌀로 해서는?)
103026 #1 좁쏠?(좁쌀?)
103026 @ 예.(예.)
103026 #1 좁쏠은게 옛날은 엇으난 감저도 놩은엥에 그 감저 숢당은엥에 좁쏠 놩 밥도 허고.(좁쌀은 옛날은 없으니까 고구마도 넣어서 그 고구마 삶다가 좁쌀 넣어 밥도 하고.)

103026 @ 음.(음.)
103026 #1 또 좁쏠로 그자 밥도 보리쏠 놔근엥예 허곡. 그 밧이 농장이 하난.(또 좁쌀로 그저 밥도 보리쌀 넣어서 하고. 그 밭이 농장이 많으니까.)
103026 @ 음.(음.)
103026 #1 저 보리쏠 솖당 좁쏠 놩 허민 뒐 거 아니우꽈?(저 보리쌀 삶다가 좁쌀 넣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경허영 밥헤영 먹엇수다게.(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103026 @ 조론 좁쏠로는 술도 허지 아념니까?(조론 좁쌀로는 술도 하지 않습니까?)
103026 #1 수울?(술?)
103026 @ 음.(음.)
103026 #1 그 저 무신 거 흐린좁쏠.(그 저 무슨 거 차조.)
103026 @ 예.(예.)
103026 #1 흐린좁쏠헤여근에 오메기[128]. 아이고, 나도 멧 번 헷수다게.(차조해서 '오메기.' 아이고, 저도 몇 번 했습니다.)
103026 @ 예.(예.)
103026 #1 그 저 이, 저 제 지나젠 허민 그거 청주, 청주라고 청주허여야마씨.(그 저 이, 저 제 지내려 하면 그거 청주, 청주라고 청주합니다.)
103026 @ 예.(예.)
103026 #1 청주허여근엥에 그 우의 거, 우의 건 뚤라근엥에 유리병에 저 이수펭[129]. 이수펭엔 헙니다. 거 엿날에.(청주해서 그 위엣 거, 위엣 건 따라서 유리병에 저 이수병. 이수병이라고 합니다. 거 옛날에.)
103026 @ 예.(예.)
103026 #1 이수펭에 이만씩 헌 평에 질엉은에 청주 질어근에 청주허여근에 제 지나레 가곡.(이수병에 이만씩 한 병에 길어서 청주 길어서 청주해서 제 지내러 가고.)
103026 @ 으음.(으음.)
103026 #1 경 저 이장이나 허민 다 그 큰제를 마트면은 그 저 허여사마씸.(그렇게 저 이장이나 하면 다 그 큰제사를 맡으면 그 저 해야 합니다.)
103026 @ 예.(예.)
103026 #1 그런 거 허곡. 이장을 아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그거허영 버글버글 궤여가면은 저 그거 먹어수다게.(그런 거 하고. 이장을 않아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그거해서 버글버글 괴어가면은 저 그거 먹었습니다.)
103026 @ 예.(예.)

128)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한 후 가운데 큰 구멍이 뚫어지게 만든 고리 모양의 떡을 말한다.
129) '이수펭'은 이수들이 병을 말한다. '이수들이'는 2홉짜리 다섯 병 들이인 1.8ℓ를 말한다. 1홉은 18ml이다.

103026 #1 그거 저 우리 집의도, 우리 집의 아저씨도 그거 좋아허난에 그거 경허면서 드러 먹어수다게.(그거 저 우리 집에도, 우리 집의 아저씨도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서 들이 먹었습니다.)
103026 @ 음. 경허영 술도 하고예?(음. 그렇게 해서 술도 하고요?)
103026 #1 예.(예.)
103026 @ 떡도 헤여실 거 아니우꽈? 좁쏠로.(떡도 했을 거 아닙니까? 좁쌀로.)
103026 #1 좁쏠로 떡허고 말곡 좁쏠로 허엿수다게.(좁쌀로 떡하고 말고 좁쌀로 했습니다.)
103026 @ 음.(음.)
103026 #1 좁쏠로 떡 허엿주기 춤.(좁쌀로 떡 하였지 참.)
103026 @ 무신 떡 허엿수가?(무슨 떡 하였습니까?)
103026 #1 동글락허게.(동그랗게.)
103026 @ 예.(예.)
103026 #1 동골락 떡.(동그란 떡.)
103026 @ 음.(음.)
103026 #1 동글락, 동글락허게 영영영영 동글락허게 멘들앙근에.(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103026 @ 예.(예.)
103026 #1 물에 숢앙.(물에 삶아서.)
103026 @ 좁쏠로도예?(좁쌀로도요?)
103026 #1 예.(예.)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좁쏠로도 물에 숢앙은엥에 허곡 보리, 보리 골앙은엥에 뚜시 저 돌레떡[130]도 허고.(좁쌀로도 물에 삶아서 하고 보리, 보리 갈아서 다시 저 '돌레떡'도 하고.)
103026 @ 음.(음.)
103026 #1 엿날에 무신 먹을 게 잇수가게?(옛날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103026 @ 아까 좁쏠로 동글락허게 멘든 떡 무신 떡이라? 떡 이름은마씨?
(전화 잡음)(아까 좁쌀로 동그랗게 만든 떡 무슨 떡이야? 떡 이름은요?)
(전화 잡음))
103026 @ 그 떡 이름 뭐우꽈?(그 떡 이름 뭡니까?)
103026 #1 돌레떡.('돌레떡')
103026 @ 아, 그냥 것도 게믄 것도 조돌레우꽈? 게믄?(아, 그냥 것도 그러면 것도 '조돌레'입니까? 그러면?)
103026 #1 예, 돌레떡, 돌레떡.(예, '돌레떡', '돌레떡'.)
103026 @ 으, 좁쏠돌레? 조돌레 아아, 감주도 헤실 거고예?(으, '좁쌀돌레'? '조돌

130)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레’ 아아, 감주도 했을 거고요?)
103026 #1 감주사 엿날 감주게 술 엇어부난.(감주야 옛날 감주 술 없어버려서.)
103026 @ 예.(예.)
103026 #1 감주도 허곡게.(감주도 하고.)
103026 @ 게난 조 간 게 이제 소용이 하다예?(그러니까 조 간 게 이제 소용이 많네요?)
103026 #1 예.(예.)
103026 @ 이것저것 쓸 게예?(이것저것 쓸 게요?)
103026 #1 게난 그건 농사 정은에 건 다 먹는 거마씸게.(그러니까 그건 농사 져서 건 다 먹는 거예요.)
103026 @ 음.(음.)
103026 #1 먹는 거. 다 이거 헷닥 저거 헷닥 먹는 거.(먹는 거. 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먹는 거.)
103027 @ 그 조낭뎅이?(그 조짚?)
103027 #1 아니, 조낭뎅인 소 주고.(아니, 조짚은 소 주고.)
103027 @ 건 소 주는 거예?(건 소 주는 거요?)
103027 #1 건 쉐 주는 거.(건 소 주는 거.)
103027 @ 예, 소 주는 거.(예, 소 주는 거.)
103027 #1 건 소가 아니고 쉐. 엿날은 쉐.(건 소가 아니고 ‘쉐’. 옛날은 ‘쉐’.)
103027 @ 쉐?(소?)
103027 #1 새 다 저레 막 눌엇당 새 빠멍 다 주는 거마씨.(띠 다 저리 막 가렸다가 띠 빼면서 다 주는 거요.)
103028 @ 예, 그 다음에 조 농사지을 때예, 잊어불지 못허는 것도 이수가?(예, 그 다음에 조 농사지을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103028 #1 양?(예?)
103028 @ 조 농사지을 때 잊어불지 못허는 거. 아이고, 나 이거 정말 지겹다허는?(조 농사지을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아이고, 나 이거 정말 지겹다하는?)
103028 #1 아, 그거는 전통으로 허니까.(아, 그거는 전통으로 하니까.)
103028 @ 예.(예.)
103028 #1 전통으로 허니까 이거 허여사 우리가 먹고 살 거난.(전통으로 하니까 이거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거니까.)
103028 @ 음.(음.)
103028 #1 그건 그건 허여야 뒈겠다, 이 밧을, 이 밧을 어떵 다 갈코? 어떵 검질 다 메코? 열다섯 나난에 남자덜 남즈, 남즈 빌어당 남즈영 다 수눌멍 검질멧수다, 나.(그건 그건 해야 되겠다, 이 밭을, 이 밭을 어떻게 다 갈까? 어떻게 김을 다 맬까? 열다섯 나니까 남자들 남자, 남자 빌어다가 남자랑 다 품앗이하면서 김맸습니다, 내가.)

103028 @ 음.(음.)
103028 #1 장남질 허연마씨. 장남질.(장정질 했어요. 장정질.)
103028 @ 장남질 허연예?(장정질 했어요?)
103028 #1 남즈덜 막 ᄉᆞ뭇 어른덜 빌어당은엥에. 어른덜이영 총각이영 총각덜 문 허여당은에 문 저 수눌엉 메엇수다게.(남자들 막 사뭇 어른들 빌어다가. 어른들이랑 총각이랑 총각들 모두 해다가 모두 저 품앗이해서 매었습니다.)
103028 @ 이 아저씨도 완 메연마씨?(이 아저씨도 와서 맸어요?)
103028 #1 이 아저씨 밧 간 밧딘 안 갓수다.(이 아저씨 밭 간 밭에는 안 갔습니다.)
103028 @ 웃음.(웃음.)
103028 #1 와불언, 와불언.(와버렸어, 와버렸어.)
103028 @ 와불언?(와버려요?)
103028 #1 게난 누게가 ᄒᆞ꼼 ᄒᆞ꼼 베리는 사름 영 이녁 셍각으로만 영 셍각헤여 근엥에 이 사름은 어떤 뭣엔 ᄀᆞᆫ젠 헴신가, 허는 사름신딘 가질 아년마씨.(그러니 누가 조끔 조끔 보는 사람 이렇게 이녁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어떤 뭣엔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사람에겐 가질 않았어요.)
103028 @ 아. 웃음.(아. 웃음.)

콩농사

103029 @ 콩농사도, 콩도 하영 갈안마씨?(콩농사도, 콩도 많이 갈았나요?)
103029 #1 예게. 콩은 도께로 두드리고.(예. 콩은 도리깨로 두드리고.)
103029 @ 음, 건 언제 허는 거우과? 뭐가 필요헤? 콩농사 허젠 허면?(음, 건 언제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해? 콩농사 하려고 하면?)
103029 #1 콩농사헐 때엔 그냥 콩씨 뿌렁은에게 밧만 갈민 뒈는 거마씨.(콩농사할 때엔 그냥 콩씨 뿌려서 밭만 갈면 되는 겁니다.)
103030 @ 건 ᄒᆞ꼼 쉬운 거예?(건 조끔 쉬운 거요?)
103030 #1 예. 콩씨 뿌렁 밧만 갈민 뒈는 거.(예. 콩씨 뿌려서 밭만 갈면 되는 거.)
103030 @ 건 언제 갈아마씨? 콩은?(건 언제 갈아요? 콩은?)
103030 #1 콩 삼월 ᄃᆞᆯ에 다 갈아.(콩 삼월 달에 다 갈아.)
103030 @ 그것도 삼월에?(그것도 삼월에?)
103030 #1 예.(예.)
103030 @ 아까 콩밧 메는 게 젤 힘들엇덴 허멍예?(아까 콩밭 매는 게 젤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103030 #1 콩밧은 말쩨 메난 절완이.(콩밥은 끝에 매니까 바랭이.)
103030 @ 예.(예.)
103030 #1 절완이가 ᄉᆞ뭇 텅에 틀엉은에에 절완이 ᄃᆞᆼ기젠 허민 힘들엉은엥에 막

커근에 막 컹.(바랭이가 사뭇 덩이 틀어서 바랭이 당기려고 하면 힘들어서 매우 커서 매우 커서.)
103030 @ 음.(음.)
103030 #1 둥겨 가민 이거 고구마 드는 것이 나와 불어마씨.(당겨 가면 이거 고구마 드는 것이 나와 버려요.)
103030 @ 으음.(으음.)
103030 #1 나와 불어. 복콜. 인칙 조에, 조에.(나와 버려. 깨풀. 아까 조에, 조에.)
103030 @ 조에 복콜?(조에 깨풀?)
103030 #1 복콜.(깨풀.)
103030 @ 예, 복콜.(예, 깨풀.)
103030 #1 복콜이 주로 많이 납디다게.(깨풀이 주로 많이 납디다.)
103030 @ 예, 예, 예.(예, 예, 예.)
103030 #1 여름에 나는 거.(여름에 나는 거.)
103030 @ 음.(음.)
103030 #1 이젠 벨 거 다 나옵니다게, 검질. 이제가 더 하 검질 씨가.(이젠 별 거 다 나옵니다, 김. 이제가 더 많아 김 씨가.)
103030 @ 음.(음.)
103030 #1 씨가.(씨가.)
103030 @ 씨가?(씨가?)
103030 #1 몰르는 것이 하.(모르는 것이 많아.)
103030 @ 아아.(아아.)
103030 #1 엿날은 일름을 다 알아지는 풀이 나신디 이젠 모르는 풀이 많아.(옛날은 이름을 다 알아지는 풀이 났는데 이젠 모르는 풀이 많아.)
103030 @ 음.(음.)
103030 #1 모르는 풀이 이 저 과수원에 강 보면은.(모르는 풀이 이 저 과수원에 가서 보면.)
103030 @ 서양에서 들어온 것덜 하영 낭예?(서양에서 들어온 것들 많이 나서요?)
103030 #1 예, 게난 저 우리 큰아덜은, 이거양 저 비료에 오는 거 아니우꽝? 비료에.(예, 그러니까 저 우리 큰아들은, 이거요 저 비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비료에.)
103030 @ 음.(음.)
103030 #1 비료에 오는 거옌.(비료에 오는 거라고.)
103030 @ 목초씨영 ᄀᆞ치 나오고.(목초씨랑 같이 나오고.)
103030 #1 새가 너미 만허여 놓난, 새가 새 똥 막 싸 노민 맨 검질. 메당 봐도 검질. 제초제 허당 봐도 검질.(새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새가 새 똥 막 싸 놓으면 맨 김. 매다가 봐도 김. 제초제 하다가 봐도 김.)

103030 @ 음.(음.)
103030 #1 이젠 제초제 시난 살암주.(이젠 제초제 있으니까 살지.)
103031 @ 예, 진짜 맞아예. 콩밧듸도 걸름은 안 허지예? 콩밧듸.(예, 진짜 맞아요. 콩밭에도 거름은 안 하지요? 콩밭에.)
103031 #1 콩밧듸 걸름 안 헙니다게.(콩밭에 거름 안 합니다.)
103032 @ 콩밧듸도 걸름 안 허고예.(콩밭에도 거름 안 하고요.)
103032 #1 걸름이 어디 잇수가?(거름이 어디 있습니까?)
103032 @ 아까 콩, 콩씨는 그냥 삐여?(아까 콩, 콩씨는 그냥 뿌려?)
103032 #1 예, 기냥 삐여.(예, 그냥 뿌려.)
103032 @ 음.(음.)
103032 #1 기냥 삐여근에 그냥 갑니다.(그냥 뿌려서 그냥 갑니다.)
103032 @ 예, 그것도 씨멩텡이 헤영은에 헙니까?(예, 그것도 씨망태 해서 합니까?)
103032 #1 예.(예.)
103032 @ 음.(음.)
103032 #1 그 망텡이 언제나 어디 돌아멧당 놧당 씨 뿌리는 거.(그 망태 언제나 어디 달아맸다가 놔뒀다가 씨 뿌리는 거.)
103032 #1 씨 뿌리는 거.(씨 뿌리는 거.)
103033 @ 콩밧 검질은 멧 번 메여마씨?(콩밭 김은 몇 번 매나요?)
103033 #1 콩밧은 혼 번.(콩 밭은 한 번.)
103033 @ 혼 번?(한 번?)
103033 #1 예, 혼 번.(예, 한 번.)
103033 @ 예, 혼 번허고.(예, 한 번하고.)
103033 #1 고구마밧도 혼 번.(고구마밭도 한 번.)
103033 @ 예.(예.)
103033 #1 너미 일이 만혜 놓니까.(너무 일이 많아 놓으니까.)
103033 @ 으.(으.)
103033 #1 조 검질에만 저 조만 깨끗이 잘 허여야 뒈난.(조 김에만 저 조만 깨끗이 잘 해야 되니까.)
103033 @ 예.(예.)
103033 #1 그자 조 검질만 두불.(그저 조 김만 두벌.)
103034 @ 콩밧 검질 아까 절완이허고?(콩밭 김은 아까 바랭이하고?)
103034 #1 절완이 주로. 주로 절완이. 절완이 납디다.(바랭이 주로. 주로 바랭이. 바랭이 납디다.)
103034 @ 절완이.(바랭이.)
103034 #1 절완이허고 복콜.(바랭이하고 깨풀.)
103034 @ 아, 여기도 복쿨이 같이 나고, 복쿨 나고예?(아, 여기도 깨풀이 같이

나고, 깨풀 나고요?)
103034 #1 복쿨이 경 합디다게.(깨풀이 그렇게 많습디다.)
103034 @ 예.(예.)
103034 #1 엿날에.(옛날에.)
103035 @ 예, 그다음에 게믄 콩은 수확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예, 그다음에 그러면 콩은 수확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35 #1 콩은 손으로. 그 저 호미로 거꺼야 뒈여마씸.(콩은 손으로. 그 저 낫으로 꺾어야 돼요.)
103035 @ 이건 호미로 거끄는 거?(이건 낫으로 꺾으는 거?)
103035 #1 호미로 거꺼근에 영 톡톡 놩은에 허민.(낫으로 꺾어서 이렇게 톡톡 놓아서 하면.)
103035 @ 음.(음.)
103035 #1 그것도 날라 오젠 허민 또 그 두드릴 디 밧디서 두드려야 뒈여마씨.(그것도 날라 오려고 하면 또 그 두드릴 데 밭에서 두드려야 돼요.)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밧디서 두드리젠 허난 날라 오젠 허민 힘들어.(밭에서 두드리려고 하니까 날라 오려고 하면 힘들어.)
103035 @ 그 수확허는 거는 뭘로 헨마씨?(그 수확하는 거는 뭐로 했어요?)
103035 #1 거 도께.(거 도리깨.)
103035 @ 으.(으.)
103035 #1 도께로 두드려야 뒈여마씨. 멍석.(도리깨로 두드려야 돼요. 멍석.)
103035 @ 예.(예.)
103035 #1 멍석. 옛날은 멍석벳긔 엇으난. 멍석을 멧 질 강은에 그 밧듸 펴왕은에.(멍석. 옛날은 멍석밖에 없으니까. 멍석을 몇 질 가서 그 밭에 펼쳐서.)
103035 @ 으.(으.)
103035 #1 그거를 저 무시거 그 콩을 문딱 그레 날라다 놩 멍석더레.(그거를 무엇 그 콩을 모두 그리 날라다 놓고 멍석에.)
103035 @ 예.(예.)
103035 #1 어느 정도 두두릴 만씩 날라다 놩 두드려 두두리곡 뒈쌍 두드리곡 멧 번 뒈쌍 두드려근에 그 콩남뎅이 내쳐뒁 뚜시, 뚜시, 뚜시 강 날라다근에 그 멍석디레 놩은에 또 두드리곡. 경헷수다게.(어느 정도 두드릴 만큼 날라다 놓고 두드려 두드리고 뒤집어서 두드리고 몇 번 뒤집어서 두드려서 그 콩대 내쳐두고 다시, 다시, 다시 가서 날라다가 그 멍석에 놓아서 또 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103035 @ 게난 삼춘, 옛날 멍석도 보믄 무사 늬개방장헌 멍석도 잇고.(그러니까 삼촌, 옛날 멍석도 보면 왜 네모반듯한 멍석도 있고.)
103035 #1 늬귀방장헌 멍석.(네모반듯한 멍석.)
103035 @ 아, 예. 동글락헌 건?(아, 예. 동글한 건?)

103035 #2 동글락헌 건 독석[131]이고. 건 독석이고. 수랑, 수랑허주게.(동글한 건 멍석이고. 건 멍석이고. 기름, 기름하지.)

103035 #1 늬귀방장헌 거. 멍석.(네모반듯한 거. 멍석.)

103035 @ 예, 예.(예, 예.)

103035 #2 소랑헙니다. 소랑허여. 늬개방장 아녕 수룽허여.(기름합니다. 기름해. 네모반듯하지 않고 기름해.)

103035 @ 예.(예.)

103035 #2 이치룩 수룽허주게.(이처럼 기름하지.)

103035 #1 조용헙서게. 조용히 ᄀᆞ만이 앚아십서게.(조용하십시오.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으세요.)

103035 @ 음.(음.)

103035 #1 시끄럽덴 허고.(시끄럽다고 하고.)

103036 @ 콩 허게 뒈면 콩 저 수확헹 오면 콩으로 헤 먹는 거는 무시거마씨. 옛날에.(콩 하게 되면 콩 저 수확해서 오면 콩으로 해 먹는 거는 무엇인가요. 옛날에.)

103036 #1 콩 헹 먹는 거?(콩 해서 먹는 거?)

103036 @ 예.(예.)

103036 #1 콩국도 허곡.(콩국도 하고.)

103036 @ 예.(예.)

103036 #1 콩죽도 쑤곡.(콩죽도 쑤고.)

103036 @ 으.(으.)

103036 #1 경허는 거마씨.(그렇게 하는 거요.)

103036 @ 콩국도 허고 콩죽도 허고.(콩국도 하고 콩죽도 하고.)

103036 #1 예, 콩죽도 허고.(예, 콩죽도 하고.)

103036 @ 그다음 식게 허젠 허면은 그걸로 물주멍은에 뭐 멘드는 거?(그다음 제사 하려고 하면은 그걸로 물주면서 뭐 만드는 거?)

103036 #1 저 무신거 저 콩ᄂᆞ물?(저 무엇 저 콩나물?)

103036 @ 예.(예.)

103036 #1 콩ᄂᆞ물, 시리.(콩나물, 시루.)

103036 @ 예.(예.)

103036 #1 그 알로 고망 뚤라진 시리 저디 신 거.(그 아래로 구멍 뚫어진 시루 저기 있는 거.)

103036 @ 예.(예.)

103036 #1 그것에 알 알래 험벅 놔근엥에 콩 저 물 ᄃᆞᆼ갓당, 물 ᄃᆞᆼ갓당 그디 놔근엥에 ᄒᆞ루 멧 번썩 물주멍.(그것에 아래 아래 헝겊 놓아서 콩 저 물 담갔다가, 물 담갔다가 거기 넣어서 하루 몇 번씩 물주면서.)

131) '독석'은 멍석을 뜻하는데 네모진 것과 원 모양의 것을 구분하는 의미로 말한 듯하다.

103036 @ 음.(음.)

103036 #1 물주멍 허영은엥에 그거 저 콩ᄂᆞᆯ 내왕은엥에 그걸로 저 제사헷수다게.(물주면서 해서 그거 저 콩나물 내어서 그걸로 저 제사했습니다.)

103036 @ 여기서는 콩주름이렌은 안 헙니까?(여기서는 '콩주름'이라고는 안 합니까?)

103036 #1 콩질름.(콩나물.)

103036 @ 으.(으.)

103036 #1 콩질름.(콩나물.)

103036 @ 음, 그렇게 헹은에 허고, 혹시 여기서도 콩으로도 둠비도 헤마씨?(음, 그렇게 해서 하고, 혹시 여기서도 콩으로도 두부도 하나요?)

103036 #1 아이고, 저 나 결혼헐 때 둠비 헷수다게.(아이고, 저 나 결혼할 때 두부 했습니다.)

103036 @ 예.(예.)

103036 #1 둠비 헤연마씸.(두부 했어요.)

103036 @ 둠비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헷수가?(두부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36 #1 아, 둠비허젠 허민 저 물 ᄃᆞᆼ갓당.(아, 두부하려고 하면 저 물에 담갔다가.)

103036 @ 음.(음.)

103036 #1 물 ᄃᆞᆼ갓당은엥에 손으로 영영 돌리는 거.(물에 담갔다가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돌리는 거.)

103036 @ 예.(예.)

103036 #1 그럿에 ᄀᆞᆯ안 ᄀᆞᆯ안 헤수게.(그릇에 갈아서 갈아서 했습니다.)

103036 @ 예.(예.)

103036 #1 옛날은 저 공장이 엇으니까. 공장이 엇으니까 그 저 ᄀᆞ는 거. ᄀᆞ는 걸로 ᄀᆞᆯ안.(옛날은 저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그 저 가는 거. 가는 걸로 갈아서.)

103036 @ 예.(예.)

103036 #1 ᄀᆞᆯ안에 이, 저 우리 이디 둠비, 둠비 헷수다.(갈아서 이, 저 우리 여기 두부, 두부 했습니다.)

103036 @ 음.(음.)

103036 #1 나 결혼헐 때에.(내가 결혼할 때.)

103036 @ 예, 예.(예, 예.)

103036 #1 둠비허연.(두부해서.)

103036 @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메주, 뒌장.(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메주, 된장.)

103036 #1 뒌장?(된장?)

103036 @ 주로 뒌장 헤신 거 아니?(주로 된장 한 거 아니?)
103036 #1 뒌장은 저 가메, 가마.(된장은 저 가마, 가마.)
103036 @ 예에.(예에.)
103036 #1 가메, 옛날 가메.(가마, 옛날 가마.)
103036 @ 예.(예.)
103036 #1 가메에 흔 서 말쯤 숢아지카?(가마에 한 서 말쯤 삶아질까?)
103036 @ 음.(음.)
103036 #1 큰 가메 걸어근에 서 말쯤 숢아근에 그거 발로 문딱 불라.(큰 가마 걸어서 서 말쯤 삶아서 그거 발로 모두 밟아.)
103036 @ 으.(으.)
103036 #1 발로, 발로 문딱 그 도고리, 저 이만이헌 도고리.(발로, 발로 모두 그 함지박, 저 이만이한 함지박.)
103036 @ 예.(예.)
103036 #1 도고리에 놔근엥에 그거 저 발로 문딱 불릅니다.(함지박에 넣어서 그거 저 발로 모두 밟습니다.)
103036 @ 예.(예.)
103036 #1 불랑은엥에 불랑은엥에 손으로 손으로 문딱 줴여근엥에 흔 닷 말씩.(밟아서 밟아서 손으로 손으로 모두 쥐어서 한 닷 말씩.)
103036 @ 음.(음.)
103036 #1 식구 한 집의덜 닷 말씩. 그 주로 장으로만 먹으난.(식구 한 집들 닷 말씩. 그 주로 장으로만 먹으니까.)
103036 @ 예.(예.)
103036 #1 장으로만 먹으난 닷 말씩 허여근에 그 허영 어디 듯은 디 틔왓당은에 무신 것에 담앙 틔왓당 물리와근에.(장으로만 먹으니까 닷 말씩 해서 그 해서 어디 따뜻한 데 틔웠다가 무슨 것에 담아서 틔웠다가 말려서.)
103036 @ 음.(음.)
103036 #1 물리와근엥에 또 싯엉 싯엉은엥에 통개에 놔근엥에 그자 적당히 물 그자 어느 정도믄 뒈겟다, 허영. 적당히 그 소곰, 소곰을 맞추와근엥에 소금 굴라앚청은에 그 아젱이 굴라앚정은에 그 통개레 그 소금을 놔근엥에 장 만들엇수게.(말려서 또 씻어서 씻어서 항아리에 넣어서 그저 적당히 물 그저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적당히 그 소금, 소금을 맞춰서 소금 가라앉혀서 그 앙금 가라앉혀서 그 항아리에 그 소금을 넣어서 장 만들었습니다.)
103036 @ 음.(음.)
103036 #1 장 만들엉 물장도 먹곡 뒌장도 먹곡, 경헤수다.(장 만들어서 간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랬습니다.)
103036 @ 물장도 먹고예. 삼춘, 그 옛날에 집에 도고리 아까 도고리 잇덴 헷잖아예?(간장도 먹고요. 삼촌, 그 옛날에 집에 함지박 아까 함지박 있다고 했잖아요?)

103036 #1 예예예.(예예예.)

103036 @ 그 도고리도 크기에 따랑은에 종류가 ᄐᆞ나지 아넘니까?(그 함지박도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103036 #1 도고리?(함지박?)

103036 @ 예.(예.)

103036 #1 아이, 큰 것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아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03037 @ 그치룩 헹은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콩남뎅이는 뭘로 썬마씨?(그처럼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콩대는 뭐로 썼나요?)

103037 #1 콩남뎅이?(콩대?)

103037 @ 으.(으.)

103037 #1 소도 주주만은 불 슴기가 좋아마씨.(소도 주주만은 불 때기가 좋아요.)

103037 @ 아.(아.)

103037 #1 밥헤 먹기가 좋아. 소 줘, 소 줍니다. 소.(밥해 먹기가 좋아. 소 줘, 소 줍니다. 소.)

103037 @ 예, 예.(예, 예.)

103037 #1 그 콩깍제기.(그 콩깍지.)

103037 @ 음.(음.)

103037 #1 콩깍제기 뚜로 헤영 콩깍제기 눌어근에 소 주곡.(콩깍지 따로 해서 콩깍지 가려서 소 주고.)

103037 @ 음.(음.)

103037 #1 또 남뎅이 소가 혼읏이 먹지 못허니까 건 저 짇음이 막 좋아마씨.(또대는 소가 한없이 먹지 못하니까 건 저 때는데 막 좋아요.)

103037 @ 아아.(아아.)

103037 #1 밥허여 먹기가 좋아.(밥해 먹기가 좋아.)

103037 @ 예, 경허영 불도 슴고. 예. 그 다음에 콩농사허는데 콩 종류도 옛날에는 으라 가지 잇엇지양?(예, 그렇게 해서 불도 때고. 예. 그 다음에 콩농사하는데 콩 종류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있었지요?)

103037 #1 엿날엔 혼 가지벳긔 아니우다게.(옛날엔 한 가지밖에 아닙니다.)

103037 @ 어떤 거?(어떤 거?)

103037 #1 엿날엔 저 그 저 무시거. 독새기콩엔 허연 홁은 거.(옛날엔 저 그 저 무엇. 백태라고 해서 굵은 거.)

103037 @ 예.(예.)

103037 #1 그거 혼 가지. 혼 가지 허단에 ᄎᆞᄎᆞᄎᆞᄎᆞ 살아가난에 질름콩 나완에 양.(그거 한 가지. 한 가지 하다가 차차차차 살아가니까 콩나물콩 나왔어요.)

103037 @ 음.(음.)

103037 #1 질름콩 나완에 그거 저 허곡, 그거 많이 허곡, 그거 또 독새기콩은 그거 그자 ᄒᆞ꼬만 허여근엥에 먹곡 경 허엿주. 엿날은양 그 저 콩 멧 가지 엇엉은에 ᄒᆞᆫ 가지로만 헷수다.(콩나물콩 나와서 그거 저 하고, 그거 많이 하고, 그거 또 '독새기콩'은 그거 그저 조끔만 해서 먹고 그렇게 했지. 옛날은요 그 저 콩 몇 가지 없어서 한 가지로만 했습니다.)

103038 @ 삼춘은 콩 하영 갈안마씨?(삼촌은 콩 많이 갈았어요?)

103038 #1 우리?(우리?)

103038 @ 으.(으.)

103038 #1 어느제?(언제?)

103038 @ 하영, 옛날에?(많이, 옛날에?)

103038 #1 엿날에 아이고, 우리 엿날에 농ᄉᆞ 많이 헷수다.(옛날에 아이고, 우리 옛날에 농사 많이 했습니다.)

103038 @ 음.(음.)

103038 #1 꿰도 덕수[132] 일등 허곡.(참깨도 덕수에서 일등 하고.)

103038 @1 으음.(으음.)

103038 #1 열닷 섬 허난게 일등 헷주.(열다섯 섬 하니까 일등 했지.)

103038 @ 열닷 섬 엄청예?(열다섯 섬 엄청요?)

103038 #1 밧 큰밧 두 개 갈안 그치룩 좋안양. 그치룩 좋안 저 놉 빌언 털레 가난 하르방은[133]게 이장, 이장을게 멧 년 헤여 놓난 저 산에서게 물 크게 끗어부난 저듸 저 곶디[134] 그 밧 ᄆᆞᆫ딱 끗어부난에 그 복구 작업을 허젠 허난 메날 그디 ᄒᆞᆫ ᄃᆞᆯ 동안을 뎅기난.(밭 큰밭 두 개 갈아서 그처럼 좋아서요. 그처럼 좋아서 저 놉 빌어서 털러 가니까 남편은 이장, 이장을 몇 년 해 놓으니까 저 산에서 물 크게 끄어 버려서 저기 저 '곶디' 그 밭 모두 끄어버리니까 그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매일 거기 한 달 동안을 다니니까.)

103038 #1 놉을 빌언 가난 제ᄉᆞ허연 놉을 빌언 가난 정신이 하나 없고 메날 일 허곡게 제사 헨 먹언. 여름 제사가 하난 여름 제사허연 먹언 가난 막 정신 엇언. ᄒᆞᆫ저 오라. ᄒᆞᆫ저 털게. ᄒᆞᆫ저 털게. 허난 나가, 아이고, ᄒᆞ꼼만 쉬게마씸. ᄒᆞ꼼만 쉬게마씸. 저 동산에서 누게 베렴저게. 누게 털어 간다, 털어 간다. 꿰가 너미 좋아 놓난양.(놉을 빌어서 가니까 제사해서 놉을 빌어서 가니까 정신이 하나 없고 맨날 일하고 제사 해 먹고. 여름 제사가 많으니까 여름 제사해서 먹고 가니까 막 정신 없었어. 빨리 오라. 빨리 털자. 빨리 털자. 하니까 내가, 아이고, 조끔만 쉬게요. 조끔만 쉬게요. 저 동산에서 누게 쳐다보네. 누가 털어 간다, 털어 간다. 참깨가 너무 좋아 놓으니까요.)

103038 @ 음.(음.)

103038 #1 너미 좋아 놓난 원 살락살락 살락살락 양, 아이고, 우리 츰 잘도 허

132)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다.
133)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34) '곶디'는 숲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여 먹엇수다게. 게난 덕수 일등으로 허고.(너무 좋아 놓으니까 원 '살락살락' '살락살락' 이보세요, 아이고, 우리 참 잘도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 덕수에서 일등으로 하고.)

103038 @ 예.(예.)

103038 #1 저 창고에 ᄀᆞ득안에.(저 창고에 가득해서.)

103038 @ 음.(음.)

103038 #1 ᄀᆞ득게 헤낫수다게. ᄀᆞ득게 헤도 그땐 돈 언마 안 줍디다.(가득하게 했었습니다. 가득하게 해도 그땐 돈 얼마 안 줍디다.)

103038 @ 게난 요즘에라시민 하영 줘실 건디양.(그러니까 요즘이었으면 많이 뭤을 건데요.)

103038 #1 요즘이라시민 하영 줄 건디양, 그땐 돈을 얼만 안 줍디다게. 꿰 집집마다 헤여 놓난 경 하영 헤도.(요즘이었으면 많이 줄 건데요, 그땐 돈을 얼만 안 줍디다. 참깨 집집마다 하여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도.)

밭벼 농사

103039 @ 산듸도 갈아봔마씨?(밭벼도 갈아봤어요?)

103039 #1 아이고, 산듸 갈안 밧 하나 삿수다, 우리.(아이고, 밭벼 갈아서 밭 하나 샀습니다, 우리.)

103039 @ 어.(어.)

103039 @2 그 말 헤줍서?(그 말 해주세요.)

103039 #1 산듸 갈안.(밭벼 갈아서.)

103039 @ 게민 산듸 갈젠 허면 어떤 준비가 필요헌 거우꽈?(그러면 밭벼 갈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103039 #1 산듸 가는 것도 씨 뿌령은엥에 검질만, 저, 저 무시거 밧만 갈민 뒈는 거.(밭벼 가는 것도 씨 뿌려서 김만, 저, 저 무슨 밭만 갈면 되는 거.)

103039 @ 거는 쉬운 거구나예?(거는 쉬운 거군요?)

103039 #1 예.(예.)

103039 @ 예.(예.)

103039 #1 경허난에 비는 게 힘들어.(그렇게 하니까 베는 게 힘들어.)

103039 @ 아.(아.)

103039 #1 비는 거 그때 어디 사름산디 육지 사름이엔 헤연에 낫이엔 ᄀᆞᆫ는 거. 저 호미ᄀᆞ라 낫이엔 ᄀᆞᆯ안게.(베는 거 그때 어디 사람인지 육지 사람이라고 해서 낫이라고 말하는 거. 저 낫보고 낫이라고 말하던데.)

103039 @ 음.(음.)

103039 #1 낫이엔 허멍 저 한질에 저디 저 저 천이벡 펭.(낫이라고 하면서 저 한길에 저기 저 저 천이백 평.)

103039 @ 음.(음.)

103039 #1 천이벡 펭짜리 갈안에, 우리 저 밧거리 살아낫수다게. 엿날에 초집의.(천이백 평짜리 갈아서, 우리 저 바깥채 살았었습니다. 옛날에 초집에.)

103039 @ 예.(예.)

103039 #1 밧거리. 이딘 씨어머님네 살고. 게난 밧거리에 살안에 눅는 우리 눅는 구들에 잔뜩 데며낫수다. 데면에 그거 저 풀안에 우리 밧 ᄒᆞ나 삿수다.(바깥채. 여긴 시어머님네 살고. 그러니까 바깥채에 살아서 눕는 우리 눕는 구들에 잔뜩 쟁였었습니다. 쟁여서 그거 저 팔아서 우리 밭 하나 샀습니다.)

103039 @ 예.(예.)

103039 #1 경허멍 살아수다.(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103039 @ 음.(음.)

103039 #1 무시거 뭐 농사허영 돈 날게 엿날은 잇엇수가게. 쑤물에 결혼을 허난 그땐 엇엇수다. 돈 날 것이.(무엇 뭐 농사해서 돈 날게 옛날은 있었겠습니까. 스물에 결혼을 하니까 그땐 없었습니다. 돈 날 것이.)

103039 @ 음.(음.)

103039 #1 ᄒᆞ꼼 셔가난에 저 유채도 허고 또 고구마뻿데기도 허곡 막 그치룩 헷주게.(조끔 있어가니까 저 유채도 하고 또 절간고구마도 하고 막 그처럼 했습니다.)

103040 @ 예, 게난 그 산디는 언제 가는 거라마씨?(예, 그러니까 그 밭벼는 언제 가는 거예요?)

103040 #1 산듸? 산듸 이제, 이제.(밭벼? 밭벼 이제, 이제.)

103040 @ 이제?(이제?)

103040 #1 이제. 이제 가는 거.(이제. 이제 가는 거.)

103040 @ 어느제? 음력으로 지금 사월 후반?(언제? 음력으로 지금 사월 후반에?)

103040 #1 ᄉᆞ월 이제 딱 물 맞앗수다.(사월 이제 딱 물 맞습니다.)

103040 @ 아아.(아아.)

103040 #1 이제 가는 거.(이제 가는 거.)

103041 @ 경허영 이제 갈고. 그다음에 산듸씨, 산듸 갈 때도 거름헤마씨? 걸름?(그렇게 해서 이제 갈고. 그다음에 밭볍씨, 밭벼 갈 때도 거름하나요? 거름?)

103041 #1 걸름이 어디 잇수가? 걸름 엇어.(거름이 어디 있습니까가? 거름 없어.)

103042 @ 걸름 이것도 안 허고예? 이것도 그냥, 산디씨도 그냥 뿌령?(거름 이것도 안 하고요? 이것도 그냥, 밭벼씨도 그냥 뿌려서?)

103042 #1 그냥 뿌령 밧 갈앙.(그냥 뿌려서 밭 갈아서.)

103042 @ 밧 갈앙예?(밭 갈아서요?)

103042 #1 경허민 ᄒᆞ꼼 어떠난산디 잘 안 낭산디 ᄒᆞ꼼 두문 디도 싯곡.(그렇게 하면 조끔 어때선지 잘 안 났는지 조끔 드문 데도 있고.)

103042 @ 예.(예.)
103042 #1 두문 디도 셔. 어떠난 잘 안 난 그건가. 경허난 견디 산듸가 나면은.(드문 데도 있어. 어떤지 잘 안 난 그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밭벼가 나면은.)
103042 @ 으.(으.)
103042 #1 그 좋으민양 것이 또 막 거려.(그 좋으면요 것이 또 막 갈리어.)
103042 @ 아아.(아아.)
103042 #1 거리민 그 저 물탁물탁 비여야 뒈여마씨.(갈리면 그 저 문턱문턱 베어야 돼요.)
103042 @ 예, 예, 예.(예, 예, 예.)
103042 #1 거려.(걸리어어.)
103042 @ 예. 산듸는 막 거리는 거구나예?(예. 밭벼는 막 갈리는 거군요?)
103042 #1 예, 막 거립디다게.(예, 막 갈립디다.)
103043 @ 검질은 멧 번 메마씨?(김은 몇 번 매나요?)
103043 #1 검질은 두 번 메야 뒈마씨.(김은 두 번 매야 됩니다.)
103044 @ 두 번?(두 번.)
103044 #1 예.(예.)
103044 @ 어떤 검질 멥니까? 산듸.(어떤 김맵니까? 밭벼.)
103044 #1 산듸도 그 여름이니까.(밭벼도 그 여름이니까.)
103044 @ 예.(예.)
103044 #1 여름 검질게 절롸니허고.(여름 김 바랭이하고.)
103044 @ 예.(예.)
103044 #1 복쿨허고.(깨풀하고.)
103044 @ 복쿨허고예.(깨풀하고요.)
103044 #1 그땐 주로 검질 그겁디다게.(그땐 주로 김 그겁디다.)
103044 @ 음.(음.)
103044 #1 겐디 이젠 벨 거 다 나.(그런데 이젠 별 거 다 나.)
103045 @ 게난. 게면 산듸 수확은 언제 허는 거우꽈?(그러니까. 그러면 밭벼 수확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3045 #1 산듸 수, 가을 들엉.(밭벼 수, 가을 들어서.)
103045 @ 가을 들엉? 거는 어떤 식으로 헤연마씨?(가을 들어서? 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3045 #1 그건 그건게 클로 홀트는 거.(그건 그거는 그네로 홅는 거.)
103045 @ 음.(음.)
103045 #1 저 산듸 비여놔근에 물류왕.(저 밭벼 베어놓고 말려서.)
103045 @ 음.(음.)
103045 #1 집의 문딱 무꺼다 놩은에, 무꺼당 놔근엥에 클로 홀타근엥에.(집에 모두 묶어다 놓고, 묶어다 놓고 그네로 홅아서.)

103045 @ 예.(예.)
103045 #1 소로 불렷수다.(소로 밟았습니다.)
103045 @ 소로 또?(소로 또?)
103045 #1 예예.(예예.)
103045 @ 아, 클로 헌 다음에 소로 불려서예?(아, 그네로 한 다음에 소로 밟아서요?)
103045 #1 예예. 쉐로 불려사마씨.(예예. 소로 밟아야 해요.)
103045 @ 아.(아.)
103045 #1 불려근엥에 ᄇᆞ름에 불려야 뒈마씨.(밟아서 바람에 드려야 돼요.)
103045 @ 음.(음.)
103045 #1 푸는체로 푸던가.(키로 까부르던가.)
103045 @ 푸는체로 푸던가?(키로 까부르던가?)
103045 #1 게난 ᄒᆞ꼼만 헌 건 존디 우린 하영 헤 놓난 막 힘들긴 헙디다게.(그러니 조끔만 한 건 좋은데 우린 많이 해 놓으니까 막 힘들긴 합디다.)
103045 @ 으음음.(으음음.)
103045 #1 아기 둘앙 아기 울지. 웃음.(아기 데려서 아기 울지. 웃음.)
103046 @ 예, 경허고. 산듸쏠로는 주로 뭐 헨마씨? 이거는 귀헌 거 아니라예?(예, 그러고. 밭벼쌀로는 주로 뭐 했어요? 이거는 귀한 거 아니에요?)
103046 #1 거 풀앙은에 우리 제사도 허고.(거 팔아서 우리 제사도 하고.)
103046 @ 으.(으.)
103046 #1 거 풀앙 밧 ᄒᆞ나 삿수게.(거 팔아서 밭 하나 샀습니다.)
103046 @ 예.(예.)
103046 #1 밧 ᄒᆞ나 삿수다.(밭 하나 샀습니다.)
103046 @ 집에서 먹는 거는 거의 없지예? 산듸쏠로 먹는 거는?(집에서 먹는 거는 거의 없지요? 밭벼쌀로 먹는 거는?)
103046 #1 집에서 적당히 먹어마씨.(집에서 적당히 먹어요.)
103046 @ 음.(음.)
103046 #1 ᄒᆞ쏠 먹엇수다.(조금 먹었습니다.)
103046 @ 음.(음.)
103046 #1 풀안 돈 많이 헷수다. 돈.(팔아서 돈 많이 했습니다.)
103046 @ 돈에.(돈이요.)
103046 #1 돈 허연.(돈 했어.)
103046 @ 그 다음에 떡 같은 것도 허고 식게허젠 허면?(그 다음에 떡 같은 것도 하고 제사하려고 하면?)
103046 #1 예게, 우린 저 그 저 어디 논이 잇수다.(예, 우린 저 그 저 어디 논이 있습니다.)
103046 @ 아, 논도 잇어낫구나예?(아, 논도 있었었군요?)

103046 #1 예, 논이 시난에 논 지금은 풀아불엇수다게. 글로 질 난에 이거 멧 년 뒛수다. 논 풀건 디가.(예, 논이 있으니까 논 지금은 팔아버렸습니다. 글로 길 나니까 이거 몇 년 됐습니다. 논 팔았던 때가.)

103046 @ 음.(음.)

103046 #1 게난에 그 저 논을 놈 빌려근에.(그러니까 그 저 논을 남에게 빌려줘서.)

103046 @ 예.(예.)

103046 #1 돈 빌려던 거 갈라당은에.(돈 벌었던 거 갈라다가.)

103046 @ 예.(예.)

103046 #1 갈라다근엥에 그걸로 제사 헷수다.(갈라다가 그걸로 제사 했습니다.)

103046 @ 아아, 산디쏠로 헌 게 아니고?(아아, 밭벼쌀로 한 게 아니고?)

103046 #1 예, 씨집을 오랑은 그거 그치록 헷수다.(예, 시집을 와서는 그거 그처럼 했습니다.)

103046 @ 나록 쏠.(흰쌀.)

103046 #1 예, 나록쏠. 나록쏠 가근에 갈르레 가마씨. 갈르레 오렌 허민.(예, 흰쌀. 흰쌀 가서 나누러 가요. 나누러 오라고 하면.)

103046 @ 음.(음.)

103046 #1 가근엥에 저 시꺼당은에 그걸로 장만헤근에 그걸로 저 장만헤근에 그걸로 제사는 걸로 구짝 헤수다.(가서 저 실어다가 그걸로 장만해서 그걸로 저 장만해서 그걸로 제사는 걸로 줄곧 했습니다.)

103046 @ 음. 게믄 그 논은 어디 잇어난마씨?(음. 그러면 그 논은 어디 있었었나요?)

103046 #1 논, 화순[135]마씨.(논, 화순요.)

103046 @ 아아, 화순리에?(아아, 화순리에?)

103046 #1 게난 글로 질, 질 난에, 질 낫수다게.(그러니까 거기로 길, 길이 나서, 길이 났습니다.)

103046 @ 예.(예.)

103046 #1 질 난에 풀안에, 풀안에 이제 저 그건 그건 제월전니까.(길이 나서 팔아서, 팔아서 이제 저 그건 그건 제위전이니까.)

103046 @ 예.(예.)

103046 #1 제월전니까 건 풀안에 저 오춘덜이 마틀 처렌디게 나가 마타비수다. 돈.(제위전이니까 건 팔아서 저 오촌들이 맡을 차렌데 내가 맡아버렸습니다. 돈.)

103046 @ 음.(음.)

103046 #1 돈도 얼만 안 주고게. 고시 가격이난.(돈도 얼만 안 주고. 고시 가격이니까.)

103046 @ 예, 예.(예, 예.)

135)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다.

103046 #1 돈도 언마 안 줜에 이, 이천삼벡만 원.(돈도 얼마 안 줘서 이, 이천삼백만 원.)

103046 @ 음.(음.)

103046 #1 그까짓 돈 무시거 그거 언마나 헌 거우꽈게. 고시 가격이난.(그까짓 돈 무엇 그거 얼마나 한 겁니까. 고시 가격이니까.)

103046 @ 예.(예.)

103046 #1 게난게 이천삼벡만 원 허난게 그 두 칩의 이제 현재 이제 그 저 훼장이 우리 오춘이난.(그러니 이천삼백만 원 하니까 그 두 집에 이제 현재 이제 회장이 그 저 우리 오촌이니까.)

103046 @ 음.(음.)

103046 #1 이거, 이거 삼춘이 이거 돈 마틉서. 이거 돈 ᄋᆞ져왓수덴. 허멍 허난에. 나 하근 거 저 그거저거 마타부난에 이제 문 그거저거 써부난 나 복잡혜연에 저 집의 나둬.(이거, 이거 삼춘이 이거 돈 맡으세요. 이거 돈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나 많은 거 저 그거저거 맡아버리니까 이제 모두 그거저거 써버리니까 내가 복잡해서 저 집에 놔둬.)

103046 @ 음.(음.)

103046 #1 경허멍 안 마트는 거라마씨.(그러면서 안 맡는 거예요.)

103046 @ 음.(음.)

103046 #1 아이 마탄 지금 나가 마탄 잇수다게.(아니 맡아서 지금 제가 맡아 있습니다.)

103046 @ 예.(예.)

103046 #1 통장을. 나가 마탄에 그거 또 저 무시거 소분 벌초덜 허영 허민 따시 그 돈 짤라근에 ᄯᅳ시 저 밥덜 먹곡예.(통장을. 제가 맡아서 그거 또 저 무엇 소분 벌초들 해서 하면 다시 그 돈 잘라서 다시 저 밥들 먹고요.)

103046 @ 예, 예.(예, 예.)

103046 #1 걸로, 걸로 밥 먹읍니다. 정심.(걸로, 걸로 밥 먹습니다. 점심.)

103047 @ 산듸찍은 뭐에 써난마씨?(밭볏짚은 뭐에 썼었나요?)

103047 #1 산듸찍은, 나록찍은 경 흔읏이 엇수다게.(밭볏짚은, 볏짚은 그렇게 한 없이 없습니다.)

103047 @ 예.(예.)

103047 #1 덕순[136] 나록찍이 엇으난 우리게 그거 ᄒᆞ쏠 갈라오민 막 빌레덜 오곡. 그걸로 저 꿰도 무끄곡.(덕수는 볏짚이 없으니까 우리 그거 조금 갈라오면 막 빌러들 오고. 그걸로 저 참깨도 묶고.)

103047 @ 예.(예.)

103047 #1 예, 그걸로 주로 꿰도 무끄곡 이 조 ᄀᆞ뜬 것도 무끄곡 경 헷수다.(예, 그걸로 주로 참깨도 묶고 이 조 같은 것도 묶고 그렇게 했습니다.)

136)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이다.

103047 @ 음, 걸로 깨 털엉예?(음, 걸로 매끼 틀어요?)

103047 #1 깨 털엉.(매끼 틀어서.)

103048 @ 산디허멍 잊어불지 못헌 건 밧 산 거엿다예?(밭벼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한 건 밭 산 거였네요?)

103048 #1 예게. 게난에게 밧, 반은, 반금 놩 사근에 버슬엉 물곡 허단보난에. 웃음.(예. 그러니까 밭, 반은, 계약금 넣고 사서 벌어서 물고 하다보니까. 웃음.)

103048 @ 음.(음.)

103048 #1 게난 무사 경 헤져신고. 이젠 경 셍각헤져마씨.(그러니 왜 그렇게 해졌을까. 이젠 그렇게 생각해져요.)

103048 @ 으.(으.)

103048 #1 너미 지나치게 살아졋구나.(너무 지나치게 살아졌구나.)

103048 @ 으으.(으으.)

103048 #1 나, 빙신 뒈게 허지 말컬.(나, 병신 되게 하지 말걸.)

103048 @ 경헤도 그땐 그것이 최선이니까예?(그래도 그땐 그것이 최선이니까요?)

103048 #1 아, 게난 일 허여나난 일만 허구정 허영 허단 보난 다 오도바이 오도바이서 사고 으라 번 낫수다게.(아, 그러니까 일 해나니까 일만 하고 싶어 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 오토바이 오토바이에서 사고 여러 번 났습니다.)

103048 @ 아.(아.)

103048 #1 차에서도 막 으라 번 나고. 이 하르방[137] 조름에 뎅기단 보난게.(차에서도 막 여러 번 나고. 이 남편 꽁무니에 다니다가 보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큰 사고 막 난에게, 저 그 무시거 허레 그 무신 예비군훈련게.(큰 사고 막 나니까, 저 그 무엇 하러 그 무슨 예비군훈련.)

103048 @ 음.(음.)

103048 #1 느, 느 안 가민 누게 갈사름 시넨. 허멍게 동네 사름 글으난게 가단에게 저 어디 저, 저 알로 영 돌앙 갈 때마씸게, 옛날이난. 일로 질이 엇어낫수다게. 게난게 저 섭지[138] 가난게 화물차가 절로 돌아완게마는 다락 받으난게 앞의 유리창 벌러젼게 그디 간 탁 걸어지난 어디 무신 안 거멍헌 디가 잇수가.(네가, 네가 안 가면 누가 갈사람 있느냐고. 하면서 동네 사람 말하니까 가다가 저 어디 저, 저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 갈 때예요, 옛날이니까. 이리로 길이 없었었습니다. 그러니 저 협제 가니까 화물차가 저리로 돌아오더니마는 더럭 받으니까 앞의 유리창 깨지더니 거기 가서 탁 걸어지니까 어디 무슨 안 거먼 데가 있습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다 거멍헤연에 잘도 큰 사고 나낫수다게.(다 거메서 잘도 큰 사고 났

13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38) '섭지'는 제주시 한림읍 협제를 말한다.

었습니다.)

103048 @ 경헤도 멩이 지난 이제까지 헌 거 아니우꽈? 남은 재수 엇인 사름은 게 갈 수도 잇지 않음니까?(그래도 명이 기니까 이제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남은 재수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3048 #1 에이그, 게난양 소도 보곡 가지 말젠 허난게, 느 안 가민 누게 갈사름 시닌 허멍게.(에이고, 그러니까요 소도 돌보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가 안 가민 누가 갈사람 있냐고 하면서.)

103048 @ 웃음.(웃음.)

103048 #1 골으난게 갓단 그치룩 경. 허난 이제 예비군훈련 허는 디 이제 사고 낫젠 곧지덜 말렌 허멍 허난.(말하니까 갔다가 그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비군훈련 하는 데 이제 사고 났다고 말하지들 말라고 하면서 하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곧지 아년 예비군훈련사 허염신디 뭣사 허염신디 수건 하나 더껀 간 ᄀᆞ만히 눗수다게.(말하지 않아서 예비군훈련이야 하는지 뭐야 하는지 수건 하나 덮어서 가서 가만히 누웠습니다.)

103048 @ 음.(음.)

103048 #1 그디 간에 공설운동장에 간.(거기 가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103048 @ 예.(예.)

103048 #1 시에. ᄀᆞ만이 눗단에 남 와 가난 ᄃᆞ시 오난 집이 오난 ᄃᆞ시 복삭허게 아판.(시에. 가만히 누웠다가 남이 와 가니까 다시 오니까 집에 오니까 다시 노곤하게 아파서.)

103048 @ 음.(음.)

103048 #1 ᄀᆞ만이 누난에 아저씨가 완에 저 아메도 들은 거 아니우꽈게.(가만히 누우니까 아저씨가 와서 저 아무래도 들은 거 아닙니까.)

103048 @ 예예.(예예.)

103048 #1 사골게. 우리, 우리 그 저 예비군훈련 허는 사름 ᄒᆞᆫ 차 시끄고, 저 벡오십 명이난.(사고를. 우리, 우리 그 저 예비군훈련 하는 사람 한 차 싣고, 저 백오십 명이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벡오십 멩이난 거 ᄒᆞᆫ 차 시끄고 따시게 우리도 ᄃᆞ시 여자덜 시끄고, ᄃᆞ시 그 저 벡오십 명이난게 ᄒᆞᆫ 차에 시꺼집니까게. 게난 ᄋᆞ라 차 시끄난게.(백오십 명이니까 거 한 차 싣고 다시 우리도 다시 여자들 싣고, 다시 그 저 백오십 명이니까 한 차에 실어집니까. 그러니 여러 차 실으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시껀 가단에 그치록 경 섭지 가난게.(실어 가다가 그처럼 그렇게 협제 가니까.)

103048 @ 음.(음.)

103048 #1 완 다락 박으난게 차가 동드레 돌아사난게 탁 앞의 간 유리창에 걸어집디다게.(와서 바락 박으니까 차가 동쪽으로 돌아서니까 탁 앞에 가서 유리창에 걸어집디다.)

103048 @ 음.(음.)

103048 #1 걸어지난게 복삭 아판에 아이고, 진짜. 경 허영 얼먹엇수다. 얼먹언.(걸어지니까 노곤하게 아파서 아이고, 진짜. 그렇게 해서 얼먹었습니다. 얼먹었어.)

103048 @ 음. 알앗수다.(음, 알았습니다.)

고구마 농사

103049 @ 삼춘, 감저도 하영 싱것수가? 감저?(삼촌, 고구마도 많이 심었습니까?)

103049 #1 감저, 고구마?(고구마, 고구마?)

103049 @ 으.(으.)

103049 #1 고구마 옛날에마씨?(고구마 옛날에요?)

103049 @ 예.(예.)

103049 #1 하이고, 하영 허고말곡.(아이고, 많이 하고말고.)

103049 @ 거 허젠허민 준비허는 게 뭐우과?(거 하려하면 준비하는 게 뭡니까?)

103049 #1 준비허는 건 고구마 메 놓젠 허민.(준비하는 건 고구마 모 놓으려고 하면.)

103049 @ 예.(예.)

103049 #1 메 놓젠 허민 이월들에, 이월 음력으로.(모 놓으려고 하면 이월에, 이월 음력으로.)

103049 @ 예.(예.)

103049 #1 이월 십오일 뒈민 놔마씨. 십오일 뒈민 이거 영 허영은에 이디 하나 놓고 이디 하나 놓고 다 고지 만들앙근에 묻으민 그거 나가민 고망 똘라근엥에 그거 내청은엥에 비료 주곡 키왕.(이월 십오일 되면 놓아요. 십오일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다 이랑 만들어서 묻으면 그거 나가면 구멍 뚫어서 그거 내켜서 비료 주고 키워서.)

103049 @ 음.(음.)

103049 #1 그거를 또 밧 갈앙 고지레 다 싱글 거 아니우꽈?(그거를 또 밭 갈아서 이랑에 다 심을 거 아닙니까?)

103049 @ 예.(예.)

103049 #1 다 싱거근엥에 허민 우린 밧이 좋으니까 감저가 잘 듭디다게.(다 심어서 하면 우린 밭이 좋으니까 고구마가 잘 듭디다.)

103049 @ 음.(음.)

103049 #1 잘 드난에 그거 뻿데기.(잘 드니까 그거 절간고구마.)

103049 @ 예.(예.)

103049 #1 뻿데기 허영은엥에 이벡 가멩이썩 헤수다게.(절간고구마 해서 이백 가마니씩 했습니다.)

103049 @ 음.(음.)

103049 #1 이벡 가멩이썩 허연. 완전 밧이 커 놓난 놉 빌엉 줍곡.(이백 가마니씩 했어. 완전 밭이 커 놓으니까 놉 빌어서 줍고.)

103049 @ 으.(으.)

103049 #1 그 뻿데기헹은엥에 믄. 우리 아저씨 저 무시거 뻿데기 허레도 뎅겟수다.(그 절간고구마해서 모두. 우리 아저씨 저 무엇 절간고구마 하러 다녔습니다.)

103049 @ 예.(예.)

103049 #1 기계 헤연에.(기계 해서.)

103049 @ 기계 허영예?(기계 해서요?)

103049 #1 뻿데기 허레도 혼 멧 년 뎅겨낫수다.(절간고구마 하러 한 몇 년 다녔었습니다.)

103049 @ 예.(예.)

103049 #1 뎅기단에. 나중엔 일도 젭고 못헷주. 뻿데기 젊을 때 뻿데기 허레 뎅겨낫수다.(다니다가. 나중엔 일도 겹고 못했지. 절간고구마 젊을 때 절간고구마 하러 다녔었습니다.)

103050 @ 그, 감저 싱글 때 그 감젓줄 허영 싱글 철은 어느 철마씨?(그, 고구마 심을 때 그 고구마줄기 해서 심을 철은 어느 철인가요?)

103050 #1 오월들에.(오월에.)

103050 @ 음. 이월에 메 놩은에 오월에.(음. 이월에 모 놓아서 오월에.)

103050 #1 이월 이월 십오일 뒈 가민 메 놧당은에 유월 마.(이월 이월 십오일 돼 가면 모 놓았다가 유월 장마.)

103050 @ 으.(으.)

103050 #1 이거 이거 오월 아니우꽈?(이거 이거 오월 아닙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오월이나 음력 오월 뒈민 마 치지 아넘니까게?(오월이나 음력 오월 되면 장마 지지 않습니까?)

103050 @ 예.(예.)

103050 #1 게난 그 마에 싱그는 거.(그러니까 그 장마에 심는 거.)

103050 @ 마에.(장마에.)

103050 #1 마에 싱그는 거.(장마에 심는 거.)

103052 @ 예, 겡은에 그 감저 싱글 때는 어떤 식으로 싱그는 거라마씨?(예, 그러고 그 고구마 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심는 거예요?)

103052 #1 감저?(고구마?)

103052 @ 으.(으.)

103052 #1 감저는 이거 영 영 허영 고지민.(고구마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랑이면.)
103052 @ 예.(예.)
103052 #1 이거 이것이 고지민 이렇게.(이거 이것이 이랑이면 이렇게.)
103052 @ 으.(으.)
103052 #1 ᄀᆞ르.(가로.)
103052 @ 예.(예.)
103052 #1 영 줄을 딱딱 쫄라야 뒈야마씨.(이렇게 줄을 딱딱 잘라야 돼요.)
103052 @ 예.(예.)
103052 #1 줄을 이만썩 이만썩 쫄르민 혼 세 개에도 쫄르곡 두 개에도 쫄르곡 저 진 거는 세 개에 쫄르곡. 경허민 이거 고지민 이 쏘곱디레 그자 영 ᄀᆞ르.(줄을 이만씩 이만씩 자르면 한 세 개에도 자르고 두 개에도 자르고 저 긴 거는 세 개에 자르고. 그러면 이거 이랑이면 이 속에 그저 이렇게 가로.)
103052 @ 으.(으.)
103052 #1 이렇게 ᄀᆞ르. 이렇게 헤영은에 영 이디 싱그민.(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심으면.)
103052 @ 예.(예.)
103052 #1 따시 이디 맞게 이거 띄우면은 감저가 저 ᄋᆞ라 개 안 들어마씨?(다시 여기 맞게 이거 띄우면 고구마가 저 여러 개 안 들어요.)
103052 @ 아, 게민 줄 이으멍은에 허는 거라예?(아, 그러면 줄 이으면서 하는 거지요?)
103052 #1 예, 이엉은에 이어 싱거. 이어야. 이디 싱그민 이디 싱그곡 이디 싱그민.(예, 이어서 이어 심어. 이어야. 여기 심으면 여기 심고 여기 심으면.)
103052 @ 예.(예.)
103052 #1 막 그치룩 싱그민 경허민 감저가 잘 들엉은에 그 사름덜 빌어근에 막 저 수눌엉은에.(마구 그처럼 심으면 그러면 고구마가 잘 들어서 그 사람들 빌어서 막 저 품앗이해서.)
103052 @ 예.(예.)
103052 #1 믄 파 놩은에 그거 뻿데기 허여근엥에 ᄃᆞ시 또 ᄀᆞᆯ체로 ᄃᆞ시 담으멍. 뻿데기 허민게 이만이 그 메와 놩.(모두 파 놓고 그거 절간고구마 해서 다시 또 삼태기로 다시 담으면서. 절간고구마 하면 이만큼 그 모아 놓고.)
103052 @ 으.(으.)
103052 #1 감저 메와 놓은 거게. 메와 놓질 아녀고.(고구마 모아 놓은 그거. 모아 놓지 않고.)
103052 @ 으.(으.)
103052 #1 그 다라로 영.(그 대야로 이렇게.)
103052 @ 예.(예.)
103052 #1 ᄃᆞ시 ᄀᆞᆯ체로 영 담으믄 그 저 멕이민.(다시 삼태기로 이렇게 담으면

그 저 먹이면.)

103052 @ 으.(으.)

103052 #1 나오는 게 이만이 헐 거 아니우꽈? (나오는 게 이만큼 할 거 아닙니까?)

103052 @ 예, 예.(예, 예.)

103052 #1 게민 그거를 담으멍 저레 착착 다 널어마씨.(그러면 그거를 담으면서 저리로 착착 다 널어요.)

103052 @ 밧듸?(밭에?)

103052 #1 영영영영 흥글멍.(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흔들면서.)

103052 @ 으.(으.)

103052 #1 흥글멍 그 밧 전 체를 다 널어놓민.(흔들면서 그 밭 전체를 다 널어놓으면.)

103052 @ 으.(으.)

103052 #1 비 왐직허민 거 줏어야 뒐 거 아니우꽈?(비 올 것 같으면 거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3052 @ 으.(으.)

103052 #1 줏어근엥에 또 가빠[139]에 너나 어떵 헤야주게.(주어서 또 카파에 널든가 어떻게 해야지.)

103052 @ 음.(음.)

103052 #1 경허멍 뻿데기도 하영 헷수다게.(그러면서 절간고구마도 많이 했습니다.)

103054 @ 예, 게믄 감저 검질도 아까 여름 검질이난 그 절완지.(예, 그러면 고구마 김도 아까 여름 김이니까 그 바랭이.)

103054 #1 예, 절롼이가 경 ᄉᆞ뭇 텅에 틀엉은에.(예, 바랭이가 그렇게 사뭇 덩이 틀어서.)

103054 @ 으.(으.)

103054 #1 거 짓은 것ᄀᆞ란 텅에[140] 틀엇젠 헙니다.(거 깃은 것보고 덩이 틀었다고 합니다.)

103054 @ 예, 예, 텅에 틀언.(예, 예. 덩이 틀어서.)

103054 #1 텅에 틀어놓난 ᄉᆞ뭇 아이고, 감저 검질메젠 허난 날 ᄃᆞᆼ겨라. 날 ᄃᆞᆼ겨라 경, 경 헤낫수다.(덩이 틀어놓으니까 사뭇 아이고, 고구마 김매려고 하니까 날 당겨라, 날 당겨라 그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4 @ 예, 경 헷구나. 감저 검질메젠 허난 날 ᄃᆞᆼ겨라.(예, 그렇게 했구나. 고구마 김매려고 하니까 날 당겨라.)

103054 #1 날 ᄃᆞᆼ겨라 경 헤난. 힘, 힘이 쎄연에.(날 당겨라 그렇게 했었어. 힘,

139) '가빠(capa)'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또는 거기에 고무 같은 것을 먹인 천을 말하는 북한어이다. 달리 가빠천이라고도 한다.

140) '텅에'는 닭이나 새의 둥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바랭이가 몹시 덩이진 상태를 말한다.

힘이 세서.)

103054 @ 으.(으.)

103054 #1 검질이 힘이 쎄연 날 둥겨라 경 헌 말.(김이 힘이 세서 날 당겨라 그렇게 한 말.)

103055 @ 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그 수확예, 감저 파는 거는 언제 파마씨?(음,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그 수확이요, 고구마 파는 거는 언제 파요?)

103055 #1 감저 파는 거?(고구마 파는 거?)

103055 @ 예.(예.)

103055 #1 가을에.(가을에.)

103055 @ 가을에. 게믄 감저 팔 때는 어떻게 뭐 밧 갈앙 헷수가? 아니면 골겡이로 팟수가?(가을에. 그러면 고구마 팔 때는 어떻게 뭐 밭 갈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호미로 팠습니까?)

103055 #1 골겡이로게.(호미로.)

103055 @ 아. 하나씩 골겡이로 다 판 거마씨?(아, 하나씩 호미로 다 판 거예요?)

103055 #1 예, 말쩨라 가난 갈아수다.(예, 말째에 가니까 갈았습니다.)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말쩨라 가난 갈안.(말째에 가니까 갈았어.)

103055 @ 게믄 처음에는 저기 골겡이로 판?(그러면 처음에는 저기 호미로 팠어요?)

103055 #1 골겡이로. 문딱 골겡이로 저 사름덜 빌어당은에 골겡이로 판.(호미로. 모두 호미로 저 사람들 빌어다가 호미로 팠어.)

103055 @ 예에. 게믄 나중. 그 파젠 헤도 이제 줄부떠 영 걷어야 뒐 거 아니우꽈예?(예에. 그러면 나중. 그 파려고 해도 이제 줄부터 이렇게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3055 #1 예, 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암수가?(예, 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103055 @ 예.(예.)

103055 #1 게난 처음에는 두 줄, 두 줄. 두 줄.(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줄, 두 줄. 두 줄.)

103055 @ 예.(예.)

103055 #1 두 고지 내불어뒁은엥에 호미로 막 비여.(두 이랑 내버려두고서 낫으로 마구 베어.)

103055 @ 으.(으.)

103055 #1 쭉 허게시리 고랑으로 다 비여가근에 쉐스랑으로 둥겻수다. 쉐스랑으로.(쭉 하게끔 이랑으로 다 베어가서 쇠스랑으로 당겼습니다. 쇠스랑으로.)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쉐스랑으로 ᄃᆞᆼ겨근에 두 줄 비여 가도 궹장히 힘듭니다. 막 허리도 아프고.(쇠스랑으로 당겨서 두 줄 베어 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막 허리도 아프고.)

103055 @ 예에.(예에.)

103055 #1 게영 두 줄 좍좍 비여가민.(그래서 두 줄 좍좍 베어가면.)

103055 @ 음.(음.)

103055 #1 쉐스랑으로 ᄃᆞᆼ기면은, 따시 ᄃᆞᆼ기믄 또 걸어질 거 아니우꽈?(쇠스랑으로 당기면, 다시 당기면 또 걸어질 거 아닙니까?)

103055 @ 예.(예.)

103055 #1 가당 걸어지민 호미로 짤라야 뒈여.(가다가 걸리면 낫으로 잘라야 돼.)

103055 @ 음.(음.)

103055 #1 호미로, 쉐스랑으로 ᄃᆞᆼ기는디, 여자는 호미로 확확 쫄라내여사.(낫으로, 쇠스랑으로 당기는데, 여자는 낫으로 확확 잘라내야.)

103055 @ 음.(음.)

103055 #1 쉐스랑으로 ᄃᆞᆼ기민 요만이민 그자 영 저레 끗어갈 거라 헤근에 문 ᄃᆞᆼ기, 드러 짤라야마씨.(쇠스랑으로 당기면 요만큼이면 그저 이렇게 저리로 끄어갈 거라 해서 모두 당겨, 들이 잘라야 해요.)

103055 @ 예.(예.)

103055 #1 호미 들렁.(낫 들고서.)

103055 @ 그런 식으로 헹은에 이제.(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3055 #1 경 허단에 말쩨엔 잠대 메완에.(그렇게 하다가 말째엔 쟁기 메워서.)

103055 @ 예.(예)

103055 #1 잠데 메완에 잠데로 저 막 갈안에 그레저레 그레저레 엇은 더레 그자 그 저 그, 감젓줄 엇인 데레 강은에.(쟁기 메워서 쟁기로 저 막 갈아서 그리저리 그리저리 없는 데로 그저 그 저 그, 고구마기는줄기 없는 데로 가서.)

103055 @ 음.(음.)

103055 #1 착착허게시리.(착착하게끔.)

103055 @ 예.(예.)

103055 #1 그 잠데에 거 틔어 놔.(그 쟁기에 거 떼어 놓아.)

103055 @ 예.(예.)

103055 #1 예, 소 가는 양 가근에 틔어 놓멍 허연에 하영 싱그는 따문에.(예, 소가 가는 대로 가서 떼어 놓으면서 해서 많이 심는 때문에.)

103055 @ 음.(음.)

103055 #1 하영 싱그난 경허연 말쩬 잠데로 걷엇수다.(많이 심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째는 쟁기로 걷었습니다.)

103055 @ 아.(아.)

103055 #1 힘들언 못허연.(힘들어서 못해서.)

103055 @ 처음에는 골겡이 허고 쉐스렁 허단 잠데로 걷언예? 아.(처음에는 호미로 하고 쇠스랑으로 하다가 쟁기로 걷었어요? 아.)

103055 #1 아, 말쩨라 가난에 잠데 메완에.(아, 말째에 가니까 쟁기 메워서.)

103055 @ 음.(음.)

103055 #1 잠데로 걷엇수게.(쟁기로 걷었습니다.)

103055 @ 음.(음.)

103055 #1 저 그 보섭은, 보섭은 뻬여뒁.(저 그 보습은, 보습은 빼두고.)

103055 @ 예.(예.)

103055 #1 보섭은 ᄂᆞ슬주게, ᄂᆞ슬아.(보습은 날카롭지, 날카로워.)

103055 @ 예, 으으으, 으.(예, 으으으, 으.)

103055 #1 그거 ᄂᆞ슬앙은에 고구마 짤라질 거난에 보섭은 뻬여뒨에 그냥 그 저.(그거 날카로워서 고구마 잘라질 거니까 보습은 빼어두고 그냥 그 저.)

103055 @ 벳만 메왕.(볏만 메워서.)

103055 #1 벳은 아녀고.(볏은 안 하고.)

103055 @ 벳도 안 메고 잠대로만.(볏은 안 메우고 쟁기로만.)

103055 #1 잠대로만.(쟁기로만.)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잠대로만 헤사주. 저 벳 메우민 문딱 걸어지고 그 벳이 문딱 저 비틀어졍 못헙니다.(쟁기로만 해야지. 저 볏 메우면 모두 걸어지고 그 볏이 모두 저 비틀어져서 못합니다.)

103055 @ 음.(음.)

103055 #1 게난에 거 저 거 문딱 빠뒨에, 빠뒨에 헷수다게.(그러니까 거 저 거 모두 빼두고, 빼두고 했습니다.)

103056 @ 음, 게믄 그 감저 이제 수확허면은예, 그 보관은 어떤 식으로 헨마씨? 감저 써는 것도 잇고 씨감저 허젠 허면 보관도 헤실 거 아니?(음, 그러면 그 고구마 이제 수확하면, 그 보관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고구마 써는 것도 있고 씨고구마 하려고 하면 보관도 했을 거 아니?)

103056 #1 씨감저?(씨고구마?)

103056 @ 예.(예.)

103056 #1 씨감저는 저 밧듸 구뎅이 팡.(씨고구마는 밭에 구덩이 파서.)

103056 @ 예.(예.)

103056 #1 구뎅이 팡은에 묻으나 우영에 왕 구덩이 팡 묻으나 허민 조, 그 저 조 헤난 조찍.(구덩이파서 묻으나 터앝에 와서 구덩이 파서 묻으나 하면 조, 그 저 조 했던 조짚.)

103056 @ 예.(예.)

103056 #1 조찍 영 돌아가멍 세우나. 경 아녀민 저 무신 거 저 어욱.(조짚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 무슨 거 저 억새.)

103056 @ 예.(예.)

103056 #1 어욱 비어당은에게 영 돌아가멍 세와근에. 막 지피 팡 하영 들게.(억새 베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워서. 막 깊이 파서 많이 들게.)

103056 @ 아아.(아아.)

103056 #1 지피 팡근엥에 아래도 끌고 영 돌아가멍 세와근엥에 문 ᄀᆞ득아가민 따시 따시 우틔레 영 세우곡.(깊이 파서 아래도 깔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워서 모두 가득차가면 다시 다시 위에 이렇게 세우고.)

103056 @ 으.(으.)

103055 #1 경 헤영 영 허영은에 저 문 ᄆᆞ차근에 고망 요만이만 나게 헹 허영은에 그 우의 따시 저 주젱이.(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 모두 마쳐서 구멍 요만큼만 나게 해서 해서는 그 위에 다시 주저리.)

103056 @ 예.(예.)

103056 #1 주젱이 멘들앙은에 영 더껑은에 경 헤영 이치룩 ᄃᆞᆺ은 날은 ᄋᆞᆯ곡.(주저리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이처럼 따뜻한 날은 열고.)

103056 @ 음.(음.)

103056 #1 또 추운 날은 더끄곡. 어떤 땐 ᄃᆞ시 반만 열 때도 싯곡.(또 추운 날은 덮고. 어떤 땐 다시 반만 열 때도 있고.)

103056 @ 예.(예.)

103056 #1 우영에 왕 묻으민 경 허영 살앗수다게.(터앝에 와서 묻으면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03056 @ 음.(음.)

103056 #1 겨민 썩을 땐 막 썩어불곡.(그러면 썩을 땐 막 썩어버리고.)

103056 @ 음.(음.)

103056 #1 경헌디 씨도 허젠 허민 막 ᄀᆞᆯ령은엥에 안 썩은 걸로 ᄀᆞᆯ령은에 허곡. 씨도 하영 놔둬야 뒈여마씨. 하영 놔두야.(그런데 씨도 하려고 하면 막 골라서 안 썩은 걸로 골라서 하고. 씨도 많이 놔둬야 돼요. 많이 놔둬야.)

103056 @ 음.(음.)

103056 #1 그 저 뺏데기 허는 따문. 하영 놔두곡. 혼, 혼 이천, 이천ᄉᆞ벡 펭, 밧 두 개민 저 이천이벡 펭썩 이천ᄉᆞ벡, 밧 하나가 천이벡 펭이난게.(그 저 절간고구마 하는 때문에. 많이 놔두고. 한, 한 이천, 이천사백 평, 밭 두 개면 저 이천이백 평씩 이천사백, 밭 하나가 천이백 평이니까.)

103056 @ 예.(예.)

103056 #1 이천ᄉᆞ벡 펭. 밧 두 개썩 싱그난에. 경 헤낫수다게.(이천사백 평. 밭 두 개씩 심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6 @ 음, 게난 얼마나 농사를 하영 헌 거라예?(음,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많이 한 거지요?)

103056 #1 아이, 농사 막 하영 헷수다게. 농사허영은에 아니민게 돈 어디 셩은에게 밧 삽니까게. 밧을 사야 버슬 거난게. 경 허당 보난 너미너미 지나치게 헤여졋수다.(아이, 농사 막 많이 했습니다. 농사해서 아니면 돈 어디 있어서 밭 삽니까. 밭을 사야 벌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지나치게 해졌습니다.)

103058 @ 웃음. 게믄 이 감젓줄은 뭐해마씨?(웃음. 그러면 이 고구마기는줄기는 뭐해요?)

103058 #1 감젓줄은 저 그 짤막짤막허게 허영은에 뱅뱅 ᄆᆞᆯ아근엥에 깨 털엉 무껑 그 소 촐.(고구마기는줄기는 저 그 짤막짤막하게 해서 뱅뱅 말아서 매끼 틀어서 묶어서 그 소 꼴.)

103058 @ 으.(으.)

103058 #1 소.(소.)

103058 @ 것도 촐?(것도 꼴.)

103058 #1 소도 많에 놓니까.(소도 많아 놓으니까.)

103058 @ 음.(음.)

103058 #1 살소, 우리 살소도 하영 질롯수다.(비육우, 우리 비육우도 많이 길렀습니다.)

103058 @ 음.(음.)

103058 #1 살, 솔지게 헤영 ᄑᆞ는 거.(살, 살찌게 해서 파는 거.)

103058 @ 예, 예예.(예, 예예.)

103058 #1 게난에 그 쉐 촐.(그러니까 그 소 꼴.)

103058 @ 쉐 촐도 예, 예.(소 꼴도 예, 예.)

103058 #1 감젓줄 잘 먹읍니다. 것이 일등. 감젓줄이.(고구마기는줄기 잘 먹습니다. 것이 일등. 고구마기는줄기가.)

103058 @ 아, 것이 일등예?(아, 것이 일등이요?)

103058 #1 감젓줄이 일등 잘 먹음네다.(고구마기는줄기가 일등 잘 먹습니다.)

103058 @ 음.(음.)

103058 #1 감절줄은 ᄒᆞ꼼도 안 넹경 다 먹어.(고구마기는줄기는 조금도 안 남겨서 다 먹어.)

103058 @ 아아.(아아.)

103058 #1 다 먹어.(다 먹어.)

103057 @ 게믄 그 감저로는 주로 어떤 거를 헹 먹은 거라마씨?(그러면 그 고구마로는 주로 어떤 거를 해서 먹은 거예요?)

103057 #1 감저?(고구마?)

103057 @ 예.(예.)

103057 #1 감저 우리 쳥 먹엇수다게.(고구마 우리 쪄서 먹었습니다.)

103057 @ 으음.(으음.)

103057 #1 쳥 먹어. 경 허난 감저 쳥 먹을 땐 그거 이젠 벨미로 먹주마는 그땐 ᄒᆞ꼼 싫어허여도 어짜피 그자 저 간식으로 먹어마씸게.(쪄서 먹어. 그렇게 하니까 고구마 쪄서 먹을 땐 그거 이젠 별미로 먹지만 그땐 조금 싫어해도 어차피 그저 저 간식으로 먹어요.)

103057 @ 간식예?(간식이요?)

103057 #1 간식으로 밧듸도 쳔 간 먹고, 집의서도 그자 하나썩 가당오당 먹곡 경허멍 살앗수다.(간식으로 밭에도 쪄서 가서 먹고, 집에서도 그저 하나씩 가다오다 먹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103057 @ 음, 감저 절간감저로 헤영 뭐 떡을 허거나 이러진 아녀봅디가?(음, 고구마 절간고구마로 해서 뭐 떡을 하거나 이러진 안 해봤습니까?)

103057 #1 아이고, 경은 아녀봣수다.(아이고,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103057 @ 거는 아녀보고예?(거는 안 해보고요?)

103057 #1 아녀 봔. 나 씨집 온 후엔 뭐 보리밥은 안 굶으난양?(안 해봤어. 내가 시집 온 후엔 뭐 보리밥은 안 굶으니까요.)

103057 @ 예.(예.)

103057 #1 저 보리밥은 안 굶엉 그자 저 보리도 허영 그자 뭐, 놈덜은 뭐 무신 뭐 엇언 어떵 허엿젠 헤도 그치룩 경 허여보진 안 헷수다. 그자.(저 보리밥은 안 굶어서 그저 저 보리도 해서 그저 뭐, 남들은 뭐 무슨 뭐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해도 그처럼 그렇게 해보진 안 했습니다. 그저.)

103057 @ 밧듸 물룻도 안 먹어봣구나, 게믄 삼촌은예.(밭에 무릇도 안 먹어봤구나, 그러면 삼촌은요.)

103057 #1 양?(예?)

103057 @ 물룻.(무릇.)

103057 #1 아, 그건, 그건 몰릅니다.(아, 그건, 그건 모릅니다.)

103057 @ 아아.(아아.)

103057 #1 건 안 먹어나고.(건 안 먹었었고.)

103057 @ 삼춘 안 먹어봣구나예.(삼촌 안 먹어봤군요.)

103057 #1 예, 건 안 먹어나고. 감, 또 감젓주시덜토 먹어나ᄀᆞ렌 헤도 우린 것도 안 먹어보고. 저 보리밥은 굶지 아녀난게.(예, 건 안 먹었었고. 감, 또 고구마전분찌꺼기도 먹었었다고 해도 우린 것도 안 먹어보고. 저 보리밥은 굶지 않았으니까.)

103057@ 예.(예.)

103057#1 보리밥은 저 보린 하영 갈아은엥에 먹으난에 그건 그런 건 아녀봣수다.(보리밥은 저 보린 많이 갈아서 먹으니까 그건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103059 @ 우리 감저 농사허멍예, 뭐 뻿데기 비 오젠 허난 밤의 줏엇다거나 허는 이런 거는?(우리 고구마 농사하면서요, 뭐 절간고구마 비 오려고 하니까 밤에 주었다거나 하는 이런 거는?)

103059 #1 아이고, 경 헷수다게.(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103059 @ 어떵헷수가? 그거 골아봅서.(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말해보세요.)

103059 #1 밤의 주워 밤의 줏으난 두루 주워젼.(밤에 주워 밤에 주우니까 덜 주워져서.)

103059 @ 예.(예.)

103059 #1 두루 줏어지난 밤의 줏단 보난 두루 줏어지난에 두 불 줏엇수게.(덜 주어지니까 밤에 줍다가 보니까 덜 주어지니까 두 벌 주었습니다.)

103059 @ 음.(음.)

103059 #1 두 불 줏음벳긔 어떵 헙니까. 내불진 못허고.(두 벌 주움밖에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진 못하고.)

103059 @ 예.(예.)

103059 #1 그거 ᄉᆞ뭇 못 전디게 헤여 놓난에. 경허여근에 그 가빠레[141] 문 널어근엥에 가빠사 셔신지 멍석이여 무시거여 다 설러당 문 널엉은에에 그거 저 한질레레 쭉 허게 놔근에 이넉 거만씩 놔근엥에 허민, 우리 집의 아저씬 걸쩍걸쩍헌 아저씨라 놓난. 아이고, 저 요디 요디 궨당 할망이 아이고, 우리 감전 문딱 썩언 못 풀켜게. 경 허난.(그거 사뭇 못 견디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 가빠에 모두 널어서 가빠야 있었는지 멍석이야 뭐야 다 가져다가 모두 널어서 그거 저 한길에 쭉 하게 놓아서 이넉 거만씩 놓아서 하면, 우리 집의 아저씬 걸쩍걸쩍한 아저씨여 놓으니까. 아이고, 저 요기 요기 권당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고구마는 모두 썩어서 못 팔겠어. 그렇게 하니까.)

103059 @ 음.(음.)

103059 #1 아이고, 걱정허지 맙서. 얼마든지 풀아집니다. 웃음. 드러 경 골앗젠 드러 골읍니다.(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팔아집니다. 웃음. 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이 말합니다.)

103059 @ 음.(음.)

103059 #1 걱정허지 맙서. 다 다 풀아집니다. 웃음. 경 골앗젠 허멍.(걱정하지 마세요. 다 다 팔아집니다. 웃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103059 @ 막 성격이 잘도 좋아난 어른이구나예?(매우 성격이 잘도 좋았던 어른이군요?)

103059 #1 예, 예. 막 목소리도 크곡게 헤 놓난.(예, 예. 막 목소리도 크고 해 놓으니까.)

103059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기타 농사

103060 @ 게믄예, 이제는 간단헌 거. 혹시 수박도 갈아봔마씨?(그러면요, 이제는 간단한 거. 혹시 수박도 갈아봤어요?)

---

141) '가빠(capa)'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또는 거기에 고무 같은 것을 먹인 천을 말하는 북한어이다. 달리 가빠천이라고도 한다.

103060 #1 수박장ᄉᆞ 헤봣수다.(수박장사 해봤습니다.)

103060 @ 아, 직접 갈앙은에?(아, 직접 갈아서?)

103060 #1 직접 헤연.(직접 해서.)

103060 @ 음.(음.)

103060 #1 예. 직접 헤연 막 잘 뒈연.(예. 직접 해서 막 잘 돼서.)

103060 @ 음.(음.)

103060 #1 저 화순[142]. 저 화순 화강물에[143].(저 화순. 화순 '화강물'에.)

103060 @ 예.(예.)

103060 #1 화강물에 풀레 가봣수다. 탈탈이로.('화강물'에 팔러 가봤습니다. 경운기로.)

103060 @ 어어.(어어.)

103060 #1 거 엿날이난 탈탈이벳긔 엇으난 찬 엇으난. 간에 흔 탈탈이 시껀 간 풀아수다.(거 옛날이니까 경운기밖에 없으니까 차는 없으니까. 가서 한 경운기 실어서 가서 팔았습니다.)

103060 @ 수박은 어떤 식으로 싱그는 거우꽈?(수박은 어떤 식으로 심는 겁니까?)

103060 #1 수박은게 그냥 씨 놩 놔두난에 나오난에 그거 저 그 아덜순[144]. 아덜순이엔 헌 건.(수박은 그냥 씨 놓아 놔두니까 나오니까 그거 저 그 곁가지 순. 곁가지순이라고 한 거.)

103060 @ 음.(음.)

103060 #1 그 나온 순에 영 ᄎᆞ불 나온 순에 영 가는 것에 이 옆으로 나는 거.(그 나온 순에 이렇게 초벌 나온 순에 이렇게 가는 것에 이 옆으로 나는 거.)

103060 @ 예.(예.)

103060 #1 건 아덜순. 그건 짤라불어야 뒈여.(건 곁가지순. 그건 잘라버려야 돼.)

103060 @ 아, 이렇게 나면 이 옆에 거는 아덜순이라예?(아, 이렇게 나면 이 옆의 거는 곁가지순이요?)

103060 #1 예.(예.)

103060 @ 어.(어.)

103060 #1 그거는 짤라불지 아녀민 저레 강 멀리 가서 수박이 올아사 커마씨.(그거는 잘라버리지 않으면 저리로 가서 멀리 가서 수박이 열어야 커요.)

103060 @ 예, 예.(예,예.)

103060 #1 겨난 그걸 아난에, 아난에 쪼꼬만 밧듸 싱건에 흔 탈탈이 풀아수다.(그러니 그걸 아니까, 아니까 조그만 밭에 심어서 한 경운기 팔았습니다.)

103060 @ 음.(음.)

142)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다.
143) '하강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모래사장에 솟는 용천수를 말한다.
144) '아덜순'은 '아들순'의 의미로 원줄기에서 옆으로 난 곁가지 순을 말한다.

103060 #1 하영은 안 폴고. 흔 탈탈이 폴레 가완마씨.(많이는 안 팔고. 한 경운기 팔러 가왔어요.)
103060 @ 예.(예.)
103060 #1 게난 그런 거는 잘 헐 중 알아마씨.(그러니 그런 거는 잘 할 줄 알아요.)
103060 @ 음.(음.)
103060 #1 우리 먹는 것도 놀 디만 시민 놓는디 이 꿩 제완 허지 못허연.(우리 먹는 것도 놓을 데만 있으면 놓는데 이 꿩 겨워서 하지 못해.)
103060 @ 아아.(아아.)
103060 #1 꿩이 너미 많아.(꿩이 너무 많아.)
103061 @ 춤웨는?(참외는?)
103061 #1 춤웨?(참외?)
103061 @ 예.(예.)
103061 #1 춤웨도 놀 줄 알고.(촘외도 놀 줄 알고.)
103061 @ 아, 춤웨도 게민 갈아봔마씨?(아, 참외도 그러면 갈아봤나요?)
103061 #1 예게.(예.)
103061 @ 거는 언제 헙니까?(거는 언제 합니까?)
103061 #1 춤웨 갈안 폴아수다게.(참외 갈아서 팔았습니다.)
103061 @ 아아.(아아.)
103061 #1 저 모실포 장에 간 폴안.(저 모슬포 장에 가서 팔았어.)
103061 @ 아, 여기는 어떤 춤웨덜 갑니까? 여기는.(아, 여기는 어떤 참외들 갑니까? 여기는.)
103061 #1 그 옛날에도 이제 먹는 거.(그 옛날에도 이제 먹는 거.)
103061 @ 음.(음.)
103061 #1 이제 먹는 거 거 헨에 저 큰밧듸 반착을 간 거라마씸게.(이제 먹는 거 거 해서 저 큰 밭에 반쪽을 간 거예요.)
103061 @ 아아.(아아.)
103061 #1 천이벡 펭짜리 밧듸 반착을 갈안에 올아 놓난 어떡해. 폼 벳긔 홀 수 엇주게.(천이백 평짜리 밭에 반쪽을 갈아서 열어 놓으니까 어떡해. 팔 수 밖에. 할 수 없지.)
103061 @ 음.(음.)
103061 #1 모실포장에 간 저 탈탈이로 시꺼다 놓난에 거 폴아수다게.(모실포장에 가서 저 경운기로 실어다 놓으니까 거 팔았습니다.)
103061 @ 예.(예.)
103061 #1 허여봣수다. 허여봔. 안 헤 본 거 엇이 다 허여보난에.(해봤습니다. 해봤어. 안 해 본 거 없이 다 해보니까.)
103062 @ 고치도 싱그곡?(고추도 심고?)

103062 #1 고친, 고친 이녁 멀 거 그냥 허영 흔 때도 싯곡 아년 때도 싯곡.(고춘, 고춘 이녁 먹을 거 그냥 해서 할 때도 있고 않을 때도 있고.)

103062 @ 음.(음.)

103062 #1 이젠 산 먹엄수다.(이젠 사서 먹습니다.)

103062 @ 이젠 산 먹고예?(이젠 사서 먹고요?)

103062 #1 이젠 저 농협에 부인훼로 온 거 그거 산 먹엄수다.(이젠 저 농협에 부인회로 온 거 그거 산 먹습니다.)

103063 @ ᄂᆞ물도 갈고. 배추?(나물도 갈고. 배추?)

103063 #1 예, 베추.(예, 배추.)

103063 @ 예.(예.)

103063 #1 베추도 갈앙은에 이녁냥으로 김치 김장헹 먹고.(배추도 갈아서 이녁대로 김치 김장해서 먹고.)

103063 @ 음, 게난 베추는 언제 가는 거우꽈? 건.(음, 그러니 배추는 언제 가는 겁니까? 건.)

103063 #1 베추?(배추?)

103063 @ 음. 그 짐장 ᄂᆞ믈은?(음. 그 김장 나물은?)

103063 #1 김장 ᄂᆞ믈은 이 저 저 칠월들 마지막 믄 다 뒈영은엥에 저 중순에 갈민 안 뒈여.(김장 나물은 이 저 저 칠월 마지막 모두 다 돼서 저 중순에 갈면 안 돼.)

103063 @ 음.(음.)

103063 #1 ᄒᆞ꼼 늦엉 갈아야 뒈여.(조금 늦어서 갈아야 돼.)

103063 @ 칠월 그뭄쯤에?(칠월 그믐쯤에?)

103063 #1 예, 칠월 그뭄쯤에.(예, 칠월 그믐쯤에.)

103063 @ 음.(음.)

103063 #1 베추도 이녁냥으로 갈안 사단 먹어보진 아녓수다. 이녁냥으로 갈안 먹주. 저 우영 시난에.(배추도 이녁대로 갈아서 사다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녁대로 갈아서 먹지. 저 터밭 있으니까.)

103063 @ 예.(예.)

103063 #1 예, 우영 시난. 갈앙은에 이녁냥으로 김치헤영 먹곡. 양, 이제도록 짐치 하나 안 사본 사름마씸게.(예, 터밭 있으니까. 갈아서 이녁대로 김치해서 먹고. 예, 이제도록 김치 하나 안 사본 사람이에요.)

103063 @ 아아.(아아.)

103063 #1 상 먹어보지 아녓수다. 경헌디 무사 상 먹어보질 아녀신고, 그 팔월 멩질 뒈민 짐치가 엇을 거 아니우꽈?(사서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서 먹어보질 않았는지, 그 팔월명질 되면 김치가 없을 거 아닙니까?)

103063 @ 예.(예.)

103063 #1 엇으민양, 하나에 칠천 원 팔천 원 줘야 사마씨.(없으면요, 하나에 칠

천 원 팔천 원 줘야 사요.)

103063 @ 그렇지, 베추는, 예예?(그렇지, 배추는, 예예?)

103063 #1 이제는, 이제는 경혜야 사. 겐디 벌거지를 혼번 남의 집의 간 보난 그것이 저 징그러왕. 절대 김치. 아이덜ᄏᆞ라도 저 짐치 난 절대 이제ᄁᆞ장 안 산 먹어봣저 경. 짐치 산 먹어보질 아녀수다.(이제는, 이제는 그래야 사. 그런데 벌레를 한번 남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저 징그러워서. 절대 김치. 아이들에게도 저 김치 난 절대 이제까지 안 산 먹어봤지 그렇게. 김치 사서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103063 @ 음.(음.)

103063 #1 겨아녀민 두 펄기만게 칠천 원 팔천 원 줭 두 펄기만 사오민게 네 짝에 벌리믄 막 크난.(그렇지 않으면 두 포기만 칠천 원 팔천 원 줘서 두 포기만 사오면 네 쪽에 쪼개면 막 크니까.)

103063 @ 음음.(음음.)

103063 #1 네 짝에 벌르민 읏답 개 아니우꽈? 그거민 먹당도 실프주, 남주게. 거 사당은에 헤불주. 어떵게 짐치 사당 먹읍니까? 짐치 사당 먹어본 적이 엇수다. 이제ᄁᆞ장.(네 쪽에 쪼개면 여덟 개 아닙니까? 그거면 먹다가도 싫지, 남지. 거 사다가 해버리지. 어떻게 김치 사다가 먹습니까? 김치 사다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103063 @ 음.(음.)

103063 #1 안 먹어봔 영, 영원히. 저, 저 저디 잔뜩 담아졋수게. 짐치.(안 먹어봤어 영, 영원히. 저, 저 저기 잔뜩 담아졌습니다. 김치.)

103063 @ 짐치 하영 헷구나예?(김치 많이 했군요.)

103063#1 예. 잔뜩 담아젼 잇수게.(예. 잔뜩 담아져서 있습니다.)

103064 @ 놈삐 같은 거는?(무 같은 거는?)

103064 #1 놈삐도 자기 이녁냥으로 헤영 먹고.(무도 자기이녁대로 해서 먹고.)

103065 @ 옛날은 짐치허민 놈삐짐치들 하영 허지 아녓수가?(옛날은 김치하면 무김치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3065 #1 놈삐짐치 하영 허멍말멍 그자 ᄒᆞ쏠 허영. 양, 놈삐짐친 오래 못 먹읍니다.(무김치 많이 하며말며 그저 조금 해서. 예, 무김치는 오래 못 먹습니다.)

103065 @ 아아.(아아.)

103065 #1 오래 못 먹어. ᄒᆞ쏠 저 쉬듯허당은에 놔뒁, 놔둬가민 민작헤부러.(오래 못 먹어. 조금 저 쉰듯하다가 놔두면, 놔둬 가면 문적해버려.)

103065 @ 아아.(아아.)

103065 #1 오래 못 먹읍니다.(오래 못 먹습니다.)

103064 @ 놈삐는예?(무는요?)

103064 #1 예, 놈삐짐친 오래 못 먹는 거마씨. 경 허는 따문 놈삐짐친 잘 허여보지 아녀수다.(예, 무김치는 오래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때문 무김치는 잘 해보지 않았습니다.)

103064 @ 음.(음.)

103064 #1 허영 임시나 먹주. 임시. 임시나 먹주.(해서 임시나 먹지. 임시. 임시나 먹지.)

103065 @ 지실도 하영 싱건마씨?(감자도 많이 심었나요?)

103065 #1 지슬?(감자?)

103065 @ 으.(으.)

103065 #1 지슬도 저 우리 족은아덜 골으멍. 요디, 요디 저 밧 흔 저 삼벡 평 신 거 질 처음에 비니루 저 어멍아방이 더껀 비니루 저 떠껀 헷수게. 경 골읍니다.(감자도 저 우리 작은아들 말하면서. 요기, 요기 저 밭 한 저 삼백 평 있는 거 젤 처음에 비닐 저 어머니아버지가 덮어서 비닐 저 덮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3065 @ 이 동네서예?(이 동네에서요?)

103065 #1 예, 게난 그 놈의 비니루 더껀 허난 안 뒈연마씸게.(예, 계난 그놈의 비닐 덮어서 하니까 안 돼서요.)

103065 @ 예.(예.)

103065 #1 아이 뒈난에, 그 가, 아기도 춤 벨 아기라. 양, 남의 밧듸 간 완 보난에 그 지슬은 걷게 뒈연. 그 지슬, 그 저 비 비니루를.(안 되니까, 그 가, 아기도 참 별 아기라. 예, 남의 밭에 갔다 와서 보니까 그 감자는 걷게 돼서. 그 감자, 그 저 비 비닐을.)

103065 @ 예.(예.)

103065 #1 문짝 걷언마씸게.(몽땅 걷었어요.)

103065 @ 아들이?(아들이?)

103065 #1 아들이, 족은아덜이.(아들이, 작은아들이.)

103065 @ 으으.(으으.)

103065 #1 문짝 걷으난 아, 이제라도 착허덴 곧젠 헴수다게.(몽땅 걷으니까 아, 이제라도 착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103065 @2 웃음.(웃음.)

103065 #1 아이고게, 그거게.(아이고, 그거.)

103065 @2 어.(어.)

103065 #1 걷으렌도 아년 거 그거 비니루 걷는 거 얼마나 힘든 거우꽈게?(걷으라고도 않는 거 그거 비닐 걷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103065 @2 학생 때?(학생 때?)

103065 #1 으?(으?)

103065 @2 학생 때?(학생 때?)

103065 #1 학생 때에 문짝 걷언.(학생 때에 몽땅 걷었어.)

103065 @2 어어.(어어.)

103065 #1 게민 밧이 하 놓난 일 제와근엥에 처음에사 밧 엇엇주마는 아이덜

읔아가난 일 제완 어느 밧드레 오라. 아방이 글 썽 저레 놔두민.(그러면 밭이 많아 놓으니까 일이 힘에 부치니까 처음에야 밭 없었지만 아이들 커가니까 일이 힘에 부쳐서 어느 밭으로 와라. 아버지가 글 써서 저리 놓아두면.)

103065 @ 아아.(아아.)

103065 #1 그치룩 허영 허민 나치룩 일 헌 사름 어디 싯수가? 나 일 언마나 일 하영 헷수가? 막 경 굴읍니다게.(그처럼 해서 하면 나처럼 일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막 그렇게 말합니다.)

103065 @ 너무 하영예?(너무 많이요?)

103065 #1 예, 게난 이제도, 이제도. 이천오벡 펭 이제 저 그 무시거 하우스 허여 놓고 허난게 비가림헷단 올리 얼먹고 이제 문짝 비엿수다게.(예, 그러니 이제도, 이제도. 이천오백 평 이제 저 그 무엇 비닐하우스 해 놓고 하니까 비가림했다가 올해 얼먹고 이제 몽땅 벴습니다.)

103065 @ 음.(음.)

103065 #1 문짝 비연 ᄒᆞ꼼 놔둬신가? 그거 놔두뒨 문짝 비연 다 저 다른 걸로.(몽땅 베서 조금 놔뒀는가? 그거 놔두고는 몽땅 베서 다 저 다른 걸로.)

103065 @ 음.(음.)

103065 #1 저 무신 거 저, 그 새로 나는 건 어디 굴아졈서게. 그거 이제 새로 문딱 ᄒᆞᆫ 밧은 싱그곡.(저 무슨 거 저, 그 새로 나는 건 어디 말해지겠나. 그거 이제 새로 모두 한 밭은 심고.)

103065 @ 음.(음.)

103065 #1 ᄒᆞᆫ 밧은 접붙이고.(한 밭은 접붙이고.)

103065 @ 레드향[145] 이런 거마씨?(레드향 이런 거요?)

103065 #1 레드, 레드, 레드향, 레드향 허고 그 가시 다듬는 거.(레드, 레드, 레드향, 레드향 하고 그 가시 다듬는 거.)

103065 @ 음. 가시 다듬는 거.(음. 가시 다듬는 거.)

103065 #1 가시 다듬는 거 그거 삼벡 본 허난.(가시 다듬는 거 그거 삼백 본 하니까.)

103065 @ 음.(음.)

103065 #1 그거 어떵 가시 다듬젠 헴신디 메느리ᄀᆞ라 굴으난 놉 빌엉이라도 다듬으쿠덴.(그거 어떻게 가시 다듬으려고 하느냐고 며느리보고 말하니까 놉 빌어서라도 다듬겠다고.)

103065 @ 음.(음.)

103065 #1 게난 맛은 거 막 좋아양.(그러니까 맛은 거 매우 좋아요.)

103065 @ 아아.(아아.)

103065 #1 맛은 좋은디 그거 막 밧 하나썩, 밧 하나썩 싱건 이제사 싱것수다게.(맛은 좋은데 그거 막 밭 하나씩, 밭 하나씩 심어서 이제야 심었습니다.)

145) '레드향'은 귤의 한 종류다.

103065 @ 음.(음.)

103065 #1 게난 더런 놔두곡 이천오벡 펭 허곡 뚜시 흔 천 평은 따시 그냥 저 그냥 베꼇듸.(그러니 더러는 놔두고 이천오백 평 하고 다시 한 천 평은 다시 그냥 밖에.)

103065 @ 음.(음.)

103065 #1 노주에 거. 그건 저 무시거 택배헙니다. 택배.(노지에 거. 그건 저 무엇 택배합니다. 택배.)

103065 @ 음.(음.)

103065 #1 게난 막 일을 경 하근에 또 땀푸차 끗고.(그러니 매우 일을 그렇게 많아서 또 덤프트럭 끌고.)

103065 @ 예.(예.)

103065 #1 두 가지를 해 놓난게 일이 하는 거라마씨.(두 가지를 해 놓으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103065 @ 음.(음.)

103065 #1 일이 하 너미 하. 게난 이 송칩의선 가이만이 돈 벗은 아이 엇덴 골암수게.(일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 이 송씨 집에선 걔만큼 돈 번 아이 없다고 말합니다.)

103065 @ 으음.(음.)

103065 #1 경 ᄒᆞ루 가민게 뭐 ᄉᆞ십오만 원.(그렇게 하루 가면 뭐 사십오만 원.)

103065 @ 떰뿌차난예?(덤프트럭이니까요?)

103065 #1 떰쁘차난 ᄒᆞ루 가민 사십오만 원썩 버슬곡. 송칩의선 인봉이가 일등. 인봉이엔 헙니다.(덤프트럭이니까 하루 가면 사십오만 원씩 벌고. 송씨 집에선 인봉이가 일등. 인봉이라고 합니다.)

103065 @ 음.(음.)

103065 #1 인봉이가 일등 돈 버슬엄젠 헙니다.(인봉이가 일등 돈 번다고 합니다.)

103065 @ 음.(음.)

103065 #1 게난 밧도 하영 삿수다. 밧, 저 동광[146] 간에.(그러니 밭도 많이 샀습니다. 밭, 동광 가서.)

103065 @ 완전 진짜 부자칩이구나게.(완전 진짜 부잣집이구나.)

103065 #1 동광 간에 삼천삼벡 펭 사고.(동광 가서 삼천삼백 평 사고.)

103065 @ 음.(음.)

103065 #1 지네 사는 거 천오벡 펭 저 사네 이제. 그디 아무 것도 아년에 허난양 나 작년에양 그 밥허레 뎅기멍 꿰씨 뿌령 놔두난에양 꿰가 열 말은 아녀고.(자기네 사는 거 천오백 평 저 사서 이제. 거기 아무 것도 않고 하니까요 제가 작년에요 그 밥하러 다니면서 참깨씨 뿌려서 놓아두니까 참깨가 열 말은 않고.)

146)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다.

103065 @ 음.(음.)

103065 #1 그 콩 닮은 꿰 허연에 ᄉᆞ뭇 놈덜 ᄉᆞ뭇 막 웃엄수다. 드러.(그 콩 닮은 깨 해서 사뭇 남들 사뭇 마구 웃습니다. 들이.)

103065 @ 음, 음, 음.(음, 음, 음.)

103065 #1 겨난에 저 꿰그르[147] 끈어 끈젠 헴젠 허멍 나신디레. 경허난 이젠 지네 허켄.(그러니 저 참깻대를 잘라 자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젠 자기네가 하겠다고.)

103065 @ 음.(음.)

103065 #1 지네 허켄 허멍 ᄒᆞ꼼은 헷수다게. 하영 허지 아년 허난 막 좋안에 문젠에 젼 비오는 날 간 문 져 내쳐가난, 어머니, 이레 와붑서. 이레 와붑서. 허연 아니 오난 용심 난에 옴쭉 기어들어붑디다게.(자기네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은 했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하니까 막 좋아서 모두 져서 져서 비오는 날 간 모두 져 내쳐가니까, 어머니, 이리 와버리세요. 이리 와버리세요. 하니 아니 오니까 성이 나서 옴쭉 기어들어버립디다.)

103065 @ 음.(음.)

103065 #1 게난게 그걸 내치지 아녀민게 흑 올랑은에 먹어집네까게. 내쳐야 내쳐근에 그 무신 것더레 아스팔트레게 어떤 쎄멘 바닥이우다게.(그러니 그걸 내치지 않으면 흙 묻어서 먹어집니까. 내쳐야 내쳐서 그 무슨 것들에 아스팔트에 어떤 시멘트 바닥입니다.)

103065 @ 예, 예.(예, 예.)

103065 #1 저 과수원이.(저 과수원이.)

103065 @ 음.(음.)

103065 #1 쎄멘바닥. 그레 내쳐근에 그디 세와야 뭴 거 아니우꽈?(시멘트바닥. 그리로 내쳐서 거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03065 @ 음.(음.)

103065 #1 막 용심난.(막 성이 나서.)

103065 @ 웃음.(웃음.)

103065 #1 허지 맙센 나시디. 허지 맙쎈. 게난 그디 콩 갈라, 콩 갈라. 이제 골암수다게.(하지 마시라고 나에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 거기 콩 갈아라, 콩 갈아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03066 @ 예, 경 허여근에 지슬도 싱그고. 여기는 피 이런 거는 안 갈아낫지예? 이 동넨예?(예, 그렇게 해서 감자도 심고. 여기는 피 이런 거는 안 갈았었지요? 이 동네는요?)

103066 #1 아이. 피는 아녑니다.(아니, 피는 안 합니다.)

103067 @ 피 안 허고예?(피 안 하고요?)

147) '꿰그르'에서 '그르'는 나무의 수를 세는 그루, 혹은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참깻대'를 말한다.

103067 #1 예, 아녑니다.(예, 안 합니다.)

103067 @ ᄆᆞ멀은?(메밀은?)

103067 #1 ᄆᆞ멀은 그자 허는 사름은 허곡.(메밀은 그저 하는 사람은 하고.)

103067 @ 예.(예.)

103067 #1 허는 사름. 하영 안 헙니다. ᄆᆞ멀.(하는 사람. 많이 안 합니다. 메밀.)

103067 @ 여기는 땅이 좋으니까 ᄆᆞ멀 안 허는구나예?(여기는 땅이 좋으니까 메밀을 안 하는군요?)

103067 #1 아니, 과수원이 너미 널러 놓난.(아니, 과수원이 너무 넓어 놓으니까.)

103067 @ 아.(아.)

103067 #1 땅덜이 흔잇이 엇곡게. 우리 저 족은아지망넨 꿰, 저 ᄆᆞᆯ 갈안에 ᄆᆞ멀가루 ᄋᆞ져와십디다.(땅들이 한없이 없고. 우리 저 작은올케가 참깨, 저 메밀 갈아서 메밀가루 가져왔습디다.)

103067 @ 예.(예.)

103067 #1 작년에 ᄀᆞ져와선게, 작년에.(작년에 가져왔어, 작년에.)

103067 @ 옛날 그 과수원허기 전에는 ᄆᆞ멀들 하영 갈아나지 아녀수가?(옛날 그 과수원하기 전에는 메밀들 많이 갈았었지 않습니까?)

103067 #1 무사 아니우꽝게. 우리 제사헤영 먹엉 우리 ᄆᆞ멀 놓레 가낫수다.(왜 아닙니까. 우리 제사해서 먹어서 우리 메밀 놓으러 갔었습니다.)

103067 @ 음.(음.)

103067 #1 제사허영 먹엉. 줌도 자보지 아녕 가. 가근에게 경 허멍 그럭저럭 그자 허단 보난 이제ᄁᆞ장 살아졋수게.(제사해서 먹어서. 잠도 자보지 않고 가.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그저 이제까지 살아졌습니다.)

103067 @ 게난 ᄆᆞ멀 허게 뒈면 ᄆᆞ멀로는 뭐를 헌 거라마씨?(그러니까 메밀 하게 되면 메밀로는 뭐를 한 겁니까?)

103067 #1 ᄆᆞᆯ, ᄆᆞᆯ 주로 풀곡.(메밀, 메밀 주로 팔고.)

103067 @ 음.(음.)

103067 #1 풀곡 이녁 먹곡. 이녁 제ᄉᆞ 때마다 그자 청묵[148]도 허곡.(팔고 이녁 먹고. 이녁 제사 때마다 그저 '청묵'도 하고.)

103067 @ 으음.(으음.)

103067 #1 묵도 헐 때 싯고 떡도 허곡.(묵도 할 때도 있고 떡도 하고.)

103067 @ 으.(으.)

103067 #1 떡도 그 이젠 방엣공장에 가민 멧 가지 그거 저 그 저 쏠로만 헴주마는 그 옛날은 집의서 떡 헐 땐양.(떡도 그 이젠 방앗간에 가면 몇 가지 그거 저 그 저 쌀로만 하지만 그 옛날은 집에서 떡 할 땐요.)

103067 @ 예.(예.)

103067 #1 ᄆᆞ멀가루로 허연에 저 밀어근에 칼로 싹싹 비여근에 솖앗수게게, 우

148) '청묵'은 메밀쌀을 물과 함께 자루에 담아 놀려서 나온 묽은 물로 만든 묵을 말한다.

리.(메밀가루 해서 저 밀어서 칼로 싹싹 베서 삶았습니다, 우리.)

103067 @ 음.(음.)

103067 #1 경 혜연 허연에 허단 공장에 간 허는 따문 다 거기서 헤주난에 헤염수다게.(그렇게 해서 해서 하다가 공장에 가서 하는 때문에 다 거기서 해주니까 하고 있습니다.)

103068 @ 옛날에 이 동네도 담베도 갈아신가마씨?(옛날에 이 동네도 담배도 갈았습니까?)

103068 #1 뭐?(뭐?)

103068 @ 담베.(담배.)

103068 #1 담베?(담베?)

103068 @ 예.(예.)

103068 #1 담베, 우리 아버지 갈아수다.(담배, 우리 아버지 갈았습니다.)

103068 @ 아, 그거 기억남수가?(아, 그거 기억나십니까?)

103068 #1 예, 예. 아이고, 우리가 문딱 여끄난.(예, 예. 아이고, 우리가 모두 엮으니까.)

103068 @ 으.(으.)

103068 #1 요, 요만씩 줴멍 똑똑 무껑은엥에 그거 저 접 짓엉은엥에 딱 무꺼근에.(요, 요만씩 쥐면서 똑똑 묶어서 그거 저 접 지어서 딱 묶어서.)

103068 @ 으음.(음.)

103068 #1 우리 아버지 영 허영 쭉 허게 줄 메여근엥에.(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쭉 하게 줄 매여서.)

103068 @ 예예.(예예.)

103068 #1 그거 문딱 읏깡.(그거 모두 엮어서.)

103068 @ 음.(음.)

103068 #1 그 저 찍으로 읏깡, 찍으로 읏끄난 샐 비여당 읏끄나.(그 저 짚으로 엮어, 짚으로 엮으나 띠를 베다가 엮으나.)

103068 @ 으음.(으음.)

103068 #1 거 문딱 읏까근엥에 쭉쭉허게시리 우리 아버지 저 하영 헷수다. 경 허영 그 저 썰어근엥에, 썰어근엥에 저 담아두서 담베 테왓수다. 담베통더레 저 담으난 경 아녀민 저 물앙을 테우나 그치룩 헷수다게.(거 모두 엮어서 쭉쭉 하게 우리 아버지 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저 썰어서, 썰어서 저 담아두고서 담배 태웠습니다. 담배통들에 저 담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말아서 태우니까 그처럼 했습니다.)

103068 @ 으음.(으음.)

103068 #1 우리 아버지 많이 갈앗수다.(우리 아버지 많이 갈았습니다.)

103068 @ 게믄 접 짓을 때는 멧 개씩 이렇게 접 짓읍디가?(그러면 접 짓을 때는 몇 개씩 이렇게 접 짓습디까?)

103068 #1 열 개.(열 개.)

103068 @ 열 개.(열 개.)
103068 #1 다섯 개. 일로 하나 일로 하나 허영.(다섯 개. 이리로 하나 이리로 하나 해서.)
103068 @ 음.(음.)
103068 #1 다섯 개 허여근에 딱 허게 무껑. 두 번에 무꺼. 이디 무끄곡 이디 무끄곡.(다섯 개 해서 딱 하게 묶어서. 두 번에 묶어. 여기 묶고 여기 묶고.)
103068 @ 예.(예.)
103068 #1 경 허여근에 딱 무껑 놔둡디다.(그렇게 해서 딱 묶어서 놔둡디다.)
103068 @ 음.(음.)
103068 #1 딱 무껑 놔두민 그자 줌자근엥에[149]. 싹 허영.(딱 묶어서 놔두면 그저 '줌자서'. 싹 해서.)
103068 @ 음.(음.)
103068 #1 경 허연에 ᄋᆞ져단 저 허연 태웁디다게.(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저 해서 태웁디다.)
103068 @ 그 담베는 풀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고?(그 담배는 팔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고?)
103068 #1 풀진 아녀고마씸.(팔진 않고요.)
103068 @ 음.(음.)
103068 #1 아버지가 저, 저 아버지가 잡숸마씨.(아버지가 저, 저 아버지가 잡쳤어요.)
103068 @ 아아, 풀진 아녀고예?(아아, 팔진 않고요?)
103068 #1 풀아난 기억은 엇수다.(팔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103068 @ 으음.(으음.)
103068 #1 우리 어린 때라도. 혼디 아버지영 허긴 헤엿수다.(우리 어린 때라도. 함께 아버지랑 하긴 했습니다.)
103068 @예.(예.)
103068 #1 접도 짓고 그거 문 ᄋᆞ끄고 경은 헨마씸.(접도 짓고 그거 모두 엮고 그렇게는 했어요.)
(중략)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1 삼춘, 옛날 쉐 하영 질롓덴 허난.(삼촌, 옛날 소 많이 길렀다고 하니

149) '줌자다'는 부풀어 오른 물건이 편평하게 꺼지다는 말이다.

까.)
104001 #1 예.(예.)
104001 @1 옛날 쉐는 어떤 식으로 질롼마씨?(옛날 소는 어떤 식으로 길렀나요?)
104001 #1 쉐?(소?)
104001 @1 으.(으.)
104001 #1 새끼 나는 거.(새끼 나는 거.)
104001 @1 음.(음.)
104001 #1 좋은 걸로 헤근엥에 우리 아버지는 저 소 장서도 ᄒᆞ꼼 헷수다.(좋은 걸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저 소 장사도 조끔 했습니다.)
104001 @1 음.(음.)
104001 #1 소 장서, 옛날 그 저 것ᄀᆞ라 뭐옌 헌다마는 일름을 ᄀᆞᆯ아야 뒈는데. 전대, 전대.(소 장사, 옛날 그 것보고 뭐라고 한다마는 이름을 말해야 되는. 전대, 전대.)
104001 @1 예.(예.)
104001 #1 전대, 전대 멘들앙은에 옛날은양.(전대, 전대 만들어서 옛날은요.)
104001 @ 예.(예.)
104001 #1 이제는 카드 읒곡 허민 얼마든지 장사허곡 돈 물 수 잇지 아녀우꽈?(이제는 카드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장사하고 돈 물 수 있지 않아요?)
104001 @ 음.(음.)
104001 #1 견디 전대엔 헌 거 영 만들안에 이 돈 담아근엥에 영 헨 이디 이디 찬 뎅깁디다게.(그런데 전대라고 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돈 담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차서 다닙디다.)
104001 @1 허리에 창예?(허리에 차서요?)
104001 #1 허리에 창. 전대.(허리에 차서. 전대.)
104001 @ 음.(음.)
104001 #1 전대에 헌 거 저 만들안에 그거 허리에 창 뎅기멍 소 장설 허는디, 그 소를 저 가꾸젠 허민 촐밧도 많이, 촐도양 놉 빌엉 많이 허여 와야 뒈여마씨.(전대라고 한 거 저 만들어서 그거 허리에 차서 다니면서 소 장사를 하는데, 그 소를 저 가꾸려고 하면 꼴밭도 많이, 꼴도요 놉 빌어서 많이 해서 와야 돼요.)
104001 @1 음.(음.)
104001 #1 많이 허여 와야 소도 가꾸주. 그거 소도 좋은 걸로 질루와근에 새끼 내와근엥에.(많이 해 와야 소도 가꾸지. 그거 소도 좋은 걸로 길러서 새끼 내어서.)
104001 @ 음.(음.)
104001 #1 그거 너미 많으민 풀곡.(그거 너무 많으면 팔고.)
104001 @1 음.(음.)
104001 #1 경 허영 그걸로 생활허주. 무신 돈 날 것 싯수가? 옛날이사.(그렇게

해서 그걸로 생활하지. 무슨 돈 날고 있습니까? 옛날에야.)

104002 @1 혹시 쉐도 종류 알아지쿠과? 어떤 무슨 쉐여, 무슨 쉐여 헤갖고. 암쉐?(혹시 소도 종류 알겠습니까? 어떤 무슨 소야, 무슨 소야 해가지고. 암소?)

104002 #1 아, 종루?(아, 종류?)

104002 @1 으.(으.)

104002 #1 저 종루는게 저 미국쉐덜.(저 종류는 저 미국소들.)

104002 @ 으.(으.)

104002 # 엿날은 미국쉐 들어와근에.(옛날은 미국소 들어와서.)

104002 @1 으.(으.)

104002 #1 그 우리도 저 그 술쉐. 술쉐는.(그 우리도 그 비육우. 비육우는.)

104002 @1 으.(으.)

104002 #1 술쉐, 우리도 술쉐 질롼 살앗수다. 처음에.(비육우, 우리도 비육우 길러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104002 @1 예.(예.)

104002 #1 처음에 저 결혼허연 오란에 술쉐는 그 저 부룽이.(처음에 저 결혼해 와서 비육우는 그 저 부룩소.)

104002 @1 음.(음.)

104002 #1 부룽이 저 어떵 컴직헌 거 헹은엥에 그거를 질롸근엥에 그거를 얼마 받안 풀앙. 경 허영 술쉘 흔 멧 개 서너 개썩 질롸근엥에.(부룩소 저 어떻게 큼직한 거해서 그거를 길러서 그거를 얼마 받아서 팔아서. 그렇게 해서 비육우 한 몇 개 서너 개씩 길러서.)

104002 @ 음.(음.)

104002 #1 저 풀앙은에게 과수원도 허고 경 헷수다게.(저 팔아서 과수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4002 @1 음.(음.)

104002 #1 게난 과수원 경 성 안 둘러도 뒈는 디 돌멩이로 안 싸도 뒈는 디.(그러니까 과수원 그렇게 성 안 둘러도 되는 데 돌멩이로 안 쌓아도 되는 데.)

104002 @1 음.(음.)

104002 #1 그 제꾼[150]. 영 허영 저 돌 싸레 뎅기는 제꾼.(그 계꾼. 이렇게 저 돌 쌓으러 다니는 계꾼.)

104002 @1 예.(예.)

104002 #1 그 사름덜 빌엉근에양, 돌 싸근엥에 그거 허여낫수다게.(그 사람들 빌어서요, 돌 쌓아서 그거 했었습니다.)

104002 @ 으.(으.)

104002 #1 경허연 허단 이젠 뭐 다 뭐 텅 내불어도 뒈는디.(그렇게 하다가 이젠 뭐 다 뭐 터서 내버려도 되는데.)

150) '제꾼'은 '계꾼' 또는 '계원'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석수장이'의 의미로 쓰였다.

104002 @ 예.(예.)

104002 #1 경혜연 술쉐도 우리, 우리도 술쉐 질롸낫수다. 술쉐 질루고.(그렇게 해서 비육우도 우리, 우리도 비육우 길렀었습니다. 비육우 기르고.)

104002 @ 예.(예.)

104002 #1 그 저 촐도 많이 헤야 뒈여마씸. 촐도. 촐도 하영 허곡 또 먹을 거도 잘 줘야 술쉐가 뒈는 거마씨.(그 저 꼴도 많이 해야 돼요. 꼴도. 꼴도 많이 하고 또 먹을 것도 잘 줘야 비육우가 되는 거예요.)

104002 @1 예.(예.)

104002 #1 먹을 것도, 먹을 것도.(먹을 것도, 먹을 것도.)

104002 @1 혹시 쉐 영 뿔 모양에 따랑은에 이름 불르는 것도 들어봅디가?(혹시 소 이렇게 뿔 모양에 따라서 이름 부르는 것도 들어봅디까?)

104002 #1 뿔 모냥에 똘랑은 일름은 몰르고.(뿔 모양에 따라서는 이름은 모르고.)

104002 @1 건 모르고예?(건 모르고요?)

104002 #1 예, 뿔 모냥에 똘랑은에.(예, 뿔 모양에 따라서는.)

104002 @1 암쉐영 부룽이영.(암소랑 부룩소랑.)

104002 #1 부룽이, 암쉐 그거 그자. 그거 그 구분. 구분은 그거고.(부룩소, 암소 그거 그저. 그거 그 구분. 구분은 그거고.)

104002 @1 옛날도 검은 쉐덜도 잇어난마씨?(옛날에도 검정 소들도 있었나요?)

104002 #1 예, 검은 암쉐.(예, 검은 암소.)

104002 @ 음.(음.)

104002 #1 검으믄 검은 암쉐. 거 또 부룽이도 또 검으믄 검은 부룽이. 노랑 부룽이 그치록 그렇게 불러낫수다.(검으면 검은 암소. 거 또 부룩소도 또 검으면 검은 부룩소. 노랑 부룩소 그처럼 불렀었습니다.)

104003 @1 음, 노랑 부룽이 허영예, 예. 쉐는 주로 어떨 때 사용허는 거마씨? 이제.(음, 노랑 부룩소는 했어요, 예. 소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104003 #1 쉐. 옛날?(소. 옛날?)

104003 @1 예.(예.)

104003 #1 밧 갈곡.(밭 갈고.)

104003 @1 음.(음.)

104003 #1 밧 갈곡 새끼 내우곡[151]. 그거 주로 그겁주게.(밭 갈고 새끼 낳게 하고. 그거 주로 그거지요.)

104003 @1 짐 시끄곡.(짐 싣고.)

104003 #1 예, 짐 시끄고. 저 구루마[152], 구루마.(예, 짐 싣고. 저 달구지, 달구지.)

---

151) '내우다'는 표준어 '나오게 하다'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낳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낳게 하다'로 대역하였다.
152) '구루마'는 일본어 'くるま'로 자동차, 수레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수레보다 달구지를 말한다.

104003 @ 예.(예.)

104003 #1 그 옛날 구루마 잇지 아녀우꽈?(그 옛날 달구지 있잖아요?)

104003 @1 예, 예.(예, 예.)

104003 #1 그 구루마, 나중에라 가난 고무구루마 나난 좁디다마는.(그 달구지, 나중에 가니까 고무달구지 나니까 좋습디다만.)

104003 @1 음.(음.)

104003 #1 저 구루마 구루마 허여근엥에 소도 저 나쁜 것도 안 질롸낫수다. 우린. 좋은 걸로만 질롸. 아버지도 좋은 거 질루고 우리도 좋은 거만 질롸근에. 경 나쁜 건 아녕 등치도 좋곡.(저 달구지 달구지 해서 소도 저 나쁜 것도 안 길렀었습니다. 우린. 좋은 걸로만 길렀어. 아버지도 좋은 거 기르고 우리도 좋은 거만 길러서. 그렇게 나쁜 건 않고 등치도 좋고.)

104003 @1 음.(음.)

104003 #1 저 곤 걸로만 질롸낫수다. 노랑암쉐, 노랑암쉐 ᄀᆞ뜬 거 그런 거 질롱 새끼 내와근엥에.(저 고운 걸로만 길렀었습니다. 노랑암소, 노랑암소 같은 거 그런 거 길러서 새끼 낳게 하고.)

104003 @1 으.(으.)

104003 #1 잘 멕이곡 허영은엥에 새끼 내우곡. 새끼 내와도 잘 멕여사 잘 멕여사 새끼도 잘 날 거 아니우꽈?(잘 먹이고 해서 새끼 낳게 하고. 새기 낳게 해도 잘 먹여야 새끼도 잘 날 거 아닙니까?)

104003 @1 예.(예.)

104003 #1 게난에 저 줄지도 아녀고.(그러니 저 야위지도 않고.)

104003 @1 밧가는 것는 주로, 것도 암쉐로 갈아마씨? 밧은?(밭가는 것은 주로, 것도 암소로 갈아요? 밭은?)

104003 #1 부룽이 시민 부룽이로 갈곡. 암쉐 시민 암쉐로 갈곡.(부룩소 있으면 부룩소로 갈고. 암소 있으면 암소로 갈고.)

104003 @1 아.(아.)

104003 #1 그 미국쉐. 미국쉐 오라근엥에 원 미국쉐 질롯수다.(그 미국소. 미국소 와서 원 미국소 길렀습니다.)

104003 @ 아.(아.)

104003 #1 미국 암쉐 그거. 저 토종이 아니고 미국 암쉐 질루난. 양, 밧 갈카부덴 튀영 ᄃᆞᆯ아나불엉마씸게.(미국 암소 그거. 저 토종이 아니고 미국 암소 기르니까. 예, 밭 갈까봐 튀어서 달아나버려요.)

104003 @1 음.(음.)

104003 #1 에왕 놔두민 게난 아방[153]은 강 심지 못허연마씸게. 쉘 심지 못허난에 아들을 보낸 거라마씸게.(에워 놔두면 그러니 남편은 가서 붙잡지 못해서요. 소를 붙잡지 못하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153)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04003 @1 음.(음.)

104003 #1 저 우리 족은아덜. 느 야, 쉐 둘아나근에 느 강 심으렌. 경 헨에 심언 우리 밧 갈아낫수다게.(저 우리 작은아들. 너, 야, 소 달아나서 네 가서 붙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붙잡아 우리 밭 갈았었습니다.)

104003 @ 으음.(으음.)

104003 #1 게난 심지를 못허는 거라마씸. 알안. 저 밧만 갈곡 허는 저 임제를 알아근엥에.(그러니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 저 밭만 갈고 하는 저 임자를 알아서.)

104003 @ 음.(음.)

104003 #1 밧 갈카부덴 오꼿 둘아나부렁 오꼿. 아이고, 돌멩이도 잘도 잘 튑니다.(밭 갈까봐 그만 달아나버려 그만. 아이고, 돌멩이도 잘도 잘 튑니다.)

104003 @1 음.(음.)

104003 #1 저 소가 커 놓난. 잘 튀연 둘아나부난 아덜이 간 심언, 심언에 메연 놧수덴, 허연 밧 갈앗수다게.(저 소가 커 놓으니까. 잘 튀어서 달아나버려서 아들이 가서 붙잡아서, 붙잡아 매어서 놨습니다, 해서 밭 갈았습니다.)

104004 @1 옛날 밧 갈젠 허면 쉐 질들이잖아예?(옛날 밭 갈려고 하면 소 길들이잖아요?)

104004 #1 예, 예.(예, 예.)

104004 @1 질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 헙디가?(길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 합디까?)

104004 #1 아, 그거는, 그거는양 새 쉐 ᄀᆞ르치는 거.(아, 그거는 그거는요 새 소 가르치는 거.)

104004 @1 음.(음.)

104004 #1 새 쉐 저 돌멩이, 돌멩이 고망 뚤라진 돌멩이.(새 소 저 돌멩이, 돌멩이 구멍 뚫어진 돌멩이.)

104004 @1 음.(음.)

104004 @2 예, 예.(예, 예.)

104004 #1 돌멩이 그거를 끗어근에 그거를 끗엉 돌아마씸, 드러. 드러 질거리를 돌던가. 이제는 못 돌게 헐 거우다. 이제 지금은 못 돌게 헐 거우다. 이 저 아스팔트 문 저 무시거 기스난덴[154] 허영.(돌멩이 그거를 끌어서 그거를 끌어서 돌아요, 들이. 들이 길거리를 돌던가. 이제는 못 돌게 할 겁니다. 이제 지금은 못 돌게 할 겁니다. 이 저 아스팔트 모두 저 무엇 자국 난다고 해서.)

104004 @1 으.(으.)

104004 #1 옛날은 그런 질이 엇엇수게. 그런 질을 엇으난 그자 막 아무 디라도 끗엉 다니멍 그걸 저 질드렁은에 그 저 새쉐 ᄀᆞ리친덴 헙니다. 것ᄀᆞ라.(옛날은 그런

154) '기스나다'는 일본어와 국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일본어 'きず'로 '흠·자국'의 뜻이기 때문에 '흠이 나다, 자국 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길이 없으니까 그저 막 아무 데라도 끌고 다니면서 그걸 저 길들여서 그 저 새소 가르친다고 합니다. 것보고.)

104004 @1 음.(음.)

104004 #1 새쉐 ᄀᆞ르쳐근에 우리도 새쉐 많이 ᄀᆞ치쳣수다.(새소 가르쳐서 우리도 새소 많이 가르쳤습니다.)

104004 @ 음.(음.)

104004 #1 풀아뒁은에 또 사근엥에 또 새쉐 사근에 ᄀᆞ리치난. 아이고, 새쉘 ᄀᆞ르치는디양, 담은 그 저 놉 빌언 다 놓난에 그 과수원 담이 막 좋아마씸.(팔아두고 또 사서 또 새소 사서 가르치니까. 아이고, 새소를 가르치는데요, 돌담은 그 저 놉 빌어서 쌓아 놓으니까 그 과수원 돌담이 막 좋아요.)

104004 @1 음.(음.)

104004 #1 좋은 디. 이 눈을 막앗수다. 하도 저 쉐가 막 저 막 쉐가 경 독허연 허난. 저 잠대 메운 냥 앞듸레 가민 앞의 강 콱 허게 박아마씸게. 자기냥으로.(좋은데. 이 눈을 막았습니다. 하도 저 소가 막 저 막 소가 그렇게 독해서 하니까. 저 쟁기 메운 채 앞으로 가면 앞에 가서 콱 하게 박아요. 자기대로.)

104004 @1 음.(음.)

104004 #1 콱 허게 박곡. 난 이끄곡 이끄곡마씸게.(콱 하게 박고. 난 이끌고 이끌고요.)

104004 @1 음.(음.)

104004 #1 앞의서 이끄민, 이끄는 사름도 완전 겁납디다게.(앞에서 이끌면, 이끄는 사람도 완전 겁납디다.)

104004 @1 아.(아.)

104004 #1 예, 막 겁난마씸게. 겁낭은엥에 코 끼고 헤여근엥에 겁나근엥에 아이고, 저 하나 잘도 저 나쁜 쉐 우리 질롸낫수다.(예, 막 겁나요. 겁나서 코 꿰고 해서 겁나서 아이고, 저 하나 잘도 저 나쁜 소 우리 길렀었습니다.)

104004 @1 음.(음.)

104004 #1 게난 나중에 풀아부럿수다게. 못 허컵디다, 것도.(그러니 나중에 팔아버렸습니다. 못 하겠습디다, 것도.)

104004 @ 음.(음.)

104004 #1 게난양 용심나난에 저 소낭에 메연 막 때려불언마씸게.(그래서요 화나니까 저 소나무에 매서 막 때려버렸어요.)

104004 @1 웃음.(웃음.)

104004 #1 쉘 막 때려붑디다게.(소를 마구 때려버립디다.)

104004 @ 음.(음.)

104004 #1 이 밧거리에 그 우리 저 새로 짓으난에 육지 사름이 완 살아낫수다. 육짓아지망 아덜 하나 데리고 헤연 완 살아신디 ○○이엔 헌 어멍 완 살아나신디. 농사 어디 ᄂᆞ물이영 무시거 저 베추영 갈 디 엇으난 우리 과수원에 강 갈아 먹으렌

허난.(이 바깥채에 그 우리 저 새로 지으니까 육지 사람이 와서 살았었습니다. 육지 아주머니 아들 하나 데리고 해서 와서 살았는데 ○○이엔 한 어머니 와서 살았었는데. 농사 어디 나물이랑 무엇 저 배추랑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과수원에 가서 갈아 먹으라고 하니까.)

104004 @ 음.(음.)

104004 #1 막 웃언.(막 웃었어.)

104004 @ 음.(음.)

104004 #1 막 웃언. 경 헤가난 막 웃언에 뭣도 몰르고 막 웃은 거라마씨. 소가 막 그치룩게 경 들락퀴멍 밧 갈멍게 강 담 자락 박곡 헤가난 막 웃으난. 아이고, 춤 우스완. 어 소도 잘도 나쁜 소 질롸낫수다게, 우리.(마구 웃었어. 그렇게 해가니까 마구 웃어서 뭣도 모르고 막 웃은 거예요. 소가 마구 그처럼 그렇게 날뛰면서 밭 갈면서 가서 돌담 자락을 받고 해가니까 마구 웃으니까. 아이고, 참 우스워서. 어 소도 잘도 나쁜 소 길렀었습니다, 우리.)

104004 @1 음. 웃음.(웃음.)

104004 #1 소도 크고게.(소도 크고.)

104004 @1 예, 예.(예, 예.)

104004 #1 큼도 허곡 경 나쁩디다게.(크기도 하고 그렇게 나쁩디다.)

104005 @1 쉐도 나이 흔 술 두 술 셉니까? 어떵 세난 거 알아져?(소도 나이 한 살 두 살 셉니까? 어떻게 셌던 거 알아요?)

104005 #1 나이 어떵?(나이 어떻게?)

104005 @1 나이 어떵 셉니까? 쉐 나이는?(나이 어떻게 셉니까? 소 나이는?)

104005 #1 쉐 나이.(소 나이.)

104005 @1 으.(으.)

104005 @2 금승.(하릅.)

104005 #1 쉐 나이는게, 저 무시거게. 저 다근, 다근송아기. 허민 처음에 날 때 다근송아기로 허여근엥에 크민 멧 설, 멧 설. 이거 멧 헤 뒈민 멧 설.(소 나이는, 저 무엇. 저 하릅, 하릅송아지. 하면 처음에 날 때 하릅송아지 해서 크면 몇 살, 몇 살. 이거 몇 해 되면 몇 살.)

104005 @ 음.(음.)

104005 #1 경 헙니다게.(그렇게 합디다.)

104006 @ 혹시 쟁기 이렇게 이시면 쟁기 명칭,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잠대?(혹시 쟁기 이렇게 있으면 쟁기 명칭, 부분 명칭도 알겠습니까? 쟁기?)

104006 #1 잠대?(쟁기?)

104006 @1 예.(예.)

104006 @2 양주머리여.(양지머리야.)

104006 #1 에이그, 그거 우리, 드러 밧 갈아난 거난게. 양, 우리 잠대 이디 놔두난 엇덴 헴수다게.(에이그, 그거 우리, 들이 밭 갈았던 거니까. 이보세요, 우리 쟁기

여기 놔두니까 없다고 합니다.)

104006 @1 게난.(그러니까.)

104006 #1 잠대를.(쟁기를.)

104006 @ 음.(음.)

104006 #1 아버지가 분명히 저 이디 우의 질런 놔둔 것이 잠대 어디 가수과? 경 나신더레 요 요 어제 그지게 완 들은 거라마씸.(아버지가 분명히 저 여기 위에 찔러 놔둔 것이 쟁기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요 요 어제 그저께 와서 묻는 거예요.)

104006 @ 음.(음.)

104006 #1 요 오래지 아녓수다게, 게난. 아이고, 나도 모르켜. 잠대 셔나시냐? 허난에 족은아덜이마씨. 잠대, 아 잠대가 저 삽시에 엇어졋수덴 허멍. 잠대 어디 갓수겐? 경 골암수다게.(요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모겠어. 쟁기 있었니? 하니까 작은아들이요. 쟁기, 아 쟁기가 저 삽시에 없어졌다고 하면서. 쟁기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104006 @ 음.(음.)

104006 #1 게난 그 잠대에 경 허는 거 저 보섭.(그러니까 그 쟁기에 그렇게 하는 거 저 보습.)

104006 @ 예.(예.)

104006 #1 보섭도 무끼민 사야 뒈고.(보습도 무디면 사야 되고.)

104006 @1 예.(예.)

104006 #1 따시 저 무시거 저 벳.(다시 저 무엇 저 볏.)

104006 @1 벳.(벳.)

104006 #1 벳도 비싸.(볏도 비싸.)

104006 @1 예.(예.)

104006 #1 벳도 사야 뒈고.(볏도 사야 되고.)

104006 @1 응.(응.)

104006 #1 경 혜영 그거 저 그레 메와근에.(그렇게 해서 그거 저 거기에 메워서.)

104006 @1 으, 여긴 영 허영은에 메우는 거 잇고예?(으, 여긴 이렇게 해서 메우는 거 있고요?)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이건 뭐우꽈?(이건 뭡니까?)

104006 #1 그건 저.(그건 저.)

104006 @1 손잡이?(손잡이?)

104006 #1 가린석[155].('가린석'.)

155) '가린석'은 ①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소의 좌우 뿔에 잡아맨 두 가닥의 기다란 줄을 말한다. ②지역에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 달리 불리기도 한다. 동의어로 '굴배', '부림패'가 있다.

104006 @1 가린석도 잇고.(‘가린석’도 있고.)
104006 #1 가린석. 가린석도 양쪽으로.(‘가린석’. ‘가린석’도 양쪽으로.)
104006 @2 예. 예.(예. 예.)
104006 @1 양쪽으로 줄 메는 거 가린석.(양쪽으로 줄 매는 거 ‘가린석’.)
104006 #1 일로 딩기믄 일로 돌아오곡 일로 딩기믄 일로 돌아오곡. 가린석.(이리로 당기면 이리로 돌아오고 이리로 당기면 이리로 돌아오고. ‘가린석’.)
104006 @1 게난 손 영 손잡이는 뭐렌 헤여?(그러니 손 이렇게 손잡이는 뭐라고 해?)
104006 #1 손잡이는.(손잡이는.)
104006 @2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6 #1 아니, 양진, 양짓머리는 저 그 저 무시거. 저 이 잠대에 메와진 거고.(아니, 양진, 양지머리는 저 그 저 무엇. 저 쟁기에 메워진 거고.)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이 저 가린석 그 손잡이도 잇수다.(이 저 ‘가린석’ 그 손잡이도 있습니다.)
104006 @1 예.(예.)
104006 @2 가린석코?(‘가린석’코?)
104006 #1 예, 가린석 손잡이도 잇어마씨.(예, ‘가린석’ 손잡이도 있어요.)
104006 @1 예, 예, 예. 가린석 손잡이도 잇고예? 예.(예, 예, 예. ‘가린석’ 손잡이도 있고요? 예.)
104006 #1 동글락헌 거 메왕은에.(동글한 거 메워서.)
104006 @2 예.(예.)
104006 @1 양짓머리는 이렇게 잠대엣 거고.(양지머리는 이렇게 쟁기의 거고.)
104006 #1 예, 잠대엣 거.(예, 쟁기의 거.)
104006 @1 그다음 잠대에 길게 난 그 낭은 뭐렌 허여?(그다음 쟁기에 길게 난 그 나무는 뭐라고 해?)
104006 #1 낭?(나무?)
104006 @1 으.(으.)
104006 #1 몽클은 뭐우과? 몽클은.(쟁깃술은 뭡니까? 쟁깃술은.)
104006 #1 모클?(쟁깃술?)
104006 @1 으. 모클.(으. 쟁깃술.)
104006 #1 모클. 모클은 그 큰 저 큰 큰나무. 큰 거 그디.(쟁깃술, 쟁깃술은 그 큰 저 큰나무. 큰 거 거기.)
104006 @1 모클?(쟁깃술.)
104006 #1 모클은 이렇게 진 거. 그디 메와지는.(쟁깃술은 이렇게 긴 거. 거기 메워지는.)
104006 @1 어, 저기 보섭에 영 메우는 거?(어, 저기 보습에 이렇게 메우는 거.)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1 예, 그게 모를.(예, 그게 쟁깃술.)
104006 #1 어.(어.)
104006 @ 그다음에 성에는?(그다음에 성에는?)
104006 #1 성에는 영 영 씌우는 거 이디 이디 목에.(성에는 이렇게 이렇게 씌우는 거 여기 여기 목에.)
104006 @2 건 멍에.(건 멍에.)
104006 #1 이건 멍에.(이건 멍에.)
104006 @1 멍에, 으.(멍에, 으.)
104006 #1 멍에가 성에, 성에주게. 멍에가 성에마씨.(멍에가 성에, 성에지. 멍에가 성에예요.)
104006 @1 예, 예. 그다음에 멍에 허면 영 씌우면은 줍게[156].(예, 예. 그다음에 멍에 하면 이렇게 씌우면 '줍게'.)
104006 #1 줍게.('줍게'.)
104006 @1 줍게.('줍게'.)
104006 #1 줍게. 줍게. 이디 이디 영 허영은에.('좁게', '좁게'.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104006 @2 예, 예예.(예, 예예.)
104006 #1 벵벵허게시리 저 뭣으로 무꺼근에.(벵벵하게끔 저 뭣으로 묶어서.)
104006 @1 예.(예.)
104006 #1 줍게.('줍게'.)
104007 @1 이건 줍게예? 줍게예.(이건 '줍게'요? '줍게'요.)
104007 #1 줍게.('줍게'.)
104007 @1 질메로도 짐 시꺼봅디가?(길마로도 짐 실어봤습니까?)
104007 #1 질메로 아이고, 나양, 저 친정에서.(길마로 아이고, 저요, 저 친정에서.)
104007 @1 으.(으.)
104007 #1 그 쓰물 전이 그 돗걸름착[157].(그 스물 전에 그 '돗걸름착'.)
104007 @1 음.(음.)
104007 #1 그거 그거 다 부쪗수다.(그거 그거 다 붙였습니다.)
104007 @1,2 음.(음.)
104007 #1 질메로 둘리가. 둘리가 부쪄야 뭴 거 아니우꽈? 아버지 하나 나 하나.(길마로 둘이서. 둘이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 나 하나.)
104007 @1 음.(음.)
104007 #1 게난 돗걸름착 요만이 헌 거 허여근에 그디 저 걸름 담앙은에 우틔

156) '줍게'는 멍에 양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다. 지역에 따라서 '적궤, 집궤, 접게, 줍궤, 줍작게' 등으로 부른다.
157) '돗걸름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레 착착허게 헤여근에.(그러니 '돗걸름착' 요만큼 한 거 해서 거기 저 거름 담아서 위로 착착하게 해서.)

104007 @1 음.(음.)

104007 #1 저 그 저 그 질메 지와근에 그 질메 우티레 놔근에.(저 그 저 그 길마 지워서 그 길마 위에 놓아서.)

104007 @ 음.(음.)

104007 #1 그 베로 문딱 무꺼근에. 경 헤여근에 질은 또 질은 얼마나 곶어낫수가? 옛날 질.(그 바로 모두 묶어서. 그렇게 해서 길은 또 길은 얼마나 곶었었습니까? 옛날 길.)

104007 @1 음.(음.)

104007 #1 족은 질로 박박 훌트멍 뎅겨낫수다게. 게난 똑 ᄀᆞ뜨게 것도 담아야마씨.(작은 길로 박박 훑으며 다녔었습니다. 그러니 똑 같게 것도 담아야 해요.)

104007 @2 예.(예.)

104007 #1 예, 똑 ᄀᆞ뜨게 담아야 바를 거 아니우꽈? 견디 그 저 촐 ᄀᆞ뜬 거 새 ᄀᆞ뜬 거는 시끄민 똘아질 수가 잇어마씨. 어떠난산디.(예, 똑 같게 담아야 바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 같은 거 띠 같은 거는 실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때선지.)

104007 @2 음.(음.)

104007 #1 큰 뭇 작은 뭇이 신가. 어떵 ᄒᆞᆫ 뭇은 더 시끄지 아넘니다. 게난 ᄒᆞᆫ 착에 쓰무 뭇썩.(큰 뭇 작은 뭇이 있는가. 어떻게 한 뭇은 더 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쪽에 스무 뭇씩.)

104007 @ 음.(음.)

104007 #1 마흔 뭇을 시끄난.(마흔 뭇을 실으니까.)

104007 @1 음.(음.)

104007 #1 겨난에 그건 어떵 허영 똘아지민 돌, 돌멩이로 하나 영 놔근엥에.(그러니 그건 어떻게 하다 떨어지면 돌, 돌멩이로 하나 이렇게 놓아서.)

104007 @2 아.(아.)

104007 #1 영 돌멩이로 놩. 예예 똑바르게 똑발라서마씨. 경 아녀민 벗어져불지 아넘니까?(이렇게 돌멩이로 놓고. 예예 똑바르게 똑발랐어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104007 @1 음.(음.)

104007 #1 ᄒᆞᆫ짝디레 쓸려불 거난에 돌멩이로 영 허영은에 ᄒᆞ나 그레 어떵 허여근에 그 하나 젭져마씨. 돌멩이로.(한쪽으로 쓸려버릴 거니까 돌멩이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 어떻게 해서 그 하나 끼워요. 돌멩이로.)

104007 @1 게믄 그 삼춘네 ᄆᆞᆯ질메도 헤난?(그러면 그 삼촌네 말길마도 했어요?)

104007 #1 하이고, ᄆᆞᆯ질메 허곡말곡. ᄆᆞᆯ질메 헷수다게.(하이고, 말길마 하고말고.

말길마 했습니다.)
104007 @1 게믄 물질메허고 쉐질메허고도 ᄐᆞ납니까?(그러면 말길마하고 소길마하고 다릅니까?)
104007 #1 ᄒᆞ꼼 족읍니다, 물질메가.(조금 작습니다. 말길마가.)
104007 @2 아아.(아아.)
104007 @1 질멧가지가.(길맛가지가.)
104007 #1 예, 족아, 족아마씸. 물질메가.(예, 작아, 작아요. 말길마가.)
104007 @1 예. 물질메가예, 예.(예, 말길마가요, 예.)
104007 #1 예, 족아.(예, 작아.)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게난 아버지는 물, 물을 끗고 나는 소를 끗고.(그러니 아버지는 말, 말을 끌고 나는 소를 끌고.)
104009 @1 으.(으.)
104009 #1 저 산에 낭허레 갈 때.(저 산에 나무하러 갈 때.)
104009 @1 아.(아.)
104009 #1 그렇게 가나난.(그렇게 갔었어.)
104009 @1 예, 게민 여기에서는 그 목장은 어떵 관리헤난마씨? 촐왓 같은 거.(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목장은 어떻게 관리했었어요? 꼴밭 같은 거.)
104009 #1 촐왓 ᄀᆞ뜬 거?(꼴밭 같은 거?)
104009 @1 응.(응.)
104009 #1 촐왓 가뜬 건 가시 케고.(꼴밭 같은 건 가시 캐고.)
104009 @1 음.(음.)
104009 #1 덥수과? 이거 털게.(덥습니까? 이거 틀게.)
104009 @2 아니우다.(아닙니다.)
104009 @1 아니.(아니.)
104009 #1 안 덥수가? 저 그 소왕이가시[소왕이까시].(안 덥습니까? 저 그 엉경퀴가시.)
104009 @1 예.(예.)
104009 #1 엿날은 소왕이가시가 경 합디다게.(옛날은 엉경퀴가시가 그렇게 많습디다.)
104009 @1 음.(음.)
104009 #1 촐왓이 엄청 널러마씸게. 엄청 널렁 저 서광디레 가는 디 동서녁짝 다 저 촐왓이 널르난. 메일 아버지가 경 케레 가는 거라마씸. 고사리, 고사리 케곡 저 소왕이가시 케곡.(꼴밭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저 서광으로 가는 데 동서녘 쪽 다 저 꼴밭이 넓으니까. 매일 아버지가 그렇게 캐러 가는 거예요. 고사리, 고사리 캐고 저 엉경퀴가시 캐고.)
104009 @1 음.(음.)

104009 #1 경 허여근에 다 아버지가 모여근엥에 저 어디레 저 그 촐 안 나는 드레.(그렇게 해서 다 아버지가 모아서 저 어디로 저 그 꼴 안 나는 데로.)

104009 @2 음.

104009 #1 새왓도 경 많곡마씸게.(띠밭도 그렇게 많고요.)

104009 @1 음.(음.)

104009 #1 또 그 집을 일젠 허민. 겨곡 우린 풀앗수다. 아버지넨 친정아버지넨 풀앗수다. 너무 많안.(또 그 집을 이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린 팔았습니다. 아버지네는 친정아버지네는 팔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104009 @ 음.(음.)

104009 #1 너무 많으난 저 혼 뭇에 얼마 헤영 풀고.(너무 많으니까 저 한 뭇에 얼마 해서 팔고.)

104009 @1 응.(응.)

104009 #1 또 촐은 또 촐왓이 너무 널러 놓니까양. 촐왓 문짝 저 이녁 촐왓으로 허당도 남아마씸게. 소 멕이당도 남아.(또 꼴은 또 꼴밭이 너무 넓어 놓으니까요. 꼴밭 모두 저 이녁 꼴밭으로 하다가도 남아요. 소 먹이다가도 남아.)

104010 @1 삼춘, 쉐 ᄀᆞ꾸레 다니멍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들 잇어마씨? 잊어불지 못허는 거?(삼촌, 소 가꾸러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들 있어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104010 #1 잊어불지 못허는 건 뭐 산에 낭허레 뎅기는 거 잊어불질 안 헙니다.(잊어버리지 못하는 건 뭐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거 잊어버리지 안 합니다.)

104010 @1 촐 헐 때는?(꼴 할 때는?)

104010 #1 촐 헐 때는게.(꼴 할 때는.)

104010 @1 으.(으.)

104010 #1 나도 촐도 비곡 촐도 무끄곡. 아이고, 어른, 어른 구실헤연 살앗수게. 어른 구실 어려도.(나도 꼴도 베고 꼴도 묶고. 아이고, 어른, 어른 구실해서 살았습니다. 어른 구실 어려도.)

104010 @1 음.(음.)

104010 #1 그 저 촐 다 같이 비엿수다.(그 저 꼴 다 같이 벴습니다.)

104010 @1 음.(음.)

104010 #1 양, 이녁만 안 비엿수다. 우리 널러 놓니까. 놉 빌엉 비엇수게. 놉 빌엉.(보세요, 이녁만 안 벴습니다. 우리 넓어 놓으니까. 놉 빌어서 벴습니다. 놉 빌어서.)

104010 @2 으.(으.)

104010 #1 놉 빌엉. 게난양 이녁 촐로 모지레난 남셍이오름[158] 저 저 서광[159] 우의 그디양 촐왓을 산마씸.(놉 빌어서. 그러니까요 이녁 꼴로 모자라니까 '남송이

158) '남셍이오름'은 '남송이오름'을 말하는데,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사수동 북쪽에 있는 오름이다. 중턱에 깔대기 형 분화구가 있고 표고는 339m이며, 달리 '남소로기', '남송악이'라고도 한다.

159) '서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를 말한다.

오름' 저 서광 위에 거기요 꼴밭을 샀어요.)

104010 @1 음.(음.)

104010 #1 산에 저 큰 촐왓 산에 흔 헤는 경 헤낫수다. 너무 소가 하 놓난에. 저디 저 ○○이 아방엔 헌 어른 그제도 그디 막 부제우다게.(사서 저 큰 꼴밭을 사서 한 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소가 많아 놓으니까. 저기 저 ○○이 아버지라고 한 어른 그때에도 거기 매우 부잡니다.)

104010 @ 으.(으.)

104010 #1 겐디 뚤은 나보다 하나 알.(그런데 딸은 나보다 하나 아래.)

104010 @ 음.(음.)

104010 #1 하나 알이곡 그디도 단뚤 나도 단뚤.(하나 아래고 거기도 외동딸 나도 외동딸.)

104010 @ 음.(음.)

104010 #1 우리 성님 잇주마는 성님은 저 뭣이고 결혼혜여 불고 허난. 우리는 새 비여당 께 털어.(우리 형님 있지만 형님은 저 뭣이고 결혼해 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띠 베다가 매끼 틀었어.)

104010 @1 음.(음.)

104010 #1 껠 터는디 그디도 단뚤. 나보단 하나 알이라도 께 터는 것도 나영 흔디 털어도 완전 떨어져.(매끼 트는데 거기도 외동딸. 나보다는 하나 밑이라도 매끼 트는 것도 나랑 함께 틀어도 완전 떨어져.)

104010 @ 음.(음.)

104010 #1 나보단도. 께도 확확확확 털엉 아버지 허곡 따시 그 그 어른은 무끄곡. 그 두 어른은 무끄곡.(나보다도. 매끼도 확확확확 틀어서 아버지 하고 다시 그 그 어른은 묶고. 두 어른은 묶고.)

104010 @ 음.(음.)

104010 #1 우린 께 털엉 내치곡, 촐 모이곡.(우린 매끼 틀어서 내치고, 꼴 모으고.)

104010 @1 음.(음.)

104010 #1 그치룩 허멍 경 저 아부지네 그 흔듸 따라뎅기멍 헷수다게. 그땐 구루마[160] 신 때난.(그처럼 하면서 그렇게 저 아버지네 그 함께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땐 달구지 있을 때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구루마로 촐 시꺼 왓수다게. 구루마 신 때.(달구지로 꼴 실어 왔습니다. 달구지 있을 때.)

말 기르기

104011 @1 물은 어떵 질룹디가?(말은 어떻게 길렀습니까?)

160) '구루마'는 일본어 'くるま'로 자동차, 수레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수레보다 달구지를 말한다.

104011 #1 몰은 몰은양 우리아부지가 드러 무시거 끗엉 뎅깁디다. 몰은 어떵 헨에 몰도 산에 논 몰도 잇고 질루, 집의서 일허는 몰도 잇고.(말은 말은요 우리아버지가 들이 무엇을 끄어서 다닙디다. 말은 어떻게 해서 말도 산에 놓은 말도 있고 기르, 집에서 일하는 말도 있고.)

104011 @1 음.(음.)

104011 #1 게난 일허는 몰은 무시거 저 구루마 헤영은엥에 무시거 끗엉 오곡. 끗어근엥에 저 그때 그 메타.(그러니 일하는 말은 무엇 저 달구지 해서 무엇 끄어서 오고. 저 그때 그 탈곡기.)

104011 @1 예.(예.)

104011 #1 메타 잇어낫주게양. 메타 저 남의 메타 빌어단에 그 저 보릴 두드려 나신디 그 메탈 곶다 뒨에 저 그 집의 곶다 뒨 오단에 저 어디서양, 몰이 줌짝 놀레연에 우리 아버지 죽엇단 살아낫수다게.(탈곡기 있었었지요. 탈곡기 저 남의 탈곡기 빌어다가 그 저 보릴 두드렸었는데 그 탈곡기 갖다 두고 저 그 집에 갖다 두고 오다가 저 어디서요, 말이 움찔 놀라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104011 @1 음.(음.)

104011 #1 몰이 줌짝 놀레연에 구루마채 막 돌아부난 구루마채 막 돌아부난 구루마에 뒈싸젼에 우리 아버지 문 죽엇젠 헨에 소문난 허난 우린 보리쏠 겁지단보난 어머니영 나영.(말이 움찔 놀라서 달구지째 마구 달아나버리니까 달구지째 마구 달아나버리니까 달구지에 뒤집어져서 우리 아버지 모두 죽었다고 해서 소문났다고 하니까 우린 보리쌀 손질하다보니까 어머니랑 나하고.)

104011@ 음.(음.)

104011 #1 보리쏠 겁지단보난 아버지 문 죽엇젠 허난에 가낫수다게. 아버지, 어멍은 가고 나는 보리쏠 겁지고.(보리쌀 손질하다보니까 아버지 모두 죽었다고 하니까 갔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가고 나는 보리쌀 손질하고.)

104011 @1 음.(음.)

104011 #1 경 헨에 경 헤도 저 니빨도 문딱 상허고.(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저 이도 모두 상하고.)

104011 @1 으.(으.)

104011 #1 경 헤도 뚜시 저 병원에 살안에, 병원도 그때 어느 병원 어디 서귀의료원 가나신가. 어디 간에 허연 흔 흔 메틀 입원헤연에 게도 저 궨차년에 춤 으든셋 나도록, 넷 나도록 살아낫수다.(그렇게 해도 다시 저 병원에 살아서, 병원도 그때 어는 병원 어디 서귀의료원 갔었나. 어디 가서 해서 한 한 며칠 입원해서 그래도 저 괜찮아서 참 여든셋 나도록, 넷 나도록 살았었습니다.)

104011 @ 음.(음.)

104011 #1 으든넷 나도록 살안.(여든넷 나도록 살았어.)

104011 @1 옛날이민 오래 산거주, 그때는예.(옛날에는 오래 산거지, 그때는.)

104011 #1 오래 산겁주게.(오래 산겁지요.)

104012 @1 예. 물 종류도 잇어신가마씨? 물 종륜?(예. 말 종류도 있었나요? 말 종륜?)
104012 #1 물 종노도 호달매.(말 종류도 호마.)
104012 @ 예.(예.)
104012 #1 호달맨 큰 거. 겨난 이제도 이제도 저 싯수게게. 이제도 종노가 잇주게.(호마 큰 거. 그러니 이제도 이제도 저 있습니다. 이제도 종류가 있지.)
104012 @ 예.(예.)
104012 #1 이제도 이제도 저 토종이 싯고 양종이 싯고.(이제도 이제도 저 토종이 있고 양종이 있고.)
104012 @1 음.(음.)
104012 #1 예, 게난양 저.(예, 그러니까요 저.)
104012 @1 색깔에 따랑 무신.(색깔에 따라서 무슨.)
104012 #1 색깔에 따랑.(색깔에 따라서.)
104012 @1 가, 가라물이여 부루물이여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가, 가라말이야 부루말이야 이런 말도 들어봅디까?)
104012 #1 아, 그런 거 그런 거 잇어마씸게.(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104012 @1 어떤 거우꽈?(어떤 겁니까?)
104012 #1 게난 저 뭐 붉은 물이 좁주게.(그러니 저 붉은 말이 좋지요.)
104012 @1 예.(예.)
104012 #1 붉은 물이 좋아.(붉은 말이 좋아.)
104012 @1 붉은 물이 좋은 거?(붉은 말이 좋은 거?)
104012 #1 예, 예예. 곱고 이쁜 거만 질루지 기렵지 아녑니까?(예, 예예. 곱고 이쁜 거만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104012 @1 예, 웃음.(예. 웃음.)
104012 #1 뒈지나 뭐 소나 물이나양 색깔도 색깔도 고와야.(뒈지나 뭐 소나 말이나요 색깔도 색깔도 고와야.)
104012 @1 음.(음.)
104012 #1 저 좋음니다게.(저 좋습니다.)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1 닥 ᄀᆞ뜬 것도 색깔이 고아야.(닭 같은 것도 색깔이 고아야.)
104013 @ 색깔이 고운 거예? 게난 물은 주로 어떵 이용헌 거라마씨? 여기서는?(색깔이 고운 거요? 그러니 말은 주로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104013 #1 여기서?(여기서?)
104013 @1 예.(예.)
104013 #1 저 산에 놧수다. 우리 아버지네. 산에 놘에 그건 다 그 저 폭도덜 잡아먹고. 하나만 하나만 저 이용헷수다. 하나만.(저 산에 놨습니다. 우리 아버지네. 산에 놓아서 그건 다 그 폭도들 잡아먹고. 하나만 하나만 저 이용했습니다. 하나

만.)

104013 @ 음.(음.)

104013 #1 하나만 그자 저 집의서 질루는 거. 저 어디 가근엥에 낭허여 오곡. 저 소 셔도 손 나가 끗엉 가곡.(하나만 그저 저 집에서 기르는 거. 저 어디 가서 나무해서 오고. 저 소 있어도 손 내가 끌어서 가고.)

104013 @ 음.(음.)

104013 #1 아버진 물 끗곡 경 허여근엥에 집의서 그자 질루멍 어디 가근엥에 그 저 말톡.(아버진 말 끌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그저 기르면서 어디 가서 그 저 말뚝.)

104013 @1 음.(음.)

104013 #1 말톡 허영 어디 강 메여마씸. 어디 강 메여근엥에 따신 아칙이 강 메민 낮 뒈민 물 멕여근엥에 뚜시 뚠 더레 메곡.(말뚝 해서 어디 가서 매요. 어디 가서 매서 다시 아침에 가서 매면 낮 되면 물 먹여서 다시 딴 데 매고.)

104013 @1 음.(음.)

104013 #1 저 촐 잇는 데레. 그디 강 메곡 경 허멍 살앗수다게.(저 꼴 있는 데. 거기 가서 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4013 @1 건 뭘로 메여마씨? 멜 때는?(건 뭐로 매어요? 맬 때는?)

104013 #1 말톡.(말뚝.)

104013 @1 말톡에 헹은에.(말뚝에 해서.)

104013 #1 말톡 줄대[161]에.(말뚝 '줄대'에.)

104013 @1 으.(으.)

104013 #1 말톡엔 헌 건 알러레 박는 거. 땅더레 박는 거고 줄대는 이렇게 진 거.(말뚝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박는 거. 땅에 박는 거고 '줄대'는 이렇게 긴 거.)

104013 @1 음.(음.)

104013 #1 줄대.('줄대'.)

104013 @1 줄대에 헹은에예, 예, 예?('줄대'에 해서요, 예, 예?)

104013 #1 예, 줄대.(예, 줄대.)

104013 @1 그러면은 그렇게 줄대로 헤영 허긴 허는데 여기는 저기 물 헤영 밧 볼리거나 경 아녀수가? 조 볼릴 때 어떵 헨?(그러면은 그렇게 '줄대'로 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는 저기 말 해서 밭 밟거나 그렇게 않았습니까? 조 밟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4013 #1 아이고, 조 볼릴 때에 저양 그 뭐 족은 밧들은 거 저 소로도 볼렷수다마는 그 저 무시거 저 나중에.(아이고, 조 밟을 때에 저요 그 뭐 작은 밭들은 거 저 소로도 밟았습니다만 그 저 무엇 나중에.)

104013 @1 예.(예.)

161) '줄대'는 말뚝을 길게 간격을 두고 양쪽에 박은 다음, 말뚝과 말뚝 사이에 길게 줄을 묶고 말의 고삐를 그 줄에 느슨하게 매어 말의 이동공간을 넓혀주는 그 밧줄을 말한다.

104013 #1 그 저 그 물 박 구장네엔 헌 어른들이 물이 흔 쉬은 개.(그 저 그 말 박 구장네라고 한 어른들이 말이 한 쉰 마리.)

104013 @1 음.(음.)

104013 #1 쉬은 개 질롸신디 그 텟물입주게 그건.(쉰 마리 길렀는데 그 뗏말입지요 그건.)

104013 @1 예.(예.)

104013 #1 건 물 저 밧 불리렌 밧 저 빌려주는 거마씨.(건 말 저 밭 밟으라고 밭 저 빌려주는 거예요.)

104013 @ 예.(예.)

104013 #1 임제네가 저 그 물 질루는 디 장남 하나 돌아근에 그 물을 저 이용을 헷수다게.(임자네가 저 그 말 기르는 데 장정 하나 데려서 그 말을 저 이용을 했습니다.)

104013 @1 음, 음.(음, 음.)

104013 #1 게난에 그건 저 밧 아무 밧이라도 안 불립니다. 저 그 무시거 거 곧지 못헨 이제. 저 그 질 말쩨에 좋은 밧은 말쩨 갈아마씸게.(그러니까 그건 저 밭 아무 밭이라도 안 밟습니다. 저 그 무엇 거 말하지 못해서 이제. 저 그 젤 말째에 좋은 밭은 말째 갈아요.)

104013 @1 음.(음.)

104013 #1 말쩨 마 문딱 걷어불어사.(말째 장마 모두 걷어버려야.)

104013 @1 예.(예.)

104013 #1 마 문딱 걷어불어사. 이 땅ᄀᆞ찌 직깍허게 불려마씸게.(장마 모두 걷어버려야. 이 땅같이 빽빽하게 밟아요.)

104013 @1 음.(음.)

104013 #1 그치룩 경 허영 불릴 때는 사름이 세 사름이 불려마씸.(그처럼 그렇게 해서 밟을 때는 사람이 세 사람이 밟아요.)

104013 @1 음.(음.)

104013 #1 앞으로 하나 저 석, 석 허영은에 물, 물석 허영 하나씩 흔 사름 심으민 두에선 그자 몰아, 몰아주멍 노래, 노래허멍 그자 영 몰아줘근엥에. 물 몰멍 경 저 그 밧을 불려근엥에 조 갈민 조가 그추룩 좋아근엥에 아무 밧이라도 아니우다.(앞으로 하나 저 고삐, 고삐 해서 말, 말고삐 해서 하나씩 한 사람 잡으면 뒤에선 그저 몰아, 몰아주면서 노래, 노래하며 그저 이렇게 몰아줘서. 말 몰면서 그렇게 저 그 밭을 밟아서 조 갈면 조가 그처럼 좋아서 아무 밭이라도 아닙니다.)

104013 @ 으.(으.)

104013 #1 저 좋은 밧. 밧이 좋아.(저 좋은 밭. 밭이 좋아.)

104013 @1 좋은 밧.(좋은 밭.)

104013 #1 좋은 밧으로. 좋은 밧으로 허여근엥에 우리도 드러 박 구장네 물 빌언 불려낫수다게.(좋은 밭으로. 좋은 밭으로 해서 우리도 들이 박 구장네 말 빌어서

밟았습니다.)

104013 @1 음, 게 그치룩 게믄 그, 그 사름은 물테우리엔 헙니까?(음, 그래 그처럼 그러면 그, 그 사람은 목자라고 합니까?)

104013 #1 물테우리는 뚜로 십주게.(목자는 따로 있습지요.)

104013 @ 아.(아.)

104013 #1 그디 둘안 살아수게.(거기 데려서 살았습니다.)

104013 @1 아, 둘안 살안예?(아, 데려서 살았어요?)

104013 #1 저 둘앙 살안. 장남으로 둘앙 살안.(저 데려서 살았어. 장정으로 데리고 살았어.)

104013 @ 음.(음.)

104013 #1 옛날은 장남.(옛날은 장정.)

104013 @1 박 구장이 일허는 게 아니고 거기 장남이 허는 거구나예?(박 구장이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장정이 하는 거군요?)

104013 #1 장남이. 장남이 일도 허곡 그 물도 다 저 어디 물앙가근에 어디 강 에와근에.(장정이. 장정이 일도 하고 그 말도 다 저 어디 몰아가서 어디 가서 에우고.)

104013 @1 으.(으.)

104013 #1 에왓당 보민 놈의 곡석밧듸 들엉 곡석 다 먹으민 뚜시 거 설어내야 뒈여마씨.(에웠다가 보면 남의 곡식밭에 들어서 곡식 다 먹으면 다시 거 물어내야 돼요.)

104013 @1 예.(예.)

104013 #1 우리도 저 우리 아버지네도 밧 조 갈안 놔두난 그 박 구장네 물 들언 다 먹어불어낫수다.(우리도 저 우리 아버지도 밭 조 갈아서 놔두니까 그 박 구장네 말 들어서 다 먹어버렸었습니다.)

104013 @1 음.(음.)

104013 #1 경 허민 거 설어내야 뒈여마씨. 게난 다 받지도 못허고마씸게.(그렇게 하면 거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 다 받지도 못하고요.)

104013 @1 예.(예.)

104013 @2 웃음.(웃음.)

104013 #1 어짜피 다 못 받아.(어차피 다 못 받아.)

104013 @1 그거는 이제 물 허영은에 허주마는 낭으로도 영 헹은에 끗이기도 헤난마씨?(그거는 이제 말로 해서 하지만 나무로도 이렇게 해서 끗기도 했어요?)

104013 @2 남태?(남태?)

104013 #1 아이, 건 아녀봣수다, 이디. 그때 그 당시엔 건 아녀봣수다.(아이, 건 안 해봤습니다, 여기. 그때 그 당시엔 건 안 해봤습니다.)

104013 @1 남테엔 헌 건 알아지긴 허쿠과?(남태라고 한 거 알아지긴 하나요?)

104013 #1 낭테. 저 낭으로 영 허여근에.(남태. 저 나무로 이렇게 해서.)

104013 @ 응.(응.)
104013 #1 그 소곱드레 영 들어강 심는 거?(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는 거?)
104013 @1 아니, 영.(아니, 이렇게.)
104013 @2 밧 불리는.(밭 밟는.)
104013 @1 낭이 밧 불릴 때 쓰는 거. 영 발 닮은 거 박아진 거.(나무가 밭 밟을 때 쓰는 거. 이렇게 발 닮은 거 박아진 거.)
104013 #1 아이, 건 안 써봇수다.(아니, 건 안 써봤습니다.)
104013 @1 건 안 쓰고예?(건 안 쓰고요?)
104013 #1 건 안 쓰고 섬비.(건 안 쓰고 끙게.)
104013 @1 으, 여기는 섬비만 써예?(으,여기는 끙게만 써요?)
104013 #1 섬비. 섬비.(끙게. 끙게.)
104013 @1 조 불릴 때.(조 밟을 때.)
104013 #1 섬비 만들아근에 크게 큼직허게 만들앙.(끙게 만들어서 크게 큼직하게 만들어서.)
104013 @1 으.(으.)
104013 #1 소 메와근에 끗엇수다게.(소 메워서 끄었습니다.)
104013 @2 아 소예.(아, 소예.)
104013 #1 소 메왕 끗언. 게난 나중에라 가난양.(소 메워서 끄었어. 그러니 나중에 가니까요.)
104013 @1 음.(음.)
104013 #1 사름으로 끗엇수다, 우리.(사람으로 끄었습니다, 우리.)
104013 @1 예.(예.)
104013 @2 예.(예.)
104013 #1 우리 사름으로 끗엇수다. 사름으로. 섬비, 섬비.(우리 사람으로 끄었습니다. 사람으로. 끙게, 끙게.)
104013 @1 섬비예.(끙게요.)
104013 #1 낭으로 아녀봇수다. 그때.(나무로는 안 해봤습니다. 그때.)
104013 @1 이만큼 헌 낭으론 아녀고예?(이만큼 한 나무로는 않고요?)
104013 #1 그건 아녀봇수다. 그건 아년봔.(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안 해봤어.)
104013 @1 보지도 아녀나고?(보지도 않았었고?)
104013 #1 건 보도 아녀나고.(건 보지도 않았었고.)
104013 @1 보도 아녀나고.(보도 않았었고.)
104013 #1 이디선 이 덕수에선 그거 그거 아녀봇수다. 섬비만 끗언.(여기선 이덕수에선 그거 그거 안 해봤습니다. 끙게만 끄었어.)
104013 @1 섬비만 끗언예?(끙게만 끄어서요?)
104013 #1 우리, 우리, 우리 저 세대엔 섬비만 끗엇어.(우리, 우리, 우리 저 세대

엔 끙게만 끄었어.)

104013 @ 으.(으.)

104013 #1 섬비, 밧듸 강 문 만들아근에, 경 아녀민 만들아근에 거 놔둬두서 썻수다. 썻어.(끙게, 밭에 가서 모두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거 놔두고서 썼습니다. 썼어.)

104013 @1 예.(예.)

104013 #1 큼직허게 헤여근에 놔둬두서 잘 만들앙은에 직깍허게.(큼직하게 해서 놔두고서 잘 만들어서 빽빽하게.)

104013 @1 건 뭘로 만듭니까? 무슨?(건 뭐로 만듭니까? 무슨?)

104013 #1 그거 개꽝낭으로.(그거 쥐똥나무로.)

104013 @1 개꽝낭으로?(쥐똥나무로?)

104013 #1 아무거나 아녑니다. 개꽝낭이 그 이만씩 도돌도돌도돌허지 아녑니까?(아무거나 안 합니다. 쥐똥나무 그 이만씩 토돌토돌토돌하지 않습니까?

104013 @1 예.(예.)

104013 #1 겨난 그걸로 그 땅을 문 끗어지게.(그러니 그걸로 그 땅을 모두 끄어지게.)

104013 @1 음.(음.)

104013 #1 끗어지게 경 멘작헌[162] 걸로 허민 안 뒈여마씨.(끄어지게 그렇게 '멘작헌' 걸로 하면 안 돼요.)

104013 @1 음.(음.)

104013 #1 개꽝낭으로, 저 개꽝낭이 쎄여마씨. 겨고 쎄여. 개꽝낭 끈엉은엥에 섬비 만들아근엥에 집 안네 어디 놔둬수다.(쥐똥나무로, 저 쥐똥나무가 세요. 그리고 세요. 쥐똥나무 잘라서 끙게 만들어서 집 안에 어디 놔뒀습니다.)

104013 @1 음.(음.)

104013 #1 그걸로 끗엇수다게.(그걸로 끄었습니다.)

104014 @1 예, 게문 삼춘, 물 그 나이 셀 때 흔 설 두 술 헙니까? 일수 이수 이런 거 알아져? 물 나이 세는 거?(예, 그러면 삼촌, 말 나이 셀 때 한 살 두 살 합니까? 일수 이수 거 알아요? 말 나이 세는 거?)

104014 #1 흔, 나이 세는 건게 일 년이민게 흔 술 허곡, 그 그것사게 일년이민 흔 설 허곡 또시 또 일년 허민 두 설허곡. 경 그거게. 그치룩.(한, 나이 세는 건 일 년이면 한 살 하고. 그 그거야 일 년이면 한 살 하고 다시 또 일 년 하면 두 살하고. 그렇게 그거. 그처럼.)

104014 @1 흔 설 두 설 세연예? 물도 옛날에예? 예.(한 살 두 살 세서요? 말도 옛날이요? 예.)

104014 #1 물이고 쉐고 다 이거 이거 멧 헤민 멧 술 경 그치룩 헤여낫수다게.(말이고 소고 다 이거 이거 몇 해면 몇 살 그렇게 그처럼 했었습니다.)

---

162) '멘작ᄒᆞ다'는 물건이 아주 부드럽고 연하여 만질만질한 것을 말한다.

104014 @ 예.(예.)

먹이

104016 @1 게문 ᄆᆞᆯ이나 소는 먹는 거는 뭘 먹엇수가?(그러면 말이나 소는 먹는 거는 뭘 먹었습니까?)

104016 #1 촐, 촐.(꼴, 꼴.)

104016 @1 촐.(꼴.)

104016 #1 주로 촐.(주로 꼴.)

104016 @1 촐.(꼴.)

104016 #1 주로 촐.(주로 꼴.)

104016 @1 촐도 어떤 촐을 잘 먹어?(꼴도 어떤 꼴을 잘 먹어요?)

104016 #1 촐은 저 무시거 저 목촐, 목촐, 목촐, 목촐.(꼴은 저 무슨 저 목초, 목초, 목초, 목초.)

104016 @1 음.(음.)

104016 #1 목촐이 저 잘 먹읍니다게.(목초가 저 잘 먹습니다.)

104016 @1 음, 그다음에 그, 그 촐은 어떤 식으로 저기 마련헤마씨? 그건.(음, 그다음에 그, 그 꼴은 어떤 식으로 저기 마련해요? 그건.)

104016 #1 촐?(꼴?)

104016 @1 예.(예.)

104016 #1 촐은 그자 영 시간 보멍 시간 보멍 다 먹은 거 닮으민 또 감젓줄.(꼴은 그저 이렇게 시간 보면서 시간 보면서 다 먹은 거 같으면 또 고구마기는줄기.)

104016 @1 예.(예.)

104016 #1 옛날은 저 고구말 많이 허니까.(옛날은 고구마를 많이 하니까.)

104016 @1 으음.(으음.)

104016 #1 감젓줄도 ᄒᆞᆫ 눌 눌엇당은에. 감젓줄도 ᄒᆞᆫ 번 강 주곡 또 촐도 그자 영 봐근에 어디 강왕이라도 촐 주곡.(고구마기는줄기도 한 가리 가렸다가. 고구마기는줄기도 한 번 가서 주고 또 꼴도 그저 이렇게 봐서 어디 가오고도 꼴 주고.)

104016 @1 음.(음.)

104016 #1 촐 줫수다게. 강오랑은에. 어디 강 오민 베고파근에 촐 주민 잘 먹음도 허고.(꼴 주었습니다. 가오고도. 어디 가서 오면 배고파서 꼴 주면 잘 먹음도 하고.)

104016 @1 음.(음.)

104016 #1 소, 저 소세[163], 소세.(소, 저 소세, 소세.)

104016 @1 소세, 예.(소세, 예.)

104016 #1 소세가 질 잘 먹읍니다. 소세.(소세가 젤 잘 먹습니다. 소세.)

104016 @1 소세가예?(소세가요?)

163) '소세'는 꼴의 한 종류다.

104016 #1 소세, 문작헌 소세. 우트레 꼿 피곡 헌 소세가 잘 먹읍니다. 게난 촐 도양 버닥지민 것도 잘 안 먹어.(소세, 반드러운 소세. 위에 꽃 피고 한 소세를 잘 먹습니다. 그러니 꼴도 뻣뻣하면 것도 잘 안 먹어.)

104016 @1 음.(음.)

104016 #1 소세, 소세가 질 좋아허여.(소세, 소세가 젤 좋아해.)

104016 @1 음.(음.)

104016 #1 겨곡 저 그 무시거 콩꼬질.(그리고 저 그 무엇 콩깍지.)

104016 @1 콩꼬질.(콩깍지.)

104016 #1 콩꼬질도 흔 눌 눌곡, 촐은 멧 눌 눌곡. 감젓줄도 눌곡. 감젓줄 다 몰려근에 것도 무껑.(콩깍지도 한 가리 가리고, 꼴은 몇 가리 가리고. 고구마기는줄기도 가리고. 고구마기는줄기 다 말려서 것도 묶어서.)

104016 @1 음.(음.)

104016 #1 저 끅 걷엉은에 다 무껑마씸.(저 칡 걷어서 다 묶어요.)

104016 @1 음.(음.)

104016 #1 끅 걷어근에 요만씩 끅 끄차근에 걸로 다 무꺼근엥에. 예, 무꺼근엥에.(칡 걷어서 요만씩 칡 잘라서 걸로 다 묶어서. 예, 묶어서.)

104017 @1 게믄 그 촐덜은 다 어떵 마련허는 거라마씨?(그러면 그 꼴들은 다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104017 #1 경 허당 먹당 남읍니다게.(그렇게 하다가 먹다가 남습니다.)

104017 @1 으, 먹당 남아예?(으, 먹다가 남아요?)

104017 #1 많이 허민.(많이 하면.)

(생략)

104017 @1 거난에 그다음에 그 옛날 촐 빌 때는 언제 비여마씨?(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옛날 꼴 벨 때는 언제 베나요?)

104017 #1 촐 빌 때에?(꼴 벨 때?)

104017 @1 으.(으.)

104017 #1 멩질 넘엉.(명질 넘어서.)

104017 @1 으.(으.)

104017 #1 멩질 넘엉 하늬ᄇᆞ름 삭삭 나가민.(명질 넘어서 하늬바람 삭삭 나가면.)

104017 @1 음.(음.)

104017 #1 예, 하늬ᄇᆞ름 삭삭 나가민 아이고, 촐 비여사컬. 촐 비여사컬 허멍. 다 놉 마련허곡 헤여근에 그 보리밥 허여근엥에 그 ᄉᆞ뭇 차롱착에 문 거렁은엥에. 옛날은 반찬은 잇엇수가?(예, 하늬바람 삭삭 나가면 아이고, 꼴 베야겠는데. 꼴 베야겠는데 하면서. 다 놉 마련하고 해서 그 보리밥 해서 그 사뭇 채롱짝에 모두 퍼서. 옛날은 반찬은 있었습니까?)

104017 @1 음.(음.)

104017 #1 반찬도 엇엇수다게. 원 지슬 반찬 주로.(반찬도 없었지요. 원 감자 반찬 주로.)

104017 @1 음.(음.)

104017 #1 주로 지슬 반찬. 계란 놓곡 허영 지슬 반찬 주로. 경 허영 촐도 비곡. 촐 새 너미 많이 헤엿수다게.(주로 감자 반찬. 계란 넣고 해서 감자 반찬 주로. 그렇게 해서 꼴도 비고. 꼴 띠 너무 많이 했습니다.)

104017 @1 음.(음.)

104017 #1 촐 새 너무 많이 헤연. 막 농장이 경 널릅디다게. 농장이 그치룩 널러.(꼴 띠 너무 많이 했어. 막 농장이 그렇게 넓습디다. 농장이 그처럼 넓어.)

104018 @1 게난 여기는 그 촐 빌 때는 뭘로 비여마씨?(그러니 여기는 그 꼴 벨 때는 뭐로 베요?)

104018 #1 낫으로.(낫으로.)

104018 @1 낫으로?(낫으로?)

104018 #1 호미로.(낫으로.)

104018 @1 얼마큼 헌 거?(얼마큼 한 거?)

104018 #1 호미?(낫?)

104018 @1 으.(으.)

104018 #1 호미 저디 잇는디 그.(낫 저기 있는데 그.)

104018 @1 이만큼 헌 거? 영 손으로 영 빕니까? 아니면 이렇게 긴 큰 낫으로 헙니까?(이만큼 한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벱니까? 아니면 이렇게 긴 큰 낫으로 합니까?)

104018 #1 아니, 기냥, 기냥 손으로, 손으로 븍븍.(아니, 그냥, 그냥 손으로, 손으로 박박.)

104018 @1 다예?(다요?)

104018 #1 호미 일로 줴여근에.(낫 여기로 쥐어서.)

104018 @1 음.(음.)

104018 #1 굽으로.(굽으로.)

104018 @1 굽으로?(굽으로?)

104018 #1 것도 우론 안 비여. 우로 비면은.(것도 위로는 안 베. 위로 베면.)

104018 @1 으.(으.)

104018 #1 것이 살락살락허고 촐이 하질 아녀니까.(것이 '살락살락하고' 꼴이 많지를 않으니까.)

104018 @1 음.(음.)

104018 #1 그냥 호미 대영은에. 호미 드러 글멍.(그냥 낫 대서. 낫 들이 갈면서.)

104018 @1 음.(음.)

104018 #1 ᄒᆞ쏠 비영 무끼민 저 글아줍센 허영 글앙. 그 저 아래 아래 촐알라 븍븍 비여야.(조금 베서 무디면 저 갈아주십사고 해서 갈아. 그 저 아래 아래 꼴까

지 박박 베어야.)

104018 @1 음.(음.)

104018 #1 탁 놓민 그게 저 뭉크려지지 아녕 그냥 잇어마씨.(탁 놓으면 그게 저 뭉크러지지 않고 그냥 있어요.)

104018 @1 예.(예.)

104018 #1 탁 놓민 탁 헤싸지멍 뭉크러진 냥. 그냥 그자 막 이제 줸 양 막 비여마씸.(탁 놓으면 탁 헤벌어지며 뭉크러진 채로. 그냥 그저 막 이제 쥔 채 막 베요.)

104018 @1 음.(음.)

104018 #1 막 비민 촐 빈 거 알아져마씸.(마구 베면 꼴 벤 거 알아져요.)

104018 @1 예.(예.)

104018 #1 서툰 사름 빈 거는 놓민 가르삭삭[164] 헤불고.(서툰 사람 벤 거는 놓으면 산산이 해버리고.)

104018 @1 음.(음.)

104018 #1 그 저 잔디 부쩡 빈 거는 탁 놓민 그냥 그자 살락허게 ᄀᆞ칭허게 잘 비여져마씸.(그 저 잔디 붙여서 벤 거는 탁 놓으면 그냥 그저 사르르 반듯하게 잘 베져요.)

104018 @1 음.(음.)

104018 #1 게난 빈 거 안 빈, 누게가 잘 빈 거 못 빈 거 다 알아져마씨.(그러니 벤 거 안 벤, 누가 잘 벤 거 못 벤 거 다 알 수 있어요.)

104018 @1 삼춘은 ᄒᆞ루 촐 비민 얼만큼 비엿수가? 촐도 잘 비여실 거 아니?(삼촌은 하루 꼴 베면 얼마만큼 벴습니까? 꼴도 잘 벴을 거 아니?)

104018 #1 아이고, 촐도 잘 비고 보리도 잘 비엿수다게.(아이고, 꼴도 잘 베고 보리도 잘 벴습니다.)

104018 @1 예.(예.)

104018 @2 웃음.(웃음.)

104018 #1 이디 오란에양, 저 씨집을 오난게. 쓰물에 오난게 밧덜도, 느직느직 헙디다게. 허난 가민양 어머니가 일등으로 앚고.(여기 와서요, 저 시집을 오니까. 스물에 오니까 밭들도, 느직느직 합디다. 하니까 가면요 어머니가 일등으로 앉고.)

104018 @1 으.(으.)

104018 #1 나 두 번채 앚으민 우리 씨아버님은 술이나 잡수곡 담베 경 잘 테우난 우리 ᄌᆞ부 춤 보리 잘 빈다, 우리 ᄌᆞ부 보리 일등으로 잘 빈다. 그치룩 정 칭찬을 받아수다게.(나 두 번째 앉으면 우리 시아버님은 술이나 드시고 담배 그렇게 잘 태우니까 우리 조부 참 보리 잘 벤다, 우리 조부 보리 일등으로 잘 벤다. 그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04018 @1 음.(음.)

164) '가르삭삭'은 표준어 '산산이'에 대응하는 부사어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양을 말한다. 달리 '가로삭산'이라고 한다.

104018 #1 막 저 보리 비는 거라도 ᄏᆞ찡이 비난. ᄏᆞ찡이 비영 ᄒᆞᆫ 줌 비영 놓민 게 그 ᄏᆞ찡이. 어머니 조름에 굳작 따라가난게.(막 저 보리 베는 거라도 가지런히 베니까. 가지런히 베서 한 줌 베서 놓으면 그 가지런히. 어머니 주름에 곧장 따라가니까.)

104018 @1 예.(예.)

104018 #1 어머니도게 게축 부제칩이 씨집오란에 아기덜 하영 나 놓난 저 고셍은 허엿수다게.(어머니도 그처럼 부잣집에 시집와서 아기들 많이 낳아 놓으니까 저 고생은 했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고셍, 고셍고셍허연 겨곡 막 게을렁. 어머니가양 ᄒᆞ쏠 게을러. 나에 나에 맞질 아녕 게을렁, 게을렁.(고생, 고생고생해서 그리고 막 게을러서. 어머니가 조금 게을러. 내게 내게 맞지를 않아 게을러서, 게을러서.)

104018 @1 웃음.(웃음.)

104018 #1 막 어떵 헌디양 어떵 원 모든 게 다 게을른 거라마씸.(막 어떻게 한데요 어떻게 원 모든 게 다 게으른 거예요.)

104018 @1 음.(음.)

104018 #1 게을러. 경헌디 입은 막 싸곡.(게을러. 그런데 입은 막 싸고.)

104018 @1 음. 웃음.(음. 웃음.)

104018 #1 막 입은 싸곡 경 게을릅디다게, 경. 동전 안 ᄃᆞᆯ앙은에 입어근엥에 놀레 가가민, 어머니, 어떠난 동전 안 ᄃᆞᆯ아근에 옷 입엉 뎅이는 어른이 어디 잇수겐, 허여근엥에 그거 벗읍센 허영. 고무신.(막 입은 싸고 그렇게 게으릅디다, 그렇게. 동전 안 달아서 입어서 놀러 가가면, 어머니, 어째서 동전 안 달아서 옷 입어서 다니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거 벗으시라고 해서. 고무신.)

104018 @1 예.(예.)

104018 #1 엿날은 고무신 신엉 뎅기지 아녀수가. 고무신도양, 놀레 가는디 고무신도 시커멍헌 고무신 그냥 신엉 가는 거라마씸. 게민 신 벗읍센 허영 신 다끄곡.(옛날은 고무신 신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고무신도요, 놀러 가는데 고무신도 시커메진 고무신 그냥 신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 벗으시라고 해서 신 닦고.)

104018 @1 웃음.(웃음.)

104018 #1 경 헤수덴 허난. 집안도 막 게을렁양.(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집안도 막 게을러요.)

104018 @1 웃음.(웃음.)

104018 #1 그치룩 게을, 게을릅디다게.(그처럼 게을, 게으릅디다.)

104018 @ 으.(으.)

104018 #1 뭐 허는 것이.(뭐 하는 것이.)

104018 @1 으.(으.)

104018 #1 ᄆᆞ음엘 맞지 아녕 그추룩.(마음에 맞지 않아 그처럼.)

104018 @1 삼춘은 깔끔허곡?(삼촌은 깔끔하고?)

104018 #1 아이고, 나는 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아이고, 나는 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104018 @1 음.(음.)

104018 #1 경 깔끔허영 아기덜 하영 허영 돌앙 살아도. 그 손지덜 옷 문 허영 입지곡. 우리 어머니, 이디 저 씨어머님은 손지덜 혼 번 돌아보지 아녓수다.(그렇게 깔끔해서 아기들 많이 해서 데리고 살아도. 그 손주들 옷 모두 해서 입히고. 우리 어머니, 여기 저 시어머님은 손주들 한 번 돌보지 않았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손지 돌아보젠 아녀곡 준심허질[165] 아녑디다게.(손주 돌보려고 않고 자잘한 정을 주지 않습디다.)

104018 @ 음.(음.)

104018 #1 막 그자 어떵 원 욕이나 허곡 그자 그자 허드렁허게[166] 그자 원 원 지저분만 허여베여근엥에 아이고, 나양 씨집오란 저 그 부억에서양 침떡 문딱 치곡 눈이 문딱 멜라졋수다, 경 허난.(마구 그저 어떻게 원 욕이나 하고 그저 그저 '허드렁허게' 그저 원 원 지저분만 해보여서 아이고, 저요 시집와서 저 그 부엌에서요 시루떡 모두 찌고 눈이 모두 찌그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04018 @1 음.(음.)

104018 #1 침떡 다 치곡 모든 거 다 알앙 문 뭐, 감주, 옛날엔 감주 다 허곡. 아이고, 식구덜은 무사 합니까?(시루떡 다 찌고 모든 거다 알아서 모두 뭐, 감주, 옛날엔 감주 다 하고. 아이고 식구들은 왜 많습니까?)

104018 @1 웃음.(웃음.)

104018 #1 우리 씨아바님은 벡 멩, 벡 멩. 제사 돌아와 가민 벡 멩, 벡 멩 헙니다게, 게난.(우리 시아버님은 백 명, 백 명. 제사 돌아와 가면 백 명, 백 명 합니다. 그러니.)

104018 @1 음.(음.)

104018 #1 너미 식구덜이 항. 저 마당에 저 멍석을 다섯 개 ᄀᆞᆯ아마씸.(너무 식구들이 많아서. 저 마당에 저 멍석을 다섯 개 깔아요.)

104018 @1 음.(음.)

104018 #1 다섯 개 ᄁᆞᆯ민 그디 다 앉아.(다섯 개 깔면 거기 다 앉아.)

104018 @1 음.(음.)

104018 #1 다 앉이민 뭐 밥 이걸로 하나 아녑니다게.(다 앉으면 뭐 밥 이걸로 하나 않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이 저 메엔 헌 거. 옛날은 메엣 헷주기양.(이 저 메라고 한 거. 옛날

165) '준심허다' 는 자잘한 정을 주다는 뜻으로 '준셈허다'라고 한다.
166) '허드렁허다'는 진실하지 않아 허황하다.

에 메라고 했지요.)

104018 @1 예, 예.(예, 예.)

104018 #1 메엔 허는디 그 저 우린 나록, 나록으로 우린 저 제술 헷수다.(메라고 하는데 그 저 우린 벼, 벼로 우린 저 제사를 했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나록밧이 저디 저 이시, 이시난에.(논이 저기 저 있으, 있으니까.)

104018 @1 음.(음.)

104018 #1 화순. 나룩밧이 시난에 거 갈라단, 놈 줭은에 거 갈라다근에 그자 제사 때만 먹으난에 그걸로 헤영 허민 그자 혼 숟갈썩 허영 사발만 갓다왓다, 갓다왓다.(화순. 논이 있으니까 거 갈라다가, 남 줘서 거 갈라다가 그저 제사 때만 먹으니까 그걸로 해서 하면 그저 한 숟갈씩 해서 사발만 가왔다, 가왔다.)

104018 @1 음.(음.)

104018 #1 허고양, 노인덜 그 저, 그 우린 궨당이 하 놓난 노인덜이 합디다게. 겨민 나가 어린 때 씨집을 와 놓난 뭐 전깃불이 싯수가, 무슨 저 가로등이 하나 잇수가? 저 작은동산엔 헌 디 이레 영 들어오는디 그디 동산 막 커낫수다게.(하고요, 노인들 그 저, 그 우린 권당이 많아 놓으니까 노인들이 많습디다. 그러면 제가 어린 때 시집을 와 놓으니까 뭐 전깃불이 있습니까, 무슨 저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까? 저 작은동산이라고 한 데 이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동산이 매우 컸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경헌디 문 깐에 그디 집을 짓엇수다게. 게난 우리 씨아바님 그디 강 앚읍니다게.(그런데 모두 깎아서 거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아버님 거기 가서 앉습디다.)

104018 @ 음.(음.)

104018 #1 나가 밥을 ᄀᆞ져뎅기난.(내가 밥을 가져다니니까.)

104018 @1 음.(음.)

104018 #1 밥을 노인네고 저 노인네신디 그 제사 헤나민 제숫밥을 ᄀᆞ져가마씸게.(밥을 노인네고 저 노인네에게 그 제사 하고나면 제삿밥을 가져가요.)

104018 @ 음.(음.)

104018 #1 게민 이 이디 이집의 ᄋᆞ져가고 저디 막 거린 멀어마씸게. 궨당 부뜬 궨당 노인네 집일 ᄀᆞ져가수다게. 겨민 아버지가 저 동산에 강 ᄀᆞ만이 앚아십니다. 앚아근엥에 어떵 ᄆᆞ심이나 허카부덴 앚는 거 닮아마씸.(그러면 이 여기 이집에 가져가고 저기 막 거린 멀어요. 권당 붙은 권당 노인네 집엘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 동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계십니다. 앉아서 어떻게 무서움이나 할까봐 앉는 거 같아요.)

104018 @ 음.(음.)

104018 #1 경 헨 ᄋᆞ져갈 것도 뭐 잇수가게. 밥허곡 국허곡 무시거 저 채소엔 헌 건 콩ᄂᆞ물.(그렇게 해서 가져갈 것도 뭐 있습니까. 밥하고 국하고 무엇 저 채소라고

한 건 콩나물.)
104018 @2 으.(으.)
104018 #1 그거벳긔 엇엇수다게.(그것밖에 없었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그 고사리 ᄒᆞ꼼씩 놓고.(그 고사리 조금씩 넣고.)
104018 @1 음.(음.)
104018 #1 그거나벳긔 ᄋᆞ져갈 거 엇어마씨. 겨곡 묵.(그것밖에 가져갈 거 없었어요. 그리고 묵.)
104018 @2 예, 묵.(예, 묵.)
104018 #1 묵 무신 거 저 뭐 밀가루도 그때 엇은 때난 보리쏠 ᄀᆞᆯ아당을 허던가, 또 나중에라 가난 밀ᄀᆞ르 납디다. 밀ᄀᆞ루 나난에 밀가루 ᄒᆞᆫ 포 ᄆᆞᆯ아사마씸.(묵 무슨 거 저 뭐 밀가루도 그때 없을 때니까 보리쌀 갈아다가 하던가, 또 나중에 가니까 밀가루 납디다. 밀가루 나니까 밀가루 한 포 말아요.)
104018 @1 음.(음.)
104018 #1 밀ᄀᆞ르 ᄒᆞᆫ 포 ᄆᆞᆯ아사 먹어마씸게. 떡 허여근에 먹젠 허민. 게난 그거 떡 허렌 다 옵니다.(밀가루 한 포 말아야 먹어요. 떡 해서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 그거 떡 하러는 다 옵니다.)
104018 @2 음.(음.)
104018 #1 떡허렌 그 저 우리 하르버지가, 우리 하르버지가 우읫, 우읫하르버지가 다섯 성제, 따시 우릿 우릿 씨하르버지가, 씨하르버지가 다섯 성제 오 형제썩마씀.(떡 하러는 그 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윗, 윗할아버지가 다섯 형제, 다시 우리 우리 시할아버지가, 시할아버지가 다섯 형제 오 형제씩이에요.)
104018 @1 음.(음.)
104018 #1 따시 우리 씨아바님도 오 형제. 그치룩 자식덜이 나 놓난 자식덜이 합디다게. ᄃᆞ시 오춘덜 따시 오 형제난. 오 형제에서 ᄃᆞ시 아기덜 다게 오랑.(다시 우리 시아버님도 오 형제. 그처럼 자식들을 낳아 놓으니까 자식들이 많습디다. 다시 오촌들 다시 오 형제니까. 오 형제에서 다시 아기들 다 와서.)
104018 @2 벌어지면.(벌어지면.)
104018 #1 예, 갈라지난게 얼마나 할 거우꽈게. 그 웃대가 하 놓난 다 다섯 성제썩 내려왓수다게. 게난 그 웃대는 완전 대클이라마씸. 막 일곱 오누인디 키가 막 대키라마씸.(예, 갈라지니까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 윗대가 많아 놓으니까 다 다섯 형제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윗대는 완전 대틀이에요. 막 일곱 오누인데 키가 막 대키에요.)
104018 @1 으.(으.)
104018 #1 대킨디 일곱 오누인 나난 그 알러렌 따시 우리 하르버집주게. 우리 씨하르버지.(대킨데 일곱 오누이 낳으니까 그 아래는 다시 우리 할아버지입지요. 우리 시할아버지.)

104018 @1 으.(으.)

104018 #1 그 아래는 우리 씨하르버지난에 우리 씨하르버지는 또 ᄒᆞ쏠 아기덜이 ᄒᆞ꼼 좋읍디다게.(그 아래는 우리 시할아버지니까 우리 시할아버지는 또 조금 아기들 조금 좋습디다.)

104018 @1 음.(음.)

104018 #1 할망이 작으난산디[짜그난산디] 우리 씨아버님도 ᄒᆞ쏠 족고, ᄒᆞ쏠 족은 아지방덜이 셔마씨. ᄒᆞ쏠 족은 아지방덜이 싯고. 겨고 젊은 때덜 하영 돌아갓수다.(할머니가 작아서인지 우리 시아버님도 조금 작고, 작은 아주버니들이 있어요. 조금 작은 아주버니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 때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104018 @1 음.(음.)

104018 #1 젊은 때양 우리 저 하르버지 아덜이 다섯 성젠디 쓰무 설에 순경으로 합격허연 쓰무 설에 토벌 갓단 죽엇수게. 토벌 간에 저 저 어디 저 어느 오름에, 어느 오름에 갓단에 오꼿허게 그 사름덜 쏘아부난 오꼿 죽엇수다게. 죽으난 죽은혼서허고 허난에 ᄒᆞ쏠 족아젼에 거 ᄆᆞᆫ 우리 씨아지방덜 양제허연 ᄆᆞᆫ 저 이제 제서허곡 혜염수다게.(젊은 때요 우리 저 할아버지 아들이 다섯 형젠데 스무 살에 순경으로 합격해서 스무 살에 토벌 갔다가 죽었습니다. 토벌 가서 저 저 어디 저 어느 오름에, 어느 오름에 갔다가 그만 그 사람들 쏘아버리니까 그만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사혼하고 하니까 조금 적어져서 거 모두 우리 시아주버니들 양자해서 모두 저 이제 제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104019 @1 음, 알앗수다. 그다음에 아까 꼴, 촐예, 빈 거. 운반헤영 오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헨?(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꼴, 꼴이요, 벤 거. 운반해서 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4019 #1 운반허영 오젠 허민.(운반해서 오려고 하면?)

104019 @1 으. 구루마.(으. 달구지.)

104019 #1 구루마 안 난 땐 소에 시껑.(달구지 안 난 땐 소에 실어서.)

104019 @1 예. 예.(예. 예.)

104019 #1 소에. 저 마은 뭇, ᄒᆞᆫ 바리가.(소에. 저 마흔 뭇, 한 바리가.)

104019 @1 ᄒᆞᆫ 바리가.(한 바리가.)

104019 #1 ᄒᆞᆫ 바리가 마은 뭇. 게민 소 두 개에 시끄민 나가 몰아와마씸. 나가.(한 바리가 마흔 뭇. 그러면 소 두 마리에 실으면 제가 몰아와요. 제가.)

104019 @1 예.(예.)

104019 #1 나가 몰아 와. 나가 몰아오곡. 저 집의 오라근엥에 다 마당에 퍼 놓민. 저 나가, 나가 몰아 뎅겻수다게.(내가 몰아 와. 내가 몰아오고. 저 집에 와서 다 마당에 퍼 놓으면. 저 내가, 제가 몰아 다녔습니다.)

104019 @1 음.(음.)

104019 #1 나가. 저 아버지는 저 ᄆᆞᆫ 무끄곡.(내가. 저 아버지는 모두 묶고.)

104019 @1 실러주곡.(실어주고.)

104019 #1 허민, 예. 무끄곡 허민 나가 몰아옵니다게. 경 몰아오곡. 또 나중엔 구루마 나난에 구루마에 잔뜩 실러뒁.(하면, 예. 묶고 하면 제가 몰아옵니다. 그렇게 몰아오고. 또 나중에는 달구지 나오니까 달구지에 잔뜩 실어두고.)

104019 @ 음.(음.)

104019 #1 ᄒᆞ꼬만도 안 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막 신체가 좋아 놓난양 막 많이 시꺼.(조금만도 안 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매우 신체가 좋아 놓으니까요 매우 많이 실어.)

104019 @1 음.(음.)

104019 #1 엄청 많이 시꺼근엥에 고무구루마 나난 뭐 저 남셍이오름[167] 강 촐 허여도 뭐 일등으로, 난 올리곡 아버진 시끄곡.(엄청 많이 실어서 고무달구지 나오니까 뭐 저 '남송이오름' 가서 꼴 해도 뭐 일등으로, 나는 올리고 아버지는 싣고.)

104019 @2 으.(으.)

104019 @1 예.(예.)

104019 #1 경 헤여근엥에 베 믄 털엉 베도 착착착 잘 털어 놓민 우리 아버지 막 날 막 칭찬헤낫수다게.(그렇게 해서 바 모두 틀어서 바도 착착착 잘 틀어 놓으면 우리 아버지 매우 저를 매우 칭찬했었습니다.)

104019 @ 음.(음.)

104019 #1 야의치록 잘 허는 아인 엇덴. 웃음.(얘처럼 잘 하는 아이는 없다고. 웃음.)

104019 @1 웃음.(웃음.)

104019 #1 우리 우리 성님은 작아 놓난.(우리 우리 형님은 작아 놓으니까.)

104019 @1 으.(으.)

104019 #1 작곡 잘 못허영마씸게. 못허민게 나만 경 나만 허엿수다게. 나만.(작고 잘 못해요. 못하면 저만 그렇게 저만 했습니다. 저만.)

104019 @1 음.(음.)

104019 #1 성님은 결혼혜불고게.(형님은 결혼해버리고요.)

104019 @1 음.(음.)

104019 #1 이제, 이제, 이제 ᄋᆞ든, ᄋᆞ든다섯이우다게, 이제.(이제, 이제, 이제 여든, 여든다섯입니다, 이제.)

104019 @1 예.(예.)

104019 #1 ᄋᆞ든다섯인디 살아계시우다.(여든다섯인데 살아계십니다.)

104019 @2 아.(아.)

104019 #1 살아계시우다. 저 표선 살암수다. 이제.(살아계십니다. 저 표선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4019 @1 표선?(표선?)

---

167) '남셍이오름'은 '남송이오름'을 말하는데,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사수동 북쪽에 있는 오름이다. 중턱에 깔때기 형 분화구가 있고 표고는 339m이다. 달리 '남소로기', '남송악'이라고도 한다.

104019 #1 예, 표선.(예, 표선.)
104019 @1 그치록 허영은에 이제 하고. 그다음 눌 때는 어떤 식으로 눌어마씨?(그처럼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 가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려요?)
104019 #1 눌 때에?(가릴 때에?)
104019 @2 눌.(가리.)
104019 @1 으.(으.)
104019 #1 영 동글락허게.(이렇게 동그랗게.)
104019 @ 으.(으.)
104019 #1 나도 잘 눌어집니다.(저도 잘 가려집니다.)
104019 @1 으.(으.)
104019 #1 동글락허게 ᄎᆞ례ᄎᆞ례 영 허영 이거 영 허영 놓민 영 허영 영 동글락허게 영.(동그랗게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104019 @1 음.(음.)
104019 #1 영 허영 동글락허게, 영 동글락허게 돌아가마씸.(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요.)
104019 @1 으.(으.)
104019 #1 촐, 촐뭇을 착착착착 동글락허게 돌아강. 게난 아래 사름은 올리멍 걸 잘 베려사마씸.(꼴, 꼴뭇을 착착착착 동그랗게 돌아가서. 그러니 아래 사람은 올리면서 잘 봐야 해요.)
104019 @1 음.(음.)
104019 #1 일로 나왐수다. 일로 나오난에 저 ᄒᆞ꼼 저 두이 놉서. 저 들어감수다. 아래 사름은 거 올리멍 그걸 잘 베려사마씸. 베려사 촐눌이 깨끗허게 우티레 올라가마씸.(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나오니까 저 조금 저 뒤에 놓으세요. 저 들어갑니다. 아래 사람은 거 올리면서 그걸 잘 봐야 해요. 봐야 꼴가리가 깨끗하게 위로 올라가요.)
104019 @1 음.(음.)
104019 #1 게난 그치룩 허멍 경. 보리 눌 때엔 또 서툰 사름은 헤싸져 불어. 웃음.(그러니 그처럼 하면서 그렇게. 보리 가릴 땐 또 서툰 사람은 헤벌어져 버려. 웃음.)
104019 @1 으음.(으음.)
104019 #1 자르르르허게 다 그 저 ᄀᆞ스락이 잇지 아녀우꽈?(자르르르하게 다 그 저 까끄라기 있지 않습니까?)
104019 @1 예.(예.)
104019 #1 ᄀᆞ스락이 미끄러워마씸. 그 보리 눌 때는 눌이 크게 눌당 보면은 잘못 눌민 헤싸져, 쭉 허게 나와 불어마씸게. 아이고. 웃음.(까끄라기가 미끄러워요. 그 보리 가릴 때는 가리를 크게 가리다 보면 잘 못 가리면 헤벌어져, 쭉 하게 나와

버려요. 아이고. 웃음.)
104019 @2 보리낭, 보리낭 눌 때도 경허지예?(보릿대, 보릿대 가릴 때도 그렇지요?)
104019 #1 양?(예?)
104019 @2 보리낭눌도.(보릿대가리도.)
104019 #1 보리낭눌은 경 아녑니다.(보릿대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4019 @2 아 그럽니까?(아, 그럽니까?)
104019 #1 예, 저 ᄀᆞ스락이 엇으난.(예, 까끄라기가 없으니까.)
104019 @1 음.(음.)
104019 #1 보리낭눌도 눌엇다근에 그거 저 소 또꼬망에 끌아주곡.(보릿대가리도 가렸다가 그거 소 엉덩이에 깔아주고.)
104019 @1 음.(음.)
104019 #1 우리 저 그 밥헤 먹곡.(우리 저 그 밥해서 먹고.)
104019 @1 음.(음.)
104019 #1 경 헷수게. 그걸로 밥헤먹고.(그렇게 했습니다.)
104019 @1 음.(음.)
104019 #1 경 허멍 살앗수다게.(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4019 @2 아, 게니까 보리낭보다는 보리눌이 더 어려와예?(아, 그러니까 보릿대보다는 보리가리가 더 어려워요?)
104019 #1 어려와마씨. 무겁고.(어려워요. 무겁고.)
104019 @2 음.(음.)
104019 #1 올리젠 허민 무겁곡 아무나 올리지도 못헙니다게.(올리려고 하면 무겁고 아무나 올리지도 못합니다.)
104019 @1 예.(예.)
104019 @2 으.(으.)
104019 #1 게난 구루마에 시끌 때엔 우리 나 씨집 오란은 나가, 나가 시껏수다. 주로.(그러니 달구지에 실을 때엔 우리 제가 시집 와서 제가, 제가 실었습니다. 주로.)
104019 @1 음.(음.)
104019 #1 아저씨는 올리고.(아저씨는 올리고.)
104019 @2 으.(으.)
104019 #1 우리 집의 아저씨는 올려주곡 나가 시꺼마씨.(우리 집의 아저씨는 올려주고 제가 실어요.)
104019 @2 아.(아.)
104019 #2 촐도 나가 시끄곡.(꼴도 제가 싣고.)
104019 @1 웃음.(웃음.)
104019 #1 친정에선 저 나가 올렷주마는.(친정에서는 내가 올렸지만.)

104019 @1 으.(으.)

104019 #1 저 여기 오란은 나가 시껏수다. 나가. 나가 시끄곡 아저씨는 올려주곡. 경 헨에 저 살앗수다게. 게난 문딱 문 촐도 많이 허곡 모든 거 다 많이 허난에 양.(저 여기 와서는 제가 실었습니다. 제가. 제가 싣고 아저씨는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꼴도 많이 하고 모든 거 다 많이 하니까요.)

104020 @1 삼춘, 게믄 쉐 밧 갈거나 영 허젠 허면 으물도 헹은에 줘? 쉐 죽도 쒕 주곡?(삼촌, 그러면 소 밭 갈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물도 해서 줘? 소 죽도 쒀서 주고?)

104020 #1 아시날 촐 강 혼 짐 허여 와야마씸.(전날 꼴 가서 한 짐 해서 와야 해요.)

104020 @1 음.(음.)

104020 #1 혼 짐 허여당 주곡. 뚜시 뭐 먹을 거 저 무시거 혼 말치, 혼 말치 딸려근엥에 뭐 식으민 아시날 식으민 둣날 아척 멕영은에.(한 짐 해다가 주고. 다시 뭐 먹을 거 저 무엇 한 말치, 한 말치 다려서 뭐 식으면 전날 식으면 뒷날 아침 먹여서.)

104020 @1 음.(음.)

104020 #1 멕영 나갑니다. 멕영 나가근엥에 혼 낮전은 그냥 갈아가다근엥에 ᄒᆞ꼼 쉬어, 쉴 때는 촐 줘마씸.(먹여서 나갑니다. 먹여서 나가서 한 낮전은 그냥 갈아가다가 조금 쉬어. 쉴 때는 꼴을 줘요.)

104020 @2 음.(음.)

104020 #1 거 촐 주곡. 밧디 강도 그거 다 먹으민 또 허레 가야.(거 꼴 주고. 밭에 가서도 그거 다 먹으면 또 하러 가야.)

104020 @2 으.(으.)

104020 #1 촐 허레 가마씸.(꼴 하러 가요.)

104020 @1 으.(으.)

104020 #1 나 촐 허레 갓수다게. 촐 허레 가곡.(제가 꼴 하러 갔습니다. 꼴 하러 가고.)

104020 @2 게민 그때는 청촐이우꽈?(그러면 그때는 청꼴입니까?)

104020 #1 양?(예?)

104020 @2 그때는 청촐로 헙니까?(그때는 청꼴로 합니까?)

104020 #1 저 덤벌마씸. 덤벌.(저 덤불이요. 덤불.)

104020 @2 으.(으.)

104020 #1 끅덤벌 같은 거.(칡덤불 같은 거.)

104020 @2 으, 끅. 덤불.(으, 칡. 덤불.)

104020 #1 청촐은 놈의 촐 강 비어집니까게.(청꼴은 남의 꼴 가서 베어집니까?)

104020 @2 으.(으.)

104020 #1 촐 비레 촐을 빌 디가 엇읍주게.(꼴 베러 꼴을 벨 데가 없습지요.)

104020 @2 음.(음.)
104020 #1 게난 어염.(그러니 근처.)
104020 @2 에염예.(근처예요.)
104020 #1 그 어염 그 콩이나 뭐 풋이나 간 밧듸 그 어염 ᄒᆞ꼼썩 신 거.(그 근처에 그 콩이나 뭐 팥이나 간 밭에 그 근처에 조금씩 있는 거.)
104020 @1 으.(으.)
104020 #1 그런 거 강은 비여져도 놈의 촐은 못 비는 거 아니우꽈? 게난 덤벌 걷엇수다. 덤벌.(그런 거 가서는 베져도 남의 꼴은 못 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덤불 걷었습니다. 덤불.)
104020 @1 으.(으.)
104020 #1 덤벌 걷고 어염 비곡.(덤불 걷고 근처 베고.)
104020 @2 끅 걷고. 끅.(칡 걷고. 칡.)
104020 #1 예. 어염 어염 비젠 허민 이제는양 제초제 나난 아무 것도 아니우다. 그땐 어염이 너미 짓읍디다게. 어염을 짓어 놓난 그 어염 비곡. 섬비 메곡.(예. 근처 근처 베려고 하면 이제는요 제초제 나오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땐 근처가 너무 깃습디다. 근처가 깃어 놓으니까 그 근처를 베고. 끙게 매고.)
104020 @1 으.(으.)
104020 #1 여자 헐 것이 많아. 경. 견디 저 섬비질도 허엿수다. 나도.(여자 할 것이 많아. 그렇게. 그런데 저 끙게질도 했습니다. 저도.)
104020 @1 음.(음.)
104020 #1 섬비질 나냥으로도 허엿수다게. 섬비질도 허엿어마씸.(끙게질 저대로도 했습니다. 끙게질도 했었어요.)
104021 @1 경 허영은에 이제 하고. 촐 빌 때 잊어불지 못허는 일 잇어마씨? 촐 비레 갓당은에 뭐.(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꼴 벨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일 있어요? 꼴 비러 갔다가 뭐.)
104021 #1 촐 비레 갓다근엥에 뭐 놉 빌언 촐 비난 그거는 뭐 께나 털곡.(꼴 베러 갔다가 뭐 놉 빌어서 꼴 베니까 그거는 뭐 매끼나 틀고.)
104021 @2 으.(으.)
104021 #1 아 촐 빌 때는 ᄀᆞ찌 비고.(아, 꼴 벨 때는 같이 베고.)
104021 @1 으.(으.)
104021 #1 말령은엥에 그 저 무끌 때는 께 털고.(말려서 그 저 묶을 때는 매끼 틀고.)
104021 @1 음.(음.)
104021 #1 저 강 어디 강 새 비여당은에. 새 비여당 께 털곡. 껜 또 아시날 많이 털어마씸게.(저 가서 어디 가서 베다가. 띠 베다가 매끼 틀고. 매끼는 또 저날 많이 틀어요.)
104021 @1 음.(음.)

104021 #1 아시날 저 새 비여다근에 아시날 저낙이. 저낙이 저녁 먹엉 앚앙 혼 열 시까지 께 털어마씨. 털엉 허여도 작으면은 저 어디 강 새 비여다근에.(전날 저 띠 베다가 전날 저녁에. 저녁에 저녁 먹어서 앉아서 한 열 시까지 매끼 틀어요. 틀어서 해도 적으면 저 어디 가서 띠 베다가.)

104021 @1 음.(음.)

104021 #1 자기 밧듸 새 시난 우리 밧듸 새 시난.(자기 밭에 띠 있으니까 우리 밭에 띠 있으니까.)

104021 @1 예, 예.(예, 예.)

104021 #1 거 비여당 털어야 마씸.(거 베다가 틀어야 해요.)

104021 @1 예.(예.)

104021 #1 겨고 털 시간도 엇입니다게. 그거 저 무시거 그거 저 모이곡 촐 모이곡 믄 시꺼오곡 경 허여야 뭘 거 따문에 어, 비 온덴 허민 또 빨리빨리 허여야 뒈곡. 밤이라도 다 눌어야 뒈난.(그리고 틀 시간도 없습디다. 그거 저 무엇 그거 저 모으고 꼴 모으고 모두 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때문에 어, 비 온다고 하면 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밤이라도 다 가려야 되니까.)

104021 @1 예.(예.)

104021 #1 밤이라도. 비 온덴 허민 눌어야 뒈주게.(밤에라도. 비 온다고 하면 가려야 되지.)

땔감

104022 @1 옛날에는 이제 밥덜 다 불 숨앙 헹 먹으니까예, 그 지들케.(옛날에는 이제 밥들 다 불 때서 해서 먹으니까요, 그 땔감.)

104022 #1 에이그 진짜.(에이그 진짜.)

104022 @1 지들커 허는 거는 어떤 것들 헨 거마씸?(땔감 하는 거는 어떤 것들 한 거예요?)

104022 #1 지들커?(땔감?)

104022 @ 음.(음.)

104022 #1 지들컨양, 우리 저 이 뚜로 살 때만 지들커 허엿주.(땔감은요, 우리 저 이 따로 살 때만 땔감 했지.)

104022 @ 으.(으.)

104022 #1 그 농수 많이 헐 땐 지들커 헐 시간이 엇, 저 허레 안 갓수다.(그 농사 많이 할 땐 땔감 할 시간이 엇, 저 하러 안 갔습니다.)

104022 @1 음.(음.)

104022 #1 유챗낭.(유채줄기.)

104022 @1 음.(음.)

104022 #1 유채 헐 때난 유챗낭 혼 눌 눌곡 보리낭 눌곡. 지들커 허긴 허엿수다. 허긴 여간 여간헤다근엥에 저 짇긴 짇엇수다마는.(유채 할 때니까 유채줄기 한

가리 가리고 보릿대 가리고. 땔감 하긴 했습니다. 하긴 여간 여간해서 저 때긴 땠습니다만.)

104022 @1 으.(으.)

104022 #1 저 친정에선양, 그 소나무 밧이 하난에.(저 친정에서는, 그 소나무 밭이 많으니까.)

104022 @1 으.(으.)

104022 #1 멧 눌 눌어근에. 멧 눌 눌어근에 그 소낭으로 짇엇수다.(몇 가리 가려서. 몇 가리 가려서 그 소나무로 땠습니다.)

104022 @2 으.(으.)

104022 #1 소낭 빠멍. 영 무꺼근에양. 소낭도 무껑. 끅 걷엉은엥에 무꺼근엥에 흔 뭇 두 뭇 허멍 다 무꺼근엥에 멧 눌 눌어 놓민 친정에선 지들커 허레 안 가봣수다.(소나무 빼면서. 이렇게 묶어서요. 소나무도 묶어서. 칡 걷어다가 묶어서 한 뭇 두 뭇 하면서 다 묶어서 몇 가리 가려 놓으면 친정에선 땔감 하러 안 가봤습니다.)

104022 @1 음.(음.)

104022 #1 지들커 허레 안 가민 지들커 허레 가는 건 막 불러왕마씸게.(땔감 하러 안 가면 땔감 하러 가는 건 너무 부러워서요.)

104022 @ 음.(음.)

104022 #1 저 똥 줏으레 가는 거 불룹곡양.(저 똥 주우러 가는 거 부럽고요.)

104022 @2 으.(으.)

104022 #1 놈 허는 건 막 불루왕은엥에. 일은 막 하영 헷수다마는 똥 줏으렌, 친정에선 지들커 허레 안 가보고.(남 하는 건 매우 부러워서. 일은 매우 많이 했습니다만 똥 주우러는, 친정에선 땔감 하러 안 가보고.)

104022 @ 음.(음.)

104022 #1 똥 줏으레 안 가봣수다게.(똥 주우러 안 가봤습니다.)

104022 @1 음.(음.)

104022 #1 그런 건 저 소걸름 내영 ᄆᆞᆯ류왕은엥에 ᄆᆞᆯ류왕은엥에 굴묵[168]에 굴묵 짇곡 허난.(그런 건 저 소두엄 내서 말려서 말려서 '굴묵'에 '굴묵' 때고 하니까.)

104022 @ 음.(음.)

104022 #1 그런 건 아녀봣수다. 씨집오난 많이 헷수다. 씨집인 완에 지들커도 허여오고 저 무시거 똥도 줏어오고. 똥은 저 저 남셍이오름[169] 가민 똥도 하고 또 여기도 하낫수다.(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시집오니까 많이 했습니다. 시집에 와서 땔감도 해오고 저 무엇 똥도 주워오고. 똥은 저 '남셍이오름' 가면 똥도 많고 또 여기도 많았습니다.)

104022 @1 음.(음.)

104022 #1 여기도 저 이 ᄆᆞᆯ ᄀᆞ뜬 거 소 ᄀᆞ뜬 거 메여근엥에 저 그디저디 메난

16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을 말한다.
169) '남셍이오름'은 서기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1번지인 '남송이오름'을 말한다.

에.(여기도 저 이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메워서 저 거기저기 매니까.)

104022 @1 으.(으.)

104022 #1 그거 줏어당 젖으민 좀 ᄆᆞᆯ랴근에 ᄆᆞᆯ랴근엥에 굴묵에 굴묵 짇엉은엥에 살앗수다게.(그거 주워다가 젖으면 좀 말려서 말려서 '굴묵'에 '굴묵' 때어서 살았습니다.)

104023 @1 게문 쉐똥허고 ᄆᆞᆯ똥허고 허면 어느 게 더 좋아마씨? 저기 굴묵 때기가.(그러면 소똥하고 말똥하고 하면 어는 게 더 좋아요? 저기 '굴묵' 때기가.)

104023 #1 ᄆᆞᆯ똥이 굴묵 때기 좁니다게.(말똥이 '굴묵' 때기 좋습니다.)

104023 @1 으, ᄆᆞᆯ똥이.(으, 말똥이.)

104023 #1 쉐똥은 재게 안 ᄆᆞᆯ르고, ᄆᆞᆯ똥은 저 족으니까 빨리 ᄆᆞᆯ르고.(소똥은 재게 안 마르고, 말똥은 저 작으니까 빨리 마르고.)

104023 @ 으.(으.)

104023 #1 쉐똥은 이만씩 큰 거 오래 ᄆᆞᆯ랴야 뒈여마씨.(소똥은 이만씩 큰 거 오래 말려야 돼요.)

104023 @1 으.(으.)

104023 #1 겨고 저 어떤 거 헤싸지지 아년 건 또 굴묵 짇기가 궂어마씸.(그리고 저 어떤 거 헤벌어지지 않은 건 또 '굴묵' 때기가 궂어요.)

104023 @1 으.(으.)

104023 #1 게난 ᄆᆞᆯ똥이 젤 좁디다.(그러니 말똥이 젤 좋습디다.)

104023 @1 아, ᄆᆞᆯ똥이예?(아, 말똥이요?)

104023 @2 으.(으.)

104023 #1 예. ᄆᆞᆯ똥이 젤 좁디다. 게난 나중에라 가난에 저 그것도 아년에 우리도 그 소 많이 메곡 허난.(예. 말똥이 젤 좋습디다. 그러니 나중에 가니까 저 그것도 않고 우리도 그 소 많이 매고 하니까.)

104023 @1 으.(으.)

104023 #1 그 저 무시거 걸름 저 소걸름도 더러 내영 ᄆᆞᆯ량은엥에 그거 짇곡, 또 과수원 ᄒᆞ꼼 허난 또 소걸름 돗걸름은 가근에 그 저 과수원 영 이거 이거 낭이민 이런 디 영 파근엥에 그레.(그 저 무엇 거름 저 소두엄 더러 내서 말려서 그거 때고, 또 과수원 조금 하니까 또 소두엄 돼지거름 가서 그 저 과수원 이렇게 이거 이거 나무면 이런 데 이렇게 파서 거기에.)

104023 @1 으.(으.)

104023 #1 ᄀᆞᆯ체로 지멍양 그레. 경 아녀도 뒈는디.(삼태기로 지면서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104023 @1 으.(으.)

104023 #1 그거 그추룩 헤낫수게. 게멍 막 힘들게 그추룩 허연. 경 아녀도 뒐 건디. 이젠 뭐 비료만 줘도 뒐 건디 경 걸름 판 묻어낫수다게.(그거 그처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힘들게 그처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될 건데. 이젠 뭐 비료만

줘도 될 건데 그렇게 거름 파서 묻었었습니다.)
104023 @1 으.(으.)
104023 #1 저 처음에 헐 때에.(저 처음에 할 때에.)
104023 @1 예.(예.)
104023 #1 나무 질 처음 허엿수다, 우리.(나무 젤 처음 했습니다. 우리.)
104023 @2 으.(으.)
104023 #1 우리, 일본서 들어오는 거양.(우리, 일본서 들어오는 거요.)
104023 @ 예.(예.)
104023 #1 다섯 사름이 저 짠에, 다섯 사름이 맨날 저 서귀포 부두에 간 직허영은에.(다섯 사람이 저 짜서, 다섯 사람이 맨날 저 서귀포 부두에 가서 지켜서.)
104023 @ 음.(음.)
104023 #1 직허연 그거 허연에 그때 이벡 본썩, 흔 사름이 이벡 본썩 갈란에 허엿수다.(지켜서 그거 해서 그때 이백 본씩, 한 사람이 이백 본씩 갈라서 했습니다.)
104023 @ 으.(으.)
104023 @2 으.(으.)
104023 #1 허난에 이벡 본썩 싱건에 그거 처음에 처음에 헷수다. 질 처음에 허난에 이 지금 저 우리허고 저 동부락[170] 저 우리 집의 아저씨영 갑장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른아옵마씸, 이제.(하니까 이백 본씩 심어서 그거 처음에 처음에 했습니다. 젤 처음에 하니까 이 지금 저 우리하고 저 동부락 저 우리 집의 아저씨랑 갑장 이제. 이제 이제 일흔아홉이요. 이제.)
104023 @1 음.(음.)
104023 #1 이제 이른아옵 난 저 아주버니 저 동부락 잇수다. 각시 죽어불언마씸게.(이제 일흔아홉 난 저 아주버니 저 동부락 있습니다. 각시 죽어버렸어요.)
104023 @ 으.(으.)
104023 #1 흔 삼년 전이 죽어불고. 이제 드러 일만 헴수다. 드러 일만 허곡 사는디. 살아시민 이제 이른아옵 이우다마는. 저 다섯 사름 허여신디 다 망허연 우리 둘리, 동부락 아주버니허고 우리벳기 엇수다.(한 삼년 전에 죽어버리고. 이제 들이 일만 합니다. 들이 일만 하고 사는데. 살아있으면 이제 일흔아홉 입니다만. 저 다섯 사람 했는데 다 망해서 우리 둘이, 동부락 아주버니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104023 @ 으.(으.)
104023 #1 저 나무 밧. 다 풀아불고.(저 나무 밭. 다 팔아버리고.)
104023 @2 으.(으.)
104023 #1 아이 뒈연 죽어불곡. 경 헨 엇우다. 엇언에. 경 허난 그 박○○이옌 헌 사름이 수의사라낫수다게.(안 돼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박○○이라고 한 사람이 수의사였었습니다.)
104023 @ 으.(으.)

170) '동부락'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지명이다.

104023 #1 그 사름도 ᄀᆞ치 나물 ᄀᆞ찌 사십주게. 사난. 양, 젊은 때 죽어붑디다게.(그 사람도 같이 나물 같이 샀습지요. 사니까. 예, 젊은 때 죽어버립디다.)

104023 @2 으.(으.)

104023 #2 그 사름 수의사엔 헌 어른 키도 크고 막 말도 경 잘 허연 말장시 말장시 허여낫수다마는 저 각신 어디 노망헤연 어디 돌아갓젠 헙디다마는. 게난 박○○이가 허는 말이. 저 나무도 아무나 주지 말앙은엥에 헐 사름을 줄 건디.(그 사람 수의사라고 한 어른 키도 크고 매우 말도 그렇게 잘 해서 말쟁이 말쟁이 했었습니다만 저 각신 어디 노망해서 어디 데려갔다고 합디다만. 그러니 박○○이가 하는 말이, 저 나무도 아무나 주지 말고 할 사람을 줄 건데.)

104023 @ 으.(으.)

104023 #1 헐 사름을 더 줄 건디 경 ᄀᆞᆯ아낫수다게.(할 사람을 더 줄 건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04023 @ 음.(음.)

104023 #1 게난 우리허고 저 동부락허고가 저 이제 지금 많이 곶고 잇수다, 이제.(그러니 우리하고 저 동부락하고가 저 이제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104023 @2 음.(음.)

104023 #1 뚠 사름덜은 아이 뒈연마씸.(딴 사람들은 안 됐어요.)

104024 @1 삼춘도 솔입 걷으레도 뎅겨봔마씨?(삼촌도 솔잎 걷으러 다녀봤어요?)

104024 #1 예. 솔입 걷으레.(예. 솔잎 걷으러.)

104024 @1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4024 #1 글겡이 ᄋᆞ정. 글겡이 ᄋᆞ정은에 삭삭 메와근엥에 또 아래 또 저 나무 나무 아래 영 끅 걷엉은엥에 이디 영 놓곡 이디 영 놓곡 허영은에 그디 나무 멧 개 짤라 놔근엥에 그레 놔근에 벵벵벵벵 ᄆᆞᆯ민 ᄒᆞ찡허게 곱닥허게 무꺼집니다. 게난 솔입 걷으레 긁으레도 막 저 가고 싶읍니다게.(갈퀴 가져서. 갈퀴 가져서 삭삭 모아서 또 아래 또 저 나무 나무 아래 이렇게 칡 걷어서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놓고 해서 거기 나무 몇 개 잘라 놓고 그리 놓아서 뱅뱅뱅뱅 말면 나란히 곱게 묶어집니다. 그러니 솔잎 걷으러 매우 저 가고 싶습니다.)

104024 @2 그것이 혼 보달이우과?(그것이 한 묶음입니까?)

104024 #1 예?(예?)

104024 @2 보달, 뎅이?(묶음, 덩이?)

104024 @1 혼 보달 치는 거?(한 묶음 치는 거?)

104024 #1 아, 모다치는 것이 아까 얘기헷수게.(아, 모으는 것이 아까 얘기 했습니다.)

104024 @2 보달.(묶음.)

104024 #1 모다치는 건 저 글겡이.(모으는 건 저 갈퀴.)

104024 @2 예.(예.)

104024 #1 글겡이 알아집니까?(갈퀴 아십니까?)

104024 @2 예, 글겡이로 긁엉?(예, 갈퀴로 긁어서?)

104024 #1 글겡이로 긁엉 이만이 흔 짐 뒈게 긁어놩은에, 긁어놩은에 끅 걷어당 놔근에 무끄젠 허민 그 저 낭 준 거 멧 개 놔근에 아래, 아래 저 받훔 멧 개 놔근에 그레 즈근즈근즈근허게시리 그레 안아 놔근에 뱅허게 몰앙은에 무끄민 곱닥허게 무꺼집니다.(갈퀴로 긁어서 이만큼 한 짐 되게 긁어놓고, 긁어놓고 칡 걷어다가 놓고 묶으려고 하면 그 저 나무 잔 거 몇 개 놓아서 아래, 아래 저 받침 몇 개 놓아서 거기에 차근차근차근하게 거기에 안아 놓고 뱅하게 말아서 묶으면 곱게 묶어집니다.)

104024 @2 게난 그걸 뭐렌 헙니까? 무끈 걸?(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묶은 걸?)

104024 @1 솔입 흔 도리.(솔잎 한 켜.)

104024 #1 솔입 솔입 솔입 무끈 거. 솔입 무끈 거옌 골읍니다. 무신거엔 딴 말은, 딴 말은 안 곧고.(솔잎 솔잎 솔잎 묶은 거. 솔잎 묶은 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딴 말은, 딴 말은 안 말하고.)

104024 @1 보달 치다 헙니까?(묶음 치다 합니까?)

104024 #1 아, 모다치는 건 그냥 영 저 긁어다 놓는 것이 모다치는 거.(아, 모으는 건 그냥 이렇게 저 긁어다가 놓는 것이 모으는 거.)

104024 @1 예.(예.)

104024 #1 긁어다근에 영 모여 놓는 것ᄀᆞ라 모다, 모여다 놓는 거.(긁어다가 이렇게 모아 놓는 것더러 모아, 모여다 놓는 거.)

104024 @1 예. 여기는 보달은 안 쓰는 거지.(아, 여기는 묶음은 안 쓰는 거지.)

104024 @2 으.(으.)

104024 #1 모여 놓는 거고 그거는 솔입 무끈 거.(모아 놓는 거고 그거는 솔잎 묶은 거.)

104024 @2 예.(예.)

104024 #1 무꺼, 무꺼근엥에 흔 짐. 흔 짐 무껀 젼 왓젠, 젼 왓젠 허는 거.(묶어, 묶어서 한 짐. 한 짐 묶어서 져서 왔다고, 져서 왔다고 하는 거.)

104025 @1 으, 삼춘 게민 나무허레도 뎅겨난마씨?(으, 삼촌 그러면 나무하러 다녔었어요?)

104025 #1 나무허렌 엄창.(나무하러는 엄청.)

104025 @1 남허레. 남허레.(나무하러. 나무하러.)

104025 #1 예.(예.)

104025 @2 놀크레기난양? 놀크레기난.(날쌘돌이라서요? 날쌘돌이.)

104025 #1 엄창 뎅기지 아녓수가.(엄청 다니지 않았습니까.)

104025 @1 남허레 뎅겻던 얘기 자세히 골아줍서.(나무하러 다녔던 얘기 자세히 말해주세요.)

104025 #1 나무허레게 저 한라산에도 가오고게.(나무하러 저 한라산에도 가오고.)

104025 2 음.(음.)

104025 #1 또 그냥 등짐으로도 또 등짐으로, 등짐으론 저 머리여진오름[171].(또 그냥 등짐으로도 또 등짐으로는 저 '머리여진오름'.)

104025 @1 음.(음.)

104025 #1 거기 가서 낭허영, 낭허영 와근엥에 돈이 날 거 엇으난.(거기 가서 나무해서, 나무해서 와서 돈이 날 거 없으니까.)

104025 @1 음.(음.)

104025 #1 그 어린 때에 혼 짐 허영 오랑 자귀로 나냥으로 깨연.(그 어린 때에 한 짐 해서 와서 자귀로 나대로 깨서.)

104025 @2 음.(음.)

104025 #1 나냥으로 깨여근엥에. 깨여근에. 그걸, 머리여진오름 아이 가도 잇수다. 요 저 이디 곶듸.(나대로 깨서. 깨서. 그걸, '머리여진오름' 안 가도 있습니다. 요 저 여기 숲에.)

104025 @ 음.(음.)

104025 #1 이디 곶듸 많이 이시난 이디라도 강은에 허영 오랑은에. 머리여진오름은 가민 삭은 낭을 허고.(여기 숲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라도 가서 해서 와서. '머리여진오름'은 가면 삭은 나무를 하고.)

104025 @1 으.(으.)

104025 #1 여긴 강 놀 거마씨. 놀낭을 헤당은에 자귀로 깨여근엥에 물왕 저 모실포 풀레가마씸.(여긴 가서 날 거요. 날나무를 해다가 자귀로 깨서 말려서 저 모슬포 팔러가요.)

104025 @1 으.(으.)

104025 @2 으.(으.)

104025 #1 경 허멍 살앗수다게, 어린 때.(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때.)

104025 @1 게믄 건 혼 짐씩 헹 오는 거?(그러면 건 한 짐씩 해서 오는 거?)

104025 #1 혼 짐씩 헤영 오는 거.(한 짐씩 해서 오는 거.)

104025 @1 음.(음.)

104025 #1 놀 거 혼 짐 언마 언마나 헙니까게.(날 거 한 짐 얼마 얼마나 합니까?)

104025 @1 음.(음.)

104025 #1 언마 안 허주게. 놀 거는. 또 저 물른 거는 또 머리여진오름 가사. 머리여진오름 가근엥에 멧 번 쉬여사 옵니다게. 것도.(얼마 안 하지. 날 거는. 또 저 마른 거는 또 '머리여진오름' 가야. '머리여진오름' 가서 몇 번 쉬어야 옵니다. 것

171) '머리여진오름'은 '여진머리오름'인 '대병악'을 말한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2-1번지, 표고 491.9m이다.

도.)

104025 @1 으.(으.)

104025 #1 무거와. 거.(무거워. 거.)

104025 @1 게난 짐으로 헐 땐 혹시 두 짐 헤영 영 번갈아가멍도 졍 오기도 헙니까?(그러니 짐으로 할 땐 혹시 두 짐 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도 져서 오기도 합니까?)

104025 #1 누게가 저 집의 이시민 흔듸 강 져다 주곡.(누가 저 집에 있으면 함께 가서 져다 주고.)

104025 @1 음.(음.)

104025 #1 가근에. 흔듸 져다주곡. 져다 줄 사름 엇으민 자기냥으로 졍 집의까지 와야 뒈마씸.(가서. 함께 져다주고. 져다 줄 사람 없으면 자기대로 져서 집에까지 와야 돼요.)

104025 @ 음.(음.)

104025 #1 경허엿수다.(그랬습니다.)

104025 @1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4025 #1 아녀본 게 엇수다게. 다 헤봔.(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어.)

104026 @1 삼춘, 여기도 삼춘 숫도 궈마씨?(삼촌, 여기도 삼촌 숯도 구워요?)

104026 #1 숫?(숯?)

104026 @1 예.(예.)

104026 #1 아, 숫은 궈보지 아여신디.(아, 숯은 구워보지 않았는데.)

104026 @ 아, 숫은 안 헤봔예?(아, 숯은 안 해봤어요?)

104026 #1 예, 덕수 숫은 안 궈봣수다.(예, 덕수 숯은 안 구워봤습니다.)

104026 @ 아.(아.)

104026 #1 숫, 불미는 허여, 하영 헷수다. 불미.(숯, 풀무는 해서, 많이 했습니다. 풀무.)

104026 @ 예.(예.)

104026 #1 우리 씨아버님이 불미허난.(우리 시아버님이 풀무하니까.)

104026 @1 음. 불미는 허고예?(음, 풀무는 하고요?)

104026 #1 예.(예.)

104027 @1 그 낭허레 강은에.(그 나무하러 가서.)

104027 #1 예.(예.)

104027 @ 뭐 잊어불지 못 허는 거. 뭐 너무 어두왕 못 오거난 너무 하영 헹은에 구루마가 엎어지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뭐 잊어버리지 못 하는 거. 뭐 너무 어두워서 못 오거나 너무 많이 해서 달구지가 엎어지나 이런 거는 없어요?)

104027 #1 아이고, 구루마는 엎어지젠 허민 한이 엇게 엎어질 거라도. 사람이 그 소, 소머리에 딱 잡으민 이것이 소머리민 이렇게 막 저 못 가게.(아이고, 달구지는 엎어지려고 하면 한이 없게 엎어질 거라도, 사람이 그 소, 소머리에 딱 잡으면

이것이 소머리면 이렇게 막 저 못 가게.)

104027 @1 으.(으.)

104027 #1 그 너미 산판이 궂으니까. 그 옛날에사 언마나 궂엇수가게. 이제사 질 좋앗주마는.(그 너무 산판이 궂으니까. 그 옛날에야 얼마나 궂었습니까. 이제야 길 좋았지만.)

104027 @1 음.(음.)

104027 #1 잘도 궂입디다게. 질이, 질이 영 뒈고. 돌멩이가 하 놓난 ᄒᆞ꼼만 재게 가민 확 넘어져마씸게.(잘도 궂습디다. 길이. 길이 이렇게 되고. 돌멩이가 많아 놓으니까 조금만 재게 가면 확 넘어져요.)

104027 @2 으.(으.)

104027 #1 게난 그 소머리가 이렇게 막 뗑겨사마씸. 두에서 발 버청은에 버청 뗑기지 아녀민 자륵허게 내리민 탁허게 저 동부져[172]불어마씨. 것ᄀᆞ라 동부진덴 ᄀᆞᆯ읍니다.(그러니 그 소머리가 이렇게 막 당겨야 해요. 뒤에서 발 뻗쳐서 뻗쳐 당기지 않으면 주르르하게 내리면 탁하게 저 엎어져버려요. 것더러 '동부진다'고 말합니다.)

104027 @1 동부지는 거예?(엎어지는 거요?)

104027 #1 돔부, 돔부져불어. 그냥 돔부지민 사름덜이 다 모다들엉 거 ᄒᆞᆫ듸 간 사름들이 모다들엉은에 그거 일리지도 못허여마씨. 게난. 게믄 ᄆᆞᆫ딱 클러야.('돔부', '돔부져버려'. 그냥 '돔부지민'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 함께 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거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러면 모두 풀어야.)

104027 @1 클러야.(풀어야.)

104027 #1 누게네 구루마 돔부졋저. 경 그치룩 ᄀᆞᆯ아낫수다.(누구네 달구지 '돔부졋져'.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04027 @1 으.(으.)

104027 #1 이 덕수 사름덜 다 ᄒᆞᆫ듸덜 다 가난에.(이 덕수 사람들 다 함께들 다 가니까.)

104027 @1 예.(예.)

104027 #1 ᄒᆞᆫ듸덜 다 가난. 경헌디 저 어린 때에 아이는 나 하나벳긔 안 뎅겻수다게. 나 하나만 경 뎅겻수다게. 겨곡 또 살멍도 헤나고.(함께 다 가니까. 그런데 저 어린 때에 아이는 저 하나밖에 안 다녔습니다. 나 하나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도 했었고.)

104027 @1 아아.(아아.)

104027 #1 예, 그디 가근에 ᄒᆞᆫ 메틀, ᄋᆞ라 날은 안 살고. 저 우리 저 ᄉᆞ춘 오라방허곡 셋아방허곡 혜근에 저 나 구루마 하나 아버지 구루마 하나 혜근에, 셋아방 하나 ᄉᆞ춘오라방 하난 허영 구루마 네 개가 가민, 거기 가근엥에 냇물 질어당 나가 밥을 허고.(예, 거기 가서 한 며칠, 여러 날은 안 살고, 저 우리 저 사촌 오라버니하

172) '동부지다'는 일본어 'とんぼがえり(돈보가에리)'에서 온 말인 듯하다. '재주넘기, 공중제비'를 뜻하는 영어 'tumbling'의 일본어 표현이다. 줄여서 'とんぼ(돈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부지다, 돔부지다'는 소가 달구지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며 엎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고 둘째작은아버지하고 해서 저 내가 달구지 하나 아버지 달구지 하나 해서, 둘째작은아버지 하나 사촌오라버니 하나 해서 달구지 네 개가 가면, 거기 가서 냇물 길어다가 내가 밥을 하고.)

104027 @1 으.(으.)

104027 #1 냇물 질어당 나가 밥을 헤영 오라방이영 셋아방이영 다 우린 너의, 늬 삼춘조케가 다 밥 먹으멍 흔 이틀이나 허여 놔근에 흔 이틀이나 허여 놔근엥에 져오곡 헷수다게. 경 허멍.(냇물 길어다가 내가 밥을 해서 오라버니랑 둘째작은아버지랑 다 우린 넷, 넷 삼촌조카가 다 밥 먹으면서 한 이틀이나 하여 놓고 한 이틀이나 하여 놓고 져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4027 @2 아, 살멍예.(아, 살면서요.)

104027 #1 예, 그디 간 집 빌언에 집 빌언 살멍마씨, 살멍.(예, 거기 가서 집 빌어서 집 빌어서 살면서요, 살면서.)

104027 @1 그 낭허는 거는 다 픈는 거?(그 나무하는 거는 다 파는 거?)

104027 #1 예. 집의 왕, 그 엿날은게 돈 날 것이 엇입디다게. 그거나. 게난 그거 허민 또 집의 오민 또 아버진 뚜시 일주일에 흔 번 가마씸. 일주일에 흔 번.(예. 집에 와서, 그 옛날은 돈 날 것이 없습디다. 그거나. 그러니 그거하면 또 집에 오면 또 아버진 다시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104027 @1 음.(음.)

104027 #1 그 살앙 헐 땐 사흘 허엿당은에 흔 사흘 이틀이나 허곡. 그자 흔, 흔 일주일에 흔 번 갈 때가 하마씸게. 일주일에 흔 번 강오민 두 구루마 아이꽈게?(그 살아서 할 때는 사흘 했다가 한 사흘 이틀이나 하고. 그저 한, 한 일주일에 한 번 갈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오면 두 달구지 아닙니까?)

104027 @1 으.(으.)

104027 #1 둘리가 끗엉 가민. 게민 아부지가 저 밧이, 밧이 너미 하 놓난 아버지 밧 갈렌헙센, 허영 나가 나가 저 모실포 낭 풀레 가왓수다게.(둘이 끌어서 가면. 그러면 아버지가 저 밭에, 밭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아버지 밭 가십시오, 하고 제가 제가 저 모슬포 나무 팔러 가왔습니다.)

104027 @1 음.(음.)

104027 #1 구루마 끗엉, 낭 풀레 나가 갓어. 어이엇지 아녀우꽈? 어린 때 그 낭 풀레 강.(달구지 끌고, 나무 팔러 내가 갔어. 어이없지 않아요? 어린 때 그 나무 팔러 가서.)

104027 @1 게난.(그러니까.)

104027 #1 나가 아버지랑 저 밧 갈레 갑서. 아부지가 시기지 아녀고 어머니가 시기질 아녀고 나가 허쿠덴 헷수다. 허쿠덴.(제가 아버지랑 저 밭 갈러 가십시오. 아버지가 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104027 @1 으.(으.)

104027 #1 저 아버지 강 밧 갈아붑센. 빨리 일을 재게 허영 설렁 말젠만 허는

거라마씸. 일을 빨리 헐라고.(저 아버지 가서 밭 갈아버리세요. 빨리 일을 재게 해서 마쳐서 말려고만 하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하려고.)

104027 @2 으.(으.)

104027 #1 나가 강 낭 풀앙 오쿠덴 허영. 낭을 풀레 가는 거라마씸. 그치룩. 이젠 챙피헤도 이젠 못 갈 막 못 갈 거 아니우꽈?(내가 가서 나무 팔아서 올게요 해서. 나무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처럼. 이젠 창피해도 이젠 못 갈 막 못 갈 거 아닙니까?)

104027 @1 웃음.(웃음.)

104027 #1 경헌디 그 옛날은양 뭣도 몰르고 일만 헌 거라마씸.(그런데 그 옛날은요 뭣도 모르고 일만 한 겁니다.)

104027 @ 으.(으.)

104027 #1 뭣도 몰르고.(뭣도 모르고.)

104027 @ 예, 그런 식으로 이제.(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냥

104028 @1 혹시 삼춘네 아버지나 뭐 아니면 아저씨나 사농허레도 뎅겨봔마씨?(혹시 삼촌네 아버지나 뭐 아니면 아저씨나 사냥하려고도 다녀봤어요?)

104028 #1 사농, 사농허레?(사냥, 사냥하러?)

104028 @1 으.(으.)

104028 #1 아, 사농허레는.(아, 사냥하려는.)

104029 @1 꿩 사농이나 뭐나 이런 거.(꿩 사냥이나 뭐나 이런 거.)

104029 #1 꿩 사농은 아덜이 헷는데.(꿩 사냥은 아들이 했는데.)

104029 @1 아, 아들이.(아, 아들이.)

104029 #1 작은아덜.(작은아들.)

104029 @1 아,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 그건.(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104029 #1 저 총을 가근에 빌려당 놩양.(저 총을 가서 빌어다 놔서요.)

104029 @ 음.(음.)

104029 @2 아, 총으로?(아, 총으로?)

104029 #1 빌려다 놩양. 여기 살멍. 우리 저 총각인 때에.(빌어다 놔서요. 여기 살면서. 우리 저 총각인 때에.)

104029 @ 음.(음.)

104029 #1 자이도 저 자게 결혼 아녓수다게.(재도 재게 결혼 않았습니다.)

104029 @1 으.(으.)

104029 #1 막 새각실 골령. 여자를 그치룩 골리멍 경 가지 아녀난에 자이도 서른에 결혼헤신가. 서른에 결혼헤신가 몰르쿠다. 이제 메누리. 막 저 무시거 총을 곶다 놔근엥에 그거 저 흔 둘에 언마씩 세금을 내여마씸.(몹시 새색씨를 골라서. 여자

를 그처럼 고르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재도 서른에 결혼했는가. 서른에 결혼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며느리. 막 저 무엇 총을 가져다 놓고 그거 한 달에 얼마씩 세금을 내요.)

104029 @1 음.(음.)

104029 #1 세금을 내멍 꿩 사농을 헤수다게. 헤신디. 허여신디 모슬포 살 때도 이디서 이디 살 때에 어린 때부터 허영 허단에 뚜시 결혼허영 우리영 삼년 ᄀᆞ찌 살앗수다.(세금을 내면서 꿩 사냥을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모슬포 살 때도 여기서 여기 살 때에 어린 때부터 해서 하다가 다시 결혼해서 우리랑 삼년 같이 살았습니다.)

104029 @1 예.(예.)

104029 #1 게난 나가렌 헤도 나가지도 아녀곡. 경 집 빌어주켄 헤도 집 아니 ᄂᆞ시 야, 저 느네 나강 살라, 나강 살아사주 어디 어멍 아방이영 사는 사름이 어디 시니? 허민. 저 질레 강 상은에 저 울엄 시민 어머니ᄀᆞ라 욕헙니다. 허민. 야, 늘ᄀᆞ라 욕헌다.(그러니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집 빌어주겠다고 해도 집 아니 도저히 야, 저 너네 나가서 살라, 나가서 살아야지 어디 어머니 아버지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면. 저 길에 가서 서서 저 울고 있으면 어머니보고 욕합니다. 하면. 야, 널보고 욕한다.)

104029 @1 웃음.(웃음.)

104029 #1 이제 어멍 아방이영 사는 사름이 어디 시니? 늘ᄀᆞ라 욕허주 날고라 안 욕헌다. 삼년 살아도 메누리영이라도 ᄁᆞ딱 원 ᄒᆞ꼼이라도 요만이라도 트중어리가 하나도 엇어낫수다게. 저 씨어머님 상 놓고.(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널보고 욕하지 날보고 안 욕한다. 삼년 살아도 며느리영도 까딱 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트집거리가 하나도 없었었습니다. 저 시어머님 상 놓고.)

104029 @1 으.(으.)

104029 #1 씨어머님 상 놓민 아적ᄌᆞ뭇은 나가 밥 놓곡 저 이제 메누린 아기 ᄃᆞᆯ아 놓난에 아기 ᄃᆞᆯ아두서 낮인 뚜시 상, 저 밥 놓곡. 경 허멍 허연 삼년을 살아난. 살아가난에 아이고, 나가렌만 막 허여가난에, ᄒᆞ룬 어디레 간게마는 어디 저 모실포사 가신디 어디 간게마는, 집의 완에 닐랑 가근에 저 어머니영 아버지영 가근에 모델집 하나 저 이십디다. 강 그거 봅서. 좋냐 궂으냐 봅서. 경 ᄀᆞᆯ읍디다게. 경 ᄀᆞᆯ으난에 간 봣수다게.(시어머님 상 놓으면 아침저녁은 내가 밥 놓고 저 이제 며느린 아기 데려 놓으니까 아기 데려두고 낮엔 다시 상, 저 밥 놓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삼년을 살았어. 살아가니까 아이고, 나가라고만 막 해가니까, 하룬 어디로 가더니만 어디 저 모슬포야 갔는지 어디 가더니만, 집에 와서 내일은 가서 저 어머니랑 아버지랑 가서 모델하우스 하나 저 있습디다. 가서 그거 보세요. 좋은가 나쁜가 보세요. 그렇게 말합디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서 봤습니다.)

104029 @1 음.(음.)

104029 #1 간 보난 모실포 저 이제 그 저 그 아파트.(가서 보니까 모슬포 저 이

제 그 저 그 아파트.)

104029 @1 음.(음.)

104029 #1 아파트 저 간 보난에 살만 헙디다게. 살만 허난에 저 이제 문 짓거들라근엥에 이젠 느네랑 이층에 살라. 이층이 질 좋나.(아파트 저 가서 보니까 살만 합디다. 살만 하니까 저 이제 모두 짓거든 이젠 니들은 이층에 살아라. 이층이 젤 좋다.)

104029 @1 으.(으.)

104029 #1 게, 너미 노프민게 삼층꼬장 가가민.(게, 너무 높으면 삼층까지 가가면.)

104029 @1 으.(으.)

104029 #1 올라뎅김이 궂지 아넘니까게.(오르내림이 나쁘지 않습니까?)

104029 @1 예.(예.)

104029 #1 우리도 궂고 저 아기덜토 궂곡 허난에 그디 강은에 저 이층에 이층을 이제 구지베기허게[173] 뒌 거라마씸게. 구지베길허난 일층을 뒌 거 아니우꽈?(우리도 나쁘고 저 아기들도 나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저 이층에 이층을 이제 제비뽑기하게 된 거예요. 제비뽑기하니까 일층을 된 거 아닙니까?)

104029 @1 으.(으.)

104029 #1 게난 아이고, 일층은 덥나게. 어떵허연 좋아. 일층은 덥나게. 우리 문딱 갓수다게. 식구가 문딱.(그러니 아니고, 일층은 덥네. 어쩌면 좋아. 일층은 덥네. 우리 모두 갔습니다. 식구가 모두.)

104029 @ 으.(으.)

104029 #1 아기덜 아기 하난 그때 난 때난에. 가난 구지베기허난 일층을 뒈난 아이고야, 이층이 질 좋은디게. 이층이. 어떤 할머니가게 바꾸겐마씨게.(아기들 아기 하나 그때 낳은 때니까. 가니까 제비뽑기하니까 일층이 되니까 아이고야, 이층이 젤 좋은데. 이층이. 어떤 할머니가 바꾸자고 해요.)

104029 @1 음.(음.)

104029 #1 바꾸겐 허영 이층에 살앗수다게. 이층에 사난에 아파트는 반석.(바꾸자고 해서 이층에 살았습니다. 이층에 사니까 아파트는 반석.)

104029 @1 반석아파트예?(반석아파트요?)

104029 #1 반석아파트에 간 우리가 다 돈 물엇수다게.(반석아파트에 가서 우리가 다 돈 물었습니다.)

104029 @ 으.(으.)

104029 #1 우리가 우리가 빌려줘야 뭘 거 아니우과게.(우리가 우리가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1 우리가 우리가 빌어줜에 그때에 삼천, 아니 삼천벡만 원 줘진 거 답

173) '구지베기'는 일본어 くじびき다 우리말 제비뽑기를 말한다.

수다.(우리가 우리가 빌어줘서 그때에 삼천, 아니 삼천백만 원 주어진 거 같습니다.)

104029 @ 음.(음.)

104029 #1 삼천벡만 원에 줜에 빌어진 거 닮다. ᄀᆞ만이 생각해보난. 삼천벡만 원 주고 따시 일로 ᄒᆞ쏠 잇언에 ᄒᆞ꼼 저 무시거 가스렌지 잇언에 집을 살앗수다. 살안에.(삼천백만 원에 줘서 빌었던 거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천백만 원 주고 다시 이리로 조금 이어서 조금 저 무엇 가스레인지 이어서 집에 살았습니다. 살아서.)

104029 @ 음.(음.)

104029 #1 살단에 ᄃᆞ시 또 이제 아기덜 또 그 이디서 세 설 난 아기, 집의 가난 울언에 홈치 모실폴 가난 이술 갓수다게.(살다가 다시 또 이제 아기들 또 그 여기서 세 살 난 아기, 집에 가니까 울어서 한꺼번에 모슬포를 가니까 이사를 갔습니다.)

104029 @1 음.(음.)

104029 #1 가난 울언 살 말이우꽈게.(가니까 울어서 살 말입니까?)

104029 @1 음.(음.)

104029 #1 이 저 덕수[174]만 할머니네 집의만 왕 살켄 막 우난에.(이 저 덕수에만 할머니네 집에만 와서 살겠다고 마구 우니까.)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1 그날 제서우다게.(그날 제사입니다.)

104029 @ 음.(음.)

104029 #1 제섯날인디 나 ᄀᆞ찌 가왓수게. 저낙이.(제삿날인데 제가 같이 가왔습니다. 저녁에.)

104029 @1 음.(음.)

104029 #1 ᄀᆞ찌 간에 할머니도 갈 거. 할머니도 갈 거난 갓당 이제 지금 올 거옌. 경허멍 세 설 난 것이 막 울언에 경 어린 때 경 버릇이 궂언에 버릇이 궂입디다게. 궂이난게 할망 하르방 저 가네 밥 먹을 땐 할망 하르방이 보곡.(같이 가서 할머니도 갈 거. 할머니도 갈 거니까 갔다가 이제 지금 올 거라고. 그러면서 세 살 난 것이 막 울어서 그렇게 어린 때 그렇게 버릇이 궂어서 버릇이 궂습디다. 궂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 걔네 밥 먹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104029 @1 음.(음.)

104029 #1 따시 가네 와근엥에 ᄃᆞ시 아기 보민 우리 먹곡.(다시 걔네 와서는 다시 아기 보면 우리 먹고.)

104029 @ 웃음.(웃음.)

104029 #1 경허멍 막 버릇이 궂어신디.(그러면서 막 버릇이 궂었는데.)

104029 @1 으.(으.)

104029 #1 이젠 막 착혜젼 이젠 고등학교 삼학년 이젠.(이젠 매우 착해져서 이젠 고등학교 삼학년 이젠.)

174) '덕수'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104029 @1 으.(으.)
104029 #1 공부도 잘헙니다게. 저 그 저 어디 거 잘허는 디엔 헙디다. 그디. 그디서 국민학교 허난 시에 갓수게게.(공부도 잘합니다. 저 그 저 어디 거 잘하는 데라고 합디다. 거기. 거기서 초등학교 하니까 시에 갔습니다.)
104029 @1 예.(예.)
104029 #1 시에 이제 성제 살암수다. 그디.(시에 이제 형제 살고 있습니다. 거기.)
104029 @1 으.(으.)
104029 #1 경 헨 나중엔 어떵 허연 풀어젼 그디 살안에.(그렇게 해서 나중엔 어떻게 해서는 풀어져서 거기 살아서.)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1 멧 년 살안, 멧 년 살안. 막 경 버릇 궂인 아기가 착허믄 허는 거양.(몇 년 살았어, 몇 년 살았어. 매우 그렇게 버릇 궂은 아기가 착하기는 하는 거예요.)
104029 @1 으.(으.)
104029 #1 게난 과수원에서 작년에도 그 하우스 안네 미깡을 날르는디 그 대ᄋᆞ섯이 미깡을 타는디 성제가 미깡을 ᄋᆞ섯 사름 타는 거 드러 날르난양 날르는, 사름덜이 그치룩 칭찬을 허는 거라마씸.(그러니 과수원에서 작년에도 그 하우스 안의 감귤을 나르는데 그 대여섯이 감귤을 따는데 형제가 감귤을 여섯 사람 따는 거 들이 나르니까요 나르는, 사람들이 그토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104029 @1 음.(음.)
104029 #1 아기덜이 너미 착허덴. 너미 착허고 놀젠을 아념젠 허멍 경.(아기들이 너무 착하다고. 너무 착하고 놀려고를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104029 @1 할망 닮아신게.(할머니 닮았네.)
104029 #1 아기, 사름이 아길 낳주.(아기, 사람이 아기를 낳지.)
104029 @1 으.(으.)
104029 #1 경 ᄀᆞᆫ는 사름도 잇곡.(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4029 @1 예.(예.)
104029 #1 ᄯᅳ시 아기 돈 줘뒁 가는 사름도 잇고.(다시 아기 돈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104029 @1 음.(음.)
104029 #1 저 궨당이난게.(저 권당이니까.)
104029 @1 예.(예.)
104029 #1 궨당이난양. 이녁 돈도 ᄆᆞᆫ 안 받앙 주난. 야, 메누리가게 놉은 나가 빌고게.(권당이니까요. 이녁 돈도 모두 안 받아서 주니까. 야, 며느리가 놉은 내가 빌고.)
104029 @ 음.(음.)

104029 #1 허난 메누리가 야, 그냥 내불엉은 안 뒌다. 뭐 사가렌 허난. 저 이벡, 저 이벡, 이벡 개짜리 커피 하나썩 사갑디가게.(하니까 며느리가 야,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된다. 뭐 사가라고 하니까. 저 이백, 저 이백, 이백 개짜리 커피 하나씩 사갑디다.)

104029 @1 음.(음.)

104029 #1 상 주난.(사서 주니까.)

104029 @1 음.(음.)

104029 #1 따시 재작년에 이벡 개짜리 하나 주곡. 올힌 커피덜 핫젠 허멍 골암젠.(다시 재작년에 이백 개짜리 하나 주고. 올핸 커피들 많다고 하면서 말한다면서.)

104029 @ 으.(으.)

104029 #1 핫젠 허멍 골으난에 이제 돈 이만 원썩 주난에.(많다고 하면서 말하니까 이제 돈 이만 원씩 주니까.)

104029 @1 으.(으.)

104029 #1 이녁 돈 부쩐 그 아기덜 줫저 헙니다.(이녁 돈 붙여서 그 아기들 줬다고 합니다.)

104029 @1 웃음.(웃음.)

104029 @2 음.(음.)

104029 #1 게난 나 이 저 갈빗대 꺼끄난에 저 무시거나 허곡 가근에.(그러니 내가 이 저 갈빗대 꺾으니까 저 무엇이나 하고 가서.)

104029 @1 웃음.(웃음.)

104029 #1 갈빗대 꺼끄난 아덜 ᄀᆞ딱도 못허게 헨에.(갈빗대 꺾으니까 아들이 까딱도 못하게 해서.)

104029 @1 으.(으.)

104029 #1 저 간식이나 난 허곡.(저 간식이나 난 하고.)

104029 @ 음.(음.)

104029 #1 경 허난 무시거 든직겡이 잘 헤여실 거우다. 아이덜이 잘헙니디게.(그렇게 하니까 무엇 든직하게 잘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잘합니다.)

104029 @1 예.(예.)

104029 #1 막 저 무시거 하우스 미깡 타난양.(막 저 무엇 하우스 감귤 따니까요.)

104029 @ 음.(음.)

104029 #1 더운디 탓수덴 허멍 무시거 이벡 개 짜리 줫젠허난 막 겁넵디다게.(더운데 따셨다고 하면서 무엇 이백 개짜리 주었다고 하니까 막 겁냅디다.)

104029 @1 음.(음.)

104029 #1 재작년에예. 작년에는 또 돈으로 이만 원씩 줘불. 주난에 족은어멍네 영 믄 빌언 허난게 궨당엔 헌 사름은 돈 만 원 더 부쩐 주고. 아기덜을 그치룩 착 허덴 허멍 간세성이 엇읍니다게.(재작년에요. 작년에는 또 돈으로 이만 원씩 줘버

리. 주난에 작은어머니네랑 모두 빌어서 하니까 권당이라고 한 사람은 돈 만 원 더 붙여서 주고. 아기들을 그처럼 착하다고 하면서 게으름성이 없습니다.)

104029 @1 음.(음.)

104029 #1 아기덜토. 겨곡 아방이 저 부지런 헤 놓난 아방이양 이것도 공부라고.(아기들도. 그리고 아버지가 저 부지런 해 놓으니까 아버지가요 이것도 공부라고.)

104029 @1 으.(으.)

104029 #1 이것도 공부니까 이것도 허여야 뭰다. 너 저 어린 때부떠 경 골읍디다게. 밧듸 저 농장에 가민 공부를 헐래? 일을 허영 살래?(이것도 공부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너 저 어린 때부터 그렇게 말합디다. 밭에 저 농장에 가면 공부를 할래? 일을 해서 살래?)

104029 @1 음.(음.)

104029 #1 아방이 경 골으민 공부허영 살켄마씸. 아기덜이.(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공부해서 살겠대요. 아기들이.)

104029 @1 음.(음.)

104029 #1 공부허영 살켄 골읍디다게. 경 허민 어린 때 국민하교 때에 미깡을 타레 가민 할머니, 나 열 개, 열 개 허민. 돈 언마 주켄 아방이 골으민 그 콘테나로 열 개 타 놓민 돈 얼마 주켄 허영은에 자기냥으로 뚜로 놉디다게. 열 갤 뚜로 놓민, 할머니, 나 것디레 비와 주세요, 나것디레 비와 주세요.(공부해서 살겠다고 말합디다. 그렇게 하면 어린 때 초등학교 때에 감귤을 따러 가면 할머니, 나 열 개, 열 개 하면. 돈 얼마 주겠다고 아버지가 말하면 그 컨테이너로 열 개 따 놓으면 돈 얼마 주겠다고 해서 자기대로 따로 놓습디다. 열 갤 따로 놓으면, 할머니, 내 것에 부어 주세요, 내 것에 부어 주세요.)

104029 @1, 2 웃음.(웃음.)

104029 #1 경 허영근에 돈 ᄒᆞ꼼썩 줫수다게.(그렇게 해서 돈 조금씩 주었습니다.)

104029 @1 으.(으.)

104029 #1 우리도 어린 때 경 허엿수다게.(우리도 어린 때 그렇게 했습니다.)

104029 @1, 2 예.(예.)

104029 #1 유채 강은에 허민 돈 얼마썩 주멍 빌엉 헷수다게.(유채 가서 하면 돈 얼마씩 주면서 빌어서 했습니다.)

104029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30 @1 여기 혹시 이 동네서도 노리 사냥덜도 헤낫수가?(여기 혹시 이 동네도서도 노루 사냥들도 했었습니까?)

104030 #1 노리 사냥, 저 코 놔근에양.(노루 사냥, 저 올가미 놓아서요.)

104030 @1 예.(예.)

104030 #1 코 놩은에 잡는 사름은 술짝술짝.(올가미 놓아서 잡는 사람은 살짝살

짝.)

104030 @1 으.(으.)

104030 #1 솔짝솔짝 ᄒᆞ꼼썩 잡앗수다. 예.(살짝살짝 조금씩 잡았습니다. 예.)

104030 @2 코 놩은에?(올가미 놓아서요?)

104030 #1 예, 코 놩. 게난 저 노리 잡으렌 경 터놘 뎅기진 못헤십주게.(예, 올가미 놓고. 그러니 저 노루 잡으러는 그렇게 터놓고 다니진 못했습지요.)

104030 @1 예, 예.(예, 예.)

104030 #1 코 놔근엥에 잡곡. 저 우리 아덜은 경 꿩을 드러 쏘아근엥에 허난 꿩 쏘으단에 이젠 너미 꿩이 많아마씸게.(올가미 놓아서 잡고. 저 우리 아들은 그렇게 꿩을 들이 쏘아서 하니까 꿩 쏘다가 이젠 너무 꿩이 많아요.)

104030 @1 음.(음.)

104030 #1 꿩이 하난 무시거 허여 먹질 못허쿠다게. 허여먹질 못허난에 야, 느, 저 총 ᄋᆞ정오랑, 막 아이가 바쁘난에.(꿩이 많으니까 무엇 해서 먹질 못하겠어요. 해먹지를 못하니까 야, 너, 저 총 가져와서, 막 아이가 바쁘니까.)

104030 @ 으, 으.(으, 으.)

104030 #1 난 아넘시카부덴. 총 ᄋᆞ정 오랑 이 총소리라도 ᄒᆞ쏠 내우라게. 이 꿩 제완 살질 못허켜, 경허난. 아이고, 나 이젠 총 이젠 아넘수다. 이젠 아녀누렌.(난 않고 있을까봐. 총 가지고 와서 이 총소리라도 조금 내어라. 이 꿩 겨워 살지를 못하겠어. 그러니. 아이고, 나 이제는 총 이제는 안합니다. 이제는 않는다고.)

104030 @ 예.(예.)

104030 #1 아년에 저 바쁘고게 일도 바쁘고 총 아넘수다.(않고 저 바쁘고 일도 바쁘고 총 않습니다.)

104030 @ 음.(음.)

104030 #1 저 꿩 쏘아가난 어떵 좋질 아녑디다.(저 꿩 쏘아가니까 어떻게 좋질 않습디다.)

104030 @2 음.(음.)

104030 #1 경 ᄀᆞᆯ읍디다.(그렇게 말합디다.)

104030 @1 예.(예.)

104030 @2 좋진 아녑니다.(좋진 않습니다.)

104030 #1 아, 경헙니까?(아, 그렇습니까?)

104030 @2 예, 예예.(예, 예예.)

104030 #1 아, 그것도 알앙 경 헴수다양.(아, 그것도 알아서 그렇게 하네요.)

104030 @2 예, 예.(예, 예.)

104030 #1 꿩 쏘아가난.(꿩 쏘아가니까.)

104030 @2 좋지 안헙니다. 좋지 안헙니다.(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104030 #1 안 좋덴마씸. 안 좋안에 꿩, 저 총 ᄀᆞ져가볏수덴마씸.(안 좋대요. 안 좋아서 꿩, 저 총 가져가버렸대요.)

104030 @1 음.(음.)

104030 #1 총을 이디서부떠 총각인 때부떠 그 총 들런 저 총 메연 뎅겻수다게.(총을 여기서부터 총각인 때부터 그 총 들어서 저 총 매서 다녔습니다.)

104030 @1 음.(음.)

104030 #1 일허당은에 트망에 그 저 총 쏘으레 갑디다게.(일하다가 틈에 그 저 총 쏘러 갑디다.)

104030 @1 음.(음.)

104030 #1 경허연게마는 ᄋᆞ라 헤 ᄒᆞᆫ ᄒᆞᆫ 이십 년 ᄋᆞ져뎅겻수다.(그러더니만 여러 해 한 한 이십 년 가져다녔습니다.)

104030 @2 음.(음.)

104030 #1 경허단에 이젠 꿩이 너미 많으난 들으난 아이고, 난 이제 아념수다. 모실포 강도 친구덜이영 꿩 쏘으레 옵니다게. 과수원에.(그러다가 이젠 꿩이 너무 많으니까 들으니까 아이고, 난 이제 않습니다. 모슬포 가서도 친구들이랑 꿩 쏘러 옵니다. 과수원에.)

104030 @ 으.(응.)

104030 #1 오는 거 보믄 와근엥에 저 그 무시거우꽈? 그 저.(오는 거 보면 와서 저 그 뭡니까? 그 저.)

104030 @2 산탄.(산탄.)

104030 #1 저 허영은에 친구덜 ᄆᆞᆫ딱 모여 앚앙 먹엄십니다게.(저 해서 친구들 모두 모여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104030 @ 으.(으.)

104030 #1 강보민게. 샤브샤브[175].(가보면. 샤브샤브.)

104030 @2 으.(으.)

104030 #1 샤브샤브허영은에 술덜 먹고 헙니다게. 친구덜이영 허영. 경 허는디 친구덜이 너미 많아마씸.(샤브샤브해서 술들 먹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해서.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104030 @ 웃음.(웃음.)

104030 #1 일, 일 한 집의 강 보민 친구덜 오민게 일도 못허고게.(일, 일 많은 집에 가서 보면 친구들 오면 일도 못하고.)

104030 @ 음.(음.)

104030 #1 경 허는 거 닮아마씸게.(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104030 @ 음.(음.)

104030 #1 게난 큰아덜네도 뎅기멍 ᄀᆞᆯ읍네다. 저 잘 먹지도 못허곡 친구덜은 ᄒᆞ꼼 쉬젠 허민 친구덜만 ** 들곡 경 헤엄젠 허멍.(그러니 큰아들네도 다니면서 말합니다. 저 잘 먹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조금 쉬려고 하면 친구들만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175) '샤브샤브'는 북경요리의 일종이다.

104030 @2 음.(음.)

104030 #1 우리 메누리도 걸읍니다. 큰메누리도.(우리 며느리도 말합니다. 큰며느리도.)

104030 @ 음.(음.)

104030 #1 경 드러 걸읍니다게. 언치냑도 불 안 싸져서렌 협디다게. 난 우로 와불고. 알로 가넨 오멍 어떠난 차도. 차가 세 개우다게.(그렇게 들이 말합니다. 엊저녁도 불 안 켜졌었다고 합디다. 난 위로 와버리고. 아래로 걔넨 오면서 어째선지 차도. 차가 세 대입니다.)

104030 @1 으.(으.)

104030 #1 가네 차도 세 갠디 어떠난 차도 하나도 엇곡 불도 안 싸져십디다게. 경 허군데.(걔네 차도 세 댄데 어쩐지 차도 하나도 없고 불도 안 켜졌습디다. 그렇게 하기에.)

104030 @ 음.(음.)

104030 #1 어떠난 시에 ᄂᆞ렷다 올랏다 허난 저낙시간이난 저낙 먹어야 갈 거난 불 싸질 건디 어디덜 가난 차도 하나도 엇어, 나 경 걸으멍 헷수다게.(어째선지 시에 내렸다 올랐다 하니까 저녁시간이니까 저녁 먹어야 갈 거니까 불 켜질 건데 어디들 가니까 차도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했습니다.)

104031 @1 음. 여기 혹시 지달이도 잡는 거 들어봔마씨?(음. 여기 혹시 오소리도 잡는 거 들어봤어요?)

104031 #1 아, 지달이도 코 놔근에.(아, 오소리도 올가미 놓아서.)

104031 @1 아, 지달이도 코 놔예?(아, 오소리도 올가미 놓아요?)

104031 @2 코 놩예?(올가미 놓아서요?)

104031 #1 예, 코 놩.(예, 올가미 놓아서.)

104031 @1 거는 굴 앞의 코 놓는 거마씸?(거는 굴 앞에 올가미 놓는 건가요?)

104031 #1 경헌디 지달이도 우리 과수원에도 잇수다게.(그런데 오소리도 우리 과수원에 있습니다.)

104031 @1 음.(음.)

104031 #1 미깡을양, 그 지달이가 미깡을 와근엥에 막 탕 사름 탕은에 저 영 벳경 먹은 거라마씸게.(감귤을요, 그 오소리가 감귤을 와서 마구 따서 사람이 따서 저이렇게 벗겨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104031 @1 음, 음.(음, 음.)

104031 #1 낭, 낭 하나에 거 문짝 타근에. 경 헌디 어떠난 요즘은 어, 경 아념수다.(나무, 나무 하나에 거 몽딸 따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104031 @1 음.(음.)

104031 #1 이거 이거 흔 둬 헤, 둬 헤 경 아념수다. 누게, 누게 코사 놘 잡아불어신디 어떵사 허염신디.(이거 이거 한 두어 해, 두어 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올가미를 놓아서 잡아버렸는지 어떻게야 하는지.)

104031 @1 음.(음.)

104031 #1 경 아넘수다. 지달이가 둬 개 신 거 닮은디. 밧 두 개에 경 허는 거 보민.(그렇지 않습니다. 오소리가 두어 마리 있는 거 같은데. 밭 두 개에 그렇게 하는 거보면.)

104031 @1 옛날에 지달이도 헤영 약 헌덴도 허멍예?(옛날에 오소리도 해서 약 한다고 하면서요?)

104031 #1 예, 예.(예, 예.)

104031 @1 건 어떤 디 약허는 거우꽈?(건 어떤 데 약 하는 겁니까?)

104031 #1 약허는 건 옛날엔게 거 저 무시거게 과수원도 춤 저 병원도 경 엇고 약도 경 엇으난에 그거 먹으민게 사름도 ᄒᆞ쏠게 술도 ᄒᆞ쏠 올르곡 헤가민게 ᄒᆞ쏠 그 약도 뒈는 거 아니우꽈?(약하는 건 옛날에는 거 저 무엇 과수원도 참 저 병원도 그렇게 없고 약도 그렇게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도 조금 살도 조금 오르고 해 가면 조금 그 약도 되는 거 아닙니까?)

104031 @ 음.(음.)

104031 #1 경 헤연에 잡안 먹엇수게. 또 노리, 노리는 또 노리뻬가 쎄난에.(그렇게 해서 잡아서 먹었습니다. 또 노루, 노루는 또 노루뼈가 세니까.)

104031 @1 으.(으.)

104031 #1 쎄난 그 노리뻬에 언마 헹은엥에 ᄯᅳ시 상도 먹곡 뭐 ᄆᆞᆯ뻬 상 먹듯이.(세니까 그 노루뼈에 얼마 해서 다시 사서도 먹고 뭐 말뼈 사서 먹듯이.)

104031 @ 으.(으.)

104031 #1 경도 허곡 허여, 허여낫수다게. 겐디 이젠 노리도 술짝술짝 잡아근엥에 그 저 뭣허는디 가민 저.(그렇게도 하고 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노루도 살짝살짝 잡아서 그 저 뭐하는데 가면 저.)

(부분 생략)

104031 #1 그 콩밧듸영 무시거 저 모멀 갈앙[까랑] 놔두민 다 먹어불곡 허는 거 코 놘 잡암수게. 코 놘 잡암주게.(그 콩밭에랑 무엇 저 메밀 갈아서 놔두면 다 먹어버리고 하는 거 올가미 놓아서 잡습니다. 올가미 놓고 잡고 있지.)

104032 @1 족제비는 어떤 식으로 헤나수가?(족제비는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104032 #1 족제비는 잘 못 봅니다. 족제비는. 족제비도 덧 놔근에 건.(족제비는 잘 못 봅니다. 족제비는. 족제비도 덫 놓아서 건.)

104032 @1 으.(으.)

104032 @2 으, 덧.(으, 덫.)

104032 #1 그건 덧 놩.(그건 덫 놓고.)

104032 @1 족덧? 으.(족덫? 으.)

104032 #1 중이 중이 잡앙 덧 놔근에. 중이 잡앙 덧을 놓나 고길 놓나 경 허여근에 덧 놩 더 덧으로 잡아낫수다. 우리도 덧으로 잡아난.(쥐 쥐 잡아서 덫 놓고.

쥐 잡아서 덫을 놓으나 고길 놓으나 그렇게 해서 덫 놓고 더 덫으로 잡았었습니다. 우리도 덫으로 잡았었어.)

104033 @1 으, 족제비로는 뭐허는 거마씨?(으, 족제비로는 뭐하는 거예요?)

104033 #1 족제비는 풀아낫수다. 옛날에.(족제비는 팔았었습니다. 옛날에.)

104033 @1 아.(아.)

104033 #1 예, 그 저 겁데기.(예, 그 저 껍데기.)

104033 @1 예.(예.)

104033 #1 겁데기를 필요허니까.(껍데기가 필요하니까.)

104033 @2 으.(으.)

104033 #1 겁데기 겁데기 풀아난. 그 쏙은 먹지도 아녀신디.(껍데기, 껍데기 팔았었어. 그 속은 먹지도 않았는데.)

104033 @1 아, 쏙은 안 먹고예? 으.(아, 속은 안 먹고요? 으.)

104033 #1 쏙은 안 먹고. 쏙은 먹지 아녀고.(속은 안 먹고. 속은 먹지 않고.)

104033 @1 겁데기만.(껍데기만.)

104033 #1 겁데기만 싹 벳겨근에 거 말려근에 말리민 복삭헌게[176] 게 옛날은 그거 언마나 그 비싸낫수다. 옛날에.(껍데기만 싹 벗겨서 거 말려서 말리면 '복삭한' 게 그래 옛날은 그거 얼마나 비쌌었습니다. 옛날에.)

104033 @1 아아.(아아.)

104033 #1 비싸낫수다, 겁데기. 겁데기 풀아난.(비쌌었습니다, 껍데기. 껍데기 팔았었어.)

104033 @1 그런 거 말앙 뭐 셍이를 잡거나 이런 것도 헤봔마씨? 셍이총 헨?(그런 거 말고 뭐 새를 잡거나 이런 것도 해봤어요? 새총 해서?)

104033 #1 셍이총 허영 그 장난게. 셍이총 허영 허여십주게.(새총 해서 그 장난. 새총 해서 했습지요.)

104033 @1 예.(예.)

104033 #1 허엿수다. 견디 우리도 허엿수다마는 우리 족은아덜은양, 저 농장에 간 셍이 잡앙 또 심언 와신디 또 심어단 놔불어마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했습니다만 우리 작은아들은요, 저 농장에 가서 새 잡아서 또 잡아서 왔는데 또 잡아다가 놓아버려요.)

104033 @ 음.(음.)

104033 #1 심어다 놔불어. 그런 베렝이 하나 안 죽입니다.(잡아다가 놓아버려. 그런 벌레 하나 안 죽입니다.)

104033 @1 아.(아.)

104033 #1 안 죽여. 게난 저 베렝이 하나 죽이지 아녑니다게.(안 죽여. 그러니 저 벌레 하나 죽이지 않습니다.)

176) '복삭하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 '북삭하다.'라고도 한다.

104033 @1 음.(음.)

104033 #1 게난 그 과수원에 심어가수게, 게난.(그러니 그 과수원에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4033 @ 음.(음.)

104033 #1 야, 그거 느 저 믄딱게 무신 코 그 조둥이로 믄딱 무신거 쏘아부는 거 무사 심어 간디게, 허민.(야, 그거 너 저 모두 무슨 코 그 주둥이로 모두 무엇 쪼아버리는 거 왜 잡아 갔니, 하면.)

104033 @1 으.(으.)

104033 #1 에이그, 그거 심어 하나 심어봣자우다게. 심어가 불엇수다게, 경 골읍디다게.(에이그, 그거 잡아 하나 잡아보았잡니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디다.)

104033 @ 음.(음.)

104033 #1 경 허멍 죽이나 어떵은 아녑니다.(그렇게 하면서 죽이나 어떻게는 않습니다.)

104033 @1 옛날은 보면은 초집헐 때 웨 초집 그예, 집가지에 막 새 잡곡 헤여 나시 아녀낫수가? 거기도. 셍이들?(옛날은 보면 초가집할 때 왜 초가집 그요, 처마에 마구 새 잡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새들?)

104033 #1 셍이덜?(새들?)

104033 @1 으.(으.)

104033 #1 셍이덜 셍이집 짓엉은에 그 속에.(새들 새집 지어서 그 속에.)

104033 @ 예.(예.)

104033 #1 게민 거 잡앙 먹으나 어떵 헌, 먹은 사름도 신 거 닮수다.(그러면 거 잡아서 먹으나 어떻게 한, 먹은 사람도 있는 거 같습니다.)

104033 @ 으.(으.)

104033 #1 이 두칩의 저 그 개구리도 잡아당 멕이곡 아기.(이 뒷집에 저 그 개구리도 잡아다가 먹이고 아기.)

104033 @2 소중의 입으민예?(속곳 입으면요?)

104033 #1 예, 예. 개구. 저 너미 아기가 빠지난양.(예, 예. 개구. 저 너무 아기가 허약하니까요.)

104033 @1 예.(예.)

104033 #1 개구리도 큰 거.(개구리도 큰 거.)

104033 @2 예, 다리만 헤근에.(예, 다리만 해서.)

104033 #1 예, 그거 잡아당은에 멕이는 것도 보고. 저 우리 성담을 빌엉 다젠 허난 이 두칩의 사름 죽어불엇수다마는 두칩읫 어른 저 베염도 잡안 권 먹읍디다게. 우리 밧듸서. 게난 막 징그러완. 베염 잡안 권 먹읍디다게. 경 허단 저 재게 돌아갓수다.(예, 그거 잡아다가 먹이는 것도 보고. 저 우리 성담을 빌어서 쌓으려고 하니까 이 뒷집의 사람 죽어버렸습니다만 뒷집의 어른 저 뱀도 잡아서 구워서 먹습

디다. 우리 밭에서. 그러니 막 징그러워서. 뱀 잡아서 구워서 먹습디다. 그렇게 하다가 저 재게 돌아가셨습니다.)

104033 @1 으.(으.)

104033 #1 놈의 담 다레 뎅기단에.(남의 담 쌓으러 다니다가.)

104033 @2 으.(으.)

104033 #1 놈의 담 다레 드러 뎅겻수다. 놈의 담 다레 뎅기단.(남의 담 쌓으러 들이 다녔습니다. 남의 담 쌓으러 다니다가.)

104033 @1 알앗수다. 삼춘 막 버치지예?(알았습니다. 삼촌 막 부치지요?)

104033 #1 아니, 아니, 나.(아니, 아니, 나.)

5. 바다일

105001 @ 아까 그 바당 허는 거예? 바다에서 허는 일 어떤 거 잇어마씨?(아까 그 바다 하는 거요? 바다에서 하는 일 어떤 거 있어요?)

105001 #1 뭣 허는 거?(뭣 하는 거?)

105001 @ 바당에서 허는 일들?(바다에서 하는 일들?)

105001 #1 아, 바다에서 허는 거?(아, 바다에서 하는 거?)

105001 @ 예.(예.)

105001 #1 바당에서 허는 거 우리 이 꽝촌에서 무신 바당에 거 허곡 대곡 그 옛날에게 그. 몸, 몸 허여다근에 그 바당물이 그 아칙이 언마나 추웁니까게. 그거 추운 중도 모르고 경 어린 땐 경허여집디다게. 그 바당에 강 몸 헤다근엥에 그걸 문 몰려근엥에 그걸 큰 숭키엔. 그 반찬이옌 그거 허여당은에 장에, 장에 컷단 먹은 말 아니우꽈게?(바다에서 하는 거 우리 이 깡촌에서 무슨 바다에 거 하고 자시고 그 옛날에 그 모자반, 모자반 해다가 그 바닷물에 그 아침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거 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 때 그래집디다. 그 바다에 가서 모자반 해다가 그걸 모두 말려서 그걸 큰 푸성귀라고. 그 반찬이라고 그거 해다가 간장에, 간장에 담갔다가 먹은 말 아닙니까?)

105002 @ 예, 혹시 듬북도 알아지쿠과?(예, 혹시 듬북도 알아요?)

105002 #1 뭣?(뭣?)

105002 @ 듬북?(듬북?)

105002 #1 듬북이 뭣이꽈?(듬북이 뭡니까?)

105002 @ 아, 듬북은 몰르고. 바당에 나는 감태는?(아, 듬북은 모르고? 바다에 나는 감태는?)

105002 #1 아, 감태는 잘 압주.(아, 감태는 잘 압지요.)

105002 @ 감태도 저기 헤봔마씨?(감태도 저기 해봤어요?)

105002 #1 감태는 아녀봇수다. 감태는 허여당은에 그 걸름헌덴 허는 거 아니우

꽈? 감태.(감태는 안 해봤습니다. 감태는 해다가 그 거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태.)

105002 @ 예, 걸름예.(예, 거름이요.)

105002 #1 걸름.(거름.)

105003 #1 그다음에 바당에 그 강 저기 보말들?(그다음에 바다에 그 가서 저기 보말고둥들?)

105003 #1 예.(예.)

105003 @ 보말들은 잡안?(보말고둥들은 잡았어요?)

105003 #1 예, 보말들.(예, 보말고둥들.)

105003 @ 으, 어떤 것덜?(으, 어떤 것들?)

105003 #1 보말도 잡곡 구제기도 허곡.(보말고둥도 잡고 소라도 하고.)

105003 @ 예.(예.)

105003 #1 구제기도 하영 해봣수다. 젊을 때에.(소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젊을 때에.)

105003 @ 깅인?(게는?)

105003 #1 깅이 ᄀᆞ뜬 거. 그런 거는 잘 헤낫수다.(게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했었습니다.)

105003 @ 게믄 그 보말허고 깅이들은 어떵 잡안마씨?(그러면 그 보말고둥하고 게들은 어떻게 잡나요?)

105003 #1 깅이는 그 저 영 무는 거난에 그 무는 거 어염에만 가지 말앙 딴 디만 심으민 어떵 아녀곡.(게는 그 저 이렇게 무는 거니까 그 무는 거 옆에만 가지 말고 딴 데만 잡으면 어떻지 않고.)

105003 @ 예.(예.)

105003 #1 깅이는 영 돌아뎅기는 거난양.(게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105003 @ 예.(예.)

105003 #1 영 돌아뎅기는 거난 그건 잡을 수 잇고. 보말도 영 부뜬 거난에 돌멩이 돌멩이 일리민 게 무슨거 보말도 나오곡 그 저 소라도 나오곡 헙니다.(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건 잡을 수 있고. 보말고둥도 이렇게 붙은 거니까 돌멩이 돌멩이 일으키면 그래 무엇 보말고둥도 나오고 그 저 소라도 나오곤 합니다.)

105003 @ 돌멩이 일령예?(돌멩이 일으켜 세워서요?)

105003 #1 예, 돌멩이 일령.(예, 돌멩이 일으켜 세워서.)

105004 @ 그 보말도 종류가 이서나신가마씨?(그 보말고둥도 종류가 있었었나요?)

105004 #1 예, 종루가 잇입주게. 종루가 저 먹보말도 싯곡.(예, 종류가 있습지요. 종류가 저 밤고둥도 있고.)

105004 @ 음.(음.)

105004 #1 수두리보말도 싯곡.(팽이고둥도 있고.)

105004 @ 먹보말허고 수두리보말예?(밤고둥하고 팽이고둥이요?)
105004 #1 수두리보말은 맛잇고.(팽이고둥은 맛있고.)
105004 @ 음.(음.)
105004 #1 먹보말은 좋지 아녀마씨?(밤고둥은 좋지 않아요.)
105004 @ 아, 그다음에 그 ᄀᆞ메기는?(아, 그다음에 개울타리고둥은?)
105004 #1 ᄀᆞ메기?(개울타리고둥?)
105004 @ 으.(으.)
105004 #1 ᄀᆞ메기 ᄀᆞ뜬 건 그런 건 아녀봣수다.(개울타리고둥 같은 건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105004 @ 그건 아녀고예?(그건 안하고요?)
105004 #1 예, 보긴 들어봣수다마는.(예, 보긴 들어봤습니다만.)
105004 #1 가막부리.(진주담치.)
105004 @ 가막부리?(진주담치?)
105004 #1 가막부리는 맛십니다. 가막부리.(진주담치 맛있습니다. 진주담치.)
105004 @ 돌에 영 부뜨는 거 그거예?(돌에 이렇게 붙는 거 그거요?)
105004 #1 예, 딱 부뜨는 거 홁은 거만 헤당은엥에 그디서 막 밀어근엥에.(예, 딱 붙는 거 긁은 거만 해다가 거기서 막 밀어서.)
105004 @ 으.(으.)
105004 #1 그 츤물에서 막 밀어근엥에 문 그 저 저 무시거 문 씻, 허여둥은에.(그 짠물에서 막 밀어서 모두 그 저 무엇 모두 씻, 해두고.)
105004 @ 음.(음.)
105004 #1 싯어둥은에 그, 그건 무사 싯엄신고 허민 그 저 무시거 몰레마씨.(씻어두고 그, 그건 왜 씻느냐고 하면 그 저 무엇 모래요.)
105004 @ 예, 예.(예, 예.)
105004 #1 몰레를 막 밀어야 뒈마씨. 그 저 돌에서.(모래를 마구 밀어야 돼요. 그 저 돌에서.)
105004 @ 으.(으.)
105004 #1 돌에서 너부작헌 돌에 놩 드러 밀엉은에엥 문딱 헹과둥 집의 오랑은에.(돌에서 너부죽한 돌에 놓고 들이 밀어서 모두 헹궈두고 집에 와서는.)
105004 @ 으.(으.)
105004 #1 헹과근엥에 그 솖아근에 거 건져둬근에 미역 놩 국 끓령 먹고마씨.(헹궈서 그 삶아서 거 건져두고 미역 넣고 국 끓여서 먹고요.)
105004 @ 아아.(아아.)
105004 #1 국 끓령 먹고. 뚜시 그 가막부린 그냥 그냥 올아먹고.(국 끓여서 먹고. 다시 그 진주담치는 그냥 그냥 열어먹고.)
105004 @ 예.(예.)
105004 #1 그건 아주 좋아마씨. 맛싯고.(그건 아주 좋아요. 맛있고.)

105004 @ 아, 가막부리 영 셍경 동글락헌 저기 헌 거지예?(아, 진주담치 이렇게 생겨서 동그란 저기 한 거지요?)

105004 #1 아니, 솔랑헌 거.(아니 길쭉한 거.)

105004 @ 솔랑헌 거? 히뚜룩헤영근에.(길쭉한 거? 희읍스름해서.)

105004 #1 아니, 요만이헌 검은 거.(아니, 요만한 거 검은 거.)

105004 @ 아, 보말 닮은 거? 검은 거?(아, 보말고둥 닮은 거? 검은 거요?)

105004 #1 예, 검은 거. 요만이 수랑한 거. 홁은 거 말앙, 영 ᄒᆞ민 요만이 소랑헙니다.(예, 검은 거. 요만이 기름한 거. 굵은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 길쭉합니다.)

105004 @ 아, 예, 예예. 음, 검은 거?(아, 예, 예예. 음, 검은 거요?)

105004 #1 그거는 국 끓려도 맛잇어마씨. 미역 놩 국 끓리민.(그거는 국 끓여도 맛있어요. 미역 넣고 끓이면.)

105005 @ 그다음 삼춘, 그 깅이는 종류 어떤 거 이서?(그다음 삼촌, 그 게는 종류가 어떤 거 있어요?)

105005 #1 깅이 종룬 막 합니다. 거.(게 종류는 막 많습니다.)

105005 @ 으.(으.)

105005 #1 깅인 저 뭐 그 무신 풋깅이[177]. 풋깅이도 싯고.(게는 저 뭐 무슨 '풋깅이'. '풋깅이도' 있고.)

105005 @ 으.(으.)

105005 #1 또 홁은 깅이도 싯곡.(또 굵은 게도 있고.)

105005 @ 으.(으.)

105005 #1 준 건 풋깅이마씨.(작은 건 '풋깅이'.)

105005 @ 준 건 풋깅이. 깅이로도 뭐 헹 먹어?(작은 건 '풋깅이. 게로도 뭐 해서 먹어?)

105005 #1 깅이, 깅이 헤당은에 보까근에 ᄇᆞ삭ᄇᆞ삭ᄇᆞ삭 씹어 먹어집니다.(게, 게 해다가 볶아서 바삭바삭바삭 씹어 먹어집니다.)

105005 @ 건 어떤 식으로 보끄는 거꽈?(건 어떤 식으로 볶는 겁니까?)

105005 #1 준준헌 거 그냥 저 물에 싯어뒁은엥에.(자잘한 거 그냥 저 물에 씻어 두고.)

105005 @ 으.(으.)

105005 #1 저 기름 놓곡 허영 보까마씸, 보까.(저 기름 넣고 해서 볶아요, 볶아.)

105005 @ 으.(으.)

105005 #1 그냥 보까근엥에 반찬으로.(그냥 볶아서 반찬으로.)

105005 @ 보깡 먹곡예?(볶아서 먹고요?)

105005 #1 보깡 반찬으로.(볶아서 반찬으로.)

105006 @ 여기서도 엿날 휏불 들엉은에 휏바리허레 갓다 완?(여기서도 옛날 횃

177) '풋깅이'는 아주 작은 게를 말한다.

불 들어서 횃바리하러 갔다 와요?)

105006 #1 아, 건 아녀봣수다.(아, 건 안 해봤습니다.)

105006 @ 건 아녀보고예?(건 안 해보고요?)

105006 #1 그런 건 아녀봣수다.(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105006 @ 이 여기는 바당 가믄 어느 바당 가는 거우꽈?(이 여기는 바다에 가면 어느 바다 가는 겁니까?)

105006 #1 세계[178].(사계.)

105007 @ 세계 바당. 세계 바당도 원들도 잇엇우가? 멜 드는 원담들?(사계 바다. 사계 바다도 원들도 있었습니까? 멸치 드는 원담들?)

105007 #1 아이고, 엿날엔 많이 헤십주. 엿날엔 많이 들어나수다.(아이고, 옛날엔 많이 했습죠. 옛날엔 많이 들었었습니다.)

105007 @ 거기도 원이옌 헤? 여기도.(거기도 '원'이라고 해? 여기도.)

105007 #1 예. 원[179]엔 허영 하영 들어나신디 이제는 거 엇어마씸.(예, '원'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거 없어요.)

105007 @ 것 엇고예?(것 없고요?)

105007 #1 예.(예.)

105007 @ 그 원에는 주로 어떤 궤기들 들어마씨?(그 돌발에는 주로 어떤 고기들 들어요?)

105007 #1 그디, 멜 들엇젱 헹은에 막 저 멜 들엇저, 멜 들엇저 허민 멜 사례도 가왓수다. 멜 들엇저.(거기, 멸치 들었다고 해서 막 저 멸치 들었어, 멸치 들었어, 하면 멸치 사러도 다녀왔습니다. 멸치 들었어.)

105007 @ 멜 들엇저.(멸치 들었어.)

105007 #1 멜 들엇저. 경 헹.(멸치 들었어. 그렇게 해서.)

105008 @ 그 원 보수허는 거 이런 거 안 봐나시켜예? 돌 다왕 허는 건예?(그 돌발 보수하는 거 이런 거 안 봤었겠네요? 돌 쌓아 하는 건요?)

105008 #1 예, 예. 그건 안 봐나고.(예, 예. 그건 안 봤었고.)

105009 @ 건 안 봐나고. 멜 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잡읍니까?(건 안 봤었고. 멸치 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105009 #1 멜 들엇젠 허는 건 거리는 거마씨.(멸치 들었다고 하는 건 뜨는 거예요.)

105009 @ 으.(으.)

105009 #1 막 이레 막 들어왕. 이레 들어오민 거려마씨. 그 그 족박엔 헌 거 만들아근에 그 저 자리 ᄀᆞ뜬 거 거리는 거.(막 이리로 막 들어와서. 이리로 들어오면 떠요. 그 그 쪽박이라고 한 거 만들어서 그 저 자리돔 같은 거 뜨는 거.)

105009 @ 예.(예.)

---

178)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79) '원'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돌로 만든 장치를 말하는데, 달리 '원담', '갯담'이라고도 한다.

105009 #1 그걸로 거립니다. 거려.(그걸로 뜹니다, 떠.)
105009 @ 족박? 족바지?(박? 족바지?)
105009 #1 족박, 족박이엔 헙디다. 걸로 거려마씸, 거려.(뜰채, 뜰채라고 합디다. 뜰채로 뜹니다, 떠.)
105010 @ 족박으로 이제 거리고, 여기서도 궤기 나끄레도 뎅겨봔마씨?(뜰채로 이제 뜨고, 여기서도 고기 낚으러도 다녀봤어요?)
105010 #1 여기서 우리, 우린 안 다녀봣수다마는.(여기서 우린, 우린 안 다녀봤습니다만.)
105010 @2 예.(예.)
105010 #1 궤기 나끄레 갓당 죽고. 죽은 사름도 잇고. 잘 갑니다.(고기 낚으러 갔다가 죽고. 죽은 사람도 있고. 잘 갑니다.)
105010 @ 어렝이 ᄀᆞ뜬 거 나끄젠 헹도 가곡?(어렝놀래기 같은 거 낚으려고 해서도 가고?)
105010 #1 어렝이여 무시거여덜 나까다근에 이디도 저 무시거 나까당은에 주민 먹곡 헷수다. 우리도.(어렝놀래기야 무엇이야 낚아다가 여기도 저 무엇 낚아다가 주면 먹고 했습니다. 우리도.)
105010 @ 어떤 궤기덜 나까신고예?(어떤 고기들 낚았을까요?)
105010 #1 아, 저 무시거, 한치.(아, 저 무엇 한치.)
105009 @ 예.(예.)
105009 #1 주로 한치 많이 나까단에 저 먹읍센, 허멍 ᄀᆞ져와십데다.(주로 한치 많이 낚아다가 저 먹으세요, 하면서 가져왔습디다.)
105011 @ 겡 옛날 여기서도 춤대덜 만들앙 가는 거 봐봔마씨?(그렇게 옛날 여기서도 낚싯대들 만들어서 가는 거 봐봤어요?)
105011 #1 춤대, 우리 족은아덜마씨.(낚싯대, 우리 작은아들이요.)
105011 @ 예.(예.)
105011 #1 족은아덜 춤대 사당은에.(작은아들 낚싯대 사다가.)
105011 @ 으.(으.)
105011 #1 사당은엥에 고기 나끄레 드러 뎅기당 이젠 힘들엉. 그 아이 빌엉. 춤대 실 거우다.(사다가 고기 낚으러 들이 다니다가 이젠 힘들어서. 그 안 빌려서. 낚싯대 있을 겁니다.)
105011 @ 춤대 겐 무신 낭? 뭐 나깡 오는 거?(낚싯댄 그럼 무슨 나무? 뭐 낚아서 오는 거?)
105011 #1 무신 궤기 무신 준준헌 거 나까당은에 무시것사 헴신디. 우리 족은아덜도 무신거 뭐 잘헙니다.(무슨 고기 무슨 자잘한 거 낚아다가 무엇이야 하는지. 우리 작은아들도 무엇 뭐 잘합니다.)
105011 @ 이것저것 막 잘허는 양이구나게예?(이것저것 막 잘하는 모양이네요?)
105011 #1 이젠 바빤마씨. 바쁘고 나이 들고 헤 놓난.(이젠 바빠서요. 바쁘고 나

이 들고 해 놓으니까.)

105012 @ 으, 혹시 그 소살로 궤기 쏘으는 것도 봐봔마씨?(으, 혹시 그 작살로 고기 쏘는 것도 봐봤어요?)

105012 #1 아, 그거는 텔레비전에 본 겁주, 원.(아, 그거는 텔레비전에 본 거지요, 원.)

105012 @ 텔레비에 본 거고예?(텔레비전에서 본 거고요?)

105012 #1 텔레비전에서 해녀덜.(텔레비전에서 해녀들.)

105012 @ 예.(예.)

105012 #1 해녀덜 소살로 쏘으는 거 봣수다.(해녀들 작살로 쏘는 거 봤습니다.)

105014 @ 해녀들은 바당에 가면 삼춘도 바당 속에도 강 헤봔?(해녀들은 바다에 가면 삼촌도 바다 속에도 가서 해봤어요?)

105014 #1 바당 속엔, 그냥 저 숨비여근에[180] 들어가 보긴 헷수다.(바다 속엔, 그냥 저 '숨비여서'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105014 @ 아, 숨비영. 숨비영 뭐 잡아마씨?(아, '숨비여서.' '숨비여서' 뭐 잡아요?)

105014 #1 숨비영 그 저 무시거게. 그 저 그 무시거 소라, 소라.('숨비여서' 그 저 무엇. 그 저 그 무엇 소라, 소라.)

105014 @ 소라 여기서 뭐렌 헤?(소라 여기서 뭐라고 해?)

105014 @2 구제기.('구제기'.)

105014 #1 구제기.('구제기'.)

105014 @ 구제기예?('구제기'요?)

105014 #1 구제기 숨비영 잡앗수다게.(소라 '숨비어서' 잡았습니다.)

105014 @ 숨비연 잡곡?('숨비어서' 잡고?)

105014 #1 젊은 때.(젊은 때.)

105014 @ 구제기 말고 또 뭐 잡안?(소라 말고 뭐 잡았어?)

105014 #1 구제기 ᄀᆞ뜬 거. 어떤 땐 기분 좋은 때 저 물꾸럭. 그런 때에 하나썩 물꾸럭도 보고.(소라 같은 거. 어떤 때는 기분 좋은 때 저 문어. 그런 때는 하나씩 문어도 보고.)

105014 @ 예.(예.)

105014 #1 잘 허레 뎅겻수다게.(잘 하러 다녔습니다.)

105014 @ 예.(예.)

105014 #1 멀어도.(멀어도.)

10501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15 #1 예.(예.)

105015 @ 그 숨비젠 허면 좀녀들 허젠 허면 뭐 들렁 가?(그 '숨비려고' 하면 잠녀들 하려고 하면 뭐 들고 가?)

---

180) '숨비다'는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다.'는 뜻이다.

105015 #1 기냥 기냥 구덕 하나만 영 들렁 가근에 그냥 임시 영 머리 질렁은에 들어강은엥에.(그냥 그냥 바구니 하나만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임시 이렇게 머리 찔러서 들어가서.)

105015 @ 눈 썽?(물안경 써서?)

105015 #1 저 눈도 저기 싯수다마는.(저 눈도 저기 있습니다만.)

105015 @ 아아.(아아.)

105015 #1 저 그 돌멩이도양 물 이시난 잘 일어납니다.(저 그 돌멩이도 물 있으니까 잘 일어납니다.)

105015 @ 아아.(아아.)

105015 #1 무겁지 아녀.(무겁지 않아.)

105015 @ 아아.(아아.)

105015 #1 큰 것도양 물 힘으로.(큰 것도요 물 힘으로.)

105015 @ 아아.(아아.)

105015 #1 물 힘으로 일르민 으라 개 십니다. 하나만 싯지 아녕. 막 저 것도 가치 노는ᄀᆞ라양.(물 힘으로 일으키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만 있지 않아서. 막 저것도 같이 노는가 봐요.)

105015 @ 예.(예.)

105015 #1 으라 개 셔마씸. 소라. 으라 개 십니다.(여러 개 있어요. 소라. 여러 개 있습니다.)

105015 @ 으.(으.)

105015 #1 경 헤영 드러 잡으레 뎅겨낫수다. 잡아당 먹곡.(그렇게 해서 들이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잡아다가 먹고.)

105017 @ 속곳 안 입곡?(속곳 안 입고?)

105017 #1 아니, 그냥.(아니, 그냥.)

105017 @ 그냥 가근에?(그냥 가서?)

105017 #1 예, 그냥 그냥. 이디 속곳 허고 하간 거 허레 경 다니지 아녑니다게.(예, 그냥 그냥. 여기 속곳 하고 여러 가지 거 하러 그렇게 다지지 않습니다.)

105017 @ 뭘 ᄀᆞᆯ갱이도 가졍가야 뒈고.(뭘 호미도 가져가야 되고.)

105017 #1 ᄀᆞᆯ갱이허고 호미허고 그거 두 개.(호미하고 낫하고 그거 두 개.)

105017 @ 두 개 가졍 가?(두 개 가져서 가?)

105017 #1 두 개만 ᄀᆞ져강.(두 개만 가져가서.)

105017 @ 건 ᄀᆞᆯ갱이렌 헤마씨? 이름을?(건 'ᄀᆞᆯ갱이라고' 해요? 이름을?)

105017 #1 예. ᄀᆞᆯ겡이.(예. 'ᄀᆞᆯ갱이'.)

105017 @ ᄀᆞᆯ겡이허고예? 게믄 그 소중이 이런 거 입은 거는 안 봐실 거고?(호미하고요? 그러면 그 '소중이' 이런 거 입은 거는 안 봤을 거고?)

105017 #1 아이고, 그런 거 아녑니니다. 만들지도 아녀고. 아예 원 이딘 웃드르[181]라부난 그런 거 아녑니다.(아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만들지도 않고. 아예 원

여긴 '웃드르라' 버려서 그런 거 안 합니다.)

105018 @ 톳도 헤봔마씨?(톳도 해봤어요?)

105018 #1 예게. 톳 허당은에 이제는 저 톳 막암주마는 엿날은 톳 안 막을 때에.(예. 톳 하다가 이제는 저 톳 막지만 옛날은 톳 안 막을 때에.)

105018 @ 예.(예.)

105018 #1 그거 먹을 걸로 알지도 아녕양. ᄒᆞ꼼 헤당 ᄒᆞ쏠 먹어봥 말고양.(그거 먹을 걸로 알지도 않아요. 조금 해다가 조금 먹어봐서 말고요.)

105018 @ 음.(음.)

105018 #1 저 미역은 많이 헷수다. 미역.(저 미역은 많이 했습니다. 미역.)

105018 @ 미역은 하영 허고예?(미역은 많이 하고요?)

105018 #1 예. 미역은 하영 헤단 먹엇수다.(예. 미역은 많이 해다가 먹었습니다.)

105018 @ 예.(예.)

105018 #1 막을 때. 미역 드러 막을 때.(막을 때. 미역 들이 막을 때.)

105018 @ 미역 막안예?(미역 막아요?)

105018 #1 막 막아근에 못허게 ᄉᆞ뭇 세계[182] 사름덜 문 못허게 허민 덕수[183] 낭허레 오지 말렌 허곡.(마구 막아서 못하게 사뭇 사계 사람들 모두 못하게 하면 덕수 나무하러 오지 말라고 하고.)

105018 @ 어어.(어어.)

105018 #1 덕수랑 낭허영 가당은에 낭 허영 가가민, 우리 저 미역이랑 못허게 허곡 무사 낭허영 감수겐 경도 ᄀᆞᆫ곡 허여낫수다게.(덕수에선 나무해서 가다가 나무해서 가가면, 우리 저 미역은 못하게 하고 왜 나무해서 가시냐고 그렇게도 말하고 했었습니다.)

105018 @ 예에, 맞아.(예에, 맞아.)

105018 #1 경헤신디 이제는 미역은 터놩 허고 톳은 못허게 헴수게.(그랬는데 이제는 미역은 터놓아서 하고 톳은 못하게 합니다.)

105018 @ 예.(예.)

105018 #1 거꾸로 뒈연.(거꾸로 돼서.)

105018 @ 거꿀로예?(거꾸로요?)

105018 #1 예.(예.)

105019 @ 그 이 바당에도 우미도 납니까?(그 이 바다에도 우뭇가사리도 납니까?)

105019 #1 우미?(우뭇가사리?)

105019 @ 으.(으.)

105019 #1 예게, 우미 납니다게.(예, 우뭇가사리 납니다.)

105019 @ 우미도 헤당 뭐헤 먹어난?(우뭇가사리도 해다가 먹었어요?)

---

18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82)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183)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105019 #1 나 잘 숣앙 먹읍니다. 우미도.(저 잘 삶아서 먹습니다. 우뭇가사리도.)

105019 @ 으.(으.)

105019 #1 우미도 엿날에. 이젠 원 바당에 갈 생각도 아녀고. 이디도 졸바로 못 걷는 사름이 바당에 강 뎅겨집니까? 가지 아녀집니다.(우뭇가사리도 옛날에. 이젠 원 바다에 갈 생각도 않고. 여기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바다에 가서 다녀집니까? 가지 않아집니다.)

105019 @ 어떤 우미덜 허영 먹는 거라?(어떤 우무들을 해서 먹는 거야?)

105019 #1 게민 우미 사당.(그러면 우뭇가사리 사다가.)

105019 @ 예.(예.)

105019 #1 사다근엔엥 드러 딸렁 걸렁은에 저 놔두민 트랑트랑허는[184] 거난게.(사다가 들이 다려서 걸러서 저 놔두면 '트랑트랑하는' 거니까.)

105019 @ 예.(예.)

105019 #1 건 얼마든지 헙니다.(건 얼마든지 합니다.)

105019 @ 예.(예.)

105019 #1 건 허영 먹어난 거난게.(건 해서 먹었던 거니까.)

105020 @ 옛날 그 전복도 잡아보고?(옛날에 그 전복도 잡아보고?)

105020 #1 전복도 잡아보고.(전복도 잡아보고.)

105020 @ 으.(으.)

105020 #1 젊은 때는 드러 바당에만 다녓수게.(젊은 때는 들이 바다에만 다녔습니다.)

105020 @ 으.(으.)

105020 #1 놀크레기라 놓난양 못 가는 디 엇어마씨게. 어디 아무디라도. 산방산도 믄 올르고.(날쌘돌이라 놓으니까 못 가는 데 없어요. 어디 아무데라도. 산방산도 모두 오르고.)

105020 @ 게문 삼춘, 놀크레기 뭐가 도대체 놀크레기우과? 삼춘.(그러면 삼촌, 날쌘돌이 뭐가 도대체 날쌘돌이예요? 삼촌.)

105020 #1 아, 놀크레기? 아무디나 나무 우의도 잘 올르고.(아, 날쌘돌이? 아무데나 나무 위도 잘 오르고.)

105020 @ 예.(예.)

105020 #1 저 이 밀감 탈 때는 나무 우티레 화륵화륵 올라가민. 자인 낭 우의 잘 올르는 아이라.(저 이 감귤 딸 때는 위로 화락화락 올라가면. 쟤는 나무 위에 잘 오르는 아이야.)

105020 @ 으.(으.)

105020 #1 경 골읍니다. 게난 나냥으로 곧는 말입주게.(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대로 말하는 말입지요.)

105020 @ 예.(예.)

184) '트랑트랑하다'는 묵이나 우무를 만들기 위해 끓인 액체가 시간이 흘러 굳어서 끈끈하다는 의미다.

105020 #1 아니, 어머니가 저 놀크레기엔 골아낫수다. 저 놀크레기 어디 가신고? 저 놀크레기.(아니, 어머니가 절 날쌘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저 날쌘돌이 어디 갔는고? 저 날쌘돌이.)

105020 @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예?(여기저기 막 다니니까요?)

105020 #1 막 낭 우티레 올라가고.(마구 나무 위로 올라가고.)

105020 @ 놀아다녕은에.(날아다녀서.)

105020 #1 제곡 헤 놓민양, 제곡 해여 놓곡 허민 저 놀크레기 어디 가시? 경 골아낫수다게. 어멍이.(재고 해 놓으면, 재고 해 놓고 하면 저 날쌘돌이 어디 갔니?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가.)

105021 @ 예, 삼춘, 전복허고 구젱기도 그 종류가 이십니까?(예, 삼촌, 전복하고 소라도 그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1 구제기도게 조쿠제기가 싯고.(소라도 어린 소라가 있고.)

105021 @ 으.(으.)

105021 #1 구제기도 두 가집주게.(소라도 두 가집죠.)

105021 @ 예. 조쿠제기허고?(예. 어린 소라하고?)

105021 #1 조쿠제긴 족은 거.(어린 소라는 작은 거.)

105021 @ 으. 그 다음?(으. 그 다음?)

105021 #1 전복은 게 전복은 큰 거고.(전복은 그래 전복은 큰 거고.)

105021 @ 으.(으.)

105021 #1 뜨시 그 저 무시거.(다시 그 저 무엇.)

105021 @ 바르?(오븐재기?)

105021 #1 아랫 건 거 바르.(아래 건 거 오븐재기.)

105021 @ 으.(으.)

105021 #1 바르고.(오븐재기고.)

105021 @ 예.(예.)

105021 #1 게난 것도 큰 거 족은 거 그 갑갈름으로 경 골암수게.(그러니까 것도 큰 거 작은 거 그 구분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105022 @ 예. 맞아예. 옛날 여기 텟배. 테우. 터위? 테베, 테베. 그런 거 안 봐. 봔?(예. 맞아요. 옛날 여기 떼, 떼, 떼. 떼? 떼, 떼. 그런 거 안 봤어요?)

105022 #1 아니.(아니.)

105023 @ 아니. 건 안 보고예. 돗베, 베 초석베 헌 것도 봐봅디가?(아니. 건 안 보고요. 돛단배, 배 돛단배 한 것도 봤어요?)

105023 #1 아, 초석베 헌 거 엿날에 그 뎅기멍 그 저 바당에 옛날에 그 저 어린 때에.(아, 돛단배 한 거 옛날에 그 다니면서 그 저 바다에 옛날에 그 저 어린 때에.)

105022 @ 으.(으.)

105022 #1 초석베 헤영 뎅겨낫수다게.(돛단배 해서 다녔었습니다.)

105022 @ 예.(예.)

105022 #1 덕수 사름은 아녀 봇수다게.(덕수 사람은 안 해봤습니다.)
105022 @ 건 아녀고?(건 안 하고?)
105022 #1 세계 사름이나 허주. 덕수 사름은 아예 농사나 짓주. 그런 거 뭐 웃드르서 그거 헙니까게. 허질 아녀주.(사계 사람이나 하지. 덕수 사람은 아예 농사나 짓지. 그런 거 '웃드르서' 그거 합니까. 하지를 않지.)
105023 @ 맞수다. 잠깐만예?(맞습니다. 잠깐만요?)

6. 의생활

옷감

106001 @1 삼춘, 이제는예, 저기 옷. 옷ᄀᆞ음은 어떤 것덜 잇어난마씨?(삼촌, 이제는요, 저기 옷. 옷감은 어떤 것들 있었어요?)
106001 #1 아이고, 옛날에사 옷ᄀᆞ음이 어디 잇수가. 옷ᄀᆞ음 옛날은 우리 어릴 때는 엇어근엥에 그 어머니가 저 멘네 갈아근엥에 그거 정대로 밀어근엥에 요만씩 질게 허여근엥에.(아이고, 옛날에야 옷감이 어디 있습니까. 옷감 옛날은 우리 어릴 때는 없어서 그 어머니가 저 면화 갈아서 그거 고칫대로 밀어서 요만씩 길게 해서.)
106001 @1 음.(음.)
106001 #1 그걸로 문 씰 만들아근에게 문, 문 놀, 놀아놩 ᄯᅳ시 메여근엥에 그걸로 옷 허멍 입엇수다게.(그걸로 모두 실 만들어서 모두, 모두 날, 날아놓고 다시 메워서 그걸로 옷 하면서 입었습니다.)
106001 @1 예, 그게 무슨 옷마씨? 경 허영 만든 천이?(예, 그게 무슨 옷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천이?)
106001 #1 건 미녕.(건 무명.)
106001 @1 미녕예, 예.(무명이요, 예.)
106001 #1 미녕, 미녕마씸.(무명, 무명이에요.)
106001 @1 게믄, 삼춘 미녕헐 때 그 미녕씰 멘드는 것도 봐봔?(그러면, 삼촌 무명할 때 그 무명실 만드는 것도 봤어?)
106001 #1 예게.(예.)
106001 @1 미녕씰 게민 어떵 만드는 거우꽈? 거 미녕씰 헐 때는?(무명씰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거 무명씰 할 때는?)
106001 #1 미녕씰 헐 때?(무명씰 할 때?)
106001 @1 으.(으.)
106001 #1 그 저 물레로, 물레로 줏아근에.(그 저 물레로, 물레로 자아서.)
106001 @1 예.(예.)
106001 #1 영 영 영 돌리멍 영 영 영 영 씰, 씰 영 영 영 영 영 영 놔가는디양, 나는 못허여마씸게. 어머님 드러 허당 어디 가불민 허여보젠 허민 못 허여근에 문

딱 몽똑크리당 저 굴묵[185] 짇어불곡 헷수다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실, 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아가는데요, 저는 못해요. 어머님 들이 하다가 어디 가버리면 해보려고 하면 못 해서 모두 몽똥그려다가 저 '굴묵' 때버리고 했습니다.)

106001 @1 웃음.(웃음.)

106001 #1 경 허여근에 그 문딱 메여근에 베클러레 앚져근에.(그렇게 해서 그 몽땅 메워서 베틀에 앉혀서.)

106001 @1 으.(으.)

106001 #1 뚜시 베클에서 차당 놔두민 따씨, 따시 어멍 허는 거 봐근에 아주 어린 때라노난양. 어멍 허는 거 봐근에 뚜시 베클에 앚아근엥 그걸.(다시 베틀에서 짓다가 놔두면 다시, 다시 어머니 하는 거 봐서 아주 어린 때여서요. 어머니 하는 거 봐서 다시 베틀에 앉아서 그걸.)

106001 @1 헤봔?(해봤어요?)

106001 #1 막 범벅 헤부는 거 아니우꽈?(마구 범벅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106001 @1 예.(예.)

106001 #1 허여보젠 허당 안 뒈영, 안 뒈여근에 범벅허영 막 욕 들엇수덴 허난.(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안 돼서 범벅해서 막 욕 들었다고 하니까.)

106001 @1 예.(예.)

106001 #1 게난 막 허여보젠은 막 허영 어멍 허여난 거 문딱 헤여봣수다게.(그러니 마구 해보려고 마구 해서 어머니 했던 거 모두 해봤습니다.)

106001 @1 게여신디 안 뒙니까? 건?(그랬는데 안 됩디까? 건?)

106001 #1 못허여마씸. 못허여. 너미 어려 부난양.(못해요. 못해. 너무 어려 버려서.)

명주

106002 @1 게난 그 멩지, 그 멩지예, 게믄 미녕 말고 멩지? 멩지도 이 동네서 차난마씨?(그러니까 그 명주, 그 명주요, 그러면 무명 말고 명주? 명주도 이 동네에서 짰었어요?)

106002 #1 멩지, 멩지는 결혼허영 오란 질롓수다. 나가.(명주, 명주는 결혼해서 와서 길렀습니다. 제가.)

106002 @1 아, 헷수가?(아, 했습니까?)

106002 #1 나가 나 손으로 질롯수다.(제가 제 손으로 길렀습니다.)

106002 @ 예.(예)

106002 #1 질롸근엥에 저 어디 저 넙개오름[186]에 가근엥에 무시거 허여당양.(길

18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을 말한다.

186) '넙개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서광리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표고 246.5m.로, '광쳉이오름', '광해악'이라고도 한다.

러서 저 어디 저 '넙게오름'에 가서 무엇 해다가.)

106002 @1 뽕썹.(뽕잎.)

106002 #1 뽕 허여당은에 주곡. 문 그거, 그거 문 이 저 누리룽허영은에 그 올리는 걸 알아져마씨게.(뽕 해다가 주고. 모두 그거, 그거 모두 이 저 누르무레해서 그 올리는 걸 알아져요.)

106002 @1 누에예?(누에요?)

106002 #1 예, 누에. 게민 무시거게. 저 유채 유채낭 헤당은에 과짝 세와근에 그 우티레 놔두민.(예, 누에. 그러면 무엇. 저 유채 유채줄기 해다가 곧게 세워서 그 위에 놓아두면.)

106002 @1 으.(으.)

106002 #1 그것이 문딱 저 그 문 그 베렝이 속에 들어앚아두서 문딱 자기냥으로 멘들앙 고지 짓어근에 허민 그거 뚜시 그거 저 우리 권당 할망 시난에 할망 빌어근엥에 그거 문딱 그거 문 씰 빼영마씸게.(그것이 모두 저 그 모두 그 누에 속에 들어앉아서 모두 자기대로 만들어서 고치 지어서 하면 그거 다시 그거 저 우리 권당 할머니 있으니까 할머니 빌어서 그거 모두 그거 모두 실 뽑아요.)

106002 @1 예, 그 씰 어떵 빼는 거?(예, 그 실 어떻게 빼는 거?)

106002 #1 아이, 씰은양 그 저 무시거 허는 기계가 십디다게.(아이, 실은요 그 저 무엇 하는 기계가 있습디다.)

106002 @1 음.(음.)

106002 #1 게난 그거 그자 ᄒᆞ꼼썩 톡톡 들이치멍 씰 졸졸졸졸 나와근엥에 문딱 씰 허여근엥에.(그러니 그거 그저 조금씩 톡톡 집어넣으며 실 '졸졸졸졸' 나와서 모두 실 해서.)

106002 @1 으.(으.)

106002 #1 그거 따시 문 허연 멩지도 멧 빌 헤여낫수다, 나.(그거 다시 모두 해서 명주도 몇 필 했었습니다, 저.)

106002 @1 아, 멩지도 게민 직접 차봔?(아, 명주도 그러면 직접 자아 봤어요?)

106002 #1 아이고, 하영 헤연마씸.(아이고, 많이 했어요.)

106002 @1 아.(아.)

106002 #1 하영 헤연에양 뭣 몰란 문딱 풀안마씸, 풀안.(많이 해서요 뭣 모르고 팔았어요, 팔았어.)

106002 @1 걸 잘 놔뒁어야 뒛는데.(걸 잘 놔두어야 됐는데.)

106002 #1 그거 놔둬 이녁 쓸 생각을 ᄒᆞ꼼도 아녀고 젊을 때난에.(그거 놔두고 이녁 쓸 생각을 조금도 않고 젊을 때니까.)

106002 @1 으.(으.)

106002 #1 문딱 풀안 써불언마씸. 멧 빌 ᄋᆞ라 빌 헷수다.(모두 팔아서 써버렸어요. 몇 필 여러 필 했습니다.)

106002 @1 아아.(아아.)

106002 #1 잘 뒈연마씨. 안 뒈는 사름은양 베렝이 다 죽어불엉 안 뒈여마씸.(잘 됐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누에 다 죽어버려서 안 돼요.)

106002 @1 음.(음.)

106002 #1 겐디 나는 막 잘 뒙니다게. 잘 뒈난에 하영 ᄒᆞᆫ ᄋᆞ라 빌 헷수다.(그런데 나는 막 잘 됩디다. 잘 되니까 많이 한 여러 필 했습니다.)

106002 @1 음.(음.)

106002 #1 경 허여근에 저 차는 사름은 엇어마씸. 엇으민 저 하원[187] 가근에.(그렇게 해서 저 짜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면 저 하원 가서.)

106002 @1 예.(예.)

106002 #1 하원 ᄀᆞ졍강 차 와마씸. 만들어 와마씸. 하원 강.(하원 가져가서 짜 와요. 만들어 와요. 하원 가서.)

106002 @1 음. 그 멩지씰 헌 걸로예?(음. 명주실 하 거로요?)

106002 #1 예, 멩지씰 가져가근에.(예, 명주실 가져가서.)

106003 @1 게믄 그 멩지도 종류가 잇입니까?(그러면 그 명주도 종류가 있습니까?)

106003 #1 아이고, 종룬 궂인 거 좋은 거.(아이고, 종륜 궂은 거 좋은 거.)

106003 @1 궂은 거 좋은 거.(궂은 거 좋은 거.)

106003 #1 그거벳긔, 예.(그것밖에, 예.)

106003 @ 으.(으.)

106003 #1 궂은 거 좋은 거.(궂은 거 좋은 거.)

106003 @1 뭐 토멩지영 이런 말은 안 들어보고예?(뭐 '토멩지'랑 이런 말은 안 들어봤고요?)

106003 #1 아, 토멩지[188] 무사 그거 잇수다게.(아, '토멩지' 왜 그거 있습니다.)

106003 @1 예.(예.)

106003 #1 토멩지는 이디 거.('토멩지'는 여기 거.)

106003 @1 음.(음.)

106003 #1 토멩지는 이디 거. 그 육짓멩지엔 헌 거는 좋지 아녀고.('토멩지'는 여기 거. 그 육지명주라고 한 거는 좋지 않고.)

106003 @1 으, 좋지 안 하고.(으, 좋지 안 하고.)

106003 #1 토멩지는 좋아마씨.('토멩지'는 좋아요.)

106003 @1 예.(예.)

106003 #1 이디 건 아주 모지직헌[189] 게 좋아마씨.(여기 건 아주 '모지직한' 게 좋아요.)

---

187) '하원'은 서귀포시 중문면 하원리를 말한다.

188) '토멩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제주에서 짠 명주로 육지 명주보다 무게도 있고 독특하다.

189) '모지직ᄒᆞ다'는 '한번 먹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잡는 성질이 있다.'의 뜻을 가지나 여기서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06004 @1 멩지로 주로 어떤 거 멘든 거라마씨?(명주로 주로 어떤 거 만든 거예요?)

106004 #1 멩지로 그 나도 그거 풀안보난에양.(명주로 그 나도 그거 팔아서보니까요.)

106004 @1 으.(으.)

106004 #1 그걸로 저 그 결혼헐 때에 그 남ᄌᆞ덜 아덜덜 결혼헐 때에 그걸로 도복도 허고.(그걸로 저 그 결혼할 때에 그 남자들 아들들 결혼할 때에 그걸로 도포도 하고.)

106004 @1 으.(으.)

106004 #1 바지저고리. 그걸로 다 허는 거 아니우꽈게?(바지저고리. 그걸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06004 @1 으음.(으음.)

106004 #1 바지저고리 경 허연. 아, 나도 그거 문딱 아덜덜 그 산 허여줫수다게.(바지저고리 그렇게 해서. 아, 나도 그거 모두 아들들 그 사서 해줬습니다.)

106004 @1 예.(예.)

106004 #1 난 풀아뒌에.(난 팔아두고.)

106004 @1 으.(으.)

106004 #1 뭔 몰란 문딱 풀안. 좋은 멩지 문딱 풀아뒌에. 나도 도복덜이영 다 허여줫수다게. 게난 그런 거 허염수게. 겨고 또 죽으면은 입는 거.(뭐 몰라서 모두 팔았어. 좋은 명주 모두 팔아두고. 나도 도포들이랑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입는 거.)

106004 @1 예.(예.)

106004 #1 그거 도복은 그대로 입고. 또 그 저 창옷.(그거 도포는 그대로 입고. 또 그 저 창옷.)

106004 @1 예.(예.)

106004 #1 창옷도 그걸로 만들아마씸. 그 멩지로.(창옷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 명주로.)

106004 @1 멩지로?(명주로?)

106004 #1 예, 멩지로 만들아마씸. 멩지로 만들아근엥에 창옷도 허영 입곡. 그 멩지도 그 하영 드는 겁디다.(예, 명주로 만들어요. 명주로 만들어서 창옷도 해서 입고. 그 명주도 그 많이 드는 겁니다.)

106004 @1 하영 드는 거.(많이 드는 거.)

106004 #1 ᄒᆞᆫ 사름이 ᄋᆞ섯 빌 드는 거마씨.(한 사람이 여섯 필 드는 거요.)

106004 @1 아아, ᄋᆞ섯 빌예?(아아, 여섯 필요?)

106004 #1 그거저거 다 허젠 허민 ᄋᆞ섯 빌. 전부 다 허젠 허민. 뭐 신발ᄁᆞ장 다.(그거저거 다 하려고 하면 여섯 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뭐 신발까지 다.)

106004 @1 게믄 그 옷을 무신 옷 헤여마씨? 여기서는.(그러면 그 옷을 무슨 옷

해요? 여기서는.)

106004 #1 그거.(그거.)

106004 @1 으.(으.)

106004 #1 그거는 저 죽으민 입는 거.(그거는 저 죽으면 입는 거.)

106004 @1 입는 거. 호상이렌 헙니까 저승옷엔 헙니까?(입는 거. 호상이라고 합니까, 수의라고 합니까?)

106004 #1 저승옷.(수의.)

106004 @1 여기선 저승옷예?(여기선 수의요?)

106004 #1 저승옷엔 헙니다. 저승옷.(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106004 @1 예, 저승옷예. 그다음에 아까 그 누에 질룰 때.(예, 수의요. 그다음에 아까 그 누에 기를 때.)

106004 #1 예.(예.)

106006 @1 누에 헹은에 뭐 줌자고 영허지 안 헙니까예. 그런 말 안 들언?(누에 해서 뭐 잠자고 이렇게 하지 안 합니까. 그런 말 안 들었어요?)

106006 #1 예게. 무사 아니우꽈게?(예, 무사 아닙니까?)

106006 @1 그거 굴아줍서. 어떵 허여신지?(그거 말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106006 #1 줌잘 때 ᄀᆞ만이 헤여마씸.(잠잘 때 가만히 해요.)

106006 @1 음.(음.)

106006 #1 꼼짝도 아녕은에 ᄀᆞ만이 헷당은엥에 줌잘 때는 ᄀᆞ만이 헷당은엥에 줌자나민 ᄯᅳ시 먹는 소리가 수왕수왕수왕수왕수왕[190] 소리가 나마씸.(꼼짝도 않고 가만히 했다가 잠잘 때는 가만히 했다가 잠자나면 다시 먹는 소리가 '수왕수왕수왕수왕수왕' 소리가 나요.)

106006 @1 예.(예.)

106006 #1 경 하영 질롸낫수다. 나도.(그렇게 많이 길렀었습니다. 저도.)

106006 @1 음, 게문 보통 어느 정도 질루면 씰 나와마씨? 누에는.(음,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기르면 실 나와요? 누에는.)

106006 #1 아, 그거를양.(아, 그거를요.)

106006 @1 음.(음.)

106006 #1 그거를 혼 석 둘.(그거를 한 석 달.)

106006 @1 석 둘 질롸예?(석 달 길러요?)

106006 #1 석 둘 ᄒᆞ쏠 못 질루는 거 닮수다.(석 달 조금 못 기르는 거 같아요.)

106006 @1 으.(으.)

106006 #1 그거 올르기 뒈민양 얼랑얼랑얼랑[191]허여마씸게.(그거 오르게 되면 '얼랑얼랑얼랑'해요.)

106006 @1 으.(으.)

---

190) '수왕수왕'은 누에가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인데, 표준어 '사각사각'에 대응한다.

191) '얼랑얼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말한다. 달리 '어랑어랑'이라고도 한다.

106006 #1 ᄒᆞ쏠 노리롱헌 게 얼랑얼랑허영 알아집니다.(조금 노르무레한 게 '얼랑얼랑얼랑'해 알아집니다.)
106006 @1 예.(예.)
106006 #1 경 허민 심으멍 올리는 거라마씸.(그렇게 하면 집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106006 @ 예.(예.)
106006 #1 손으로 심으멍 올렷수다.(손으로 집으면서 올렸습니다.)
106006 @1 게, 그 유채낭에 올령 놔두면.(그래, 그 요채가지에 올려놔두면.)
106006 #1 예.(예.)
106006 @1 고치가 뒈는 거?(고치가 되는 거?)
106006 #1 예, 꼬치가 뒈는 거. 자기 냥으로 문딱 집 짓엉 만들아근엥양.(예, 고치가 되는 거. 자기대로 모두 집 지어서 만들어서.)
106006 @1 으.(으.)
106006 #1 집짓엉 곱닥허게 만들앙 허민 그거 문딱 타근엥에 타민 겁데기 다 벳겨마씸.(집지어서 곱다랗게 만들어서 하면 그거 모두 따서 따면 껍데기 다 벗겨요.)
106006 @1 예.(예.)
106006 #1 우의 본데기 문딱 벳겨근엥에 그자 놔두민 또 놔뒀당은에 할망 빌엉 은엥에 그거 문딱 씰 멘들안에 경.(위에 번데기 모두 벗겨서 그저 놓아두면 또 놔뒀다가 할머니 빌어서 그거 모두 실 만들어서 그렇게.)
106006 @1 으.(으.)
106006 #1 경 옷 멧 빌 헷수다. 멧 빌.(그렇게 옷 몇 필 했습니다. 몇 필.)
106006 @1 멧 빌예?(몇 필요?)
106006 #1 멧 빌 허연.(몇 필 했어.)

무명

106007 @1 그다음에 미녕도 종류가 ᄋᆞ라 개 잇입니까?(그다음에 무명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07 #1 미녕, 예.(무명, 예.)
106007 @1 으.(으.)
106007 #1 미녕도 좋은, 좋은 거는, 일곱새 미녕은 질 나쁜 거.(무명도 좋은, 좋은 거는, 일곱새 무명은 젤 나쁜 거.)
106007 @1 일곱새는 나쁜 거.(일곱새는 나쁜 거.)
106007 #1 예, 나쁜 거. 씰이 홁어.(예, 나쁜 거. 실이 굵어.)
106007 @1 예.(예.)
106007 #1 씰이 훅고양. 일곱새ᄁᆞ장은 씰이 훅고 ᄯᅳ시 그, 그 우에.(실이 굵고요. 일곱새까지는 실이 굵고 다시 그, 그 위에.)

106007 @1 예.(예.)

106007 #1 그 우에 거는 좋은 거.(그 위에 거는 좋은 거.)

106007 @ 음.(음.)

106007 #1 좋은 거영 뭐 뭐 일곱새만 허주 뭐 멧 새 멧 새는 아년 일곱새 미녕은 좋지 아녀다, 그자 그런 말.(좋은 거랑 뭐 뭐 일곱새만 하지 뭐 몇 새 몇 새는 않아 일곱새 무명은 좋지 않다, 그저 그런 말.)

106007 @1 읏섯새 이런 거는 좋은 거네?(여섯새 이런 거는 좋은 거네?)

106007 #1 예, 그치룩 일곱새 안네 것. 안네 것덜은 좋은 거고.(예, 그처럼 일곱새 안에 것. 안에 것들은 좋은 거고.)

106007 @1 으.(으.)

106007 #1 저 일곱새 미녕은 좋지 아녀덴 경 골아낫수다.(저 일곱새 무명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106007 @ 으.(으.)

106007 #1 경 허여근에. 에이그, 옛날사 다 미녕옷마씸게. 다 미녕옷.(그렇게 해서. 에이그, 옛날에야 다 무명옷이에요. 다 무명옷.)

106007 @1 게난 기준이 일곱새라낫구나예?(게난 기준이 일곱새였었군요.)

106007 #1 예.(예.)

106007 @1 일곱새 미녕으로 허는 건 무신 거마씨?(일곱새 무명으로 하는 건 무슨 거였어요?)

106007 #1 일곱새 미녕으로 허민게 그 갈중의[192]게.(일곱새 무명으로 하면 그 '갈중의'.)

106007 @1 으.(으.)

106007 #1 옛날사 갈중의 주로 입엇수게게.(옛날에야 '갈중의' 주로 입었습니다.)

106007 @1 예.(예.)

106007 #1 갈중의. 갈중의 만들엉 입언.('갈중의'. '갈중의' 만들어서 입었어.)

106010 @1 게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광목은 뭐마씨?(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광목은 뭐예요?)

106010 #1 광목은 어디서사 나왐신디 우리는 그거 저 관계허여보지도 아녀고 나오는 디도 몰르고.(광목은 어디에서야 나오는지 우리는 그거 저 관계해보지도 않고 나오는 데도 모르고.)

106010 @1 으.(으.)

106010 #1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쿠다.(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106008 @1 그냥 삼춘네는 미녕으로 만예?(그냥 삼촌네는 무명으로 만이요?)

106008 #1 사다근에 그냥. 그자 그 저 일헐 때 사다근에.(사다가 그냥. 그저 그 저 일할 때 사다가.)

106008 @1 으.(으.)

192)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었다.

106008 #1 나냥으로 만들앙.(나대로 만들어서.)
106008 @1 음.(음.)
106008 #1 나냥으로 저 이 저 우와기[193]를 만들앙. 만들앙은엥에 저 아저씨도 입곡.(나대로 저 이 저 이 저 윗옷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저 아저씨도 입고.)
106008 @1 음.(음.)
106008 #1 우리도 입어근엥에 일허엿수다게.(우리도 입어서 일했습니다.)
106009 @1 혹시 토목이렌 헹도 들어봅디가?(혹시 토목이라고 해서도 들어봅디까?)
106009 #1 아, 토목. 토목도 십주게.(아, 토목. 토목도 있습지요.)
106009 @1 예.(예.)
106009 #1 토목. 토목이엔 헌 거 잇수다게. 그 저 멩지도 토목이엔 허곡.(토목. 토목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그 저 명주도 토목이라고 하고.)
106009 @1 으.(으.)
106009 #1 예. 그런 거 저.(예. 그런 거 저.)
106009 @1 건 어떵 거 토목이옌 헙니까?(건 어떤 거 토목이라고 합니까?)
106009 #1 그건 토목엔 헌 거 좋은 거.(그건 토목이라고 한 건 좋은 거.)
106009 @1 좋은 거예?(좋은 거요?)
106009 #1 예, 좋은 거 토목.(예, 좋은 거 토목.)
106011 @1 으, 그다음에 홍세미녕?(으. 그다음에 홍세무명?)
106011 #1 홍세미녕?(홍세무명?)
106011 @1 으.(으.)
106011 #1 홍세미녕은 결혼헐 때에.(홍세무명은 결혼할 때에.)
106011 @1 예.(예.)
106011 #1 그 저 아덜 폴젠 허민.(그 저 아들 결혼시키려 하면.)
106011 @1 으.(으.)
106011 #1 그걸 홍세엔 허여근엥에 그 흔 빌을 놔마씸.(그걸 홍세라고 해서 그 한 필을 넣어요.)
106011 @1 예.(예.)
106011 #1 그 저 그 차롱, 차롱착[194]엔 허나? 그 무슨 이제는 저 무시거 사당 헙니다게. 저 옛날은 그 함.(채롱, '차롱착'이라고 하나? 그 무슨 이제는 저 무엇 사다가 합니다. 저 옛날은 그 함.)
106011 @1 함.(함.)
106011 #1 함 허영 그 안네 홍세미녕엔 허여근엥에 흔 빌 놓곡 뭐 홍씰 뭐 무신 씰 헤여근에에 그디 놓곡.(함 해서 그 안에 홍세무명이라고 해서 한 필 넣고 뭐 홍실 뭐 무슨 실 해서 거기 넣고.)

193) '우와기'는 일본어 'うわぎ'이다. 표준어 윗옷을 말한다.
194) '차롱착'은 채롱의 한 짝을 말한다.

106011 @1 씰.(실.)
106011 #1 예, 씰. 씰 문딱 놉니다. 저 각각의 씰.(예, 실. 실 모두 넣습니다. 저 각각의 실.)
106011 @1 아.(아.)
106011 #1 씰 문딱 놔근엥에 그거 보내여마씸게.(실 모두 넣어서 그거 보내요.)
106011 @1 예.(예.)
106011 #1 사돈칩드레 보냅니다게. 보내민 그거 홍세미녕 아니우꽈?(사돈집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거 홍세무명 아니에요?)
106011 @1 으, 거기에 예장 ᄀᆞ뜬 거 쓰고.(으, 거기에 예장 같은 거 쓰고.)
106011 #1 예장 ᄀᆞ뜬 것도 놓곡.(예장 같은 거 넣고.)
106011 @1 어.(어.)
106011 #1 경허는 거 아니우꽈. 거 경 허민.(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 그렇게 하면.)
106011 @1 미녕허고 씰도 놓는 거구나예?(무명하고 실도 넣는 거군요?)
106011 #1 씰도 문딱 놉니다.(실도 모두 넣습니다.)
106011 @1 씰은 게민 어떤 색깔 놓는 거?(실은 그러면 어떤 색깔 넣는 거?)
106011 #1 색깔 색깔 홍씰, 홍씰도 놓곡.(색깔 색깔 홍실, 홍실도 넣고.)
106011 @1 예.(예.)
106011 #1 홍씰도 놓곡 씰 둬 둬 가지 서너 가지.(홍실도 넣고 실 둬 둬 가지 서너 가지.)
106011 @1 으.(으.)
106011 #1 경 놉니다.(그렇게 넣습니다.)
106012 @1 삼춘, 멘네도 갈아봅디가?(삼촌, 면화도 갈아봅디까?)
106012 #1 하이고, 멘네사. 멘넨 우린 완전 많이 갈앗수다.(하이고, 면화야. 면화 우린 완전 많이 갈았습니다.)
106012 @2 웃음.(웃음.)
106012 @1 멘네 언제 어떵 가는 거우꽈? 언제 어떵 가는 거 ᄀᆞᆯ아줍서? 그거.(면화 언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언제 어떵 가는 거 말해주세요? 그거.)
106012 #1 멘네?(면화?)
106012 @1 예.(예.)
106012 #1 멘네 뭐 ᄉᆞ월들, ᄉᆞ월들 낭은에 갈민 그 저 가을 들엉은엥에[뜰엉은엥에] 그거 탑니다게.(면화 뭐 사월, 사월 나서 갈면 그 저 가을 들어서 그거 땁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아이고, 우린 엄청 멘네 갈앙 우리 손지덜아울라 다 이불 허여줌수다게.(아이고, 우린 엄청 면화 갈아서 우리 손주들마저 다 이불 해줍니다.)
106012 @1 아아. 아직도 게난 멘네가 잇구나예.(아아. 아직도 그러니까 면화가 있군요.)
106012 #1 예게, 아직도 저기 싯고. 하나 이제 허영 놔뒷수다. 손지 적시 하나

이제 이제 결혼헐 거마씸, 이제.(예, 아직도 저기 있고. 하나 이제 해서 놓아두었습니다. 손주 몫 하나 이제 이제 결혼할 거예요. 이제.)

106012 @1 아아.(아아.)

106012 #1 저 똘손지. 큰아덜에 아, 저 똘.(저 손녀. 큰아들에 아, 저 딸.)

106012 @1 예.(예.)

106012 #1 이제 결혼헐 거난. 새해 나민 결혼헐 거난 저디 하나 헤연 놔두난 이거 ᄀᆞ져가라 허멍 허난에 너른 디 놔둡서, 허멍 안 ᄀᆞ져감수다.(이제 결혼할 거니까. 새해 나면 결혼할 거니까 저기 하나 해서 놔두니까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하니까 넓은 데 놔두세요, 하면서 안 가져갑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게난 이제 그 ᄀᆞᆺ세 왓던 왓던 아인 거 어려도 줘불언마씸.(그러니 이제 그 금방 왔던 왔던 아이는 거 어려도 줘버렸습니다.)

106012 @1 예, 예.(예, 예.)

106012 #1 아이고, 늘랑 ᄀᆞ정가불라 허연 줘불고.(아이고, 너는 가져가버려라 해서 줘버리고.)

106012 @ 으.(으.)

106012 #1 가이가 저 멘네 테우레 갑니다게.(걔가 저 면화 태우러 갑니다.)

106012 @1 아아. 예.(아아. 예.)

106012 #1 가이가 시껑 가민.(걔가 실어서 가면.)

106012 @1 예.(예.)

106012 #1 가이도 저 그 친정에서게 친정 저 창천리[195]라도.(걔도 저 그 친정에서 친정 저 창천리어도.)

106012 @ 예.(예.)

106012 #1 ᄒᆞᆫ 사십년 뒈엿수다. 저 친정이 시[196]에 간지.(한 사십년 되었습니다. 저 친정이 시에 간지.)

106012 @1 아.(아.)

106012 #1 시에 강, 겨곡 여관허멍 살아 놓난에 여관허멍 사는 도중에 우리 집의 왓수다게.(시에 가서, 그리고 여관하면서 살아 놓으니까 사는 도중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게난에 가이도 이불이 황당헙디다.(그러니 걔도 이불이 황당합디다.)

106012 @1 예.(예.)

106012 #1 저 토 이불이 저 이딧 소게가 아니.(저 토 이불이 저 여기 솜이 아니.)

106012 @1 예.(예.)

195) '창천리'는 서귀포시 중문면 창천리를 말한다.
196) '시'는 제주시를 말한다.

106012 #1 아니난 어떵 허영은에 어멍 어멍 혼번 시껑 가민 이불 ᄒᆞ나.(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 어머니 한번 실어가면 이불 하나.)

106012 @1 으. 웃음.(으. 웃음.)

106012 #1 경 허멍 이불 막 ᄋᆞ라 개 줫수다게.(그렇게 하면서 이불 막 여러 개 줬습니다.)

106012 @ 예.(예.)

106012 #1 게난 이불이 딱 ᄀᆞ득아마씸. 게난. 가이 결혼헐 때도 허여오지 말라.(그러니 이불이 딱 가득해요. 그러니까. 걔 결혼 할 때도 해오지 마라.)

106012 @1 으.(으.)

106012 #1 우린 이불 놓을 디도 엇고. 저 허여 오지 말렌 허난 아예 허여 오지 말렌 딱 막아부난 아녀왓수다. 옷도 허여오지 말라. 허난 게난 돈 이벡만 원 ᄀᆞ져와십데다.(우린 이불 넣을 데도 없고. 저 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해 오지 말라고 딱 막아버리니까 안 해왔습니다. 옷도 해오지 마라. 하니까 그러니 돈 이백만 원 가져왔습디다.)

106012 @1 으음.(으음.)

106012 #1 그 옛날에도 우리 천만 원 ᄀᆞ져갓수다게.(그 옛날에도 우리 천만 원 가져갔습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저 그때에 다 ᄒᆞᆫ 오백썩 ᄀᆞ져감신디.(저 그때에 다 한 오백씩 가져가는데.)

106012 @1 으.(으.)

106012 #1 우리는 천만 원. 가네 집이.(우리는 천만 원. 걔네 집에.)

106012 @1 아이고, 보난게 천만 원 헤도 뒈컵디다게. 메누리가 너무 싹싹허연.(아이고, 보니까 천만 원 해도 되겠습디다. 며느리가 너무 싹싹해서.)

106012 #1 천만 원 ᄀᆞ져간 놈신디 안 ᄀᆞᆯ읍니다게.(천만 원 가져가서 남에게 안 말합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천만 원. 큰메누리도 잇곡 헌디양 천만 원 ᄀᆞ져갓수다게.(천만 원. 큰 며느리도 있고 한데요 천만 원 가져갔습니다.)

106012 @ 음.(음.)

106012 #1 그때 오벡만 원씩 ᄀᆞ져갈 때게.(그때 오백만 원씩 가져갈 때.)

106012 @ 음.(음.)

106012 #1 경 ᄒᆞᆯ 땐디 우리 천만 원 ᄀᆞ져갓수다. 게난 ᄋᆞ져가난에 무시거 황당헙디다마는. 간에 음식이영 헌 거 보난.(그렇게 할 땐데 우리 천만 원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가져가니까 무엇 황당합디다. 가서 음식이랑 한 거 보니까.)

106012 @1 으으.(으으.)

106012 #1 황당허연 그거 경 허여도 뒈는 건가. 나 쏙으로만.(황당해서 그거 그

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 속으로만.)

106012 @1 웃음.(웃음.)

106012 #1 미안한 감이 엇엉 경허는 건가 생각허연 그자 그냥 살앗수다. 그 메누리 잘허여지난 원 아무 생각도 아녑니다게.(미안한 감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생각해서 그저 그냥 살았습니다. 그 며느리 잘해지니까 원 아무 생각도 안합니다.)

106012 @1 맞아, 예.(맞아, 예.)

106012 #1 게난 이불, 이불 세 개 줫수다게.(그러니 이불, 이불 세 개 줬습니다.)

106012 @1 음.(음.)

106012 #1 이불 우알 채 우알 채는 또 아덜 헤주고 원체.(이불 위아래 채 위아래 채는 또 아들 해주고 원래.)

106012 @1 따로 헤주고.(따로 해주고.)

106012 #1 예, 뜨로 헤주고. 이불 세 개. 이불 세 개랑마랑.(예, 따로 해주고. 이불 세 개며말며.)

106012 @1 으.(으.)

106012 #1 우알 채는 이거 아덜 더끄라 헤연에 뜨로 헤주고. 또.(위아래 채는 이거 아들 덮어라 해서 따로 해주고.)

106012 @1 보통 이불은 여자 집의서 허는 건디? 웃음.(보통 이불은 여자 집에서 하는 건데? 웃음.)

106012 #1 여자 집윈선게 이불은게 그거 테우지도 못허는 거양.(여자 집에서는 이불은 그거 태우지도 못하는 거요.)

106012 @1 예.(예.)

106012 #1 그, 그 소겐 못 테운덴 헙디다. 사근에 허는 거.(그, 그 솜은 못 태운다고 합디다. 사서 하는 거.)

106012 @1 예, 예, 예. 사근에 허는 거.(예, 예, 예. 사서 하는 거.)

106012 #1 무신 소게산디 경. 멧 개 허영 오지도 아녓수다게.(무슨 솜인지 그렇게. 몇 개 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멧 개허연 오지도 아녀난에 어멍은 이불 하난 그자 흔 번 강오민 이불 하나 헤주고. 흔 번 시껑 강오민.(몇 개해서 오지도 않으니까 어머니는 이불 많으니까 그저 한번 가오면 이불 하나 해주고. 한 번 실어 가오면.)

106012 @1 웃음.(웃음.)

106012 #1 요번에 요 저 ᄀᆞ슬 들어갈 때에 봄에, 저 가을에.(요번에 요 저 가을 들어갈 때에 봄에, 저 가을에.)

106012 @1 예.(예.)

106012 #1 가을에 간에 또 이불 허여 왓수다게. 이불 허난에 저 손지 하나썩 헤주켄 허멍 허난에.(가을에 가서 또 이불 해 왔습니다. 이불 하니까 저 손주 하나씩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106012 @ 으.(으.)

106012 #1 간에 이디서 산 간에 저 장에 간에 이 저 무시거. 솜 싸는 것도 큰 걸로 사십주게.(가서 여기서 사서 가서 저 장에 가서 이 저 무엇. 솜 싸는 것도 큰 걸로 샀습죠.)

106012 @1 예, 예.(예, 예.)

106012 #1 큰 걸로 산 헤신디 그딘 가난 막 ᄒᆞ쏠 족아벱디다. 족안 헤도 막 그 사름이 어떵 용심난에양.(큰 걸로 사서 했는데 거긴 가니까 막 조금 작아보입디다. 작아서 해도 막 그 사람이 어떻게 화나서요.)

106012 @1 예.(예.)

106012 #1 지네 거 안 산에, 상 왓젠. 경허는 거 닮아도 뚤 ᄒᆞ나 저 잘 못헤주난 뚤 헤주멍 가왓수다.(자기네 거 안 사서, 사서 왔다고. 그러는 거 같아도 딸 하나 저 잘 못해주니까 딸 해주면서 가왔습니다.)

106012 @ 으.(으.)

106012 #1 가신디 저 이불 손지덜 하나썩 헤주켄 허난에 느도 왕 하나 ᄀᆞᆯ리라 경 ᄀᆞᆯ앗수다.(갔는데 저 이불 손주들 하나씩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와서 하나 고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느도 왕 하나 ᄀᆞᆯ리라 허난에, 난 겁데긴 아녀쿠다.(너도 와서 하나 고르라 하니까, 전 홑청은 안하겠습니다.)

106012 @ 으.(으.)

106012 #1 겁데기 아직은 뭐허난에 솜 싸는 거나 사 줍센, 경 허난 솜 싸는 거 산에 가이 ᄀᆞ져갓수다.(홑청은 아직은 뭐하니까 솜 싸는 거나 사서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솜 싸는 거 사서 걔 가져갔습니다.)

106012 @ 예.(예.)

106012 #1 가이 ᄀᆞ져가고 큰 메, 큰 손지 건 저디 헨 놔뒀수다.(걔 가져가고 큰 며, 큰 손주 건 저기 해서 놔두었습니다.)

106012 @1 예.(예.)

106012 #1 허연 놔두고 따시 뚤엣 손지 거 하나 이제 헐 거 놔뒀수다. 이제.(해서 놔두고 다시 딸의 손주 거 하나 이제 할 거 놔뒀습니다. 이제.)

106012 @1 아이고, 원, 원. 웃음.(아이고 원, 원. 웃음.)

106012 #1 게난.(그러니까.)

모시

106013 @1 여기 모시?(여기 모시?)

106013 #1 모시?(모시?)

106013 @1 으, 모시도 갈아마씨?(으, 모시도 갈아요?)

106013 #1 아이고, 모시 어떵 허연 촌에서 헙니까? 건 육지서 나오는 거 아니우

꽈?(아이고, 모시 어떻게 해서 촌에서 합니까? 건 육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6013 @1 건 육지 허는 거예?(건 육지 하는 거요?)
106013 #1 건 육지서 나오는 거.(건 육지에서 나오는 거.)
106014 @1 모시론 어떤 옷 멘듭니까? 모시로는?(모시론 어떤 옷 만듭니까?)
106014 #1 모시로.(모시로.)
106014 @1 예.(예.)
106014 #1 모시로는 그 저 팔월멩질에양.(모시로는 그 저 팔월명질에요.)
106014 @1 예.(예.)
106014 #1 팔월멩질에 중의적삼. 중의적삼 그 하양헌 모시로 허영. 아이고, 모시 엄청 비쌋수다게.(팔월명질에 중의적삼, 중의적삼 그 흰 모시로 해서. 아이고, 모시 엄청 비쌌습니다.)
106014 @ 음.(음.)
106014 #1 이제, 중의적삼 허젠 허민 중의적삼 입고 모시로 저 창옷 헹영 입엉. 하양케 입엉은에에.(이제, 중의적삼 하려고 하면 중의적삼 입고 모시로 저 창옷 해서 입어서. 하얗게 입어서.)
106014 @1 제지내고.(제지내고.)
106014 #1 그 제지나는디 제도 맞고. 언마나 좁니깡게. 그거게.(그 제지내는데 제도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106014 @1 예, 맞아.(예, 맞아.)
106014 #1 춤, 놈 보기도 좋고양. 팔월멩질에.(참, 남 보기도 좋고요. 팔월명절에.)
106014 @1 예.(예.)
106014 #1 경 허여근에 그 모시는 육지서 나옵니다.(그렇게 해서 그 모시는 육지서 나옵니다.)
106014 @ 예.(예.)
106014 #1 육지서 나오주, 여기서 저 제주에서는 안 나옵니다.(육지서 나오지, 여기서 저 제주에서는 안 나옵니다.)

삼베

106016 @ 그 삼베허는 삼도 제주에선 안 헤예?(그 삼베하는 삼도 제주에선 안 해요?)
106016 #1 제주서 아녑니다. 육지에서, 육지에서 나오는 거.(제주서 안합니다. 육지에서, 육지에서 나오는 거.)
106017 @ 베는 어떤 옷 만드는 거우과?(베는 어떤 옷 만드는 겁니까?)
106017 #1 베?(베?)
106017 @ 으, 삼베론.(으, 삼베론?)
106017 #1 삼베는 저 무시거 줌진베[197]는 우리, 우리 그 저.(삼베는 저 무엇 '줌

진베'는 우리, 우리 그 저.)
106017 @1 예.(예.)
106017 #1 그 하얀 거.(그 하얀 거.)
106017 @1 예.(예.)
106017 #1 즘진베 하얀 거는 그 모시가 너무 비싸부난에.('즘진베' 하얀 거는 그 모시가 너무 비싸버려서.)
106017 @1 예.(예.)
106017 #1 비싸부난에 중의적삼 만들앙 입곡.(비싸버리니까 중의적삼 만들어서 입고.)
106017 @1 으.(으.)
106017 #1 또 우리도 우리도 허연 입엄수게.(또 우리도 우리도 해서 입습니다.)
106017 @1 음.(음.)
106017 #1 우리도 허여근에 하양헌 거 우의 입어근에 여름에.(우리도 해서 흰 거 위에 입어서 여름에.)
106017 @1 예.(예.)
106017 #1 하양헌 거 허여근에 저 사다근에 나도 두 개나 잇수다게.(흰 거 해서 저 사다가 저도 두 개나 있습니다.)
106017 @1 예.(예.)
106017 #1 사당 입고. 경 허는 거 아니우꽈게? 그치록.(사다가 입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106017 @1 그다음에 삼베, 노랑헌 거는?(그다음에 삼베, 노란 거는?)
106017 #1 노랑헌 거 노인이나 입주. 나도 노인인디 경 골아점수다게.(노란 거 노인이나 입지. 나도 노인인데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106017 @2 웃음.(웃음.)
106017 #1 그것덜토 입읍니다게. 영 저 무시거.(그것들도 입습니다. 이렇게 저 무엇.)
106017 @1 옛날 상복도 멘들고.(옛날 상복도 만들고.)
106017 #1 그 즘진 거?(그 '즘진' 거?)
106017 @1 아니. 홁은 걸로, 으.(아니, 굵은 걸로, 으.)
106017 #1 홁은 건게 상복도 만들곡게.(굵은 건 상복도 만들고.)
106017 @ 으.(으.)
106017 #1 상복 거 비싸지 아녑니다. 홁은 거.(상복 거 비싸지 않습니다. 굵은 거.)
106017 @ 홁은 건.(굵은 건.)
106017 #1 구천 원게.(구천 원.)
106017 @1 아아.(아아.)

197) '즘진베'는 올이 곱고 색상이 아름다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고급 삼베를 말한다.

106017 #1 흔 빌에 구천 원.(한 필에 구천 원.)
106017 @1 옛날에 직접 짠 거는 막 비싼 거 아니우꽈?(옛날에 직접 짠 거는 막 비싼 거 아닙니까?)
106017 #1 그 비싼 거는양 저 이제 요지금 그 저 죽으면은양.(그 비싼 거는요 저 이제 요즘 그 저 죽으면요.)
106017 @1 예.(예.)
106017 #1 거 무끄는 거.(거 묶는 거.)
106017 @1 음.(음.)
106017 #1 이 저, 이 저.(이 저, 이 저.)
106017 @1 메치베?(염포?)
106017 #1 예, 메치베.(예, 염포.)
106017 @1 예.(예.)
106017 #1 예, 송장 무끄는 거. 그거, 그거 좋은 거라사 무끄주. 경 아녀민 짤라지곡 또 좋은 걸 쓰주 또 궂은 거 쓰젠도 아녀마씸.(예, 송장 묶는 거. 그거, 그거 좋은 거라야 묶지. 그렇지 않으면 잘라지고 또 좋은 걸 쓰지 또 궂은 거 쓰려하지도 않아요.)
106017 @1 예.(예.)
106017 #1 게난 나도 저 흔 빌 쓰고, 흔 빌은 쓰고 흔 빌은 싯수다게.(그러니 저도 저 한 필은 쓰고, 한 필은 쓰고 한 필은 있습니다.)
106017 @1 음.(음.)
106017 #1 그 저 메칫베로 쓰는 건 좋은 거 헤야마씨. 원 궂은 거 아넘니다.(그 저 염포로 쓰는 건 좋은 거 해야 돼요. 원 궂은 거 안합니다.)
106017 @1 예.(예.)
106017 #1 궂인 거 안 허여마씸.(궂은 거 안 해요.)
106017 @1 옛날덜은 다 상복허젠 허민 다 그런 걸로 헌 거 아니라예? 좋은 걸로예?(옛날들은 다 상복하려고 하면 다 그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요?)
106017 #1 아이그, 무사 아니우꽝게, 무사 아니우꽈?(아이고,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106017 @1 음.(음.)
106017 #1 복잡허기가양 이제사 얼마나 좋앗수가?(복잡하기가요 이제야 얼마나 좋았습니까?)
106017 @1 게난.(그러니까.)
106017 #1 큰일 헐 때에.(큰일 할 때에.)
106017 @ 웃음. 다 돈만 주믄 뒈고.(웃음. 다 돈만 주면 되고.)
106017 #1 예게, 이제 돈만 주민 뭐, 문딱 돈만 주민 착착착착 불러근에 그자.(예, 이제 돈만 주면 뭐, 모두 돈만 주면 착착착착 불러서 그저.)
106017 @1 으.(으.)

106017 #1 아이고, 츰 잘도 좋앗수다게. 잘도.(아이고, 참 잘도 좋았습니다. 잘도.)

도구

106019 @1 맞수다. 옛날에 그 삼춘, 멘네 갈면 멘네 씨 빠젠 허민 어떤 식으로 빤 거?(맞습니다. 옛날에 그 삼촌, 면화 갈면 면화 씨 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뺀 거?)

106019 #1 아, 물레.(아, 물레.)

106019 @1 예. 것도 물레구나.(예. 것도 물레입니까?)

106019 #1 예, 거 물레. 물레 영 돌리는 거.(예, 거 물레. 물레 이렇게 돌리는 거.)

106019 @1 예.(예.)

106019 #1 그걸로 씨 빱니다.(그걸로 씨 뺍니다.)

106019 @1 음.(음.)

106019 #1 겐디 요즘은양 물레 만드는 사름도 엇고 고칠 사름도 엇고.(그런데 요즘은요 물레 만드는 사람도 없고 고칠 사람도 없고.)

106019 @1 으.(으.)

106019 #1 저 씨 빠는 디 가민 다 빠줌수게.(저 씨 빼는 데 가면 다 빼줍니다.)

106019 @1 다 빠줭예. 옛날은 집에서 다 경 허멍은에.(다 빼줘요. 옛날은 집에서 다 그렇게 하면서.)

106019 #1 이젠 경 헙니다, 이젠.(이젠 그렇게 합니다, 이젠.)

106019 @ 음.(음.)

106019 #1 옛날은 물레로 헷수다. 물레로. 나도 물레로 허여난 사름이난.(옛날은 물레로 했습니다. 물레로. 저도 물레로 했던 사람이니까.)

106019 @ 예.(예.)

106019 #1 물레로 허단 이젠 다 버리고. 저디 가민 무짝 헤주난에.(물레로 하다가 이젠 다 버리고. 저기 가면 모두 해주니까.)

106019 @1 으.(으.)

106019 #1 너무 하영 헤영양 일 년에 삼백 근썩 헷수게게.(너무 많이 해서요 일 년에 삼백 근씩 했습니다.)

106019 @1 아아.(아아.)

106019 #1 씨채.(씨째.)

106019 @1 씨채.(씨째.)

106019 #1 씨채 삼백 근썩 헤여근에 하영 갈아 놓난양.(씨째 삼백 근씩 해서 많이 갈아 놓으니까.)

106019 @1 음.(음.)

106019 #1 하영 갈아 놓난 삼백 근썩 헤여근에 이 옥상우의 막 널어낫수다.(많

이 갈아 놓으니까 삼백 근씩 해서 이 옥상위에 마구 널었었습니다.)
106019 @1 으.(으.)
106019 #1 저 이거, 이거 짓건 디 오래지 아녓수다마는. 저 저 그 물땅꾸.(저 이거, 이거 지은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만. 저 저 그 물탱크.)
106019 @1 예.(예.)
106019 #1 막 크게 헤낫수다. 옛날에.(막 크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106019 @1 예.(예.)
106019 #1 게난. 그 우의 막 널어낫수다게.(그러니, 그 위에 막 널었었습니다.)
106019 @1 으.(으.)
106019 #1 게민 재게 씨 안 빠불민양 버르, 벌거지가 들어가마씸.(그러면 재게 씨 안 빼버리면 벌레, 벌레가 들어가요.)
106019 @ 아아.(아아.)
106019 #1 그 저 씨가 검은 씨 검은 씨 잇지양?(그 저 씨가 검은 씨 검은 씨 있지요?)
106019 @1 예에.(예에.)
106019 #1 그디 벌거지가 들어앚아마씸.(거기 벌레가 들어앉아요.)
106019 @1 아.(아.)
106019 #1 벌거지 막 합니다게. 거 저 그 무시것엔 저.(벌레 막 많습니다. 거 저 그 무엇에 저.)
106019 @1 멘네 그 씨에?(면화 그 씨에)
106019 #1 예, 그거에 막 벌거지가 하는 따문 바싹 ᄆᆞᆯ령 빨리 강 빠와 불어사마씸게.(예, 그거에 매우 벌레가 많기 때문 바싹 말려서 빨리 가서 빼와 버려야 해요.)
106019 @1 으.(으.)
106019 #1 게난 이 방에나 못 놔둡니다게.(그러니 이 방에다 못 놔둡니다.)
106019 @1 예.(예.)
106019 #1 벌거지가 나왕.(벌레가 나와서.)
106019 @1 아아.(아아.)
106019 #1 게난 재게 강 빠와 불어사마씸. 그 간근에 빠와 불어사 안 나와마씨.(그러니 재게 가서 빼와 버려야 해요. 그 가서 빼와 버려야 안 나와요.)
106019 @1 그 멘네 허민 그 읏름예, 그건 뭐렌 헤?(그 면화 하면 그 열매요, 그건 뭐라고 해?)
106019 #1 멘넷ᄃᆞ레기.(면화다래.)
106019 @1 으. 멘넷ᄃᆞ레기도 막 먹엇어, 옛날예.(으. 면화다래도 마구 먹었어, 옛날에요.)
106019 #1 아, 그거 연헌 때 먹어마씸. 우리도 드러 먹엇수다.(아, 그거 연할 때 먹어요. 우리도 들이 먹었습니다.)
106019 @1 으.(으.)

106019 #1 연헐 땐 문 먹엇수게.(연할 때 모두 먹었습니다.)
106021 @1 그다음에 아까 삼춘, 베클도 헤엿덴 헨게마는.(그다음에 아까 삼촌, 베틀도 했다고 하더니만.)
106021 #1 으.(으.)
106021 @1 베클 허면 그 도구들 잇잔녀우꽈? 이름들 알아지쿠과?(베틀 하면 그 도구들 있잖아요? 이름들 알겠습니까?)
106021 #1 아이고, 그거, 그거 무시거 알아지커라 어디.(아이고, 그거, 그거 무엇 알아질까 어디.)
106021 @1 으, 알아지는 것만 골아봅서?(으, 알아지는 것만 말해보세요?)
106021 #1 베클은 문딱 우리 어머니가 문딱 허영 놔근엥에 들구 저 마리 우펜이 놩 드러 허여신디.(베틀은 모두 우리 어머니가 모두 해 놓아서 계속 저 마루 위쪽에 놓고 들이 했는데.)
106021 @1 으.(으.)
106021 #1 아이고, 너미 오래여 놓난양 베클벳긔 몰라.(아이고, 너무 오래 놓으니까 베틀밖에 몰라.)
106021 @1 예.(예.)
106021 #1 베클벳긔 몰르쿠다게.(베틀밖에 모르겠어요.)
106021 @1 예, 홍짓?(예, 홍두깨?)
106021 #1 홍짓대. 홍짓대는 그거 저 무시거.(홍두깨. 홍두깨는 그거 저 무엇.)
106021 @1 다듬이 허는 거고.(다듬이 하는 거고.)
106021 #1 다듬이 허는 거, 나도 드러 써나난 그건 아는디게.(다듬이 하는 거, 나도 들이 써나니까 그건 아는데.)
106021 @1 음.(음.)
106021 #1 아이고양, 그거 잘도 오래여 놓난.(아이고요, 그거 잘도 오래 놓으니까.)
106021 @1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6021 #1 잘도 몰르켜.(잘도 모르겠어.)
106021 @1 어, 홀 수 엇수다. 안 헤부난게 어머니가 헤부난 몰르는 거주게.(어, 할 수 없습니다. 안 해버려서 어머니가 해버려서 모르는 거지요.)
106021 #1 아, 어머니 허여도 거 문딱 알앗단 다 잊어불엇수게, 이제.(아, 어머니 해도 거 몽땅 알았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106021 @ 예.(예.)
106021 #1 거 나도 ᄒᆞ꼼 허여나시민 알긴 알건디게.(거 나도 조금 했었더라면 알긴 알건데.)
106021 @1 맞아.(맞아.)

바느질

106022 @1 그다음에 바농질.(그다음에 바느질.)
106022 #1 바농질?(바느질?)
106022 @1 으. 삼춘, 옛날에 바농질은 하영 헷덴 헷잖아예?(으. 삼촌, 옛날에 바느질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106022 #1 아이고, 바농질은 하영 헷수다게.(아이고, 바느질은 많이 했습니다.)
106022 @1 어떤 바농질덜 허는 거우꽈?(어떤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106022 #1 바농질은게 그 저.(바느질은 그 저.)
106022 @1 손으로 허는 것도 허고?(손으로 하는 것도 하고.)
106022 #1 손으로 허는 건게 어린 때 왓수다마는 그 저 멩지 흔 불 할머니가 그거 놧젠마씸께.(손으로 하는 건 어린 때 왔습니다만 그 저 명주 한 벌 할머니가 그거 놓았대요.)
106022 @ 으.(으.)
106022 #1 저 할머니가 놓난에 오란에 누게신디 들음을 허카 옷 헐 중은 아난에양.(저 할머니가 놓으니까 와서 누구에게 듣기를 할까 옷 할 줄은 아니까.)
106022 @1 예.(예.)
106022 #1 나냥으로 문딱 만들, 만들안에 문 갈중의[198] 문딱 만들안에 그거 문짓 부변에 그 저 무시거 갈중이도 만들곡 따시 그 저 아저씨 또 그 이 정월멩질 돌아와 가민.(나대로 몽땅 만들, 만들어서 모두 '갈중의' 몽땅 만들어서 그거 모두 깃 비벼서 그 저 '갈중의'도 만들고 다시 그 저 아저씨 또 그 이 정월명질 돌아와 가면.)
106022 @1 으.(으.)
106022 #1 문딱 아기 돌아도 풀허여근에양.(모두 아기 돌보아도 풀해서요.)
106022 @1 예.(예.)
106022 #1 풀허영 메틀 문 풀허여근엥에 그 다듬이 문 허여근엥에 그거. 경 헌디양 그 저 광목으로양.(풀해서 며칠 모두 풀해서 그 다듬이 모두 해서 그거. 그렇게 했는데 그 저 광목으로요.)
106022 @1 예.(예.)
106022 #1 광목으로 무시걸 만들아십디다게.(광목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디다.)
106022 @1 으.(으.)
106022 #1 저 창옷을 광목으로 만들안.(저 창옷을 광목으로 만들어.)
106022 @1 음.(음.)
106022 #1 두루마긴가 창옷인가 광목으로 만드난 바농이 잘 안 듭디다.(두루마긴가 창옷인가 광목으로 만드니까 바늘이 잘 안 듭디다.)
106022 @1 예.(예.)
106022 #1 바농 안 들엉 막 허기가 경 궂은 거라마씨. 게난게 숫, 숫도 잇어야 뭘 거 아니우꽈게.(바늘 안 들어서 매우 하기에 그렇게 궂은 거예요. 그러니 숯, 숯

198)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었다.

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6022 @1 예, 예.(예, 예.)
106022 #1 숫 믄 만들앙근엥에 윤디.(숯 모두 만들어서 인두.)
106022 @1 예.(예.)
106022 #1 윤디 허영은에 궈근에 그거 다리멍 믄 만들멍 드러 입엇수다게. 입단에 그 저 어머니가게 멩진 질롸도 잘 아이 뒈연마씸게.(인두 해서 달구어서 그거 다리면서 모두 만들면서 들이 입었습니다. 입다가 그 저 어머니가 명준 길러도 잘 아니 됐어요.)
106022 @1 음.(으.)
106022 #1 안 뒈연에 흔드락허연에 좋질 아녕 옷을 잘 못헙디다게.(안 돼서 늘 큰해서 좋지를 않아서 옷을 잘 못합디다.)
106022 @1 음.(음.)
106022 #1 잘 못허난에 그건 헤엿수다. 저 흔 빌 헤연에 어머니 허여준 건 안 놓고.(잘 못하니까 그건 했습니다. 저 한 필 해서 어머니 해준 건 안 넣고.)
106022 @1 음.(음.)
106022 #1 나 헌 건 겁데기 허연에 경 헤연에 저 옷 헨에 입으멍 허단에 나중에라 가난게, 이제 좋은 것덜 나오난에, 그건 그자 허영 내불고 따시 저 무시거 장에 거 사단에 만들안에 입엇수다. 입언에 살앗수다게.(내가 한 건 호청 해서 그렇게 해서 저 옷 해서 입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제 좋은 것들 나오니까, 그건 그저 해서 내버리고 다시 저 무엇 장에 거 사다가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입어서 살았습니다.)
106023 @1 게믄 그 바농질헐 때 허면 바농질 종류도 으라 개지예? 영 박는 것도 잇고.(그러면 그 바느질할 때 하면 바느질 종류도 여러 가지지요? 이렇게 박는 것도 있고.)
106023 #1 박는, 박는 건 미승.(박는, 박는 건 재봉틀.)
106023 @1 음.(음.)
106023 #1 미승에.(재봉틀에.)
106023 @1 손으로 허면은 뎅침헌덴 헙니까? 뭐렌 헙니까?(손으로 하면 박음질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6023 #1 뎅침헐 건 뎅침허고.(박음질할 건 박음질하고.)
106023 @1 으.(으.)
106023 #1 그냥 호을 건 호으고.(그냥 홀 건 호고.)
106023 @1 예.(예.)
106023 #1 경 헷수다게. 게난.(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106023 @1 그다음에 단 허는 건?(그다음에 단 하는 건?)
106023 #1 으?(으?)
106023 @1 단, 단 허젠 허면 어떤 바느질로 헤?(단, 단 하려고 하면 어떤 바느

질로 해요?)

106023 #1 단 허는 거 미승을 주로 썻수다. 처음에, 질 처음에 ᄒᆞ꼼 허여가단 미승, 미승, 미승 썻수게.(단 하는 거 재봉틀을 주로 썼습니다. 처음에, 젤 처음에 조금 해가다가 재봉틀, 재봉틀, 재봉틀 썼습니다.)

106023 @1 게믄 아까 이제 단 허는, 저기 박는 거는 뎅침허고.(그러면 아까 이제 단 하는, 저기 박는 것은 박음질하고.)

106023 #1 예.(예.)

106023 @1 그다음에 이불 ᄀᆞ뜨는 건 호는 거고, 감치는 건 뭐우꽈?(그다음에 이불 같은 거는 호는 거고, 감치는 건 뭡니까?)

106023 #1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으.(으.)

106023 #1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으.(으.)

106023 #1 감치는 건 영 허여근에 이거 영 두 개 잡앙 영 영 영 영 감쳐 가는 거. 영 영 감추는 거.(감치는 건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두 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쳐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감치는 거.)

106023 @1 감쳐 가는 거.(감쳐 가는 거.)

106023 #1 감쳐 가는 거.(감쳐 가는 거.)

106023 @ 옛날 그 상복헤도.(옛날 그 상복해도.)

106023 #1 예, 예.(예, 예.)

106023 @1 단허기도 허고 감치기도 헌덴 헷잖아예?(단하기도 하고 감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106023 #1 예게, 저 아버지 죽으민 오그리고.(예. 저 아버지 죽으면 오그리고.)

106023 @1 음.(음.)

106023 #1 어머니 죽으민 따시 그냥 그냥 감추곡.(어머니 죽으면 다시 그냥 그냥 감치고.)

106023 @1 으.(으.)

106023 #1 경 허는 거마씸.(그렇게 하는 거예요.)

106023 @ 경 허는 거예. 예.(그렇게 하는 거요. 예.)

옷 종류

106024 @1 그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어마씨?(그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있어요?)

106024 #1 남ᄌᆞ 옷 종루?(남자 옷 종류?)

106024 @1 예, 남자들은 어떤 옷 입엇수가? 예전에?(예, 남자들은 어떤 옷 입었습니까? 예전에?)

106024 #1 그 전엔 남ᄌᆞ옷은 뭐 이거 웬쪽 ᄂᆞ든짝 그걸로부떠 가려마씨.(그 전

에 남자 옷은 뭐 이거 왼쪽 오른쪽 그거로부터 가려요.)

106024 @1 예.(예.)

106024 #1 우리는 저 여자는 영 허곡 남즈는 이렇게 허곡.(우리는 저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106024 @1 어, 남자는 웬쪽, 웬쪽이 올라오고.(어, 남자는 왼쪽, 왼쪽이 올라오고.)

106024 #1 예. 게난 그 남즈옷은 남즈옷대로 만들곡, 여자옷은 여자옷대로 만드난에.(예. 그러니 그 남자 옷은 남자 옷대로 만들고, 여자 옷은 여자 옷대로 만드니까.)

106024 @1 게난 그 종류? 남자덜 입어난 옷 종류?(그러니 그 종류? 남자들 입었던 옷 종류?)

106024 #1 옷 종룬 그거.(옷 종륜 그거.)

106024 @1 바지저고리영.(바지저고리랑.)

106024 #1 바지저고리나벳기 무스거 옷 종루 뭐, 뭐 바지저고리나벳기 틀린 거 엇입니다게.(바지저고리밖에 무슨 옷 종류 뭐, 뭐 바지저고리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106024 @1 바지저고리 입고 그 우에 입는 건 뭐우꽈?(바지저고리 입고 그 위에 입는 건 뭡니까?)

106024 #1 쪼께.(조끼.)

106024 @1 쪼께.(조끼.)

106024 #1 쪼께 입어나근에 이젠 마고지. 이젠 저 조께 입어낭 마고지 입고 마고지 입어낭 두루막 입곡.(조끼 입고 나서 이젠 마고자. 이젠 조끼 입고 나서 마고자 입고 마고자 입고 나서 두루마기 입고.)

106024 @1 으.(으.)

106024 #1 겨난에 이제덜은 뭐 간단협주게.(그러니 이제는 뭐 간단합지요.)

106024 @ 예. 옛날 보다는요?(예. 옛날 보다요?)

106024 #1 간단허난.(간단하니까.)

106024 @1 게믄 예전에 제지낼 때 두루막 우에 창옷 입는 거우꽈? 아니면 저고리 우에 창옷 입는 거우꽈?(그러면 예전에 제지낼 때 두루마기 위에 창옷 입는 겁니까? 아니면 저고리 위에 창옷 입는 겁니까?)

106024 #1 창옷?(창옷?)

106024 @1 으.(으.)

106024 #1 창옷은 그 여름이난에, 여름이난에 그 저 쪼께 입어낭 조께도 얄룬 거 아니우꽈게?(창옷은 그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그 저 조끼 입고 나서 조끼도 얇은 거 아닙니까?)

106024 @1 예, 예.(예, 예.)

106024 #1 여름옷이난. 게난 조께 입어낭 창옷 입읍니다게.(여름옷이니까. 그러

니 조끼 입고 나서 창옷 입습니다.)
106024 @1 으. 게영 도복도 입고.(으, 그러고는 도포도 입고.)
106024 #1 도복. 도복은, 도복은 그 저 창옷 입지 말아근에 그냥 제 봅니다게.(도포. 도포는, 도포는 그저 창옷 입지 않고 그냥 제 봅니다.)
106024 @1 아.(아.)
106024 #1 도복만 입엉.(도포만 입어서.)
106024 @1 도복만 입엉.(도포만 입어서.)
106024 #1 도복만 입엉.(도포만 입어서.)
106024 @1 그냥 평소에는 이제 창옷 입는 거고 제 지낼 땐 도복?(그냥 평소에는 이제 창옷 입는 거고 제 지낼 땐 도포?)
106024 #1 예.(예.)
106024 @1 예.(예.)
106024 #1 게난 우린 하르버지가 다섯 하르버지난.(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다섯 할아버지니까.)
106024 @1 으.(으.)
106024 #1 창옷을 그 저 무시것에 싸근에.(창옷을 그 무엇에 싸서.)
106024 @ 예.(예.)
106024 #1 저 포따리에 싸근에 영 허영 이디 영 허영 옵니다.(저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옵니다.)
106024 @1 어께에 찔렁예? 예, 예.(어깨에 찔러서요?)
106024 #1 어깨에. 하르버지가 키가 완전 큰 하르버지덜 저 일곱 오누인디.(어깨에. 할아버지가 키가 완전 큰 할아버지들 저 일곱 오누인데.)
106024 @1 예.(예.)
106024 #1 아덜만 다섯 갠디 우리 저 씨하르버지네 동기간이.(아들만 다섯 명인데 우리 저 시할아버지네 동기간이.)
106024 @1 으.(으.)
106024 #1 다섯, 다섯 성제마씸게. 게민 영 허연 옵디다. 이디 읖의 왕 놔뒷당은에 그 도복 입어근엥에 문딱 제봐마씸게.(다섯, 다섯 형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옵디다. 여기 옆에 와서 놓아두었다가 그 도포를 입어서 모두 제를 봐요.)
106024 @1 예.(예.)
106024 #1 도복 입곡 이디 저 무시거 유건 쓰곡.(도포 입고 여기 저 무엇 유건 쓰고.)
106024 @1 유건 쓰곡.(유건 쓰고.)
106024 #1 예, 유건 쓰곡. 우리 유건이명 문딱 잇수다게.(예, 유건 쓰고. 우리 유건이며 몽땅 있습니다.)
106024 @1 아, 지금도 잇어마씨.(아, 지금도 있어요?)
106024 #1 예, 잇수다, 유건. 유건 끈어졍은 안 뭽주마씸게. 이런 집이.(예, 있습

니다. 유건. 유건 끊어져서는 안 됩지요. 이런 집에.)

106024 @1 요즘도 식게 때는 유건 썽 다 제 봐마씨?(요즘도 제사 때는 유건 써서 다 제 봐요?)

106024 #1 아, 유건 쓰곡양, 이 저 도복이 큰 것이 아니고.(아, 유건 쓰고요, 이 저 도포가 큰 것이 아니고.)

106024 @1 으.(으.)

106024 #1 그 푸린 옷 그거.(그 푸른 옷 그거.)

106024 @1 예.(예.)

106024 #1 그거 헐어가난 뚜시 만들앗수다게, 사단.(그거 헐어가니까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다가.)

106024 @1 아.(아.)

106024 #1 만들안, 기지[199]를 잘못 사와젼에 좋지 아년에 이제 원 따시 하나 헤보카 생각 헴수다게 원.(만들어서, 천을 잘못 사와져서 좋지 않아 이제 원 다시 하나 해볼까 생각 합니다 원.)

106024 @1 그 푸린 옷은 무신 옷 헙니까?(그 푸른 옷은 무슨 옷 합니까?)

106024 #1 것도 잊어불엇저, 오꼿허게. 그건양 완전 큰제에 입는 거마씸게.(것도 잊어버렸지, 그만. 그건요 완전 큰제에 입는 거예요.)

106024 @1 제, 제복허는 거?(제, 제복하는 거?)

106024 #1 제복, 제복예.(제복, 제복이요.)

106024 @1 제복, 아아.(제복, 아아.)

106024 #1 그건 빌어갑니다게.(그건 빌려갑니다.)

106024 @1 예.(예.)

106024 #1 저 큰제헐 때, 이 덕순 큰제헙니다게.(저 큰제할 때, 이 덕순 큰제합니다.)

106024 @1 저 포제헐 때?(저 포제할 때?)

106024 #1 예, 예. 저 무시거 헐 때 빌어가는 옷.(예, 예. 저 무엇 할 때 빌어가는 옷.)

106024 @ 아아.(아아.)

106024 #1 그런 건. 경 엿날은 그랑그랑그랑허게 헤근엥에 입지 아녑니까?(그런 건. 그렇게 옛날은 치렁치렁치렁하게 해서 입지 않습니까?)

106024 @1 예.(예.)

106024 #1 견디 이젠 그건 엇어졋수다.(그런데 이젠 그건 없어졌습니다.)

106024 @1 으, 그건 없고예.(으, 그건 없고요?)

106024 #1 제복은 우린 두 불이우다게. 엿날 그 좋지 아녀난에 또 헤단 허난에 것도 아이 좋수다게.(제복은 우린 두 벌입니다. 옛날 그 않으니까 또 해다가 하니까 것도 안 좋습니다.)

---

199) '기지'는 일본어 'きじ'다. 우리말로 옷감, 천을 말한다.

106024 @ 으.(으.)
106024 #1 게난 우리 아덜 그거 입읍네다.(그러니 우리 아들 그거 입습니다.)
106024 @1 예에.(예에.)
106024 #1 이제 써마씸. 이제 거. ᄀᆞ만이 저디 놔둬두서 그.(이제 써요. 이제 거. 가만히 저기 놓아두고 그.)
106024 @1 식게 때 흔번 와봐사켜. 진짜로 그 옷 입은 거 보레.(제사 때 한번 와봐야겠다. 진짜로 그 옷 입은 거 보러.)
106024 #1 웃음.(웃음.)
106024 @ 요즘 유건 쓰고 제보는 디가 하지 아녀주마씨.(요즘 유건 쓰고 제보는 데가 많니 않지요.)
106024 #1 아이고, 우리 씁니다게. 유건.(아이고, 우리 씁니다. 유건.)
106024 @1 예.(예.)
106024 #1 유건 옛날 유건은양.(유건, 옛날 유건은요.)
106024 @1 예.(예.)
106024 #1 저 그 홁은베로.(저 그 굵은베로.)
106024 @ 으.(으.)
106024 #1 홁은베로 줍안 허난에 홁은베로 줍안에 감 들연. 감 들연 헤십디다게.(굵은베로 집어서 하니까 굵은베로 집어서 감 들여서. 감 들여서 했습디다.)
106024 @1 음.(음.)
106024 #1 게난 안 좋안에 저 사왓수다, 나.(그러니 안 좋아서 저 사왔습니다, 제가.)
106024 @1 그 유건은 잇어마씨? 옛날 거?(그 유건은 있어요? 옛날 거?)
106024 #1 예.(예.)
106024 @1 아, 나중에 왕 사진 찍으쿠다.(아, 나중에 와서 사진 찍을게요.)
106024 #1 잇수다.(있습니다.)
106024 @1 그 유건허고, 옛날 거니까 다 사진 찍어야커라?(그 유건하고, 옛날 거니까 다 사진 찍어야겠어.)
106024 #1 싯수다, 셔.(있습니다, 있어.)
106025 @1 그다음에 삼춘, 여자옷은 어떤 거혜?(그다음에 삼촌, 여자옷은 어떤 거해?)
106025 #1 여자옷 저 제사 때 말이우꽈?(여자옷 저 제사 때 말입니까?)
106025 @1 아니, 평소에 하면. 옛날에 한복덜?(아니, 평소에 하면. 옛날에 한복들.)
106025 #1 한복?(한복?)
106025 @1 치메저고리. 으.(치마저고리. 으.)
106025 #1 치메저고리게 무사 이제 이제 것광은 틀립주마씸게.(치마저고리 왜 이제 이제 것과는 다릅지요.)

106025 @1 예.(예.)
106025 #1 이제 것광은 틀려.(이제 것과는 달라.)
106025 @1 음.(음.)
106025 #1 저 옛날 한복이 곱주양 이제 그 개량한복은 고와붸지 아녑니다. 나 눈엔.(저 옛날 한복이 곱지요 이제 그 개량한복은 고와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엔.)
106025 @1 예.(예.)
106025 #1 고와베지 아녀.(고와보이지 않아.)
106025 @1 옛날 것덜이 고와예?(옛날 것들이 고와요?)
106025 #1 옛날 것덜이 곱주.(옛날 것들이 곱지.)
106026 @1 맞아. 아이들 옷 특별허게 만든 건 어떤 옷 만들엇수가?(맞아. 아이들 옷 특별하게 만든 건 어떤 옷 만들었습니까?)
106026 #1 아이덜 옷도 개량한복 입은 거 보민 안 고아마씸게.(아이들 옷도 개량한복 입은 거 보면 안 고와요.)
106026 @1 예.(예.)
106026 #1 아이덜 옷은 뭐 어떵 헙니까게. 학셍은 뭐 학셍 옷 혜영[테영] 입곡, 뭐 학셍 넘어가민 뭐 지대로덜 다 산 입으난 뭐 옷들이 틀린 거 싯수가?(아이들 옷은 뭐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뭐 학생 옷 해서 입고, 뭐 학생 넘어가면 뭐 자기대로 다 사서 입으니까 뭐 옷들이 다른 거 있습니까?)
106026 @1 예전에 애기 태어나면 입는 옷?(예저에 아기 태어나면 입는 옷?)
106026 #1 아아, 봇데창옷.(아아, 배내옷.)
106026 @1 봇데창옷.(배내옷.)
106026 #1 으, 봇데창옷.(으, 배내옷.)
106026 @1 으, 삼춘네도 봇데창옷 입젠? 아이덜?(으, 삼촌네도 배내옷 입혔어요? 아이들?)
106026 #1 아이고, 봇데창옷 허연 입졋수다게. 입젠 놔두난에 저 요 서녁집의 성님, 저 봇뎃창옷 ᄒᆞ쏠 빌리라 허난 무시거 허쿠겐 허난에 저 재판허는 디 가민.(아이고, 배내옷 해서 입혔습니다. 입혀서 놓아두니까 저 요 서녘집의 형님, 저 배내옷 빌려 달라 하니까 무엇 하실 거냐고 하니까 저 재판하는 데 가면.)
106026 @ 예.(예.)
106026 #1 그걸 ᄀᆞ졍가야 좋덴마씸.(그걸 가져가야 좋대요.)
106026 @1 예.(예.)
106026 #1 겐 줜 놔두난 어디 설러가 불어신디 엇수다게.(그렇게 줘서 놔두니까 어디 치워가 버렸는지 없습니다.)
106026 @1 재판허레 갈 때 그 옷 가져가불언?(재판하러 갈 때 그 옷 가져가버렸어?)
106026 #1 예, 그 재판허레 갈 땐 거 ᄋᆞ져간덴마씨.(예, 그 재판하러 갈 때 거 가져간대요.)

106026 @ 음.(음.)
106026 #1 거 ᄋᆞ정가사 재수가 좋넨.(거 가져가야 재수가 좋대.)
106026 @2 웃음.(웃음.)
106026 @1 예.(예.)
106026 #1 경 헤도 졋덴마씨.(그렇게 해도 졌대요.)
106026 @1 경 헤도 졋덴?(그렇게 해도 졌다고?)
106026 #1 경 헤도 졋젠마씸.(그렇게 해도 졌대요.)
106026 @1 아. 웃음. 경 허연 이젠.(아.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젠.)
106026 #1 경 헤연 엇어져불엇수다.(그렇게 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106026 @1 경 허연 엇어져불언예.(그렇게 해서 없어져버렸어요.)
106026 #1 예.(예.)
106026 @1 게고 그 애기덜 커 가면 영 강알 터진 옷도 헹은에 입지지 아녑니까? 건 무신 옷이렌 허여? 여기서.(그리고 그 아기들 커 가면 이렇게 샅 터진 옷도 해서 입히지 않습니까? 건 무슨 옷이라고 해요? 여기서.)
106026 #1 그건 그자 강알, 강알 터졍 그자 옷 젖지 말렌.(그건 그저 샅, 샅 터져서 그저 옷 젖지 말라고.)
106026 @ 으.(으.)
106026 #1 경 헨에 입지는 거난 건 건 일름 엇수다.(그렇게 해서 입히는 거니까 건 건 이름 없습니다.)
106027 @1 건 일름 엇고예. 그런 강알터진옷도 입지고. 삼춘 이제 예전에 그 바지 혼 번 ᄆᆞᆯ라 봅서, 바지.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바지 만드는 건지?(건 이름 없고요. 그런 개구멍바지도 입히고. 삼촌 이제 예전에 그 바지 한 번 마름질해 보세요, 바지. 어떤 식으로 해서 바지 만드는 건지?)
106027 #1 어떤 바지? 남ᄌᆞ?(어떤 바지? 남자?)
106027 @1 예 남ᄌᆞ. 우리 남자 삼춘 바지 옛날 왕은에 금방 허지 안 헨예?(예. 남자. 우리 남자 삼촌 바지 옛날 와서 금방 하지 안 하셨어요?)
106027 #1 예, 예.(예, 예.)
106027 @1 한번 그 바지 ᄆᆞᆯ라봅서. 어떤 식으로 ᄆᆞᆯ르는 거? 바지를.(한번 그 바지 마름질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마름질하는 거? 바지를.)
106027 #1 바지 ᄆᆞᆯ르는 건 기지가 셔야 만들주.(바지 마름질하는 건 옷감이 있어야 만들지.)
106027 @1 으, 게난 말로?(으, 그러니까 말로.)
106027 #1 말로?(말로?)
106027 @1 으.(으.)
106027 #1 말로. 줄른, 줄른복은 줄르게 놓곡.(말로. 짧은 작은사폭은, 짧게 놓고.)
106027 @1 음.(음.)

106027 #1 진복은 질게 놓고.(큰사폭은 길게 놓고.)
106027 @1 음.(음.)
106027 #1 게난에 자로, 잣대로. 줄른복은 저 흔 자 멧 치.(그러니 자로, 잣대로. 작은사폭은 저 한 자 몇 치.)
106027 @1 음.(음.)
106027 #1 뜨시 저 진 건 두 자. 그치룩 놔근엥에 그 줄른복 진복 셔 놓난에양.(다시 저 긴 건 두 자. 그처럼 놓아서 그 작은사폭 큰사폭 있어 놓으니까요.)
106027 @1 예.(예.)
106027 #1 잣대로 놔근엥에 그 몰르멍 헷수다게. 난 나대로 그냥 몰르멍 그냥 옷 헤연 입으난에.(잣대로 놓아서 그 마름질하면서 했습니다. 전 저대로 그냥 마르면서 그냥 옷 해서 입으니까.)
106027 @1 게믄 맨 처음에 바지를 만들면 여기 천이 잇일 거 아니우꽈예? 미녕 이제 허면.(그러면 맨 처음에 바지를 만들면 여기 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명 이제 하면.)
106027 #1 예, 예.(예, 예.)
106027 @1 미녕 허면, 미녕 펴면 뭐부떠 재여?(무명 하면, 무명 펴면 뭐부터 재요?)
106027 #1 진복부떠.(큰사폭부터.)
106027 @1 진복부떠. 진복은 멧 개 듭니까?(큰사폭부터. 큰사폭은 몇 개 듭니까?)
106027 #1 진, 진복 두 자.(진, 큰사폭 두 자.)
106027 @1 진복 두 자.(큰사폭 두 자.)
106027 #1 예.(예.)
106027 @ 그다음에?(그다음에?)
106027 #1 큰 사름 족은 사름도 가곡양.(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도 가고요.)
106027 @1 예.(예.)
106027 #1 게난에 진복 두 자, 줄른복 자 반, 자 반 ᄒᆞ끔 더 놔져신가?(그러니까 큰사폭 두 자, 작은사폭 자 반, 자 반 조금 더 놓았었나?)
106027 @1 음.(음.)
106027 #1 게난 그거 그거는 그 과정에 따라근엥에 그 입을 사름에 따랑은에 허는 거난 미녕 놔두서 그자.(그러니 그거 그거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입을 사람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무명 놓아두고 그저.)
106027 @1 으.(으.)
106027 #1 그 잣대 놔근엥에 허여, 헙니다게.(그 잣대 놓고 해, 합니다.)
106027 @1 예, 게민 진복허고 이제 그 줄른복허고 이제 몰르면 그다음엔 뭐허는 거?(예, 그러면 큰사폭하고 이제 그 작은사폭하고 이제 마름질하면 그다음엔 뭐 하는 거?)

106027 #1 그다음엔 허리, 허리 ᄆᆞᆯ르고.(그다음엔 허리, 허리 마름질하고.)
106027 @1 허리허곡.(허리하고.)
106027 #1 ᄆᆞᆯ를 것이 합니다게.(마름질할 것이 많습니다.)
106027 @1 예.(예.)
106027 #1 줄른복 두 개, 진복 두 개 허리.(작은사폭 두 개, 큰사폭 두 개 허리.)
106027 @1 으.(으.)
106027 #1 경 허민 뒈는 거마씸.(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6027 @1 그다음에 처지는 뭐우과? 남자옷은 처지 이런 거 엇입니까?(그다음에 밑바대는 뭡니까? 남자옷은 밑바대 이런 거 없습니까?)
106027 #1 처지는 뭣이우과?(밑바대는 무엇입니까?)
106027 @1 이 강알바대? (이 밑바대?)
106027 #1 아, 그런 건 엇입네다.(아, 그런 건 없습니다.)
106027 @1 그런 건 엇곡.(그런 건 없고.)
106027 #1 그런 것은 엇입네다.(그런 것은 없습니다.)
106027 @1 밖에 겉에 옷이난에.(밖에 겉에 옷이니까.)
106027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엇고.)
106027 @1 저고리 헐 땐마씨?(저고리 할 때는요?)
106027 #1 저고리 헐 때예?(저고리 할 때?)
106027 @1 으.(으.)
106027 #1 저고리 헐 때엔 이 저 등땡이.(저고리 할 때엔 이 저 등때기.)
106027 @1 예, 등땡이.(예, 등때기.)
106027 #1 등뗑이 영 이거 이거부떠, 이거부떠 ᄆᆞ녀 ᄆᆞᆯ롸 놔근에.(등때기 이렇게 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마름질해 놓아서.)
106027 @1 예.(예.)
106027 #1 다음 ᄉᆞ미.(다음 소매.)
106027 @1 ᄉᆞ미.(소매.)
106027 #1 이 저 짓.(이 저 깃.)
106027 @1 짓.(깃.)
106027 #1 경 ᄆᆞᆯ릅니다.(그렇게 마름질합니다.)
106027 @1 게믄 섭은?(그러면 섶은?)
106027 #1 으?(으?)
106027 @1 섭.(섶.)
106027 #1 썹도 ᄆᆞᆯ라야 뒈고.(섶도 마름질해야 되고.)
106027 @1 썹도 ᄆᆞᆯ르고.(섶도 마름질하고.)
106027 #1 저 안썹 밧썹.(저 안섶 겉섶.)
106027 @1 예, 안썹 밧썹 ᄆᆞᆯ르고. 그다음에 골홈?(예, 앞섶 겉섶 마름질하고. 그다음에 고름?)

106027 #1 골홈. 골홈도 ᄆᆞᆯ라야주.(고름. 고름도 마름질 해야지.)
106027 @1 골홈은 어느, 어느 정도 들어마씨?(고름은 어느, 어느 정도 들어요?)
106027 #1 골홈은 경 질게 안 ᄃᆞᆸ니다.(고름은 그렇게 길게 안 답니다.)
106027 @ 음.(음.)
106027 #1 경 질게 안 ᄃᆞ는 거.(그렇게 길게 안 다는 거.)
106027 @1 경 헤근에 이제 하고.(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106027 #1 여자 골홈은 막 지는디 남자 골홈은 안 집니다.(여자 고름은 막 기는데 남자 고름은 안 깁니다.)
106028 @1 남자 골홈은 안 질어예. 예, 경 허영은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삼춘예, 우리 부분 명칭 허게 뒈면 바지가 영 생긴 거 아니예? 남자 바지 이렇게 헤 갖고 여기 진복 이렇게 헹은에.(남자 고름은 안 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삼촌, 우리 부분 명칭 하게 되면 바지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남자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큰사폭 이렇게 해서.)
106028 #1 요건 ᄌᆞ른복.(요건 작은사폭)
106028 @1 이건 ᄌᆞ른복.(이건 작은사폭)
106028 #1 예.(예.)
106028 @1 요건 진복.(요건 큰사폭)
106028 #1 예.(예.)
106028 @1 여기 영 허면?(여기 이렇게 하면?)
106028 @2 허리.(허리.)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1 그다음 여기는 뭐렌 헙니까? 이 밑에는 단?(그다음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다리, 이디가 다리 뒐 철.(다리, 여기가 다리 될 차례.)
106028 @1 다리. 예.(다리. 예.)
106028 #1 다리 양짝 이거.(다리 양쪽 이거.)
106028 @1 여기도 다리. 이 옆이 뭐렌 헙니까?(여기도 다리. 이 옆에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이거 진복.(이거 큰사폭.)
106028 @1 거난 진복 이렇게 말허는 거잖아예.(그러니까 큰사폭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06028 #1 예.(예.)
106028 @1 진복. 그다음에 남자 저고리 영 잇으면.(큰사폭. 그다음에 남자 저고리 이렇게 있으면.)
106028 #1 저고리는 저 이 진동.(저고리는 저 이 진동.)

106028 @1 으.(으.)
106028 #1 진동부떠 ᄆᆞ녀 ᄆᆞ르난에.(진동부터 먼저 마름질하니까.)
106028 @1 진동은 여기우꽈?(진동은 여깁니까?)
106028 #1 예, 이거 뒈여신게마씸.(예, 이거 됐는데요.)
106028 @1 예.(예.)
106028 #1 이디, 이디만 기리민.(여기, 여기만 그리면.)
106028 @1 으, 그럼, 진동이 어디? 여기?(으, 그럼, 진동이 어디? 여기?)
106028 #1 진동 이거 요것이 진동. 요것이 진동.(진동 이거 요것이 진동. 요것이 진동.)
106028 @1 욜로예.(이리로요.)
106028 #1 욜로 요레 진동.(요리로 요리 진동.)
106028 @1 욜로 요까지가 이제 진동.(요리로 요기까지 이제 진동.)
106028 #1 진동. 요거는 ᄉᆞ미. 요것도 ᄉᆞ미.(진동. 요거는 소매. 요것도 소매.)
106028 @1 예, ᄉᆞ미.(예, 소매.)
106028 #1 또 이디는 저 무시거 짓.(또 여기는 저 무엇 깃.)
106028 @1 영 뒈잖아예?(이렇게 되잖아요?)
106028 #1 짓 돌아갈 거.(깃 돌아갈 거.)
106028 @1 예. 여기는 짓.(예, 여기는 깃.)
106028 #1 짓 돌아갈 거.(깃 돌아갈 거.)
106028 @1 또 여기 영 뭐 허잖아예? 짓 돌면.(또 여기 이렇게 뭐 하잖아요? 깃 돌면.)
106028 #1 그거, 그거는 저 무신 동전.(그거, 그거는 저 무슨 동전.)
106028 @1 동전.(동전.)
106028 #1 짓 돌아 놩 동전 ᄃᆞ는 겁주게.(깃 달아 놓고 동전 다는 겁지요.)
106028 @1 짓 동전. 여기도 이렇게 허영 잇지 아녑니까? 여기에.(깃 동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6028 #1 그거는 간단허게 입는 거게.(그거는 간단하게 입는 거야.)
106028 @1 예, 여기는 뭐렌 헙니까?(예,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그거 저 목.(그거 저 목.)
106028 @1 목고대. 목?(깃고대. 목?)
106028 #1 목 간단허게 돌아가는 거.(목 간단하게 돌아가는 거.)
106028 @1 그다음에 여기 영 허민 잇잖아예?(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106028 #1 예, 그거는 안썹. 요거 요디 요디 안썹. 요거 요디 안썹 저 밧썹 돌고 요디 안썹 돌고.(예, 그거는 안섶. 요기 요기 요기 안섶. 요거 요기 안섶 저 겉섶 달고 요기 안섶 달고.)
106028 @1 여기는 안썹, 이건 밧썹예.(여기는 안섶, 이건 겉섶.)

106028 #1 예.(예.)

106028 @1 밧썹. 게믄 이 이 몸통은 뭐렌 헤?(겉섶. 그러면 이 이 몸통은 뭐라고 해?)

106028 #1 몸통은 무신거 엇수다.(몸통은 무엇 없습니다.)

106028 @1 뭐 이몸 이런 말 안 헙니까?(뭐 이몸 이런 말 안 합니까?)

106028 @2 이몸.(이몸.)

106028 #1 잇몸[200]. 아니 그런 말 안 헙니다?('잇몸'. 그런 말 안 합니다.)

106028 @1 안 하고. 여자 거 같으면 ᄉᆞ미 뭐 답니까? 이건.(안 하고. 여자 거 같으면 소매 뭐 답니까?)

106028 #1 거 그거 저 놧주마는 남ᄌᆞ는, 남ᄌᆞ도 놓는 건 놔마씨양?(거 그거 저 놓았지만 남자는, 남자도 놓는 건 놓아요.)

106028 @1 끗동?(끝동?)

106028 #1 끗동. 끗동 놓긴 놔.(끝동. 끝동 놓긴 놓아.)

106028 @1 끗동. 그다음 여기 영 영 헤근에 영 무끄믄예 뭐?(끝동. 그다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요 뭐?)

106028 #1 허리띠.(허리띠.)

106028 @1 고름. 옷곰?(고름. 옷고름?)

106028 #1 허리띠. 이디 허리띠.(허리띠. 여기 허리띠.)

106028 @1 여기는 허리띠.(여기는 허리띠.)

106028 #1 이디 이디가 허리띠 헐 철.(여기 여기가 허리띠 할 차례.)

106028 @1 허리띠. 여기는? 여기 매는 거?(허리띠. 여기는? 여기 매는 거?)

106028 #1 골홈. 춤 저 무시거 다림.(고름. 참, 저 무엇 대님.)

106028 @1 음, 골홈 잇고 여기에 밑에 허는 거는?(음, 고름 있고 여기는 밑에 하는 거는?)

106028 #1 다림, 다림.(대님, 대님.)

106028 @1 다림예. 다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 예, 치마 같은 경우 이렇게 뭴 거 아니우과예? 여자 치마예?(대님이요. 대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 예, 치마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자 치마에.)

106028 #1 예.(예.)

106028 @1 여기는 뭐?(여기는 뭐?)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1 허리 영 헤근에 이렇게 무끄는 곰 잇지양?(허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고름 있지요?)

106028 #1 허리 무껌수과? 이제사.(허리 묶습니까? 이제야.)

---

200) '이몸'은 여기서 '잇몸'을 '이몸'으로 잘못 발음한 것이다. '이몸'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몸통부분을 말한다. 달리 '의몸'이라고도 한다.

106028 @1 옛날에?(옛날에?)
106028 #1 옛날에?(옛날에?)
106028 @1 으.(으.)
106028 #1 옛날에게 골홈.(옛날에 고름.)
106028 @1 골홈예. 그다음 여기는 뭐엔 헙니까?(고름이요. 그다음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그건 그건 주름.(그건 그건 주름.)
106028 @1 주름 하고. 그다음 여기도 통치마가 잇고.(주름 하고. 그다음 여기도 통치마가 있고.)
106028 #1 허리치메가 잇고.(허리치마가 있고.)
106028 @1 으, 허리치메가 잇고.(으, 허리치마가 있고.)
106028 #1 또 가림치메가 잇고.(또 풀치마가 있고.)
106028 @1 가림치멘 뭐우꽈?(풀치마가 뭡니까?)
106028 #1 가림치멘 깍치메.(풀치마, 풀치마.)
106028 @1 아, 가림치메가 깍치메. 허리치멘 허리로 입는 거예.(아, 풀치마가 풀치마. 허리치마 허리로 입는 거요.)
106028 #1 허리로 입는 거.(허리로 입는 거.)
106028 @1 그렇게 가림치메 얘기 하고.(그렇게 풀치마 얘기 하고.)
106028 @1 그다음에 보선?(그다음에 보선?)
106028 #1 보선.(보선.)
106028 @1 영 뒈잖아예? 보선예?(이렇게 되잖아요? 보선이요?)
106028 #1 예.(예.)
106028 @1 여긴 뭐엔 허여?(여긴 뭐라고 해요?)
106028 #1 그건 게 보선 신으는 디난에.(그건 그래 버선 신는 데니까.)
106028 @2 보선목.(버선목.)
106028 @1 여기를 뭐렌 헙니까? 수눅?(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수눅?)
106028 #1 수눅, 수눅.(수눅, 수눅.)
106028 @1 수눅, 여기는?(수눅, 여기는?)
106028 #1 그건 코지. 코지, 보선코지.(그건 코. 코, 버선코.)
106028 @1 으, 보선코지.(으, 버선코.)
106028 #1 으.(으.)
106028 @1 여기 허민 영 들어가는 디도 잇어예?(여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106028 #1 예.(예.)
106028 @1 여기는 뭐우과?(여기는 뭡니까?)
106028 #1 그거 문 잊어불언 어디 알아지쿠과?(그거 모두 잊어버려서 어디 알겠습니까?)

106028 @1 애틕.(‘애틕’.)

106028 #1 그거 통 안 들어감젠 그 통 안 들어감젠 골읍니다.(그거 통 안 들어간다고 그 통 안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106028 @1 애틕은 뭐우꽈?(‘애틕’은 뭡니까?)

106028 #1 애틕[201]이 이걸 거우다. 이거 잘 들어가지 아녑니다게, 잘 안 들어가.(‘애틕’이 이걸 거우다. 이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

106028 @2 벗어지지 못허게 허는 건 어느 거우꽈?(벗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어느 겁니까?)

106028 #1 벗어지지 못허는 것이 이겁주게.(벗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겁지요.)

106028 @1 예, 이것이예? 애틕 잇는데에.(예, 이것이요? ‘애틕’ 있는데요.)

106028 #1 벗어지지 못허게.(벗어지지 못하게.)

106028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6028 #1 잘못허민 막 벗어졍마씸게.(잘못하면 막 벗어져요.)

106028 @1 그다음에 옛날에 질먹이렌 헌 것도 들어봅디가?(그다음에 옛날에 길목버선이라고 한 것도 들어봅디까?)

106028 #1 질먹?(길목버선?)

106028 @1 질목.(길목버선.)

106028 #1 질목. 질먹이 잇고, 질목이 시난.(길목버선. 길목버선이 있고, 길목버선이 있으니까.)

106028 @1 질목은 뭐?(길목버선은 뭐?)

106028 #1 질목은 그.(길목버선은 그.)

106028 @1 발에 막 감는 거.(발에 막 감는 거.)

106028 #1 옛날 신는 건 밧듸만 가는 거.(옛날 신는 건 밭에만 가는 거.)

106028 @1 어.(어.)

106028 #1 밧듸만 가는 거 질목.(밭에만 가는 거 길목버선.)

106028 @1 질목예?(길목버선이요?)

106028 #1 나 질목 어디셔.(내 길목버선 어디 있어.)

106028 @1 으.

106028 #1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봣수다게.(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106028 @1 예.(예.)

106028 #1 우린 그치룩 아녕 신어난 거 신엉. 가난헤여도.(우린 그처럼 않고 신었던 거 신었어. 가난해도.)

106028 @1 옛날에는 밧듸 곶은 거예?(옛날에는 밭에 곶은 거요?)

106028 #1 밧듸만 주로 신으민 나 질목 어디셔. 질목.(밭에만 주로 신으면 나 길목버선 어디 있어. 길목보선.)

106028 @1 질목예?(길목버선이요?)

---

201) ‘애틕’은 버선의 뒷꿈치 위에 턱이 진 곳을 말한다.

106029 @ 그다음 삼춘, 여기는 단추 같은 거 옛날에 허면 어떤 단추덜 묻앗수가?(그다음 삼촌, 여기는 단추 같은 거 옛날에 하면 어떤 단추들 맺었습니까?)

106029 #1 단추, 우리가 단추 안 묻아봇수다.(단추, 우리가 단추 안 맺어봤습니다.)

106029 @1 아, 단추는 안 묻아봇수가? 속곳 안 허난예?(아, 단추는 안 맺어봤습니까? 속곳 안 하니까요?)

106029 #1 예, 속곳 아녀난 단추 묻는 게 경 쉬운 게 아니우다.(예, 속곳 아 하니까 단추 맺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6029 @1 예.(예.)

106029 #1 완전 힘들어.(완전 힘들어.)

106029 @1 그 단추를 무신 단추렌 해?(그 단추를 무슨 단추라고 해?)

106029 #1 어느 단추?(어느 단추.)

106029 @1 씰로 묻앙 허는 거.(실로 맺어서 하는 거.)

106029 #1 씰로 묻앙 허는 거? 그 묻인단추.(실로 맺어서 하는 거? 그 매듭단추.)

106029 @1 묻인단추. 거 둘메기렌도 헙니까?(매듭단추. 거 '둘메기'라고도 합니까?)

106029 #1 묻인단추엔 헙니다. 묻앙 묻아근엥에 둘안에.(매듭단추라고 합니다. 맺어 맺어서 달아서.)

106029 @1 예.(예.)

106029 #1 묻안 둘앗저.(매듭져서 달았지.)

106029 @1 @2 묻인단추.(매듭단추.)

재단과 염색

106030 @1 삼춘, 옷 멘들젠 허면 미녕 허면 그대로 못 멘들잖아예? 게믄 그거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삼촌, 옷 만들려고 하면 무명 하면 그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6030 #1 옷감 손질?(옷감 손질?)

106030 @1 예. 처음 옷 멘들젠 허면 그냥 안 뒌?(예. 처음 옷 만들려고 하면 그냥 안 됐어요?)

106030 #1 아이고, 그냥 안 뒙주마씸게.(아이고, 그냥 안 됩지요.)

106030 @1 예.(예.)

106030 #1 그거 풀 죽영.(그거 풀 죽여서.)

106030 @1 예.(예.)

106030 #1 풀 저 물에서 문 비눌 뭐 멕이나 어떵 허영은에 풀 죽영 ᄉᆞᆲ앙마씨.(풀 저 물에서 모두 비누를 뭐 먹이나 어떻게 해서 풀 죽여서 삶아요.)

106030 @1 아, ᄉᆞᆲ앙예?(아, 삶아요?)

106030 #1 ᅀᆲ앙. ᅀᆲ앙. 그 저 그 저 완전히 잘허젠 허민 그 저 비누 멕영 ᅀᆲ앙.(삶아. 삶아. 그 저 그 저 완전히 잘하려고 하면 그 저 비누 먹여서 삶아서.)

106030 @1 예.(예.)

106030 #1 ᅀᆲ앙 따시 막 뿔아근엥에 막 뿔아근엥에 비눗물도 다 내왕 뿔앙 ᄃᆞ시 풀허영은에.(삶아서 다시 마구 빨아서 마구 빨아서 비눗물도 다 내어서 빨아서 다시 풀해서.)

106030 @1 예.(예.)

106030 #1 풀허여사 옷이 뒈여마씸.(풀해야 옷이 돼요.)

106030 @1 아.(아.)

106030 #1 예, 풀허여사 옷이 뒙니다.(예, 풀해야 옷이 됩니다.)

106030 @1 게믄 그치룩 허영 그 원래 옷에 잇던 것들 저기?(그러면 그처럼 해서 그 원래 옷에 있던 것들 저기?)

106030 #1 짓 ᄇᆞ병.(깃 비벼서.)

106030 @1 짓 ᄇᆞ병.(깃 비벼서.)

106030 #1 짓 ᄇᆞ비는 거옌 헙니다게.(깃 비비는 거라고 합니다.)

106030 @1 으, 게믄 옷 그 ᅀᆲ으면 천 줄어들진 안 헙니까?(으, 그러면 옷 삶으면 천 줄어들지 안 합니까?)

106030 #1 경 허는 따문에 ᅀᆲ안 헴수게.(그렇게 하는 때문에 삶아서 합니다.)

106030 @1 아.(아.)

106030 #1 경 아녕 그냥 허민양 옷이 적어[쩌거]불어. 옷이 작아불엉.(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요 옷이 작아버려. 옷이 작아버려.)

106030 @1 한번 딱 줄어들은 다음에.(한번 딱 줄어든 다음에.)

106030 #1 딱 줄어들엉 이제 그 몸뻬[202]덜 헤여근에덜 저 그 사름 죽으민 그 저 주지 아념니까?(딱 줄어들어서 이제 그 몸뻬들 해서 저 그 사람 죽으면 그 저 주지 않습니까?)

106030 @1 예, 예.(예, 예.)

106030 #1 그거, 그거양 족앙 못 입엄수게게.(그거, 그거요 작아서 못 입습니다.)

106030 @1 아, 뿔아불면 못 입는.(아, 빨아버리면 못 입는.)

106030 #1 싹 줄어들어붑니다. 게난 족앙 못 입어마씸.(싹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작아서 못 입어요.)

106030 @1 옛날 다 짓 다 ᄇᆞ병 놔두는디 안 헤부난.(옛날 다 깃 다 비벼 놔두지 안 해버려서.)

106030 #1 게난에 옛날부터 식이 나오는 거라마씸. 그걸 문딱 푸답헤영 만들면은 줄 거 다 줄엉은에 문 만들아사 맞아마씸.(그러니 옛날부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몽땅 푸새해서 만들면 줄 거 다 줄어서 모두 만들어야 맞아요.)

106030 @ 음.(음.)

---

202) '몸빼'는 일본어 'もんぺ'를 말한다. 우리말로 일바지다.

106030 #1 경 헴수게, 게난.(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6030 @1 옷 멘들 때도 풀 다 헤 갖고 다리미질 헌 다음에 멘든 거예?(옷 만들 때도 풀 다 해 가지고 다리미질 한 다음에 만든 거요?)

106030 #1 예, 예. 경헤야 맞주. 이제 그 저 그 셍걸로 만들아 놓민 옷이 다 족앙 못 입엄수다게.(예, 예. 그래야 맞지. 이제 그 저 그 생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옷이 다 작아서 못 입습니다.)

106030 @1 아아.(아아.)

106030 #1 족앙 입지 못허여. 이 나이롱 ᄀᆞ뜬 거는 안 줄어마씸.(작아서 입지 못해. 이 나일론 같은 거는 안 줄어요.)

106030 @1 나이롱 ᄀᆞ뜬 건 안 허고예.(나일론 같은 건 안 하고요.)

106030 #1 그런 건 안 줄어마씸.(그러 건 안 줄어요.)

106030 @1 아까 삼춘, 푸답헌덴 헨게마는 푸답은 뭐허는 걸 푸답이렌?(아까 삼촌, 푸새한다고 하더니만 푸새는 뭐하는 걸 푸새라고?)

106030 #1 아, 푸답은 풀허는 거.(아, 푸새는 풀하는 거.)

106030 @1 아아, 풀허는 거. 거 ᄊᆞᆲ아낸 다음에 풀허는 거.(아아, 푸새하는 거. 거 삶아낸 다음에 풀하는 거.)

106030 #1 ᄆᆞ딱 저 ᄊᆞᆲ아근엥에 ᄆᆞ. 나중에 질 깍에사 다 푸답허는 거.(모두 저 삶아서 모두. 나중에 젤 끝에야 다 푸새하는 거.)

106030 @1 으, 푸답헐 땐 무신 풀로 헙니까?(으, 푸새할 땐 무슨 풀로 합니까?)

106030 #1 저 뭐 밥 젭찔앙.(저 뭐 밥 짜서.)

106030 @1 으.(으.)

106030 #1 옛날은 밥 젭찔안 헷수다.(옛날은 밥 짜서 했습니다.)

106030 @1 으.(으.)

106030 #1 밀가루도 엇고 허난에 밥 저.(밀가루도 없고 하니까 밥 저.)

106030 @1 보리밥?(보리밥?)

106030 #1 예, 저디 저 화순[203] 물엘 가나.(예, 저기 저 화순 물엘 가나.)

106030 @1 으.(으.)

106030 #1 어디 ᄒᆞᆫ 짐 졍 가민 그디 강 ᄆᆞᆫ ᄉᆞᆲ앙.(어디 한 집 져서 가면 거기 가서 모두 삶아.)

106030 @1 예.(예.)

106030 #1 ᄆᆞᆫ 그, 그 물에서 ᄆᆞᆫ ᄲᆞᆯ아근엥에 ᄲᆞᆯ앙, 거기서 풀 멕여근엥에 거기서.(모두 그, 그 물에서 모두 빨아, 거기서 풀 먹여서 거기서.)

106030 @1 다 ᄆᆞᆯ량 오는 거예?(다 말려서 오는 거요?)

106030 #1 저 손 봥 오랑 집의 오랑 두드렴수게.(저 손 봐 와서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106030 @1 으.(으.)

203)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106030 #1 집의 왕 두드려마씸.(집에 와서 두드려요.)

106030 @1 옛날이야 그 이불 홑청들도 다 그걸로 헌 거 아니라예?(옛날에야 그 이불 홑청들도 다 그걸로 한 거 아닙니까?)

106030 #1 예게, 그걸로. 아이고, 그걸로. 난 난 그걸로 아녓수다. 거 아주 옛날은 아닌ᄀᆞ라.(예. 그걸로. 아이고, 그걸로. 전 전 그걸로 안했습니다. 거 아주 옛날은 아닌지.)

106030 @1 예.(예.)

106030 #1 아주 옛날은 아닌ᄀᆞ라 저 광목입디다.(아주 옛날은 아닌지 저 광목입디다.)

106030 @ 예.(예.)

106030 #1 우리 어머니 광목 헤단에.(우리 어머니 광목 해다가.)

106030 @1 광목으로 헤영은에 허고.(광목으로 해다가 하고.)

106030 #1 게난 것도 궂언에 것도 허여뒌에 저 그것도 버려뒌에 또 허난 또 궂언에 또 문딱 튿어둬근엥에 끼우는 걸로만 끼와근에 살암수게.(그러니 것도 궂어서 것도 해두고는 저 그것도 버려두고 또 하니까 또 궂어서 또 몽땅 뜯어두고 끼우는 걸로만 끼워서 살고 있습니다.)

106030 @1 이제는?(이제는?)

106030 #1 예, 이제 살기가 좋아신디 경 죽는 소리 헴수다게.(예, 이제 살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죽는 소리 합니다.)

106030 @1 웃음.(웃음.)

106030 #1 웃음.(웃음.)

106030 @1 맞아, 옛날 비허민예 일이 아니주.(맞아, 옛날에 비하면 일이 아니지.)

106030 #1 아이고, 옛날은 너미 지나치게 살앗수다게.(아이고, 옛날은 너무 지나치게 살았습니다.)

106030 @ 예.(예.)

106030 #1 일도 많이 허고.(일도 많이 하고.)

106030 @1 죽는 소리도 못ᄒᆞ고.(죽는 소리도 못하고.)

106030 #1 겐디 요즘은 일은 일 하긴 하마씸게.(그런데 요즘은 일은 일 많긴 많아요.)

106030 @1 예, 일도 너무 하고예?(예, 일도 너무 많고요?)

106030 #1 그자 날 ᄀᆞ뜬 할망이나 놀암주기. 요즘 매일 매일 밀감 타레 감수게게.(그저 나 같은 할머니나 놀지. 요즘 매일 매일 감귤 따러 갑니다.)

106030 @1 경허니까.(그러니까.)

106030 #1 미깡 타레 걸렌 헤도 난 못 가켄 헤연 안 감수게.(감귤 따러 가자고 해도 전 못 가겠다고 해서 안 갑니다.)

106030 #1 잘 안 감수다.(잘 안 가십니다.)

106030 #1 안 감수게. 못 허여, 못 허여.(안 갑니다. 못 해, 못 해.)
106031 @1 삼춘은 염색은 어떤 거 허연?(삼촌은 염색은 어떤 거 했어요?)
106031 #1 여기서?(여기서?)
106031 @1 염색, 염색.(염색, 염색.)
106031 #1 염색.(염색.)
106031 @1 예, 염색허는 거.(예, 염색하는 거.)
106031 #1 염색, 아, 저.(염색, 아. 저.)
106031 @1 감물들이고 허는 거.(감물들이고 하는 거.)
106031 #1 물감 염색.(물감 염색.)
106031 @1 예, 예.(예, 예.)
106031 #1 그 한참, 아덜이 족은아덜이 물감만 들여 줍센 허는 거라마씸.(그 한참, 아들이 작은아들이 물감만 들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6031 @1 예.(예.)
106031 #1 저 갈옷만 만들아줍센. 경허민 어디 저 어디 어, 어디 ᄀᆞᆺ셋 ᄀᆞᆺ셋 아이.(저 갈옷만 만들어주시라고. 그러면 어디 저 어디 어, 어디 금방 금방 아이.)
106031 @1 남원? 으.(남원? 으.)
106031 #1 남원[204]이 아니고. 남원 못 간디.(남원이 아니고. 남원 못 간데.)
106031 @1 위미?(위미?)
106031 #1 위, 위미[205].(위, 위미.)
106031 @1 으.(으.)
106031 #1 위미 간 만들어 옵디다게.(위미 가서 만들어 옵디다.)
106031 @1 예.(예.)
106031 #1 위미 간 만들아오난에 ᄋᆞ라 불 헷수다. ᄋᆞ라 불.(위미 가서 만들어오니까 여러 벌 했습니다. 여러 벌.)
106031 @1 으.(으.)
106031 #1 저 광목도 빌로, 빌로 사다근엥에 ᄆᆞᆫ 그거 푸답허여근에 이 잔디왓이 시난양.(저 광목도 필로, 필로 사다가 모두 그거 풀해서 이 잔디밭이 있으니까요.)
106031 @1 예.(예.)
106031 #1 ᄆᆞᆫ딱 못 박으멍. 요디 강 박고 요디 강 박고 잔뜩허게 뗑겨지게 못 박아근엥에 그 저거 멧 불 실 거우다, 저 옷.(모두 못 박으면서. 요기 가서 박고 요기 가서 박고 잔뜩 당겨지게 못 박아서 그 저거 몇 벌 있을 겁니다. 저 옷.)
106031 @1 으.(으.)
106031 #1 어떠난 그것만 만들아도렌 헨게마는 요즘은 원 원 그런 것도 입엉 뎅기는 것도 못 보고 허여도렌도 아녀곡.(어때선지 그것만 만들어달라고 하더니만 요즘은 원, 원 그런 것도 입어 다니는 것도 못 보고 해달라고도 않고.)

204) '남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한다.
205) '위미'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를 말한다.

106031 @1 예.(예.)

106031 #1 게난 그거 허단에 나중에 또 또 헤여 도렌 허연에 멧 불허여도 또 허여도렌 허연.(그러니 그거 하다가 나중에 또 또 해 달라고 해서 몇 벌해도 또 해 달라고 해서.)

106031 @ 으.(으.)

106031 #1 하이고, 큰아덜도 헤여사 허주. 큰아덜은 서울 살멍 이디 와보지도 아녓수다게. 헤신디.(하이고, 큰아들도 해야 하지. 큰아들은 서울 살면서 여기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했는데.)

106031 @1 예.(예.)

106031 #1 저 무늬, 무늬 쳐진 거 얄룬 거라마씨.(저 무늬, 무늬 그려진 거 얇은 거예요.)

106031 @1 예.(예.)

106031 #1 여름에 입는 거. 그거 이만이 넓읍디다게. 그걸 헤여단 헌 거 아니우꽈?(여름에 입는 거. 그거 이만큼 넓습디다. 그걸 해다가 한 거 아닙니까?)

106031 @1 으.(으.)

106031 #1 그거 헤단에게 이 잔디왓이라 놓난에 문딱 못 박으멍 허연에 족은아덜, 족은메누리ᄀᆞ라 간 허여오렌 허난 것도 엄창 비싸마씨.(그거 해다가 이 잔디밭이여 놓으니까 모두 못 박으면서 해서 작은아들, 작은며느리보고 가서 해오라고 하니까 것도 엄청 비싸요.)

106031 @1 예.(예.)

106031 #1 것도 막 비싼에 두 불 헤여오난에 저 큰아덜 혼 빌 족은아덜 혼, 저 하나 허연에 두 개 허여오난에 저 큰아덜은 입언 뎅겸시난 가다마이[206] 혼 빌에 바꾸겐 헤여렌마씸게.(것도 막 비싸서 두 벌 해오니까 저 큰아들 한 벌 작은아들 한, 저 하나 해서 두 개 해오니까 저 큰아들은 입어서 다니고 있으니까 양복 한 벌에 바꾸자고 했대요.)

106031 @1 예.(예.)

106031 #1 경 헤도 안 바꽛수덴.(그렇게 해도 안 바꿨습니다고.)

106031 @1 예.(예.)

106031 #1 게난, 아니 그거 입엉 오라게. 무사게 경 덥게 경 입어시니게? 그거 입엉 오라. 어디 실 거우다. 집의 어디 촞아보민 실 거우다. 경 ᄀᆞᆯ읍니다.(그러니까, 아니 그거 입어서 오라. 왜 그렇게 덥게 그렇게 입었니? 그거 입어서 오라. 어디 있을 겁니다. 집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6031 @1 예, 웃음. 게난 그 물 들일 때, 감물 들일 땐 어떤 식으로 들이는 거?(예, 웃음. 그러니까 그 물 들일 때, 감물 들일 때 어떤 식으로 들이는 거?)

106031 #1 감물도 막 힘듭니다게.(감물도 막 힘듭니다.)

106031 @1 예.(예.)

206) '가다마이'는 일본어 'かたまえ'의 잘못 된 발음이며 우리말로 외줄로 단추를 단 양복상의를 말한다.

106031 #1 그거양, 그거 감 문딱 뿟안 옷도 아무거나 못 허여마씨.(그거요, 그거 감 몽땅 빻아서 옷도 아무거나 못 해요.)

106031 @1 막 물들어부니까.(막 물들어버리니까.)

106031 #1 막 궂인 옷 입엉, 저 농장에 강도 경 저 매날 농장에 가는 사름이 그 아무것에라도. 끅덤벌도 걷어나민 막 궂입니다.(막 궂은 옷 입어서, 저 농장에 가서도 그렇게 저 만날 농장에 가는 사람이 그 아무것에라도. 칡덤불도 걷어나면 막 궂습니다.)

106031 @1 예, 예.(예, 예)

106031 #1 옷이 게난. 끅덤벌 걷어난 옷 입엉양. 그거 입어근에 막 저 감 쁫아 놔근에 그거 짱.(옷이 그러니까. 칡덤불 걷어난 옷 입어서요. 그거 입어서 막 저 감 빻아 놓아서 그거 짜서.)

106031 @1 예.(예.)

106031 #1 무시것에 담앙은엥에 다마네기[207]찰리에서 짱.(무엇에 담아서 양파자루에서 짜서.)

106031 @1 예, 예.(예, 예.)

106031 #1 짜근에 감물 들염수게.(짜서 감물 들입니다.)

106031 @1 깨끗허게.(깨끗하게.)

106031 #1 감물 들영 짜근엥에 딱 젭찔앙은에 문 널엄수게게.(감물 들여서 짜서 딱 쥐어짜서 모두 넙니다.)

106031 @1 예.(예.)

106031 #1 게난 에이그, 요즘은 안 들염수다.(그러니 에이그, 요즘은 안 들입니다.)

106031 @1 예.(예.)

106031 #1 요즘은 허여도렌도 아녀곡 들이젠도 아이곡.(요즘은 해달라고도 않고 들이려고도 않고.)

106031 @1 으.(으.)

106031 #1 또 농장에 감물 들인 거 뭐 입구정도 아녀곡 사, 프는 것도 하 놓난양. 나도마씸. 나도.(또 농장에 감물 들인 거 뭐 입고 싶지도 않고 사, 파는 것도 많아 놓으니까요. 저도요. 저도.)

106031 @1 예.(예.)

106031 #1 나도 마찬가지우다. 나.(저도 마찬가집니다. 저.)

106031 @1 예.(예.)

106031 #1 나도 갈몸뻰 으라 개 싯수다게. 게난 것도 다 못 끊엉 죽을 거고.(저도 갈옷일바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 것도 다 못 헐어 죽을 거고.)

106031 @1 음, 옛날은 다 그치룩 감물 들이멍덜 옷 입은 거 아니라예?(음, 옛날은 다 그처럼 감물 들이면서 옷 입은 거 아닌가요?)

106031 #1 예게, 무사 아니우꽝게. 게난 옛날이라도 우리 그 아저씨가 저 밧듸

207)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이며 우리말로 양파를 말한다.

농장에 뎅겻수다마는 우의 거는 나가 만들앙 저 광목 물들영양.(예. 왜 아닙니까. 그러니 옛날이라도 우리 그 아저씨가 저 밭에 농장에 다녔습니다만 위에 거는 제가 만들어서 저 광목 물들여서요.)

106031 @1 예.(예.)

106031 #1 그 색깔 물들영.(그 색깔 물들여서.)

106031 @1 이런 색깔?(이런 색깔?)

106031 #1 예, 그 색깔 물들영근에 저 만들앙, 만들앙 입곡 아래 건 갈중의[208] 허곡 갈중의 입곡.(예, 그 색깔 물들여서 저 만들어서, 만들어서 입고 아래 건 '갈중의' 하고 '갈중의' 입고.)

106031 @1 음.(음.)

106031 #1 경헷수다.(그랬습니다.)

106031 @1 예.(예.)

106031 #1 게난 우알 갈중인 젊은 사름이난 너무 안 좋아변에.(그러니 위아래 '갈중인' 젊은 사람이니까 너무 안 좋아보여서.)

106031 @1 예, 예.(예, 예.)

106031 #1 미승[209] 셔 놓난에양 경 만들멍 입졋수다. 만들멍.(재봉틀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만들면서 입혔습니다. 만들면서.)

106031 @1 으음.(으음.)

106031 #1 우의 거, 저 무시거 저 무시거 놔근에 저 그 저.(위엣 거, 저 무엇 저 무엇 놓아서 저 그 저.)

106031 @1 물ᄀᆞ음?(물감?)

106031 #1 그 무시거 놔근에. 놩 만들아.(그 무엇 놓아서. 놓아서 만들어.)

106031 @1 예.(예.)

106031 #1 놔근엥에 저 문딱 떠내여근에.(놓아서 저 몽땅 떠내서.)

106031 @ 으(으.)

106031 #1 기지[210]를 문 떠내영은엥에 만들민 딱딱 맞읍니다. 경 허영 입엇주. 갈옷 우알로는 안 입졋수다.(옷감을 모두 떠내서 만들면 딱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었지.)

106031 @1 안 입어보고예? 따로 따로예.(안 입어보고요? 따로 따로요.)

106031 #1 안 입엇수다.(안 입었습니다)

신발

106032 @1 그다음에 삼춘, 신예, 옛날 신들을 어떤 신덜을 신엇수가?(그다음에 삼촌, 신요, 옛날 신들은 어떤 신들을 신었습니까?)

---

208)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보통 노동복으로 입었다.
209)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우리말 '재봉틀'을 말한다.
210) '기지'는 일본어 'きじ'다. 우리말 옷감, 천을 말한다.

106032 #1 엿날은 가막창신게.(옛날은 검정가죽신.)
106033 @1 가막창신.(검정가죽신.)
106033 @2 으.(으.)
106033 #1 삼춘, 가막창신은 언, 언제 신는 거?(삼촌, 검정가죽신은 언, 언제 신는 거?)
106033 #1 난 안 신어봇수다.(전 안 신어봤습니다.)
106033 @1 삼춘 안 신고?(삼촌 안 신고?)
106033 #1 난 안 신어반.(난 안 신어봤어.)
106033 @1 예.(예.)
106033 #1 옛날 신은 가막창신입주게.(옛날 신은 검정가죽신입지요.)
106033 @1 예.(예.)
106033 #1 난 흰고무신.(난 흰고무신.)
106033 @1 삼춘 흰고무신이고. 옛날 결혼헐 때는 여자들 가막창신 신고예?(삼촌은 흰고무신이고. 옛날 결혼할 때는 여자들 검정가죽신 신고요)
106033 #1 예, 그 옛날엔 가막창신이고 우린 흰고무신마씸.(예, 그 옛날엔 검정가죽신이고 우린 흰고무신이요.)
106033 @ 음.(음.)
106033 #2 우리 우리 세대엔 흰고무신 신엇수다.(우리 우리 세대엔 흰고무신 신었습니다.)
106035 @1 삼춘은 초신은 안 신어봔?(삼촌은 짚신은 안 신어봤어요?)
106035 #1 초신 신엇수다게.(짚신 신었습니다.)
106035 @1 예.(예.)
106035 #1 초신 신엇수다. 초신 저 아버지가 줄아주난 초신 신어근에 바당에 가민 닝끄리지 아녀고 좋아마씨. 초신 신엇수다.(짚신 신었습니다. 짚신 저 아버지가 결어주니까 짚신 신어서 바다에 가면 미끄러지지 않고 좋아요. 짚신 신었습니다.)
106034 @1 초신 신곡예, 남신도 신어봅디가?(짚신 신고요. 나막신도 신어봅디까?)
106034 #1 남신, 남신은 아버지네 신은 거만 봔. 우린 안 신어봇수다.(나막신, 나막신은 아버지네 신은 거만 봤어. 우린 안 신어봤어요.)
106034 @1 아, 삼춘 안 하고.(아, 삼촌은 안 하고.)
106034 #1 예.(예.)
106034 @1 건 언제 신는 거?(건 언제 신는 거?)
106034 #1 남신은 저 비오는 날.(남신은 저 비오는 날.)
106034 @1 예.(예.)
106034 #1 눈 오는 날.(눈 오는 날.)
106034 @1 음, 눈 오는 날도 남신 신엇구나.(음, 눈 오는 날도 나막신 신었구나.)

106034 #1 예, 우리 아버지네 신엇수다. 남신.(예, 우리 아버지네 신었습니다. 나막신.)

106034 @1 음, 직접 그거는 직접 만들엉 신은 거?(음, 직접 그거는 직접 만들어서 신은 거?)

106034 #1 직접 만들앙마씨.(직접 만들어서요.)

106034 @1 아아.(아아.)

106034 #1 직접, 그 저 나무 헤당은에게 막 그 저 무슨 걸로 막 까끕니다. 드러까끄멍 만들안에.(직접, 그 저 나무 해다가 막 그 저 무슨 걸로 막 깎습니다. 들이깎으면서 만들어.)

106034 @1 으.(으.)

106034 #1 만들앙.(만들어.)

106035 @1 게믄 삼춘도 초신 삼아봔?(그러면 삼촌도 짚신 삼아봤어요?)

106035 #1 아이고, 막 장난 헷수다게.(아이고, 마구 장난 했습니다.)

106035 @1 예, 어떤 식으로 삼는 거우꽈? 거는. 초신 삼젠 허믄?(예, 어떤 식으로 삼는 겁니까? 거는. 초신 삼으려고 하면?)

106035 #1 초신 삼젠 허민 뭐 저 노 새끼 꼬와근에.(짚신 삼으려고 하면 뭐 저 노 새끼 꼬아서.)

106035 @ 음.(음.)

106035 #1 새끼 꼬아근엥에 영 늬 개로 벌겨근엥에.(새끼 꼬아서 이렇게 네 개로 벌겨서.)

106035 @ 음.(음.)

106035 #1 이디 이디 이디 허리띠 메여근엥에 발 양짝 영 허여근에 이레 믄딱 걸곡 헤영은에.(여기 여기 여기 허리띠 메워서 발 양쪽 이렇게 해서 이리 몽땅 걸고 해서.)

106035 @1 늬 줄로?(네 줄로?)

106035 #1 예예예. 여기서 장난헷수다. 장난.(예예예. 여기서 장난했습니다. 장난.)

106035 @1 예.(예.)

106035 #1 신겐 못 만들고.(신겐 못 만들고.)

106035 @1 아.(아.)

106035 #1 웃음. 허여봣수다.(웃음. 해봤습니다.)

106035 @1 예, 그치룩 허영은에 이제 허고. 그다음에 초신도 종류가 으라 개 잇수광?(예, 그처럼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짚신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35 #1 초신은 종루 엇수다.(짚신은 종류 없습니다.)

106035 @1 그 저기 상 나거나 허면 신는 거.(그 저기 상 나거나 하면 신는 거.)

106035 #1 아, 상 낭 허민.(아, 상 나서 하면.)

106035 @1 으.(으.)

106035 #1 상 낭 허는 건 대강 그자. 대강 그자 걸랑걸랑걸랑[211] ᄒᆞ꼼 그자 만드는 초록만 헤영.(상 나서 하는 건 대강 그저. 대강 그저 '걸랑걸랑걸랑' 조금 그저 만드는 척만 해서.)

106035 @1 걸랑걸랑.('걸랑걸랑')

106035 #1 대강 허영 만드는 쵝만 헤영 신엉.(대강 해서 만드는 척만 해서 신어.)

106035 @1 그 신은 무신 신이렌 헤?(그 신은 무슨 신이라고 해?)

106035 #1 그 신은 그자 상 난 디나 신으는 걸로 헤여근에.(그 신은 그저 상 난데나 신는 걸로 해서.)

106035 @1 예.(예.)

106035 #1 뭐 이름은 뭐 벨로 엇수다. 초신덜 문 ᄉᆞ뭇 그 남자덜은 초신 만들저.(뭐 이름은 뭐 별로 없습니다. 짚신들 모두 사뭇 그 남자들은 짚신 만들랴.)

106035 @1 으.(으.)

106035 #1 뭐 쓰는 건대 만들저.(뭐 쓰는 건대 만들랴.)

106035 @1 으.(으.)

106035 #1 막 힘들게 경 헷수다마는. 이제사 경 헴수가게. 다 저 무시거 장의사들이 ᄀᆞ져오난.(막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야 그렇게 합니까. 다 저 무엇 장의사들이 가져오니까.)

106035 @1 그건 삼각신, 이런 말은 안 헙니까?(그건 삼각신, 이런 말은 안 합니까?)

106035 #1 삼각신에는 안 들어봣수다.(삼각신이라고 안 들어봤습니다.)

106035 @1 세깍신은?('세깍신은?)

106035 #1 으.(으.)

106035 @1 세깍신?(세깍신?)

106035 #1 세깍신[212], 세깍신, 세깍신이 맞주게.(세깍신, 세깍신, 세깍신이 맞지.)

106035 @1 예, 그 말 들어봔?(예, 그 말 들어봤어요?)

106035 #1 예, 예, 예. 들어봣수다.(예, 예, 예. 들어봤습니다.)

106035 @1 그 깍이 세 개만 이신 거라예?(그 총이 세 개만 있는 거예요?)

106035 #1 예게, 저 무시거 만드는 치룩만 헤근에게 신으난게.(예, 저 무엇 만드는 척만 해서 신으니까.)

모자 등

106036 @1 으, 그치룩 허고. 모자는 어떤 걸로 썻수가? 옛날 일허레 뎅기니까 모자덜 하영 써실 건디. 밧디 뎅길 때, 검질메고.(으, 그처럼 하고. 모자는 어떤 걸

211) '걸랑걸랑걸랑'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헐거운 상태를 표현한 듯하다.
212) '세깍신'은 앞쪽에 총을 셋만 돋게 만들어 상제가 신는 짚신을 말한다.

로 썼습니까? 옛날 일하러 다니니까 모자들 많이 썼을 건데. 밭에 다닐 때, 김매고.)

106036 #1 페렝이.(패랭이.)

106036 @1 페렝이.(패랭이.)

106036 #1 예, 밀집모즈.(예, 밀짚모자.)

106036 @1 으.(으.)

106036 #1 페렝이마씸.(패랭이요.)

106036 @1 직접 페렝이도 줄아봔마씨, 삼춘이?(직접 패랭이도 결어봤어요, 삼촌이?)

106036 #1 페렝이 아이고, 막 줄앗수다, 페렝이.(패랭이 아이고, 마구 결었습니다, 패랭이.)

106036 @1 아, 건 뭘로 즈는 거우과?(아, 건 뭐로 겯는 겁니까?)

106036 #1 그거마씸. 보리낭.(그거요. 보릿대.)

106036 @1 아, 보리낭으로.(아, 보릿대로.)

106036 #1 보리낭 그 저 우에 곡데기.(보릿대 그 저 위에 꼭지.)

106036 @1 예.(예.)

106036 #1 우에 곡데기 튿아근에. 그거 문 짜근에.(위에 꼭지 뜯어서. 그거 모두 짜서.)

106036 @1 예.(예)

106036 #1 손으로 문 다아근에.(손으로 모두 땋아서.)

106036 @ 예.(예.)

106036 #1 예, 우리는 페렝이 헤도 우린 저 무시거 썻수다. 벌립, 벌립.(예, 우리는 패랭이 해도 우린 저 무엇 썼습니다. 벙거지, 벙거지.)

106036 @2 어.(어.)

106036 @1 아, 여기선 벌립 썻수가?(아, 여기선 벙거지 썼습니까?)

106036 #1 우린 벌립 썻수다.(우린 벙거지 썼습니다.)

106036 @1 벌립은 어떤 식으로 헌 게 벌립이우꽈?(벙거지는 어떤 식으로 한 게 벙거지입니까?)

106036 #1 벌립 산 썻수다게.(벙거지 사서 썼습니다.)

106036 @1 으.(으.)

106036 #1 만들진 못허고.(만들진 못하고.)

106036 @1 뭘로 만든 거?(뭐로 만든 거?)

106036 #1 벌립도 막 곱닥헙니다. 벌립.(벙거지도 막 곱다랗습니다. 벙거지.)

106036 @1 으.(으.)

106036 #1 벌립도 즘지롱헌 걸로 곱닥허게 헨에 벌립 두 개 헐롓수다. 두 개. 견디 새 건디 나중에는 새 건디 어디사 버려져신디 다 버려불언 엇수다.(벙거지도 자잘한 걸로 곱다랗게 해서 벙거지 두 개 헐렸습니다. 두 개. 그런데 새 건데 나중

에는 새 건데 어디야 버려졌는지 다 버려버려서 없습니다.)
106036 @1 그게 정동벌립이우꽈?(그게 '정동벌립'입니까?)
106036 #1 정동 비스름헌 건디 막 끄늘앙 곱닥헙디다.(댕댕이덩굴 비스름한 건데 막 가늘어서 곱다랗습디다.)
106036 @1 아아.(아아.)
106036 #1 우린 산 썻수다. 그거.(우린 사서 썼습니다. 그거.)
106036 @ 삼촌네는 그걸로 벌립 쓰고.(삼촌네는 그걸로 벙거지 쓰고.)
106036 #1 벌립 쓰고.(벙거지 쓰고.)
106036 @1 벌립 쓰고.(벙거지 쓰고.)
106036 #1 예.(예.)
106038 @1 그다음에 그 보통 페렝이는 여름에 쓰는 거우꽈?(그다음에 그 보통 패랭이는 여름에 쓰는 겁니까?)
106038 #1 예게, 여름에.(예, 여름에.)
106038 @1 여름에 쓰고.(여름에 쓰고.)
106038 #1 더운 때에.(더운 때에.)
106038 @ 더운 때예.(더운 때요.)
106038 #1 예.(예.)
106038 @1 여기 저 뭐는 안 신언. 아, 삿갓은 안 써봔?(여기 저 뭐는 안 신언. 아, 삿갓은 안 써봤어요?)
106038 #1 덕수[213], 삿갓은 벨로 안 썻수다.(덕수, 삿갓은 별로 안 썼습니다.)
106038 @1 아, 벌립허고 페렝이허고.(아, 벙거지하고 패랭이하고.)
106038 #1 벌립이 좋은 거마씨.(벙거지가 좋은 거예요.)
106038 @1 벌립이? 예.(벙거지가? 예.)
106038 #1 벌립이 좋은 걸로예.(벙거지가 좋은 걸로요.)
106038 @1 예, 여기는 양태니 삿갓이니 이런 말들은 안 헐 거고.(예, 여기는 양태니 삿갓이니 이런 말들은 안 할 거고.)
106038 #1 그런 건 아녀봣수다.(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106038 @ 안 헤보고예?(안 해보고요?)
106038 #1 예.(예.)
106038 @1 음. 그다음에.(음. 그다음에.)
106038 #1 삿갓 말은 들어봐도.(삿갓 말은 들어봐도.)
106038 @1 으.(으.)
106038 #1 건 흔 벨로 안 써봔. 쓴디 안 봐봣수다.(건 한 별로 안 써봤어. 쓰는데 안 봐봤습니다.)
106038 @1 안 써봔예, 예.(안 써봤어요, 예.)
106038 #1 벌립을 쓰니까.(벙거지를 쓰니까.)

213)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106044 @1 벌립을 쓰니까. 비올 때 쉐 보레 뎅길 때는 무신 거 썬?(벙거지를 쓰니까. 비올 때 소 보러 다닐 때는 무슨 거 썼어요?)

106044 #1 츠궹이.(도롱이.)

106044 @1 츠궹이.(도롱이.)

106044 #1 예.(예.)

106044 @1 츠궹이 입고.(도롱이 입고.)

106044 #1 예.(예.)

106044 @1 모자는?(모자는?)

106044 #1 모저, 모자는 그 저 그 벌립이나.(모자, 모자는 그 저 그 벙거지나.)

106044 @1 예.(예.)

106044 #1 무신 거 쓰는, 씁디다게. 쓰긴 썻어, 하여튼.(무슨 거 쓰는, 씁디다. 쓰긴 썼어, 하여튼.)

106044 @ 예.(예.)

106044 #1 그 츠궹이 쓰민게 모자 써야 뭴 거난게.(그 도롱이 쓰면 모자 써야 될 거니까.)

106044 @1 예.(예.)

106044 #1 츠궹이도 우리 아버지도 드러 만들안 썻수다.(도롱이도 우리 아버지도 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106044 @1 음.(음.)

106044 #1 게난 모즌, ᄆᆞ즌 경 물 안 드는 모자는 엇어낫수다게.(그러니 모잔, 모잔 그렇게 물 안 드는 모자는 없었었습니다.)

106039 @1 예, 벌립예.(예, 벙거지요.)

106039 #1 예.(예.)

106039 @ 거고 삼춘, 그 겨울에는 어떤 모자들 썽 뎅겨마씨? 여기서는.(그리고 삼촌, 그 겨울에는 어떤 모자들 써서 다녔습니까? 여기서는.)

106039 #1 겨울에마씨?(겨울에요?)

106039 @1 예.(예.)

106039 #1 겨울에는 나까오리[214]는 춥곡. 겨울 나까오리가 싯고 여름 나까오리가 시난 나까오리 주로 써진 거 닮수다. 우리 아버지 영 썽 뎅긴 거 보민.(겨울에는 중절모는 춥고, 겨울 중절모가 있고 여름 중절모가 있으니까 중절모 주로 써진 거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써서 다닌 거 보면.)

106041 @1 혹시 옛날에 그 쉐나 물 털 헤갖고 그걸로 헨 모자 헌 거는 안 봅디가?(혹시 옛날에 그 소나 말 털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자 한 거는 안 봅디까?)

106041 #1 그거 허연 모자 헌 건 아이 봣수다.(그거 해서 모자 한 거는 안 봤습니다.)

106041 @1 건 안 보고예.(건 안 보고요.)

214)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106041 #1 건 아니 봣수다.(건 안 봤습니다.)
106041 @1 알앗수다. 게믄 오늘랑 요까지만 허쿠다.(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1 밥 종류예, 옛날 밥 종륜 어떤 거 잇어마씨?(밥 종류요, 옛날 밥 종륜 어떤 거 있어요?)
107001 #1 아이그, 엿날 밥종륜양, 그때는 저 못살 때라 놓난에 그 저 모힌조팝양.(아이고, 옛날 밥 종륜요, 그때는 저 못살 때라 놓으니까 그 저 메조밥이요.)
107001 @1 예.(예.)
107001 #1 모힌조팝 그거 허여근엥에 고구마 놔근에, 고구마 놔근엥에 밥을 허민 그 아이덜 많은 집원양 고구마만 둥그리곡 밥만 먹젠 허엿수다게.(메조밥 그거 해서 고구마 넣고, 고구마 넣고 밥을 하면 그 아이들 많은 집은요 고구마만 굴리고 밥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107001 @1 음.(음.)
107001 #1 밥만 먹젠 허멍 고구마를 바락 담아 놩 허민 밥만 먹젠 허연 허고. 또시 경 허여도 어짜피 거 험벳긘 어떵 헙니까게.(밥만 먹으려고 하며 고구마를 버럭 담아 넣고 하면 밥만 먹으려 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어차피 거 하기밖에 어떻게 합니까?)
107001 @1 예.(예.)
107001 #1 경허곡 또 아부지네 저 걸름 내는 거 힘든 거는 흐린좁쏠 놓곡 곤쏠 놓곡 또 저 보리쏠 놓곡 허여근에 아버지 허여 드리곡.(그러고 또 아버지네 저 거름 내는 거 힘든 거는 차조 넣고 흰쌀 넣고 또 저 보리쌀 넣고 해서 아버지 해 드리고.)
107001 @ 음.(음.)
107001 #1 경허멍 살앗수다게. 게난 또 저 무시거 모멀을 그 엿날은 모멀을 많이 헷수다게. 모멀을 많이 허난에 모멀 우리도 저 농장이 하 놓난 모멀 허난 또 모멀펌벅 허여근에 고구마 많이 놔근에 모멀펌벅 헌 건 건 맛잇어마씸.(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또 저 무엇 메밀을 그 옛날은 메밀을 많이 했습니다. 메밀을 많이 하니까 메밀 우리도 저 농장이 많아 놓으니까 메밀 하니까 또 메밀범벅 해서 고구마 많이 넣어서 메밀범벅 한 건 맛있어요.)
107001 @1 음.(음.)
107001 #1 건 맛이 좋아근에 그거는 저 잘 먹어지고. 또 그걸로 또 수제비도 헤영 먹곡.(건 맛이 좋아서 그거는 저 잘 먹어지고. 또 그걸로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7001 @1 음.(음.)

107001 #1 즈베기 저 급허민 즈베기 저 무시거 그 수저로 쫄라 놔근에 경도 허영 먹어보고. 경 허멍 살앗수다게. 게난에 나중에라 가난 그 보리영 하영 갈곡. 우리 동생 요ᄒᆞ룩이 저 제사 먹으레, 아부지 제사 먹으레 완에 에이그, 나 언마나 고셍헌 중 알암자? 한라산 막 다니곡 저 어느 밧 저 한라산 강 저 아부지 물구루마 끗곡 나 쉐구루마 끗곡 허영 강 다니멍 저 놈덜은 구루마도 엇엉 허는디 아부지넨 구루마 두 개썩 허여근에 나 한라산, 그 이제사 질 좋앗주마는 한라산 그 질 궂은디 그 질레서 ᄉᆞ뭇 이치룩 허난 다리 영 아픈 거 답다, 경 골으난에. 저 도로무깡으로 보리쏠 보리쏠 멧 개씩 무사 허영 먹지 아녓수가?(수제비 저 급하면 수제비 저 무엇 그 수저로 잘라 넣어서 그렇게도 해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니까 그 보리랑 많이 갈고. 우리 동생 하루는 저 제사 먹으러, 아버지 제사 먹으러 와서 에이그, 나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 한라산 마구 다니고 저 어느 밭 저 한라산 가서 저 아버지는 말수래 끌고, 나는 소달구지 끌고 해서 가서 다니면서 저 남들은 달구지도 없어서 하는데 아버지는 달구지 두 개씩 해서 내가 한라산, 그 이제야 길 좋지만 한라산 그 길 궂은 데 그 길에서 사뭇 이처럼 하니까 다리 이렇게 아픈 거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드럼통으로 보리쌀 보리쌀 몇 개씩 왜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107001 @1 웃음. 밥을 잘 먹엇덴.(웃음. 밥을 잘 먹었다고.)

107001 #1 게난에 그 몰란마씸게. 그 옛날은 몰란.(그러니까 그 몰라서요. 그 옛날은 몰라.)

107001 @1 예.(예.)

107001 #1 몰란에 그 나중에라가난게 보리가게 너무 많이 헷수다게. 보리가 춤 일등으로 하영 허여근에 그거 허영 드러 보리, 저 놈덜은 경 굶어도 우린 경은 아녓수다게.(몰라서 그 나중라가니까 보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보리가 참 일등으로 많이 해서 그거 해서 들이 보리, 저 남들은 그렇게 굶어도 우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07001 @1 게난.(그러니까.)

107001 #1 경은 아년에 그 ᄀᆞᆫ는 말 봅서게. 거 도레미깡으로 보리 멧, 보리쏠 멧 개썩 앚정 먹지 아녓수가?(그렇지는 않아서 그 말하는 말을 보세요. 거 드럼통으로 보리 몇, 보리쌀 몇 개씩 앉혀 먹지 않았습니까?)

107001 @1 웃음.(웃음.)

107001 #1 경 허난 밧 사시네게. 우린게 쏠 사시냐게 밧 삿주게. 나 경 골으멍 헷수다게.(그렇게 하니까 밭 샀네. 우린 쌀 샀니 밭 샀지. 제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07002 @1 게민, 쏠 종류는 어떤 쏠덜은 이신 거우꽈?(그러면, 쌀 종류는 어떤 쌀 있는 겁니까?)

107002 #1 옛날에마씨?(옛날에요?)

107002 @1 예.(예.)

107002 #1 옛날엔 쳇 번엔 그 모힌좁쏠.(옛날에 첫 번엔 그 메조.)

107002 @1 예.(예.)

107002 #1 모힌좁쏠양. 살락허영[215] 물기 하나도 엇입니다. 물기 하나도 엇인디 그거 허영은에 감저 놔근엥에 막 감저는 둥그려불곡 뭣 허여근에 먹단에 나중에라 가난 보리쏠 허여근엥에 또 방에에게, 이 공장이 엇어 놓난 방에에서 졍 오랑 허민 따시 체가 막 부떠마씸게. 반은 벗어졍.(메조요. '살락해서' 물기 하나도 없습니다. 물기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해서 고구마 넣어서 막 고구마는 뒹굴려버리고 뭐 해서 먹다가 나중에 가니까 보리쌀 해서 또 방아에, 이 공장이 없어 놓으니까 방아에서 찧고 와서 하면 다시 겨가 마구 붙어요. 반은 벗겨져서.)

107002 @1 음.(음.)

107002 #1 경 허민 또 강 실렁 또 강 실러근엥에 또 거 골앙.(그렇게 하면 또 가서 실어서 또 가서 실어서 또 거 갈아서.)

107002 @1 예.(예.)

107002 #1 골민 맛엇는 겁디다양.(갈면 맛없는 겁디다.)

107002 @1 아.(아.)

107002 #1 골아근엥에 그거 저 좁쏠 서끄멍 밥허연 먹엇수다게.(갈아서 그거 저 좁쌀 섞으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107002 @1 음.(음.)

107002 #1 좁썰 서끄멍 밥허연 먹단에 나중에라 가난에 또 추추추추 또 세 번을 지난에양 그 문짝헌 게 보리쏠이 맛이 좋아근엥에 그 문짝헌 게 밥이 경 좁디다. 세 번, 세 번 지난 문짝 벗고 희고 경 맛 좋안에 경 먹으멍 살앗수다게.(좁쌀 섞으면서 밥해서 먹다가 나중에 가니까 또 차차차차 또 세 번을 지니까 그 반드러운 게 보리쌀이 맛이 좋아서 그 반드러운 게 밥이 그렇게 좋습디다. 세 번, 세 번 찧으니까 반드럽게 벗고 희고 그렇게 맛 좋아서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07003 @1 예, 게믄 삼춘, 보리밥. 보리밥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예, 그러면 삼촌, 보리밥. 보리밥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03 #1 아, 보리밥?(아, 보리밥?)

107003 @1 예.(예.)

107003 #1 보리밥은 물 맞추와야 뒈여마씸.(보리밥은 물 맞춰야 돼요.)

107003 @1 예.(예.)

107003 #1 것도. 물 어느 정도민 쏠 멧 뒈 낭 그 뒈왁세기.(것도. 물 어느 정도면 쌀 몇 되 넣고 그 식되.)

107003 @1 예.(예.)

107003 #1 뒈왁세기 알아집니까?(식되 아십니까?)

107003 @1 예, 예. 쪼끌락헌 거.(예, 예. 작은 거.)

---

215) '살락하다'는 느낌이 거칠다는 뜻으로, 달리 '사락하다'로도 쓰인다.

107003 #1 뒈왁세기로 우리 식구민 저 이제 메, 멧 때 먹고 언마민 헐 거 헤근에 뒈왁세기로 마련헤근에 쏠 싯엉 놔근엥에 영 물 맞췽근엥에 그걸 궤와마씸.(식되로 우리 식구면 저 이제 메, 몇 때 먹고 얼마면 할 거 해서 식되로 마련해서 쌀 씻어 넣고 이렇게 물 맞춰서 그걸 끓여요.)

107003 @1 음.(음.)

107003 #1 바글바글바글 궤와근에 어느 정도 궤와근에 두께 더껑 놔둬마씸. 놔두민 ᄒᆞ끔 틈자는 거 아니우과?(바글바글바글 끓여서 어느 정도 끓여서 뚜껑 덮어 놓아둬요. 놓아두면 조금 뜸들이는 거 아닙니까?)

107003 @1 예.(예.)

107003 #1 틈자민 따시 또 불 솜앙.(뜸들이면 다시 또 불 때고.)

107003 @1 예.(예.)

107003 #1 따시 불 솜아근에 영 두집어근엥에 젓어근엥 또 불 솜아근엥에 놔두민 저 밥 뭽니다게.(다시 불 때서 이렇게 뒤집어서 저어서 또 불 때서 놓아두면 저 밥이 됩니다.)

107003 @1 게문 삼춘네는 그 보리밥 헐 때 그 뒈왁세기로, 멧 식구가 멧 개 놩 먹엇수가? ᄒᆞ루 허젠 허민.(그러면 삼촌네는 그 보리밥 할 때 그 식되로, 몇 식구가 몇 개 넣어 먹었습니까? 하루 하려고 하면.)

107003 #1 우리?(우리?)

107003 @1 예.(예.)

107003 #1 우리 아옵 식구도 살아보고 또시 우리 성님 엇으난에 ᄋᆞ덥 식구도 살아보고. 경 헤신디 뒈왁세기로, 뒈왁세기로 네 개사 놔져신디. 뒈왁세기가 큽주게.(우리 아홉 식구도 살아보고 또 우리 형님 없으니까 여덟 식구도 살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식되로, 식대로 네 개야 넣었는지. 식되가 크지요.)

107003 @1 예.(예.)

107003 #1 옛날 뒈왁세긴. 네, 네 개 놔진 거 답수다. 네 개.(옛날 식되. 네, 네 개 넣어진 거 같습니다. 네 개.)

107003 @1 음.(음.)

107003 #1 네 개 놩 우리 성님은 ᄒᆞ꼬만 놩 허젠 허곡 난 하영만 거려 놩 허곡.(네 개 넣고 우리 형님은 조금만 넣고 하려고 하고 난 많이만 떠 넣고 하고.)

107003 @1 음.(음.)

107003 #1 경 헷수덴 허난. 우리 성님은 어떵산디 밥 ᄒᆞ꼬만 허젠 헙디다게. 경. 나 그추룩은 못헤마씨. 하영만 헤져. 하영만 막 거려놩 허영. 어머니는 벨로 밥 안 헤봣수다게.(그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은 왜인지 밥 조금만 하려고 합디다. 그렇게. 저는 그처럼 못해요. 많이만 해져요. 많이만 마구 퍼서 하고. 어머니는 별로 밥 안 해봤습니다.)

107003 @1 아.(아.)

107003 #1 어머니는 저 아덜 다섯 개 헤여 놓고 뚤 두 개 허난 뭐 뚤덜사 자기

먹은 오몽[216] 다 허멍 살암주마는 아덜 다섯 개라 놓난 막 힘들엉양.(어머니는 저 아들 다섯 명 해서 넣고 딸 두 명 하니까 뭐 딸들이야 자기 먹은 '오몽' 다 하면서 살지만 아들 다섯 명이라 놓으니까 막 힘들어요.)

107003 @1 예.(예.)

107003 #1 힘들어근엥에 어머니는 혼읏이 밥 아녀근엥에 저 그자 무신 다른 일이나 허곡 이 저 무시거 아기덜 옷.(힘들어서 어머니는 한없이 밥하지 않고 저 그저 무슨 다른 일이나 하고 이 저 무엇 아기들 옷.)

107003 @1 예.(예.)

107003 #1 옷 같은 것 문 챙기고. 또 농장엔 혼읏이 안 강 나가 농장엘 주로 가마씸게.(옷 같은 것 모두 챙기고. 또 농장엔 별로 안 가서 제가 농장엘 주로 가요.)

107003 @ 음.(음.)

107003 #1 나가.(제가.)

107003 @1 음.(음.)

107003 #1 나가양 열다섯 나난 장남덜 빌어다근에 검질을 멘 거라마씸. 경 허멍 살단보난 영 빙신 뒈엿수다게.(제가요 열다섯 나니까 장정들 빌어서 김을 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보니까 이렇게 병신 됐습니다.)

107004 @1 음, 삼춘, 옛날에 반지기밥이렌 헌 것도 잇어예.(음, 삼촌, 옛날에 '반지기밥'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107004 #1 반지기엔[217] 헌 건 저 무시거게. 저 그 곤쏠 놓곡 보리쏠 놓고 것ᄀᆞ라 반지기옌 헙니다.('반지기'라고 한 건 저 무엇. 저 그 흰쌀 넣고 보리쌀 넣고 것 보고 '반지기'라고 합니다.)

107004 @1 음.(음.)

107004 #1 것이 반제기[218].(것이 '반제기'.)

107004 @1 것ᄀᆞ라 반지기?(것더러 '반지기'?)

107004 #1 예. 것이 반지기마씸.(예. 것이 '반지기'요.)

107005 @1 곤밥은 어떵 헤영 먹엇수가?(흰밥은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7005 #1 곤밥은 저 산듸.(흰밥은 저 밭벼.)

107005 @1 예.(예.)

107005 #1 그 밧듸 산듸 갈앙 허민 것도 벨로 맛엇어마씸. 살락허영[219].(그 밭에 밭벼 갈아서 하면 것도 별로 맛없어요. '살락'해서.)

107005 @1 응.(응.)

107005 #1 살락허영 맛엇입니다. 막 능거근에양 멧 번 멧 번 져사. 것도.('살락'해서 맛없습니다. 마구 능그고 몇 번 몇 번 져야. 것도.)

---

216) '오몽'은 '오몽ᄒᆞ다'의 어근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꾸물꾸물 흔들다.' 또는 ㉡'몸을 일으켜 일을 하다.'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에 해당한다.

217) '반지기'는 쌀과 보리쌀을 반반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하며, 달리 '반직이밥'이라고도 한다.

218) '반제기'는 '반지기'를 말한다.

219) '살락하다'는 느낌이 거칠다는 뜻으로, 달리 '사락하다'로도 쓰인다.

107005 @ 음.(음.)

107005 #1 멧 번 져야 희양허여마씨. 이제는 강은에 뭐 공장에 강 ᄂᆞ리민 혜영허지 아녑니까? 경헌디 그게 아니라마씸.(몇 번 찧어야 하애요. 이제는 가서 뭐 공장에 가서 내리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7005 @1 음.(음.)

107005 #1 막 오래여, 오래여. ᄒᆞ루 종일 그걸 쳐둰은엥에 뚜시 뚜시 또 실르곡 또 실르곡 그자 그 소 메와근엥에 드러 그걸.(매우 오래 걸려, 오래 걸려. 하루 종일 그걸 찧어두고 다시 다시 또 싣고 또 싣고 그저 그 소 메워서 들이 그걸.)

107005 @ 음.(음.)

107005 #1 그 저 손에서 문 만들아사마씨. 경 허민 혜양헤여근엥에 그거를 허멍 먹엇수다게.(그 저 손에서 모두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그거를 하면서 먹었습니다.)

107005 @1 음.(음.)

107005 #1 허영은에.(해서.)

107005 @1 게난 산듸쏠로 곤밥헌 거라예. 옛날은.(그러니 밭벼쌀로 흰밥한 거지요. 옛날은.)

107005 #1 예, 산듸쏠로. 산듸쏠 허민 벨로 맛엇입니다게.(예, 밭벼쌀로. 밭벼쌀하면 별로 맛없습니다.)

107005 @1 음.(음.)

107005 #1 옛날 건. 나룩이 맛잇주.(옛날 건 벼가 맛있지.)

107006 @1 음. 조팝 헐 땐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음, 조밥 할 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06 #1 조팝, 조팝도 거 물 맞촤야마씸.(조밥, 조밥도 거 물 맞춰야 해요.)

107006 @1 예.(예.)

107006 #1 물 맞촤야. 조팝은 쏠 영 저 그 밥뒈로 하나 놓민 물 요거민 뒈겟다, 그치록헌 식으로 물을 맞촤야 뒙니다.(물 맞춰야. 조밥은 쌀 이렇게 저 그 식되로 하나 놓으면 물 요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물을 맞춰야 됩니다.)

107006 @1 음.(음.)

107006 #1 물 맞추지 아녀민 뭐 어떵 흐랑을 허난 경 아녀민 설민 또 더 못 먹어마씸.(물 맞추지 않으면 뭐 어떻게 무름을 하니까 그렇게 않으면 설면 또 더 못 먹어요.)

107006 @1 음.(음.)

107006 #1 게난에 것도 물 맞추와야마씸.(그러니 것도 물 맞춰야 해요.)

107008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기도 피쏠도 갈아낫수가? 피?(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피도 갈았었습니까?)

107008 #1 피?(피?)

107008 @1 으.(으.)

107008 #1 피, 우린 안 갈아낫수다마는 갑니다덜. 영 갈아.(피, 우린 안 갈았었습니다만 갑니다들. 이렇게 갈아.)

107008 @1 아. 이 동네도 갈, 가는 사름 잇어?(아. 이 동네도 갈, 가는 사람은 있어요?)

107008 #1 가는 사름은 갑니다.(가는 사람은 갑니다.)

107008 @1 아.(아.)

107008 #1 우린 안 갈아봣수다.(우린 안 갈아봤습니다.)

107008 @1 아, 게민 삼춘, 피밥 헹 먹어보진 안 허고마씨?(아, 그러면 삼촌, 피밥 해서 먹어보지는 안 하고요?)

107008 #1 건 안 먹어봣수다.(건 안 먹어봤습니다.)

107008 @1 안 먹어봔.(안 먹어봤어.)

107008 #1 맛도 몰릅니다. 건 안 먹어 보난.(맛도 모릅니다. 건 안 먹어 보니까.)

107009 @1 예, 감저밥은 아까 어떤 식으로 허는 거?(예, 고구마밥은 아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09 #1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1 예.(예.)

107009 #1 그 좁쏠에 놔근에.(그 좁쌀에 넣어서.)

107009 @1 아.(아.)

107009 #1 좁쏠에 놔근엥에 감저밥을 허민게 살락헌[220] 좁쏠에 감저밥을 노민게 아이들이 먹젠 헙니까? 그 학생들이 먹젠덜 아녕게. 우리 아래 아기 저, 동생들이 다섯 개마씸게.(좁쌀에 넣어서 고구마밥을 하면 '살락한' 좁쌀에 고구마밥을 넣으면 아이들이 먹으려고 합니까? 그 학생들이 먹으려고 안 해서. 우리 아래 아기 저, 동생들이 다섯 개예요.)

107009 @1 음.(음.)

107009 #1 다섯 개라 놓난에 잘 먹젱을 아녀근에 문 둥구려붑디다게.(다섯 개어 놓으니까 잘 먹으려고 않아서 모두 뒹굴려버립디다.)

107009 @1 음.(음.)

107009 #1 이제는.(이제는.)

107009 @1 감저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고구마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요?)

107009 #1 감저는 큰 거민 네 갤 써나 물탁물탁물탁 썰엉.(고구마는 큰 거면 네 갤 썰거나 뭉턱뭉턱뭉턱 썰고.)

107009 @1 음.(음.)

107009 #1 좀질이 썰질 아녀고.(잘고 가늘게 썰질 않고.)

107009 @1 아.(아.)

107009 #1 저 물탁물탁허게 썰어근에 경 놔근에 그 저 고구마를 좀 익어야 쏠

220) '살락하다'는 느낌이 거칠다는 뜻으로, 달리 '사락하다'로도 쓰인다.

을 놔마씨.(저 뭉턱뭉턱하게 썰어서 그렇게 넣어서 그 저 고구마가 좀 익어야 쌀을 넣어요.)

107009 @1 아, 감저를 먼저 익인 거?(아, 고구마를 먼저 익힌 거?)

107009 #1 예, 고구마를 익어야 쏠을 놔근에. 쏠영 ᄀᆞ찌 놔불민 익지 아녈 거 아니우꽈?(예, 고구마가 익어야 쌀을 넣고. 쌀이랑 같이 넣어버리면 익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7009 @1 예.(예.)

107009 #1 게난 고구마를 놩 솖앙 어느 정도 솖아지면 그 저 좁쏠을 놔마씸.(그러니 고구마를 넣고 삶아서 어느 정도 삶아지면 그 저 좁쌀을 넣어요.)

107009 @1 아.(아.)

107009 #1 경 헤연 밥허연 먹엇수다.(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었습니다.)

107009 @1 요즘 같으면 저기 감저 먼저 먹을 거 닮은디예.(요즘 같으면 저기 고구마 먼저 먹을 거 같은데요.)

107009 #1 요즘은 감저가 별미 아니우과?(요즘은 고구마가 별미 아닙니까?)

107009 @1 예.(예.)

107009 #1 고구마가 벨미주게. 요즘, 요즘은.(고구마가 별미지. 요즘, 요즘은.)

107007 @1 게난, 풋밥은 언제 허는 거우꽈?(그러니까, 팥밥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7007 #1 풋밥?(팥밥?)

107007 @1 예.(예.)

107007 #1 풋, 풋밥은 뭐 그자 풋은 주로 허난에.(팥, 팥밥은 뭐 그저 팥은 주로 하니까.)

107007 @1 음.(음.)

107007 #1 그 저 조팟듸양 하나씩 고랑에 독독 문드렁 허난에 그건 하나씩 놘 먹엇수다.(그 저 조밭에요 하나씩 고랑에 톡톡 흘려서 하니까 그건 하나씩 넣어 먹었습니다.)

107007 @ (음.)

107007 #1 건 하나씩 놘 먹곡 따시 저 저 동지, 그 동지날은 그 죽 쒕 먹곡.(건 하나씩 넣어 먹고 또 저 저 동지, 그 동짓날엔 그 죽 쒀서 먹고.)

107007 @1 예.(예.)

107007 #1 거 언제나 엿날양 계속 빠지지 아녕 동지 돌아왐실 거우다.(거 언제나 옛날은요 계속 빠지지 않고 동지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107007 @1 예, 이십이일날예.(예, 이십이일이요.)

107007 #1 예, 이십일일날인가?(예, 이십일일인가?)

107007 @1 이십이일날에 써졋수다.(이십이일에 쒀졌습니다.)

107007 #1 이십일일날양.(이십일일이요.)

107007 @1 예.(예.)

107007 #1 이날이구나. 이십이일 날. 동지날이구나. 이거.(이날이구나. 이십이일. 동짓날이구나. 이거.)

107007 @1 옛날은 동짓날에 꼭 혜영 먹언예?(옛날은 동짓날에 꼭 해서 먹었어요?)

107007 #1 꼭 혜영 먹읍니다. 동지날 옛날은 아주 잘 촛아마씨.(꼭 해서 먹습니다. 동짓날 옛날은 아주 잘 찾아요.)

107007 @1 아.(아.)

107007 #1 겐디 요즘 아이덜은 무신 뭐 죽 잘 먹지도 아녀곡 허난 이 쑤지도 아녀곡 먹지도 아녀곡.(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무슨 뭐 죽 잘 먹지도 않고 하니까 이 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07007 @1 음, 옛날은 무사 동짓날 그 죽을 쒓덴 헙니까?(음, 옛날은 왜 동짓날 그 죽을 쒔다고 합니까?)

107007 #1 게난 그 저 동지도양 아기동지가 잇어마씸.(그러니까 그 저 동지도요 아기동지가 있어요.)

107007 @1 예.(예.)

107007 #1 아기동지날은 죽 안 쑨덴 헙니다.(아기동짓날은 죽 안 쑨다고 합니다.)

107007 @1 아기동진 언제우꽈?(아기동진 언젭니까?)

107007 #1 아기동지가. 저 아기동지 그, 그해엘 잇질 아녀고.(아기동지가, 저 아기동지 그, 그해엘 있지 않고.)

107007 @1 으.(으.)

107007 #1 영 돌아오당 보민 어느 핸 올히는 아기동지다 경 헌 때는 죽 안 쑵니다.(이렇게 돌아오다가 보면 어느 해엔 올해는 아기동지다 그렇게 한 때는 죽 안 쑵니다.)

107007 @1 으.(으.)

107007 #1 안 쓰곡. 이 저 동지엔 헌 건 계속 죽을 쑤는디 경 아기동지엔 죽 안 쒀도 뒈여, 뒈여 경 허멍 안 쑵니다.(안 쓰고. 이 저 동지라고 한 건 계속 죽을 쑤는데 그렇게 아기동지에는 죽 안 쒀도 돼, 돼 그렇게 하면서 안 쑵니다.)

107010 @1 음, 그다음에 이제 놈삐도 놩은에 밥헤연마씨?(음, 그다음에 이제 무도 넣어서 밥해요?)

107010 #1 놈삐 놘은 밥 아년 먹어봣수다.(무 넣어서는 밥 안 해먹어봤습니다.)

107010 @1 아, 여기는 놈삐 놩 안 헹예?(아, 여기는 무 넣어서 안 해요?)

107010 #1 예, 우리는 놈삐 놘은 밥 안 헤먹엇수다. 겐디.(예, 우리는 무 넣어서는 밥 안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107010 @1 저쪽 구좌 가면 놈삐도 놩 밥헷덴 헤여.(저쪽 구좌 가면 무도 넣어서 밥했다고 해요.)

107010 #1 아, 놈삐도 놘 밥 헷덴마씸.(아, 무도 넣고 밥 했대요?)

107010 @ 예.(예.)

107010 #1 막 무 ᄀᆞ뜬 건 우영팟 하 놓난 하영 갈안 먹엇수다마는 놈삐 놘은 밥 안 헨 먹어봣수다. 견디 텔레비에 보민 요즘도 저 놈삐 놩 밥헤영 먹지 아녑니까?(마구 무 같은 건 텃밭 많아 놓으니까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만 무 넣어서는 밥 안 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도 저 무 넣어서 밥해서 먹지 않습니까?)

107010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10 #1 아, 요즘에 텔레비에도 저 놈삐 놩덜 밥헤 먹고.(아, 요즘에는 텔레비전에도 무 넣고들 밥해 먹고.)

107011 @1 음, 톳 놩은에 밥 헤 먹는 거?(음, 톳 넣어서 밥해 먹는 거?)

107011 #1 톳도 놘 안 헤보고양. 톳은 강 허여와도 톳은 안 놘 헤여 먹어봣수다.(톳도 넣어서 안 해보고요. 톳은 가서 해와도 톳은 안 넣고 해먹어봤습니다.)

107011 @1 이 동네 사름도 안 헤영 먹어신가마씨?(이 동네 사람도 안 해서 먹었을까요?)

107011 #1 이 동네 사름도 놩 허영 먹어보고렌 안 ᄀᆞᆯ읍니다.(이 동네 사람도 넣어서 해먹어봤다고 안 말합니다.)

107012 @1 아, 거는 바당 동네라예, 예.(아, 거는 바다 동네요, 예.)

107012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12 @1 게민 패밥도 안 헹 먹어실 거고?(그러면 패밥도 안 해서 먹었을 거고.)

107012 #1 페?(패?)

107012 @1 예.(예.)

107012 #1 저 바당에 패 말이우꽈?(저 바다에 패 말입니까?)

107012 @ 예.(예.)

107012 #1 그거는 패밥은 먹을 셍각을 아녀고양.(그거는 패밥은 먹을 생각을 않고요.)

107012 @1 예.(예.)

107012 #1 그거, 그건 저 무시거 걸름.(그거, 그건 저 무엇 거름.)

107012 @1 아, 걸름. 여기서는?(아, 거름. 여기서는?)

107012 #1 예, 걸름 아니우꽈? 거, 패 거 저 바당에 거는 다 먹넨 허주마는 그 패는 그거 저 걸름 아니우꽝? 감태도 걸름이고.(예, 거름 아닙니까? 거, 패 거 저 바다에 거는 다 먹느다고 하지만 그 패는 그거 저 거름 아닙니까? 감태도 거름이고.)

107012 @1 예.(예.)

107012 #1 건 먹을 셍각도 아녀마씸.(건 먹을 생각도 안 해요.)

107013 @1 게믄 국은 어떤 것덜 헤영 먹언마씨?(그러면 국은 어떤 것들 해서 먹었어요?)

107013 #1 국은 주로 뒌장쿡마씸게.(국은 주로 된장국이요.)

107013 @1 뒌장쿡.(된장국.)

107013 #1 예, 뒌장쿡. 저 뭐 무도 썰어 놩은엥에 국 끌리곡 주로 콩국.(예, 된장국. 저 뭐 무도 썰어 넣어서 국 끓이고 주로 콩국.)

107013 @1 아, 콩국예.(아, 콩국이요.)

107013 #1 예, 콩국. 옛날 ᄂᆞᄆᆞᆯ은게 좋은 ᄂᆞᄆᆞᆯ씨가 엇엇수다게.(예, 콩국. 옛날 나물은 좋은 나물씨가 없었습니다.)

107013 @1 예, 예.(예, 예.)

107013 #1 경허민 그 ᄂᆞᄆᆞᆯ이 나쁘민 콩국 드박드박허게[221] 끓여근에.(그러면 그 나물이 나쁘면 콩국 '드박드박하게' 끓여서.)

107013 @1 으.(으.)

107013 #1 그거에 헤여근에 저 낮이는 또 고구마에 또 콩국도 흔 그릇썩 먹곡.(그거에 해서 저 낮에는 또 고구마에 또 콩국도 한 그릇씩 먹고.)

107013 @1 음.(음.)

107013 #1 경 헷수다.(그렇게 했습니다.)

107013 @1 그 콩국 맛 존디.(그 콩국 맛 좋은데.)

107013 #1 예.(예.)

107013 @1 예.(예.)

107013 #1 콩국. 주로 콩국 먹곡 뒌장쿡 먹곡. 제사 같은 때엔 또 바당국[222] 먹곡 경헷수다게.(콩국. 주로 콩국 먹고 된장국 먹고. 제사 같은 때엔 또 '바당국' 먹고 그랬습니다.)

107014 @1 음. 게문 삼춘, 그 ᄂᆞᄆᆞᆯ국예, 그 ᄂᆞᄆᆞᆯ쿡은 어떤 식으로 끌엿수가? 여기서는?(음. 그러면 삼촌, 그 나물국은요, 그 나물국은 어떤 식으로 끓였습니까? 여기서는?)

107014 #1 ᄂᆞᄆᆞᆯ은 뒌장마씸.(나물은 된장이요.)

107014 @1 예.(예.)

107014 #1 엿날 뒌장 두 통개[223]썩 담은 거 그 뒌장 ᄂᆞ물, ᄂᆞ물 놔근에 ᄇᆞ글ᄇᆞ글 궤민게 그 뒌장 저 거려당은에게 그거 어느 정도 맞을 만이 헤근에 숟구락으로 영영 개여근엥에 그 저 그거 놔근엥에 국 끌령 먹엇수다. 게난.(옛날 된장 두 '통개'씩 담은 거 그 된장 나물, 나물 넣어서 바글바글 끓으면 그 된장 저 떠다가 그거 어느 정도 맞을 만큼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여서 그 저 그거 넣어서 국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7014 @1 게믄 ᄂᆞᄆᆞᆯ 놘 다음에 뒌장 놧수가?(그러면 나물 넣은 다음에 된장 넣었습니까?)

107014 #1 ᄂᆞᄆᆞᆯ 놩 궨 다음에.(나물 넣고 끓은 다음에.)

---

221) '드박드박허다'는 두부 따위를 만들 때 무르게 굳은 모양을 말한다.
222) '바당국'은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로 끓인 국을 말한다.
223) '통개'는 항아리의 일종이다.

107014 @1 아, ᄂᆞᄆᆞᆯ 놩 궨 다음에 뒌장을 놔예?(아, 나물 넣고 끓은 다음에 된장을 넣어요?)

107014 #1 뒌장 놧수다예. 경 헤연 먹엇수다게.(된장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107014 @1 지금도 국 끓일 때 경 헤마씸? 삼춘.(지금도 국 끓일 때 그렇게 해요? 삼촌.)

107014 #1 아, 지금은, 지금도 경 허여집니다. 난.(아,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해집니다. 전.)

107014 @1 아.(아.)

107014 #1 난 경 헤져마씸.(전 그렇게 해져요.)

107014 @1 아, 뒌장부떠 먼저 끌영 안 허고 ᄂᆞᄆᆞᆯ 놩은에.(아, 된장부터 먼저 끓여서 안 하고 나물 넣어서.)

107014 #1 ᄂᆞᄆᆞᆯ 놔근엥에 그 우터레 저 뒌장 영 간 맞촤집니다, 이제도.(나물 넣어서 그 위에 저 된장 이렇게 간 맞춰집니다. 이제도.)

107014 @1 아. 예.(아, 예.)

107014 #1 버릇이 경 헤난산디.(버릇이 그렇게 해서인지.)

107014 @1 예, 예. 아, 기구나.(예, 예. 그렇구나.)

107014 #1 경 헤집니다게.(그렇게 해집니다.)

107014 @1 예.(예.)

107014 #1 경 허영 영 간 맞게 헤근엥에 뭐 저 다시말 노나.(그렇게 하고 이렇게 간 맞게 해서 뭐 저 다시말 넣으나.)

107014 @ 음.(음.)

107014 #1 처음에 같이 다시마, 다시마부떠 물러레 놔마씨.(처음에 같이 다시마, 다시마부터 물에 넣어요.)

107014 @1 예, 예.(예, 예.)

107014 #1 경 다시마부떠 물러레 놔 놩 메리치. 어떤 땐 메리치영 다시마영 ᄀᆞ치 놔근엥에.(그렇게 다시마부터 물에 넣어 놓고 멸치. 어떤 땐 멸치랑 다시마랑 같이 넣어서.)

107014 @1 으.(으.)

107014 #1 ᄒᆞ꼼, ᄒᆞᄊᆞᆯ 끌리당은에 끌리단 거 건져둰은에.(조금, 조금 끓이다가 끓이던 거 건져두고.)

107014 @1 예.(예.)

107014 #1 건져둬근엥에 그 ᄂᆞᄆᆞᆯ 놔근엥에 ᄯᅳ시 그 저 뒌장 ᄒᆞᄊᆞᆯ 놔근엥에.(건져두고 그 나물 넣어서 다시 그 저 된장 조금 넣어서.)

107014 @1 아, 맨 마지막에 뒌장을 놓는구나.(아, 맨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구나.)

107014 #1 예, 게난 막 맛셔마씸. 경, 이제 이제 경 끌려도.(예, 그러니 매우 맛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끓여도.)

107014 @1 예.(예.)

107014 #1 경 끌리민 저 뒌장쿡은 먹고 싶지 아녀도양 뒌장쿡답지 아녀근에 맛잇게 잘 먹어졈젠 ᄀᆞᆯ아집니다. 어디 강.(그렇게 끓이면 저 된장국은 먹고 싶지 않아도요 된장국답지 않아서 맛있게 잘 먹어진다고 말해집니다. 어디 가서.)

107014 @1 예.(예.)

107014 #1 아이고양, ᄂᆞᄆᆞᆯ국 먹고 싶지 아녀는게 막 잘 막 맛싯게 먹엄수다, 경 ᄀᆞᆯ아져마씸.(아이고요, 나물국 먹고 싶지 않는데 매우 잘 매우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말해져요.)

107014 @1 음.(음.)

107014 #1 경 ᄀᆞᆯ아집니다.(그렇게 말해집니다.)

107015 @1 콩ᄂᆞ물도 놩은에 국 헤마씨?(콩나물도 넣어서 국 해요?)

107015 #1 예.(예.)

107015 @1 에, 건 어떤 식으로 끌립니까?(예, 건 어떡 식으로 끓입니까?)

107015 #1 콩ᄂᆞ물도 물 팔팔 끌령 놔야 좁니다. 그냥 끌리는 사름도 잇고.(콩나물도 물 펄펄 끓여서 넣어야 좋습니다. 그냥 끓이는 사람도 있고.)

107015 @1 음.(음.)

107015 #1 물 그자 물 끌령 놓는 거만 좋아허영 물 끌령만 잘 놔집디다.(물 그저 물 끓여서 넣는 거만 좋아해서 물 끓여서만 넣어집디다.)

107015 @1 음.(음.)

107015 #1 물 끌려근에 그레 그자 시쳐근엥에 들이쳐근에 간만 맞촹은에.(물 끓여서 그리로 그저 씻어서 집어넣어서 간만 맞춰서.)

107015 @1 삼춘은 항상 간은 뒤에 헴구나예?(삼촌은 항상 간은 뒤에 하는군요?)

107015 #1 예, 간은 뒤에.(예, 간은 뒤에.)

107015 @1 예.(예.)

107015 #1 간은 두에 헤야 전부 다 논 후에 간이 맞일 거 아니우꽈게.(간은 뒤에 해야 전부 다 넣은 후에 간이 맞을 거 아닙니까?)

107015 @1 음.(음.)

107015 #1 게난.(그러니까.)

107016 @1 ᄂᆞᆷ삣국도?(무국도?)

107016 #1 ᄂᆞᆷ삐국도 벨로 안 끌려집니다. 안 끌려지는디.(무국도 별로 안 끓여집니다. 안 끓여지는데.)

107016 @1 아.(아.)

107016 #1 영 안 끌려봣수다. 나 만이난에. 아기덜 이신 때도 ᄂᆞᆷ삐국은 잘 벨로 안 끌려봣수다.(이렇게 안 끓여봤습니다. 저 만이니까. 아기들 있을 때도 무국은 잘 별로 안 끓여봤습니다.)

107016 @1 아, 옛날도 경 안 끌렷수가? 놈삐국.(아, 옛날에도 그렇게 안 끓였습니까? 무국.)

107016 #1 게난 어쩌다 놈삐 봐지민 ᄒᆞ꼼 ᄒᆞ꼼 썰어근엥에 그 ᄂᆞ물러레 놔근에양.(그러니 어쩌다 무 봐지면 조금 조금 썰어서 그 나물에 넣어서요.)

107016 @1 음.(음.)

107016 #1 서껑, 서껑이나 ᄒᆞᆫ 번썩 허엿주. 원원, 놈삐 놈삔 ᄒᆞᆫ읏이 끌려보지 아녓수다게.(섞어, 섞어서 한 번씩 했지. 원원, 무 무는 별로 끓여보지 않았습니다.)

107016 @1 아, ᄂᆞ물을 하영 가니까.(아, 나물을 많이 가니까.)

107016 #1 예. ᄂᆞ물을 가난에 ᄂᆞ물도게 아무 ᄂᆞ물도 아녕 쏙앚인ᄂᆞ물만으로만 헤영은에.(예. 나물을 가니까 나물도 아무 나물도 않고 속앉은배추만 해서.)

107016 @ 음.(음.)

107016 #1 저 데왕도 먹어보곡, 끌령도 먹어 보곡. 저 우리 메누리넨 저 시금추도 하영 허여 놓고.(저 데워서도 먹어보고, 끓여서도 먹어보고. 저 우리 며느리넨 저 시금치도 많이 해서 넣고.)

107016 @1 예.(예.)

107016 #1 놈, 무 두 개 매어 놓고, 저 그 쏙앚인ᄂᆞ물 두 개 허연 주난에양, ᄀᆞ만이 쎅연 그냥 내부난 막 용심 난 이제 아무거옌도 안 ᄀᆞᆯ앙 잇수다게.(무, 무 두 개 매어 놓고, 저 그 속앉은배추 두 개 해서 주니까요, 가만히 썩혀서 그냥 내버리니까 막 화가 나서 이제 뭐라고도 안 말하고 있습니다.)

107016 @1 웃음.(웃음.)

107016 #1 양, 어떤 입산디 그치록 아무거나 먹질 아녑니다게.(양, 어떤 입인지 그처럼 아무거나 먹질 않습니다.)

107016 @1 아.(아.)

107016 #1 게난 우리 큰아덜도 완 ᄀᆞᆯ읍니다. 인봉이넨 뭣사 먹엉 사는디.(그러니 우리 큰아들도 와서 말합니다. 인봉이넨 뭐야 먹고 사는지.)

107016 @1 음.(음.)

107016 #1 경 ᄀᆞᆯ읍디다게.(그렇게 말합니다.)

107016 @1 예.(예.)

107016 #1 게난 거 들어보젠 허멍 이젠 안, 느 그 썩연 버련자? 경 ᄀᆞᆫ젠 허멍.(그러니 거 들어보려고 하면서 이젠 안, 너 그 썩혀서 버렸니?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서.)

107016 @1 애쓰게 헹은 줘신디.(애쓰게 해서 줬는데.)

107016 #1 아이고, 춤 메틀 멧 날 ᄒᆞᆫ, ᄒᆞᆫ 열흘 가까이 십디다게.(아이고, 참 며칠 몇 날 한, 한 열흘 가까이 있습디다.)

107016 @1 으.(으.)

107016 #1 그 옆이.(그 옆에.)

107016 @1 예.(예.)

107016 #1 열흘 가까이 시난 요거 버리젠 놔뒷저. 경ᄒᆞ멍.(열흘 가까이 있으니까 요거 버리려고 놔뒀지. 그러면서.)

107016 @1 웃음.(웃음.)

107016 #1 아니, 시금추 언마나 맛좋읍니까게?(아니, 시금치 얼마나 맛좋습니까?)

107016 @1 예, 맞아마씨.(예, 맞아요.)

107016 #1 시금추 무치민게. 어멍 ᄒᆞᆫ 번 헨 먹고게 그걸 헤단 주난 안 먹은 거라마씸게. ᄒᆞᆫ 번은 시쳥 주난사 먹어신디.(시금치 무치면. 어멍 한 번 해서 먹고 그걸 해다가 주니까 안 먹은 거예요. 한 번은 씻어서 주니까 먹었는지.)

107016 @1 음. 시쳥까지 줜.(음. 씻어서까지 줬어요.)

107016 #1 아이고, 노릇도. 경 저 아무거나 먹젠 안 헙니다게.(아이고, 노릇도. 그렇게 저 아무거나 먹으려고 안 합니다.)

107016 @1 아.(아.)

107016 #1 입이 까다로와, 입이. 입이 완전 까다로와.(입이 까다로워, 입이. 입이 완전 까다로워.)

107016 @1 기구나. 우리는 막 풀 좋아허는디.(그렇구나. 우리는 막 풀 좋아하는데.)

107016 #1 아이고, 나도 막 풀만 좋아헙니다게.(아이고, 나도 아주 풀 좋아합니다.)

107016 @1 예.(예.)

107016 #1 뭐 아무 거라도 저 생것도 좋아허곡 저런 ᄂᆞ물 데운[떼운] 것도 좋아허곡.(뭐 아무 거라도 저 생것도 좋아하고 저런 나물 데친 것도 좋아하고.)

107016 @1 음.(음.)

107016 #1 요 저 미깡 타레 간에, 요 서녁집의 성님 어제도 장에 간 ᄒᆞ루 혜원 살앗주마는. 놈이 미깡 타레 가난에.(요 저 감귤 따러 가서, 요 서쪽집의 형님 어제도 장에 간 하루 종일 살았지만. 남의 감귤 따러 가니까.)

107016 @ 으.(으.)

107016 #1 ᄂᆞ물을 데완 나와시난양 고기고 뭣이고 ᄂᆞ물 먹어가난, 야이 막 ᄂᆞ물 잘 먹는 아이여 ᄒᆞ근데, 아이고, 난 ᄂᆞ물, ᄂᆞ물 막 잘 먹어집니다. ᄂᆞ물이영 생것도 잘 먹고 ᄂᆞ물 ᄀᆞ뜬 거 이거 언마나 존 것과?(나물을 데쳐 나왔기에 고기는 뭣이고 나물 먹어가니까, 얘 아주 나물 잘 먹는 아이야 하기에, 아이고, 전 나물 아주 잘 먹어집니다. 나물이랑 생것도 잘 먹고 나물 같은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107016 #1 예.(예.)

107016 @1 ᄂᆞ물만 먹으민 막 베 불게 밥 먹어집니다. 경 ᄀᆞᆯ앗수다.(나물만 먹으면 막 배 불게 밥 먹어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7016 @1 예, 예. 건강도 좋고?(예, 예. 건강에도 좋고?)

107016 #1 예, 막 좋아마씸.(예, 아주 좋아요.)

107016 @1 으, 으.(으, 으.)

107016 #1 게난 뒌장이 항상 그자 그 상 우티레 올라오는 거라마씸.(그러니 된장이 항상 그저 그 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107016 @1 예, 젤 그게 건강식마씨?(예, 젤 그게 건강식이에요.)

107016 #1 게난 건강혜 점수과? 웃음.(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웃음.)

107016 @1 예.(예.)

107016 #1 웃음.(웃음.)

107016 @1 아니 경 허여도 다른 다리만 아프주 다른 딘 안 아프지 안 헙니까?(아니 그렇게 하여도 다른 다리만 아프지 다른 덴 안 아프지 안 합니까?)

107016 #1 양, 이거양 이거 무사 아파신고허민양.(이보세요, 이거요 이거 왜 아팠냐하면요?)

107016 @1 사고도 멧 번 나고.(사고도 몇 번 나고.)

107016 #1 골다공증도 문 뒈엿젠 헙디다마는. 저 오도바이 탕 놀아뎅기단 문 다쳔.(골다공증도 모두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 오토바이 타서 날아다니다가 노두 다쳐서.)

107016 @ 경허니까.(그러니까.)

107016 #1 영 허염수게.(이렇게 합니다.)

107016 @ 예.(예.)

107016 #1 오도바이 탄 뎅기멍. 이거 십년 오도바이 타난게.(오토바이 타서 다니면서. 이거 십년 오토바이 타니까.)

107016 @1 음. 게도 잘도 젊은 편. 다리만 아픈 거주.(음. 그래도 잘도 젊은 편. 다리만 아픈 거지.)

107016 #1 게난 막 저 아픔으로 늙주. 경 무신 경 전읜 젊어, 젊덴 헤낫수다마는.(그러니까 매우 저 아픔으로 늙지. 그렇게 무슨 그렇게 전엔 젊어, 젊다고 했었습니다만.)

107016 @1 예.(예.)

107016 #1 아팡마씸게. 아팡.(아파서요, 아파서.)

107016 @ 음.(음.)

107016 #1 아팡은에 헤도 요샌 병원 안 뎅겸수다.(아프다고 해도 요샌 병원 안 다니고 있습니다.)

107016 @1 ᄂᆞᄆᆞᆯ쿡 먹으난 좋은 거우다. 웃음.(나물국 먹으니까 좋은 겁니다. 웃음.)

107016 #1 병원 아이 뎅겸수다, 이제.(병원 안 다닙니다. 이제.)

107017 @1 삼춘, 콩국 흔 번 맛좋게 끌려봅서. 콩국은 어떵 끌렴수과? 예.(삼촌, 콩국 한 번 맛좋게 끓여보세요. 콩국은 어떻게 끓이십니까? 예.)

107017 #1 콩국?(콩국?)

107017 @1 예.(예.)

107017 #1 콩국도 아무나 못 끌립니다.(콩국도 아무나 못 끓입니다.)
107017 @1 예.(예.)
107017 #1 우리 메누린 안 끌립니다, 콩국.(우리 며느린 안 끓입니다, 콩국.)
107017 @1 으.(으.)
107017 #1 큰메누리도 못허곡 족은메누리도 못허곡 그 저 그 농장에서 콩국 언제나 우린 저 콩 혼 말 사곡양.(큰며느리도 못하고 작은며느리도 못하고 그 저 그 농장에서 콩국 언제나 우린 저 콩 한 말 사고요.)
107017 @1 예.(예.)
107017 #1 어디 헐 디가 엇어 놓난, 그때는 헐 디가 엇어 놓난에. 처음엔 저 혼 멧 년은 허엿수다게.(어디 할 데가 없어 놓으니까, 그때는 할 데가 없어 놓으니까. 처음엔 저 한 몇 년은 했습니다.)
107017 @1 예.(예.)
107017 #1 막 ᄉᆞ방에 ᄒᆞ꼼썩 ᄒᆞ꼼썩 허여가단 말쩬양 헐 디가 엇곡 꿩 제완 못 허민 콩 혼 말 사곡 풋 혼 말 사곡 유는 ᄃᆞ시 그디서 갈곡.(마구 사방에 조금씩 조금씩 해가다가 말째는요 할 데가 없고 꿩 겨워서 못하면 콩 한 말 사고 팥 한 말 사고 들깨는 다시 거기서 갈고.)
107017 @1 예.(예.)
107017 #1 경 허여근엥에 그걸 문 ᄀᆞᆯ아다근에 콩국을 끌리는디, 콩은, 콩국은 물 ᄒᆞ꼼 놔근엥에 그 물 끌려가, 끌려가멍 따시 콩ᄀᆞ를 ᄃᆞ시 젓어마씨.(그렇게 해서 그걸 모두 갈아다가 콩국을 끓이는데, 콩은, 콩국은 물 조금 넣어서 그 물 끓이다가, 끓이면서 다시 콩가루를 다시 저어요.)
107017 @1 예.(예.)
107017 #1 저 물 놓멍 젓어근에 소금 ᄒᆞᆯ 좁아놓곡 허영 젓어근에 그자 멧 사름 먹을 거 허영.(저 물 넣으면서 저어서 소금 조금 집어넣고 해서 저어서 그저 몇 사람 먹을 거 하고.)
107017 @1 으.(으.)
107017 #1 게난 경 맞게 허여졈수가게, 더 허염주게.(그러니까 그렇게 맞게 해집니까, 더 하고 있지.)
107017 @ 으.(으.)
107017 #1 하영 헤졈주게.(많이 해지고 있지.)
107017 @ 으.(으.)
107017 #1 게민 그것도 콩ᄀᆞ르도 하영 놔사 드박드박[224] 맛싯지 아녑니까?(그러면 그것도 콩가루도 많이 넣어야 '드박드박' 맛있지 않습니까?)
107017 @1 예.(예.)
107017 #1 게난 하영 놩 두부ᄀᆞ찌 경 허영 저 콩ᄀᆞ르 그 저 물 팔팔 끓리민.(그러니 많이 넣어서 두부처럼 그렇게 하고 저 콩가루 그 저 물 팔팔 끓으면.)

224) '드박드박'은 두부 따위를 만들 때 무르게 굳은 모양을 말한다.

107017 @ 예.(예.)

107017 #1 그레 젓으멍 아래 영 영 젓으멍 비와마씨.(그리 저으면서 아래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부어요.)

107017 @1 예.(예.)

107017 #1 비우민 그다음엔 우의로만 꼭꼭 눌뜨멍 젓질 아녀마씸.(부우면 그다음엔 위로만 꼭꼭 누르면서 젓질 않아요.)

107017 @1 예.(예.)

107017 #1 젓어불민 지르륵허곡[225] 허난.(저어버리면 '지르륵하고' 하니까.)

107017 @1 으.(으.)

107017 #1 그자 우로만 눌뜨고 나중에 또 영 부꺼[226] 올라와 가민 아, 이거 궤염구나, 허여근에 ᄂᆞ물 썬 거 톡톡 노멍 불 ᄂᆞ려와근에 불 줄여근엥에 그자 사끄[227]로 꼭꼭 누들멍 그 저 콩국을 허여마씸.(그저 위로만 누르고 나중에 또 이렇게 끓어 올라와 가면 아, 이거 끓는구나, 해서 나물 썬 거 톡톡 넣으면서 불 내려서 불 줄여서 그저 국자로 꼭꼭 누르면서 그 저 콩국을 해요.)

107017 @1 음.(음.)

107017 #1 콩국을 허민 싱거왐직허민 소금 ᄒᆞ쏠 그 믄 불 믄 끌 때에.(콩국을 하면 싱거울 것 같으면 소금 조금 그 모두 불 모두 끌 때에.)

107017 @1 으.(으.)

107017 #1 소곰 ᄒᆞ쏠 영 우티레 놩 꼭꼭 누뜨러근엥에 ᄒᆞ꼼만 놔두민 드박드박 헙니다게.(소금 조금 이렇게 위에 넣어 꼭꼭 눌러서 조금만 놓아두면 '드박드박' 합니다.)

107017 @1 아아.(아아.)

107017 #1 게난 경 젓어불어도 안 뒈는 거마씸. 젓지 말앙 우로만 누뜨러.(그러니 그렇게 저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젓지 말고 위로만 눌러.)

107017 @1 눌러.(눌러.)

107017 #1 우트레 올라오는 거 그자 글로 누들고 절로 누들고 허멍 누들멍 저 콩국은 아무라도 못 끌립니다게.(위로 올라오는 거 그저 글로 누르고 절로 누르고 하면서 누르면서 저 콩국은 아무라도 못 끓입니다.)

107017 @1 으.(으.)

107017 #1 거 어린아이덜토 못 끌려.(거 어린아이들도 못 끓여.)

107017 @1 예.(예.)

107017 #1 우리 메누리덜은 허젠도 아녀곡, 어머니 허세요, 우리 우리 큰메누린 어머니가 너무 깔끔헤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깔끔헤 가지고, 경만 그치록만 ᄀᆞᆯ읍니다게. 말엔 헌 건.(우리 며느리들은 하려고도 않고, 어머니 하세요, 우리 우리 큰며느린 어머니가 너무 깔끔해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깔끔해 가지고, 그렇게만 그처럼

225) '지르륵허곡'은 국물에 풀기가 없고 맛이 밍밍하고의 의미다.
226) '부끄다'는 액체가 끓어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콩가루가 익어가며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227) '사끄'는 일본어 'しゃくし'를 말하는데 표준어 '국자'에 대응한다.

말합니다. 말이라고 한 건.)
107017 @1 웃음.(웃음.)
107017 #1 무신 말고? 어머니가 너무 깔끔헤 가지고. 경 허멍게 무시거엔 곧지도 아녀곡.(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너무 깔끔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107017 @1 예.(예.)
107017 #1 음식 ᄀᆞ뜬 건 허젱을 안 헙니다게.(음식 같은 건 하려고 안 합니다.)
107017 @1 음.(음.)
107017 #1 허젱을 아녀.(하려고 않아.)
107017 @1 항상 이제 헤나, 헤주니까.(항상 이제 해나, 해주니까.)
107017 #1 예. 허젱을 아녑니다. 게난 무시 거 허영 놔두민 막 부꾸와근엥 저디 막 허영 내불민, 이거 뭣고 조그만이 담아 놩 허주. 이치록 하영 허영 문 부끄와불어근엥에 허엿젠 허는 따문 허젱 아녑니다.(예. 하려고 않습니다. 그러니 뭐 해서 놓아두면 마구 끓어 넘쳐버려 저기 마구 해서 내버리면, 이거 뭣이니 조금만 담아 넣고 하지. 이처럼 많이 해서 모두 끓어 넘쳐버리고 했다고 하는 때문에 하려고 안 합니다.)
107017 @1 으.(으.)
107017 #1 허젠 아녀근엥에. 어머니 헌 것이 맛있어요. 어머니 헌 것이 맛있어요. 그치룩만 헙니다게.(하려고 안 해서, 어머니 한 것이 맛있어요. 어머니 한 것이 맛있어요. 그처럼만 합니다.)
107017 @1 예.(예.)
107017 #1 경 허멍 저 허젱을 아녑니다게.(그렇게 하면서 저 하려고 않습니다.)
107017 @1 삼춘은 이제 ᄂᆞ, 그 나중에, ᄂᆞ물도 나중에 ᄂᆞ는구나. 우리 어머니 헐 때는 ᄂᆞ물 먼저 놩은에 콩 나중에 놉디다.(삼촌은 나, 그 나중에, 나물도 나중에 넣는구나. 우리 어머니 할 때는 나물 먼저 넣고 콩 나중에 넣습디다.)
107017 #1 아이고, 아니우다게.(아이고, 아닙니다.)
107017 @1 예.(예.)
107017 #1 건 안 뒈는 거.(건 안 되는 거.)
107017 @1 예, 경허민 안 뒈는 거예?(예, 그러면 안 되는 거요?)
107017 #1 건 안 뒈는 거.(건 안 되는 거.)
107017 @1 으.(으.)
107017 #1 콩이 영 콩가루 콩가루 영 영 허여근에 이거민 적당허다 허여근엥에 저 맞게 헤근에 영 부꺼올랑.(콩이 이렇게 콩가루 콩가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면 적당하다 해서 저 맞게 해서 이렇게 끓어오르고.)
107017 @1 으.(으.)
107017 #1 그 콩ᄀᆞ르가 부끕니다게.(그 콩가루가 끓습니다.)
107017 @1 예, 예.(예, 예.)

107017 #1 게난 부꺼 올라와가민 불 ᄒᆞ끔 줄이곡 허여두서 ᄂᆞᆯ 그자 놓멍 꼭꼭.(그러니 끓어 올라가면 불 조금 줄이고 해두고서 나물 그저 넣으면서 꼭꼭.)

107017 @1 눌러.(눌러.)

107017 #1 누뜨러. 꼭꼭 눌러근에 그 ᄂᆞᆯ 다 익으민 콩ᄀᆞ르도 다 익는 거 아니우꽈?(눌러. 꼭꼭 눌러서 그 나물 다 익으면 콩가루도 다 익는 거 아닙니까?)

107017 @1 예.(예.)

107017 #1 경 허민 그 간을 맞추왕, 간을 맞추와근엥에 ᄒᆞ꼼만 놔두민 드박드박. ᄂᆞᆯ 먼여 안 놉니다.(그렇게 하면 그 간을 맞춰서, 간을 맞춰서 조금만 놓아두면 '드박드박'. 나물 먼저 안 넣습니다.)

107017 @1 음.(음.)

107017 #1 안 뒈여.(안 돼.)

107017 @1 예, 그치룩 허연 한번 끌려봐야겟구나.(예, 그처럼 해서 한번 끓여봐야겠네.)

107017 #1 예. 경 헤봅서.(예. 그렇게 해보세요.)

107018 @1 삼춘, 으, 여름에 허민 호박입국은?(삼촌, 으, 여름에 하면 호박잎국은?)

107018 #1 아, 호박입?(아, 호박잎?)

107018 @1 예.(예.)

107018 #1 호박입도.(호박잎도.)

107018 @1 어떤 식으로 끓여마씨? 호박입국은.(어떤 식으로 끓여요? 호박잎국은.)

107018 #1 호박입도 물 저 팔팔 끓리민.(호박잎도 물 저 팔팔 끓으면.)

107018 @1 음.(음.)

107018 #1 물 팔팔 끌리민 요즘은 저 신식으로 그 칼 대영 썰민 맛엇덴.(물 팔팔 끓으면 요즘은 저 신식으로 칼 대서 썰면 맛없다고.)

107018 @1 예.(예.)

107018 #1 맛엇덴 허민 손으로 븍븍븍븍 찢어근엥에 거 밀엉은엥에 막 씻어뒁 손으로 븍븍 찢어근엥에 그 물 끓립니다게. 물 끓리민 그레 저 콩, 그레 호박입을 놔마씨.(맛없다고 하면 손으로 박박박박 찢어서 거 밀어서 막 씻어두고 손으로 박박 찢어서 그 물 끓입니다. 물 끓으면 거기에 저 콩, 거기에 호박잎을 넣어요.)

107018 @1 음.(음.)

107018 #1 놔근엥에 따시 뭐 무슨 저 밀가루나 모멀가루 시민 더 좋고.(넣어서 다시 뭐 무슨 저 밀가루나 메밀가루 있으면 더 좋고.)

107018 @1 음.(음.)

107018 #1 ᄆᆞ멀ᄀᆞ르 ᄒᆞ끔 놔근에. ᄒᆞ꼼 놔근엥에 그거 저 젓어근엥에 어느 정도민 뒈겟다 허영은에 모멀가루 놔근엥에 끌리민 맛이십니다.(메밀가루 조금 넣어서. 조금 넣어서 그거 저 저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해서 메밀가루 넣어서 끓이면 맛

있습니다.)
107018 @1 예.(예.)
107018 #1 게난 항상 저 물 끓령 놔사. 난 물만 끌령 놔집니다.(그러니 항상 저 끓이고 넣어야. 난 물만 끓이고 넣어집니다.)
107018 @1 예, 물 끌령예?(예, 물 끓여서요?)
107018 #1 예, 물 끌령 호박입도 물 끌령 놔사 파리룽허영 좋아마씨.(예, 물 끓이고 호박잎도 물 끓이고 넣어야 푸릇해서 좋아요.)
107018 @1 으.(으.)
107018 #1 물 끌령 놔야 좁니다.(물 끓여서 넣어야 좋습니다.)
107019 @1 그다음에 옛날 그 몸쿡도 여기도 끌령 먹읍니까?(그다음에 옛날 그 모자반국도 여기도 끓여서 먹습니까?)
107019 #1 예게.(예.)
107019 @1 그건 어떤 식으로 끌려마씨?(그건 어떤 식으로 끓여요?)
107019 #1 그거는 그 저 주로 끌리는 건 뒈지 그 잔치헐 때에.(그거는 그 저 주로 끓이는 건 돼지 그 잔치할 때.)
107019 @1 으.(으.)
107019 #1 잔치헐 때 옛날은 뒈지 하나로 잔치헷수다게. 옛날은.(잔치할 때 옛날은 돼지 하나로 잔치했습니다. 옛날은.)
107019 @1 으.(으.)
107019 #1 하나 큰 거 하나 허영 잔칠 허민 잔칫날은 그 뻬 솖앙.(하나 큰 거 하나 해서 잔칠 하면 잔칫날은 그 뼈 삶아서.)
107019 @1 예.(예.)
107019 #1 뻬 솖앙은엥에 그 저 몸쿡, 몸 썰어 놔근에 경 허영 끌리민 막 맛십니다마는. 이제는 너미 몸이 비싸 놓난양 뒈지 잡는 디도 엇곡, 엇어마씸게.(뼈 삶아서 그 저 모자반국, 모자반 썰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끓이면 매우 맛있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모자반이 비싸 놓으니까 돼지 잡는 데도 없고, 없어요.)
107019 @1 으.(으.)
107019 #1 뒈지 잡는 디도 엇어. 경 허는디 우리는 저 몸쿡 끌령, 집의서 임시 끌령 먹진 아녀고 몸 사다근엥 그자 무청 먹어. 무청 먹는 거.(돼지 잡는 데도 없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 모자반국 끓여서, 집에서 먹진 않고 모자반 사다가 그저 무쳐서 먹어. 무쳐서 먹는 거.)
107019 @1 으.(으.)
107019 #1 언마나 비쌋수가게.(얼마나 비쌌습니까?)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1 요만이 헌 거 이천 원.(요만큼 한 거 이천 원.)
107019 @1 맞아, 예.(맞아, 예.)
107019 #1 예, 게난 그거 그런 거 사당은에 그자 저 몸치[228]로 무쳐근에.(예, 그

러니 그거 사다가 그저 저 모자반 장아찌로 무쳐서.)
107019 @1 음.(음.)
107019 #1 양념 놩 무쳥. 경이나 허곡. 그 저 거 그 뒈지 그 뻬에 노민 막 맛십니다게.(양념 넣어 무치고. 그렇게나 하고. 그거 저 그 돼지 그 뼈에 넣으면 막 맛있습니다.)
107019 @1 으.(으.)
107019 #1 거 그 뭄 놓민. 뭄 놓곡 ᄂᆞ물 ᄒᆞ쏠 놓곡.(거 모자반 넣으면. 모자반 넣고 나물 조금 넣고.)
107019 @1 아, 뭄 놓곡 ᄂᆞ물 놓곡예?(아, 모자반 넣고 나물 넣고요?)
107019 #1 ᄂᆞ물 놓곡.(나물 넣고.)
107019 @1 아.(아.)
107019 #1 어떤 집인 ᄂᆞ물 놓는 디도 싯곡. ᄯᅳ시 ᄂᆞ물 안 놩 ᄯᅳ시 뭄만 놩 허는 집도 잇고 경 헙니다.(어떤 집은 나물 넣는 데도 있고. 또 마물 넣지 않고 모자반만 넣고 하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107019 @1 예.(예.)
107019 #1 뭄이 비싸 놓난양 키로에 언만 헤영.(모자반이 비싸 놓으니까 킬로그램에 얼마 해서.)
107019 @1 음.(음.)
107019 #1 사당은에게 경 헴수게.(사다가 그렇게 합니다.)
107020 @1 여기는 옥돔을 뭐렌 헙니까? 이 동네서는?(여기는 옥돔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동네에서는?)
107020 #1 옥돔엔도 허곡 셍성엔도 허곡.(옥돔이라고도 하고 생선이라고도 하고.)
107020 @1 여긴 셍성이옌 허지예?(여긴 생선이라고 하지요?)
107020 #1 셍성.(생선.)
107020 @1 예, 게믄 옛날에 그 셍성국 끓일 땐 어떤 식으로 허는 거?(예, 그러면 옛날에 그 옥돔국 끓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20 #1 셍성국은 저 기냥 기냥 물에 놩 헤도 뒈마씨.(옥돔국은 저 그냥 그냥 물에 넣어서 해도 돼요.)
107020 @1 아.(아.)
107020 #1 쌂아야 뒐 거난. 건 쌂아야 뒐 거난.(삶아야 될 거니까. 건 삶아야 될 거니까.)
107020 @1 음.(음.)
107020 #1 물에 그냥 그자 시쳐근엥에 물에 놔근엥에 그자 바글바글 건 ᄊᆞᆲ아야 뒐 거난.(물에 그냥 그저 씻어서 물에 넣어서 그저 바글바글 건 삶아야 될 거니까.)
107020 @1 으.(으.)

228) '뭄치'는 모자반을 간장에 담아서 숙성된 후 먹는 반찬을 말한다.

107020 #1 솖아근에 무나 썰어 놓곡.(삶아서 무나 썰어 넣고.)
107020 @1 으.(으.)
107020 #1 경 허영 끌염수게.(그렇게 해서 끓입니다.)
107020 @1 생선에는 무 놔야 맛 좋은 거구나예?(생선에는 무 넣어야 맛 좋은 거군요?)
107020 #1 예, 무. 무 놔야마씸게.(예, 무. 무 넣어야 해요.)
107020 @1 거는 ᄂᆞ물이 아니고예?(거는 나물이 아니고요?)
107020 #1 예, 예. 무, 무. ᄂᆞ물은 안 들어갑니다.(예, 예. 무, 무. 나물은 안 들어갑니다.)
107021 @1 메역국은 뭘로 행은에 먹엇수과? 메역국?(미역국은 뭐로 해서 먹었습니까? 미역국?)
107021 #1 미역국?(미역국?)
107021 @1 으.(으.)
107021 #1 미역국은 저 무시거. 소궤기.(미역국은 저 무엇. 소고기.)
107021 @1 예.(예.)
107021 #1 소궤기 저 썰엉 주지 아넘쑤과? 이제.(소고기 저 썰어서 주지 않습니까? 이제.)
107021 @1 예.(예.)
107021 #1 썰언 주난에 그거, 그거 저 무시거에 보깡게. 참기름에 보까근에.(썰어서 주니까 그거, 그거 저 무엇에 볶아서. 참기름에 볶아서.)
107021 @1 으.(으.)
107021 #1 보까근엥에 물 놔근에 그거 븍삭 솖아지민 미역 놔근에 국 끌령 먹읍니다.(볶아서 물 넣고 그거 푹 삶아지면 미역 넣어서 국 끓이고 먹습니다.)
107021 @1 음.(음.)
107021 #1 우리 아기덜은 막 좋아허영, 나 귀에 왕 대여근엥에 할머니 무신 국? 허민.(우리 아기들은 막 좋아해서, 내 귀에 와서 대고 할머니 무슨 국? 하면.)
107021 @1 으.(으.)
107021 #1 바당국 바당국 경 허민, 에에.(바다국 바다국 그렇게 하면, 에에.)
107021 @1 게민 바당국은 무신 국을 끓이는 거?(그러면 바다국은 무슨 국 끓이는 거?)
107021 #1 바당국은게 저 셍성이나.(바다국은 저 옥돔이나.)
107021 @1 으.(으.)
107021 #1 돔이나.(돔이나.)
107021 @1 으.(으.)
107021 #1 돔, 주로 돔.(돔, 주로 돔.)
107021 @1 돔예?(돔이요?)
107021 #1 돔 막 큰 거양.(돔 아주 큰 거요.)

107021 @1 예.(예.)
107021 #1 맛엇읍디다게.(맛없어요.)
107021 @1 음.(음.)
107021 #1 벨로. 벨로 맛엇으난 아이덜이 안 좋아허는 거 아이꽈?((별로, 별로 맛없으니까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107021 @1 음.(음.)
107021 #1 게난 메역국만 좋아헙니다게.(그러니 미역국만 좋아합니다.)
107021 @1 음.(음.)
107021 #1 게난 멩질엔 저 돔을 큰 거 오만 원 줜 사단에.(그러니 명질엔 저 돔을 큰 거 오만 원 주고 사다가.)
107021 @1 으.(으.)
107021 #1 끌리난에 거 별롭디다양. 별로란게게.(끓이니까 거 별롭디다. 별로여서.)
107021 @1 으.(으.)
107021 #1 가시 문딱 다듬고 혜연에 아이덜ᄏᆞ라 가시 다듬으렌 허난 다듬으난에 건 별로난에 좋아허지 아년. 저 저 저 놈으 뚤 저, 저 손지.(가시 모두 다듬고 해서 아이들보고 가시 다듬으라고 하니까 다듬으니까 건 별로여서 좋아하지 않아. 저 저 저 남의 딸 저, 저 손지.)
107021 @1 으.(으.)
107021 #1 저 큰손지가 그치록 귀에 대영 왕 경 헙니다게. 경. 할머니, 오늘은 무신 국? 경.(저 큰손주가 그처럼 귀에 대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 오늘은 무슨 국? 그렇게.)
107021 @1 웃음.(웃음.)
107021 #1 거짓말 헤불민 할머니 에고, 거짓말헤연, 할머니 거짓말헷네.(거짓말 해버리면 할머니 에고, 거짓말해서, 할머니 거짓말했네.)
107021 @1 으.(으.)
107021 #1 경 허멍 드러 ᄀᆞᆯ읍니다. 미역국만 좋아허영마씨.(그렇게 하면서 들이 말합니다. 미역국만 좋아해서요.)
107022 @1 그리고 옛날에는 냉국덜도 하영 먹엇지 아녀우꽈양?(그리고 옛날에는 냉국들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107022 #1 예게.(예.)
107022 @1 뭘로 냉국 혜영 먹언마씨?(뭐로 냉국을 해서 먹었나요?)
107022 #1 냉국은 저 무시거게. 주로게 옛날부떠 저 뭣은 노난에.(냉국은 저 무엇. 주로 옛날부터 저 뭣은 넣으니까.)
107022 @1 으.(으.)
107022 #1 그 웬 노난에.(그 오이는 넣으니까.)
107022 @1 으.(으.)

107022 #1 오이가 아니고 웨.(오이가 아니고 '웨'.)
107022 @1 예, 예.(예, 예.)
107022 #1 이 저 밧데 영 엿날은양 영 헤연 구뎅이 헤연 놧수게.(이 저 밭에 이렇게 옛날은요 이렇게 해서 구덩이 해서 놓았습니다.)
107022 @1 아.(아.)
107022 #1 구뎅이 헤영 놓민 그 구뎅이에 네 개썩도 살리곡 세 개썩도 살리곡.(구덩이 해서 놓으면 그 구덩이에 네 개씩도 살리고 세 개씩도 살리고.)
107022 @1 음.(음.)
107022 #1 경헌디 요즘은 경 아녀마씨. 경 아년에 그걸로 주로 그자. 그걸로 허영은엥에 보리밥, 보리밥 우알 착 이만이 그 우리 차롱 잇지 아녀우꽈?(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않고 그걸로 그저, 그걸로 해서 보리밥, 보리밥 위아래 짝 이만큼 그 우리 채롱 있지 않습니까?)
107022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22 #1 그 차롱으로 우알 착 거리곡, 반찬이 잇수과? 지슬반찬.(그 채롱으로 위아래 짝 뜨고, 반찬이 있습니까? 감자반찬.)
107022 @1 음.(음.)
107022 #1 지슬반찬 계란 놓곡 헹 지슬반찬허곡, 오이.(감자반찬 계란 넣고 해서 감자반찬하고, 오이.)
107022 @1 예.(예.)
107022 #1 오이 ᄀᆞ정가근엥에 칼로 그자 영 허여근에 늬 개로.(오이 가져가서 칼로 그저 이렇게 하고 네 개로.)
107022 @1 예.(예.)
107022 #1 영 벌렁 영 벌렁 착착착착 썰어 놔근에 낭푼이레 썰어 놩 그레 뒌장 젓어근에.(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 착착착착 썰어 넣어서 양푼에 썰어 넣고 거기에 된장 저어가지고.)
107022 @1 음.(음.)
107022 #1 뒌장 젓어근엥에 그 큰 낭푼이 허여근에 멧 사름허민게 그걸로 허민 거려 놩 거려 놓당 보민 흔 사름은 확 허게 먹어부는 사름도 싯곡.(된장 저어서 그 큰 양푼에 해서 몇 사람하면 그걸로 하면 떠 넣고 떠 넣다 보면 한 사람은 확 하게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107022 @1 아.(아.)
107022 #1 웃음.(웃음.)
107022 @1 일허당 허니까예?(일하다가 하니까요?)
107022 #1 예게, 일허단게 답답허난 그걸 먹는 거라마씸. 경 허영 거 그 엿날은 순 저 오이국, 웨국[웨국]이우다게.(예, 일하다가 답답하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 그 옛날은 순 저 오이국, 오이국입니다.)
107022 @1 으.(으.)

107022 #1 겨곡 ᄂᆞᆯ 데왕은에 집의서 ᄂᆞᆯ 데와근엥에[떼와끄넹에] 국허영 먹을 때도 싯고. 뭐 또 특히 먹젠 허민 자리훼.(그리고 나물 데쳐서 집에서 나물 데쳐서 국해서 먹을 때도 있고. 뭐 또 특별히 먹으려고 하면 자리회.)

107022 @1 예.(예.)

107022 #1 자리훼가 최고 좋은 겁주게.(자리회가 최고 좋은 겁지요.)

107022 @1 예.(예.)

107022 #1 게난 난 자리 해마다 사집네다게.(그러니 전 자리돔 해마다 사집니다.)

107022 @1 아.(아.)

107022 #1 상 아덜 따문. 아덜이 와근에 자리훼 좋아허는 따문.(사서 아들 때문, 아들이 와서 자리돔회를 좋아하는 때문에.)

107022 @1 으.(으.)

107022 #1 오도바이 끗어 강 자리 사다근엥에 죽게 살게 허영은에 놔둬두서 또 이디서만 먹지 못허영 아기덜토 갈라주곡.(오토바이 끌어 가 자리돔 사다가 죽기 살기로 해서 놓아두면서 또 여기서만 먹지 못하고 아기들도 갈라주고.)

107022 @1 웃음.(웃음.)

107022 #1 ᄒᆞᆫ 상자 저.(한 상자 저.)

107022 @1 음.(음.)

107022 #1 ᄒᆞᆫ 상자 상 오민 아무 것도 아이라마씨게.(한 상자 사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7022 @1 음.(음.)

107022 #1 갈라주당 보민.(갈라주다가 보면.)

107022 @1 예.(예.)

107022 #1 다듬지도 못허영 사름 못 젼덩.(다듬지도 못하고 사람 못 견디고.)

107022 @1 게난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식으로 허멍 헌 거라예?(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거예요?)

107022 #1 아이고, 게메마씸.(아이고, 그러게요.)

107023 @1 여기 성게국. 성게는 이 동넨 뭐렌 헙니까?(여기 성게국. 성게는 이 동네는 뭐라고 합니까?)

107023 #1 성, 성, 성게엔 헙니다게.(성, 성, 성게라고 합니다.)

107023 @1 성게예.(성게요.)

107023 #1 예, 성게엔 헙니다.(예, 성게라고 합니다.)

107023 @1 그 성게로도 국 허여마씨?(그 성게로도 국 해요?)

107023 #1 우리 저 미깡 탈 때 성게로 허엿수다게. 성게 그때는 저 무시거 일 키로가양.(우리 저 감귤 딸 때 성게로 했습니다. 성게 그때는 저 무엇 일 킬로그램이요.)

107023 @1 예.(예.)

107023 #1 일 키로가 일 킬로라도 이만벳긔 아넘니다.(일 킬로그램이 일 킬로그램이 이만큼밖에 않습니다.)

107023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23 #1 이만벳기 아녀. 경 허민 일 키로에 그때 오만 원씩 줭 사다근에 멧 번 못 끌립니다게.(이만큼밖에 안 해. 그렇게 하면 일 킬로그램에 그때 오만 원씩 주고 사다가 몇 번 못 끓입니다.)

107023 @1 예.(예.)

107023 #1 경 허영 그것도 끌리곡. 그것도 끌려.(그렇게 해서 그것도 끓이고. 그것도 끓여.)

107023 @1 음.(음.)

107023 #1 저 미역 놩 끌려사마씨.(저 미역 넣고 끓여요.)

107023 @1 건 미역 놩 끌리곡.(건 미역 넣고 끓이고.)

107023 #1 것도 미역 놩 끌려사마씸.(것도 미역 넣고 끓여요.)

107023 @1 보말로는?(보말로는?)

107023 #1 보말, 보말은, 보말은 허여당 올아먹음벳기 뭐 다른 건 아녀봣수다.(보말, 보말은, 보말은 해다가 열어먹기밖에 뭐 다른 건 안 해봤습니다.)

107023 @1 아, 보말국 안 헤봔마씨?(아, 보말국 안 해봤어요?)

107023 #1 아, 보말국은 아녀 봣수다.(아, 보말국은 안 해봤습니다.)

107023 @1 으.(으.)

107023 #1 그건 그자 저 도매[229] ᄀᆞ뜬 거 바농 ᄀᆞ뜬 거 올앙 먹어마씨.(그건 그저 저 머리핀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열어서 먹어요.)

107023 @ 음.(음.)

107023 #1 올아 먹는 거 헷수다, 사단.(열어 먹는 거 했습니다, 사다가.)

107023 @1 넙패도 국 헙니까?(넓패도 국 합니까?)

107023 #1 예. 넘패는 우리 많이 먹엇수다.(예. 넓패는 우리 많이 먹었습니다.)

107023 @1 음,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음,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23 #1 넘패는 넘패 메영 거기서 막 밀엉와마씨.(넓패는 넓패 매서 거기서 막 밀어와요.)

107023 @1 음.(음.)

107023 #1 막 밀어근엥에 복삭 밀어근엥에 헹과 둰 오랑 집이 오랑 또 헹과근에 것도 ᄆᆞ큰 솖아야마씸.(마구 밀어서 폭삭 밀어서 헹궈 두고 와서 집에 와서 또 헹궈서 것도 푹 삶아야 해요.)

107023 @1 음.(음.)

107023 #1 ᄆᆞ큰 솖아근에 틈 제왕. 틈제와근엥에 저 그거만. 딴 것도 놓지 아녕 그거만 혜영 간만 맞춰은에 그걸로 국 끌려도 맛십니다.(푹 삶아서 뜸 재우고. 뜸들이고 저 그거만, 딴 것도 넣지 않고 그거만 해서 간만 맞춰서 그걸로 국 끓여도 맛

229) '도매'는 일본어 'とめ'로, 여기서는 '머리핀'의 의미로 쓰였다

있습니다.)
107023 @1 게믄 그건 무신 간혜마씨?(그러면 그건 무슨 간해요?)
107023 #1 그건 저 뭰, 저 간장.(그건 저 된, 저 간장.)
107023 @1 아, 간장?(아, 간장?)
107023 #1 예, 간장 놩은에.(예, 간장 넣어서.)
107023 @1 음.(음.)
107023 #1 거 간허민 맛십니다. ᄆᆞ큰 끌려 놓난.(거 간하면 맛있습니다. 푹 끓여 놓으니까.)
107023 @1 아.(아.)
107023 #1 ᄆᆞ큰 저 그, 그냥은양 세여 놓난.(푹 저 그, 그냥은요 쇠어 놓으니까.)
107023 @1 아.(아.)
107023 #1 저 원체 센 것이 아니고 그 저 종류가 그런 거난에. 그 저 솖아야마씸.(저 원래 쇤 것이 아니고 그 저 종류가 그런 거니까. 그 저 삶아야 해요.)
107023 @1 예.(예.)
107023 #1 솖아야. 막 솖앙. 솖아근에 푹허게 틈 제왕 내불민 푸근푸근허게 그 국 끌리믄 맛십니다.(삶아야. 오래 삶아서. 삶아서 푹하게 뜸 재워서 내버리면 푸근푸근하게 그 국 끓이면 맛있습니다.)
107023 @1 음.(음.)
107023 #1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23 @1 건 넘피국?(건 넓패국?)
107023 #1 양?(예?)
107023 @1 건 넘피국?(건 넓패국.)
107023 #1 놈삐?(무?)
107023 @1 넘피, 넘패?(넘피, 넘패?)
107023 #1 아, 넘패, 넘패, 넘패.(아, 넘패, 넘패, 넘패.)
107023 @1 넘패.(넓패.)
107023 #1 예, 넘패.(예, 넓패.)
107023 @1 예, 넘패국예, 예?(예, 넓패국이요, 예?)
107023 #1 넘패.(넓패.)
107023 @1 가시리도 국 끌려마씨?(우뭇가사리도 국 끓여요?)
107023 #1 가시리는 국 안 끌립니다.(가시리는 국 안 끓입니다.)
107023 @1 건 안 허고.(건 안 하고.)
107023 #1 가시리는.(우뭇가사리는.)
107023 @1 ᄑᆞ레는?(파레는?)
107023 #1 예?(예?)
107023 @1 ᄑᆞ레, 파래?(ᄑᆞ레, 파래?)
107023 #1 파래?(파래?)

107023 @1 으.(으.)
107023 #1 파래는 무쳐 먹는 거.(파래는 무쳐 먹는 거.)
107023 @1 아, 거는 무쳥 먹곡, 예.(아, 거는 무쳐서 먹고, 예.)
107023 #1 예, 무쳐먹는 거마씸.(예, 무쳐먹는 거예요.)
107023 @1 그다음에 물훼는 뭐 뭐 헨마씨? 물훼들은?(그다음에 물회는 뭐 뭐 했어요? 물회들은?)
107023 #1 물훼?(물회?)
107023 @1 예.(예.)
107023 #1 물훼는 냉국도 헹 먹곡 그냥 저 무쳥 먹기도 허곡마씸.(물회는 냉국도 해서 먹고 그냥 저 무쳐서 먹기도 하고요.)
107023 @1 음.(음.)
107023 #1 그냥 저 뒌장 놔근엥에 무쳐근에양 양념 놩 것도 먹을 만헙니다.(그냥 저 된장 넣어서 무쳐서 야염 넣고 것도 먹을 만합니다.)
107023 @1 예.(예)
107023 #1 게난 그 초원에게 뭐 사레 갈 디 잇수과?(그러니까 그 촌에 뭐 사러 갈 데 있습니까?)
107023 @1 으.(으.)
107023 #1 사레도 못 가민 주로 그런 거.(사러 못 가면 주로 그런 거.)
107023 @1 음.(음.)
107023 #1 거 그자 확 허게 저 까까뒁은에 저 무쳐도 먹곡, 뭐 다른 거 쪼끔 뭐 이 사과 ᄀᆞ뜬 거 배 ᄀᆞ뜬 거.(거 그저 확 하게 저 깎아두고 저 무쳐도 먹고, 뭐 다른 거 조금 뭐 이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107023 @1 으.(으.)
107023 #1 그런 거 ᄒᆞ꼼 놓곡 허민.(그런 거 조금 넣고 하면.)
107023 @1 으.(으.)
107023 #1 것도 좋아마씸. 혼번씩.(것도 좋아요. 한번씩.)
107023 @1 으.(으.)
107023 #1 거 매날 먹는 것도 아니고.(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107023 @1 예, 삼춘, 아까 자리물훼 하영 헷덴 헹게마는 어떤 식으로 허민 맛좋아마씨? 자리물훼는?(예, 삼촌, 아까 자리물회 많이 했다고 하더니만 어떤 식으로 하면 맛좋아요? 자리물회는?)
107023 #1 자리물훤 저 서울 가도 나, 나만 헙니다게.(자리물횐 저 서울 가도 저, 저만 합니다.)
107023 @1 으.(으.)
107023 #1 헐 충을 몰르난. 자리물훼는게 그거 저 써는 것도 틀려마씨.(할 줄을 모르니까. 자리물회는 그거 저 써는 것도 달라요.)
107023 @1 아아.(아아.)

107023 #1 써는 것도 ᄎᆞ례로 안 썰민 또 것도 가시 쎄영 못 먹읍니다.(써는 것도 차례로 안 썰면 또 것도 가시 세서 못 먹습니다.)

107023 @1 으.(으.)

107023 #1 써는 것도 틀리난 그거 썰어근엥에 것도 막 ᄋᆞ라 가지 듭니다.(써는 것도 다르니까 그거 썰어서 것도 막 여러 가지 듭니다.)

107023 @1 음.(음.)

107023 #1 것도 뭐 참기름, 참꿰, 무슨 뭐 조피, 드는 것이양, 설탕 뭐 이거저것 드는 것이 경 하마씨.(것도 뭐 참기름, 참깨, 무슨 뭐 초피, 드는 것이요, 설탕 뭐 이것저것 드는 것이 많아요.)

107023 @1 음.(음.)

107023 #1 하. 막 건 여라 가지 듭니다게. 하영, 하영 놔사 맛잇어마씸.(많아. 막 건 여러 가지 듭니다. 많이, 많이 넣어야 맛있습니다.)

107023 @1 음.(음.)

107023 #1 예, 하영 놔사 맛잇어. 게난 그 저 그런 건 나가, 나만 허는 거마씸, 건.(예,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러니 그 저 그런 건 제가, 저만 하는 거예요. 건.)

107023 @1 예.(예.)

107023 #1 나만 허는 거. 이디와도 나만, 서울 ᄋᆞ정가도 나만.(저만 하는 거. 여기와도 저만, 서울 가져가도 저만.)

107023 @1 그 비법을 전수를 헤야 뒐 건디? 웃음. 게믄 그거는 뒌장으로 양념허지예? 우리 제주도는예?(그 비법을 전수를 해야 될 건데? 웃음. 그러면 그거는 된장으로 양념하지요? 우리 제주도는요?)

107023 #1 예, 예, 뒌장으로, 예.(예, 예, 된장으로, 예.)

107023 @1 으.(으.)

107023 #1 질 처음에 썰어놔근에 그 자리 썰어 노민.(젤 처음에 썰어놓고 그 자리돔 썰어 넣으면.)

107023 @1 예.(예.)

107023 #1 식초부터 ᄆᆞ녀 놔마씸.(식초부터 먼저 넣어요.)

107023 @1 아. 식초부떠.(아. 식초부터.)

107023 #1 식초허고 뒌장부떠 ᄆᆞ녀놔마씸.(식초하고 된장부터 먼저 넣어요.)

107023 @1 음.(음.)

107023 #1 게난 그거를 식초를 무사 노느냐 허면은 자리가 물랑물랑 못허게.(그러니까 그거를 식초를 왜 넣느냐 하면 자리돔이 물렁물렁 못하게.)

107023 @1 예.(예.)

107023 #1 저 ᄒᆞ쏠 저 토락토락허게[230]. 식초를 놓고 뒌장을 놓고.(저 조금 저 '토락토락하게'. 식초를 넣고 된장을 넣고.)

107023 @1 음.(음.)

230) '토락토락하다'는 무르지 않고 탱탱한 상태를 말한다.

107023 #1 경 허영 거 식초는 많이 식초를, 식초는 쯔끔 낫게 놓곡 된장은 약간만 놔근에 버무리만 허주게양.(그렇게 해서 거 식초는 많이 식초를, 식초는 쪼금 낫게 넣고 된장은 약간만 넣어서 버무리기만 하지요.)

107023 @1 으으.(으으.)

107023 #1 버무림만 허엿당은에 다른 거 문딱 허여 놩 뭐 미나리여 무시거여 뭐 문딱 허여다 놔근에.(버무리기만 했다가 다른 거 몽땅 해 놓고 뭐 미나리며 무엇이며 뭐 몽땅 해다 넣어서.)

107023 @1 으.(으.)

107023 #1 아이고, 그디 드는 것이 너미 하마씨. 겨민 저 허여 오렌 허민, 허여 오긴 헙니다. 우리 아덜.(아이고, 거기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 하고 오라고 하면, 하고 오긴 합니다. 우리 아들.)

107023 @1 으.(으.)

107023 #1 저 우영팟듸덜 다 시난.(저 터앝에 다 있으니까.)

107023 @1 예.(예.)

107023 #1 미나리영 무신 뭐 쪽파여 무슨 저 다마네기[231] ᄀᆞ뜬 거게 그거 문딱 멧 가지.(미나리며 무슨 뭐 쪽파며 무슨 저 양파 같은 거 그거 몽땅 몇 가지.)

107023 @1 으.(으.)

107023 #1 허여당은에 ᄒᆞ꼼썩 ᄒᆞ꼼석 놓당 보민 수세가 합니다게.(해다가 조금씩 조금씩 넣다가 보면 여물이 많습니다.)

107023 @1 예.(예.)

107023 #1 하근에 게난, 게난 국이 듬북헤사 맛이 좋아마씸게.(많아서 그러니, 그러니까 국이 듬뿍해야 맛이 좋아요.)

107023 @1 으.(으.)

107023 #1 후루룩 허지 말앙. 기냥 저 자리도 자리 놀 만이 놓곡 그 노는 것이 하영 놔사 맛이 셔마씨게.(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리돔도 넣을 만큼 넣고 그 넣는 것이 많이 넣어야 맛이 있어요.)

107023 @1 으.(으.)

107023 #1 게난 경 허여근에 허민 아덜은 경 좋아근에 자리훼만 경 좋아헙니다게. 게민 언제난 그자 헤마다 그자 자리.(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면 아들은 그렇게 좋아해서 자리물회만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저 해마다 그자 자리돔.)

107023 @1 거기 참기름도 놓지예? 거기.(거기 참기름도 넣지요? 거기.)

107023 #1 예게. 참기름, 처음 젤 처음 참기름 놔야 뒈여.(예. 참기름, 젤 처음 참기름 넣어야 돼요.)

107023 @1 아.(아.)

107023 #1 예, 그 저, 저 버무릴 때에.(예, 그 저, 저 버무릴 때.)

107023 @1 버물릴 때, 식초허영 헐 때 그때도 참기름?(버무릴 때, 식초해서 할

231)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 이며 우리말로 양파를 말한다.

때 그때도 참기름?)
107023 #1 식초 헐 땐 안 놓곡?(식초 할 땐 안 넣고?)
107023 @1 음, 나중에.(음, 나중에.)
107023 #1 예, 나중에 만들 때에.(예, 나중에 만들 때에.)
107023 @1 예.(예.)
107023 #1 자리, 저 자리물훼 만들 때에. 질 처음엔 식초허곡 뒌장허곡.(자리, 저 자리물회 만들 때에, 젤 처음엔 식초하고 된장하고.)
107023 @1 으.(으.)
107023 #1 질 자리 썰어 놔뒁은에. 썰어 놔근에 냉장고에 놔둬뒁 다른 거 문딱 썰어 놔근에.(젤 자리돔 썰어 놓아두고. 썰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른 거 몽땅 썰어 놓고.)
107023 @1 으.(으.)
107023 #1 그거 문딱 노멍 같이 저 것이 저 무시걸 놔마씸게.(그거 몽땅 넣으며 같이 저 것이 저 무엇 넣어요.)
107023 @1 음.(음.)
107023 #1 기름, 참기름을. 빨리 안 놓면은 그게 터불어마씸, 우터레.(기름, 참기름을. 빨리 안 넣으면 그게 떠버려요, 위로.)
107023 @1 아.(아.)
107023 #1 우터레 터부는 따문에 그 양념덜 다 놔 놔근엥에 참기름이여 뭣이영 놔근에 헤사 우티레 안 틀 철 아니우꽈? 초 드난.(위로 떠버리는 때문에 그 양념들 다 넣어 넣어서 참기름이며 뭣이며 넣고 해야 위로 안 뜰 것 아닙니까? 초가 들어가니까.)
107023 @1 으.(으.)
107023 #1 터불엉 안 뒈여.(떠버려서 안 돼요.)
107023 @1 예.(예.)
107023 #1 예.(예.)
107023 @1 게난 여름에도 게난 이제도 여기 왕은에 자리물훼 먹엉 감구나? 아들.(그러니 여름에도 그러니까 이제도 여기 와서 자리물회 먹고 가는구나? 아들.)
107023 #1 예게, 이제는 추웡 먹어집니까게.(예, 이제는 추워서 먹어집니까.)
107023 @1 음.(음.)
107023 #1 이제는 추웡 못 먹고. 여름에.(이제는 추워서 못 먹고. 여름에.)
107023 @1 여름에 게난.(여름에 그러니까.)
107023 #1 여름엔 오믄 온 때마다 허여마씸, 예.(여름엔 오면 온 때마다 해요. 예.)
107023 @1 음.(음.)
107023 #1 예, 먹당 잇수다. 먹단에.(예, 먹다가 있습니다. 먹다가.)
107023 @1 웃음.(웃음.)

107023 #1 다 안 먹언. 이제 추원에 이젠.(다 안 먹어서. 이제 추워서 이제.)

죽류

107024 @1 그다음에 죽들도 하영 허영 먹어서예?(그다음에 죽들도 많이 해서 먹어요?)

107024 #1 죽은 아이덜 안 좋아허는 따문에양.(죽은 아이들 안 좋아하는 때문에요.)

107024 @1 음.(음.)

107024 #1 그 저 미깡을 흔 사십 년 우린 밧디 걸어놘 타난. 아침에는 뭣헙니까? 죽이나벳기 헐 것이벳기 엇주게.(그 저 감귤을 한 사십 년 우린 밭에 걸려서 따니까. 아침에 무엇 합니까? 죽이나밖에 할 것밖에 없지.)

107024 @1 음.(음.)

107024 #1 아침엔 네 가지로. 국수 흔 번 헷닥 흔 번은 풋죽 헷닥 흔 번은 콩죽 헷닥, 흔 번은 유죽 헷닥. 그치룩 허멍 돌아가멍 헷수다게.(아침엔 네 가지로. 국수 한 번 했다가 한 번은 팥죽 했다가 한 번은 콩죽 했다가, 한 번은 들깨죽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며 했습니다.)

107024 @1 으.(으.)

107024 #1 게믄게 저 모실포 놉덜 저 가근엥에 여기, 이디 놉은 택이 엇으난.(그러면 저 모슬포 놉들 저 가서 여기, 여기 놉은 턱이 없으니까.)

107024 @1 예.(예.)

107024 #1 농장이 너미 널러낫수다게. 이제덜은 갈라줘 부난 거주마는 만 평 만 평 허는디 이젠 저 족은아덜 더 사 놔 부난 만 평이 넘주마는. 옛날은 우리 거만도.(농장이 너무 넓었었습니다. 이제들은 갈라줘 버리니까 거지만 만 평 만 평 하는데 이젠 저 작은아들 더 사 놓아 버리니까 만 평이 넘지만. 옛날은 우리 거만도.)

107024 @1 예.(예.)

107024 #1 만 평 허여나난 우리만은 버쳐근엥에 홈치 원 생각도 안 헹은에 덕수[232] 놉으로 택도 없곡.(만 평 해나니까 우리만은 부쳐서 한꺼번에 원 생각도 안 해서 덕수 놉으로 턱도 없고.)

107024 @1 으.(으.)

107024 #1 왓닥 갓다 허엿다 말앗다 허는 놉은 아녀곡 그냥 상.(왔다 갔다 했다 말았다 하는 놉은 않고 그냥 사서.)

107024 @1 으.(으.)

107024 #1 놉 으섯 사름 딱 허게 사민 흔 둘도 더 타마씸게.(놉 여섯 사람 딱 맞게 사면 한 달도 더 따요.)

107024 @1 게니까.(그러니까.)

107024 #1 흔 둘도 더 타난 아이고, 진짜양, 흔 둘 더 타 가민 춤 쏠도 문딱 저

232)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무시걸로 옺다 놉니다게.(한 달도 더 따니까 아이고, 진짜요, 한 달 더 따 가면 참 쌀도 몽땅 저 무엇으로 갖다 놓습니다.)

107024 @1 으.(으.)

107024 #1 그냥 푸데로 곶다 놔마씸.(그냥 부대로 갖다 놓아요.)

107024 @1 예.(예.)

107024 #1 푸대로 곶다 놩 먹음벳기 허여볼 수가 엇수다.(부대로 갖다 놓고 먹음밖에 해볼 수가 없습니다.)

107024 @1 음.(음.)

107024 #1 푸대로 옺다 놩 그거 그자 폭폭 뜨멍 먹음벳기. 경 헤영 그디서 압력 솟디서 밥허영.(부대로 갖다 놓고 그거 그저 폭폭 뜨면서 먹음밖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압력솥에서 밥하고.)

107024 @1 음.(음.)

107024 #1 낭푼이에 밥 거려 놩 먹읍네다.(양푼에 밥 떠 넣고 먹습니다.)

107024 @1 예.(예.)

107024 #1 예, 상 네 개 놔근에. 상 세 개, 두 개 두 개.(예, 상 네 개 놓고. 상 세 개, 두 개 두 개.)

107024 @1 음.(음.)

107024 #1 두 개 놓민 저 게도 부뜨는 사름이 합니다게.(두 개 놓으면 저 그래도 붙는 사람이 많습니다.)

107024 @1 예.(예.)

107024 #1 아칙이 그 간식은 죽을 쑤민 그 저 중개자도 오랑 먹곡 또 운전수도 왕 먹곡.(아침에 그 간식은 죽을 쑤면 그 저 중개자도 와서 먹고 또 운전수도 와서 먹고.)

107024 @1 예.(예.)

107024 #1 부뜨는 사름이 하는 따문 수, 숟구락도 수두락.(붙는 사람이 많은 때문에 수, 숟가락도 수두룩이.)

107024 @1 예.(예.)

107024 #1 즈븜 숟구락 믄딱 믄 통 사당 믄딱 담앙 놔뒁수게.(젓가락 숟가락 몽땅 모두 통 사다가 몽땅 담아 넣어두었습니다.)

107024 @1 예.(예.)

107024 #1 담앙 놔둬두서 먹엇수다.(담고 넣어두면서 먹었습니다.)

107024 @1 음.(음.)

107024 #1 게난 뭐 춤 감도양 감을 백 개 사단 싱그난에 그 부유엔 헌 거 백 개 사단 싱그난 것도 돈 안 뒈는 겁디다.(그러니까 뭐 참 감도요 감을 백 개 사다가 심으니까 그 부유라고 한 거 백 개 사다가 심으니까 것도 돈 안 되는 겁디다.)

107024 @1 으.(으.)

107024 #1 돈 안 뒈난 감도 그자 걸어 놩 내 불민 그자 정심 먹엉도 먹곡 비온

날은 놀멍 먹곡 감낭 저 건 농담 말입주마는게.(돈 안 되니까 감도 그저 걸어 놓고 내 버리면 그저 점심 먹고도 먹고 비온 날은 놀면서 먹고 감나무 저 건 농담 말이지만.)

107024 @1 으.(으.)

107024 #1 감낭 끊어 불민 밥, 저 미깡 타레 안 오켜, 정심 아녕 주민 저 미깡 타레 안 오켜, 경 ᄀᆞᆯ으멍덜 헙니다게.(감나무 잘라 버리면 밥, 저 귤 따러 안 오겠다, 점심 안 해주면 저 귤 따러 안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들 합니다.)

107024 @1 예, 잘 헹 주난게.(예, 잘 해 주니까.)

107024 #1 게난게 저 나신디레 경 ᄀᆞᆯ읍니다게. 저 어디, 어디 간에 저 교육 받안에 그 저 식사허는 것ᄀᆞ란 무신 거옌 헙니까? 그 저.(그러니까 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디, 어디 가서 저 교육 받아 그 저 식사하는 것보고 무슨 거라고 합니까? 그 저.)

107024 @1 으.(으.)

107024 #1 식사허멍 어디 가근엥에 교육 받앙은에 그 저.(식사하면서 어디 가서 교육 받아서 그 저.)

107024 @1 요리강습 이런 거?(요리강습 이런 거?)

107024 #1 저 무신 어디 들어가는 거?(저 무슨 어디 들어가는 거?)

107024 @1 어디, 어디 들어가는?(어디, 어디 들어가는?)

107024 #1 어디 그 들어가지 안 헙니까? 무사 저 그 식당 ᄀᆞ뜬 디 들어가주게, 교육 받앙.(어디 그 들어가지 안 합니까? 왜 저 그 식당 같은 데 들어가지, 교육 받아서.)

107024 @1 아, 으 조리사 허는 거? 음.(아, 으 조리사 하는 거?)

107024 #1 음. 어디 간 교육 받안에 무시거 들어갑디가, 허난에. 아이고, 난양 저 솟뚜껑 운전수벳기 안 베왓수다게. 솟뚜껑 운전수 이제도록 베완, 베운 것이 이거우다. 경 ᄀᆞᆯ으멍.(음. 어디 간 교육 받아서 무엇 들어갑디까, 하니까. 아이고, 전요 저 솥뚜껑 운전수밖에 안 배웠습니다. 솥뚜껑 운전수 이제도록 배우고, 배운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07024 @1 그렇지, 옛날 집에서 다예.(그렇지, 옛날 집에서 다요.)

107024 #1 예게.(예.)

107024 @1 으, 삼춘이.(으, 삼촌이.)

107024 #1 교육 받앙, 교육 받앙 헴젠 ᄀᆞᆯ읍니다.(교육 받아서, 교육 받고 한다고 말합니다.)

107024 @1 으.(으.)

107024 #1 날ᄀᆞ라 교육 받앙 허염젠 허멍 못 헴젠 말은 안 들어봣수다. 셍전.(날더러 교육 받고 한다고 하면서 못 한다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다. 생전.)

107024 @1 음식도 잘허고. 어쨋든 종손칩의서 그 많은 일을 헷으니까.(음식도 잘하고. 어쨌든 종손집에서 그 많은 일을 했으니까.)

107024 #1 게난게 춤 놈신디 춤 ᄒᆞ꼼이라도 음식이라도 뭐 나쁘덴 말은 ᄒᆞ꼼도 안 들어봣수다.(그러니까 참 남에게 참 조금이라도 음식이라도 뭐 나쁘단 말은 조금도 안 들어봤습니다.)

107024 @1 으.(으.)

107024 #1 잘 헴젠만 들엇주.(잘 한다고만 들었지.)

107024 @1 예.(예.)

107024 #1 어디 간 교육 받앙 옵디가? 무신거 헙디까? 허멍 허민 그자 나 솟뚜껑 운전수 이제도록 솟뚜껑 운전수 교육받앗수다. 경 골읍주.(어디 간 교육 받고 옵디까? 무엇 합디까? 하면서 하면 그저 제가 솥뚜껑 운전수 이제도록 솥뚜껑 운전수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지요.)

107025 @1 웃음. 옛날 곤죽. 곤죽들은 언제 쒕 먹는 거마씨?(웃음. 옛날 흰죽. 흰죽들은 언제 쒀서 먹는 거예요?)

107025 #1 곤죽? 곤죽은 아무 때나.(흰죽? 흰죽은 아무 때나.)

107025 @1 예.(예.)

107025 #1 춤 먹고 싶은 때마씨.(참 먹고 싶은 때요.)

107025 @1 으.(으.)

107025 #1 게난 그 곤죽은 죽으로 알암수과게.(그러니 흰죽은 죽으로 압니까.)

107025 @1 뭘로 쑤는 게 곤죽이우꽈?(뭐로 쑤는 게 흰죽입니까?)

107025 #1 곤죽은 저 무시거게 흰쏠로만게.(흰죽은 저 무엇 흰쌀로만.)

107025 @1 흰쏠로만.(흰쌀로만.)

107025 #1 예, 흰쏠로만 그냥 그자 쏠 싯어 놓곡 그자 물 맞췽 놔근에 그자 그냥 그냥 그자 그냥 그건.(예, 흰쌀로만 그냥 그저 쌀 씻어 넣고 물 맞춰 넣고 그저 그냥 그냥 그저 그냥 그건.)

107015 @1 음.(음.)

107015 #1 그자 쏠만 익으민 곤죽이우다.(그저 쌀만 익으면 곤죽입니다.)

107025 @1 겐디 그건 맛 좋아예. 옛날엔 어렷을 때는 맛엇어신디 이제는 먹어보민 맛 좋읍디다.(그런데 그건 맛 좋아요. 옛날엔 어렸을 때는 맛없었는데 이제는 먹어보면 맛 좋습디다.)

107025 #1 아, 맛좋아마씨?(아, 맛좋아요?)

107025 @1 예.(예.)

107025 #1 게난 죽 안 쒀봣수다게. 나도.(그러니 죽 안 쒀봤습니다. 저도.)

107025 @1 어, 여기는.(어, 여기는.)

107025 #1 예.(예.)

107025 #1 아이들 죽 안 좋아허니까 잘 안 하는구나.(아이들 죽 안 좋아하니까 잘 안 하는구나.)

107025 #1 예, 아이덜 왐수가게. 오지도 아녀는디. 어떠난 요 ᄒᆞ르기[233] 처냑은

233) ‘ᄒᆞ르기’는 ‘며칠 전 어느 날’을 뜻한다.

완, 요 그지게 ᄎᆞ냑인 완에.(예, 아이들 오나요. 오지도 않는데. 어쩌다 요 'ᄒᆞ르기' 저녁은 와서, 요 그저께 저녁엔 와서.)

107025 @1 으.(으.)

107025 #1 완, 경 할머니, 허멍 오란. 할머니신디 엎더젼에 자주 뎅길게요, 헙디다마는.(와서, 그렇게 할머니, 하면서 와서는. 할머니에게 엎더져서 자주 다닐게요, 합디다.)

107025 @1 웃음.(웃음.)

107025 #1 에이고, 자주. 가네도 바쁘난, 원.(에이고, 자주. 걔네도 바쁘니까, 원.)

107025 @1 맞아마씨. 요즘 애기들이 더 바빠마씨.(맞아요. 요즘 아기들이 더 바빠요.)

107025 #1 겐디 요 저 요디 와시민게 질 잃넨 허멍 어멍이 심어 가 불엄수게게.(그런데 요 저 요기 왔으면 길 잃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잡아 가 버립니다.)

107025 @1 음.(음.)

107025 #1 할머니신디 가켄 허멍 요디 완 두 번 와시난 심어가고렌 헙디다게. 겐디 작년에사 들어왓수다게. 모슬포 살단.(할머니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요기 오니까 두 번 왔으니까 잡아갔다고 합디다. 그런데 작년에야 들어왔습니다. 모슬포 살다가.))

107025 @1 아.(아.)

107025 #1 경 헤부난에 질 잃넨 허멍 멀지 아념니다게. 과수원 욜로 ᄒᆞ쏠 가민. 온천 알아집니까?(그렇게 해버리니까 길 잃는다고 하면서 멀지 않습니다. 과수원 요리로 조금 가면, 온천 알아집니까?)

107025 @1 예, 저기.(예, 저기.)

107025 #1 온천 저 나가기 전에게 요 서러레 들어간 디우다게.(온천 저 나가기 전에 요 서쪽으로 들어간 뎁니다.)

107025 @1 음.(음.)

107025 #1 가까운 디게, 먼 디 아니.(가까운 데, 먼 데 아니.)

107026 @1 경 허고 삼춘, 여기 옛날 조축들도 쒕 먹어신가마씨?(그렇게 하고 삼촌, 여기 옛날 조죽들도 쑤어서 먹었나요?)

107026 #1 예.(예.)

107026 @1 건 어떤 식으로 쑤는 거마씨? 조축은?(건 어떤 식으로 쑤는 거예요? 조죽은?)

107026 #1 조축?(조죽?)

107026 @1 으.(으.)

107026 #1 조축도 저 좁썰죽.(조죽도 저 좁쌀죽.)

107026 @1 으.(으.)

107026 #1 좁썰죽인디 그것도 저 물 꿰믄 놔근에.(좁쌀죽인데 그것도 물 끓으면

넣어서.)
107026 @1 으.(으.)
107026 #1 물 꿰민 놔근엥에 그것도 익을 만허민 저 무시거 저 ᄂᆞ물 썰엉 놩마씨.(물 끓으면 넣어서 그것도 익을 만하면 저 무엇 저 나물 썰어 넣어요.)
107026 @1 아, 조축 헐 땐 ᄂᆞ물 썰어놩 허는 거?(아, 조죽 할 땐 나물 썰어 넣어 하는 거?)
107026 #1 ᄂᆞ물 썰어 놩 죽 쒕 먹엇수다, 우리도.(나물 썰어 넣어 죽 쒀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107026 @1 예.(예.)
107026 #1 멧 번 헤연 먹진 아녀도 ᄒᆞᆫ 번씩 먹어수다.(몇 번 해서 먹진 않아도 한 번씩 먹었습니다.)
107027 @1 으, 풋죽은?(으, 팥죽은?)
107027 #1 풋죽?(팥죽?)
107027 @1 예.(예.)
107027 #1 풋죽은 풋 솖아근에.(팥죽은 팥 삶아서.)
107027 @1 으.(으.)
107027 #1 걸렁, 걸렁.(걸러서, 걸러서.)
107027 @1 아, 걸렁은에?(아, 걸러서?)
107027 #1 저 무시거 잇지 아녀우과? 그 저 샤.(저 무엇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망사.)
107027 @1 예.(예.)
107027 #1 샤로 헹 이만이 질게 만들아근에 그것디레 이젠 저 다마네기[234]찰리 하난양.(사로 해서 이만큼 길게 만들어서 그것들에 이젠 저 양파자루가 많으니까요.)
107027 @1 예.(예.)
107027 #1 그걸로 막 쉬웁니다. 그걸로 걸러근에.(그걸로 막 쉽습니다. 그걸로 걸러서.)
107027 @1 음.(음.)
107027 #1 걸러근엥에 그 물이영 놔근엥에 멧 사름 먹을 거 허여근에 솖으당은에 저 궤기 전의.(걸러서 그 물이랑 넣어서 몇 사람 먹을 거 해서 삶다가 저 고기 전에.)
107027 @1 예.(예.)
107027 #1 궤기 전의 놔근에 궤기 전이 노민 잘 젓어얍주.(고기 전에 넣어서 고기 전에 넣으면 잘 저어야죠.)
107027 @1 으.(으.)
107027 #1 막 잘 눕니다게. 잘 누난에 그 저 궤영 놓민 ᄒᆞ꼼 쉽곡.(막 잘 눕습니

234)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이며 우리말로 양파를 말한다.

다. 잘 눌으니까 그 저 끓어서 넣으면 조금 쉽고.)

107027 @1 으.(으.)

107027 #1 그 물이영 문딱 그 저 걸른 걸 놔근에 그 물, 그 물 그물은 저 물은 아레 눌지 아녀마씨.(그 물이랑 몽땅 그 저 걸러낸 걸 넣어서 그 물, 그 물 그물은 저 물은 아래 눋지 않아요.)

107027 @1 으.(으.)

107027 #1 아레 안 누난에, 그것이 ᄒᆞ쏠 궤여 가민 쏠 노민 좁니다.(아래 안 누니까, 그것이 조금 끓어 가면 쌀 넣으면 좋습니다.)

107027 @1 으.(으.)

107027 #1 쏠 놩 젓어근에 궤민 ᄒᆞ꼼 덜 눌어마씸.(쌀 넣고 저어서 끓으면 조금 덜 눌어요.)

107027 @1 으.(으.)

107027 #1 궤기 전인 막 눌젠만 허영, 눌젠만 허영 죽 쑤멍 어디레 가지 못허여마씸.(끓기 전엔 막 눌려만 해서, 눌려만 해서 죽 쑤면서 어디로 가지 못해요.)

107027 @1 음.(음.)

107027 #1 죽만 써야마씸게, 앚앙. 앚앙 죽만 써야. 게난 정신병자 뒈점직 헤집디다게. 너무 지나쳐.(죽만 써야 해요, 앉아서. 앉아서 죽만 써야. 그러니 정신병자 될 것 같이 헤집디다. 너무 지나쳐.)

107027 @1 음.(음.)

107027 #1 너무 지나쳐. 먹어 나민 이만이헌 다라로 그릇이 하나곡 미깡은 못 타고 헤 놓민양, 아이고, 밧듸 가민 ᄉᆞ못 원 정신이 엇어근엥에 어떵 원 거령청이[235] 살아진 거 닮음니다게, 원.(너무 지나쳐. 먹고 나면 이만한 대야로 그릇이 가득하고 귤은 못 따고 해 놓으면요, 아이고, 밭에 가면 사뭇 원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원 '거령청이'살아진 거 닮습디다, 원.)

107027 @1 음.(음.)

107027 #1 원 너미 지나치게 살안.(원 너무 지나치게 살았어.)

107027 @1 그다음에 그 폿죽 헐 때 이렇게 그 찹쌀로 헹은에 떡도 멘들앙 놔마씨?(그다음에 그 팥죽 할 때 이렇게 그 찹쌀로 해서 떡도 만들어서 넣어요?)

107027 #1 그거 나, 저 그거 만들앙 놀 정신이 어디 잇수가게?(그거 제가, 저 그거 만들어서 넣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107027 @1 음.(음.)

107027 #1 그냥 죽만 쒓수다게.(그냥 죽만 쒔습니다.)

107027 @1 죽만 쑤는 거고예? 예.(죽만 쑤는 거고요? 예.)

107027 #1 이디서, 이디서 벨미로 만들앙 먹을 때는 경도 헐 수 십주게.(여기서, 여기서 별미로 만들어서 먹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죠.)

107027 @1 예.(예.)

---

235) '거령청이'는 아무 근거도 표준도 없이 그저 허튼짓이나 말을 하는 모양을 말한다.

107027 #1 게주마는 밧듸 강은 경 못 헙니다.(그렇지만 밭에 가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107027 @1 동지 헐 땐 그거 헙니까?(동지 할 땐 그거 합니까?)

107027 #1 동지 헐 때에 예.(동지 할 때에 예.)

107027 @1 음. 그거 뭐옌 헤? 그 이름은?(음, 그거 뭐라고 해? 그 이름은?)

107027 #1 그거?(그거?)

107027 @1 음.(음.)

107027 #1 무신 저 그 그것ᄀᆞ라.(무슨 저 그 그것더러.)

107027 @1 뭐 표준어로는 뭐 새알 영 허는디 여기서는?(뭐 표준어로는 뭐 새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107027 #1 게메게, 표준어로 새알엔 허는디 여기선 그거 뭐 ᄌᆞ베기.(글쎄, 표준어로는 새알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그거 뭐 수제비.)

107027 @1 ᄌᆞ베기예?(수제비요?)

107027 #1 예, ᄌᆞ베기. ᄌᆞ베기 ᄒᆞ꼼 튿아 놔근에.(예, 수제비. 수제비 조금 뜯어 넣어서.)

107027 @1 으.(으.)

107027 #1 그디 ᄌᆞ베기 ᄒᆞ쏠 튿아 놩 저 허여시민.(거기 수제비 조금 뜯어 넣고 저 했으면.)

107027 @1 그 ᄌᆞ베기는 뭘로 만드는 거마씨?(그 수제비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107027 #1 ᄌᆞ베기는 저 밀가루.(수제비는 저 밀가루.)

107027 @1 밀가루, 옛날에는예? 예.(밀가루, 옛날에요? 예.)

107027 #1 이디 밀가루, 엿날은 밀가루.(여기 밀가루, 옛날은 밀가루.)

107028 @1 삼춘, 아까 콩죽도 쒓덴 허멍?(삼촌, 아까 콩죽도 쒔다고 하면서?)

107028 #1 에이그, 콩죽은 하영 썻수다게.(에이그, 콩죽은 많이 쒔습니다.)

107028 @1 콩죽은 어떤 식으로 쑤믄 맛 좋은 거우꽈?(콩죽은 어떤 식으로 쑤면 맛 좋은 겁니까?)

107028 #1 콩죽은 물, 물 어느 정도 놩은엥에 물 팔팔 꿰민 그 ᄀᆞ르 ᄀᆞ르 믄딱 저 물 저 물 허여근에.(콩죽은 물, 물 어느 정도 넣어서 물 팔팔 끓으면 그 가루 가루 몽땅 물 저 물 해서.)

107028 @1 으.(으.)

107028 #1 물 탓당은에 벙뎅이 안 지게. 비우멍 아래 영 영 영 영 젓으멍 비와마씸, 것도. 비와근엥에 그거 우터레 여 올라와마씸.(물 탔다가 덩어리 안 지게. 부우면서 아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부어요. 것도. 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요.)

107028 @1 음.(음.)

107028 #1 건 젓어도 어떵 아녀는 거마씨.(건 저어도 어떠하지 않는 거예요.)

107028 @1 아, 콩죽은예?(아, 콩죽은요?)
107028 #1 예, 젓어도 어떵 아녀는 거난에 저 쏠 싯엇단 거 놓곡.(예, 저어도 어떠하지 않는 거니까 저 쌀 씻어다가 거 넣고.)
107028 @1 예.(예.)
107028 #1 쏠 씻엇단 거 놓곡 허여근에 쑤다근엥에 그레 ᄂᆞ물을 노나.(쌀 씻어다가 거 넣고 해서 쑤다가 거기에 나물을 넣으나.)
107028 @1 으.(으.)
107028 #1 무 ᄒᆞ쏠 놓곡 ᄂᆞ물 ᄒᆞ쏠 놓곡 경 허영, 콩죽 맛십니다.(무 조금 넣고 나물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콩죽 맛있습니다.)
107028 @1 으.(으.)
107028 #1 콩죽은 맛잇어마씸.(콩죽은 맛있어요.)
107028 @1 게난 콩ᄀᆞ르만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ᄂᆞ물이나 ᄂᆞᆷ삐도 ᄀᆞ치 놩은에 예?(그러니까 콩가루만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물이나 무도 같이 넣어서요?)
107028 #1 ᄂᆞᆷ삐도 ᄒᆞ쏠만 놓곡 ᄂᆞ물은 ᄂᆞ물은 많이 놔야 맛 좋아마씨.(무도 조금만 넣고 나물은 많이 넣어야 맛 좋아요.)
107028 @1 예.(예.)
107028 #1 예, ᄂᆞ물.(예, 나물.)
107029 @1 여기 ᄆᆞ물축 ᄀᆞ튼 것도 헤 먹어마씨?(여기 메밀죽 같은 것도 해 먹어요?)
107029 #1 아, ᄆᆞ물축은 ᄆᆞ물축만 허질 아녀고.(아, 메밀죽은 메밀죽만 하질 않고.)
107029 @1 예.(예.)
107029 #1 저, 그 저 곤쏠.(저, 그 저 흰쌀.)
107029 @1 으.(으.)
107029 #1 곤쏠 익어 가민 문 익어 가민 모멀쏠 서끄민 맛잇어마씸.(흰쌀 익어 가면 모두 익어 가면 메밀쌀 섞으면 맛있어요.)
107029 @1 아.(아.)
107029 #1 경 허영 먹엄수게.(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107029 @1 춤 다른 디 ᄆᆞ물축 먹어신디 막 맛 좋읍디다. 거 ᄆᆞ물로만 허영 죽 쑨 거.(참 다른 데 메밀죽 먹었는데 막 맛 좋습디다. 거 메밀로만 해서 죽 쑨 거.)
107029 #1 ᄆᆞ물로만?(메밀로만?)
107029 @1 예.(예.)
107029 #1 ᄆᆞ물로만은 벨로 안 헨 먹어 봣수다. 우린 저.(메밀로만 별로 안 해서 먹어봤습니다. 우린 저.)
107029 @1 서껑예.(섞어서요.)
107029 #1 서껑. 쏠 익어 가민 그레 놔근엥에 젓이민 맛잇어마씸.(섞어서. 쌀 익어 가면 거기에 넣어서 저으면 맛있어요.)

107030 @1 음, 녹두죽은?(음, 녹두죽은?)

107030 #1 녹디죽도 마찬가지. 저 무시거 죽이나. 녹디죽은 아무 것도 안 놔.(녹두죽도 마찬가지. 저 무엇 죽이나. 녹두죽은 아무 것도 안 넣어.)

107030 @1 으.(으.)

107030 #1 아무 것도 안 놔근에 그냥 솖아근에 그자 그대로 그자 그 저 사꼬[236]로 그레 데겨근엥에[237]. 그디 쏠 놔근엥에.(아무 것도 안 넣어서 그냥 삶아서 그저 그대로 그저 그 저 국자로 거기에 '데겨서'. 거기 쌀 넣어서.)

107030 @1 으.(으.)

107030 #1 쏠 놔근엥에 걸러보지 아녓수다, 건.(쌀 넣어서 걸러보지 않았습니다. 건.)

107030 @1 아.(아.)

107030 #1 걸러보지 그냥 저 거 겁데기가 얄븐, 얄븐 거난 걸러보진 아녀고 그자 간 맞촤근엥에.(걸러보지 그냥 저 거 껍데기가 얇은, 얇은 거니까 걸러보진 않고 그저 간 맞춰서.)

107030 @1 으.(으.)

107030 #1 아무 거도 안 놔근에 그냥, 그냥. 쌀만 놔근에 쑵니다.(아무 것도 안 넣어서 그냥, 그냥. 쌀만 넣어서 쑵니다.)

107030 @1 아, 녹디죽은예?(아, 녹두죽은요?)

107030 #1 예, 쌀만 놩 쑤는 거마씸.(예, 쌀만 넣어서 쑤는 거예요.)

107031 @1 옛날에 둑죽들도 하영 헨 먹어서예?(옛날에 닭죽들도 많이 해서 먹었어요?)

107031 #1 둑죽은 저 유월 쓰무날.(닭죽은 저 유월 스무날.)

107031 @1 예.(예.)

107031 #1 유월 쓰무날은 계속 옛날은 먹어수다. 집의서 둑 질뢍양.(유월 스무날은 계속 옛날은 먹었습니다. 집에서 닭 길러서.)

107031 @1 으.(으.)

107031 #1 둑 질뢍 계속 먹엇수다.(닭 길러서 계속 먹었습니다.)

107031 @1 유월 쓰무날 둑 잡앙 먹는 이유는 뭐우꽈? 둑죽 허영 먹는 이유는?(유월 스무날 닭 잡아서 먹는 이유는 뭡니까? 닭죽 해서 먹는 이유는?)

107031 #1 그거는 그거 이유는 잘 자세허게 몰르쿠다. 그거는 유월 쓰무날은 둑 먹넨 허영 둑날엔 허멍 둑 먹읍니다게.(그거는 그거 이유는 잘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유월 스무날은 닭 먹는다고 해서 닭날이라고 하면서 닭 먹습니다.)

107031 @1 음.(음.)

107031 #1 둑날엔 허영 둑 먹곡 그 저 대죽 그 먹는 대죽양.(닭날이라고 해서 닭 먹고 그 저 사탕수수 그 먹는 사탕수수요.)

---

236) '사꼬'는 일본어 'しゃくし'이며 표준어 '국자'를 말한다.

237) '데기다'는 으깨어서 물크러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7031 @1 예, 예.(예, 예.)

107031 #1 새당대죽 그거 막 갈앗다근엥에 이제 흔저 흔저 일허라. 어멍네가 흔저 일허라, 유월 쓰무날은 둑 잡앙 먹곡 이제 저 백중날은 물맞으레 가곡 경 헐 거 아니가? 경 허멍 막 어멍네가 그치룩 드러 얘기허멍.(사탕수수 그거 마구 갈았다가 이제 어서 어서 일하라. 어머니네가 어서 일하라,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서 먹고 이제 백중날은 물맞으러 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니? 그렇게 하면서 막 어머니네가 그처럼 들이 얘기하면서.)

107031 @1 으.(으.)

107031 #1 허영 유월 쓰무날은 둑 잡앙 먹곡. 뜨시 저 물맞으레 갈 땐 대죽 끓어 놓곡 또 미숫가루양.(해서 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서 먹고. 또 저 물맞으러 갈 땐 수수 끓어 넣고 또 미숫가루요.)

107031 @1 예.(예.)

107031 #1 큰 거에 헤영 미숫가루 허곡 헤영은에 우리 물맞으레 가낫수다게.(큰 거에 해서 미숫가루 하고 해서 우리 물맞으러 갔었습니다.)

107031 @1 여기선 어디 가마씨? 물맞이레.(여기선 어디 가요? 물맞으러.)

107031 #1 저, 화순[238].(저, 화순.)

107031 @1 아, 화순에?(아, 화순에?)

107031 #1 화순에마씨.(화순에요.)

107032 @1 그다음에 여기 뭐 갱죽엔 헤영은에 그 국죽도 쒀 봐봔마씨? 국죽.(그다음에 여기 뭐 갱죽이라고 해서 그 갱죽도 쒀 보셨어요? 갱죽.)

107032 #1 국, 국죽이 저 무시거 좁쏠로 쑤는 거 아니우꽈?(국, 갱죽이 저 무엇 좁쌀로 쑤는 거 아닙니까?)

107032 @1 아.(아.)

107032 #1 국죽이 좁썰로.(갱죽이 좁쌀로.)

107032 @1 국죽이 좁썰로 헹은에.(갱죽이 좁쌀로 하고.)

107032 #1 좁쏠로, 좁쏠로. 여름, 저 그 모힌좁쏠로 쑤는 거 아니우꽈? 국죽.(좁쌀로, 좁쌀로. 여름, 저 그 메조로 쑤는 거 아니에요? 갱죽.)

107032 @1 ᄆᆞᆯ, 저기 ᄂᆞᆯ 썰어 놓곡 허여근에.(메밀, 저기 나물 썰어 넣고 해서.)

107032 #1 ᄆᆞᆯ쏠 안 놔.(메밀쌀 안 넣어.)

107032 @1 아.(아.)

107032 #1 국죽은 ᄆᆞᆯ쏠 아이 놉니다. 건 좁쏠만 허는 거. 좁쏠만. 좁쏠만.(국죽은 메밀쌀 안 넣습니다. 건 좁쌀만 하는 거. 좁쌀만. 좁쌀만.)

107033 @1 그다음에 그 꿩죽?(그다음에 꿩죽?)

107033 #1 꿩죽은 맛도 엇인 거.(꿩죽은 맛도 없는 거.)

107033 @1 아, 꿩죽은 맛엇입니까?(아, 꿩죽은 맛없습니까?)

238) '화순'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를 말한다.

107033 #1 맛엇입니다.(맛없습니다.)
107033 @1 아.(아.)
107033 #1 듹죽만이도 못 헌 거. 그것 샤브샤브 허여근에 젊은 아이덜 술 먹는디.(닭죽만큼도 못한 거. 그것 샤브샤브 해서 젊은 아이들 술 먹는데.)
107033 @1 으.(으.)
107033 #1 술 먹는디 저 먹는 거난 꿩죽은 맛엇읍네다. 기냥 기자 반찬이나 헤영양. 저 그자 저 그 양념 놩은에 반찬이나 허여근에 난 꿩은 벨로 좋아허질 아녕, 무시거 먹을 거 엇입니다.(술 먹는데 저 먹는 거니까 꿩죽은 맛없습니다. 그냥 그저 반찬이나 해서요. 저 그저 저 그 양념 넣어서 반찬이나 해서 전 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무엇 먹을 거 없습니다.)
107033 @1 음.(음.)
107033 #1 맛도 엇어.(맛도 없어.)
107033 @1 맛도 엇어?(맛도 없어?)
107033 #1 우리 아덜, 저 족은아덜.(우리 아들, 저 작은아들.)
107033 @1 으.(으.)
107033 #1 그 총.(그 총.)
107033 @1 으.(으.)
107033 #1 총 삯 내여당은에 멧 해 쓰단 이젠 저르젼에 바쁘고 저 꿩 쏘아가난에 좋지 아녀덴마씨.(총 삯 내다가 몇 해 쓰다가 이젠 바빠서 바쁘고 저 꿩 쏘아가니까 좋지 않대요.)
107033 @1 예.(예.)
107033 #1 경 허난 ᄋᆞ져가 버렷수다. 것도 무시거게 그것 흔 둘에 언마.(그렇게 하니까 가져가 버렸습니다. 것도 무엇 그것 한 달에 얼마.)
107033 @1 으.(으.)
107033 #1 건 세금 내여사마씨. 세금 내연 이디, 이디 살멍 그거 허단에 저, 저 모실포 간도 친구덜이영도 드러 꿩 마치레 와낫수다. 경 허단 아이고, 이젠 바쁘고 아기덜이영 살젠 허난에 그 가. 야, 꿩 너미 한에 왕 꿩 ᄒᆞ쏠 소리라도 내우라게, 허난에 아이, 꿩 저 총 ᄋᆞ져가 불엇수다. 경 ᄀᆞᆯ읍디다.(건 세금 내야해요. 세금 내고 여기, 여기 살면서 그거 하다가 저, 저 모슬포 가서도 친구들이랑 들이 꿩 쏘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젠 바쁘고 아기들이랑 살려고 하니까 그 가. 야, 꿩 너무 많아서 와서 꿩 조금 소리라도 내어라, 하니까 아이, 꿩 저 총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디다.)
107033 @1 으.(으.)
107033 #1 ᄋᆞ져가 불ᄀᆞ렌.(가져가 버렸다고.)
107033 @1 예.(예.)

범벅과 수제비

107034 @1 삼춘, 아까 범벅도 헤 먹엇덴 헤신디 범벅들은 어떤 범벅덜 헤마씨?(삼촌, 아까 범벅도 해 먹었다고 했는데 범벅들은 어떤 범벅들 했어요?)

107034 #1 범벅은양.(범벅은요.)

107034 @1 예.(예.)

107034 #1 감저 놔근에.(고구마 넣어서.)

107034 @1 으.(으.)

107034 #1 감저, 감저 놔근에 감저 딱딱딱딱 훅게 썰어 놩 그거, 그거 익으민.(고구마, 고구마 넣어서 고구마 딱딱딱딱 굵게 썰어 넣어 그거, 그거 익으면.)

107034 @1 으.(으.)

107034 #1 그거 익으민 그 저 무신거 저 ᄆᆞᆯᄀᆞ르.(그거 익으면 그 저 무엇 메밀가루.)

107034 @1 예.(예.)

107034 #1 ᄆᆞᆯᄀᆞ르 놔근엥에 베술기로 막 젓엉마씸.(메밀가루 넣어서 죽젓개로 막 저어요.)

107034 @1 으.(으.)

107034 #1 그 히양헌 ᄀᆞ루 엇이 막 젓엉. 것도 너미 딱딱헤도 맛엇읍네다.(그 하얀 가루 없이 막 저어. 것도 너무 딱딱해도 맛없습니다.)

107034 @1 으.(으.)

107034 #1 ᄒᆞ쏠, ᄒᆞ쏠 흘싹헤사[239] 맛이 나주. 게난, 경 허영 헙니다게, 경.(조금, 조금 '흘싹해야' 맛이 나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렇게.)

107034 @1 으.(으.)

107034 #1 작년에양 범벅을 허는디 막 저 족은아들네 미깡 타는디 하우스 미깡 타는 디 간 허여 놘 오죽 웃을 말이우꽈?(작년에요 범벅을 하는데 막 저 작은아들네 감귤을 따는데 하우스 감귤 따는 데 가서 해 놓고 오죽 웃을 말입니까?)

107034 @1 으.(으.)

107034 #1 어멍이 가근엥에 어멍 거 ᄋᆞ젼강 허여신디 범벅을 어느 정돌 허주. 막 하영 허연에 잘도 하영 허난 다 싼 줫수덴 허난.(어머니가 가서 어머니 거 가져가서 했는데 범벅을 어느 정돌 하지. 매우 많이 해서 잘도 많이 하니까 다 싸서 드렸다고 하니까.)

107034 @1 으.(으.)

107034 #1 저 노인덜 가근에 저 드립센 허멍. 사둔, 사둔도, 사둔 강 안녑센 허멍 ᄆᆞᆫ딱 싸멍 ᄆᆞᆫ 줜.(저 노인들 가서 저 드리시라고 하면서. 사돈, 사돈도 가서 드리시라고 하면서 몽땅 싸면서 모두 줬어.)

107034 @1 으.(으.)

107034 #1 막, 야, 이거 두 뒈 넘은 거여 무시거여 허멍 막 ᄉᆞ뭇 너미 하영 허

239) '흘싹ᄒᆞ다'는 동여맨 노·끈 따위가 느슨한 모양, 또는 낄 물건보다 낄 자리가 널러 헐거운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연에.(막, 야, 이거 두 되 넘은 거야 뭐야 하면서 막 사뭇 너무 많이 해서.)
107034 @1 아.(아.)
107034 #1 너미 하영 허연.(너무 많이 해서.)
107034 @1 웃음. 게난 요즘도 그렇게 범벅덜 허고예?(웃음.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범벅들 하고요?)
107034 #1 예게, 이젠 범벅도 이젠 벨미라마씸.(예, 이젠 범벅도 이젠 별미예요.)
107034 @1 예, 옛날엔 못 먹엉 허는 거.(예, 옛날엔 못 먹어서 하는 거.)
107034 #1 아이고, 예게. 이젠 벨미라마씸. 그 저 ᄆᆞ멀펌벅이 저 무신 고급 아니우꽈게.(아이고, 예. 이젠 별미예요. 그저 메밀범벅이 저 무슨 고급 아닙니까?)
107034 @1 예, 맞아. 메밀가루들도 엇인디.(예, 맞아. 메밀가루도 없는데.)
107034 #1 빵떡보다도 더 맛잇게 먹읍니다.(빵떡보다도 더 맛있게 먹습니다.)
107034 @1 음.(음.)
107034 #1 그거는 더 맛잇게 먹어마씸.(그거는 더 맛있게 먹어요.)
107034 @1 맞아.(맞아.)
107034 #1 이거 얼마나 힘들게 헙디겐, 허멍.(이거 얼마나 힘들게 합디까, 하면서.)
107034 @1 으.(으.)
107034 #1 나신더레.(제게.)
107035 @1 ᄌᆞ베기는?(수제비는?)
107035 #1 ᄌᆞ베기도게 그 물 팔팔 끓이민 그거 저 똑똑허게 캇다근에 것도 저 물 ᄒᆞ끔 저 ᄒᆞ쏠 데왕 놔사 좋아마씸.(수제비도 그 물 팔팔 끓으면 그거 저 똑똑하게 탔다가 것도 물 조금 데워 넣어야 좋아요.)
107035 @1 아아.(아아.)
107035 #1 놀, 놀물 놓민 딱딱허영 막 맛엇읍니다.(날, 찬물 넣으면 딱딱해서 매우 맛없습니다.)
107035 @1 아.(아.)
107035 #1 게난 것도 물 팔팔 끓린 물 놔근에 그거 젓어근에 거 썰, 저 짤라 놓민 맛십니다.(그러니까 것도 물 팔팔 끓인 물 넣어서 그거 저어서 썰, 저 잘라 넣으면 맛있습니다.)
107035 @1 아아, 게난 반죽헐 때 ᄯᅳ뜻헌 걸로 헤마씨?(아아, 그러니까 반죽할 때 따뜻한 걸로 해요?)
107035 #1 예, ᄯᅳ뜻헌 걸로.(예, 따뜻한 걸로.)
107035 @1 아아.(아아.)
107035 #1 ᄯᅳ뜻헌 걸로 헤사. 게난 그 ᄯᅳ뜻헌 걸로 허여사 것도양 똑 ᄀᆞ뜬 거라도 틀립니덴 허난, 음식은.(따뜻한 걸로 해야. 그러니 그 따뜻한 걸로 해야 것도요 똑 같은 거라도 다르다고 하니까, 음식은.)
107035 @ 으.(으.)

107035 #1 허영 보민 틀려. 딱딱허영 맛이 엇읍니다.(하고 보면 달라. 딱딱해서 맛이 없습니다.)

107035 @1 아, 그냥 언물로 허민예?(아, 그냥 찬물로 하면요?)

107035 #1 예, 뜨뜻헌 물로 허여사 맛이 나.(예, 따뜻한 물로 해야 맛이 나.)

107035 @1 게난 그 저 따뜻헌 물 익어불지 아녑니까? 그거.(그러니까 그 저 따뜻한 물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107035 #1 뭐?(뭐?)

107035 @1 그 반죽헐 때?(그 반죽할 때?)

107035 #1 아이고, 익어도, 익어도게.(아이고, 익어도, 익어도.)

107035 @1 익어도, 으.(익어도, 으.)

107035 #1 익어도 물을 많이 안 놓민 뒈는 거난.(익어도 물을 많이 안 넣으면 되는 거니까.)

107035 @1 으.(으.)

107035 #1 건 저 많이 아니 노민 뒈는 거난. 것도 나도게 허는 건 다 헤봣수다게.(건 저 많이 아니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것도 저도 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107035 @1 예.(예.)

107035 #1 게난 저.(그러니까 저.)

107035 @1 영도 헤 보고 정도 헤 보고.(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107035 #1 예, 그 저 과수원을 관리허젠 허난게. 그 사름덜 그 치닥거릴 허젠 허난에. 겨고 저 밀가루도양.(예, 그 저 과수원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 치다꺼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 밀가루도요.)

107035 @1 으.(으.)

107035 #1 그디 강 물젠ᄒᆞ젱 허민 ᄒᆞ쏠 힘들지 아녑니까? 게민 이디서 물 ᄒᆞ쏠 데왕.(거기 가서 반죽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 조금 데워서.)

107035 @1 으.(으.)

107035 #1 물 ᄒᆞ끔 저 팔팔 끌리진 아녀도 물 데와근엥에 여기서 막 쪄근엥에.(물 조금 저 팔팔 끓이지는 않아도 물 데워서 여기서 마구 찧어서.)

107035 @1 예.(예)

107035 #1 쪄근엥에 비니루에 담앙 가는 거라마씨.(찧어서 비닐에 담고 가는 거예요.)

107035 @1 미리, 으.(미리, 으.)

107035 #1 비니루에 저 담앙 가근에 담앙 강 그디 가근엥에 저 병영 다 시난에, 도마영 다 시난에 거기서 밀어근엥에 수제비 헤영.(비닐에 저 담고 가서 담고 가서 거기 가서 저 병이랑 다 있으니까, 도마랑 다 있으니까 거기서 밀어서 수제비 하고.)

107035 @1 으.(으.)

107035 #1 수제비 헤여근에 놈삐 썰어 놔근에 경 허영 안네곡.(수제비 해서 무 썰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107035 @1 으.(으.)

107035 #1 그치룩 허멍 경. 아이고, 스 년, 스 년, 스 년 허고 따시 오 년 족은아덜네거 오 년을 치다꺼릴 헷수다게.(그처럼 하면서 그렇게. 아이고, 사 년, 사 년, 사 년 하고 다시 오 년 작은아들네 거 오 년을 치다꺼릴 했습니다.)

107035 @1 예.(예.)

107035 #1 족은아덜네 줘 부난에 저 아방 돌아가 부난에 큰아덜도 저 느가 다 마탕 허라, 경 골읍디다게.(작은아들네 줘 버려서 저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큰아들도 저 네가 다 맡아서 하라, 그렇게 말합디다.)

107035 @1 으.(으.)

107035 #1 경 헤부난 전부다 마탕 헌 거라마씸.(그렇게 해버려서 전부다 맡아서 한 거예요.)

107035 @1 음.(음.)

107035 #1 가이가 게난. 거 누게가 헙니까게?(걔가 그러니까. 거 누가 맡아서 합니까?)

107035 @1 게난.(그러니까.)

107035 #1 그 사름덜이 따시 오랑 미깡을 탈 거난.(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감귤을 딸 거니까.)

107035 @1 으.(으.)

107035 #1 경 허난게 오 년 따시 치다꺼리 헷수다게. 거 족은아덜 허멍.(그렇게 하니까 오 년 다시 치다꺼리 했습니다. 거 작은아들 하면서.)

107035 @1 으.(으.)

107035 #1 게난, 게난 돈 벗은 거 닮아마씨.(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번 거 같아요.)

107035 @1 예. 웃음.(예, 웃음.)

107035 #1 예, 돈 버슬엇수다게. 게난.(예,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

107036 @1 경 헹 허고. 그다음 칼국수는 어떤 식으로?(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칼국수는 어떤 식으로?)

107036 #1 칼국수도 그거 저 무시거게 물 ᄒᆞ꼼 뜻뜻허게 허영 경 안 허민 케영.(칼국수도 그거 저 무엇 물 조금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터서.)

107036 @1 예.(예.)

107036 #1 케영 안 좁니다. 벌러져 불어, 옆으로.(터서 안 좋습니다. 벌어져 버려, 옆으로.)

107036 @1 벌러져예?(벌어져요?)

107036 #1 게난 칼국수도 물 데와근에.(그러니 칼국수도 물 데워서.)

107036 @1 으.(으.)

107036 #1 저 메밀칼국수나 이 저 무시거 저 밀가루나.(저 메밀 칼국수나 밀가루나.)

107036 @1 으.(으.)

107036 #1 물을 뜨뜻허게 데와근엥에 허면은 벌러지지 아녀근에 손에서 막 놀려 노민 안 벌러져마씨게.(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하면 벌어지지 않고 손에서 마구 놀려 놓으면 안 벌어져요.)

107036 @1 아.(아.)

107036 #1 게난 이 떡도 손에서 잘 놀려사 맛이 좋아마씸게.(그러니 이 떡도 손에서 잘 놀려야 맛이 좋아요.)

107036 @1 예, 예.(예, 예.)

107036 #1 손에서 막 오래. 오래 막 놀려사주, 아멩이라고 확확 허민 맛이 엇어마씸.(손에서 매우 오래, 오래 마구 놀려야지, 아무렇게나 확확 하면 맛이 없어요.)

107036 @1 으.(으.)

107036 #1 게난 그 저 메밀칼국수도 손에서 막 저 막 잘 쪄근에. 잘 쪄근엥에 밀엉.(그러니 그 저 메밀칼국수도 손에서 마구 저 매우 잘 찧어서. 잘 찧어서 밀고.)

107036 @1 예.(예.)

107036 #1 저 병으로, 병으로 사 홉들이.(저 병으로, 병으로 사 홉들이.)

107036 @1 예.(예.)

107036 #1 그거 우리 밧듸도 하나 잇고 이디도 하나 잇수다게.(그거 우리 밭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107036 @1 음.(으.)

107036 #1 다 버리지 아녕 놔둬마씸.(다 버리지 않고 놔둬요.)

107036 @1 그러니까, 예.(그러니까, 예.)

107036 #1 이제 사 홉들이 나오는 디 잇수가게, 엇주게. (이제 사 홉들이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없지.)

107036 @1 으, 으.(으, 으.)

107036 #1 사 홉들이 다 잇수다. 밧듸도 잇고. 게난 그거 비니루에 쌍 놔둠수게. 게난 그걸로 밀어근에 밀어근엥에 싹싹 쫄라근엥에.(사 홉들이 다 있습니다. 밭에도 있고. 그러니 그거 비닐에 싸서 놔둡니다. 그러니 그걸로 밀어서 밀어서 싹싹 잘라서.)

107036 @1 으.(으.)

107036 #1 놔근에 그자 똑똑 썰민게 ᄀᆞ르 놔근에 탁탁 털민.(놓아서 그저 똑똑 썰면 가루 넣어서 탁탁 털면.)

107036 @1 으.(으.)

107036 #1 자기냥으로 다 털어져마씨.(자기대로 다 떨어져요.)

107036 @1 게민 양념 같은 경우는 뭐 놩 헤마씨? 그.(그러면 양념 같은 경우는 뭐 넣어서 해요? 그.)

107036 #1 양념도.(양념도.)
107036 @1 ᄌᆞ베기헐 때?(수제비할 때.)
107036 #1 벨로 놓는 게 엇입니다. 그자 놓지 기루민 다, 저 다시다나 ᄒᆞ쏠 놓나 마나.(별로 넣는 게 없습니다. 그거 넣고 싶으면 다, 저 다시다나 조금 넣으나 마나.)
107036 @1 으.(으.)
107036 #1 경헐 거마씸.(그럴 거예요.)
107036 @1 으.(으.)
107036 #1 저 메밀ᄀᆞ른 안 놉니다.(저 메밀가룬 안 넣습니다.)
107036 @1 아, 건 안 놓고예?(아, 건 안 넣고요?)
107036 #1 아예, 메밀ᄀᆞ른 안 놔.(아예, 메밀가룬 안 넣어.)
107036 @1 게믄, 국물 그 육수는 뭘로 내는 거우꽈? 국물?(그러면, 국물 그 육수는 뭐로 내는 겁니까?)
107036 #1 육수?(육수?)
107036 @1 으.(으.)
107036 #1 육수는 그때는 저 아덜이 꿩 잡아오난에 꿩 솖안.(육수는 그때는 아들이 꿩 잡아오니까 꿩 삶아서.)
107036 @1 아.(아.)
107036 #1 꿩 두 머리 놘 솖으난 좁디다.(꿩 두 마리 넣고 삶으니까 좋습디다.)
107036 @1 예.(예.)
107036 #1 육수, 그 솖아근에 저 그거 거려뒌에, 거려뒌에 그걸로 육수 허난에 할망덜은 거 튿어 먹고.(육수, 그 삶아서 저 그거 떠두고, 떠두고 그걸로 육수 하니까 할머니들은 거 뜯어 먹고.)
107036 @1 음.(음.)
107036 #1 튿어 먹곡 따시 그 육순 그거 좁니다.(뜯어 먹고 다시 그 육순 그거 좋습디다.)
107036 @1 으.(으.)
107036 #1 경 허영 허곡.(그렇게 해서 하고.)
107036 @1 으.(으.)
107036 #1 따시 그냥 저 그거 꿩 엇은 때엔 그 육수 허젠 허민 저 무시거 메리치 ᄒᆞ꼼 딸려근에.(다시 그냥 저 그거 꿩 없을 때엔 그 육수 하려고 하면 저 무엇 멸치 조금 다려서.)
107036 @1 예.(예.)
107036 #1 딸려근에 육수. ᄒᆞ꼼만 딸려도 뒈여마씸, 그런 건.(다려서 육수. 조금만 다려도 돼요. 그런 건.)
107036 @1 으.(으.)
107036 #1 저 하영 놓지 말아도.(저 많이 넣지 않아도.)

107036 @1 예.(예.)
107036 #1 그땐 다시마 흔읏이 엇읍데다. 우리 헐 때엔.(그땐 다시마 별로 없습디다. 우리 할 때엔.)
107036 @1 예.(예.)
107036 #1 다시마 이젠 하영 나왐주마는.(다시마 이젠 많이 나오지만.)
107036 @1 예, 예. 맞아.(예, 예. 맞아.)
107036 #1 게난에.(그러니까.)

김치
107037 @1 경 허고. 삼춘 김, 김치는 헙디가? 김장?(그렇게 하고. 삼촌 김, 김치는 합디까? 김장?)
107037 #1 김치 아년에 이제.(김치 안 하고 이제.)
107037 @1 으.(으.)
107037 #1 어제 간에 그거저거 사오고 저 ᄂᆞ물은 안 사완. 저 ᄂᆞ물을.(어제 가서 그거저거 사오고 저 나물은 안 사오고. 저 나물은.)
107037 @1 으.(으.)
107037 #1 저 이 서녁 집의 성님은 느 ᄂᆞ물 이거민 충분이여, 경허멍 헌디 맛이 엇언마씸게.(저 이 서녘 집의 형님은 너 나물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맛이 없어요.)
107037 @1 아.(아.)
107037 #1 ᄂᆞ물이 맛이 엇언. ᄂᆞ물이 맛이 엇언에 안 뒈쿠다. 저 나 하영 안 허쿠다. 하영 허엿자 원 다 원 놈 줘 불어지고.(나물이 맛이 없어서. 나물이 맛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저 저 많이 안 하겠어요. 많이 해도 원 다 원 남 줘 버려지고.)
107037 @1 으.(으.)
107037 #1 큰 통으로 하나 저 교회 ᄀᆞ져가 불엇수다게.(큰 통으로 하나 저 교회 가져가 버렸습니다.)
107037 @1 예.(예.)
107037 #1 게난 게난 저 강 사올, 올 때랑은에 나, 나 멧 포기만 사다 줍센 경 골앗수다게.(그러니 그러니까 저 가서 사올, 올 때는 저, 저 몇 포기만 사다 주십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7037 @1 아.(아.)
107037 #1 게난 저거 멧 포기 캐 놓고 허영 허쿠덴.(그러니까 저거 몇 포기 캐 놓고 해서 하겠다고.)
107037 @1 으, 아직 안 허곡.(으, 아직 안 하고.)
107037 #1 경 골안에 약속헨 놔뒷수다.(그렇게 말하고 약속해서 놔뒀습니다.)
107037 @1 게믄 옛날에 김치들은 어떤 김치들 헤연 먹언마씨?(그러면 옛날에 김치들은 어떤 김치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37 #1 옛날?(옛날?)
107037 @1 예.(예.)
107037 #1 옛날은양 구루마벳기 엇엇수게.(옛날은요 달구지밖에 없었습니다.)
107037 @1 으.(으.)
107037 #1 구루마, 탈탈이도 엇언. 구루마벳긔 엇으난 저, 저, 저, 저 동광[240] 우의, 동광일 거라, 동광.(달구지, 경운기도 없고. 달구지밖에 없으니까 저, 저, 저, 저 동광 위에 동광일 거야, 동광.)
107037 @1 으.(으.)
107037 #1 동광 간에 이만씩 퍼진 그 시커멍헌 ᄂᆞ물.(동광 가서 이만씩 퍼진 스시커먼 나물.)
107037 @1 으.(으.)
107037 #1 그거양 흔 구루마썩 사단 사흘썩 죽엿수다.(그거요 한 달구지씩 사다가 사흘씩 죽였습니다.)
107037 @1 아.(아.)
107037 #1 사을썩 죽연에 거 김치 헨 먹엇수덴 허난.(사흘씩 죽여서 거 김치 해서 먹었다고 하니까.)
107037 @1 으.(으.)
107037 #1 이젠 무사 그런 걸 먹읍니까? 아이고양, 옛날 살아난 셍각허민 츰. 경 허연 그걸로 허연 김치 허영 먹곡. 장도 그치룩 하영 담안 먹단 이젠 장도 안 담앙 헤끄만 담곡.(이제 왜 그런 걸 먹습니까? 아이고요, 옛날 살았던 생각하면 참.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김치 해서 먹고. 장도 그처럼 많이 담아서 먹다가 이젠 장도 안 담가서 조금만 담고.)
107037 @1 으.(으.)
107037 #1 김치도 좋은 걸로만 허젠 허곡 경 허염수게게, 게난.(김치도 좋은 걸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7038 @1 게난 놈삐 ᄀᆞ튼 걸로 김치 안 헹 먹어마씨?(그러니까 무 같은 걸로 김치 안 해서 먹어요?)
107038 #1 놈삔 무사 아녀마씨. 깍데기김치 ᄒᆞ꼼썩 허연.(무 왜 안 해요? 깍두기 김치 조금씩 하고.)
107038 @1 깍데기 허고.(깍두기 하고.)
107038 #1 ᄒᆞ꼼석 헤근에 먹곡. 먹지 기루민 ᄒᆞ꼼 허영 먹곡.(조금씩 해서 먹고. 먹고 싶으면 조금 해서 먹고.)
107038 @1 으.(으.)
107038 #1 또 놈삔 재게 쉬여 불어마씨.(또 무는 빨리 쉬어 버려요.)
107038 @1 아.(아.)
107038 #1 빨리 쉼니다게.(빨리 쉽니다.)

240) '동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를 말한다.

107038 @1 아까 그 퍼데기ᄂᆞᆯ[241] 이만큼씩 헌 거 헐 때 김장 헐 때 어떤 식으로 헤여마씨?(아까 그 '퍼데기배추' 이만큼씩 한 거 할 때 김장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107038 #1 양, 그땐 맛엇이 헷수다.(이보세요, 그땐 맛없이 했습니다.)

107038 @1 으.(으.)

107038 #1 뭣이 셧수가? 그 저 무시거. 그 저 이제 그 무시거 놓을 게 셧수가? 다시마도 흔잇이 저 나오지 아녀고.(뭣이 있었습니까? 그 저 무엇, 그 저 이제 그 무엇 넣을 게 있었습니까? 다시마도 한없이 저 나오지 않고.)

107038 @1 으.(으.)

107038 #1 또 저 무시거 다시다도 안 나오곡 허난에.(또 저 무엇 다시다도 안 나오고 하니까.)

107038 @1 으.(으.)

107038 #1 저 무시거 미원 ᄒᆞ꼼 놔와신가. 그때.(저 무엇 미원 조금 나왔는가. 그때.)

107038 @1 으.(으.)

107038 #1 게난 미원 ᄒᆞ쏠 놓곡 설탕이나 ᄒᆞ끔 어지련에.(그러니 미원 조금 넣고 설탕이나 조금 어질러서.)

107038 @1 으.(으.)

107038 #1 허연, 뭐 맛션 먹엇수가게. 그자 좋은 반찬으로 먹엇수게.(해서, 뭐 맛있어서 먹었습니까. 그저 좋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107038 @1 으.(으.)

107038 #1 맛엇어도.(맛없어도.)

107038 @1 으. 마농허고 고칫ᄀᆞ르만 놘에. 게난.(으.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넣고. 그러니까.)

107038 #1 예, 예.(예, 예.)

107038 @1 으.(으.)

107038 #1 마농은게 우영에 항상 싱그난에.(마늘은 터앝에 항상 심으니까.)

107038 @1 음.(음.)

107038 #1 싱그난게.(심으니까.)

107039 @1 게믄 이제 그치룩 하고. 그 아까 이제 여기도 열무김치 같은 것도, ᄎᆞ마귀짐치도 헤마씨? 그거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ᄎᆞ마기김치는.(그러면 이제 그처럼 하고. 그 아까 이제 여기도 열무김치 같은 것도, 열무김치도 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열무김치는.)

107039 #1 ᄎᆞ마기김치?(열무김치?)

107039 @1 으.(으.)

107039 #1 ᄎᆞ마기김치도 그 다른 김치나 마찬가지마씸.(열무김치도 그 다른 김

241) '퍼데기ᄂᆞᆯ'은 속이 차지 않은 배추를 말한다.

치나 마찬가지예요.)
107039 @1 으.(으.)
107039 #1 다른, 다른 김치나 마찬가지. 것도 저 그자 그 츠마기 얼랑얼랑허영 올라오는 거 그거 메여근에 금방 허영 먹으민 맛좁니다게.(다른, 다른 김치나 마찬가지. 것도 저 그저 그 열무 야들야들해서 올라오는 거 그거 매서 금방 하고 먹으면 맛좋습니다.)
107039 @1 젓갈 같은 건 안 놉니까? 여기는.(젓갈 같은 건 안 넣습니까?)
107039 #1 젓갈 무사, 젓갈 사왓수다게. 젓갈 놉니다게.(젓갈 왜, 젓갈 사왔습니다. 젓갈 넣습니다.)
107039 @1 보통 어떤 젓갈 놧수가? 옛날에는?(보통 어떤 젓갈 넣었습니까? 옛날에는?)
107039 #1 젓갈 저 무시거게 새우.(젓갈 저 무엇 새우.)
107039 @1 으.(으.)
107039 #1 새우도 산 오고, 또 저 멜, 메레치.(새우도 사서 오고, 또 저 멸, 멸치.)
107039 @1 으.(으.)
107039 #1 멜도 산 오곡. 메리치도 사오고.(멸치도 사서 오고. 멸치도 사오고.)
107039 @1 으.(으.)
107039 #1 메리치 딸려근에.(멸치 다려서.)
107039 @1 예.(예.)
107039 #1 메레치허곡 다시마허곡 또 무허곡.(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또 무하고.)
107039 @1 으.(으.)
107039 #1 또 저 무시거 저 다마네기허곡 딸려근에.(또 저 무엇 저 양파하고 다려서.)
107039 @1 아.(아.)
107039 #1 딸린 물에 저 고칫가루 놔근에.(다린 물에 저 고춧가루 넣어서.)
107039 @1 으.(으.)
107039 #1 그거 저 고칫가루 놓곡 생강 ᄀᆞ뜬 거 그런 거 놔근엥에.(그거 저 고춧가루 넣고 생강 같은 거 그런 거 넣어서.)
107039 @1 으.(으.)
107039 #1 김치헙니다게.(김치합니다.)
107039 @1 으.(으.)
107039 #1 다른 거 뭐 놔봐도 벨로 놀 것이 엇수다게. 놀 것이 엇수다.(다른 거 뭐 넣어 봐도 별로 넣을 것이 없습니다. 넣을 것이 없습니다.)
107039 @1 어쨌든 육수를 이제 잘 내갖고 허면은예, 예?(어쨌든 육수를 이제 잘 내갖고 하면요, 예?)
107039 #1 예. 육수를 허여근에 그레 고칫가루 놔야 뭽주.(예, 육수를 해서 거기

에 고춧가루 넣어야 됩지요.)
107040 @1 으, 그다음에 물짐치도 헤영 먹어마씨?(으, 그다음에 물김치도 해서 먹어요?)
107040 #1 예게, 물짐치게.(예, 물김치.)
107040 @1 으.(으.)
107040 #1 여름에, 여름에.(여름에, 여름에.)
107040 @1 건 뭘로 헤마씨? 물짐치는 보통.(건 뭐로 해요? 물김치는 보통.)
107040 #1 건 저, 허기 나름이우다게.(건 저, 하기 나름입니다.)
107040 @1 으.(으.)
107040 #1 거 오이도 저 쏙 까끄곡 껍데기 가까뒁 ᄒᆞ꼼, ᄒᆞ꼼 썰어 놓곡. 베, 사과 여름엔.(거 오이도 저 속 깎고 껍데기 깎아두고 조금, 조금 썰어 넣고. 배, 사과 여름엔.)
107040 @1 예.(예.)
107040 #1 그거 잇지 아녑니까게.(그거 있지 않습니까?)
107040 @1 예.(예.)
107040 #1 그런 거 그런 거 썰어 놔근에. 그런 거 썰어 놩 막 씨원허게 허여근에.(그런 거 그런 거 썰어 넣어서. 그런 거 썰어 넣어 막 시원하게 해서.)
107040 @1 으.(으.)
107040 #1 저 그 국 대신.(저 그 국 대신.)
107040 @1 아, 국 대신?(아, 국 대신?)
107040 #1 예, 국 대신 경 허영 저 먹곡.(예, 국 대신 그렇게 해서 저 먹고.)
107041 @1 으, 우리 이제 겨울 지나면 동지짐치들도 옛날 하영 헷잖우꽈양? 동지짐친 어떵헤야 맛좋는 거우꽈?(으, 우리 이제 겨울 지나면 봄동김치들도 옛날 많이 했잖아요? 봄동김치는 어떻게 해야 맛좋은 겁니까?)
107041 #1 동지짐치?(봄동김치?)
107041 @1 으.(으.)
107041 #1 동지짐친 아멩 헤도 둡니다.(봄동김친 아무렇게 해도 답니다.)
107041 @1 으.(으.)
107041 #1 동지 영 올라오민양.(장다리 이렇게 올라오면요.)
107041 @1 으.(으.)
107041 #1 거 꺼꺼다근에 그건 그건 ᄒᆞ꼼 소금 ᄒᆞ쏠 하영 놩은에 죽이지 아녀민 거 살아낭은에양.(거 꺾어다가 그건 그건 조금 소금 조금 많이 넣어서 절이지 않으면 거 살아나서요.)
107041 @1 아.(아.)
107041 #1 살아나근에 재게 안 죽습니다. 거, 돌 꽉 지둘롸 놧다근에.(살아나서 빨리 안 죽습니다. 거, 돌 꽉 지지러 놓았다가.)
107041 @1 으.(으.)

107041 #1 재게 건져불어사마씸.(빨리 건져버려야 해요.)
107041 @1 아.(아.)
107041 #1 건졍 헹과근엥에. 그건 그자 간단헤마씸.(건져서 헹궈서. 그건 그저 간단해요.)
107041 @1 음.(음.)
107041 #1 건 그자 저 무시거 그자 마농이나 삐져 놓곡 거 ᄒᆞ쏠 하영 아녀는 거난마씸게.(건 그저 저 무엇 그저 마늘이나 삐져 넣고 거 조금 많이 않는 거니까요.)
107041 @1 으으.(으으.)
107041 #1 경 헨 저디 저 무신것도 허연 잇수다게. 그 저 갯ᄂᆞ물짐치도 허연에.(그렇게 해서 저기 저 무엇도 해서 있습니다. 그 저 갓김치도 하고.)
107041 @1 예.(예.)
107041 #1 먹단에 저디 시, ᄒᆞ꼼 실 거우다, 어디.(먹다가 저기 시, 조금 있을 겁니다, 어디.)
107044 @1 갯ᄂᆞ물짐치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거는.(갓김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거는.)
107044 #1 갯ᄂᆞ물짐치도 마찬가지.(갓김치도 마찬가지.)
107044 @1 으.(으.)
107044 #1 그건 익지 아녀민 독허연 먹지 못허는 거마씸.(그건 익지 않으면 독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107044 @1 으.(으.)
107044 #1 막 독허연.(막 독해서.)
107044 @1 으.(으.)
107044 #1 아덜네 밧, 사는 디 간보난 션게마는 허여단 ᄒᆞ꼼 허연에 그 아덜덜 오난 먹어봔에 놔뒷수다게.(아들네 밭, 사는 데 가보니까 있더니만 해다가 조금 해서 아들들 오니까 먹어보고 넣어두었습니다.)
107044 @1 으, 게난 삼춘 안 허는 게 엇구나?(으, 그러니까 삼촌 안 하는 게 없구나?)
107044 #1 아이고, 뎅이멍양, 그 일거리마씸, 일거리.(아이고, 다니면서, 그 일거리요, 일거리.)
107044 @1 웃음.(웃음.)
107044 #1 게난.(그러니까.)
107044 @1 보믄 안 허지 못허영은에?(보면 안 하지 못하고요?)
107044 #1 아, 일거리만 막 저 나냥으로도 알아집니다게. 일거리만 막 저질러마씸게. 뎅이당 봐지민 허여근에.(아, 일거리만 막 저 저대로도 알아집니다. 일거리만 마구 저질러요. 다니다 봐지면 해서.)
107044 @1 으.(으.)

107044 #1 아이고, 진짜양 일거리, 일거리마씸게. 일거리. 일거릴 이녁냥으로 만들멍 협니덴 허난.(아이고, 진짜요 일거리, 일거리요. 일거리. 일거릴 이녁대로 만들면서 한다고 하니까.)

107044 @1 게난.(그러니까.)

107044 #1 만들멍 허영.(만들면서 하고.)

107043 @1 그다음에 파짐치도 헤마씸? 여기.(그다음에 파김치도해요? 여기.)

107043 #1 파짐친 얼른 헤여야 맛십니다.(파김친 얼른 해야 맛있습니다.)

107043 @1 거는 뭘로 양념헤마씨?(거는 뭐로 양념해요?)

107043 #1 건 양념 허는 거 엇입니다.(건 양념 하는 거 없습니다.)

107043 @1 아.(아.)

107043 #1 파짐친. 저 무신거만 ᄒᆞ꼼 놓민 뒈는 거. 저 무시거 그자 꿧가르나 ᄒᆞ쏠 놓곡 저 무시거 그 저 장물이나 ᄒᆞ꼼 놓곡.(파김친. 저 무엇만 조금 넣으면 되는 거. 저 무엇 그저 참깨가루나 조금 넣고 저 무엇 그 저 간장이나 조금 넣고.)

107043 @1 아, 장물도 들어가?(아, 간장도 들어가?)

107043 #1 장물이나 ᄒᆞ꼼 그자 얼른허게 버무령 먹는 거난. 경 허영 먹곡, 따시 또 저 젓 시민.(간장이나 조금 그저 얼른 버무려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다시 또 저 젓갈 있으면.)

107043 @1 예.(예.)

107043 #1 젓갈 ᄒᆞ꼼만 놩.(젓갈 조금만 넣고.)

107043 @1 으으.(으으.)

107043 #1 저 장물 놓지 말앙 젓갈 ᄒᆞ꼼만 놔근에 버무리민 그거 그거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거, 거.(저 간장 넣지 말고 젓갈 조금만 넣어서 버무리면 그거 그거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거.)

107043 @1 아, 젓갈만 잇으민.(아, 젓갈만 있으면.)

107043 #1 예, 젓갈만 ᄒᆞ꼼 놩 짜게 허지 말앙.(예, 젓갈만 조금 넣어 짜게 하지 말고.)

107043 @1 예.(예.)

107043 #1 짠 건 우리 싫어허난.(짠 건 우리 싫어하니까.)

107043 @1 으.(으.)

107043 #1 짠 건 허지 아녀난 저.(짠 건 하지 않으니까.)

107043 @1 파김치도 맛싯는데 이렇게 식당가도예.(파김치도 맛있는데 이렇게 식당가도요.)

107043 #1 예게.(예.)

107043 @1 파짐치는, 으.(파김치는, 으.)

107043 #1 예게. 그 저 젓갈 안 들어감실 거우다. 저 식당에.(예, 그 저 젓갈 안 들어갈 겁니다. 저 식당에.)

107043 @1 예.(예.)

107043 #1 거 내움살 나곡 허난 젓갈 안 놉니다. 그런 딘.(거 냄새 나고 하니까 젓갈 안 넣습니다. 그런 덴.)

107043 @1 으.(으.)

107043 #1 거 저 무시것에 헴실 거우다. 건, 그거 저 단물에 허는 거는 간장이 들어가곡.(거 저 무엇에 하고 있을 겁니다. 건 그거 저 단물에 하는 거는 간장이 들어가고.)

107043 @1 예.(예.)

107043 #1 단물에 아녀근엥에 허민 소금 들어감실 거우다.(단물에 안 하고 하면 소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107043 @1 아.(아.)

107043 #1 그 식당에 허는 건 모르난.(그 식당에 하는 건 모르니까.)

107043 @1 예.(예.)

107043 #1 우리, 우린 우리냥으로 우린 단물에 헤영 먹으난게.(우리, 우린 우리대로 우린 단물에 해서 먹으니까.)

107043 @1 예.(예.)

107043 #1 단물에 허여근에 그레 그 놓는 거 아무 것도 엇입니다. 거 저 고칫가루나 놓곡.(단물에 해서 거기에 그 넣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 저 고춧가루나 넣고.)

107043 @1 예.(예.)

107043 #1 그 깻가루나 놓곡 그자 그 무시거 무시거나 놓주 다른 건 뭐 마늘도 안 들어가곡 헐 거난.(그 참깨가루나 넣고 그저 그 무엇 무엇이나 넣지 다른 건 뭐 마늘도 안 들어가고 할 거니까.)

107043 @1 어, 파니까예.(어, 파니까요.)

107043 #1 예. 파난 마늘 안 들어갑니다.(예. 파니까 마늘 안 들어갑니다.)

107043 @1 으.(으.)

107043 #1 게난 뎅이멍 원 쓸데길엇인 거나헤지곡 원, 원.(그러니 다니면서 원 쓸데없는 거나해지고 원, 원.)

107043 @1 웃음.(웃음.)

107043 #1 일 엇이 어떤 땐 막 일거리 일, 믄 일거리 믄 저질러집니다게, 원.(일 없이 어떤 땐 막 일거리 일, 모두 일거리 모두 저질러집니다, 원.)

107043 @1 웃음. 에이고, 일 아무 것도 엇덴 셍각헤 봅서. 얼마나 재미엇일 거우꽈? 일, 일 잇어민 재미엇일 거 닮아.(웃음. 아이고, 일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을 겁니까? 일, 일 없으면 재미없을 거 같아.)

107043 #1 요ᄒᆞ룩이[242] 그 저 무시거 ᄀᆞ져가렌 헨 떡이영 ᄀᆞ져가난게, 요 집이 난게.('요ᄒᆞ룩이' 그 저 무엇 가져가라고 해서 떡이랑 가져가니까, 요 집이니까.)

107043 @1 예.(예.)

242) '요ᄒᆞ룩이'는 '요사이 어느 때'를 말한다. 달리 '요자기'라고 한다.

107043 #1 ᄀᆞ젼 가난에 아이고, 떡이영 영 하영 줍디가? 이거 하나 먹엉 갑서, 하나 먹엉 갑서, 허난. 이젠 앚안 하나 먹으멍.(가져서 가니까 아이고, 떡이랑 이렇게 많이 줍디까? 이거 하나 먹고 가세요, 하나 먹고 가세요, 하니까. 이젠 앉아서 하나 먹으면서.)

107043 @1 예.(예.)

107043 #1 거 무신 간세허연에 거 무시거 못허쿠덴 허난. 하이고, 요 권당 오죽 간세헌 어른이라, 오죽 간세헌 어른이라, 날ᄀᆞ라.(거 무슨 게을러서 거 무엇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이고, 요 권당 오죽 게으른 어른이라, 오죽 게으른 어른이라, 날더러.)

107043 @1 웃음.(웃음.)

107043 #1 막 간세허연양, 어디 가기도 실프고.(막 게을러서요, 어디 가기도 싫고.)

107043 @1 으.(으.)

107043 #1 노인당은 무사 안 감수가? 게난 간세허연 안 감수다 허구데 나 간세허연 안 감수다, 경 ᄀᆞᆯ안.(노인당은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 갑니다 하자 난 게을러서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107044 @1 웃음. 그치룩 하고. 옛날에 그 꿩마농짐치도 허여마씸, 여기서?(웃음. 그처럼 하고. 옛날에 그 달래김치도 해요, 여기서?)

107044 #1 꿩마농, 꿩마농은 저 뭐보단 파보단 더 맛십니다.(달래, 달래는 저 뭐보단 파보단 더 맛있습니다.)

107044 @1 으, 건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먹는 거?(으, 건 어떤 식으로 해서 먹는 거?)

107044 #1 그것도 저 기냥 그자 단물에.(그것도 저 그냥 그저 단물에.)

107044 @1 으.(으.)

107044 #1 단물에 허연 저기 먹단 ᄒᆞ꼼 잇수다. 이 우영팟듸 꿩마농 막 좋안에.(단물에 해서 저기 먹다가 조금 있습니다. 이 터앝에 달래가 매우 좋아서.)

107044 @1 거난 족은 디 벨 거 다 싱것어?(그러니까 작은 데 별 거 다 심었어요?)

107044 #1 이 헤끄만 헌디양.(이 조그만 한데요.)

107044 @1 예.(예.)

107044 #1 꿩마농 북북 허게시리 저 판에.(달래 박박 하게 저 파서.)

107044 @1 으.(으.)

107044 #1, 판에 뿔리채.(파서 뿌리째.)

107044 @1 으.(으.)

107044 #1 뿔리채 씻언에 요만이 허연에 단물에 허연에 먹단 문 먹엇수다게, 것도.(뿌리째 씻어서 요만큼 해서 단물에 해서 먹다가 모두 먹었습니다. 것도.)

107044 @1 으.(으.)

107044 #1 문 먹언. 문 먹언. 그자 그것도 ᄒᆞ쏠 허영 먹곡 저것도 ᄒᆞ쏠 허영 먹곡.(모두 먹었어. 모두 먹었어. 그저 그것도 조금 해서 먹고 저것도 조금 해서 먹고.)

107044 @1 경 허난.(그렇게 하니까.)

107044 #1 경 헴수게.(그렇게 합니다.)

107046 @1 예, 그치룩 헹은에 이제 하고. 세우리짐치도 여름에 맛 좋아예?(예, 그처럼 해서 이제 하고. 부추김치도 여름에 맛 좋아요?)

107046 #1 세우리마씨?(부추요?)

107046 @1 예.(예.)

107046 #1 세우리 막 좁니다.(부추 매우 좋습니다.)

107046 @1 예.(예.)

107046 #1 세우리도 쓸 디가 하마씸. 세우리도 구짝 그 저 무시거 그 자리훼 헐 때도 구짝 세우리.(부추도 쓸 데가 많아요. 부추도 줄곧 그 저 무엇 그 자리회 할 때도 줄곧 부추.)

107046 @1 으.(으.)

107046 #1 세우리 허여단 놓곡. 그때는 저 무시거 마농 엇은 때난.(부추 해다가 넣고. 그때는 저 무엇 마늘 없을 때니까.)

107046 @1 예, 예.(예, 예.)

107046 #1 저 파가 엇은 때난에. 세우리도 저디 질루믄게, ᄒᆞ꼬만 헌 디 질루멍 그거 허멍 허염수게게.(저 파가 없을 때니까. 부추도 저기 기르면, 조금만 한 데 기르면서 그거 하면서 합니다.)

107046 @1 으.(으.)

107046 #1 세우리 메여당 저 비어다근에 뜨시 그치룩 확 허게 그 그자 단물에.(부추 매다가 저 베다가 다시 그처럼 확 하게 그 그저 단물에.)

107046 @1 예.(예.)

107046 #1 단물에 문 싯은만 허민 단물에 허여근에 저 그때 먹어야 맛좁니다.(민물에 모두 씻기만 하면 단물에 해서 저 그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107046 @1 으.(으.)

107046 #1 거 놔두민 막 궂어마씸.(거 놔두면 막 궂어요.)

107046 @1 아.(아.)

107046 #1 예, 놔두민 궂어.(예, 놓아두면 궂어.)

107046 @1 막 시게 헤영들도 그 김치헤영은에 신 것도 먹기도 허연게마는?(매우 시게 해서들도 그 김치해서 신 것도 먹기도 하더니만?)

107046 #1 우린 신 거는 좋아 아녕마씨게.(우린 신 건 좋아하지 않아요.)

107046 @1 아, 게니까 자꾸자꾸 금방금방 허염구나, 삼춘.(아, 그러니까 자꾸자꾸 금방금방 하는구나, 삼촌.)

107046 #1 금방금방 허연 먹엄수게. 금방금방.(금방금방 하고 먹습니다. 금방금

방.)
107046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젓갈
107048 @1 젓갈은 어떤 거 담아봔마씨? 삼춘.(젓갈은 어떤 거 담아봤어요? 삼촌.)
107048 #1 젓갈?(젓갈?)
107048 @1 예.(예.)
107048 #1 저.(저.)
107048 @1 자리젓이나 멜첫이나 이런 거?(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이런 거?)
107048 #1 그런 거 이녁 자기, 나가 담을 때는?(그런 거 이녁 자기, 내가 담을 때는?)
107049 @1 예, 삼춘, 무신 젓갈 담아봅디가?(예, 삼촌, 무슨 젓갈 담가봅디까?)
107049 #1 자리젓갈. 자리만 저 젓 담읍센 아덜은 허난게.(자리젓. 자리돔만 저 담으시라고 아들은 하니까.)
107049 @1 예.(예.)
107049 #1 자린게 하영 사지도 못허는디 젓 담아불민 언마나 허느니게, 자리 사지 못허연. 자리 자린 올히 엇언마씸.(자리돔은 많이 사지도 못하는데 젓 담가버리면 얼마나 하느냐고, 자리돔 사지 못해서. 자리돔, 자리돔 올해는 없어요.)
107049 @1 음.(음.)
107049 #1 올힌 젓 못 담암수다게. 자리젓만 담읍, 담읍센 허난게. 자리 사지 못허연 저 젓 안 담으켜. 젓 담아도 경 항상 맛잇는 것도 아니고, 맛신 때가 경 언마엇입니다게. 경, 간을 잘 맞추지 못허영. 게난게 흔, 자리 흔 뒈민.(올해는 젓 못 담았습니다. 자리젓만 담읍, 담그시라고 하니까. 자리돔 사지 못해서 저 젓 안 담글게. 젓 담가도 그렇게 항상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을 때가 그렇게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 자리돔 한 되면.)
107049 @1 으.(으.)
107049 #1 소금 언마 그거를 마련헹 놔야마씨.(소금 얼마 그거를 마련해서 넣어야 해요.)
107049 @1 예.(예.)
107049 #1 게난 자리 흔 말이민, 자리 흔 말이민 소금 뒈승 ᄒᆞ나 놔야 뭡니다.(그러니까 자리돔 한 말이면, 자리돔 한 말이면 소금 되로 하나 넣어야 됩니다.)
107049 @1 아, 뒈승 ᄒᆞ나예, 예, 어.(아, 되로 하나요. 예, 어.)
107049 #1 예, 경 허영은에 허는 때문에 것도 저 경 허고 싶지 아녀마씸게.(예, 그렇게 해서 하는 때문에 것도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107049 @1 으.(으.)
107049 #1 건 하도, 하도 허단 이젠 지쳔 하도.(건 하도, 하도 하다가 이젠 지쳐

서 하도.)

107049 @1 게난 옛날에는 완전 하영 허여난 거 아니꽈예? 집집마다.(그러니 옛날에는 완전 많이 했었던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107049 #1 옛날에 막 하영 헤낫수다게.(옛날에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107049 @1 게난 그땐, 헐 땐 그 방법을 골아줘 봅서. 어떤 식으로 헤나신디.(그러니까 그땐, 할 때 그 방법을 말해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107049 #1 그땐 방법이 그게 그겁주게.(그땐 방법이 그게 그겁지요.)

107049 @1 으.(으.)

107049 #1 게고 그자 자리 사다근에 그자 그 소금허여근에. 것도 소금 허영 버무려도 안 뒈는 거마씨.(그리고 그저 자리돔 사다가 그저 그 소금해서. 것도 소금해서 버무려도 안 되는 거예요.)

107049 @1 으.(으.)

107049 #1 머리 믄딱 뺏아사.(머리 몽땅 빻아야.)

107049 @1 아, 머리 다 뺏아 놩.(아, 머리 다 빻아 놓고.)

107049 #1 소금 놔근에.(소금 넣어서.)

107049 @1 예.(예.)

107049 #1 소금 저 놀 만이 놔근에.(소금 저 넣을 만큼 넣어서.)

107049 @1 으.(으.)

107049 #1 마께로 저 믄딱 그 머리를 삣아줘야 냄살이 안 나마씨.(방망이로 저 몽땅 그 머리를 빻아줘야 냄새가 안 나요.)

107049 @1 아아.(아아.)

107049 #1 게난 그 머리레 독독독독 허게시리 믄딱 잦히멍 뺏아사마씸.(그러니까 그 머리를 독독독독 하게끔 몽땅 뒤집으면서 빻아야 해요.)

107049 @1 아.(아.)

107049 #1 뺏아근엥에 간을 맞추와사마씸. 경헤야주 머리가 그냥 내불민 소금물 안 들엉 내움살 나니까 그 다 뺏아줘야 뒈여마씸.(빻아서 간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지 머리가 그냥 내버리면 소금물 안 들어서 냄새 나니까 그 다 빻아줘야 돼요.)

107049 @1 으.(으.)

107049 #1 게난 삭삭 더운디 것도 그거만이.(그러니까 삭삭 더운데 것도 그거만큼.)

107049 @1 유월에예?(유월에요?)

107049 #1 예, 막 더웁니다게. 그 자리훼 허젠 허민양 아이고, 이녁만 그거 저 그거 저 무시거로 콘테나로 하나 사오민 잘도 오랩니다. 잘도. 우리 저장고 안네서 헤엿수다게.(예, 매우 덥습니다. 그 자리회 하려고 하면요 아이고, 이녁만 그거 저 그거 저 무엇으로 컨테이너 하나 사오면 잘도 오랩니다. 잘도. 우린 저장고 안에서 했습니다.)

107049 @1 음.(음.)

107049 #1 저장고 안네서 헤연마씸. 더완.(저장고 아에서 해요. 더워서.)
107049 @1 게니까 요만큼씩 헌 걸 콘테나 한 거 장만허젠 허민.(그러니까 요만큼씩 한 걸 컨테이너 한 거 장만하려고 하면.)
107049 #1 예게. 아덜이 이시민 확확허주마는 나만이라노난 허지도 못허고.(예. 아들이 있으면 확확하지만 나뿐이라서 하지도 못하고.)
107050 @1 음, 멜첫은 어떤 식으로 담는 거?(음, 멸치젓은 어떤 식으로 담는 거?)
107050 #1 멜젓도 소금 간만 맞으민.(멸치젓도 소금 간만 맞으면.)
107050 @1 것도 어느 정도 간 헙니까?(것도 어느 정도 가합니까?)
107050 #1 간은 그건 멜젓은 ᄒᆞ꼼 낫게 놔야마씨, 소금을.(간은 그건 멸치젓은 조금 낫게 넣어야 해요, 소금을.)
107050 @1 으.(으.)
107050 #1 소금을 그건 저 영 보멍.(소금을 그건 저 이렇게 보면서.)
107050 @1 예.(예.)
107050 #1 눈으로 보멍 저 버무려야 뒙니다. 멜젓은.(눈으로 보면서 저 버무려야 됩니다.)
107050 @1 으.(으.)
107050 #1 어제 멜젓 산 왓수다. 산 완.(어제 멸치젓 사서 왔습니다. 사서 왔어.)
107050 @1 아.(아.)
107050 #1 산 완.(사서 왔어.)
107050 @1 이제 김치 헐 거예?(이제 김치 할 거예요?)
107050 #1 김치 허젠 산 완. 저 나 머리 헴시난 이디 성님 가선게마는 ᄀᆞ찌 산 왓수게게.(김치 하려고 사서 왔어. 저 내가 머리 하고 있으니까 여기 형님 갔던데 같이 사서 왔습니다.)
107051 @1 여기도 알게미젓 같은 경우도 먹어낫수가?(여기도 아가미젓 같은 경우도 먹었었습니까?)
107051 #1 알게미가 뭣이우꽈?(‘알게미’가 뭡니까?)
107051 @1 아가미.(아가미.)
107051 #1 아가미?(아가미?)
107051 @1 으, 그걸 뭐렌 헙니까? 아우셍이렌 헤? 어우셍이렌 헤?(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우셍’이라고 해요? ‘어우셍’이라고 해요?)
107051 #1 알가미젓은 아녀 봣수다.(아가미젓은 안 해봤습니다.)
107051 @1 아, 그런 거 안 헤보고예. 깅이는?(아, 그런 거 안 해보고요. 게는?)
107051 #1 깅이는 엿날에 저 허여당은에 보깐 먹어봣수다마는.(게는 옛날에 저 해다가 볶아서 먹어봤습니다만.)
107052 @1 깅이젓은 여기선 안 헤 먹고.(게젓은 여기선 안 해 먹고.)
107052 #1 안 먹고.(안 먹고.)

107052 @1 웃드리는 웃드리우다예.(‘웃드리’는 ‘웃드리’네요.)

107052 #1 예게, 웃드리[243], 완전 깡촌 아니우꽈?(예, ‘웃드리’, 완전 깡촌 아닙니까?)

107052 @1 웃음.(웃음.)

107052 #1 깡촌게 완전.(깡촌이야 완전.)

107052 @1 옛날에 출레렌 헷어예? 반찬 아녕은에 출레렌.(옛날에 ‘출레’라고 했어요? 반찬이라 않고 ‘출레’라고.)

107052 #1 출레[244]. 예.(‘출레’. 예.)

107054 @1 으, 뭘 출레렌 헷수가?(으, 뭘 반찬이라고 했습니까?)

107054 #1 출레. 게난 출렌 아무 것도 출레.(반찬. 그러니까 반찬 아무 것도 반찬.)

107054 @1 으.(으.)

107054 #1 그 저 장ᄀᆞ란 장엔 허는디 이 저 무시거 그자 젓ᄀᆞ란 출레.(그 저 장보고는 장이라고 하는데 이 저 무엇 그저 젓갈보고 반찬.)

107054 @1 음.(음.)

107054 #1 젓ᄀᆞ란 출레. 그 저 출레, 출레도 내놓라.(젓보고 ‘출레’. 그 저 ‘출레’, ‘출레’도 내놓아라.)

107054 @1 으.(으.)

107054 #1 출레.(‘출레’.)

107054 @1 출레도 내놓라.(‘출레’도 내놓아라.)

107054 #1 장은 장. 장ᄀᆞ란 장엔 허곡 다른 건 다 출레마씸.(장은 장. 장보고 장이라고 하고 다른 건 다 ‘출레’예요.)

107054 @1 게믄 그 출레 허영은에 젓갈을 영 지졍은에 먹어보거나 영도 헷수가?(그러면 그 ‘출레’ 해서 젓갈을 이렇게 지져서 먹어보거나 이렇게도 했습니까)

107054 #1 적갈ᄀᆞ라 출레엔 헤수가?(젓갈보고 ‘출레’라고 했습니까?)

107054 @1 예, 그건 아니고.(예, 그건 아니고.)

107054 #1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저 그것이 아니고. 저 젓 ᄀᆞ뜬 것ᄀᆞ라 출레.(그것이 아니고. 그냥 저 그것이 아니고. 저 젓갈 같은 것보고 ‘출레’.)

107054 @1 으.(으.)

107054 #1 젓 ᄀᆞ뜬 것ᄀᆞ라 그 옛날도 멜젓도 담곡 자리젓도 담곡 그걸로게 먹으난에 출레덜토 거려오라, 경 경 골읍디다.(젓갈 같은 것더러 그 옛날도 멸치젓도 담고 자리젓도 담고 그걸로 먹으니까 ‘출레’들도 떠와라,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107054 @1 음. 출레덜도 거려오라. 그거에 허영은에 채소덜 영 먹은 거 아니라예?(음. ‘출레’도 떠와라. 그거에 해서 채소들 이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107054 #1 예게, 그거 허영은에 손으로 문 찢어근에.(예. 그거 해서 손으로 모두

243) ‘웃드리’는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들이나 마을을 말하며 달리 ‘웃드르’라고 한다.
244) ‘출레’에 딸리어서 먹는 장, 젓 따위의 간이 들어간 반찬을 말한다.

찢어서.)
107054 @1 찢엉은에.(찢어서.)
107054 #1 찢엉 양념 놔근에.(찢어서 양념 넣고.)
107054 @1 음.(음.)
107054 #1 양념은 무신 양념을 놉니까. 고칫가루나 ᄒᆞ쏠 놓곡 헤연 먹엇주게.(양념은 무슨 양념을 넣습니까. 고춧가루나 조금 넣고 해서 먹었지.)
107054 @1 음.(음.)
107054 #1 자리젓이사 고칫가루나 노민 말주 뭐 놀 거 엇수다게.(자리젓이야 고춧가루나 넣으면 말지 뭐 넣은 거 없습니다.)
107054 @1 자리젓 잘 익으민 고소허영은에 맛좋아예?(자리젓 잘 익으면 고소해서 맛좋아요?)
107054 #1 예.(예.)

장아찌와 회

107055 @1 삼춘, 여기선 장아찌. 지들도 하영 담잖아예? 지시는 어떵 담아 봅디가? 지.(삼촌, 여기선 장아찌. 장아찌들도 많이 담그잖아요? 장아찌는 어떻게 담아 봅디까? 장아찌.)
107055 #1 지슬?(감자?)
107055 @1 지, 지.(장아찌, 장아찌.)
107055 #1 지?(장아찌?)
107055 @1 장아찌, 으. 마농지 헐 때 지.(장아찌, 으. 마늘장아찌 할 때 장아찌.)
107055 #1 아, 지는, 지도 나도 막 엄청 하영 담아근에양.(아, 장아찌는, 장아찌는 나도 매우 엄청 많이 담아서요.)
107055 @1 예.(예.)
107055 #1 그 잔치헐 때에 그 저 무시거 대산이 잇수게양.(그 잔치할 때에 그 저 무엇 마늘 있잖습니까?)
107055 @1 예, 예. 대산이.(예, 예. 마늘.)
107055 #1 대산일 우리 큰, 큰아덜 풀 때 덕수[245]서 처음으로 헷어마씸게.(마늘을 우리 큰, 큰아들 팔 때 덕수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107055 @1 아.(아.)
107055 #1 처음으로 몸은 막 아프고 막 몸은 젊을 때부터 경 아팟수다게. 경 아프난에 저 메누리가 완 문 다듬앗수다.(처음으로 몸은 매우 아프고 매우 몸은 젊은 때부터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프니까 저 며느리가 와서 모두 다듬었습니다.)
107055 @1 으.(으.)
107055 #1 막 저 장에 간에 하영 사단에. 탈탈이도 처음으로 덕수 허여 놓고. 저 낭밧도[246] 저 다섯 사름이 처음 헷수다.(막 저 장에 가서 많이 사다가. 경운기도

245) '덕수'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말한다.

처음으로 덕수에 해 놓고. 저 귤밭도 저 다섯 사람이 처음 했습니다.)

107055 @1 으.(으.)

107055 #1 덕수에서 낭밧도 다섯 사름. *** ○○동권이 잇수게양.(덕수에서 귤밭도 다섯 사람. *** ○○동권이 있어요.)

107055 @1 예, 예.(예, 예.)

107055 #1 김○○이 아주버님이 우리 저 그 하르방이영[247] 갑장이난에. 김○○이 아주버님허고 뚜시 저 박○○이 허고, 고○○이 허고. 우리 허민 넷 허고, 하난 저 김○○허고.(김 ○○이 아주버님이 우리 저 그 남편이랑 갑장이니까. 김 ○○이 아주버님하고 또 저 박○○이 하고, 고○○이 하고. 우리 하면 넷 하고, 하난 저 김○○하고.)

107055 @1 으.(으.)

107055 #1 경 허연 다섯 사름이 매날 저 부두에 가는 거라마씸게. 일본서 오는 낭[248]을 그 심어근에 싱그젠 허난.(그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맨날 저 부두에 가는 거예요. 일본서 오는 귤나무를 그 심어서 심으려고 하니까.)

107055 @1 으.(으.)

107055 #1 부두엘 매날 가는 거라마씸게. 매날 간. 혼 열흘 부두에 가왓수다게.(부두엘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가고. 한 열흘 부두에 가왔습니다.)

107055 @1 으.(으.)

107055 #1 열흘 부두에 간에 허난에 걸 갈른 거라마씸게. 갈란에 ᄒᆞ꼼 싱근 것이 다섯 사름.(열흘 부두에 가서 하니까 걸 가른 거예요. 갈라서 조금 심은 것이 다섯 사람.)

107055 @1 음.(음.)

107055 #1 다섯 사름이 ᄒᆞ꼼 싱근 것이 다섯 사름인디 김○○이 허고 우리벳기낭 지금 저 뭰 사름 엇수다게.(다섯 사람이 조금 심은 것이 다섯 사람인데 김○○이 하고 우리밖에 나무 지금 저 된 사람 없습니다.)

107055 @1 음.(음.)

107055 #1 다섯 사름 허여신디. 다 죽어 불고 풀아 불곡.(다섯 사람 했는데. 다 죽어 버리고 팔아 버리고.)

107055 @1 예.(예.)

107055 #1 망허연 엇어 불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107055 @1 으.(으.)

107055 #1 저 누게도 ○○○도 망허연에 각시 얻언에 서귀포 간 살아 불고. 따시 그 저 ○○○이엔 헌 사름은 저 우의우다게.(저 누구도 ○○○도 망해서 각시 얻어서 서귀포 가서 살아버리고. 또 그 저 ○○○이라고 한 사람은 저 위입니다.)

107055 @1 예.(예.)

---

246) '낭밧'은 '나무가 심어진 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귤밭'을 말한다.
24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248) '낭'은 '나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귤나무'를 뜻한다.

107055 #1 우인디 수의사 그 사름은 수의산디.(윈데 수의사 그 사람은 수의산데.)

107055 @1 으.(으.)

107055 #1 그 사름은 뚜시 그럭저럭허단 죽어 불고. *******. 또 저 누게 ○○○도 오꼿 젊은 때 죽어 불고.(그 사람은 또 그럭저럭하다가 죽어 버리고. *******. 또 저 누구 ○○○도 그만 젊은 때 죽어 버리고.)

(부분 생략)

107055 #1 경 헨에 우리 두 사름 뒈엿수다. 덕수서.(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 되었습니다. 덕수에서.)

107055 @1 음.(음.)

107055 #1 두 사름 뒈연 질 모녀 싱근 사름마씸. 김○○이 허고 우리가 질 ᄆᆞ녀 싱것수다.(두 사람 돼서 젤 먼저 심은 사람이에요. 김○○이 하고 우리가 젤 먼저 심었습니다.)

107055 @1 예.(예.)

107055 #1 다른 사름덜은 다 그자 다 풀아불고 엇어 불언.(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다 팔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107055 @1 음.(음.)

107055 #1 엇어 불고.(없어져 버리고.)

107055 @1 엇어 불고.(없어져 버리고.)

107055 @1 음.(음.)

107055 #1 겡 ᄆᆞ여 싱근 사름덜이우다게.(그렇게 먼저 심은 사람들입니다.)

107055 @1 음, 경 허여근에 그때 대산이지허고 또 어떤 지?(음, 그렇게 해서 그때 마늘장아찌하고 또 어떤 장아찌?)

107055 #1 대산이진 허난에 이젠 그걸 다듬아야 뒐 거 아니우꽈?(마늘장아찐 하니까 이젠 그걸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7055 @1 으.(으.)

107055 #1 ᄆᆞ딱 다듬아근에 그 뎅가리만 헐 거마씸.(몽땅 다듬어서 그 댕가리만 할 거예요.)

107055 @1 예.(예.)

107055 #1 뎅가리만 헤연에 요만씩 요만씩 썰어져신가?(댕가리만 해서 요만씩 요만씩 썰어졌는가?)

107055 @1 음.(음.)

107055 #1 요만씩 헤연에 저 메누리가 다듬앗수다게.(요만씩 해서 저 며느리가 다듬었습니다.)

107055 @1 음.(음.)

107055 #1 하영 헤여 오고 저 정월 그 저 메튿날이난 추원마씸.(많이 해서 오고 저 정월 그 며칠이니까 추워요.)

107055 @1 음.(음.)

107055 #1 춥고 막 몸이 경 아픕디다게. 젊을 때부터 나 아팟수다게. 아프난에 가이가 오란 흔듸 다듬안마씸게. 다듬안에, 아덜도 흔디 다듬고.(춥고 매우 몸이 그렇게 아픕디다. 젊을 때부터 제가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걔가 와서 함께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아들도 함께 다듬고.)

107055 @1 음.(음.)

107055 #1 다듬안에 그걸 ᄒᆞ꼼만 담은 말이우꽝? 항아리로 막 담안.(다듬어서 그걸 조금만 담을 말입니까? 항아리로 막 담고.)

107055 @1 음.(음.)

107055 #1 경 허연 담으난 이건 어떵 허연 담아시넨 허멍 처음으로 헤연마씸게.(그렇게 해서 담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담았냐고 하면서 처음으로 했어요.)

107055 @1 아.(아.)

107055 #1 어떵 허연 담아시닌 허멍, 남으난양 곱짐으로덜 우리 * *** 막 욕심쎕니다게.(어떻게 해서 담았냐고 하면서, 남으니까 숨김으로 우리 * *** 막 욕심 셉니다.)

107055 @1 아.(아.)

107055 #1 저 놈덜 ᄒᆞ꼼씩 ᄀᆞ져간, 권당덜 ᄀᆞ져가가난양 ᄋᆞ져단 곱져 불언.(저 남들 조금씩 가져간, 권당들 가져가니까요 가져다가 숨겨 버리고.)

107055 @1 웃음.(웃음.)

107055 #1 저 담아단 곱져불언마씸게. 담아단 곱져 불언. 담아단 곱지지 아녀민지 적시 엇일 거난.(저 담아다가 숨겨버렸어요. 담아다가 숨겨 버리고. 담아다가 숨기지 않으면 자기 몫이 없을 거니까.)

107055 @1 으.(으.)

107055 #1 세상 이런 거 안 보고렌 허멍 글로 후에 들언 그 저 장아찌덜 헤연에 잔치덜 헴수다게.(세상 이런 거 안 봤다고 하면서 그 후에 들어서 그 저 장아찌들 해서 잔치들 합니다.)

107055 @1 어.(어.)

107055 #1 게난 그거는 어떵 허여져시냐 허믄 그 저 무시거 식초허고 물허고 허연에 그냥 그거 ᄃᆞᆼ갓단에.(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졌느냐 하면 그 저 무엇 식초하고 물하고 해서 그냥 담갔다가.)

107055 @1 예.(예.)

107055 #1 ᄃᆞᆼ갓단에 물 빠지완에 그레, 그레 ᄯᅳ시 간 맞추완에.(담갔다가 물 빼고 거기에, 거기에 다시 간 맞춰서.)

107055 @1 으.(으.)

107055 #1 그 저 물에 식초에 간 맞추완에 허여진 거 닮아마씨.(그 저 물에 식초에 간 맞춰서 한 거 같아요.)

107055 @1 게난 옛날에 이 동네는 대산이지들 안 헹 먹어낫수과?(그러니까 옛

날에 이 동네는 마늘장아찌들 안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5 #1 대산이지 영 아녀본 때마씨.(마늘장아찌 이렇게 안 해본 때예요.)
107055 @1 아.(아.)
107055 #1 이거게 우리 큰아덜이 이제 오십일곱이우다게.(이거 우리 큰아들이 이제 쉰일곱입니다.
107055 @1 예, 예.(예, 예.)
107055 #1 게난 그때, 그때 첫 번으로 허연마씨.(그러니까 그때, 그때 첫 번으로 했어요.)
107055 @1 아. 첫 번.(아, 첫 번.)
107055 #1 첫 번으로 허난.(첫 번으로 하니까.)
107055 @1 게민 여기는 옛날에 마농덜은 하영 안 간 모양이라예?(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마늘들 많이 안 갈았던 모양이네요?)
107055 #1 마농은 덕수 아예 아녀봣수다.(마늘은 덕수 아예 안 해봤습니다.)
107055 @1 아아.(아아.)
107055 #1 아예 아년. 영 아예 아년. 이제사 어쩌다 ᄒᆞᆫ 밧듸썩 허연. ᄒᆞᆫ 밧디 섯동넨 허는 디. 엇수다, 마눙.(아예 안 해. 이렇게 아예 안 해. 이제야 어쩌다 한 군데씩 하고. 한 군데는 서쪽동네 하는 데. 없습니다, 마늘.)
107055 @1 아.(아.)
107055 #1 이딘 허는 디 엇고 저디 우리 동생 ᄒᆞ꼼 갈고.(여긴 하는 데 없고 저기 우리 동생 조금 갈고.)
107055 @1 으.(으.)
107055 #1 우리 저 막내 동생 ᄒᆞ쏠 갈곡. ᄒᆞ꼼썩 매, ᄒᆞᆫ, ᄒᆞᆫ 서른 집의믄 ᄒᆞᆫ 집 허나마나 헷수다게.(우리 저 막내 동생 조금 갈고. 조금씩 매, 한, 한 서른 집이면 한 집 하나마나 했습니다.)
107055 @1 아. 옛날 우리 저쪽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 반찬이렌 허민 마농지. 게난 마농지에예 장물에 이렇게 헤갖고 옛날부터 헹 먹어신디.(아. 옛날 우리 저쪽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 반찬이라고 하면 마늘장아찌에 간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해서 먹었는데.)
107055 #1 장물 꿰와 놩.(간장 끓여 넣고.)
107055 @1 예.(예.)
107055 #1 경 허연에 허난 ᄉᆞ뭇 맛 좋덴 허멍 오죽헌 말이우꽈?(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뭇 맛 좋다고 하면서 오죽할 말입니까?)
107055 @1 으.(으.)
107055 #1 경 허곡 또 반추.(그렇게 하고 또 파초.)
107055 @1 예, 반추.(예, 파초.)
107055 #1 반추 알아집니까?(파초 알아집니까?)
107055 @1 예, 반추.(예, 파초.)

107055 #1 반추 이디 허단에 이 우영에 거 파 불젠 저 과수원에 간 싱것수다게.(파초 여기 하다가 이 터앝에 거 파 버리려고 저 과수원에 가서 심었습니다.)

107055 @1 아.(아.)

107055 #1 이제 아녀집니다게. 반추 따시 끈어다근에 뜨시 반추지 만들앙.(이제 안 해집니다. 파초 다시 끊어다가 다시 파초장아찌 만들어서.)

107055 @1 음.(음.)

107055 #1 반추지 만들민 ᄉᆞ뭇 그것도 저 우리 죽어 분 ᄉᆞ춘 씨아지방은 제ᄉᆞ만 돌아오민 제삿날 ᄎᆞ냑은 반추지 줍서.(파초장아찌 만들면 사뭇 그것도 우리 죽어버린 사촌 시아주버니는 제사만 돌아오면 제삿날 저녁은 파초장아찌 주세요.)

107055 @1 음.(음.)

107055 #1 반추지 줍센마씸게. 경 허멍 반추지도 계속 먹엇수다게.(파초장아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파초장아찌도 계속 먹었습니다.)

107055 @1 아.(아.)

107055 #1 게난 이젠 안 헤집니다게.(그러니까 이젠 안 해집니다.)

107055 @1 게난 그 반추지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그러니까 그 파초장아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55 #1 반추지도 저 그건 썰어근에게.(파초장아찌도 저 그건 썰어서.)

107055 @1 으.(으.)

107055 #1 그건 썰지 못허는 거마씸. 톱으로 싸사.(그건 썰지 못하는 거예요. 톱으로 켜야.)

107055 @1 아아.(아아.)

107055 #1 톱으로 싸지 아녀민 저 이만이 솔진 걸로 허여 오민 톱으로 저 요만씩 먹게.(톱으로 켜지 않으면 저 이만큼 두꺼운 걸로 해 오면 톱으로 저 요만씩 먹게.)

107055 @1 예.(예.)

107055 #1 먹게 요만씩 허게 믄딱 싸근에 믄딱 벳겨근에 그 저 먹을 거. 저 연헌 걸로만. 연헌 걸로만 똑똑똑똑 썰어근엥에 믄 멧 불 믄딱 싯어둬근에.(먹게 요만씩 하게 몽땅 켜서 몽땅 벗겨서 그 저 먹을 거. 저 연한 거로만. 연한 거로만 똑똑똑똑 썰어서 모두 몇 벌 몽땅 씻어두고.)

107055 @1 음.(음.)

107055 #1 싯어둬근에 또 식초물에 ᄃᆞᆼ가근에 그 저 트러운 거 믄딱 빠뒁마씨.(씻어두고 또 식초물에 담가서 그 저 더러운 거 몽땅 빼두고요.)

107055 @1 예.(예.)

107055 #1 딱 허게시리 저 물에 식초 ᄒᆞ꼼 놔근에 ᄃᆞᆼ강 그 돌멩이 지둘롸근에 메틀 놔뒷당은엥에 것도 그 저 그걸 만들아마씸.(딱 하게끔 저 물에 식초 조금 넣어서 담그고 그 돌멩이 지지러서 며칠 놓아두었다가 것도 그 저 그걸 만들어요.)

107055 @1 예.(예.)

107055 #1 장물 놓곡 허여근에 저 간 맞촹 만들아근에 그것이 경 좋아근에 경 것도, 것도 큰일칩[249] ᄀᆞ져뎅겻수다.(간장 넣고 해서 저 간맞추고 만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것도, 것도 '큰일집' 가져다녔습니다.)

107055 @1 음.(음.)

107055 #1 이 저 잔치헐 때 그것도 드러 먹엇수다.(이 저 잔치할 때 그것도 들이 먹었습니다.)

107055 @1 아.(아.)

107055 #1 드러 먹엉. 이 저 손님상에도 놓곡 막 허여낫수다게.(들이 먹고. 이 저 손님상에도 놓고 많이 했었습니다.)

107055 @1 반추지를예, 예.(파초장아찌요, 예.)

107055 #1 반추지를. 겐디 요즘은 못 봐마씨. 이젠 저.(파초장아찌. 그런데 요즘은 못 봐요. 이젠 저.)

107055 @1 반추 자체를 못 봐마씨? 아예.(파초 자체를 못 봐요? 아예.)

107055 #1 반추 우리 밧디 핫수다.(파초 우리 밭에 많습니다.)

107055 @1 아.(아.)

107055 #1 하신디 허여지질 아녑니다.(많은데 해지질 않습니다.)

107057 @1 음.(음.)

107057 #1 이 앞집의 아이, 성님, 반추 엇수가? 허군데 밧듸 강 보라, 막 핫저게. 느 뎅이멍 안 봔쟈? 그 저 그 아침 저 먹을 때 들어가는 디게. 그디게 ᄀᆞ득아시네게. 경 허난 아녀 와나십디다. 것도 실펑 못헤마씨.(이 앞집의 아이, 형님, 파초 없습니까? 하기에 밭에 가서 봐라, 아주 많지. 너 다니면서 안 봤니? 그 저 그 아침 저 먹을 때 들어가는 데. 거기에 가득하네. 그렇게 하니까 안 왔었습디다. 것도 싫어서 못해요.)

107057 @1 예, 음.(예, 음.)

107057 #1 게난 이 저 동녘 집의 서녁 집의 성님ᄀᆞ라 골으난 그게 그걸 허멍. 웃음. 그게 그, 아니 헤나십데다, 허난에 그게 그거 허멍.(그러니 이 저 동녘 집의 서녘 집의 형님더러 말하니까 그게 그걸 하면서. 웃음. 그게 그, 안 했었습디다, 하니까 그게 그거 하면서.)

107057 @1 아이고, 이제 그치록 하고. 그다음에 훼예, 훼로 먹는 건 뭘 사당 먹언마씨?(아이고, 이제 그처럼 하고. 그다음에 회요, 회로 먹는 건 뭘 사다가 먹었어요?)

107057 #1 훼?(회?)

107057 @1 으, 훼 허영 먹는 거.(으, 회 해서 먹는 거.)

107057 #1 훼 허영 먹는 건 무신거 주로 자리가 자리가 췌고로 잘 헹 먹곡. 훼 떠당 뭐 저 먹는 건 뭐 저 아덜덜 가근엥에 어떤 땐 데령강도 먹곡 떠온 거 보민 뭐 사시미, 사미미 뗭 왕은에 저 이건, 이건 뭐 방어우다, 이건 뭐 히라스우다[250],

249) '큰일칩'은 잔치, 초상 따위의 큰일이 있는 집을 말한다.

허멍 허여근에 허영 떵 옵니다.(회 해서 먹는 건 무엇 주로 자리돔이 자리돔이 최고로 잘 해서 먹고. 회 떠다가 뭐 저 먹는 건 뭐 저 아들들 가서 어떤 땐 데려가서도 먹고 떠온 거 보면 뭐 회, 회 떠서 와서 저 이건, 이건 뭐 방업니다, 이건 뭐 부시리입니다, 하면서 하고 해서 떠서 옵니다.)

107057 @1 음.(음.)

107057 #1 겨고 혼번은 고등어, 고등어덜 저 곧 잡은 거양.(그리고 한번은 고등어, 고등어들 저 곧 잡은 거요.)

107057 @1 예, 예.(예, 예.)

107057 #1 베로.(배로.)

107057 @1 으.(으.)

107057 #1 베로 간 허여오난 건 맛엇읍디다. 건 민작민작허연.(배로 가서 해오니까 건 맛없습디다. 건 만질만질해서.)

107057 @1 민작민작헌 거.(만질만질한 거.)

107057 #1 좋지 아년에. 아이고, 이건 것 좋지 아녀다 경 허멍. 친구덜이영 ᄀᆞ치 간 헨 와십디다. 게난 그 저 주로 그 저 무신거 방어, 히라스, 고등어, 그런 거 먹어봣수다.(좋지 않아서. 아이고, 이건 것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해서 왔습디다. 그러니까 그 저 주로 그 저 무엇 방어, 부시리, 고등어, 그런 거 먹어봤습니다.)

107057 @1 음, 여기는 아무래도 웃드르니까예.(음, 여기는 아무래도 '웃드르'니까요.)

107057 #1 예게. 게난 자리훼가 췌고마씸게. 여름에 자리훼.(예, 그러니 자리회가 최고예요. 여름에 자리회.)

107057 @1 자리훼. 진짜 자리훼는 제주도 췌곤 거 같애예.(자리회. 진짜 자리회는 제주도 최곤 거 같아요.)

107057 #1 자리훼가 맛이 셔마씨.(자리회가 맛이 있어요.)

107058 @1 우리 그 계절에 따라예, 봄에 헤 먹는 반찬은 주로 어떤 반찬을 헹 먹어마씨? 봄에.(우리 그 계절에 따라서요. 봄에 해 먹는 반찬은 주로 어떤 반찬을 해서 먹어요? 봄에.)

107058 #1 봄 막 뭐 허염수가게 이디사게.(봄 막 뭐 합니까 여기야.)

107058 @1 예전에 헐 때, 봄에.(예전에 할 때, 봄에.)

107058 #1 웃드르[251]라 놓난게 무신거게 그 시민 신 냥 먹으난 뭐 봄에 무스거 허영 멀 거 십니까?('웃드르'여 놓으니까 무슨 그 있으면 있는 양 먹으니까 뭐 봄에 무엇 해서 먹을 거 있습니까?)

107058 @1 고사리반찬.(고사리반찬.)

107058 #1 고사리반찬도, 고사리도 경 어려와마씨.(고사리반찬도, 고사리도 그렇

250) '히라스'는 일본어 'ひらまさ(히라마사)'의 잘못된 말이다. 바다 생선인 '부시리'를 말한다.
25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게 어려워요.)

107058 @1 음.(음.)

107058 #1 고사리가 잘도 어려웁니다. 견디 이치록 영 다리 걷지 못헤도 고사린 꺼꺼야마씸.(고사리도 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다리 걷지 못해도 고사린 꺾어야 해요.)

107058 @1 예. 식게허젠 허민.(예, 제사하려고 하면.)

107058 #1 그 전상[252]이라 전상.(그 '전상'이야 '전상'.)

107058 @1 음.(음.)

107058 #1 전상이난게 메누리도 줘야 제사헐 거난게. 메누리도 쥠수게. 게난 고사리도 어쩌다 흔 번씩 헹 먹어집네다. 어쩌다 저 나 만이난에.('전상'이니까 며느리도 줘야할 거니까. 며느리도 줍니다. 그러니 고사리도 어쩌다 한 번씩 해서 먹어집니다. 어쩌다 저 저 만이라서.)

107058 @1 으.(으.)

107058 #1 이 우리 족은아덜넨 안 먹읍네다.(이 우리 작은아들넨 안 먹습니다.)

107058 @1 으.(으.)

107058 #1 에이그, 입이 노팡양 뭣사 먹엉 살암신디양, 춤. 고사리 집의 헤도 ᄀᆞ딱 안 먹읍니다. (에이그, 입이 높아요 뭐야 먹고 사는지요, 참. 고사리 집에 해도 까딱 안 먹습니다.)

107058 @1 아.(아.)

107058 #1 큰아덜은 육지선 먹으민 체허곡 이 저 제주 오랑 먹은 건 체 아녑니덴 허멍 막 고사리 좋아허곡 빈떡 좋아허곡.(큰아들은 육지서 먹으면 체하고 이 저 제주 와서 먹은 건 체 안 합니다 하면서 매우 고사리 좋아하고 빙떡 좋아하고.)

107058 @1 으.(으.)

107058 #1 허는디 빈떡 하나 먹지 아녀곡 이 저 송펜 이 절벤 하나 먹질 아녑니다. 아예 이 저.(하는데 빙떡 하나 먹지 않고 이 저 송편 이 절편 하나 먹질 않습니다. 아예 이 저.)

107058 @1 족은아덜은.(작은아들은.)

107058 #1 족은 집의 아기덜이영. 족은 집의 아기덜은 하나씩 먹읍니다. 먹는디 두갓인 먹지 아녑니다.(작은집의 아기들이랑. 작은 집의 아기들은 하나씩 먹습니다. 먹는데 부부는 먹지 않습니다.)

107058 @1 아.(아.)

107058 #1 경 밥도 ᄒᆞ꼼은 먹고.(그렇게 밥도 조금 먹고.)

107058 @1 음.(음.)

107058 #1 경 일은 그치록 헤도 먹지 아녑니다게. 먹지 아녀. 먹지 아녀난 경 줄엄사신디.(그렇게 일은 그처럼 래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는지.)

---

252) '전상'은 본래 타고난 성질이나 모습을 말하는데 불교 용어인 한자 前生에서 온 말인 것 같다.

107058 @1 음.(음.)

107058 #1 큰아덜은 잘 먹는 편입주.(큰아들은 잘 먹는 편입죠.)

107058 @1 음.(음.)

107058 #1 잘 먹는 편이라마씨.(잘 먹는 편이예요.)

107058 @1 여름에 주로 반찬은 뭐?(여름에는 주로 반찬은 뭐?)

107058 #1 여름에 그자 원 반찬엔 헌 거 뭐 잇수강? 여름엔 뭐 덥곡 헤 놓민양, 사레 가고 싶지도 아녀고 허민 사왓자 내음살 난 건 사 오민 그거 허영 먹지 기렵지도 아녀곡, 그자 저디 저 그 가시, 가시 안 나는 거 그 저 ᄒᆞ쏠 비싼 웨.(여름에 그저 원 반찬이라고 한 건 뭐 있습니까? 여름엔 뭐 덥고 해 놓으면요, 사러 가고 싶지도 않고 하면 사와야 냄새 난 건 사 오면 그거 해서 먹고 싶지도 않고, 그저 저기 저 가시, 가시 안 나는 거 그 저 조금 비싼 오이.)

107058 @1 음.(음.)

107058 #1 그거 멧 개 사다근엥에 저 우트레 올려근에양. 우티레 올려근에 그거 허여근엥에 그자 ᄒᆞ쏠 버물렁도 먹어봑.(그거 몇 개 사다가 저 위에 올려서요. 위에 올려서 그거 해서 그저 조금 버무려도 먹어보고.)

107058 @1 음.(음.)

107058 #1 그자 그럭저럭허주, 경 저 반찬 사렌 생전 아이 가봣수다.(그저 그럭저럭하지, 그렇게 저 반찬 사러 안 가봤습니다.)

107058 @1 음, 다 이런 ᄂᆞ물로만 이제예 하영 먹엉.(음, 다 이런 나물만 이제요 많이 먹고.)

107058 #1 ᄂᆞ물 허곡 자리, 자리 서너 개 썰어 놩은에 거 뒌장 찍엉 먹으민 것도 밥 먹어지곡.(나물 하고 자리돔, 자리돔 서너 개 썰어 놓고 거 된장 찍어서 먹으면 것도 밥 먹어지고.)

107058 @1 으.(으.)

107058 #1 예, 경 헙니다게. 자리 놔둬두서.(예, 그렇게 합니다. 자리돔 놓아둠서.)

107058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58 #1 자리 싱싱헌 거난 서너 개 썰엉은에 뒌장 찍엉 밥 먹으민 여름이난에.(자리돔 싱싱한 거니까 서너 개 썰어서 된장 찍어서 밥 먹으면 여름이니까.)

107058 @1 음.(음.)

107058 #1 경 허영 먹어지곡 허주. 반찬 사렌 안 갑니다.(그렇게 해서 먹어지고 하지. 반찬 사러 안 갑니다.)

107058 @1 음.(음.)

107058 #1 반찬 사레 가본 적이 엇어마씨. 나 먹젠 사렌 영 안 갑니다.(반찬 사러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먹자고 사러 영 안 갑니다.)

107058 @1 경허니까.(그러니까.)

107058 #1 저 겨고게 소궤기영 저 누게 드러 곶다 놘 뒈지궤기영 잇어도양 걸

먹어지질 아녀는 거라마씸. 먹어지질 아녀혀.(저 그리고 소고기며 저 누구 들이 갖다 놓은 돼지고기며 있어도요 걸 먹어지질 않는 거예요. 먹어지질 않아.)

107058 @1 ᄂᆞᄆᆞᆯ이 젤 좋긴 헌 거라예.(나물이 젤 좋긴 한 거지요.)

107058 #1 예, 예. 게난게 먹어야 뒈는디 저걸 안 먹언 그냥 잇수다.(예, 예. 그러니 먹어야 되는데 저걸 안 먹어서 그냥 있습니다.)

107058 @1 그다음에 이제 뭐 가을 허게 뒈면 호박들 날 거고.(그다음에 이제 뭐 가을 하게 되면 호박들 날 거고.)

107058 #1 호박, 호박도 좋아헙니다.(호박, 호박도 좋아합니다.)

107058 @1 예, 호박은 어떤 식으로 허영 먹언?(예, 호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먹어요?)

107058 #1 호박은 이제 사름덜은 보민 저 호박을 아녀는디 우린 제ᄉᆞ 때에 멩질 때에 그 늙은호박 썰어근엥에 전 지집니다.(호박은 이제 사람들은 보면 저 호박을 안 하는데 우린 제사 때에 명질 때에 그 늙은호박 썰어서 전 지집니다.)

107058 @1 예, 예.(예, 예.)

107058 #1 게난에 그 우리 족은, 큰메누리가 막 경 날 닮앙은에 그 호박을 좋아허난에 호박을 ᄀᆞ젼간에.(그러니까 그 우리 작은, 큰며느리가 막 그렇게 절 닮아서 그 호박을 좋아하니까 호박을 가져가서.)

107058 @1 으.(으.)

107058 #1 항상 ᄀᆞ져갑니다. 호박을. ᄀᆞ져간 전을 지젼에 지네 그 저 무시거 그 무시거 허는 디 간에 그 사름덜 먹어봔 이런 것도 시넨 ᄀᆞᆯ아렌 헙디다.(항상 가져갑니다. 호박을. 가져가서 전을 지져서 자기네 그 저 무엇 그 무엇 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 먹어보고 이런 것도 있느냐고 말하더라고 합디다.)

107058 @1 음.(음.)

107058 #1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허연 이거 잘도 맛신 거옌 허멍 이치룩도 허는 거우껜 허멍 ᄀᆞᆯ아렌마씸.(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하고 이거 잘도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처럼도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말하더래요.)

107058 @1 으.(으.)

107058 #1 게난 어멍 본 봔에 간, 그 육지 간에 제사ᄒᆞ젠 허난에 그거 허연에 아메도 그 저 어디 ᄀᆞ져간 셍이라. 그 저 그 가게에.(그러니 어머니 본을 보고 가서, 그 육지 가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그거 해서 아마도 그 저 어디 가져간 모양이라. 그 저 가게에.)

107058 @1 으.(으.)

107058 #1 가게에 ᄀᆞ져가난에 그 친구덜 완 먹어봔에 경 ᄀᆞᆯ아렌마씸.(가게에 가져가니까 그 친구들 와서 먹어보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107058 @1 으.(으.)

107058 #1 이런 것도, 이거 잘도 맛신 거옌 허멍 이치룩도 허느넨 허멍 ᄀᆞᆯ아렌마씸.(이런 것도, 이거 잘도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처럼도 하느냐고 하면서 말하

더래요.)
107058 @1 으.(으.)
107058 #1 경 ᄀᆞᆯ아렌 허멍 완 ᄀᆞᆯ읍디다게.(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와서 말합디다.)
107058 @1 예.(예.)
107058 #1 게난 호박도 좋아헙니다게. 나 호박도 잘 놔져마씸, 게난.(그러니 호박도 좋아합니다. 제가 호박도 잘 놓아져요. 그러니.)
107058 @1 음, 거난 삼춘은 다 여기에서 다 생산허멍 먹엄구나예? ᄆᆞᆫ딱.(음, 그러니까 삼촌은 다 여기에서 다 생산하면서 먹고 있네요? 몽땅.)
107058 #1 예게, 호박은 이디 못 놉니다게. 막 줄 벋는 따문, 저 과수원에.(예, 호박은 여기 못 놓습니다. 막 줄 벋는 때문, 저 과수원에.)
107058 @1 과수원에 강은에.(과수원에 가서.)
107058 #1 과수원에 강 놩 올려. 어디레 막 올라가게 허영. 이디사 ᄒᆞ꼼만 허여 놓난에.(과수원에 가서 놓고 올려. 어디로 막 올라가게 해서. 여기야 조그만 해 놓으니까.)

장 담그기

107059 @1 그다음에 요번에 장 담아신디 삼촌.(그다음에 요번에 장 담갔는데 삼촌.)
107059 #1 예.(예.)
107059 @1 장 담는 거예, 다시 한 번 ᄀᆞᆯ아 줍서. 장은 언제 담아마씨?(장 담는 거요,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장은 언제 담가요?)
107059 #1 장?(장?)
107059 @1 으, 뭰장 간장 담는 거.(으, 된장 간장 담는 거.)
107059 #1 아, 간장 만드는 건 그 옛날은 이제, 이제 저 동지섣ᄃᆞᆯ에 ᄉᆞᆲ앙.(아, 간장 만드는 건 그 옛날은 이제, 이제 저 동지섣달에 삶고.)
107059 @1 으.(으.)
107059 #1 동짓ᄃᆞᆯ에 ᄉᆞᆲ앙. ᄒᆞᆫ ᄃᆞᆯ, 섣ᄃᆞᆯ, 섣ᄃᆞᆯ 나민 섣ᄃᆞᆯ 나민 섣ᄃᆞᆯ 초ᄒᆞ르날로 헤영 담읍니다게.(동짓달에 삶고. 한 달, 섣달, 섣달 나면 섣달 나면 섣달 초하룻날로 해서 담급니다.)
107059 @1 예.(예.)
107059 #1 겨 헹 담는디 이제는 뭐 아무 때라도 담아마씸게.(그렇게 해서 담그는데 이제는 뭐 아무 때라도 담아요.)
107059 @1 음.(음.)
107059 #1 게난에, 장물 빼는 것도.(그러니까, 간장 가르는 것도.)
107059 @1 예.(예.)
107059 #1 저 아무 때라도. 이제 이제 ᄉᆞᆲ아도 뒈여. 이제 장 ᄉᆞᆷ게 뭰 때마씸.(저

아무 때라도. 이제 이제 삶아도 돼요. 이제 장 삶게 된 때예요.)

107059 @1 으.(으.)

107059 #1 이제 솖아근엥에 저 흔, 흔 오월들 스월들에.(이제 삶아서 저 한, 한 오월에 오월에.)

107059 @1 으.(으.)

107059 #1 저 그 장물 거리고.(저 그 간장 뜨고.)

107059 @1 장물 거리곡.(간장 뜨고.)

107059 #1 장물 거리곡 장 찌고 허는디 이제 솖아도 뒈곡, 또 막장으로 뚜시 허여도 또 봄 나민 먹고.(간장 뜨고 장 찧고 하는데 이제 삶아도 되고, 막장으로 또 해도 또 봄 나면 먹고.)

107059 @1 음.(음.)

107059 #1 겨난 뭐 장허는 건 아무 때라도 이젠 허는 거마씸.(그러니까 뭐 장하는 건 아무 때라도 이젠 하는 거예요.)

107059 @1 으.(으.)

107059 #1 옛날 닮지 아녕.(옛날 닮지 않아서.)

107060 @1 예, 게믄 그 장은 보통 장 종류는 어떤 거 잇는 거우꽈?(예, 그러면 그 장은 보통 장 종류는 어떤 거 있는 겁니까?)

107060 #1 장 종류?(장 종류?)

107060 @1 으.(으.)

107060 #1 장 종류도게 콩 그 저, 저 독새기콩 파란 거.(장 종류도 콩 그 저, 저 백태 파란 거.)

107060 @1 예.(예.)

107060 #1 파란 거 그거 그거 솖앙 헴수게.(파란 거 그거 그거 삶아서 합니다.)

107060 @1 예.(예.)

107060 #1 그거 솖아근에 거기서가 굴아줍니다. 저 흔 말이민.(그거 삶아서 거기서가 말해줍니다. 저 한 말이면.)

107060 @1 으.(으.)

107060 #1 소금 언마 놓고. 그 저 장물 빼는 건 그 사름넨 몰랑 안 곧는 거고.(소금 얼마 넣고, 그저 간장 빼는 건 그 사람들은 몰라서 안 말하는 거고.)

107060 @1 으.(으.)

107060 #1 이 저 막장 담는 거는 석 뒈 솖암수덴, 허민 거기서 재료가 내여주곡.(이 저 막장 담는 거는 석 되 삶습니다, 하면 거기서 재료를 내주고.)

107060 @1 으.(으.)

107060 #1 소금 언마 놉니까 허민, 저 멧 뒌디 소금 언마 놉니까 허민 아무만이 놓렌 굴아줍니다.(소금 얼마 넣습니까 하면, 저 몇 된데 소금 얼마 넣습니까 하면, 아무만큼 넣으라고 말해줍니다.)

107060 @1 음, 겡 얼마큼 놧수가? 삼춘. 요번에 헐 때.(음, 그래서 얼마큼 넣었

습니까? 삼촌. 요번에 할 때.)
107060 #1 나?(저요?)
107060 @1 으.(으.)
107060 #1 나 석 뒈 솖으난 소금 흔 뒈 반 놓렌 헙니다.(제가 석 되 삶으니까 소금 한 되 반 넣으라고 합니다.)
107060 @1 아, 흔 뒈 반예. 아.(아, 한 되 반이요. 아.)
107060 #1 흔 뒈 반.(한 되 반.)
107060 @1 게민 그거는 그냥 그, 막장 헐 때 어떤 식으로 담안? 삼춘.(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막장 할 때 어떤 식으로 담았어요? 삼촌.)
107060 #1 막장헐 때에.(막장 할 때.)
107060 @1 으, 요번에.(으, 요번에.)
107060 #1 막장 헐 때에 저 초설 목이 문딱 싯언에 물 등간에 내불엇단 아칙인 으섯 시 전이 불 케연에.(막장 할 때에 저 첫눈 무렵에 몽땅 씻어서 물 담가서 내버렸다가 아침엔 여섯 시 전에 불 켜서.)
107060 @1 으.(으.)
107060 #1 솖안에 그거 저 비니루 싯언 저디 저 물려 놔뒷단에 그것에 헨 세 번 솖, 세 번, 세 번 불랏수다. 세 번 불르난에 다 불라젼게마는.(삶아서 그거 저 비닐 씻어서 저기 말려 놓아뒀다가 그것에 해서 세 번 삶, 세 번, 세 번 밟았습니다. 세 번 밟으니까 다 밟아지더니만.)
107060 @1 으.(으.)
107060 #1 그것덜에 그 그거 문딱 놘에.(그것들에 그 그거 몽땅 넣어서.)
107060 @1 저거, 물, 물소리 으.(저거, 물, 물소리 으.)
107060 #1 문딱 놧수다. 그거.(몽땅 넣었습니다. 그거.)
107060 @1 예.(예.)
107060 #1 그것 재료 사온 것도 놓고 소금도 놓고 그 물.(그것 재료 사온 것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 물.)
107060 @1 으.(으.)
107060 #1 흠박허게 솖아사마씨.(흠뻑 삶아야 해요.)
107060 @1 예, 예.(예, 예.)
107060 #1 물을 잇어야 그 ᄀᆞ르가 맞을 거난.(물이 있어야 그 가루가 맞을 거니까.)
107060 @1 음.(음.)
107060 #1 게난에 아 이거 똑 물이 ᄒᆞ꼼 족아 베다 허여신디 딱 맞읍디다게.(그러니까 아 이거 똑 물이 조금 작아 보인다 했는데 딱 맞습디다.)
107060 @1 으.(으.)
107060 #1 딱 맞안에 그 물 다 놓고 허연 다 쪈에 저레 담안에 저디 저 더껀 놔뒷수다.(딱 맞아서 그 물 다 넣고 해서 다 찧어서 저기 담가서 저기 저 덮어 놓아

두었습니다.)
107060 @1 게믄 그 ᄀᆞ르는 무슨 ᄀᆞ르 놓는 거마씨? 거기.(그러면 그 가루는 무슨 가루 넣는 거예요? 거기.)
107060 #1 ᄀᆞ르?(가루?)
107060 @1 으.(으.)
107060 #1 저 콩 틔운 거.(저 콩 틔운 거.)
107060 @1 으.(으.)
107060 #1 콩 틔운 거 곤 거허고.(콩 띄운 거 간 거하고.)
107060 @1 으.(으.)
107060 #1 무시거 틔운 것덜 곤 거.(무엇 띄운 것들 간 거.)
107060 @1 예.(예.)
107060 #1 곤 거 그디서 저 육, 장에서 풉니다게. 게난 그거 사당은에.(간 거 거기서 저 육, 장에서 팝니다. 그러니 그거 사다가.)
107060 @1 으.(으.)
107060 #1 그거 사당은엥에 저거 익으민 먹어. 익으민 먹어야 뒈는 거마씨.(그거 사다가 저거 익으면 먹어. 익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7060 @1 게난 그 장 헐 때, 옛날도 그런 막장도 담아봔마씨?(그러니까 그 장 할 때, 옛날에도 그런 막장도 담가봤어요?)
107060 #1 아이고, 옛날은 안 담아 봣수다.(아이고, 옛날은 안 담가 봤습니다.)
107060 @1 아, 옛날은 안 하고.(아, 옛날은 안 하고.)
107060 #1 안 나와. 엿날은 아녀고.(안 나왔어. 옛날은 안 하고.)
107060 @1 예.(예.)
107060 #1 옛날은 그런 거 나, 그런 재료 픈는 것도 안 나오고.(옛날은 그런 거 나, 그런 재료 파는 것도 안 나오고.)
107060 @1 으.(으.)
107060 #1 그 저 장물 빼는 거, 그건.(그저 간장 빼는 거, 그건.)
107060 @1 그건 장물 빼는 거고예.(그건 간장 빼는 거고요.)
107060 #1 장물 빼는 건 그자 이제 솖앗당은엥에 이제 미깡 믄딱 타 뒁 솖앗다근에 그 저 장 발고롱이 익어은에 저 곱닥허민 그거 거려둬근에 쪄근에 먹엇수게.(간장 빼는 건 그저 이제 삶았다가 이제 귤 몽땅 따 두고 삶았다가 그 저 장 발그레 익어서 저 곱다라면 그거 떠두고 찧어서 먹었습니다.)
107060 @1 으.(으.)
107060 #1 경 허영 먹으민 그저 저 장이엔 허영 먹엇수다게.(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저 저 장이라며 하고 먹었습니다.)
107060 @1 예.(예.)
107060 #1 경헤신디 이젠 뭐 경도 헤영 먹고 저영도 허영 먹고.(그랬는데 이젠 뭐 그렇게도 해서 먹고 저렇게도 해서 먹고.)

107060 @1 게난 하영 옛날에 허곤 하영 ᄐᆞ난예.(그러니 많이 옛날에 하곤 많이 달라요.)

107060 #1 예, 예.(예, 예.)

107061 @1 게믄 고추장? 요번에 고추장 헌 거 한 번 더 ᄀᆞᆯ아 줍서.(그러면 고추장? 요번에 고추장 한 거 한 번 더 말해주세요.)

107061 #1 아, 고추장?(아, 고추장?)

107061 @1 음.(음.)

107061 #1 고추장도 담는 게 ᄋᆞ라 가지 닮읍디다. 담으레 뎅기는 사름은.(고추장도 담는 게 여러 가지 닮습디다. 담그러 다니는 사람은.)

107061 @1 으.(으.)

107061 #1 그자 그럭저럭 그 담는 거 닮아. ᄀᆞ만이 놈의 집의 간에 보난에 담는디 간 앚안보난 그 찹쌀ᄀᆞ르를 ᄒᆞ쏠 놔사 맛이 나주. 나 담는 건 저 찹쏠ᄀᆞ르 허여근에 막 저 얍게, 막 얍게 막 죽 쒀근에 죽 쒀근에 막 얄룹게 팔팔팔팔 끓리게 쒀근엥에 그거 다라레 ᄆᆞ딱 비와 놓곡. ᄯᅳ시 그레 고칫가루도 놓곡 무시거 설탕도 놓곡 그디 물엿이여 무시거여.(그저 그럭저럭 그 담그는 거 같아. 가만히 남의 집에 가서 보니까 담그는데 가서 앉아보니까 그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야 맛이 나지. 제가 담그는 건 저 찹쌀가루 해서 아주 저 엷게, 아주 엷게 마구 죽 쒀서 죽 쒀서 아주 엷게 팔팔팔팔 끓게 쒀서 그거 대야에 몽땅 부어 넣고. 또 거기에 고춧가루도 넣고 무엇 설탕도 넣고 거기 물엿이며 무엇이며.)

107061 @1 으.(으.)

107061 #1 다 놔 놔근엥에 간 맞촴수게게.(다 넣어 놓고 간 맞춥니다.)

107061 @1 음.(음.)

107061 #1 저 무시거로 저 술로.(저 무엇으로 저 술로.)

107061 @1 술로?(술로?)

107061 #1 술로.(술로.)

107061 @1 으.(으.)

107061 #1 술로 저 풀도 쒀사마씨.(술로 저 풀도 쒀요.)

107061 @1 풀도 술로 쑤는 거. 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 거?(풀도 술로 쑤는 거. 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 거?)

107061 #1 물이 영 안 들어가난 그자 그냥 내불엄수게. 벳겻디.(물이 영 안 들어가니까 그저 그냥 내버려요. 밖에.)

107061 @1 아.(아.)

107061 #1 냉장고에 놓질 아녀마씨. 게난 냉장고에 놓지 아녀난에 좁니다게. 냉장고에.(냉장고엘 넣질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냉장고에.)

107061 @1 예.(예.)

107061 #1 뭐 그거 저거 놓젠 허민 복잡헐 거난. 게난 베껏디 놔불어도 뒈곡.

물도 ᄒᆞ꼼도 안 들어가민 변허질 아녑니다.(뭐 그거 저거 넣으려고 하면 복잡할 거니까. 그러니 밖에 놔버려도 되고. 물도 조금도 안 들어가면 변하질 않습니다.)

107061 @1 으.(으.)

107061 #1 변허질 아녀. 게난 그치룩 허영 담으민 맛도 싯곡.(변하질 않아. 그러니 그처럼 해서 담그면 맛도 있고.)

107061 @1 예.(예.)

107061 #1 예, 맛도 싯곡 저 곱곡 헙니다게. 경 허영 저 술로 담으민 술 냄살이 그 술 냄살이 어디사 가신디 술 냄살 안 납니다.(예, 맛도 있고 저 곱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로 담그면 술 냄새 그 술 냄새가 어디야 갔는지 술 냄새 안 납니다.)

107061 @1 음, 다 발효 뒈연예. 아.(음, 다 발효 돼서요. 아.)

107061 #1 금방 먹곡.(금방 먹고.)

107061 @1 음.(음.)

107061 #1 금방 먹어마씸.(금방 먹어요.)

107061 @1 음, 게난 다 우리 지혜들이예.(음, 그러니까 다 우리 지혜들이요.)

107061 #1 예.(예.)

107062 @1 게난 메주는 언제 어떵 쑤는 거마씨?(그러니까 메주는 언제 어떻게 쑤는 거예요?)

107062 #1 메주?(메주?)

107062 @1 예, 메주 쑬 때? 그 옛날 뒌장 허젠 허민 메주 쒀야 헐 거 아니우꽈? 콩으로.(예, 메주 쑬 때? 그 옛날 된장 하려고 하면 메주 쒀야 할 거 아닙니까? 콩으로.)

107062 #1 콩 솖앙.(콩 삶고.)

107062 @1 으, 언제 쒀?(으, 언제 쒀?)

107062 #1 이제, 이제.(이제, 이제.)

107062 @1 게난 그 무슨 날. 게난 아무 날이나 못허지 안 헙니까?(그러니까 그 무슨 날.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못하지 안 합니까?)

107062 #1 예, 예. 제일 좋은 날이 ᄆᆞ날허고 ᄃᆞᆨ날.(예, 예. 제일 좋은 날이 말날하고 닭날.)

107062 @1 으, ᄆᆞ날허고 ᄃᆞᆨ날예?(으, 말날하고 닭날이요?)

107062 #1 ᄆᆞ날허곡 ᄃᆞᆨ날이 젤 좋아마씸.(말날하고 닭날이 젤 좋아요.)

107062 @1 음, 게민 그 한번 솖아 봅서. 메주는 어떵 으?(음, 그러면 그 한번 삶아 보세요. 메주는 어떻게 으?)

107062 #1 게난 ᄆᆞ날 솖아수다, 요.(그러니까 말날 삶았습니다. 요.)

107062 @1 요번에예.(요번에요.)

107062 #1 ᄆᆞ날 솖안.(말날 삶았어.)

107062 @1 따른 나 아는 디도 그날 메주 솖앗수덴 헙니다.(다른 저 아는 데도 그날 메주 삶았습니다고 합니다.)

107062 #1 예, 메주 솖안.(예, 메주 삶았어.)

107062 @1 으.(으.)

107062 #1 재게 솖아불젠 저 선생님네 오켄 헤 부난게.(빨리 삶아버리려고 저 선생님네 오겠다고 해 버리니까.)

107062 @1 음.(음.)

107062 #1 재게 솖안 재게 치와 불젠 게난 재게 확 솖아전게마씨.(빨리 삶아서 빨리 치워 버리려고 그러니 빨리 확 삶아졌어요.)

107062 @1 예, 웃음. 겡은에 이제 메주 솖앙 옛날 다 불랑, 만들앙 그 과정을 쭉 골아 줘 봅서. 어떤 식으로 만들앙 어떵 틔우고 물류고 헌 거를.(예, 웃음. 그래서 이제 메주 삶고 옛날 다 밟고, 만들고 그 과정을 쭉 말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띄우고 말리고 한 거를.)

107062 #1 아니, 그 장.(아니, 그 장.)

107062 @1 장 담는 절차를.(장 담그는 절차를.)

107062 #1 그거는 장물 빼는 거, 건.(그거는 장물 빼는 거.)

107062 @1 으, 게난 장물 빼는 그거를 헤 봅서.(으, 그러니까 장물 빼는 그거를 해 보세요.)

107062 #1 장물 빼는 건 그 저 물 맞춰 솖아야마씸.(장물 빼는 건 그 저 물 맞추고 삶아야 해요.)

107062 @1 음.(음.)

107062 #1 물 안 나게. 물 맞촹 솖아근엥에 게도 물이 잇어마씸.(물 안 나게. 물 맞추고 삶아서 그래도 물이 있어요.)

107062 @1 으.(으.)

107062 #1 물이 엇이민 솟에 다 눌지 안 헙니까? 물 빠주와사, 물 빠주와근에 것도 문딱 문 그 저 문 뿟으나.(물이 없으면 솥에 다 눋지 안 합니까? 물 빼주어야, 물 빼줘서 것도 몽땅 모두 그 저 모두 빻으나.)

107062 @1 으.(으.)

107062 #1 경 아녀민 또 불르나 허여근엥에 메주 만드는 겁주, 메주.(그렇게 않으면 또 밟으나 해서 메주 만드는 겁죠. 메주.)

107062 @1 예.(예.)

107062 #1 메주, 메줄 만들앙근엥에 어디 저, 어디 그 헛간에 가근에 이런 디 놓민게 냄살 나곡게.(메주, 메줄 만들어서 어디 저, 어디 그 헛간에 가서 이런 데 놓으면 냄새 나고.)

107062 @1 음.(음.)

107062 #1 게난 헛간에 가근에 영 허영 혼 줄 뭐 검질, 검질 끌아근엥에 혼 줄 쭉 허게 놔놩 뚜시 우터레 검질 따시 놔놩은에 뚜시 영 놓곡. 혼 둬 줄 서너 줄 놔근에 그레 허영 놔두민 것이 가무룽히 저 틉니다게.(그러니 헛간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한 줄 뭐 검불, 검불 깔아서 한 줄 쭉 하게 놓아두고 다시 위에 검불 다시 놓아

두고 다시 이렇게 놓고. 한 둬 줄 서너 줄 놓아서 거기에 해서 놓아두면 것이 가무스름하게 저 뜹니다.)

107062 @1 예.(예.)

107062 #1 가무룽이 트민 내쳐마씸, 내쳐(가무스름하게 뜨면 내쳐요. 내쳐.)

107062 @1 음.(음.)

107062 #1 내쳐근에 ᄆᆞᆯ**롸**야 뒈여마씸. 이제덜은 영 테레비 보민 영 ᄃᆞᆯ아메민 거 다 ᄆᆞᆯ르는 거 아니우꽈?(내쳐서 말려야 돼요. 이제들은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달아매면 거 다 마르는 거 아닙니까?)

107062 @1 예, 예.(예, 예.)

107062 #1 ᄆᆞᆯ르멍 텀주게. 겐디 여기는 저 그것이 복잡허니까.(마르면서 뜨지. 그런데 여기는 저 그것이 복잡하니까.)

107062 @1 으.(으.)

107062 #1 복잡허니까 거 어디서 틔왐수게. 틔와. (복잡하니까 거 어디서 띄워요. 띄워.)

107062 @1 으.(으.)

107062 #1 겐디양 젊은 사름덜 틔우는 사름이 어디 잇수가?(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띄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7062 @1 게난 이젠 다 허는 거 몰라.(그러니 이젠 다 하는 거 몰라.)

107062 #1 틔우는 사름 하나도 엇수다.(띄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7062 @1 으.(으.)

107062 #1 이제 어디 ᄃᆞᆯ아멘 디 봐집디가?(이제 어디 달아맨 데 봐집디까?)

107062 @1 게난.(그러니까?)

107062 #1 아이고, 아녑니다. ᄃᆞᆯ아매질 아녀. 우린 저 탈탈이 저 창고에 큰 창고에 탈탈이 이시난 그 우의 검질 ᄀᆞᆯ안 놔두난에 트고 ᄆᆞᆯ릅디다.(아이고, 안 합니다. 달아매질 않아. 우린 저 경운기 저 창고에 큰 창고에 경운기 있으니까 그 위에 검불 깔아서 놓아두니까 뜨고 마릅디다.)

107062 @1 으.(으.)

107062 #1 게난 좋안게, 게난.(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107062 @1 예.(예.)

107062 #1 문 올앙 내부난 이 앞으로 문 올앙 내부난에 막 바람 들어완에 ᄆᆞᆯ르난 싯언에 작년에 저.(문 열어서 내버리니까 이 앞으로 문 열어서 내버리니까 막 바람 들어와서 마르니까 씻어서 작년에 저.)

107062 @1 으.(으.)

107062 #1 물, 그 저 물 빼여 먹엇수다게.(물 그 저 물 빼 먹었습니다.)

107062 @1 음.(음.)

107062 #1 장물 빼연에 아기덜토 주고. 큰메누리ᄀᆞ란 느 다 먹언쟈? 그때 다 먹엇어요. 웃음.(간장 빼서 아기들도 주고. 큰며느리보고는 너 다 먹었니? 그때 다 먹

었어요. 웃음.)
107062 @1 게믄 그런 식으로 헤서 하면 그 장 담는 거는 무슨, 무슨 날 담아마씨?(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장 담그는 거는 무슨, 무슨 날 담아요?)
107062 #1 담는 것도 둑날이나 ᄆᆞ날.(담그는 것도 닭날이나 말날.)
107062 @1 아, 담는 것도 둑날이나 ᄆᆞ날.(아, 담는 것도 닭날이나 말날.)
107062 #1 예.(예.)
107062 @1 게난 담는 거는 어느 계절에 담는 거?(그러니 담는 거는 어느 계절에 담는 거?)
107062 #1 섣돌.(섣달.)
107062 @1 건 섣돌.(건 섣달.)
107062 #1 예.(예.)
107062 @1 동짓돌에 솖앗당 섣돌에 담아예.(동짓달에 삶았다가 섣달에 담아요.)
107062 #1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62 @1 으.(으.)
107062 #1 혼 돌 잇당.(한 달 있다가.)
107062 @1 게믄 장물 빼는 거는 언제 빼? 그 물장?(그러면 간장 빼는 거는 언제 빼? 그 간장.)
107062 #1 장물 빼는 건 봄 나근에 익으민.(간장 빼는 거는 건 봄 나서 익으면.)
107062 @1 익으민.(익으면.)
107062 #1 익어근에 막 저 곱닥허게 익으민. 초기 가무룽헌 초기 동글동글동글 틉니다게.(익어서 막 저 곱다랗게 익으면. 버섯 가무스름한 버섯 동글동글동글 뜹니다.)
107062 @1 예.(예.)
107062 #1 트민 그거 걷어둬근엥에 그 물 허영은에 저 그거 빼여 먹어둬근에.(뜨면 그거 걷어두고 그 물 해서 저 그거 빼서 먹어두고.)
107062 @1 으.(으.)
107062 #1 이제 저 잘, 맛잇게 먹젠 허민 콩 혼 뒈 골아당 그레 서꺼근에.(이제 저 잘,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콩 한 되 갈아다가 거기에 섞어서.)
107062 @1 음.(음.)
107062 #1 서껑 찌나 경 아녀민 또 기냥을 찌난.(섞어서 찧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찧으나.)
107062 @1 으.(으.)
107062 #1 난 서껑만 쪗수다게.(전 썩어서만 찧었습니다.)
107062 @1 예.(예.)
107062 #1 콩 혼 뒈 골아당 서껑 쪙. 쪄근에 경 먹읍네다.(콩 한 되 갈아다가 섞어서 찧어. 찧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107062 @1 음.(음.)

107062 #1 게난 이제 사름덜 그거 돌아메영 장물 허곡 아이고 아녑디다, 아녀. 절대 아녀.(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거 달아매서 간장 하고 아이고 안 합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107062 @1 그치룩 틔와야만이 장이 좋은 거렌예. 요즘 장허고 틋낭은에.(그처럼 띄워야만 장이 좋은 거래요. 요즘 장하고 달라서.)

107062 #1 예, 예, 예, 예, 예. 이제 장은 막장 아니우과? 막장.(예, 예, 예, 에, 에. 이제 장은 막장 아닙니까? 막장.)

107062 @1 막장.(막장.)

107062 #1 게난 틔운 거 들어감수게. 저디서 픗는 거 사당 틔운 거 들어감주. 들어가민 그거 익어야 멀 거 저것도.(그러니 띄운 거 들어가잖아요. 저기서 파는 거 사다가 띄운 거 들어가지. 들어가면 그거 익어야 먹을 거 저것도.)

107062 @1 음.(음.)

107062 #1 익어야 먹을 거마씨.(익어야 먹을 거예요.)

107063 @1 거고 삼춘, 옛날에 장 담으멍 금기 사항. 장 담글 때 무신거 허지 말라. 아니면은 어느 날은 장 담는 거 아니여 이런 말들 하지예? 으.(그리고 삼촌, 옛날에 장 담그면서 금기 사항. 장 담글 때 무엇 하지 말라. 아니면 어느 날은 장 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많지요? 으.)

107063 #1 이디 저 우리영 흔디 뎅이는 그 성님이 아시날은 온 거 아니우꽈?(여기 저 우리랑 함께 다니는 그 형님이 전날은 온 거 아닙니까?)

107063 @1 예.(예.)

107063 #1 야, 느네 저 농협 달력 잇지이 허군테, 예 허난에. 장, 장을 담아보카 허염쩌. 낼 담을 거마씸, 낼. 낼 담을 거마씸. 낼 무신 날고? 허난 낼 ᄆᆞ날이난 난 낼 담젠 헴수다. 경 ᄀᆞᆯ안에 흔듸덜 담앗수게.(야, 너네 저 농협 달력 있지 하기에, 예 하니까. 장, 장을 담가볼까 한다. 낼 담글 거예요, 낼. 낼 담글 거예요. 낼 무슨 날이니? 하니까 낼 말날이니까 전 낼 담그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함께 담갔습니다.)

107063 @1 예.(예.)

107063 #1 게난 그 들으레 왓수게, 그. 것도 ᄒᆞ꼼만 담읍니다게, 그 할망은. 임제만 먹엉 아기덜 안 줘.(그러니 그 들으러 왔어요, 그. 것도 조금만 담급니다. 그 할머니는. 임자만 먹고 아기들은 안 줘.)

107063 @1 음.(음.)

107063 #1 아기덜토 하우다마는 안 줘. 안 줭 그자 요만이 헌 것에 담앙 이녁만 먹어.(아기들도 많습니다만 안 줘. 안 주고 그자 요만큼 한 것에 담가서 이녁만 먹어.)

107063 @1 예.(예.)

107063 #1 이녁만 먹엉 안 줍니다.(이녁만 먹고 안 줍니다.)

107063 @1 겡은에 ᄆᆞ날허고 ᄃᆞᆨ날허고. 무슨 날은 담지 안 허는 거? 장 담으는

거. 메주 쑤거나.(그렇게 해서 말날하고 닭날하고. 무슨 날은 담지 안 하는 거? 장 담그는 거. 메주 쑤거나.)

107063 #1 게난 저 양, 무신거 베염날이 젤 궂넨 헙니다.(그러니까 저 이보세요, 무엇 뱀날이 젤 궂다 합니다.)

107063 @1 아, 베염날 젤 궂고.(아, 뱀날 젤 궂고.)

107063 #1 베염날은 쓸, 쓰는 날이 엇입니다.(뱀날은 쓸, 쓰는 날이 없습니다.)

107063 @1 음.(음.)

107063 #1 사람 죽어도 베염날 안 쓰곡, 이 무시거 모든 거 허는 거 베염날은 막 나빵 안 씁니다게. 원숭이날도 안 좋곡 그런 날은 안 씁니다.(사람 죽어도 뱀날 안 쓰고, 이 무엇 모든 거 하는 거 뱀날은 나빠서 안 씁니다. 원숭이날도 안 좋고 그런 날은 안 씁니다.)

107063 @1 으.(으.)

107063 #1 그 베염날은 안 좁니다.(그 뱀날은 안 좋습니다.)

107063 @1 그 쉐날도 안 헌덴 허멍.(그 소날도 안 한다고 하고.)

107063 #1 쉐날은 무사 아녀게. 저 무시거 저 솜는 건 허주마는 경 헤도 저 날이 좋은 날만 봉강 허주, 아녑니다게.(소날은 왜 안 해. 저 무엇 저 삶는 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저 날이 좋은 날만 주어서 하지, 안 합니다.)

107063 @1 음, 뭐 니치름 흘려부난 안 헌덴 경 굽디다.(음, 뭐 침 흘려버려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합디다.)

107063 #1 예, 예, 예. 것도 맞수다.(예, 예, 예. 것도 맞습니다.)

107063 @1 음.(음.)

107063 #1 경 허영 아녑니다게.(그렇게 해서 안 합니다.)

107063 @1 예.(예.)

107063 #1 그런 날 아녀여. 젤 좋은 날은 두 날.(그런 날 안 해. 젤 좋은 날은 두 날.)

107063 @1 으.(으.)

107063 #1 이틀. 게난 이 달력 하나에 이틀썩 잇수게.(이틀. 그러니까 이 달력 하나에 이틀씩 있습니다.)

107063 @1 음.(음.)

107063 #1 이틀썩, 이틀썩. 저 둑날도 이틀썩 잇고 ᄆᆞ날도 ᄆᆞ날도 이틀썩 잇고.(이틀씩, 이틀씩. 저 닭날도 이틀씩 있고 말날도 말날도 이틀씩 있고.)

107063 @1 음.(음.)

107063 #1 게난 아이고 요날 안 둠으민 ᄒᆞ쏠 메틀 셔사 뒈켜 허연에 저 그날 솖아 불엇수게.(그러니 아이고 요날 안 담그면 조금 며칠 있어야 되겠네 해서 저 그날 삶아 버렸어요.)

107063 @1 음, 게난 ᄆᆞ날이나 둑날 허는데 ᄆᆞ날이 젤 좋구나예?(음, 그러니까 말날이나 닭날 하는데 말날이 젤 좋군요?)

107063 #1 아니, 젤 좋은 것이 아니고.(아니, 젤 좋은 것이 아니고.)
107063 @1 으.(으.)
107063 #1 혼 메칠 셔야 다른 저.(한 며칠 있어야 다른 저.)
107063 @1 날 오니까.(날 오니까.)
107063 #1 날이 돌아오니까.(날이 돌아오니까.)
107063 @1 음.(음.)
107063 #1 저 독날이 돌아오니까 빨리 솖아 불젠.(저 닭날이 돌아오니까 빨리 삶아 버리려고.)
107063 @1 음.(음.)
107063 #1 경 허영 빨리 솖아 분 거.(그렇게 해서 빨리 삶아 버린 거.)
107063 @1 게난 삼춘, 요번에 독날은 뭐 베렝이 잡아먹으난?(그러니까 삼촌, 요번에 닭날은 뭐 벌레 잡아먹으니까?)
107063 #1 예, 독날이 췌고 좋은 거.(예, 닭날은 최고 좋은 거.)
107063 @1 아, ᄆᆞ날보다 독날이 좋은 거.(아, 말날보다 닭날이 좋은 거.)
107063 #1 예. 에이그, 이제는 이제는 ᄆᆞ날도 좋은디[존디] 옛날은 베렝이가 너미 이니까.(예. 에이그, 이제는 이제는 말날도 좋은데 옛날은 벌레가 너무 이니까.)
107063 @1 으.(으.)
107063 #1 그 저 베렝이가양 그 독이 베렝이 잘 먹지 아넘니까.(그 저 벌레가요 그 닭이 벌레 잘 먹지 않습니까?)
107063 @1 예.(예)
107063 #1 베렝일 다 줏어 먹어 분덴 허여근에 그 식으로 그 저 독날 담는 거렌마씸.(벌레를 다 주워 먹어 버린다고 해서 그 식으로 그 저 닭날 담그는 거래요.)
107063 @1 으.(으.)
107063 #1 게난 독날, 독날 담곡 독날 솖으고 경 허민 베렝이가 안 인덴.(그러니 닭날, 닭날 담그고 닭날 삶고 그렇게 하면 벌레가 안 인다고.)
107063 @1 음.(음.)
107063 #1 경 허연에 허여신디 것도 아닐 거우다. 몰라도 나 셍각이.(그렇게 하고 했는데 것도 아닐 겁니다. 몰라도 제 생각이.)
107063 @1 예.(예.)
107063 #1 저 우리가 이 밧거리에 살아낫주마는 그 옛날 케케묵은 밧거리에 사는디 요펜 집의 우리 영 저 그 장 논 디가.(저 우리가 이 바깥채 살았었지만 그 옛날 케케묵은 바깥채에 사는데 요쪽 집의 우리 이렇게 저 그 장 놓은 데가.)

떡류

107064 @1 이거 지난번에 조사허단 이엉예, 떡, 삼춘 여기서 헤난 옛날 떡 종류부터 ᄀᆞᆯ아줍서. 어떤 종류 잇엇인지?(이거 지난번에 조사하다가 이어서요, 떡, 삼촌 여기서 했던 옛날 떡 종류부터 말해주세요. 어떤 종류 있었는지.)

107064 #1 옛날 헤난 떡마씨?(옛날 했던 떡이요?)

107064 @1 예.(예.)

107064 #1 옛날 헤난 떡은게 그 젤 준떡이[253] 옛날에 허여신디.(옛날 했던 떡은 그젤 '준떡'이 옛날에 했는데.)

107064 @1 예.(예.)

107064 #1 옛날 헤난 거 질 처음엔예 그런 떡도 허지 못 헷수다. 거 너무 저 살질 못헤 놓난에 보리쏠.(옛날 했던 거 젤 처음에요 그런 떡도 하지 못 했습니다. 거 너무 살지를 못해 놓으니까 보리쌀.)

107064 @1 으.(으.)

107064 #1 보리쏠 골아근엥에 묵 허영, 묵 그거 저 뀌여근엥에 그거 그거마씸게.(보리쌀 갈아서 묵 하고, 묵 그거 저 꿰어서 그거 그거예요.)

107064 @1 으.(으.)

107064 #1 묵 끠여근엥에 그거 허여근엥에 놓민 그 무시거 적갈도 요멘씩 허여근엥에 뀌여근에게 놓민 그걸 혼 사람이 흑나씩.(묵 꿰어서 그거 해서 놓으면 그 무엇 적도 요만씩 해서 꿰어서 놓으면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

107064 @1 음.(음.)

107064 #1 왓다 갓다 허멍 허민 그 적고지에덜 다 끼원 갑디다게.(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그 적꼬치에 다 끼워서 갑디다.)

107064 @1 아, 적고지에예.(아, 적꼬치에요.)

107064 #1 다 그걸 적고지에 그걸, 음식이엔 적고지에 다 끼원 갑디다게.(다 그걸 적꼬치에 그걸, 음식이라고 적꼬치에 다 끼워서 갑디다.)

107064 @1 음.(음.)

107064 #1 경 헨에 젤 처음에 그거라마씨.(그렇게 해서 젤 처음에 그거예요.)

107064 @1 음, 보리묵적예, 예?(음, 보리묵적이요, 예?)

107064 #1 예, 보리묵, 보리묵 허여근엥에 허곡. 나중에라 가난에 그 준떡, 준떡 그거 나근엥에 경 저 우리는 종손칩이난게 그 저 몰방에 가근에 경 허여단에 막 피곤허영양, 그거 허젠 허민 그거 헤당 손으로 다 만들젠 허난양, 잘도 피곤헹 난 부억에서만 살앗수다게.(예, 보리묵, 보리묵 해서 하고. 나중에 가니까 그 '잔떡', '잔떡' 그거 나와서 그렇게 저 우리는 종손집이니까 그 저 연자매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매우 피곤해요, 그거 하려고 하면 그거 해다가 손으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요, 잘도 피곤해서 난 부엌에서만 살았습니다.)

107064 @1 음.(음.)

107064 #1 부억에서 시리떡도 다 쪄야 뒐 거 아니우꽈?(부엌에서 시루떡도 다 쪄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4 @1 예, 예.(예, 예.)

107064 #1 준떡은 헤가믄 그 저 장에서도 그땐 뭐 폴지도 안 헷주만은 장에서

253) '준떡'은 '솔편, 절편, 인절미' 등의 자잘한 떡을 통칭하는 말이다.

픈는 건 뭐 이디 왕 대지 못헙니다, 가정집의서.(‘잔떡’은 해가면 그 저 장에서도 그땐 뭐 팔지도 안 했지만 장에서 파는 건 뭐 여기 와서 대지 못합니다. 가정집에서.)

107064 @1 음.(음.)

107064 #1 여기서 만들앙.(여기서 만들어서.)

107064 @1 음.(음.)

107064 #1 만들앙 그 침떡, 아무 침떡이라도 만들앙 그 우터레 다 저 제겨 놔야 뒈는 거마씨.(만들어서 그 시루떡, 아무 시루떡이라도 만들어서 그 위에 다 저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107064 @1 게민 준떡 이름은 뭐마씨?(그러면 ‘잔떡’ 이름은 뭐예요?)

107064 #1 준떡 일름은 질 처음엔 저 솔벤[254]허곡 얍게 또시 저 또.(‘잔떡’이름은 젤 처음 저 ‘솔벤’하고 약과 또 저 또.)

107064 @1 중궤.(중계.)

107064 #1 중궤. 또 저 무시거 솔벤.(중계. 또 저 무엇 ‘솔벤’.)

107064 @1 으.(으.)

107064 #1 또 그다음은 또.(또 그다음은 또.)

107064 @1 절벤.(절편.)

107064 #1 절벤.(절편.)

107064 @1 으.(으.)

107064 #1 거 네 가지.(거 네 가지.)

107064 @1 네 가지예?(네 가지요?)

107064 #1 네 가지마씸.(네 가지예요.)

107064 @1 겐 그 위에, 절벤 우에.(그럼 그 위에, 절편 위에.)

107064 #1 절벤 우에.(절편 위에.)

107064 @1 우찍.(웃기떡.)

107064 #1 그 저 무시거.(그 저 무엇.)

107064 @1 우찍.(웃기떡.)

107064 #1 우찍.(웃기떡.)

107065 @1 으, 그 침떡예?(으. 그 시루떡이요?)

107065 #1 예.(예.)

107065 @1 침떡은 보통 뭘로 멘들아마씨?(시루떡은 보통 뭐로 만들어요?)

107065 #1 침떡?(시루떡?)

107065 @1 으.(으.)

107065 #1 침떡도 곤썰로.(시루떡도 흰쌀로.)

107065 @1 곤썰로.(흰쌀로.)

107065 #1 예, 곤썰로 그때는 어려운 때난양, 좁쏠.(예, 흰쌀로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요, 좁쌀.)

254) ‘솔벤’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한다. ‘솔벤, 솔펜,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065 @1 예.(예.)

107065 #1 좁쌀 헤여근엥에 저 고달입진떡이엔[255] 허영.(좁쌀 해서 저 '고달입진떡'이라고 해서.)

107065 @1 고달입진떡.('고달입진떡'.)

107065 #1 고달입진떡이엔 허여근에 곤쌀만 ᄒᆞ꼼 놩 좁썰로 놔근에.('고달입진떡'이라고 해서 흰쌀만 조금 놓고 좁쌀로 놓아서.)

107065 @1 으.(으.)

107065 #1 흐린좁썰 헤영 놔근에 곤썰 우터레 ᄒᆞ쌀, ᄒᆞ꼼만 이 뒤체기 이 두테기 놔근에 경 헤여근에 그거 저 그추룩 헹 썻수다게. 그걸 곤떡으로 쓴 거라마씨. (차좁쌀 해서 놓고 흰쌀 위에 조금, 조금만 이 뒤에 이 뒤에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거 저 그처럼 해서 썼습니다. 그걸 흰떡으로 쓴 거예요.)

107065 @1 그걸 곤떡으로예?(그걸 흰떡으로요?)

107065 #1 예, 곤떡으로.(예, 흰떡으로.)

107065 @1 게영 고달입진떡?(그렇게 '고달입진떡'?)

107065 #1 예, 고달입진떡 허여근에 곤떡으로 썻수다, 거.(예, '고달입진떡' 해서 흰떡으로 썼습니다.)

107065 @1 게믄 그, 걸 이제 시루떡 아니예? 그 친떡.(그러면 그, 걸 이제 시루떡 아니에요? 그 시루떡.)

107065 #1 예, 시리떡.(예, 시루떡.)

107065 @1 시리떡 그 멘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멘들아? 차례로. 쏠 물 크는 거부떠.(시루떡 그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차례로. 쌀 물 잠그는 거부터.)

107065 #1 물 크는 거부떠? 물 ᄃᆞᆼ가근에.(물에 잠그는 거부터? 물에 담가서.)

107065 @1 으.(으.)

107065 #1 물 ᄃᆞᆼ강 물 빠지와근에 저 방에 가근에 문 그디 영 영 저 그 방에돌 맷돌에서 문 ᄀᆞᆯ아당.(물에 담가서 물 빼서 저 방에 가서 모두 거기 이렇게 이렇게 저 그 맷돌 맷돌에서 모두 갈아다가.)

107065 @1 예.(예.)

107065 #1 ᄀᆞᆯ아근에 초불 허영 쳐근엥에 또시 무게기 또시 놩 또시 치곡 또시 치곡 허영 막 허여근엥에 그 저 집이 오라근엥에 또 좁썰은 좁썰데로 굽더레 조ᄏᆞ루 저 좁썰ᄀᆞ루 놓고. 시리.(갈아서 초벌 해서 쳐서 다시 무거리 다시 넣고 다시 치고 다시 치고 해서 마구 해서 그 저 집에 와서 또 좁쌀은 좁쌀대로 굽에 좁쌀가루 저 좁쌀가루 놓고. 시루.)

107065 @1 으.(으.)

107065 #1 시리 좁썰ᄀᆞ루 놓곡 그 그건 저 무 놉니다. 고망.(시루에 좁쌀가루 놓고 그 그건 저 무 놓습니다. 구멍.)

255) '고달입진떡'은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107065 @1 아.(아.)

107065 #1 고망에.(구멍에.)

107065 @1 맨 밑에 고망에예?(맨 밑에 구멍에요?)

107065 #1 예, 고망. 저 시릿고망에 무 홁은 거 썰어근에 톡톡 놔근엥에 그레 저 무시거 영 놔난 어른은 알아근에 그걸 저 뒈약세기로 허영 놔근에 또 고달[256] 입지는 건 또시 요만이, 요만이 그 우터레 놩.(예, 구멍. 저 시루구멍에 무 굵은 거 썰어서 톡톡 놓아서 거기에 저 무엇 이렇게 놓았던 어른은 알아서 그걸 저 식되로 해서 놓고 또 '고달' 입히는 건 다시 요만큼, 요만큼 그 위로 놓고.)

107065 @1 으.(으.)

107065 #1 경 헤영 그 고달입진떡 허여근에 곤떡으로 썻수다.(그렇게 해서 그 '고달입진떡' 해서 흰떡으로 썼습니다.)

107065 @1 게민 그 고달 입지면 멧 층을 놓는 것꽈? 그 사이사이엔 뭐 놔?(그러면 그 '고달' 입히면 몇 층을 놓는 겁니까? 그 사이사이엔 뭐 놔요?)

107065 #1 사이사이엔 거 두 가지만.(사이사이엔 거 두 가지만.)

107065 @1 음.(음.)

107065 #1 좁쏠 혼 가지 놔나근엥에 따시 또. 또 그 거 저 무시거 또 곤썰 혼, 혼 이만이 이 우티 놔나근에 또 좁썰 그 우터레 놔나근엥에 경 허민 똑똑 일어납니다, 거 저.(좁쌀 한 가지 놓아두고 다시 또. 또 그 거 저 무엇 또 흰쌀 한, 한 이만큼 이 위에 놓아두고 또 좁쌀 그 위에 놓아두고 그렇게 하면 똑똑 일어납니다. 거 저.)

107065 @1 아.(아.)

107065 #1 또 경 헤영 또 그추룩 헤영 계속 저 그 시리 ᄀᆞ득게 헙니다.(또 그렇게 해서 또 그처럼 하고 계속 저 시루 가득하게 합니다.)

107065 @1 거기에는 뭐 픗을 놓거나 영은 안 헤마씨?(거기에는 뭐 팥을 넣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107065 #1 아, 그건 안 놧수다, 옛날에.(아, 그건 안 넣었습니다, 옛날에.)

107065 @1 아, 픗은 안 놓고예, 옛날엔예?(아, 팥은 안 넣고요. 옛날에요?)

107065 #1 아이 그거 놓민, 그거 놓민 안 좋니까.(아니 그거 넣으면, 그거 넣으면 안 좋으니까.)

107065 @1 아, 식게떡이니까.(아, 제사떡이니까.)

107065 #1 예. 픗은 안 놧수다.(예. 팥은 안 넣었습니다.)

107065 @1 뭐 거기에 대썹 이런 거 ᄁᆞ는 것도 아니고예.(뭐 거기에 댓잎 이런 거 까는 것도 아니고요.)

107065 #1 예.(예.)

107065 @1 그대로 쏠ᄀᆞ루로만?(그대로 쌀가루로만?)

256) '고달'은 볏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메좁쌀가루 위에 차좁쌀가루를 얹거나, 좁쌀가루 위에 멥쌀가루를 얹은 것을 '볏'에 비유해서 쓴 표현이다.

107065 #1 예, 쏠ᄀᆞ루로만.(예, 쌀가루로만.)

107065 @1 아. 경 헨 이제 고달입진떡 허고. 겐 그렇게 헤근에 이제 치면, 그 바깟디도 이렇게 다 헐 거 아니라예?(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달입진떡'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찌면, 그 밖에도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107065 #1 영 뒤집을 거 아이꽈?(이렇게 뒤집을 거 아닙니까?)

107065 @1 예.(예.)

107065 #1 그릇 놔근에 영 두집으민 ᄎᆞ례ᄎᆞ례 썰엉.(그릇 놓고 이렇게 뒤집으면 차례차례 썰고.)

107065 @1 으.(으.)

107065 #1 썰어근에 영 식이민 다 떡이 뒈여마씸.(썰어서 이렇게 식으면 다 떡이 돼요.)

107065 @1 음.(음.)

107065 #1 떡이 뒈여.(떡이 돼.)

107066 @1 그런 식으로 이젠 헹.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 송편도 만들안마씨?(그런 식으로 이젠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 송편도 만들어요?)

107066 #1 송펜도 거 이제사 만들암주.(송편도 거 이제야 만들지.)

107066 @1 아, 이제야예.(아, 이제야요.)

107066 #1 이제.(이제.)

107066 @1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여기선, 송편은.(이제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여기선 송편은.)

107066 #1 송펜은 그 저 줍는 거 허난에 앙꼬[257] 놩 손으로, 손으로.(송편은 그 저 집는 거 하니까 소를 넣고 손으로, 손으로.)

107066 @1 손으로 만드는 거.(손으로 만드는 거.)

107066 #1 예, 손으로. 손으로 만들앙 그 멩질엔 저 떡을 아니 줍니다게.(예, 손으로. 손으로 만들어서 그 명질엔 저 떡을 아니 줍니다.)

107066 @1 예.(예.)

107066 #1 준떡을 아니 줘.('잔떡'을 아니 줘.)

107066 @1 음.(음.)

107066 #1 아니 주난에 우리도 저 ᄀᆞᆯ아다근에 이디서 준떡, 그 준떡 그 저 절벤 솔벤 허여 가단에.(아니 주니까 우리도 저 갈아다가 여기서 '잔떡' 그 '잔떡', 그 절편 '솔벤' 해 가다가.)

107066 @1 으.(으.)

107066 #1 손이 모지레 가지고 아이덜토 헐 충 몰르곡 허난 그 멩질엔 저 송펜헤 불엄수다게.(손이 모자라 가지고 아이들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그 명질엔 저 송편 해버립니다.)

107066 @1 음.(음.)

257) '앙꼬'는 일본어 'あん-こ'에서 온 말로 떡이나 빵의 안에 든 소를 말한다.

107066 #1 송펜허고 침떡이나 허고.(송편하고 시루떡이나 하고.)
107066 @1 음. 게민 송펜은 동글랑허게 헙니까, 아니면은 조개솔벤 식으로 헙니까?(음. 그러면 송편은 동그랗게 합니까, 아니면 조개송편 식으로 합니까?)
107066 #1 그냥 조개.(그냥 조개.)
107066 @1 아, 여기는 옛날부터 조개솔벤?(아, 여기는 옛날부터 조개송편?)
107066 #1 예, 조개, 조개로 헙니다.(예, 조개, 조개로 합니다.)
107067 @1 으. 그다음에 빈떡은 어떵 헙니까?(으. 그다음에 빙떡은 어떻게 합니까?)
107067 #1 빈떡은 그거 저 물에 놔근엥에 물에 놔근엥에 후라이판.(빙떡은 그거 저 물에 넣어서 물에 넣어서 프라이팬.)
107067 @1 으.(으.)
107067 #1 물에 놔근에게 영 영 허여 보민 어느만이 뭔 거 어느, 이만 허민 뒛겟다 허영 그것 저 무시걸로게 그 사꾸로, 그 사꾸로 거려 놔근에 허민 빈떡 뭽니다게.(물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얼마만큼 된 거 얼마, 이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것 저 무엇으로 그 국자로, 그 국자로 떠 놓고 하면 빙떡이 됩니다.)
107067 @1 음.(음.)
107067 #1 그 저 무시거 그 놈삐.(그 저 무엇 그 무.)
107067 @1 으.(으.)
107067 #1 놈삐 썰어 가지고 그것에 저 믄 그자 그 파릇파릇허게시리 무시거 마농 썰어 놓곡 꿰 놓곡.(무 썰어 가지고 그것에 저 모두 그저 그 파릇파릇하게끔 무엇 쪽파 썰어 넣고 참깨 넣고.)
107067 @1 으.(으.)
107067 #1 경 헤여근에 거 물 빠지민 그거 놓멍 빈떡 ᄆᆞᆯ암수게.(그렇게 거 물 빠지면 그거 넣으면서 빙떡 말잖아요.)
107067 @1 음.(음.)
107067 #1 경 허멍 빈떡 허민 빈떡이 맛좁니다.(그렇게 하면서 빙떡 하면 빙떡이 맛좋습니다.)
107067 @1 예. 게민 그 빈떡으로도 제사 헐 때 헤마씨?(예. 그러면 그 빙떡으로도 제사 할 때 해요?)
107067 #1 아이고, 그거는, 그거는 웨에 헴수게, 웨에.(아이고, 그거는, 그거는 외로 합니다. 외로.)
107067 @1 아.(아.)
107067 #1 그거는 저 빈떡으로 헤여근에 올려근엥에 제ᄉᆞ허나 뭣 아녑니다. 그거는 기자 임시 먹젱, 먹젱 허민 그레 올려놓는 거뿐이주.(그거는 저 빙떡으로 해서 올려서 제사하거나 뭣 안 합니다. 그거는 그저 임시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올려놓는 것뿐이지.)
107067 @1 게믄 뭐 상에 따로 진설허거나 영은 안 헤마씨?(그러면 뭐 상에 따

로 진설하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107067 #1 진설은 그거 안 헙니다.(진설은 그거 안 합니다.)
107067 @1 그냥.(그냥.)
107067 #1 예.(예.)
107067 @1 차롱에 그냥.(채롱에 그냥.)
107067 #1 뚜로 그자 저 그자 그 무시것에 놔근에 정반에 놔근에 올려놉니다게.(다시 그저 저 그저 그 무엇에 놓고 쟁반에 넣어서 올려놓습니다.)
107067 @1 으.(으.)
107067 #1 겐디 그걸 안 헙니다게.(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107068 @1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상웨떡 이런 것도 헤낫수과?(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상화떡 이런 것도 했었습니까?)
107068 #1 상웨떡?(상화떡?)
107068 @1 으.(으.)
107068 #1 상웨떡은?(상화떡은?)
107068 @1 기주떡.(상화떡.)
107068 #1 기주떡.(상화떡.)
107068 @1 으. 밀ᄀᆞ르 허영.(으. 밀가루 해서.)
107068 #1 아이고, 기주떡이야. 밀가루 혼 포썩 ᄆᆞᆯ앗수다. 멩질에.(아이고, 상화떡이야. 밀가루 한 포씩 말았습니다. 명질에.)
107068 @1 음.(음.)
107068 #1 저 제사에. 밀가루 혼 포썩 ᄆᆞᆯ앙 이 동네 문 테우고.(저 제사에. 밀가루 한 포씩 말아서 이 동네 모두 태우고.)
107068 @1 음.(음.)
107068 #1 기주떡 막 헤여근에 문 ᄉᆞ뭇. 동네에 문딱 테우고 헤낫수게. 게난 이젠 떡 잘 먹지도 아녀고. 또 경 ᄋᆞ져가는 것도 좋아라 아녀곡 또 ᄋᆞ져가는 것도 피곤허난 안 가져가젠, 어드레 ᄋᆞ져가지 아녕 권당덜이나 영 갈라 먹엉 설러 붑니다게.(상화떡 많이 해서 모두 사뭇. 동네에 몽땅 태우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떡 먹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 않고 또 가져가는 것도 피곤하니까 안 가져가려고, 어디로 가져가지 않고 권당들이나 이렇게 갈라 먹고 끝내 버립니다.)
107068 @1 겐 기주떡 그, 그 혼, 혼 말씩 ᄆᆞᆯ을 때 어떤 식으로?(그럼 상화떡 그, 그 한, 한 말씩 말 때 어떤 식으로?)
107068 #1 혼 말? 아니 혼 포.(한 말? 아니 한 포.)
107068 @1 으, 혼 포 ᄆᆞᆯ 때?(으, 한 포 말 때.)
107068 #1 혼 포 문딱 ᄆᆞᆯ앙 큰 다라에 비와 놩.(한 포 몽땅 말아서 큰 대야에 부어 놓고.)
107068 @1 예.(예.)
107068 #1 그거.(그거.)

107068 @1 으, 만들어 봅서 어떻게?(으, 만들어 보세요.)
107068 #1 그걸 만들아 보라고?(그걸 만들어 보라고?)
107068 @1 으. 말로.(으. 말로.)
107068 #1 말로.(말로.)
107068 @1 예.(예.)
107068 #1 그거 비와근엥에 그때는 저 무시걸로 헷수다게. 그 저 막걸리로.(그거 부어서 그때는 저 무엇으로 했습니다. 그 저 막걸리로.)
107068 @1 예.(예.)
107068 #1 막걸리로 허여신디 막걸리로 그거를 만들앙 허민 막 잘 피여마씸.(막걸리로 했는데 막걸리로 그거를 만들어서 하면 막 잘 부풀어요.)
107068 @1 으.(으.)
107068 #1 게민 그건 동글락허게 아녕.(그러면 그건 동그랗게 않고.)
107068 @1 예.(예.)
107068 #1 그건 저 올리젠 허민 영 헤영 영 니게방장허게.(그건 저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107068 @1 예.(예.)
107068 #1 영 늬게방장허게 헤근에 존떡 올리게.(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해서 '잔떡' 올리게.)
107068 @1 아.(아.)
107068 #1 예, 경 허영 그거 존떡 올리게 허곡 또시 반 정도 그거 써지민 따시 동글락허게 만들아 불고양.(예, 그렇게 해서 그거 '잔떡' 올리게 하고 또 반 정도 쓰면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고요.)
107068 @1 예.(예.)
107068 #1 동글락허게 만들아근에, 먹을 거. 경 허멍 허여근에 저 동네 다 ᄀᆞ져가곡 헷수다.(동그랗게 만들어서, 먹을 거.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저 동네 다 가져가고 했습니다.)
107068 @1 게믄 그 존떡 만들젠 이렇게 길게 니게방장허게 만드는 거는 무슨 떡이렌 헤마씨?(그러면 그 '잔떡' 만들려고 이렇게 길게 네모반듯하게 만드는 거는 무슨 떡이라고 해요?)
107068 #1 그건 저 침떡으로. 침떡 대신 쓰는 거.(그건 저 시루떡으로. 시루떡 대신 쓰는 거.)
107068 @1 으, 겐 그 일름은 뭐렌 헤? 그 떡 일름은?(으, 그럼 그 이름을 뭐라고 해? 그 떡 이름은?)
107068 #1 일름은 거 무시거게 밀가루로, 밀가루로 저 침떡 만들엇덴 허는 거.(이름은 거 무엇 밀가루로, 밀가루로 저 시루떡 만들었다고 하는 거.)
107068 @1 아, 밀가루로 침떡예? 기증펜이렌 헙니까, 것ᄀᆞ라?(아, 밀가루로 시루떡이요? 증편이라고 합니까? 것보고?)

107068 #1 예, 기증, 기증펜이 맞주게.(예, 증편, 증편이 맞지.)

107069 @1 아, 기증펜으로예. 그다음에 어, 제사헐 때 떡 종류?(아, 증편으로요. 그다음에 어, 제사할 때 떡 종류?)

107069 #1 제사할 때 떡 종류?(제사할 때 떡 종류?)

107069 @1 으.(으.)

107069 #1 제사헐 때 떡 종류는 뭐, 어떵 우린 산은 안 헤봣수다. 집이서 만들엉만.(제사할 때 떡 종류는 뭐, 어떻게 우린 사서는 안 해봤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만.)

107069 @1 예, 집이서 만드는 거?(예, 집에서 만드는 거.)

107069 #1 저 무시거 옛날은게 그 저 무시거 ᄆᆞ멀 많이 헐 때엔 ᄆᆞ멀가루 허영 은엥에 저 무시거 동글락허게 떵.(저 무엇 옛날은 그 저 무엇 메밀 많이 할 때엔 메밀가루 해서 저 무엇 동그랗게 떠서.)

107069 @1 으.(으.)

107069 #1 무시걸로 떠근엥게 그걸로 헤여근에 그거 쉬 놩 줍앙.(무엇으로 떠서 그걸로 해서 그거 소 넣고 집어서.)

107069 @1 예.(예.)

107069 #1 쉬 놩 줍앙도 허곡.(소 넣어 집어서도 하고.)

107069 @1 게민 그 떡은 무슨 거, 쉬 놩 줍은 거는?(그러면 그 떡은 무슨 거, 소 넣고 집는 거는?)

107069 #1 그 떡은 세미떡[258].(그 떡은 '세미떡'.)

107069 @1 아, 세미떡.(아, '세미떡'.)

107069 #1 예, 세미떡. 거 맛십니다.(예, '세미떡'. 거 맛있습니다.)

107069 @1 으.(으.)

107069 #1 저 ᄆᆞ멀ᄀᆞ루로 허난. 세미떡 허단에 나중에라 가난 것도 원 좋아 베지 아년에 또, 또 저 흰ᄀᆞ루 ᄲᆞ아다근에 세미떡 허단 것도 안 좋난 이제 송펜마씨.(저 메밀가루로 하니까. '세미떡'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것도 원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또 저 흰쌀가루 빻아다가 '세미떡' 하다가 것도 안 좋으니까 이젠 송편이요.)

107069 @1 음.(음.)

107069 #1 경 헤 왐수다. 송펜 이제 허영 손으로 다 만들앙 그자 이녁 자유로 만들아근엥에.(그렇게 해 옵니다. 송편 이제 하고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저 이녁 자유로 만들어서.)

107069 @1 음.(음.)

107069 #1 경 헤영 헤 왐수게.(그렇게 하고 해 옵니다.)

107069 @1 이제 식게 때도 아까 해 왓던 솔벤, 절벤 중궤, 약궤는 계속허고예?(이제 제사 때도 아까 해 왔던 '솔벤', 절편 중계, 약과는 계속하고요?)

---

258)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마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달리 '세미'라고 한다.

107069 #1 건 아무 제사라도 아녀는 거.(건 아무 제사라도 안 하는 거.)
107069 @1 아.(아.)
107069 #1 아무 제사라도 아녑니다 건.(아무 제사라도 안 합니다. 건.)
107069 @1 어느 제사에 허는 것꽈?(어느 제사에 하는 겁니까?)
107069 #1 제사가 좀 생각허여근에 저 ᄒᆞ쏠 이거는 안 뒈겟다 이거는 저 준떡 헤야 뒈겟다 허는 제사에 헴수게.(제사가 좀 생각해서 저 조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잔떡' 해야 되겠다 하는 제사에 합니다.)
107069 @1 으음. 게믄 그 준떡 허는 게 중궤, 약궤, 솔벤, 절벤을 준떡이렌 허는 거라예?(으음. 그러면 그 '잔떡' 하는 게 중계, 약과, '솔벤', 절편을 '잔떡'이라고 하는 거지요?)
107069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69 @1 세미떡을 준떡이렌은 안 헙니까?('세미떡'을 '잔떡'이라고는 안 합니까?)
107069 #1 세미떡은 준떡이엔 안 헙니다.('세미떡'은 '잔떡'이라고 안 합니다.)
107069 @1 아. 준떡 속에는 아까 그 네 가지?(아, '잔떡' 속에는 아까 그 네 가지?)
107069 #1 예, 그건 네 가지.(예, 그건 네 가지.)
107069 @1 아.(아.)
107069 #1 거 네 가지. 건 틀린 거마씨.(거 네 가지. 건 다른 거예요.)
107069 @1 예, 예. 그다음에 게믄 떡은 보통 멧 종류 올려마씨?(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떡은 보통 몇 종류 올려요?)
107069 #1 떡은 준떡만 다 허여근엥에 다 궤여둬근엥에 그 무시거게 그 믄 튀김.(떡은 '잔떡'만 다 해서 다 괴어두고 그 무엇 그 모두 튀김.)
107069 @1 음.(음.)
107069 #1 튀김 허여가민 막 어지러웁니다. 튀김, 튀김도 서너 가지.(튀김 해가면 막 어지럽습니다. 튀김, 튀김도 서너 가지.)
107069 @1 음.(음.)
107069 #1 서너 가지 허민게 그거 허곡 허민 상이 믄 ᄀᆞ득아마씸.(서너 가지하면 그거 하고 하면 상이 모두 가득해요.)
107069 @1 음.(음.)
107069 #1 게난 튀김도게 멧 가지꽈게, ᄋᆞ라 가지 들어감주게.(그러니 튀김도 몇 가지에요, 여러 가지 들어가지.)
107070 @1 예전에 그 상예, 상 난 때 그 성복에 올리는 떡들은 어떤 거라마씨?(예전에 그 상에, 상 난 때 그 성복에 올리는 떡들은 어떤 거예요?)
107070 #1 성복떡은.(성복떡은.)
107070 @1 으.(으.)
107070 #1 막 급허게 허젠 허민 이제 금방 이제 상을 놔시면은 전화 헐 거 아

니꽈?(매우 급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금방 이제 상을 놓았으면 전화 할 거 아닙니까?)

107070 @1 예, 예.(예, 예.)

107070 #1 전화허민 하영은 안 헙니다게. 침떡.(전화하면 많이는 안 합니다. 시루떡.)

107070 @1 침떡.(시루떡.)

107070 #1 침떡허고 준떡. 언제난 준떡은 들어가야마씨. 상 난 때에.(시루떡하고 '잔떡'. 언제나 '잔떡'은 들어가야 해요. 상 난 때에.)

107070 @1 상 난 때는?(상 난 때는?)

107070 #1 예, 상 난 때는 두 뒈치 헤여 오라. 뭐 석 뒈치 허여 오라 헤도 요즘은 입들이 좋앙 안 먹읍니다게.(예, 상 난 때는 두 되치 하고 오라. 뭐 석 되치 하고 오라 해도 요즘은 입들이 좋아서 안 먹습니다.)

107070 @1 음.(음.)

107070 #1 ᄒᆞ꼼 저 그 장사 낫덴 헤여근에 잘 먹젠 아녑니다. 올려난 것도 다 버리고.(조금 저 그 장 났다고 해서 잘 먹으려고 않습니다. 올려난 것도 다 버리고.)

107070 @1 예.(예.)

107070 #1 올려난 것도 다 버리고 아니 올려난 거나 먹고.(올렸던 것도 다 버리고 아니 올렸던 거나 먹고.)

107070 @1 예.(예.)

107070 #1 경 허영 상 난 때는 그자 그 저 성복제 허젠 허민 둬 뒈 허여단 성복제 헤나민 또, 또 듯날은 또시 또 ᄒᆞᆫ 멧 뒈 헤당은엥에 또시 뭐 이건 또 허곡 성복젠 하영 아녑니다.(그렇게 해서 상 난 때는 그저 그 저 성복제 하려고 하면 둬 되 해다가 성복제 한 후면 또, 또 뒷날은 다시 또 한 몇 되 해다가 다시 뭐 이건 또 하고 성복제엔 많이 안 합니다.)

107070 @1 예.(예.)

107070 #1 성복젠 하영 허지 아녕.(성복제엔 많이 하지 않고.)

107070 @1 예.(예.)

107070 #1 경 헨 그 준떡으로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저 무시거.(그렇게 해서 그 '잔떡'으로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저 무엇.)

107070 @1 상 난 땐예.(상 난 땐요.)

107070 #1 상 난 땐 준떡으로만 들어가.(상 난 땐 '잔떡'으로만 들어가.)

107071 @1 그다음에 여기 그 하얀 제펜, 침떡?(그다음에 여기 그 하얀 백설기, 시루떡?)

107071 #1 침떡?(시루떡?)

107071 @1 으. 그거 만들 때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헴수과? 옛날에는 아까 좁쏠 놓고 곤쏠 놩 허곡, 요즘은?(으. 그거 만들 때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아까 좁쌀 넣고 흰쌀 넣고 하고, 요즘은?)

107071 #1 요즘은 그냥 하양케.(요즘은 그냥 하얗게.)
107071 @1 하얗게만?(하얗게만?)
107071 #1 그냥 하양케.(그냥 하얗게.)
107071 @1 그 저 뭐는 안 놓고?(그 저 뭐는 아 넣고요?)
107071 #1 뭐?(뭐?)
107071 @1 쉬 같은 거 안 놓고?(소 같은 거 안 넣고요?)
107071 #1 쉬 같은 거는 이 시제 떡은 아무것도 안 놉니다.(소 같은 거는 이 시제 떡은 아무 것도 안 넣습니다.)
107071 @1 아.(아.)
107071 #1 시제 떡은 아무 것도 안 놓곡.(시제 떡은 아무 것도 안 넣고.)
107071 @1 음.(음.)
107071 #1 이 저 방엣공장에 가근에 맛있게 헤 줍센 허민.(이 저 방앗간에 가서 맛있게 해 주시라고 하면.)
107071 @1 으.(으.)
107071 #1 그거저거 놩 헙니다. 그거저거 저 콩도 맛신 콩으로 놓곡 그거 저거 놩 허여마씨.(이것저것 넣고 합니다. 이것저것 저 콩도 맛있는 콩으로 넣고 이것저것 넣고 해요.)
107071 @1 게난 상에 놓는 거는 풋 들어가는 건 안 올립니까?(그러니까 상에 올리는 거는 팥 들어가는 건 안 올립니까?)
107071 #1 게난에 엿날식이주, 풋도 들어가마씸.(그러니까 옛날식이지, 팥도 들어가요.)
107071 @1 요즘은.(요즘은.)
107071 #1 풋쉬.(팥소.)
107071 @1 풋쉬.(팥소.)
107071 #1 풋쉬 놔근에 헤마씸.(팥소 넣어서 해요.)
107072 @1 예. 그다음에 여기 삼춘, 인절미도 혜? 이 동네?(예. 그다음은 여기 삼촌, 인절미도 해요? 이 동네?)
107072 #1 은절미 우린 아녀 봣수다.(인절미 우린 안 해봤습니다.)
107072 @1 안 헤봔예?(안 해봤어요?)
107072 #1 은절민 안 헤 봔.(인절미는 안 해보고.)
107072 @1 예.(예.)
107072 #1 은절미 허는 집이도 잇언 저 미깡 타레 가난에 은절미 제사떡마씸 헨 내 놓난 막 어떵 속으론, 하이고, 이거 은절미 이거 제살 헷구나.(인절미 하는 집도 있어서 저 귤 따러 가니까 인절미 제사떡이에요 해서 내 놓으니까 막 어떻게 속으로는, 하이고, 이거 인절미 이거 제사를 했구나.)
107072 @1 으.(으.)
107072 #1 우리 먹으멍 골앗수다.(우리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107072 @1 예, 게난 저쪽 서쪽더레는 은절미 허믄 아까 중궤, 약궤처럼.(예, 그러니까 저쪽 서쪽에는 인절미 하면 아까 중계, 약과처럼.)

107072 #1 예, 예.(예, 예.)

107072 @1 네모나게 헹 허거든예.(네모나게 해서 하거든요.)

107072 #1 예, 알아져마씸.(예, 알아져요.)

107072 @1 예, 거기는 그 은절미렌 허는데, 여기는 그냥 약궤로 헤갖고 허는 거.(예, 거기는 그 인절미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약과로 해가지고 하는 거.)

107072 #1 예, 예. 그런 존떡 귀곶춰근에.(예, 예. 그런 '잔떡' 다 갖추고서.)

107072 @1 으.(으.)

107072 #1 귀곶촹 네 가지 허주 그런 거 헹은 안 올려봣수다. 우린 그런 건 아녀 봔.(다 갖추고 네 가지 하지 그런 거 해서는 안 올려봤습니다. 우린 그런 건 안 해보고.)

107073 @1 그다음에 절벤은 어떵 멘들앗수과?(그다음에 절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73 #1 절벤?(절편?)

107073 @1 으.(으.)

107073 #1 이렇게 비병.(이렇게 비벼서.)

107073 @1 으.(으.)

107073 #1 두, 두 개 비병, 하나 비병 꼭 허게 누들어 뒁 내불어 뒁 또시 하나 비병 꼭 허게 내불어 뒁 허믄.(두, 두 개 비벼서, 하나 비벼서 꼭 하게 눌러 두고 다시 하나 비벼서 꼭 하게 내버려 두고 하면.)

107073 @ 으.(으.)

107073 #1 걸 두 개 부쩡, 두 개 부쪄근에 영영 영영 손 봐근엥에 그거 누드는 거, 누드는 거 잇지 아녀여.(걸 두 개 붙여서, 두 개 붙여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손 보고 그거 누르는 거, 누르는 거 있지 않아?)

107073 @1 예.(예.)

107073 #1 누뜨는 거 허영 꼭 허게 누들믄 ᄒᆞ꼼만 처음엔 ᄒᆞ꼼만 누들엇단.(누르는 거 해서 꼭 하게 누르면 조금만 처음에 조금만 눌렀다가.)

107073 @1 음.(음.)

107073 #1 또 뒤집엉 꼭 허게 누뜰믄 경 뒙니다.(또 뒤집어서 꼭 하고 누르면 그렇게 됩니다.)

107073 @1 아, 양쪽으로 누르는 거예, 예.(아, 양쪽으로 누르는 거요, 예.)

107073 #1 으. 처음에 ᄒᆞ꼼만 누들엇당.(으. 처음에 조금만 눌렀다가.)

107073 @1 으.(으.)

107073 #1 두 번채 꼭 허게 누들믄 올라옵니다.(두 번째 꼭 하고 누르면 올라옵니다.)

107073 @1 아. 게믄 그거는 그 오메기 헹 숢앙은에 만드는 것꽈?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아?(아, 그러면 그거는 그 '오메기' 삶아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107073 #1 집이서 헐 땐 오메기[259], 오메기로 솖앙.(집에서 할 때 '오메기', '오메기'로 삶아서.)

107073 @1 아, 오메기로 솖앙.(아, '오메기'로 삶아서.)

107073 #1 오메기, 오메기로 솖으민 오래난에.('오메기', '오메기'로 삶으면 오래니까.)

107073 @1 예.(예.)

107073 #1 저 나풀나풀허게 헹은에 구, 물에서 저 솖아마씨.(저 나풀나풀하게 해서 구, 물에서 저 삶아요.)

107073 @1 예.(예.)

107073 #1 물에서 솖아근에 그걸 저 문딱 솖질 아녀고.(물에서 삶아서 그걸 저 몽땅 삶지를 않고.)

107073 @1 으.(으.)

107073 #1 혼 반 정도 솖아근에.(한 반 정도 삶아서.)

107073 @1 으.(으.)

107073 #1 그걸 혼디 ᄀᆞ루에 혼디 쩡.(그걸 같이 가루에 같이 찧고.)

107073 @1 으.(으.)

107073 #1 ᄀᆞ루 찌단 것에.(가루 찌던 것에.)

107073 @1 예.(예.)

107073 #1 찌단 것에 혼디 쪄근엥에 떡을 만들앙 기름 불랑 또시 쩜수게.(찌던 것에 같이 찧어서 떡을 만들고 기름 발라서 다시 찝니다.)

107073 @1 아, 기름 불른 다음에 쪄마씨?(아, 기름 바른 다음에 쪄요?)

107073 #1 예, 기름 불르민 무사 기름은 불람신고 허민 부뜨카부덴.(예, 기름 바르면 왜 기름은 바르는가 하면 붙을까봐.)

107073 @1 아.(아.)

107073 #1 부뜨카부덴 기름 불랑은에 뚜시 ᄌᆞ근ᄌᆞ근ᄌᆞ근 놩 쩜수게.(붙을까봐 기름 발라서 다시 조근조근조근 놓아서 찝니다.)

107073 @1 그 바드렝이에 놩?(그 겅그레에 놓고?)

107073 #1 예, 바드렝이에 놩 찌는 거.(예, 겅그레에 놓고 찌는 거.)

107073 @1 아, 찌는 거예?(아, 찌는 거요?)

107073 #1 예, 찌는 거마씨.(예, 찌는 거예요.)

107073 @1 겐 반 익혀 놩 만들앙 다시.(그렇게 반 익혀 놓고 만들어서 다시.)

107073 #1 예, 예.(예, 예.)

107073 @1 이제 익히는 거라예?(이제 익히는 거지요?)

259)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107073 #1 예, 예. 반 익히지 말앙 그자, 그자 확 허게 꿰는 물에 삭삭 꿰는 물에 놔근에 ᄒᆞ썰 영 젓엉 동글동글 트면은 같이[가찌]. 경허민 거 벌러지지 아녀곡.(예 예. 반 익히지 말고 그저, 그저 확 하게 끓는 물에 삭삭 끓는 물에 넣어서 조금 이렇게 저어서 동글동글 뜨면 같이. 그러면 거 쪼개지지 않고.)

107073 @1 예.(예.)

107073 #1 떡이 저 고우렌 경 헌덴. 고우렌.(떡이 저 고우라고 그렇게 한다고. 고우라고.)

107073 @1 아, 고우렌.(아, 고우라고.)

107073 #1 고우렌 경허는 거마씸.(고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107074 @1 아, 겐 그렇게 허고, 솔벤은마씨?(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솔벤'은요?)

107074 #1 솔벤[260]?('솔벤'?)

107074 @1 으.(으.)

107074 #1 솔벤도 그 식.('솔벤'도 그 식.)

107074 @1 음.(음.)

107074 #1 솔벤도 그 안반에서 밀어 가지고.('솔벤도 그 안반에서 밀어 가지고.)

107074 @1 예.(예.)

107074 #1 밀엉 터근엥에 것도 기름 불라근엥에 ᄌᆞ근ᄌᆞ근ᄌᆞ근 놔근엥에 것도 치는 거마씨.(밀어서 떠서 것도 기름 발라서 조근조근조근 놓아서 것도 찌는 거예요.)

107074 @1 아, 게믄 솔벤도 절벤헐 때처럼 그추룩 반 저기 오메기 익형은에 헙니까, 아니면 거는 ᄀᆞ루로만 헤여? 반죽?(아, 그러면 '솔벤'도 절편할 때처럼 그처럼 반 저기 '오메기' 익혀서 합니까? 아니면 거는 가루로만 해요? 반죽?)

107074 #1 그냥 반죽은 마찬가지.(그냥 반죽은 마찬가지.)

107074 @1 마찬가지?(마찬가지?)

107074 #1 똑 마찬가지.(똑 마찬가지.)

107074 @1 ᄒᆞ꼼, ᄒᆞ꼼 영 숣아낸 다음에.(조금, 조금 이렇게 삶아낸 다음에.)

107074 #1 예, 예.(예, 예.)

107074 @1 예, 겐 다 절벤도 이제 안반에서 허는디 솔벤은 밀어야 뜰 거니까?(예, 그렇게 다 절편도 이제 안반에서 하는데 '솔벤'은 밀어야 뜰 거니까?)

107074 #1 예, 다 밀어, 다 밀어야 뒐 거. 니 가지 다 밀어야 뒈는 거마씸.(예, 다 밀어, 다 밀어야 될 거. 네 가지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107075 @1 음, 그다음에 삼춘 그 우찍은 어떵 멘들멘?(음, 그다음에 삼촌, 그 웃기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75 #1 우찍은?(웃기떡?)

107075 @1 으.(으.)

260) '솔벤'은 반월형의 떡살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한다. '솔변, 솔펜,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075 #1 우찍은 그 저 계란 헤근엥에 계란 풀어근에 계란 풀어근엥에 숟구락으로 영 니 고망 나게.(웃기떡은 그 저 계란 해서 계란 풀어서 계란 풀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네 구멍 나게.)

107075 @1 으.(으.)

107075 #1 니 고망 나게 그거, 우리 메누리 그거 막 잘헙니다.(네 구멍 나게 그거, 우리 며느리 그거 막 잘합니다.)

107075 @1 예.(예.)

107075 #1 나 허단에 가이, 가이신디레 허, 허렌 허민 가이 막 잘헤마씸.(제가 하다가 걔, 계에게 하, 하라고 하면 걔 매우 잘해요.)

107075 @1 으.(으.)

107075 #1 겐 우찍 경 만들엄수게.(그렇게 웃기떡 그렇게 만듭니다.)

107075 @1 겐 우찍 만들고. 혹시 여기는 지름떡은 안 멘들어낫수과?(그렇게 웃기떡 마들고. 혹시 여기는 기름떡은 안 만들었었습니까?)

107075 #1 무사 아니마씸게.(왜 아니에요?)

107075 @1 지름떡은 언제 멘드는 거?(기름떡은 언제 만드는 거?)

107075 #1 지름떡은 뭐 제ᄉᆞ에 피곤허지 아녀민 그 저 찹쌀 ᄀᆞᆯ아당.(기름떡은 뭐 제사에 피곤하지 않으면 그 저 찹쌀 갈아다가.)

107075 @1 예.(예.)

107075 #1 찹쌀 ᄀᆞᆯ아당 쪄근엥에. 쪄근에 그자 지름떡 헐만씩 허여근에 그 저 누드는 걸로 꼭 꼭 누들멍 지름 놔근에 저 그 후라이팬에 지름 놔근엥에. 거 누드렁 거 기름떡.(찹쌀 갈아다가 쪄서. 쪄서 그자 기름떡 할 만큼 해서 그 저 누르는 걸로 꼭 꼭 누르면서 기름 넣고 저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거 눌러서 거 기름떡.)

107075 @1 음.(음.)

107075 #1 그거 헤나민 막 곶읍니다게.(그거 하고나면 막 곶습니다.)

107075 @1 으.(으.)

107075 #1 문 기름도 그레 피곡 저레 피곡 막 곶어, 잘도.(모두 기름도 그리로 피고 저리로 피고 아주 곶어. 잘도.)

107075 @1 게민 그 지름떡은 어디, 어디에 올리는 거우꽈?(그러면 그 기름떡은 어디, 어디에 올리는 겁니까?)

107075 #1 그건 먹젠 허는 거마씨.(그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107075 @1 아, 상 우에 안 올려예?(아, 상 위에 안 올려요?)

107075 #1 예, 상에 올리젠 허는 건 아니마씀.(예, 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7075 @1 아.(아.)

107075 #1 거난 특히 그거는 그런 거는 그자 이녁 먹곡 그 저 젭시에 거 올리는 거마씸.(그러니 특히 그거는 그런 거는 그자 이녁 먹고 그 저 접시에 거 올리는 거예요.)

107075 @1 만약 거는 저기 떡 우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올리는 거예, 예?(만약 거는 저기 떡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멸도로 올리는 거요?)
107075 #1 아니, 벨도로마씸, 건.(아니, 별도예요.)
107075 @1 예.(예.)
107075 #1 떡 우에 올리는 거 아니.(떡 위에 올리는 거 아니.)
107075 @1 예.(예.)
107075 #1 떡 올리는 거 아니.(떡 올리는 거 아니.)
107075 @1 예.(예.)
107075 #1 건 먹젠 허는 거.(건 먹으려고 하는 거.)
107075 @1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고사헐 때라든가예, 이럴 때도 떡을 허지 안 헙니까?(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고사지낼 때라든가요, 이럴 때도 떡을 하지 않습니까?)
107075 #1 예, 예.(예, 예.)
107075 @1 어떤 떡 헙니까? 그때는?(어떤 떡 합니까? 그때는?)
107075 #1 고사헐 때도 큰떡.(고사지낼 때도 큰떡.)
107075 @1 음.(음.)
107075 #1 큰떡이엔 허민 준떡입주게.(큰떡이라고 하면 '잔떡'입지요.)
107075 @1 아, 큰떡이엔 허믄 준떡 들어간 거예?(아, 큰떡이라고 하면 '준떡' 들어간 거요?)
107075 #1 예, 큰떡이엔 허민 준떡.(예, 큰떡이라고 하면 '잔떡'.)
107075 @1 아, 그 친떡에다가 그 올리는 거?(아, 그 시루떡에다가 그 올리는 거?)
107075 #1 예.(예.)
107076 @1 예, 경 허면 그다음에 그 당에 가졍 다니는 떡은? 당에 갈 때?(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당에 가지고 다니는 떡은? 당에 갈 때?)
107076 #1 양?(예?)
107076 @1 당에, 당에.(당에, 당에.)
107076 #1 당에 갈 때?(당에 갈 때?)
107076 @1 으.(으.)
107076 #1 당에 갈 때엔 저 무시거. 대죽.(당에 갈 때엔 저 무엇 .수수.)
107076 @1 으.(으.)
107076 #1 엿날에.(옛날에.)
107076 @1 예.(예.)
107076 #1 대죽덜 막 갈아나지 아녀수과?(수수들 많이 갈았었지 않습니까?)
107076 @1 예.(예.)
107076 #1 게난 대죽떡 올린덴 헙니다. 당에 갈 땐.(그러니까 수수떡 올린다고 합니다. 당에 갈 때.)

107076 @1 음, 여기 도체비당 잇이난예? 으.(음, 여기 도깨비당 있으니까요? 으.)

107076 #1 예, 당에 갈 땐 그 대죽떡 저 무시거 막 쪄근엥에 동글락동글락허게, 동글락동글락 멘들앙.(예, 당에 갈 땐 그 수수떡 저 무엇 막 쪄서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107076 @1 음.(음.)

107076 #1 동글락동글락허게 멘들앙 솖앙. 물에 놩 솖앙.(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삶고, 물에 넣어서 삶고.)

107076 @1 예.(예.)

107076 #1 그건 물에 무사 물에 놓면은 그것이 풀이 너미 좋아 놓난 부떵양.(그건 물에 왜 물에 넣으면 그것이 풀이 너무 좋아 놓으니까 붙어요.)

107076 @1 예.(예.)

107076 #1 대썹 잇지 아녀우꽈, 댓가지.(댓잎 있지 않습니까? 댓가지.)

107076 @1 으, 으.(으, 으.)

107076 #1 댓가지 체여다근에.(댓가지 째어다가.)

107076 @1 예.(예.)

107076 #1 체여다근에 그딧 거 킄킄 털어둬근에 물 팔팔 끌리민 그 댓가지에 놔근에 댓가지 우터레 그 물 많이 놓니까.(째어다가 거기 거 탈탈 털어두고 물 팔팔 끓으면 그 댓가지에 놓아서 댓가지 위로 그 물 많이 넣으니까.)

107076 @1 예.(예.)

107076 #1 댓가지 우터레 놩은에 그걸로 영 영 저 댓가지 둥글여 가민 부뜨지도 아녀고 혜영 나중에 건지민 익으민 건지는 거마씸.(댓가지 위로 놓고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저 댓가지 뒹굴려 가면 붙지도 않고 해서 나중에 건지면 익으면 건지는 거예요.)

107076 @1 아, 대죽쏠로예?(아, 수수쌀로요?)

107076 #1 대죽쏠로.(수수쌀로.)

107076 @1 게민 그건 무슨 떡이렌 헤?(그러면 그건 무슨 떡이라고 해?)

107076 #1 그건 대죽떡.(그건 수수떡.)

107076 @1 대죽떡?(수수떡?)

107076 #1 예, 대죽떡.(예, 수수떡.)

107076 @1 아.(아.)

107076 #1 거 저 어디 당에 가젠 허난 대죽떡 헷덴. 그 집이 경. 그추룩 경.(거 저 어디 당에 가려고 하니까 수수떡 했대. 그 집에 그렇게. 그처럼 그렇게.)

107076 @1 대죽떡 헷덴, 예.(수수떡 했다고, 예)

107076 #1 예.(예.)

107076 @1 겐 동글랑허게 이런 식으로 동글랑허게 만드는 거?(그럼 동그래하게 이런 식으로 동그래하게 만드는 거?)

107076 #1 예. 동글락동글락허게 요만이 요만이 동글락허게.(예, 동글동글하게 요만큼 요만큼 동그래하게.)

107076 @1 아, 게민 영 넵작허게 헙니까?(아,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합니까?)

107076 #1 예.(예.)

107076 @1 냅작허게.(납작하게.)

107076 #1 냅작허게 헹 동글락허게.(납작하게 해서 동그래하게.)

107076 @1 솖앙, 아. 거기에 뭐 다른 거 뭐 풋을 놓거난 안 허고.(삶아서, 아. 거기에 뭐 다른 거 뭐 팥을 넣거나 안 하고.)

107076 #1 아무 것도 풋도 안 놉니다.(아무 것도 팥도 안 넣습니다.)

107076 @1 아.(아)

107076 #1 게난 이젠 그 대죽이 어디 잇수과게. 기냥 그 곤떡.(그러니 이젠 그 수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흰떡.)

107076 @1 예.(예.)

107076 #1 곤썰, 곤쏠 골아다근에 그냥 당에 가는 사름 그냥 허염실 거우다.(흰쌀, 흰쌀 갈아다가 그냥 당에 가는 사람 그냥 하고 있을 겁니다.)

107076 @1 음.(음)

107076 #1 그냥 동글락허게 헤근에 그냥 솖앙 물에 놩 솖앙.(그냥 동그래하게 해서 그냥 삶아서 물에 넣고 삶아서.)

107076 @1 그거, 그거 혹시 다대렌도 헙니까?(그거, 그거 혹시 '다대'라고도 합니까?)

107076 #1 다대[261], 다대.('다대', '다대'.)

107076 @1 다대. 대죽떡도 다대렌 골아?('다대', 수수떡도 '다대'라고 말해요?)

107076 #1 예, 다대.(예. '다대'.)

107076 @1 아, 다대렌 허고예?(아, '다대'라고 하고요?)

107076 #1 예.(예.)

107076 @1 그다음에 그 게믄 영장 때 그 돌레떡허고 다대허고는 어떵 ᄐᆞ난 거? 영장밧디 갈 때?(그다음에 그 그러면 영장 때 그 '돌레떡'하고 '다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 장지 갈 때?)

107076 #1 영장밧디 가는 돌레떡은[262] 옛날에마씨, 그 옛날에?(장지 가는 '돌레떡'은 옛날에요, 그 옛날에.)

107076 @1 예.(예.)

107076 #1 그건 질소용[263], 질소용 너미 저 거리가 머니까양.(그건 '질소용', '질소용'. 너무 저 거리가 머니까요.)

107076 @1 예.(예.)

---

261) '다대'는 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둥글게 만들어 당에 가지고 가는 떡이다.

262)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263) '질소용'은 운상 중에 쉬면서 먹는 음식 따위를 말하는데, '질수용, 질수영, 지름영, 질수헹' 등 다양하게 표현 된다.

107076 #1 이녁 가족 공동묘지도 엇곡 어디 저 당오름인가 어디 가젠 허민.(이녁 가족 공동묘지도 없고 어디 저 당오름인가 어디 가려고 하면.)

107076 @1 으.(으.)

107076 #1 그, 그 그것도 돌레떡도 막 두덥게 헙니다.(그, 그 그것도 '돌레떡'도 막 두텁게 합니다.)

107076 @1 예, 예.(예, 예.)

107076 #1 막 두덥게 허여근엥에 질소용 거는.(매우 두텁게 해서 '질소용' 거는.)

107076 @1 건 질소용.(건 '질소용'.)

107076 #1 가다근엥에 쉬여근엥에 저 테웁니다.(가다가 쉬고 저 태웁니다.)

107076 @1 음.(음.)

107076 #1 쉬영 테와근에 먹는 거 그건.(쉬며 태워 먹는 거 그건.)

107076 @1 아.(아.)

107076 #1 술, 술이영.(술, 술이랑.)

107076 @1 예.(예.)

107076 #1 저 그 떡이영.(저 그 떡이랑.)

107076 @1 음.(음.)

107076 #1 두 개썩을 테우나.(두 개씩을 태우거나.)

107076 @1 예.(예.)

107076 #1 경 허여근에 그건 테왕 먹는 거마씸. 그건.(그렇게 해서 그건 태워서 먹는 거예요. 그건.)

107076 @1 장밧디 강 거 주진 않고?(장지 가서 거 주지 않고?)

107076 #1 장밧디 강은 안 줍니다. (장지 가서는 안 줍니다.)

107076 @1 아, 질 가당 질소용으로예.(아, 길 가다가 '질소용'으로요.)

107076 #1 질레 가당 질소용으로 예, 힘드니까.(길 가다가 '질소용'으로 예, 힘드니까.)

107076 @1 이쪽에 허니까 뭐 등절비도 헷덴 허멍 헨게만은?(이쪽에 하니까 뭐 '등절비'도 했다고 하며 하더니만?)

107076 #1 등절미[264]가 그겁주게.('등절미'가 그겁지요.)

107076 @1 아.(아.)

107076 #1 등절미가 그거.('등절미'가 그거.)

107076 @1 등절비는 떡 모양이 틋나지 안 헙니까?('등절비'는 떡 모양이 다르지 안 합니까?)

107076 #1 등절미도 거 동글락헌 거우다게.('등절미'도 거 동그래한 겁니다.)

107076 @1 으.(으.)

107076 #1 등절미도 동글락헌 거.('등절미'도 동그래한 거.)

264) '등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달리 '등절비'라고 한다.

107076 @1 동글락 헌 거예. 돌레떡허고.(동그래한 거요. '돌레떡'하고.)
107076 #1 예.(예.)
107076 @1 이건 질수용으로 허고.(이건 '질수용'으로 하고.)
107076 #1 예. 질소용.(예. '질소용'.)
107076 @1 여기 다 피력 끗나면 그 장밧디 가갓고 그때도 떡 주지 안 헤마씨?(여기 다 피력 끝나면 그 장지 가가지고 그때도 떡 주지 안 해요?)
107076 #1 피력[265] 끗나민?('피력' 끝나면?)
107076 @1 예, 피력으로?(예, '피력'으로.)
107076 #1 피력으로?('피력'으로?)
107076 @1 으.(으.)
107076 #1 피력으로 떡 엿날은 허단에.('피력'으로 떡 옛날은 하다가.)
107076 @1 예.(예.)
107076 #1 이젠 저 피력 아녑니다. 이젠 그런 거 아녀근에.(이젠 저 '피력' 않습니다. 이젠 그런 거 않고.)
107076 @1 음.(음.)
107076 #1 이 저 자기네 허지 기룬 거 무신 뭐 후라이판 허여 가단에 후라이판도 허고 냄비도 허여 가단 이젠 또 저 커피 같은 거.(이 저 자기네 하지 싶은 거 무슨 뭐 프라이팬 해 가다가 프라이팬도 하고 냄비도 해 가다가 이젠 또 커피 같은 거.)
107076 @1 으.(으.)
107076 #1 잘 먹는 거.(잘 먹는 거.)
107076 @1 예.(예.)
107076 #1 커피 같은 거 헙니다.(커피 같은 거 합니다.)
107076 @1 게난 옛날은 그 장지 다 끝나고 허면 피력 주지 안 헤낫수과?(그러니까 옛날은 그 장지 다 끝나고 하면 '피력' 주지 안 했었습니까?)
107076 #1 예, 예. 거 떡 허여나십주게.(예, 예. 거 떡 하였습죠.)
107076 @1 그때는 무신 떡 허는 거?(그때는 무슨 떡 하는 거?)
107076 #1 그때도 그런 떡.(그때도 그런 떡.)
107076 @1 그때도.(그때도.)
107076 #1 그때도 그런 떡이나 험벳기 뭐 헙니까게. 헐 것이 엇주.(그때도 그런 떡이나 하는 수밖에 뭐 합니까? 할 것이 없지.)
107076 @1 멀리 가멍 질소용으로도 떡 하고.(멀리 가면서 '질소용'으로도 떡 하고.)
107076 #1 예.(예.)
107076 @1 다 끗낭 피력 허영도 이제 허고.(다 끝나서 피력 하고도 이제 하고.)
107076 #1 예. 건 질소용으로 건 먹는 거.(예. 건 '질소용'으로 건 먹는 거.)

265) '피력'은 장지에서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으로 나눠 주는 떡이다.

107076 @1 아.(아.)

107076 #1 당오름[266] 가젠 허민 언마나 힘듭니까게. 거, 그 장 영장 메여근에 그 저 어느꼿장 가민 으라 번 골아마씸.(당오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 그 장 영장 매어서 그 저 어디까지 가면 여러 번 갈아요.)

107076 @1 예.(예.)

107076 #1 사름을 골아.(사람을 갈아.)

107076 @1 사름을?(사람을?)

107076 #1 예, 사름을 골지 아녀민 어떵헹 갑니까?(예, 사람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107076 @1 그 상뒤예.(그 향도요.)

107076 #1 예, 흔 번 골면은 흔 번 먹고, 또 흔 번 골민 흔 번 먹고 경 허멍 갓수다게.(예, 한 번 갈면 한 번 먹고, 또 한 번 갈면 또 한 번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107076 @1 음.(음.)

107076 #1 옛날에. 아이고, 경 허멍 간 거라, 옛날에.(옛날에.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간 거야, 옛날에.)

107077 @1 게믄 굿 헐 때, 집에서 굿 헐 때는 어떤 떡 허여?(그러면 굿 할 때, 집에서 굿 할 때는 어떤 떡 해요?)

107077 #1 그거. 거 동글락헌 떡.(그거. 거 동그래한 떡.)

107077 @1 음.(음.)

107077 #1 거 동글락헌 떡 그거 맞추민 거 허영 옵니다.(거 동그래한 떡 그거 맞추면 거 하고 옵니다.)

107077 @1 음.(음.)

107077 #1 맞추민 거 허영 와마씨.(맞추면 거 하고 와요.)

107077 @1 게민 그 다대 그거 하나만 헤여?(그러면 그 '다대' 그거 하나만 해요?)

107077 #1 으, 다대 흔 가지.(으, 다대 한 가지.)

107077 @1 흔 가지만?(한 가지만?)

107077 #1 흔 가지만 헤영은에 세 개썩 올려.(한 가지만 해서 세 개씩 올려.)

107077 @1 아, 세 개썩.(아, 세 개씩.)

107077 #1 예, 세 개썩 올령, 예.(예, 세 개씩 올리고, 예.)

107078 @1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헤 먹는 거, 뭐 속떡을 헹 먹는다거나 이런 건, 어떤 거 쥐기떡 이런 거는 안 들어 봣수과?(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해 먹는 거, 뭐 쑥떡을 해서 먹는다거나 이런 건, 어떤 거 '쥐기떡' 이런 거는 안 들어 봤습니까?)

107078 #1 제서에 말이꽈?(제사에 말입니까?)

---

266) '당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68-1에 위치한 오름을 말한다.

107078 @1 아니, 일반.(아니, 일반.)
107078 #1 아, 우리?(아, 우리.)
107078 @1 으.(으.)
107078 #1 우리 헹 먹는 거?(우리가 해서 먹는 거?)
107078 @1 으.(으.)
107078 #1 숙떡이 최고, 숙이 최고 존 거마씨.(쑥떡이 최고, 쑥이 최고 좋은 거예요.)
107078 @1 으.(으.)
107078 #1 숙 허여근에 저 무시거 밀가루에라도.(쑥 해서 저 무엇 밀가루에라도.)
107078 @1 음.(음.)
107078 #1 버물여근엥에 무시거 후라이판에 여름에 드러 허연 먹엇수다게.(버무려서 무엇 프라이팬에 여름에 들이 해서 먹었습니다.)
107078 @1 으.(으.)
107078 #1 허연에 숙떡 허영 후라이판에 허민 막 맛좋아마씨.(해서 쑥떡 해서 프라이팬에 하면 매우 맛좋아요.)
107078 @1 음.(음.)
107078 #1 후라이판에 지졍.(프라이팬에 지져서.)
107078 @1 지졍.(지져서.)
107078 #1 지져근엥에 저 먹으민 이 우리 할망신디도 ᄋᆞ져가민 막 좋아허여근엥에 먹읍니다게.(지져서 저 먹으면 이 우리 할머니에게도 가져가면 막 좋아해서 먹습니다.)
107078 @1 음.(음.)
107078 #1 경 허영 무사 막 좁니다. 숙 헤영 놔두민.(그렇게 하니 왜 매우 좋습니다. 쑥 해서 놓아두면.)
107078 @1 음.(음.)
107078 #1 속 헤영 놔두민 잘도 좋아.(쑥 해서 놔두면 잘도 좋아.)

소와 고물

107079 @1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춘, 떡 허젠 허면 쉬들예, 쉬들 쓰는 거는 무슨 쉬들 씁니까? 여기서?(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촌, 떡 하려고 하면 소들이요, 소들 쓰는 거는 무슨 소들 씁니까? 여기서는?)
107079 #1 아, 우리 떡 허젠 허민?(아, 우리가 떡 하려고 하면?)
107079 @1 으.(으.)
107079 #1 송편허젠 허민 저 꿰.(송편하려고 하면 저 참깨.)
107079 @1 예.(예.)
107079 #1 꿰 보끄곡, 꿰 보깡 놔두곡 설탕 놩.(참깨 볶고, 참깨 볶아서 놓아두

고 설탕 넣어.)

107079 @1 음.(으.)

107079 #1 설탕 놔근에 그거, 그거 거려 노멍 헴수게. 거 거려 노멍 송펜 만들어마씨. 거 거려 노멍.(설탕 넣어서 그거, 그거 떠 넣으면서 합니다. 거 떠 넣으면서 송편 만들어요. 거 떠 넣으면서.)

107079 @1 음, 다른 뭐 풋을 허거나 녹디 허거나 안 헤?(음, 다른 뭐 팥을 하거나 녹두 하거나 안 하고?)

107079 #1 아, 그거는 그 옛날이고. 이제는 맛잇게만 먹젠 허는 따문에.(아, 그거는 그 옛날이고, 이제는 맛있게만 먹으려고 하는 때문에.)

107079 @1 아, 옛날에는 어떤 것덜 헨?(아, 옛날에는 어떤 것들 했어요?)

107079 #1 그 옛날엔 저 무시거 그 저 보리콩 같은 거.(그 옛날에는 저 무엇 그 저 완두 같은 거.)

107079 @ 예.(예.)

107079 #1 그거 솖아근에 그거 솖안 놔놧수다게. 겐디 맛이 엇어.(그거 삶아서 그거 삶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

107079 @1 음.(음.)

107079 #1 맛엇으난에 설탕허고 그 무스거 봠수게.(맛없으니까 설탕하고 그 무엇 넣습니다.)

107079 @1 꿰.(참깨.)

107079 #1 꿰허고.(참깨하고.)

107079 @1 그걸 여기선 쉬렌 헙니까?(그걸 여기선 '쉬'라고 합니까?)

107079 #1 예, 쉬.(예, '쉬')

107079 @1 으, 건 쉬렌 허고예?(으, 건 '쉬'라고 하고요?)

107079 #1 쉰 무시거, 무시거 놓구과? 경 아이덜 허민.(손, 무엇, 무엇 넣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면.)

107079 @1 으.(으.)

107079 #1 무시거 놓구과? 허민, 무시거 놓느니 맛신 거 놔사주.(무엇 넣을 거예요? 하면, 무엇 넣니 맛있는 거 넣어야지.)

107079 @1 음. 경 허여근에 이제. 게난 그 쉬 놓는 거는 송편에만, 아까 세미떡?(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소 넣는 거는 송편에만, 아까 '세미떡'?)

107079 #1 예, 예.(예, 예.)

107080 @1 세미떡허고예. 올리는 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떡 칠 때 그 우에 영 쉬 놓는[노는] 거는?('세미떡'하고요. 올리는 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떡 찔 때 그 위에 이렇게 고물 놓는 거는?)

107080 #1 우에?(위에?)

107080 @1 친떡, 친떡 헐 때 이렇게 놓지 안 헙니까?(시루떡, 시루떡 할 때 이렇게 놓지 안 합니까?)

107080 #1 침떡 헐 때는 그냥 그자 층층이만 놓는 거 침떡은.(시루떡 할 때는 그냥 층층이만 놓는 거 시루떡은.)

107080 @1 음.(음.)

107080 #1 층층이만 놓곡 또시 저 송펜이나 무시거 치젠 허민 바드렝이.(층층이만 놓고 또 저 송편이나 무엇 찌려고 하면 겅그레.)

107080 @1 예.(예.)

107080 #1 바드렝이 두 개 허여근엥에 아래 흔 바드렝이 놓고 우에 흔 바드렝이 놓고.(겅그레 두 개 해서 아래 한 겅그레 놓고 위에 한 겅그레 놓고.)

107080 @1 음.(음.)

107080 #1 경 허영 칩니다.(그렇게 해서 찝니다.)

107080 @1 게난 칩 침떡 헐 때는 시리에 헤 갖고 그 사이에 풋들 이런 건 안 놓고 그냥?(그러니까 칩 시루떡 할 때는 시루에 해 가지고 그 사이에 팥들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107080 #1 아, 풋도 놀 때 잇어마씨.(아, 팥도 넣을 때 있어요.)

107080 @1 아, 풋도 놓고예.(아, 팥도 넣고요.)

107080 #1 예, 놀 때 십니다.(예, 넣을 때 있습니다.)

107081 @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떡 치젠 허믄 옛날에 삼춘 완전 힘들은 거 아니라예, 침떡 헐 때?(그런 식으로 하고. 이 떡 찌려고 하면 옛날에 삼촌 완전 힘든 거 아니에요. 시루떡 할 때?)

107081 #1 예, 어디.(예, 어디.)

107081 @1 그 말을 골아줘 봅서, 그 말을.(그 말을 말해줘 보세요, 그 말을.)

107081 #1 일로 저 이 무뚱으로 나갓다 들어왓다도 못 허여마씨.(일로 저 마당으로 나갔다가 들왔다가도 못 해요.)

107081 @1 음.(음.)

107081 #1 떡 안 익넨 허영.(떡 안 익는다고 해서.)

107081 @1 으.(으.)

107081 #1 떡 안 익넨 허영 들어오면은, 나갓다 들어왓다 아녑니다. 게민 들어온 사름 나가지도 못 허곡. 영 헤영 돌앙이나 나가주. 경 허여근에 저 침떡을 잘 익여야마씨.(떡 안 익는다고 해서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왔다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나 나가지. 그렇게 해서 저 시루떡을 잘 익혀야 해요.)

107081 @1 음.(음.)

107081 #1 그 설 때가 합니다게.(그 설 때가 많습니다.)

107081 @1 게난 그 설 때는 어떵 헙니까?(그러면 그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7081 #1 설 때는, 양, 설민 또 익지도 안 허는 거라마씸.(설 때는, 이보세요, 설면 또 익지도 안 하는 거예요.)

107081 @1 으.(으.)

107081 #1 쳐도 익지 아녀. 겨난 건 멩심허영 쳐야마씸. 게난 설어보진 안 헷수다게, 난.(쪄도 익지 않아. 그러니 건 명심해서 쪄야 해요. 그러니 설어보진 안 했습니다. 전.)

107081 @1 음.(음.)

107081 #1 설지 안 허게 잘 헤야주게.(설지 안 하게 잘 해야지.)

107081 @1 것도 떡 칠 때 큰일 같은 거 헐 때 떡 치는 할망이 뚜로 잇덴 허멍 예?(것도 떡 찔 때 큰일 같은 거 할 때 떡 찌는 할머니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요?)

107081 #1 떡 치는 할망 나.(떡 찌는 할머니가 저예요.)

107081 @1 아, 삼춘이 떡 치는 할망이우꽈?(아, 삼촌이 떡 찌는 할머니예요?)

107081 #1 저, 저 제사헐 때 누게가 헙니까게, 나가 쳣수다게.(저, 저 제사할 때 누가 합니까. 제가 쪘습니다.)

107081 @1 예.(예.)

107081 #1 떡 쳔.(떡 쪘어.)

107081 @1 음.(음.)

107081 #1 떡 그자 부억에서만 살앗수다게. 부억이사 옛날 부억이사, 이제사 좋주만은 떡 허고 하간 거 허곡게 무슨 연기 남수광게?(떡 그저 부엌에서만 살았습니다. 부엌이야 옛날 부엌이야, 이제야 좋지만 떡 하고 하간 거 하고 무슨 연기가 납니까?)

107081 @1 음.(음.)

107081 #1 그 ᄉᆞ못 그 불 솜아근엥에 떡 치젠 허민 누게가 칩니깡게? 나가 쳔.(그 사뭇 그 불 때서 떡 찌려고 하면 누가 찝니까? 제가 쪘어요.)

107081 @1 음.(음.)

107081 #1 게민 치민 떡 익은 거 선 거 무시 거 허젠 허민 어디 강 요만이 진 거 댓가지라도 체여다근엥에 영 찔러보민 알아져마씨.(그러면 찌면 떡 익은 거 선 거 무슨 거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요만큼 긴 거 댓가지라도 째어다가 이렇게 찔러보면 알아져요.)

107081 @1 음.(음.)

107081 #1 영 찔러 보민 영 올라온 거 보민 익어신가, 설어신가, 알아져.(이렇게 찔러 보면 이렇게 올라 온 거 보면 익었는가, 설었는가, 알아.)

107081 @1 아.(아.)

107081 #1 경 허멍 떡 쳣수다게.(그렇게 하면서 떡 쪘습니다.)

107081 @1 게난 경 치단도, 무사 그 밖에 시루떡 영 막는 걸 뭐렌 헙니까?(그러니까 그렇게 찌다가도, 왜 그 밖에 시루떡 이렇게 막는 걸 뭐라고 합니까?)

107081 #1 아, 그건 무시거. 옛날은 그 저 보릿ᄀᆞ루.(아, 그건 무엇. 옛날은 그 저 보릿가루.)

107081 @1 예.(예.)

107081 #1 보리, 저 보리 그 져난 ᄀᆞ루로 헷수다마는 이제는양.(보리, 저 보리

그 찧었던 가루로 했습니다만 이제는요.)
107081 @1 음.(음.)
107081 #1 그 보릿ᄀᆞ루가 어디 잇수과? 저 무시거 저 밀가루.(그 보릿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저 무엇 저 밀가루.)
107081 @1 음.(음.)
107081 #1 밀가루 믄 저 범벅허여근엥에 그걸로 그걸로 막읍니다.(밀가루 모두 저 범벅해서 그걸로 막습니다.)
107081 @1 음.(음.)
107081 #1 걸로 막으민 튼튼헹 좋곡.(걸로 막으면 튼튼해서 좋고.)
107081 @1 건 시리마개?(건 시루마개.)
107081 #1 예, 시리마개.(예, 시루마개.)
107081 @1 으.(으.)
107081 #1 짐 ᄒᆞ꼼도 나지 말아야 뒈는 거.(김 조금도 나지 말아야 되는 거.)
107081 @1 게난 그거 짐 나 불면은 떡이 안 익은덴 허멍예?(그러니 그거 김 나와 버리면 떡이 안 익는다고 하면서요?)
107081 #1 짐 나가, 나가 불민 떡 안 익어마씨.(김 나와, 김 나와 버리면 떡이 안 익어요.)
107081 @1 음.(으.)
107081 #1 게난 요번에 저 요 우리 솔벤 쳐난에 그, 그걸 저 마당에서 뒹굴이멍 우리 손지허고 큰메누리허고 그걸 트지 못 허연.(그러니까 요번에 저 요 우리 '솔변' 쪘었던 그, 그걸 저 마당에서 굴리면서 우리 손주하고 큰며느리하고 그걸 떼어내지 못 하고.)
107081 @1 으.(으.)
107081 #1 어멍은 잔뜩 막아부난게 트지 못 헤영 ᄉᆞ못 발로 디디멍덜 드러 허염십디다.(어머닌 잔뜩 막아버리니까 떼어내지 못 해서 사뭇 발로 디디면서 들이 하고 있습디다.)
107081 @1 음.(음.)
107081 #1 건 잘 막지 아녀민 아이 뒈는 거. 잘 막아야 뒈는 거.(건 잘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잘 막아야 되는 거.)
107081 @1 예, 게난 그거 헐 때 또 절벤 같은 경우에 그거 떼영 먹으민 안 뒌덴 이런 말도 이십디가?(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또 절편 같은 경우에 그거 떼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디까?)
107081 #1 아, 것도 잇어마씨.(아, 것도 있어요.)
107081 @1 건 뭐우꽈?(건 뭡니까?)
107081 #1 떼영 먹으면은 거 자기가, 먹은 사름이 아이 좋덴 허는 거라마씨.(떼서 먹으면 거 자기가, 먹은 사람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107081 @1 예.(예.)

107081 #1 거 떼영 먹으민게 그 영 생각헤 보면은 그 두 사름이 사는 건디 떼영 먹으민 이거 안 좋다. 그거에 대헹 곧는 거 닮아마씨.(거 떼서 먹으면 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두 사람이 사는 건데 떼어서 먹으면 이거 안 좋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같아요.)

107081 @1 으.(으.)

107081 #1 예, 거 둘이가 결혼헤영 둘이가 살면 거 떼영 먹으민 안 좋덴. 게난 떼지 아녑니다, 거.(예, 거 둘이가 결혼해서 둘이가 살면 떼서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니 떼지 않습니다, 거.)

107081 @1 음. 떼영먹을 때.(음. 떼서 먹을 때.)

107081 #1 이제는 떼영 먹지 말렌 허여 놓난에. 떼지 아녑니다.(이제는 떼서 먹지 말라고 해 놓으니까, 떼지 않습니다.)

107081 @1 게고 막떡 ᄀᆞ튼 것도 먹지 안 헌덴 허멍예?(그리고 '막떡' 같은 것도 먹지 안 한다고 하면서요?)

107081 #1 막떡[267] ᄀᆞ튼 것도 저 할망덜이나 먹주.('막떡' 같은 것도 저 할머니들이나 먹지.)

107081 @1 으.(으.)

107081 #1 예. 할망덜이나 먹주.(예. 할머니들이나 먹지.)

107081 @1 게난 아이들안테는 그 막떡 안 준덴 그런 말 헨게예.(그러니 아이한테는 그 '막떡' 안 준다고 그런 말 하지요?)

107081 #1 예, 예. 막 뭰 사름이나 먹읍주게.(예, 예. 막 된 사람이나 먹습지요.)

107081 @1 웃음.(웃음.)

107081 #1 막 뭰 사름이나.(막 된 사람이나.)

별식

107082 @1 삼춘, 이제는 그 별식 헹예, 수웨, 수웨도 하영 담아봅디가?(삼촌, 이제는 그 별식 해서요, 순대, 순대도 많이 담아봅디까?)

107082 #1 순대?(순대?)

107082 @1 으, 순대.(으, 순대.)

107082 #1 하, 순대사 무시거 담곡 대곡 헐 거 잇수과게?(하, 순대야 무엇 담고 대고 할 거 있습니까?)

107082 @1 어떤 식으로 허민 맛 좋는 거?(어떤 식으로 하면 맛 좋은 거예요?)

107082 #1 순대?(순대?)

107082 @1 음.(음.)

107082 #1 순대, 아 뒤집어근에 나 콜콜이 씻으주 두루 안 씻읍니다.(순대, 아 뒤집어서 제가 깨끗하게 씻지 덜 안 씻습니다.)

107082 @1 음.(음.)

267) '막떡'은 떡을 만들 때 맨 마지막으로 만드는 떡을 말한다.

107082 #1 막 저 밀가루로 막 씻곡 밀가루로 멧 번 씻당 소금으로 멧 번 씻엉 막 싯어근엥에 그거에 거 양념을 잘 헤야마씸.(막 저 밀가루로 마구 씻고 밀가루로 몇 번 씻다가 소금으로 몇 번 씻고 씻어서 그거에 거 양념을 잘 해야 해요.)

107082 @1 음.(음.)

107082 #1 양념을 그자 뒈지도 말곡 허여근에 그 저 무시거 저 그 저 그 순대에 기름 나온 거.(양념을 그저 되지도 말게 해서 그 저 무엇 저 그 저 그 순대에 기름 나온 거.)

107082 @1 음.(음.)

107082 #1 것ᄀᆞ라 무시거엔 무시거엔 허민 뒈커니? 거. 그거, 그것ᄀᆞ라 무신 미역귀.(것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 되겠니? 거. 그거, 그것보고 무슨 미역귀.)

107802 @1 미역귀.(미역귀.)

107802 #1 미역귀[268], 간씀.('미역귀', 횡격막.)

107082 @1 미역귀, 으.('미역귀', 으.)

107082 #1 그거, 그거 다져놔마씨.(그거, 그거 다져넣어요.)

107082 @1 아.(아.)

107082 #1 다져 놓고 그 양념을 잘 헤영마씸게.(다져 넣고 그 양념을 잘 해서요.)

107082 @1 예.(예.)

107082 #1 저 무신거 이 뭐 파여 무슨 뭐 무시거여, 무시거여 막 양념을 헤야 좁니다. 것도 양념허고 또시 밥.(저 무엇 이 뭐 파며 무슨 뭐 무엇이며. 무엇이며 마구양념을 해야 좋습니다. 것도 양념하고 또 밥.)

107082 @1 으.(으.)

107082 #1 밥 ᄒᆞ쏠 놓고.(밥 조금 넣고.)

107082 @1 예.(예.)

107802 #1 밥 ᄒᆞ쏠 놔근에 막 젓엉 손으로 막 젓엉 잘 허영근엥에 허여사, 오죽 맛 좁니까.(밥 조금 넣어서 막 저어서 손으로 막 저어서 잘 하고 해야, 오죽 맛 좋습니까?)

107082 @1 으.(으.)

107802 #1 집이서 헌 건 막 맛잇어마씨. 저 어디서 ᄑᆞ는 건게 그거 비니루 아니우꽈?(집에서 한 건 매우 맛있어요. 저 어디서 파는 거는 그거 비닐 아닙니까?)

107082 @1 예, 예.(예, 예.)

107082 #1 게주마는 집이서 허는 것덜은 맛 좋앙. 실펑덜 허염수과게? 이젠 안 헴주기. 아니 허여.(그렇지만 집에서 하는 것들은 맛이 좋아서. 싫어서 하나요? 이젠 안 하지. 안 해.)

107082 @1 게민 그 순대 만들젠 허면 그거는 큰베설로 허는 거우꽈? 족은베설로 허는 거우꽈?(그러면 그 순대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큰창자로 하는 겁니까? 작

268) '미역귀'는 돼지 내장의 한 부위로 생김새가 미역귀처럼 생긴 것을 말한다.

은창자로 하는 겁니까?)
107082 #1 큰베설 헌 거는 맛이 엇고 족은베설 헌 것이 맛 좁니다.(큰창자로 한 것은 맛이 없고 작은창자로 한 것이 맛이 좋습니다.)
107082 @1 아, 둘 다 족은베설예?(아, 둘 다 작은창자요?)
107082 #1 예.(예.)
107082 @1 족은베설에 헹 그 양념을 쏠 놓고 아까 미역귀는 뭐마씨?(작은창자에 해서 그 양념을 쌀 넣고 아까 간천엽은 뭐예요?)
107082 #1 미역귀 간쏨.(‘미역귀’ 횡격막.)
107082 @1 아, 미역귀 간쏨이 하나.(아, ‘미역귀’ 횡격막 하나.)
107082 #1 미역귀 간쏨 하나 뒙니다게, 뒈지 하나에 하나.(‘미역귀’ 횡격막 하나 됩니다, 돼지 하나에 하나.)
107082 @1 으.(으.)
107082 #1 게난 그것도 ᄒᆞ꼼 널러마씸, 게난.(그러니 그것도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107082 @1 으.(으.)
107082 #1 그거 문딱 ᄲᅳᆺ아 놩. 그거 문딱 썰어 놩. 다져근에 문딱 썰어 놩 다져근에. 다져근에 골로로 가게 다져 놔근에.(그거 모두 다져 넣고. 그거 모두 썰어 넣고. 다져서 모두 썰어 넣고 다져서. 다져서 골고루 가게 다져 넣어서.)
<중략>
107082 @1 게근에 그 미역귀 간썸도 헤 놓고 파 놓고 그다음에 저 뭐도 놓지 안 헙니까?(그렇게 해서 그 ‘미역귀’ 횡격막도 해 넣고 파 넣고 그다음에 저 뭐도 넣지 안 합니까?)
107082 #1 대산이 ᄀᆞ튼 거.(마늘 같은 거.)
107082 @1 어.(어.)
107082 #1 거 많이 놔야 맛이 잇어마씨.(거 많이 넣어야 맛이 있어요.)
107082 @1 으, 그다음에 그 피도 놓는 거 아니? 선지?(으. 그다음에 그 피도 넣는 거 아니에요? 선지?)
107082 #1 피 놔야 맛십주게.(피 넣어야 맛있습죠.)
107082 @1 으.(으.)
107082 #1 피 놔야. 피 ᄀᆞ치 서꺼근에.(피 넣어야. 피 같이 섞어서.)
107082 @1 서껑.(섞고.)
107082 #1 서꺼근엥에 문딱 그 반죽허여근에. 또시 저 그 잘 헹 먹젠 허민 또 저 무시것도 놓곡. 그 저.(섞어서 몽땅 그 반죽해서. 다시 저 그 잘 해서 먹으려고 하면 또 저 무엇도 넣고. 그 저.)
107082 @1 아이고.(아이고.)
107082 #1 뭣고, 잊어불엉 잘 ᄀᆞᆫ지 못허영 저 뭣고 그거 ᄒᆞ꼼 잘. 그것도 허젠 허민 힘들어근에.(뭐야, 잊어버려서 잘 말하지 못해 저 뭐지 그거 조금 잘. 그것도

하려면 힘들어서.)
107082 @1 음.(음.)
107082 #1 우리, 드러 허영 먹으멍 것도 몰란 안 ᄀᆞᆯ암서. 못 ᄀᆞᆯ암수게.(우리, 들이 해서 먹으면서도 것도 몰라서 안 말해. 못 말합니다.)
107082 @1 어떤 거우꽈?(어떤 겁니까?)
107082 #1 우리 저 무시거 허영 먹읍니다. 저 멩질에도 헤영 먹곡 제사에도 헹 먹곡.(우리 저 무엇 해서 먹습니다. 저 명질에도 해서 먹고 제사에도 해 먹고.)
107082 @1 두부?(두부?)
107082 #1 아니.(아니.)
107082 @1 저 당면?(저 당면?)
107082 #1 당면.(당면.)
107082 @1 으.(으.)
107082 #1 당면도 ᄒᆞ꼼 놓곡.(당면도 조금 넣고.)
107082 @1 으.(으.)
107082 #1 경허민 맛 좋아마씨.(그러면 맛 좋아요.)
107082 @1 음. 경 허영 거 다 담는 거 아니라마씨?(음. 그렇게 해서 거 다 담는 거 아니에요?)
107082 #1 예, 예.(예, 예.)
107082 @1 겐 거 숢젠 허민 어떵 헹 숢아마씨.(그럼 거 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삶아요?)
107082 #1 숢으는 건 물 팔팔 뀌여 놔근에.(삶는 건 물 팔팔 끓여 놓고.)
107082 @1 으.(으.)
107082 #1 그레 그레 고비고비로 고비 들이쳥 그 숢는 과정도 막 힘들어마씨.(거기에 거기에 곱이곱이 곱이 들이뜨리고 그 삶는 과정도 막 힘들어요.)
107082 @1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82 #1 숢는 것도 너미 많이 놔도 안 뒈고 너미 많이 담아도 안 뒈고.(삶는 것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되고.)
107082 @1 음.(음.)
107082 #1 너미 많이 담으민 터져 불곡.(너무 많이 담으면 터져 버리고.)
107082 @1 음.(음.)
107082 #1 게난 숢는 과정이고 담는 과정이고 잘 헤야마씨.(그러니 삶는 과정이고 담는 과정이고 잘 해야 해요.)
107082 @1 게민 어느 정도를 담아야 잘 뒈는 거라마씨?(그러면 어는 정도를 담아야 잘 되는 거예요?)
107082 #1 게난 요만이 지러기허민.(그러니까 요만한 길이면.)
107082 @1 음.(음.)
107082 #1 요만이랑 넹겨. 넹기민 그것이 영 퍼져근엥 골로로 가게.(요만큼 남

겨. 남기면 그것이 퍼져서 골고루 가게)

107082 @1 음.(음.)

107082 #1 거 익어 가민 거 저 벅찰 거 아니꽈?(거 익어 가면 거 벅찰 거 아닙니까?)

107082 @1 예, 예.(예, 예.)

107082 #1 경허난 그 놀ᄀᆞ르난. 겨난 그 담는 것도 수빡 담지 말앙 덜 담앙마씨. 덜 담앙.(그러니까 그 날가루니까. 그러니 그 담는 것도 가득 담지 말고 덜 담아요. 덜 담고.)

107082 @1 으.(으.)

107082 #1 덜 담앙 솖으민 아이고 그만이 맛 존 것이 어디 잇수과?(덜 담고 삶으면 아이고 그만큼 맛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7082 @1 음.(음.)

107082 #1 게난 잔치허민 요즘 잔치허민 그거 하나 잡앙 허주덜 그냥 그자 가근에 그 부페덜 강 허영 허는 거 보민 우스와, 춤.(그러니 잔치하면 요즘 잔치하면 그거 하나 잡고 하지들 그냥 그저 가서 그 뷔페들 가서 하고 하는 거 보면 웃겨, 참.)

107083 @1 음. 삼춘 둠비도 직접 헤 봔마씨?(음. 삼촌 두부도 직접 해 봤어요?)

107083 #1 예게, 나 결혼헐 때 두부 헷수게. 둠비 허연.(예, 제가 결혼할 때 두부 했습니다. 두부 하고.)

107083 @1 으, 그 옛날에예.(으, 그 옛날에요.)

107083 #1 그 옛날에게. 양 이 하 큰 디 이디 ᄋᆞ섯 밧디 잔치마씸게.(그 옛날에. 이보세요, 이 하 큰 데 여기 여섯 군데 잔치요.)

107083 @1 으.(으.)

107083 #1 양, 하르방 갑장에 우리 갑장에 헨에 ᄋᆞ섯 밧디 잔칠 허난 물이 어디 잇수과, 물 안 날 때.(이보세요, 남편 갑장에 우리 갑장에 해서 여섯 군데 잔칠 하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안 날 때.)

107083 @1 으.(으.)

107083 #1 물 안 날 때, 물 안 날 때 수돗물도 엇은 때난 저 군물[269]허고 저 구눈[270].(물 안 날 때, 물 안 날 때 수돗물도 없을 때니까 저 '군물'하고 저 '구눈'.)

107083 @1 으.(으.)

107083 #1 구눈이엔 헌 디 요 보성[271]디레 가는 디 눈은 이만이 묻으난 그거 장남들이 엿날은 장남덜도 경 하곡 허난 그거 ᄆᆞᆫ딱 그 저 무시걸로 삽가래로 다 그 눈 다 치와근에양, 치왕 도로미깡 ᄒᆞᆫ 집이 두 개썩 시 개썩 그거 다 빌어다 놩.('구눈'이라고 한 데 요 보성에 가는 데 눈은 이만큼 묻으니까 그거 장정들이 그렇게 많고 하니까 그거 몽땅 그 저 무엇으로 삽가래로 다 그 눈 다 치워서요, 치우고 드

269) '군물'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동쪽 지역인 662번지 '군물왓'에 있던 우물을 말한다.
270) '구눈'은 서귀포시 안덕면 보성리에 있는 지명이다.
271) '보성'은 서귀포시 안덕면 보성리를 말한다.

럼통 한 집이 두 개씩 세 개씩 그거 다 빌어다 놓고.)

107083 @1 음.(음.)

107083 #1 그것도양 그 부주로 다 그 물도 시꺼다 줘마씸. 부주로 물 시꺼다 줭 저 두부 헷수다.(그것도요 그 부조로 다 그 물도 다 실어다 줘요. 부조로 물 실어다 주니까 저 두부 했습니다.)

107083 @1 음.(음.)

107083 #1 나 시집, 결혼헐 때.(제가 시집, 결혼할 때.)

107083 @1 예.(예.)

107083 #1 우리 집이만. 이 집이만, 이 집이만.(우리 집에만. 이 집에만, 이 집에만.)

107083 @1 음. 겐 그거 만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두부는?(음, 그럼 그거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두부는?)

107083 #1 그거?(그거?)

107083 @1 예.(예.)

107083 #1 그거 콩 물 컷다근엥에.(그거 콩 물 담갔다가.)

107083 @1 음.(음.)

107083 #1 저 ᄀᆞ레에 ᄀᆞᆯ앙. ᄀᆞᆯ아근에 그걸 저 솖는 거마씸.(저 맷돌에 갈아서. 갈아서 그걸 저 삶는 거예요.)

107083 @1 예.(예.)

107083 #1 솖앙은엥에 저 익게끔, 익게끔 드러 젓으멍 솖으민 그걸 또시 또 그 포따리 이만이 큰 거 허여근엥에.(삶아서 저 익게끔, 익게끔 들이 저으면서 삶으면 그걸 다시 또 그 보따리 이만큼 큰 거 해서.)

107083 @1 으.(으.)

107083 #1 그거 소곱더레 그걸 문딱 담아마씨.(그거 속에 그걸 몽땅 담아요.)

107083 @1 예.(예.)

107083 #1 담앙 누들엉, 누들엉 놔두민 물은 나와 불곡 두부가 뒈는 거 아니우꽈.(담고 눌러서, 눌러서 놓아두면 물은 나와 버리고 두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7083 @1 물 좍 빼근에.(물 좍 빼서.)

107083 #1 게난 두부라도 멘들앙 먹어시민 생각도 납니다게. 집이 들어두서.(그러니까 두부라도 만들어 먹었으면 생각도 납니다. 집에 있으면서.)

107083 @1 예. 옛날 그 두부가 맛있어예? 둠비예.(예. 옛날 그 두부가 맛있어요? 두부요.)

107083 #1 예, 예. 너무 맛좋아마씨.(예, 예. 너무 맛좋아요.)

107083 @1 그추룩 허면 그 비제기들은 어떤 식으로 썬?(그처럼 하면 그 비지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어요?)

107083 #1 비제기덜은 뭐 뒈지도 주곡 또 ᄀᆞ져갈 사름은 ᄀᆞ져다근에 무신 국도 끌령 먹고 경헷수다.(비지들은 뭐 되지도 주고 또 가져갈 사람은 가져다가 무슨 국

도 끓여서 먹고 그랬습니다.)

107084 @1 음. 경허고예. 모멀묵은 어떵 쑤는 거우과?(음, 그러고요, 메밀묵은 어떻게 쑤는 겁니까?)

107084 #1 모멀묵도 간단헙니다게.(메밀묵도 간단합니다.)

107084 @1 으.(으.)

107084 #1 모멀묵은 우린 항상 허난 간단헙니다, 건.(메밀묵은 우린 항상 하니까 간단합니다, 건.)

107084 @1 음.(음.)

107085 #1 저 모멀도게 문딱 반죽허여근에.(저 메밀도 몽땅 반죽해서.)

107084 @1 으.(으.)

107084 #1 반죽허영, 모멀묵은 저 쑤는 것도 으라, 으라 종류 아니우꽝?(반죽해서, 메밀묵은 저 쑤는 것도 여러, 여러 종류 아닙니까?)

107085 @1 예.(예.)

107085 #1 저 청묵[272]도 쑤곡.(저 '청묵'도 쑤고.)

107085 @1 예.(예.)

107085 #1 청묵은 젭지랑.('청묵'은 쥐어짜서.)

107085 @1 으.(으.)

107085 #1 저 샤 허여근엥에 젭지라근엥에 쑤는, 쑤는 거고, 또시 또 저 어떠난 청묵은 문들락문들락[273] 안 좋아 벱니다. 어떠난산디.(저 망사 해서 쥐어짜서 쑤는, 쑤는 거고, 다시 또 저 어때선지 '청묵'은 '문들락문들락' 안 좋아 보입니다. 어때서인지.)

107085 @1 아.(아.)

107085 #1 게고 우린 무수가 하 놓난에 좋아 뵈질 아녀.(그리고 우린 무가 많아 놓으니까 좋아 보이질 않아.)

107085 @1 음.(음.)

107085 #1 경 헤근에 또 골아다근엥에 그냥 묵을 쑤곡.(그렇게 하고 또 갈아다가 그냥 묵을 쑤고.)

107085 @1 으.(으.)

107085 #1 묵 쒀근엥에 먹음도 허곡 올림도 허곡.(묵 쒀서 먹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107085 @1 음.(음.)

107085 #1 너무 많이 허는 따문마씸게. 많이 허는 따문. 이 흔 위에 세 개.(너무 많이 하는 때문에요. 많이 하는 때문. 이 한 위에 세 개.)

107085 @1 예.(예.)

107085 #1 세 고지. 세 고질 헤야.(세 꼬치. 세 꼬치를 해야.)

---

272) '청묵'은 메밀쌀을 물과 함께 자루에 담아 눌러서 나온 묽은 물로 만든 묵이다.

273) '문들락문들락'은 물건이 반드러워 거침없이 자꾸 빠져 나가는 모양의 부사어이다.

107085 @1 아. 위마다 다 ᄐᆞ로ᄐᆞ로 올려예? 묵을?(아. 위마다 다 따로따로 올려요? 묵을?)

107085 #1 우린 ᄯᅳ로ᄯᅳ로 헙니다.(우린 따로따로 합니다.)

107085 @1 아.(아.)

107085 #1 전부 다 ᄯᅳ로ᄯᅳ로 헙니다게. 다 ᄯᅳ로 헙니다.(전부 다 따로따로 합니다. 다 따로 합니다)

107085 @1 게민 고기적 같은 경우에도 다 ᄯᅳ로ᄯᅳ로 올립니까?(그러면 고기적 같은 경우에도 다 따로따로 올립니까?)

107085 #1 고기적갈은 ᄯᅳ로ᄯᅳ로 안 헙니다. 두 어른에 하나.(고기적은 따로따로 안 합니다. 두 어른에 하나.)

107085 @1 아. 두 어른에 하나 허곡.(아, 두 어른에 하나 하고.)

107085 #1 경 두 어른에 하나. 것도 다 짝그르게.(그렇게 두 어른에 하나. 것도 다 짝짝이가 되게.)

107085 @1 짝그르게 허곡.(짝짝이가 되게 하고.)

107085 #1 저 소궤기ᄁᆞ장 혜영 일곱 고지.(저 소고기까지 해서 일곱 꼬치.)

107085 @1 으.(으.)

107085 #1 저 ᄒᆞᆫ 정반에.(저 한 쟁반에.)

107085 @1 ᄒᆞᆫ 정반에.(한 쟁반에.)

107085 #1 ᄒᆞᆫ 정반에 일곱 고지.(한 쟁반에 일곱 꼬치.)

107085 @1 겐 멧 정반 올리는 거?(그럼 몇 쟁반 올리는 거?)

107085 #1 게난에 어, 세 정반.(그러니까 어, 세 쟁반.)

107085 @1 세 정반 올려예? 어.(세 쟁반 올려요? 어.)

107085 #1 세 정반.(세 쟁반.)

107085 @1 어.(어.)

107085 #1 두 어른씩 허영. 겐 ᄋᆞ섯.(두 어른씩 하고. 그렇게 여섯.)

107085 @1 ᄋᆞ섯.(여섯.)

107085 #1 ᄋᆞ섯허고 문은제[274]허민 일곱허고 경 헙니다.(여섯하고 '문은제'하면 일곱하고 그렇게 합니다.)

107085 @1 문은제까지예.('문은제'까지요.)

107085 #1 예.(예.)

107085 @1 그러면은 아까 묵은 ᄯᅳ로 올린덴 허민 묵은 멧 개, 멧 개?(그러면 아까 묵은 따로 올린다고 하면 묵은 몇 개, 몇 개?)

107085 #1 묵 세 가지. 저 세, 세 개 굽에 놔 가지고.(묵 세 가지. 저 세, 세 개 굽에 놓아 가지고.)

107085 @1 예.(예.)

107085 #1 따시 그 우터레 저 무시걸 올리는 거라마씸. 저 그 적갈.(다시 그 위

274) '문은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는데, '문전제', '문제'라고도 한다.

로 저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저 그 적.)
107085 @1 적갈을?(적을?)
107085 #1 예, 적갈을 그 우터레 일곱 고지 올려마씸.(예, 적을 그 위에 일곱 꼬치 올려요.)
107085 @1 음.(음.)
107085 #1 게난 다 그거 짝그르게 허는 거마씸.(그러니까 다 그거 짝짝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107085 @1 짝그르게 묵 세 개, 정반마다 세 개씩 헹.(짝짝이가 되게 묵 세 개, 쟁반마다 세 개씩.)
107085 #1 예예, 세 개씩 놔나근에.(에예, 세 개씩 놓아두고.)
107085 @1 예.(예.)
107085 #1 다 짝그르게.(다 짝짝이가 되게)
107086 @1 게근에 허고, 개역은 언제 허는 거?(그렇게 해서 하고, 미숫가루는 언제 하는 거?)
107086 #1 개역?(미숫가루?)
107086 @1 으.(으.)
107086 #1 개역은 뭐 으름에.(미숫가루는 여름에.)
107086 @1 여름에.(여름에.)
107086 #1 여름에.(여름에.)
107086 @1 개역 혼 번 만들어 봅서, 어떵 만드는지.(미숫가루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107086 #1 양?(예?)
107086 @1 개역 만들어 봐.(미숫가루 만들어 봐.)
107086 #1 개역, 개역은 뭐 그냥 ᄑᆞ는 건 저 무시거 그 보리만 곤 거주만은. 보리, 보리쏠. 보리, 보리쏠이 아니고 보리.(미숫가루, 미숫가루는 뭐 그냥 파는 건 저 무엇 보리만 간 거지만. 보리, 보리쌀. 보리, 보리쌀이 아니고 보리.)
107086 @1 예.(예.)
107086 #1 보리 보까근엥에 ᄀᆞᆯ아오는 거고.(보리 볶아서 갈아오는 거고.)
107086 @1 으.(으.)
107086 #1 우리가 잘 헹 먹젠 허민 그디 저 검은콩에 ᄯᅮ시 꿰는 노민 안 좋아마씸게.(우리가 잘 해서 먹으려고 하면 거기 저 검은콩에 다시 참깨는 넣으면 안 좋아요.)
107086 @1 으.(으.)
107086 #1 검은콩에 또시 그 저 보리쏠에 또 춥쏠에.(검은콩에 다시 그 저 보리쌀에 또 찹쌀에.)
107086 @1 으.(으.)
107086 #1 경 헨 세 가지. 세 가지 허민 거 맛좁디다.(그렇게 해서 세 가지. 세

가지 하면 거 맛좋습디다.)
107086 @1 음. 거긴 보린 안 놓고?(음. 거긴 보린 안 넣고요?)
107086 #1 보리도 놓고.(보리도 넣고.)
107086 @1 아, 보리도 놓은 데 콩도 놓고예?(아, 보리도 넣은 데 콩도 넣고요?)
107086 #1 콩도 놓곡. 그레 문 세 가지 놘에 허난. 찹쏠에.(콩도 넣고. 거기에 모두 세 가지 넣고 하니까. 찹쌀에.)
107086 @1 예.(예.)
107086 #1 찹쌀도 저 보깡 다 보깡 놩. 게난 그건 저 나가 무사 헤 봐신고 허민 큰아덜네 손지가 밥을 잘 안 먹으난에.(찹쌀도 저 볶아서 다 볶아 넣고. 그러니까 그건 저 제가 왜 해 봤는지 하면 큰아들의 손주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107086 @1 으.(으.)
107086 #1 경 헤연에 ᄋᆞ정간에 멕이멍 살앗수다게.(그렇게 해서 가져가 먹이면서 살았습니다.)
107086 @1 아.(아.)
107086 #1 저 서울 간에.(저 서울 가서.)
107086 @1 서울 강.(서울 가서.)
107086 #1 너 경 허영 키왕 놔두난에 너 이제도 맹멩헴나? 나 그추룩 ᄀᆞᆯ아집니다.(너 그렇게 해서 키워 놓으니까 너 이제도 맹맹하니? 제가 그처럼 말해집니다.)
107086 @1 하하. 삼춘 게믄 손지 보러 서울 갓다 완?(하하. 삼촌 그러면 손주 보러 서울 갔다 왔어요?)
107086 #1 아니, 요즘은 안 갓다 오고.(아니, 요즘은 안 갔다 오고.)
107086 @1 요즘은 안 가고.(요즘은 안 가고.)
107086 #1 저 아덜이 갓다 왓다 허난 난 아이 가왓수다.(저 아들이 갔다 왔다 하니까 전 안 가왔습니다.)
107086 @1 예.(예.)
107086 #1 아이 갓다 완.(안 갔다 왔어.)
107087 @1 그다음에는 지지미?(그다음엔 지짐이?)
107087 #1 지지미?(지짐이?)
107087 @1 으.(으.)
107087 #1 지지미가 뭐 저 무시거 뭐 밀가루로라도 그 저 ᄋᆞ름에 다닙서. ᄋᆞ름에 다니민 나가 막 힘들어양. 저 무시것이 엇어. 숙이 엇엉.(지짐이가 뭐 저 무엇 뭐 밀가루라도 그 저 여름에 다니면 제가 막 힘들어요. 저 무엇이 없어. 쑥이 없어서.)
107087 @1 음.(음.)
107087 #1 여름에 막 여름엔 막 ᄋᆞ라번 먹엇수다게.(여름에 자주 여름엔 자주 여러 번 먹었습니다.)
107087 @1 아.(아.)

107087 #1 여름에 그거 헤다근에 확허게 데우쳥 허민양.(여름에 그거 해다가 확하게 데쳐서 하면요.)

107087 @1 예.(예.)

107087 #1 거 흔 번 먹을 거만씩 데우쳥 놔뒷당은에 그거 밀카루레 타근엥에 지지미 허민 막 맛 좋아. 그것이.(거 한 번 먹을 거만큼 놓아뒀다가 그거 밀가루에 섞어서 지짐이 하면 막 맛 좋아. 그것이.)

107087 @1 아, 쑥을?(아, 쑥을?)

107087 #1 예. 그것이 떡보다 더 맛좋아. 지지미가 그겁주게.(예, 그것이 떡보다 더 맛좋아. 지짐이가 그겁지요.)

107087 @1 음.(음.)

107087 #1 지지미. 아무 지지미도 그자 뭐 밀가루만 지져도 지지미.(지짐이. 아무 지짐이도 그저 뭐 밀가루만 지져도 지짐이.)

107087 @1 음.(음.)

107087 #1 또 다른 거 놔도 지지미. 다른 걸로 지져도 지지미.(또 다른 거 넣어도 지짐이. 다른 걸로 지져도 지짐이.)

107087 @1 음.(음.)

107087 #1 뭐 지지미는 마찬가지주.(뭐 지짐이는 마찬가지지.)

107088 @1 지지미는 마찬가지. 삼춘 오메기술도 헤 봔마씨?(지짐이는 마찬가지. 삼촌 '오메기술'도 해 봤어요?)

107088 #1 오메기술[275]?('오메기술?)

107088 @1 으.(으.)

107088 #1 오메기술은게 하르방[276]이 이장 뎅겨 놓난게 그걸 허여사 저 무시거게 그 강 제 지낼 거 아니우꽈게.('오메기술'은 남편이 이장 해 놓으니까 그걸 해야 저 무엇 그 가서 제 지낼 거 아닙니까?)

107088 @1 예, 아.(예, 아.)

107088 #1 예, 제 지낼 거.(예, 제 지낼 거.)

107088 @1 그 오메기술을 한 번 만들어 봅서.(그 '오메기술' 만들어 보세요.)

107088 #1 오메기, 오메기술은 그 저 검은좁쌀 사다근에.('오메기', '오메기술'은 그 저 차조 사다가.)

107088 @1 예.(예.)

107088 #1 검은좁쌀 사다근에 시쳐근에 강 골아다근에 그걸 쪄근에 동글락허게 멘들앙 가운데 고망 뚤라지게양.(차조 사다가 씻고 가서 갈아다가 그걸 찧어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구멍 뚫어지게요.)

107088 @1 음.(음.)

107088 #1 만들아근엥에 그것도 댓가지 놔근에.(만들어서 그것도 댓가지 놓아

275) '오메기술'은 차좁쌀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으로 빚은 술이다.

276)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서.)

107088 @1 예.(에.)

107088 #1 댓가지 놔근에 굽에 저 부뜨지 말게 댓가지 영 놔근에 그걸로 영 흔둘루민 안 부뜹니다.(댓가지 놓고 굽에 저 붙지 말게 댓가지 이렇게 놓고 그걸로 이렇게 휘두르면 안 붙습니다.)

107088 @1 아.(아.)

107088 #1 경 허여근에 그걸로 술 만들아근엥에 그거 저 청주.(그렇게 해서 그걸로 술 만들어서 그거 저 청주.)

107088 @1 예.(예.)

107088 #1 우티레 골라앚져근엥에 두불, 또시 두불 헤여 놩.(위로 가라앉혀서 두벌, 다시 두벌 해 놓고.)

107088 @1 으.(으.)

107088 #1 초불 헤영 궤민 따시 또 허여당 또 두불 허영 그거 흔 둬 뒈 서넉 뒈민 먹읍니다게.(초벌 하고 끓으면 다시 또 해다가 두벌 하고 그거 한 둬 되 서너 되면 먹습니다.)

107088 @1 음.(음.)

107088 #1 저 큰제[277] 지나젠 허민.(저 '큰제' 지내려고 하면.)

107088 @1 예.(예.)

107088 #1 저 어디 포제단에 큰제 지나젠 허민. 경 헤연 헤낫수다게.(저 어디 포제에단 '큰제' 지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7088 @1 음.(음.)

107088 #1 경 허멍 드러 아니 헤여 난 거 엇이 들구 허멍 살앗수다.(그렇게 하면서 들이 아니 했던 거 없이 계속 하면서 살았습니다.)

107088 @1 그럼 우에 거는 청주,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아니라예?(그럼 위에 거는 청주,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아닙니까?)

107088 #1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우이로 거려 뒁, 거려 둬근에 아래 건 먹고.(청주로 제 지내는 거. 위로 떠 두고. 떠 두고 아래 건 먹고.)

107088 @1 게민 아래 거는 뭐렌 골아?(그러면 아래 거는 뭐라고 말해요?)

107088 #1 아래 건 건 뭰술[278].(아래 건 건 '된술'.)

107088 @1 아, 거 뭰술.(아, 거 '된술'.)

107088 #1 예, 뭰술.(예, '된술'.)

107088 @1 청주 거렁근에 남은 술이 뭰술이우과?(청주 뜨고 남은 술이 '된술'입니까?)

107088 #1 예. 뭰술 그거 확확허게 젓어근엥에 저 놀레 온 하르방덜토 안네곡 저 먹엇수다게.(예. '된술' 그거 확확하게 저어서 저 놀러 온 할아버지들 드리고 저

277) '큰제'는 '포제'를 뜻하는데 마을을 지키는 신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278) '뭰술'은 차조를 발효해서 만든 청주에서 맑은 술인 청주를 뜨고 난 후, 남은 술지게미에 어느 정도 술이 섞이게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먹었습니다.)

107088 @1 음. 겐 건 청주고, 그다음 그 오메기술은 그냥 뭐 탁베기, 밑에 건 탁베기렌도 헤?(음. 그건 건 청주고, 그다음 그 '오미기술'은 그냥 뭐 막걸리, 밑에 건 막걸리라고도 해요?)

107088 #1 탁베긴 거 거려나지 아년 것이 탁베기주.(막걸린 거 뜨지 않았던 것이 막걸리지.)

107088 @1 아, 거려나지 안 헌 거.(아, 뜨지 안 한 거.)

107088 #1 예.(예.)

107088 @1 거려 불면 나머지는 뭰술이고?(거려 버리면 나머지는 '된술'이고?)

107088 #1 예, 뭰술.(예, '된술'.)

107088 @1 우에 거는 청주.(위에 거는 청주.)

107088 #1 예, 청주마씨. 그건 쓰젠, 쓰젠 그건 옛날에 뒛병으로.(예, 청주요. 그건 쓰려고, 쓰려고 그건 옛날에 됫병으로.)

107088 @1 으.(으.)

107088 #1 세 개만 허영 놔두민 걸로 ** 씁니다게. 큰제 지나젠 허민.(세 개만 해서 놓아두면 걸로 ** 씁니다. '큰제' 지내려고 하면.)

107089 @1 음. 그다음에 삼춘예. 순다리, 쉰다리?(음. 그다음에 삼촌. '순다리', '쉰다리'?)

107089 #1 순다린[279] 막 좋아허난양 밥만 잇이민 헤져마씸.('순다린' 막 좋아하니까요 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07089 @1 아, 건 어떤 식으로 허민 뒈는 거우꽈?(아, 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107089 #1 그건 거 쉬웁니다게.(그건 거 쉽습니다.)

107089 @1 예.(예.)

107089 #1 게난 저 노인당에 뎅길 때 밥 남으민게 나 줍니다게.(그러니까 저 노인당에 다닐 때 밥 남으면 저 줍니다.)

107089 @1 예.(예.)

107089 #1 나 주민 ᄀᆞ져오라근에 막 하영 헤영 ᄀᆞ져가마씨.(제게 주면 가져와서 아주 많이 해서 가져가요.)

107089 @1 예.(예.)

107089 #1 게난게 저 누룩, 저 장에 강 누룩 사다근에.(그러니 저 누룩, 저 장에 가서 누룩 사다가.)

107089 @1 음.(음.)

107089 #1 사다근에 독독독독 ᄲᆞᆺ아근엥에 놔뒷다근엥에 그거 물 ᄒᆞ꼼 저 매지근이 데와사 것도 좁디다.(사다가 톡톡톡톡 부숴 놓았다가 그거 물 조금 저 매지근하게 데워야 것도 좋습니다.)

279)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인데, 달리 '쉰다리'라고 한다.

107089 @1 아.(아.)

107089 #1 메지근이 데왕 저 재기, 저 하영 데와불면은 그 누룩이 죽어 불고.(매지근하게 데워서 저 빨리, 저 많이 데워버리면 그 누룩이 죽어 버리고.)

107089 @1 음.(음.)

107089 #1 그 발이 죽어 불고, 메지근이 데왕 이제라도 메지근이 데왕 허민 으라 날 헤사 켑니다게, 추워 부난.(그 곰팡이가 죽어 버리고, 매지근하게 데워서 이제라도 매지근하게 데워서 하면 여러 날 해야 끓습니다, 추워 버려서.)

107089 @1 음.(음.)

107089 #1 경 헤근에 그거 허여근에 저 무시거 막 무르쥐영[280] 놔두민 거 순다리 뒈는 거 아니우꽈?(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저 무엇 막 '무르쥐서' 놓아두면 거 '순다리' 되는 거 아닙니까?)

107089 @1 경 허민 그대로 그거 먹는 거마씨? 아니며 데왕 먹어?(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거 먹는 거예요? 아니면 데워서 먹어요?)

107089 #1 아니, 그냥 먹는 거.(아니, 그냥 먹는 거.)

107089 @1 아, 그냥 먹는 거.(아, 그냥 먹는 거.)

107089 #1 씨원히 그냥 먹어.(시원하게 그냥 먹어.)

107089 @1 씨원히, 아.(시원하게, 아.)

107089 #1 그냥 먹어. 설탕 놓곡.(그냥 먹어. 설탕 넣고.)

107089 @1 설탕 놓곡.(설탕 넣고.)

107089 #1 예.(예.)

107089 @1 궤여야 먹는 거우꽈?(괴어야 먹는 겁니까?)

107089 #1 궤여야 먹는 거마씨. 부그락이 우터레 올라왕 허민 궤여야마씸.(괴어야 먹는 거예요. 부걱부걱 위로 올라오고 하면 괴어야 해요.)

107089 @1 누룩은 어느 정도 놓민 궤는 거우꽈?(누룩은 어느 정도 넣으면 괴는 겁니까?)

107089 #1 누룩은 그자 적당히 놓을 만이. 요거민 궤겟다 허영 적당히 놀 만이.(누룩은 그저 적당하게 넣을 만큼. 요거면 괴겠다 하고 적당히 넣을 만큼.)

107089 @1 삼춘은 적당히 주만은 나는 모를 거 닮은디. 밥 어느 정도에 얼만큼 헌 거.(삼촌은 적당히 지만 저는 모를 거 같은데, 밥 어느 정도에 얼마만큼 한 거.)

107089 #1 아, 게난 하영 놓민 좋지 아여곡게. 족영 놔도 궤지 아녀고. 게난 옛날양 그 보리 홀틀 때에 먹어볼 것이 엇으난.(아,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좋지 않고. 적게 넣어도 괴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이요 그 보리 홅을 때 먹어볼 것이 없으니까.)

107089 @1 으.(으.)

107089 #1 그 저 순다리 허멍 먹엇수게, 옛날에. 보리 홀틀 때. 놉 빌엉 보리 홀트난. 놉 빌엉 기계, 두 저 기계 두 개도 대영 홀트고.(그 저 '순다리' 하면서 먹었

280) '무르쥐다'는 '짓무르게 주무르다.'를 뜻하는데, 달리 '무르데기다', '무르쥐다'라고도 한다.

습니다, 옛날에. 보리 홅을 때. 놉 빌어서 보리 홅으니까. 놉 빌어서 기계, 두 저 기계 두 개도 대서 홅고.)

107089 @1 예.(예.)

107089 #1 그냥 거 알아집니까, 그 보리 홀타난 거?(그냥 거 알아집니까, 그 보리 홅았던 거?)

107089 @1 영, 보리클.(영, 보리그네.)

107089 #1 보리클 허영 영 영 허는 거.(보리그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07089 @1 예, 예.(예, 예.)

107089 #1 그거양 이디 기계 두 개썩 대영 홀타낫수다.(그거요 여기 기계 두 개씩 대서 홅았었습니다.)

107089 @1 으.(으.)

107089 #1 홀탕은에 허민 먹을 것이 잇수과게. 먹을 것이 엇이난에 그 순다리 저 그 무시거 밥은 경 또 하영 헤져.(홅아서 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순다리' 저 그 무엇 밥은 그렇게 또 많이 해지고.)

107089 @1 음.(음.)

107089 #1 또 저 무시거, 저 그 저 무시거 헤다근엥 저 미숫ᄀᆞ루 헤다근에.(또 저 무엇, 저 그 저 무엇 해다가 저 미숫가루 해다가.)

107089 @1 예.(예.)

107089 #1 미숫ᄀᆞ루 헤당 캉도 먹곡 순다리도 허곡.(미숫가루 해다가 타서도 먹고 '순다리'도 하고.)

107089 @1 음.(음.)

107089 #1 겐 그걸로, 그걸로 간식이라마씸게, 옛날은.(그렇게 그걸로, 그걸로 간식이에요, 옛날은.)

107089 @ 음.(음.)

107089 #1 이젠 ᄉᆞ뭇 간식이 벨 거 다 나와도. 엿날이사 간식헐 것이 잇어낫수가?(이젠 사뭇 간식이 별 거 다 나와도. 옛날에야 간식할 것이 있었습니까?)

107089 @1 그때 밥헐 때 옛날에는 ᄒᆞ꼼 영 쉬어야 순다리 헌덴 허지 안 헷수과? 이제는 그런 거 아니.(그때 밥할 때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쉬어야 '순다리' 한다고 하지 안 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아니.)

107089 #1 아니. 그냥 헙니다게.(아니. 그냥 합니다.)

107089 @1 그냥 헤도 잘 뒈예, 예.(그냥 해도 잘 돼요, 예.)

107089 #1 쉰 거는 그거 어짜피 쉰 거 이거 순다리나 헤여 불주, 경 허주.(쉰 거는 그거 어차피 쉰 거 이거 '순다리'나 해 버리지, 그렇게 하지.)

107089 @1 음.(음.)

107089 #1 이제사 뭐 순다리 헐 바에야 싱싱헌 거 허영 먹주.(이제야 뭐 '순다리' 할 바에야 싱싱한 거 하고 먹지.)

107090 @1 맞아. 그다음 누룩도 직접 만들어 봔? 삼춘?(맞아. 그다음 누룩도 직

접 만들어 봤어요? 삼촌?)

107090 #1 누룩도 만들앗수다게.(누룩도 만들었습니다.)

107090 @1 예, 누룩은 어떵 만듭니까?(예, 누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90 #1 누룩은 그거 저 손으로, 손으로 만드나.(누룩은 그거 저 손으로, 손으로 만드나.)

107090 @1 으.(으.)

107090 #1 그 물 놔근에 손으로 만드나 그 사발러레.(그 물 넣어서 손으로 만드나 그 사발에.)

107090 @1 예.(예.)

107090 #1 사발러레.(사발에.)

107090 @1 예.(예.)

107090 #1 사발에 뭐 끌아근에. 뭐 험벅이나 뭐 비니루사 옛날에 셔서.(사발에 뭐 깔아서. 뭐 헝겊이나 뭐 비닐이야 옛날에 있었어.)

107090 @1 으.(으.)

107090 #1 험벅 끌아근엥에 그걸 꼭꼭 누둘어근에 비우민 거 곱닥허게 뒙니다게.(헝겊 깔아서 그걸 꼭꼭 눌러서 비우면 거 곱다랗게 됩니다.)

107090 @1 게난 거 무신걸로 멘드는 거? 누룩은?(그러니까 거 무엇으로 만드는 거? 누룩은?)

107090 #1 거 저 보리 골앙.(거 저 보리 갈아서.)

107090 @1 예.(예.)

107090 #1 그 옛날엔 거 보리 골안도 헷주만은 보리 까까난 ᄀᆞ루.(그 옛날에 거 보리 갈아서도 했지만 보리 도정했던 가루.)

107090 @1 예.(예.)

107090 #1 거 헤양헌 거 거 나옵니다. 헤양헌 거 흔 펜으로 나왕 말쩨에. 말쩨 나온 거 그걸로 만들앗수다. 그걸로.(하얀 거 거 나옵니다. 하얀 거 한 쪽으로 나와서 말째에, 말째 나온 거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107090 @1 예.(예.)

107090 #1 하양헌 거 그걸로 만들안에 순다리 저, 거 누룩 헹 놔 뒷수다.(하얀 거 그걸로 만들어서 '순다리' 저, 거 누룩 해서 놓아 뒀습니다.)

107090 @1 게믄 그것만 만들면 반죽만 헹 놔두면 누룩이 뒈는 거라마씨?(그러면 그것만 만들면 반죽만 해서 놓아두면 누룩이 되는 거예요?)

107090 #1 반죽허영은엥에 틔와사 뒐 거 아니꽈.(반죽해서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107090 @1 아, 틔와근에.(아, 띄워야.)

107090 #1 틔와야. 틔와근엥에 ᄀᆞᆯᄀᆞᆯ 싯어근에 ᄆᆞᆯ령 놔둬두서 그거 뺏앙 놔둬두서 걸로.(띄워야. 띄워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 놓아두면서 그거 부셔 놓아두면서 걸로.)

107090 @1 음. 그거 어느 정도 허면 거 만들 수가 잇어마씨?(음. 그거 어느 정도 하면 거 만들 수가 있어요?)

107090 #1 뭣을?(뭣을?)

107090 @1 만들앙은에 허면 메칠 지나면은 누룩이 나오는 거?(만들어서 하면 며칠 지나면 누룩이 나오는 거?)

107090 #1 그건 저 놈에도 가곡 어디 가냥험에도 가곡, 이 겨울철에는 오래가곡.(그건 저 놓아둠에도 가고 어디 간수함에도 가고, 이 겨울철에는 오래 가고.)

107090 @1 예.(예.)

107090 #1 오래 셔사 트고.(오래 있어야 뜨고.)

107090 @1 음.(음.)

107090 #1 여름엔 빨리 터마씨. 빨리 쉬지 아녑니까?(여름엔 빨리 떠요. 빨리 쉬지 않습니까?)

107090 @1 예.(예.)

107090 #1 경허난 빨리 쉬난 그걸. 봄가을에가 만들기가 좋읍니다.(그러니까 빨리 쉬니까 그걸. 봄가을에가 만들기가 좋습니다.)

107090 @1 봄가을에예.(봄가을에요.)

107090 #1 봄가을에 그 가을 들민 저 보리덜 막 짓젠 허지 아녑니까?(봄가을에 그 가을 들면 저 보리들 마구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107090 @1 으.(으.)

107090 #1 보리 수뭇 멧 도로무썩 져 오민 거 곱닥헌 걸로 거령 놔뒁당 거 누룩 헷수다게.(보리 사뭇 몇 드럼씩 져서 오면 거 곱다란 걸로 떠 놓아두었다가 거 누룩 했습니다.)

107090 @1 음.(음.)

107090 #1 걸로 누룩 헹 드러 보리 훌툴 때도 먹곡 헷수다게.(걸로 누룩 해서 들이 보리 훑을 때도 먹고 했습니다.)

107090 @1 게민 그 누룩 허면 곰팡이가 날 거 아니우꽈예. 어떤 곰팡이 나야 좋은 거?(그러면 그 누룩 하면 곰팡이가 날 거 아닙니까. 어떤 곰팡이 나야 좋은 거?)

107090 #1 붉은곰팡이가 나사 좋은 거마씨.(붉은곰팡이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107090 @1 아, 붉은곰팡이예.(아, 붉은곰팡이요.)

107090 #1 붉은곰팡이가 나사 좋은 거.(붉은곰팡이기 나와야 좋은 거.)

107091 @1 엿도 만들아봣수과?(엿도 만들어봤습니까?)

107091 #1 아이고, 엿이사 만들당도 버쳣주.(아이고, 엿이야 만들다가도 부치지.)

107091 @1 어떤 엿 만드는 거?(어떤 엿 만드는 거?)

107091 #1 엿, 뒈지엿도 허곡게.(엿, 돼지엿도 하고.)

107091 @1 음.(음.)

107091 #1 저 독엿도 허곡. 독엿도 허곡 헷수다게.(저 닭엿도 하고. 닭엿도 하고

했습니다.)
107091 @1 엿은 보통 어느 철에 멘들아마씨?(엿은 보통 어는 철에 만들어요?)
107091 #1 엿은 이제마씨, 이제.(엿은 이제, 이제.)
107091 @1 아, 이제.(아, 이제.)
107091 #1 이제가 저 철이 좋앗수다게.(이제가 저 철이 좋았습니다.)
107091 @1 으.(으.)
107091 #1 덥지 아녀곡 이제 허는 건.(덥지 않고 이제 하는 건.)
107091 @1 엿 하나 만들아 봅서. 뒈지, 뒈지고기엿이 젤 좋은 거?(엿 하나 만들어 보세요. 돼지, 돼지고기엿이 젤 좋은 거?)
107091 #1 뒈지고기엿 좋은 거주게.(돼지고기엿이 좋은 거지.)
107091 @1 거 만들어 봅서게. 순서대로 물, 밥헐 때부터.(거 만들어 보세요. 순서대로 물, 밥할 때부터.)
107091 #1 밥 저 무시거. 이젠양 좁쏠이 너무 비싸 놓난게. 좁쏠이 너미 비싸 놓난에 그 저 골 흔 뒈민, 골 흔 뒈민 좁쏠 두 뒈.(밥 저 무엇. 이제는요 좁쌀이 너무 비싸 놓으니까. 좁쌀이 너무 비싸 놓으니까 그 저 엿기름 한 되면 좁쌀 두 되.)
107091 @1 음.(음.)
107091 #1 좁쏠 두 뒈 허여근엥에 사다근엥에 그 좁썰밥을 헤마씸.(좁쌀 두 되 해서 사다가 그 조밥을 해요.)
107091 @1 으.(으.)
107091 #1 흐랑허게.(물렁하게.)
107091 @1 으.(으.)
107091 #1 그 죽보단 아주 얄룹게.(그 죽보다 아주 엷게.)
107091 @1 예.(예.)
107091 #1 아주 얄룹게 헤여근엥에 거 좀 식어야마씨.(아주 엷게 해서 거 좀 식어야 해요.)
107091 @1 예.(예.)
107091 #1 식으면은 그 골을 놓는 거라마씸. 골을 놔근엥에 젓엉 놔두민 것도 부락허여근에 또.(식으면 그 엿기름을 넣는 거예요. 엿기름을 넣고 저어서 놓아두면 것도 보각해서 또.)
107091 @1 으.(으.)
107091 #1 것도 저 올라와근엥에 것도 궤여사.(것도 저 올라와서 것도 괴어야.)
107091 @1 예.(예.)
107091 #1 궤면은 저 젭지랑근에.(괴면 저 쥐어짜서.)
107091 @1 음.(음.)
107091 #1 젭지랑근엥에 문딱 젭지랑근엥에 앗아둬근엥에 궤기 썰어근엥에.(쥐어짜서 몽땅 쥐어짜서 가져두고 고기 썰어서.)
107091 @1 으.(으.)

107091 #1 솖으멍 놓는 거마씸.(삶으면서 넣는 거예요.)

107091 @1 음.(음.)

107091 #1 솖으멍. 그 좀 솖당 노난양 과들락허영 궤기가 안 뒈컵디다.(삶으면서. 그 좀 삶다가 넣으니까요 뻣뻣해서 고기가 안 되겠습디다.)

107091 @1 아.(아.)

107091 #1 그 혼디 놓면은 허랑헌[281] 냥 잇고.(그 함께 넣으면 '허랑한' 냥 있고.)

107091 @1 음.(음.)

107091 #1 경 허난 이거는 엿 허는 사름덜이 알아근에 이건 그자 솖으멍 그자 곧 솖으멍 놔야 뒈겟다, 경 생각헤집니다.(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엿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건 그저 삶으면서 그저 삶으면서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107091 @1 게믄 그 솖으는 거는 물에 솖앙은에 거기 놓는 거마씨? 아니면 엿에 ᄀᆞ치 딸리는 거?(그러면 그 삶는 거는 물에 삶아서 거기 넣는 거예요? 아니면 엿에 같이 다리는 거?)

107091 #1 엿에 놩 ᄀᆞ치.(엿에 넣고 같이.)

107091 @1 아, 엿에 놩 ᄀᆞ치 익히는 거?(아, 엿에 넣고 같이 익히는 거?)

107091 #1 예, 엿에 놩 딸리는 거마씸.(예, 엿에 넣고 다리는 거예요.)

107091 @1 으.(으.)

107091 #1 엿드레 곧 솖을 때에.(엿에 곧 삶을 때에.)

107091 @ 솖을 때에.(삶을 때에.)

107091 #1 예. 문딱 젭지라근에 그 주셍인 버리곡. 주셍인 버리고 그 엿더레 ᄀᆞ치 놔근에.(예. 몽땅 쥐어짜서 그 찌꺼기는 버리고. 찌꺼긴 버리고 그 엿에 같이 넣어서.)

107091 @1 음. 게민 그 엿 허젠 허민 아까 골도 멘들아야 헐 거 아니예?(음. 그러면 그 엿 하려고 하면 아까 엿기름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7091 #1 골?(엿기름?)

107091 @1 음.(음.)

107091 #1 골 ᄑᆞ는 거 잇수게.(엿기름 파는 거 있어요.)

107091 @1 아, 풀고. 삼춘은 직접 안 만들아 봔?(아, 팔고. 삼촌은 직접 안 만들어 봤어요?)

107091 #1 아이고, 만들아봣수다게. 만들단도 버쳣주, 엿날에.(아이고, 만들어봤습니다. 만들다가도 부쳤지, 옛날에.)

107091 @1 그 골은 어떵 만들아?(그 골은 어떻게 만들어?)

107091 #1 골은, 골은 그 저 시리 잇지양, 시리.(엿기름은, 엿기름은 그 저 시루 있지요, 시루.)

281) '허랑하다'는 끈기 있는 물건이 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무른 상태를 말한다.

107091 @1 예.(예.)
107091 #1 시리에 그 저 물 둥갓당.(시루에 그 저 물 담갔다가.)
107091 @1 으.(으.)
107091 #1 그 저 그 보리를 물 둥갓당. 맥주보리 물 둥갓당은에 물 흠박이 둥가근엥에, 거 물 둥가근에 그만 허민 뒈켜, 헨에 시리굽에 영 저 무시거 끌앙마씨.(그 저 그 보리를 물에 담갔다가. 맥주보리 물에 담갔다가 물 흠뻑 담갔다가, 거 물 담갔다가 그만 하면 되겠다, 하면 시루바닥에 이렇게 저 무엇 깔아요.)
107091 @1 으.(으.)
107091 #1 그 저 험벅, 험벅을 끌앙 담앙마씨. 담아근엥에 그거 나둬둠서 물르민 물주곡 물르민 물주곡 허민 요만은 나옵니다게.(그 저 헝겊, 헝겊을 깔고 담아요. 담아서 그거 놓아두면서 마르면 물주고 마르면 물주고 하면 요만큼 나옵니다.)
107091 @1 으, 으.(으, 으.)
107091 #1 경 허민 너는 거 건.(그렇게 하면 너는 거 건.)
107091 @1 아.(아.)
107091 #1 경 허영 널엉 물라근에 바싹 물르민 강 골아다근에 그걸로 엿 헴수게.(그렇게 해서 널어서 말리고 바싹 마르면 가서 갈아다가 그걸로 엿 합니다.)
107091 @1 음. 그게 골예?(음. 그게 엿기름이요?)
107091 #1 예, 예. 그걸로 엿 허는 거.(예, 예. 그걸로 엿 하는 거.)
107092 @1 이것 말고 또 이 동네에서 헤 먹어난 음식, 특별한 음식 잇이카마씨? 덕수리에서만 헷던 음식?(이것 말고 또 이 동네에서 해 먹었던 음식,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덕수리에서만 했던 음식?)
107092 #1 특별헌 음식은 몰르쿠다.(특별한 음식은 몰라요.)
107092 @1 음. 특별헌 음식은 몰르고.(음. 특별한 음식은 모르고.)
107092 #1 특별헌 음식은 뭐 허여 허질 허여 보질 아녀신디.(특별한 음식은 뭐 해 하질 하여 보질 않았는데.)
107092 @1 삼춘네 집이서 특별헌 음식은 무시거?(삼촌네 집에서 특별한 음식은 뭐예요?)
107092 #1 우리도 특별헌 음식 아녀 봣수다. 그 아까 골은 거 그런 거나 허주.(우리도 특별한 음식 안 해봤습니다. 그 아까 말한 거 그런 것이나 하지.)
107092 @1 으, 알앗수다. 잠깐만예.(으,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2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